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동상분 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1. 12. 13 (화), 14:00~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정몽주 초상	공개
2	허전 초상	공개
3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개
4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공개
5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공개
6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공개
7	부산 국청사 청동북	공개
8	양산 내원사 청동북	공개
9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공개
10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공개
11	몽산화상유도보설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1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공개
2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공개
【검토사항】 22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1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개
2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3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4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공개
5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공개
6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공개
7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공개
8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공개
9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공개
10	불조삼경	공개
11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공개
12	양회산법	공개
13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공개
14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도 벽화	공개
15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공개
16	양산 통도사 용화전 벽화	공개
17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공개
18	포항 중성리 신라비	공개
19	이순신 관련 고문서	공개
20	조선왕조어보 및 관련 유물	공개
21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공개
【보고사항】 3건		
1	일본 궁내청 반환 조선왕조도서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계획 보고	공개
2	증도가자 지정 가치 적정 여부 검토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공개
3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관리단체 지정 계획 보고	공개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1-06-001

1. 정몽주 초상(鄭夢周 肖像)

가. 심의사항

“정몽주 초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정몽주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정몽주 초상 및 함”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정몽주 초상”만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몽주 초상(鄭夢周 肖像)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세로172.7 × 가로104.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555년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자 충절의 인물인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 만 아니라, 비록 고려말 조선초에 제작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조선중기로 올라가는 이모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가장 오래된 정몽주초상으로 알려져 왔던 보물 제1110호본 보다도 70년 가량 앞선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온 함 역시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화면에 쓰인 ‘嘉靖□□□皐本’을 『圃隱集』에 의거하여 嘉靖乙卯臨皐本으로 볼 때 이 그림은 1555년(명종 10)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110호 정몽주 초상보다 70여년 앞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박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공신도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몽주라는 인물의 중요성, 고려말 조선초 초상화의 시대 양식이 잘 반영된 점, 현전하는 정몽주 초상 중에서 가장 시대를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전해오는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보물 1110호로 지정된 1629년 작품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정몽주 초상의 원형에 더욱 가깝다고 추측된다. 비록 다소 손상되기는 했지만 남아 있는 이목구비의 형상으로 판단할 때 정몽주의 생김새와 그의 인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윤곽선, 터럭의 묘사, 신체의 비례, 과대, 단령 트임 사이로 보이는 철릭과 답호, 교의자, 족좌 등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초상화에 능숙했던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초상화를 이모할 경우 종종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인물의 모습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초상화이며, 기량이 뛰어난 화가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형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며, 조선시대 충신으로 숭앙되었던 정몽주에 대한 지속적인 추송의 전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鄭夢周(1337~1392)는 고려 말기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迎日, 호는 圃隱이다. 1360년(공민왕9)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뒤 예조정랑, 대사성, 대제학, 문하찬성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웠으나, 조준, 정도전 등에게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들을 제거하려다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정몽주초상>의 화면 왼쪽에는 嘉靖 000皐本' 오른 쪽에는 '圃隱000像' 이라고 쓰여 있다. 『圃隱集』을 참조해 보면, 왼쪽 상단의 표제는 '嘉靖乙卯臨皐本'일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1555년(명종10)에 이모된 본으로 추정된다.

『圃隱集』 (권2, 엽8) 畫像 항목에 의하면, 정몽주의 초상화는 1390년(고려 공양왕2)에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佐命功臣에 책록되어 입각도형되었을 때의 본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이 원본은 전해오지 않는다.

이 원본으로부터 이모한 본들이 임고서원과 경기도 용인시 모현동 포은선생영당, 전라남도 장흥군 용강영당, 국립중앙박물관(이한철 중모본)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초본)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정몽주의 초상화는 모두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애초 동일한 본(좌명공신도상)으로부터 모사하였으므로 像容形式이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1555년(명종10)에 좌명공신상으로부터 직접 이모한 본이 임진왜란 후 너무 헤어지고 버지게 되자 1629년(인조7) 당시 서원의 유립들은 새로이 모사하도

록 하였으며, 1629년에 제작된 이 <정몽주초상>은 현재 보물 제1110호로 지정(1991년 12월)되어 있다.

지금 이 경기도 박물관 소장 <정몽주초상>은 1555년에 이모했던 舊本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영일정씨 종가에서 줄곧 소장하고 있다가 2006년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상태가 너무나 참혹하여 2007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친 바 있다. 화폭은 3폭이 結縫되어 고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수리시 뒷면을 확인한 결과 사모, 얼굴, 단령 뿐 아니라 족좌대(발받침대)에 이르기까지 넓게 배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초상화는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는 좌안9분면의 전신교의 좌상이다. 흑색의 사모는 帽頂이 낮고 둥글며, 좁은 兩角은 아래로 처져 있다. 단령을 원래는 靑袍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퇴색이 심하여 거의 회색계열로 보인다. 목선이 받으며 소매통이 좁은데, 이런 형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허리에는 鍍金帶를 두르고 있다.

얼굴은 옅은 살색을 주조로 하였으며, 눈, 코, 입의 일부는 박락되어 있다. 특히 왼 쪽 눈은 반도 안남아 있을 정도로 박락이 심하여 특히 유감스럽다. 갈색 필선으로 이목구비와 얼굴 주름 만을 간략하게 형용하였다. 오른 눈을 보면, 검은 선으로 위 아래 눈꺼풀을 형용하였으며, 눈 안쪽에 아주 열게 담묵을 칠하고, 홍채도 담묵으로 처리하였다. 아래 위에 속눈썹은 전혀 그려 넣지 않았다. 코의 형용은 어느 정도 보이며, 입은 어두운 적색을 묘사하였는데, 윤곽선을 따라 담묵으로 덧 그렸으며, 입술색은 아주 흐리게 칠하였다.

또한 단령의 윤곽선과 주름은 가늘고 예리한 목선으로 묘사하였으며, 양 허벅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주름 선들은 세로 선과 가로선을 교차시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의자에는 북은 방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자에 비끄러맨 맨 자색의 방석 끈이 눈길을 끈다. 족좌대 위에는 흑피화를 신은 발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으며, 족좌대 윗면과 바닥에는 아무 것도 깔려 있지 않다.

복제와 모제, 그리고 얼굴의 간결한 묘사와 의자의 방석 끈, 같은 방향으로 놓여진 양 흑피화, 단령의 트임 사이로 첩리와 담호가 겹겹이 내보이는 점 등은 전체적으로 <이천우초상><이색초상> 등 고려말 조선초의 공신도상에서 살필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자 충절의 인물인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 만 아니라, 비록 고려말 조선초에 제작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조선중기로 올라가는 이모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가장 오래된 정몽주 초상으로 알려져 왔던 보물 제1110호 본 보다도 70년가량 앞선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온 함 역시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리라 본다.



○ 내용 및 특징

좌안8분면의 얼굴에 烏紗帽를 쓰고 청색 團領을 입은 정몽주(1337~1392)의 전신 교의상이다. 화면 왼쪽 상단에 ‘嘉靖○○○皐本’, 오른쪽 상단에 ‘圃隱○○○像’이라고 쓰여 있다. 모정이 낮고 둥글며 양각이 아래로 처져 있는 사모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양식을 보여준다.拱手한 자세이며 마주한 소매 사이에 청색 안감이 살짝 보인다. 허리에 찬 鍍花金帶는 금박의 흔적이 있으며 불룩한 금선으로 모란당초문을 표현하였다. 의습선을 그린 윤곽은 매우 가늘고 채색에 묻혀 있어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설채가 얇은 편이며 비교적 얇게 이루어진 배채가 확인된다.

왼쪽 눈 부분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이 살아 있으며 야무지게 다문 입매의 표현도 단호하다. 교의의 방석에는 붉은 바탕에 금선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갈변된 보라색 끈으로 의자에 묶여 있다. 족좌대 위에 나란히 놓인 黑靴는 담묵으로 바탕칠 한 위에 작은 점을 가득 찍어 질감 표현을 하였으며 신발바닥과 연결부분에는 흰 점을 돌아가며 찍어 바느질 자국을 나타냈다. 화면을 대략 세로로 3등분한 지점에 結縫한 흔적이 있다.

화면 전체에 골고루 박락이 있으며 보물 제1110호로 지정된 초상보다 박락이 심한 편이다. 특히 왼쪽 눈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주 초상>은 오래된 원형의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기 초상화 양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초상화를 보관하는 함과 보자기가 함께 남아 있는데 경첩과 자물쇠 부분에는 연화문이 음각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화면에 쓰인 ‘嘉靖○○○皐本’을 『圃隱集』에 의거하여 嘉靖乙卯臨皐本으로 볼 때 이 그림은 1555년(명종 10)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110호 정몽주 초상보다 70여년 앞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박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고

려 말에서 조선 초의 공신도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몽주라는 인물의 중요성, 고려말 조선초 초상화의 시대 양식이 잘 반영된 점, 현전하는 정몽주 초상 중에서 가장 시대를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鄭夢周, 『圃隱集全』 卷二 「畫像」.

趙善美, 『韓國肖像畫研究』, 悅話堂, 1983, pp. 96~100.

□

○ 현 상

현재 족자 형태로 2007년 수리하였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작품의 손상 및 결손 부분은 수리시 비단으로 보완하였으나 가필은 하지 않았다. 유소 및 축은 원래의 것이다. 화면은 세 쪽의 비단을 세로로 잇대어 구성했다.

얼굴 부분에 손상이 다소 심하여 왼쪽 눈, 코를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대략의 이목구비를 추정할 수는 있다. 의복 부분에도 박락과 결손 부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작품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 내용 및 특징

고려 후기 문신이며 성리학자였던 포은 정몽주(1337~1392)의 초상화로 조선시대인 1555년 이모한 것이다. 이모의 근거는 작품 왼쪽 위에 “嘉靖 000 皇本”이라고 적혀 있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소재한 임고서원에서 명종10년(1555)에 정몽주의 초상화를 임모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까지 문중에서 계속 보관해 오던 이 작품이 바로 1555년 임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검은 사모를 쓰고 회청색 단령을 입었으며 두 손은 앞으로 공수하여 소매 속에 넣었다. 몸을 약간 오른쪽을 튼 자세로 검은 교의자에 앉아 있으며 흑혜를 신은 두 발은 가지런히 족좌대에 얹어 놓았다.

얼굴은 가는 선을 사용하여 윤곽과 터력을 묘사했으며 명암은 가하지 않았다. 상반신이 크고 하반신이 다소 작아 보이는데 풍성한 단령은 가는 의습선으로 형태를 묘사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현재 전해오는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보물 제1110호로 지정된 1629년 작품이 가

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정몽주 초상의 원형에 더욱 가깝다고 추측된다. 비록 다소 손상되기는 했지만 남아 있는 이목구비의 형상으로 판단할 때 정몽주의 생김새와 그의 인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윤곽선, 터럭의 묘사, 신체의 비례, 과대, 단령 트임 사이로 보이는 철릭과 답호, 교의자, 족좌 등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초상화에 능숙했던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초상화를 이모할 경우 종종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인물의 모습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초상화이며, 기량이 뛰어난 화가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형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며, 조선시대 충신으로 숭앙되었던 정몽주에 대한 지속적인 추송의 전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

기 지정된 정몽주 초상 현황

종별	번호	명 칭	소유자 주소	소유자	수량	지정번호	관리자 주소	제작연대
보물	1110	정몽주 초상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161	임고서원	1폭	91/12/16	국립경주박물관	1629년 (인조 7년)

2. 허전 초상(許傳 肖像)

가. 심의사항

“허전 초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허전 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허전 초상”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4차 회의('11.08.23)에 검토에서 현품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된 후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현품이 검토되고,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허전 초상(許傳 肖像)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점
- 규 격 : 세로136.0 × 가로71.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9세기 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허전초상>은 조선조 문신 초상화 중 유복분 초상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초상화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핵심개념인 이른 바 ‘傳神寫照’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허전의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기질과 성격, 그리고 노학자로서의 관록 등이 화면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19세기 후반의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철저한 관찰에 입각하여 안모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묘사한 점, 복색의 색감표현이 은은하고 푸른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격조있는 분위기를 창출한 점, 『주자대전』을 펼쳐 놓음으로써 인물상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점 등 한마디로 傳神에 성공한 초상이다.

양호한 보존상태, 단정하고 섬세한 붓질, 학덕과 인품을 느끼게 하는 깊은 눈빛의 표현, 은은한 복색의 깊은 맛, 신중하면서도 자신있는 필치 등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19세기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초상화는 공신상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복본 초상화가 대중을 이룬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평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일부 전해 오는데 대개는 복건에 심의 차림으로 주변에 다른 기물이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와룡관과 심의의 일종인 학창의 차림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과 함께 그려진 초상은 이 작품보다 후대인 1869년에 그려진 보물 제1499호 이하응 초상화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점차로 서양화법까지 도입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추구했다. 허전 초상의 안면 묘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지극히 섬세한 세필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생생하게 살렸고 가는 필선과 반복되는 붓질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다.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적 완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을 독특한 복식과 구성을 통하여 알려주는 흥미로운 초상화이며, 높은 수준의 기법적 완성도를 통하여 인물을 마치 살아 있는 듯이 재현했다.

따라서 극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초상화의 예술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다양한 면모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시각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허전(1797~1886)은 조선조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陽川, 자는 而老이고 호는 性齋이다. 1828년(순조28) 庠試에 합격하고, 1835년(헌종1) 39세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崇陵別監이 되었다. 전적, 지평, 이조좌랑을 거쳐 1847년 咸平縣監으로 나갔는데, 형률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벌 기구를 모두 없앴으며, 호도, 공경, 친목의 도리로 깨우쳤다고 한다. 그러나 안찰사와의 불화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850년에는 교리를 거쳐 수찬이 되었을 때 대사간 趙夏望(1682-1747)의 관작추삭에 반대하다가 맹산에 유배되었으나, 중도에 풀려났다. 철종의 명을 받아 『土儀』라는 禮記를 편수하였다. 그가 저술한 『사의』는 조선말 近畿 실학파의 참신한 학풍을 바탕으로 역대의 예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찬한 저술인데, 주자의 가례를 보완하고 주석하는데 몰두했던 종래의 예학 풍조에서 벗어나 예제를 강구하는데 있어 합당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864년(고종1)에는 우부령이 되고, 이어 김해부사가 되어 鄉約을 강론했다. 병조, 형조, 이조의 참판, 한성관윤, 병조판서, 성균관동지사, 경연지사, 홍문관제학을 역임했으며,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86년(고종23) 90세로 崇祿大夫에 올라 돈녕부판사가 되었다. 문집에 『性齋文集』, 저서로는 이상적 군주상을 그린 『宗堯錄』과 『哲命編』 등이 있다.

허전은 타고난 바탕이 영특하고 호매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가학을 이어받아 먼저 효경을 읽었다. 黃德吉(1750~1827)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는데, 그는 우리 학문의 眞訣을 극한 사람이다라고 까지 극찬했다. 조정에 나간 후에도 허전은 성품이 강직하여, 조정에서는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으므로 외직으로 많이 돌아왔다. 그는 가는 곳마다 풍속을 순화시키고 치적을 올렸으므로, 당시의 안찰사 趙斗淳(1796-1870)은 ‘기린이 없다고 들었는데, 기린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할 정도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경연에 들어가 소학을 강론하기도 하고, 임금께 어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 드리고 예법이 가장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허전은 李灝(1681~1763), 安鼎福(1712~1791), 황덕길로 이어지는 畿湖의 남인 학자로서 당대 유림의 종장이 되어 영남 퇴계학파를 계승한 柳致明(1777~1861)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문중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전해오는 허전의 초상화는 생전에 어명으로 그려졌다 한다. 초상화는 본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1891년 문집 본판이 완성되고 이어 허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생들이 1891년(고종28)에 경상남도 산청군에 세운 재실인 麗澤堂이 완공된 뒤 1916년 勿山影堂(재실내 영정을 모셔놓은 건물의 당호)를 지으면서 이안되었다가 다시 2008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허전은 이 초상화에서 치포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의연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다. 허전 앞에는 입식 서안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朱子大全』이 包匣 채 놓여 있고, 그 중 한 권은 빼내어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조선시대 초, 중기 초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탁이나 집기 등 비설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이후 <운동섬초상> <임매초상> <이하응초상> 등 일부 초상화의 경우, 인물 주변이나 옆에 놓인 탁자 위에 서책 뿐 아니라 고동기물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그들의 신분이나 취향을 함께 보여주게 된다. <허전초상> 역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허전초상>의 세부를 보면, 안면의 외곽선 및 이목구비 등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두 선을 구획되어 있으며, 골상법의 보편적 기준에 준하여 안모의 특징을 묘사하였지만, 선생만의 개성적인 특징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피부의 결은 육리문을 딸 잇대어 그려져 안면이 지니고 있는 높고 낮은 형세를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의습선은 윤곽선을 선으로 포착하고 회색 묵선으로 일단 주름 처리한 위에 짙은 회색선으로 재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초상화에서는 화가가 허전이란 인물을 마주하고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하였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눈을 보면, 위 눈꺼풀 및 아래 눈꺼풀을 그은 선은 결코 단호한 선이 아니라 유연하다. 동공 역시 검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홍채부분은 살색이 감도는 회색을 칠하여 나이가 들면서 탁해진 노인 특유의 흰 자위를 보여준다. 한편 속쌍꺼풀 위에도 위 눈꺼풀이 늘어져 다소 성깔 있어 보이는 눈매에선 오백년 조선 예학의 결산이라고 평가 받는 예기를 편수했고, 향약을 강론하였으며 유풍을 진작시켰던 노학자의 만만찮은 관록이 보인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허전초상>은 조선조 문신 초상화 중 유복본 초상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초상화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핵심개념인 이른 바 ‘傳神寫照’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허전의 생김새 만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기질과 성정, 그리고

노학자로서의 관록 등이 화면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 현 상

<허전 초상>은 보수한 흔적이 없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黑冠에 深衣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조선후기의 문신 허전(1797~1886)의 전신상이다. 얼굴은 갈색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잡고 肉里文을 따라 가늘고 얇은 선으로 피부의 결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선의 밀도를 많고 적게 조절하여 굴곡진 곳과 볼륨감을 나타냈다. 특히 눈썹의 형태, 검은색으로 담채한 눈동자, 속눈썹, 처진 눈꺼풀, 여러 겹의 속쌍꺼풀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晝匣 등의 푸른색과 화문석 무늬의 붉은색이 보여주는 절제된 채색의 사용은 은은한 심의의 색감과 잘 어울린다. 깊게 다문 입술, 흑관 안에 비치는 흰 머리카락, 의자를 덮은 푸른 천과 신발의 흰색 바늘 땀, 살짝 꺾인 옷주름의 미세한 표현, 관모 끈의 매듭과 술 등 어느 한곳 소홀하게 지나친 구석이 없다. 서안 위에는 서갑에 싸인 『朱子大全』이 놓여 있으며 한 권은 「四齋銘」과 「敬齋箴」이 쓰인 부분이 펼쳐진 채로 서갑에서 나와 있다. 족좌대 위의 발은 八字形으로 벌어져 있고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다. 족좌대 위에 깔린 화문석을 고정할 못에는 금철이 확인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19세기 후반의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철저한 관찰에 입각하여 안모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묘사한 점, 복색의 색감표현이 은은하고 푸른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격조있는 분위기를 창출한 점, 『주자대전』을 펼쳐 놓음으로써 인물상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점 등 한마디로 傳神에 성공한 초상이다.

양호한 보존상태, 단정하고 섬세한 붓질, 학덕과 인품을 느끼게 하는 깊은 눈빛의 표현, 은은한 복색의 깊은 맛, 신중하면서도 자신있는 필치 등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19세기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조선미, 『한국의초상화』, 돌베개, 2009, pp. 373-377

□

○ 현 상

현재 족자 형태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화면의 극히 일부가 박락되었고, 약간 꺾임이 있으며, 비단이 들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었다. 비단의 상태, 먹과 안료의 색상도 우수하다. 족자도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유소도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선 후기 문신이며 유학의 거두였던 허전(1797~1886)의 초상화다. 조선시대 초상화로서는 드물게 와룡관을 쓰고 평상복인 학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앞에 책상이 놓이고 그 위에 서책까지 표현되어 있어 초상화로서는 희소한 경우이다.

검은 와룡관을 쓰고 흰 바탕에 검은 연을 두른 풍성한 학창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두 손은 소매 속에 넣어 맞잡고 있는 듯하다. 책상 위에는 푸른 포갸에 싸인 <주자대전>이 있고 그 중 한 권은 <四齋銘>이 있는 부분을 펼쳐 놓았다.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다. 얼굴을 비롯하여 관모, 의복, 기물이 모두 극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선시대 초상화는 공신상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복본 초상화가 대중을 이룬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평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일부 전해 오는데 대개는 복건에 심의 차림으로 주변에 다른 기물이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와룡관과 심의의 일종인 학창의 차림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과 함께 그려진 초상은 이 작품보다 후대인 1869년에 그려진 보물 1499호 이하응 초상화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점차로 서양화법까지 도입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추구했다. 허전 초상의 안면 묘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지극히 섬세한 세필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생생하게 살렸고 가는 필선과 반복되는 붓질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다.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적 완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을 독특한 복식과 구성을 통하여 알려주는 흥미로운 초상화이며, 높은 수준의 기법적 완성도를 통하여 인물을 마치 살아있는 듯이 재현했다.

따라서 극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초상화의 예

술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다양한 면모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시각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3.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심의사항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성주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02
- 수 량 : 불상 3구
- 규 격 : 석가여래좌상 상높이 128.5cm 무릎폭 87.5cm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112.5cm 무릎폭 73.5cm
약사여래좌상 상높이 112.5cm 무릎폭 78.5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55년

○ 제 작 자 : 녹원(鹿苑), 지현(知玄), 찬인(贊印), 혜정(惠淨) 외

라. 내용 및 특징

성주사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의 제작 시기는 “順治十二年”인 1655년에 조성되었고, 불상조성에는 鹿苑, 知玄, 贊印, 惠淨 등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석가여래는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보다 크게 조성되었는데, 이는 삼세불 중 주불로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세불상은 전체적인 신체 비례는 알맞지만 하체에 비해 어깨와 가슴의 폭이 좁아 상체가 빈약한 인상을 준다. 상호는 조선 후기 불상에 비해 좁고 길며 양쪽 귀는 얼굴보다 크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머리는 육계의 구분이 거의 없는 둥근 형태로,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월형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상호는 넓은 이마, 눈꼬리가 끝부분에서 살짝 올라간 눈, 큼직한 코, 끝부분이 살짝 올라간 입술 등이 온화한 인상을 풍긴다. 상체에 비해 무릎이 높고 넓은 편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세 불상은 기본적으로 상호와 신체비례 등이 동일하며 존상에 따라 수인과 옷주름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난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뜨린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데, 왼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착의법은 왼쪽 어깨를 덮은 변형된 편단우견을 하고 있으며, 옷주름은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한쪽 손을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올린 중품하생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손의 위치는 서로 반대이다. 착의법은 안에 편삼을 걸친 변형된 통견식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제작을 주도한 녹원, 지현, 혜정은 모두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이다. 녹원은 1673년 경남 응천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현은 1648년 전남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보물 제1566호), 1657년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5호) 등의 제작에 참여했고, 혜정은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전남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의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으로 1657년에는 지현과 함께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 명문

① 造成施主記： 昌原熊神寺新造佛像施主記」時維「順治十二年乙未春始役其年仲秋訖工佛像三尊腹藏點眼時大檀」信與緣化等品名開列于后」佛像大施主通政

大夫崔大英兩主佛像大施主金鮒魚兩主佛像大施主鄭有」禮兩主佛像施主鯤海比丘
佛像施主宋出男兩主面金大施主金武生兩主」烏金施主崔禮男兩位施主者斤介兩主
施主崇德靈駕施主李得憐兩主」施主李本立兩主施主尹厚是兩主施主蕊德兩主施主
今介兩主施主李芑」 卍兩主施主李尙日兩主施主朴上保體施主金愛龍兩主施主姜滄
孫兩主施主」徐起琳兩主鄭莫男兩主姜日立兩主金貴仁兩主靈駕莫德兩主崔貴希兩
主崔雄梅」兩主李知部兩主愛花保體崔厚男兩主南莫山兩主蔡元卓兩主朱文生兩
主」 耑保體 卍眞兩主閏河兩主闔愛卜兩主姜難金兩主難代兩主成德龍」兩主朴連
孫兩主 緣化秩 證明能清比丘持殿熙尙比丘 畫員鹿苑比丘 知玄 贊印比丘」 **惠淨 道
聖比丘 明信 肯聖比丘 明眼 學倫比丘 印宗印信比丘** 別座弘衍比丘曇惠比丘供」
養主靈竺琢靈敬禪天學學璉比丘李春孫兩主秋希卍兩主佛像大主勸化一珠比丘」化
士性悅別座儀元天眼成立後良淡沙里乙」寺內秩心印知清知○忠印先」三綱戒信」
②慶尙右道昌原南面佛母山聖住寺三世如來靈山主佛改金與三壇幘能天主所付各庵
幘并爲十五部繪畫腹藏文：慶尙右道昌原南面佛母山聖住寺三世如來靈山主佛改金
與三壇幘能天主所付各庵幘所爲十五部繪畫腹藏文」噫眞體無相法身無形不可以形
相求佛也然而佛乃渡生之大父僧是濟物之慈航若非佛僧之力其滯溺人何可渡乎故優
填國王刻旃檀作相」金泥畫影爲群生大導師焉今此聖住寺者新羅獻康大王時兩朝無
染大師曆銓開基創建之處也而物盛而衰古來皆然故壬裏水蛇之歎居僧四潰吁其」間
幾何年之空址耶康熙壬戌熊信寺僧謀議發興重建舊址聖住之中興可指日而待也嗟甲
子未還壇上如來金色脫落掛壁畫相彩光飛出居」者之悶過客之愁適有年矣雍正戊申
本寺龐眉六七取頭相議曰何人此事可以重之諾曰碧巖之紗攝閑之子眞淨道人適當其
首也然不應何」已言之於是強要請之則道人掉頭叱擲曰修道之人何來○也復歸如是
者凡爲五度不得應諾未數月間取財十餘萬錢己酉端陽之月請工一以塗金一以爲」繪
畫不數月而訖功仍爲奉安金色尊容燦爛於壇上依俗鹿野園之重說泥金畫相瑞凝於寶
殿彷彿靈鷲山之拈花禪風再煽明月更照偉哉眞淨道人功」與天地無窮亘萬世長今如
此慶事畧舉而以示後來云爾」 **雍正七年卽」聖上卽位之六年己酉**」本道方伯朴文
秀」本府城主具吁」施主秩」改金婆幘大施主嘉善靈悟靈駕」供養改金大施主嘉善
天淑保體」改金布施大施主嘉善覺仁保體」改金婆幘大施主通政贊機爲」父李龍立
保體」改金大施主通政一清爲亡師」通政大夫宗密靈駕」改金大施主通政通慧保體
爲」亡父劉祥雲兩主靈駕」改金大施主通政熙眼伏爲」亡父金賢立兩主靈駕」改金
大施前判事玉贊保體」改金大施主通政再英伏爲」亡父通政崔敏道兩主靈駕」改金
供養施主比丘智軒伏爲」亡母高氏禮良兩主靈駕」婆蕩施主嘉善信敏伏爲」亡父金
斗星靈駕」緣化秩」大德證明道人瑞華」誦呪道人震日」持香道人一清」龍眼比丘
性澄」信淨」漢英」印行」漢英」世冠」國英」炊供兼來往隨喜道人致眼」比丘山
人眞性」偉贊」光明比丘淨淳」以學」鍊軸通政處鑿」都監嘉善信敏」別座通政比

丘一雲」大功德主碧巖嫡孫道人眞淨」本寺三綱」兼和尚前判事戒英」首僧 丹益」三寶 善覺」直社 太雲」書記 丹旭」

③ 改金記願文：佛本法身不垢不淨不增不減常住如「百千萬億前化佛身或垢或淨或增」或減也是故今此三尊佛像亦復是自所成以來幾百年之下脫金染垢體」不潔矣奇松漢中興金定慧月特以願力自發勸他同心合力灌浴塗金則」金光新鮮體像慈偉德相嵬」必能大度於現未來際衆生也我等以此因」緣功德世」增發菩提究竟圓成佛果之願」緣化秩」證明 一鳳敬念」誦呪 南化修鍊」金魚 石霞施讚」靈徹」鍾頭 介珣」供司 戒潤」都監」化主 奇松漢中」設辦化主 金定慧月金青蓮華」施主各」等」本寺秩」住持 暎月敬玉」監務 玩溟其麟」法務 惺海龍佑」上持殿德海應鍾」中持殿慶庵戒欣」印虛性文」桂潭其聖」山監斗洪」晟泰」鎬用」負木永秀」佛紀二千九百五十六年己巳十二月日」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경상남도 창원시 선산구 성주동 성주사에 있는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본존상의 높이가 128.5cm이고, 본존 좌우측의 약사여래상과 아미타 여래상이 모두 112cm로 상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부처의 얼굴의 형태가 길쭉하며 귀가 유난히 큰 편이다. 또한 가슴허리의 길이가 길고 무릎의 폭이 넓어서 상 전체에 안정감이 있다.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에 울동감이 있으며 왼쪽 무릎 위 세 가닥의 겹쳐진 주름이 장식적이다. 상의 복장에서 나온 조성기에 의하면, 이상은 처음부터 창원에서 조성되었으며 熊神寺에서 順治 12년, 1655년(효종 6)에 불상 삼존을 만들었으며 많은 시주자가 參與하였고 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은 鹿苑비구를 비롯하여 知玄, 贊印 惠淨 道聖등 모두 11명이다. 조각승 녹원은 1673년 경상남도 웅천 성흥사의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고 하며, 이 성주사상은 녹원이 관여한 가장 이른 불상이다.

불상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의 전형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불상양식의 단계는 아직 보이지 않으며 상의 우수성이나 좋은 보존 상태는 이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계속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가치 있음)

조성시기와 조각승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세불의 규모가 웅대하고 상호도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가치 있음)

목조삼세여래좌상은 대좌를 갖추고 있는 온전한 상태의 조선시대 17세기 중반의 불상이다. 이들 불상은 造像施主記에 기록되어 있듯이, 조선시대 1655년에 조각승 鹿苑 등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비교적 큰 눈두덩과 콧방울 부분의 처리 등 상호의 표현 방식은 조각승 印均에 의해 조선시대 1633년에 김제 귀신사 영산전에 조성된 목조석가불좌상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불상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유난히 큰 귀로, 이는 녹원에 의해 1655년에 조성된 부산 기장 장안사 불좌상에서도 볼 수 있어서 녹원의 조각풍의 하나라고 봐도 될 듯하다.

한편 목걸이를 상상하게 하는 삼도의 표현도 주목되는데, 녹원의 다른 작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주기에 보이는 녹원 외의 조각승인 知玄이나 贊印, 惠淨, 道聖 등의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 중에서 찬인은 처음 밝혀진 조각승이다. 즉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각승이 초빙되어 목조삼세여래좌상의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조각승의 교류 관계를 이들 불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성주사 목조삼세여래좌상은 조각의 수준이 높고 보존 상태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불상들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조상시주기와 개금기, 복장기 등이 남아 있어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고 하겠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 (지정가치 있음)

이 삼존불상은 17세기 대 들어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공간적 삼세불이다. 조성시주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1655년 봄부터 불상 제작을 시작하여 그 해 가을에 조성공사를 마치고 복장 점안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고 한다.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은 鹿元, 知玄, 贊印, 惠淨, 道聖, 明信, 肯聖, 明眼, 學倫, 印宗, 印信 등이다. 수조각승 녹원은 이 작품 이외 1659년에 기장 장안사 석가여래삼불상과 1673년에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시왕상 조성에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수조각승 녹원의 작품 중 이 불상 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불상은 아직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녹원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삼존은 모두 육계가 드러나지 않는 반구형의 머리,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부착한 나발, 이마가 넓고 턱 부분이 좁은 역 사다리꼴의 가름한 얼굴형, 부드럽게 반개한 눈, 낮은 코 뿌리에서 갑자기 돌출한 큼직한 코, 부드러운 입술, 두툼한 턱, 그리고 원통형의 목에 세밀하게 처리한 삼도, 두터운 대의에 표현된 힘 있는 주름 등에서 수조각승 녹원의 조각적 역량과 작품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조각적

특징은 수화승 녹원이 이 보다 3년 뒤에 제작한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각적 완성도나 종교적, 예술적 감성은 이 삼불상이 단연 돋보인다.

이 삼불상은 수화승 녹원의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이자 그의 작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각승 녹원의 작품세계와 활동, 그리고 17세기 중엽경의 조각사를 연구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석가여래좌상, 1655년, 나무, 상높이 128.5 무릎폭 87.5



아미타여래좌상(우), 1655년, 상높이 112.5 무릎폭 73.5



약사여래좌상(좌), 1655년, 상높이 112.5 무릎폭 78.5

昌原熊神寺新造佛像施主記
 時維
 以治十二年乙未春始役其年仲秋訖工佛像三尊股龍點眼時大檀
 信區綠化寺邑開列于后
 佛像大施主道啟大夫崔大英而主佛像大施主金鮒魚而主佛像大施主鄭有
 禮而主佛像大施主鯤海以立佛像大施主梁出男而主面金大施主金武生而主
 烏金佛主崔禮男而主位神主若介而主佛主崇德是駕佛主李得憐而主
 佛主李年立而主佛主尹厚世而主佛主以物吐德而主佛主介而主佛主李邑
 朴而主佛主李高日而主佛主朴上供佛主金受龍而主佛主李注以孫而主佛主
 徐起琳而主鄭美男而主姜日立而主金貴仁而主姜德而主崔貴亦而主崔雅梅
 而主李知郭而主愛花佛佛崔厚男而主南妻小而主榮元而主宋文吉而主
 姜以依條體加真而主閔河而主閔受卜而主姜雅全而主難代而主成德龍
 而主朴連孫而主儀化杖錄明能濟比血持殿照高比血董五鹿花比血知玄積印比血
 養淨通聖比血明信音聖比血明眼聖倫比血印宗印信比血別座私的比血墨惠比血供
 養主是聖珠是敬祥大聖學建比血李春孫而主秋希而主佛像大勸珠比血
 仁主性悅別出元天眼戒主後良發沙里主
 寺內執心印 知請知印密監印免
 三願成信

조성시주기, 1655년, 종이, 1매

4.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

가. 심의사항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는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
- 소유자(관리자) : 관룡사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좌
- 규 격 : 석가여래좌상 상높이 150cm 무릎폭 98cm 대좌 74×117×92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124 무릎폭 80 대좌 64×98×88.5
약사여래좌상, 상높이 122 무릎폭 82.5 대좌 64×98×81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30년

○ 제 작 자 : 현진(玄眞), 승일(勝一) 외

라. 내용 및 특징

관룡사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대좌에 기록된 묵서를 통해, “崇禎二年”인 1630년 5월에 조성되었고, 불상조성에는 玄眞, 勝一, 天敏, 守英 등의 조각승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삼세불상 중 석가여래는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보다 약간 크게 제작하여 삼불의 주불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세불상의 비례는 신체에 비해 頭部가 큰 편으로, 방형의 얼굴에 양쪽 볼에 풍부한 양감이 드러난다. 머리는 육계의 구분이 거의 없이 둥근 형태로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월형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상호는 반개한 두 눈과, 뾰족한 코, 넓은 인중, 끝부분이 살짝 올라간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루어 단정한 인상을 풍긴다. 둥글게 처리한 어깨는 넓은 편이고, 상체에 비해 앉은 자세는 상대적으로 무릎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세 불상은 기본적으로 상호와 신체비례 등이 동일하며 존상에 따라 수인과 옷주름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난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뜨린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착의법은 왼쪽 어깨를 덮은 변형된 편단우견을 하고 가슴아래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내의는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옷주름은 간략하면서도 끝단을 동그란 곡선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한 손을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올려 중품하생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손의 위치는 서로 반대이다. 착의법은 안에 편삼을 걸친 변형된 통견식으로, 가슴 아래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내의 역시 석가여래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불상 조성을 주도한 玄眞과 勝一은 모두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승이다. 현진은 1612년 경남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 1686호), 경남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56호), 1614년 전남 구례 천은사 목조보살좌상, 1626년 충남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1633년 충남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65호) 등 다수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승일은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7호), 1639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8호) 등의 조성에 참여한 화승이다. 1630년에 제작된 관룡사 목조삼세여래좌상은 현진의 말년에 조성된 상이면서, 승일이 처음으로 현진과 함께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상이다. 조선후기 조각승 현진과 승일의 관계를 비롯해 이후 불상 양식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불상이다.

○ 명문

臺座墨書：證明義心」畫員玄眞」勝一」天敏」守英」坦行」哲義」持殿」印岑」緣化秩」貞熙」義一」圓洙」玉晶」法燐」化主性允」崇禎二年己巳十月日佛像造成」五月十四日己畢」

文化財廳 『觀龍寺大雄殿修理報告書』 (2002)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경상남도 창녕군 관룡사의 목조석가여래삼불상은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상이다. 본존불의 대좌 밑쪽에 묵서를 통해 崇禎2년, 1629년(인조 7), 己巳 10월에 불상조성을 시작해서 그 다음해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승에는 玄眞, 勝一, 天敏, 守英등 8인이 참석하였는데 그중의 대표 격인 玄眞은 17세기 초에 경남 함양 상령대보살상, 전라남도 구례 천은사의 목조보살상 충청남도 보은 범주사 소조아미타여래삼불상조성에 참여하였으며 이 상은 비교적 현진의 말년에 제작한 상이다.

본존 석가여래불좌상은 높이가 150cm로 비교적 큰상에 속하며 양쪽의 불상들은 본존보다 크기가 작게 120cm정도의 크기이다. 불상들은 얼굴형이 네모나고 코가 유난히 높고 크며 입과 턱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상의 인상이 약간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이다. 또한 불상의 옷주름 처리가 단순하고 넓은 면으로 울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結跏趺坐한 다리부분의 폭이 짧은 편으로 불상의 안정감과 위엄스러움이 약간 쇠퇴되었다.

조각승 현진의 초기불상에서 보이던 예쁘장함은 사라지고 대형의 범주사에서 보이던 엄숙한 표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진스러운 모습에서 현진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각승 승일과는 처음으로 같이 제작하였으며 승일이 제작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석가여래삼불상, 경상남도 하동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조상과 같은 상에서 그 양식적 계승의 특징이 보인다. 17세기 전반의 불교조각으로 불상양식이나 조각승들의 師承관계와 양식의 계보를 잘 알려준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세 불상자체가 보여주는 종교적인 무게감으로도 중요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하다고 본다.

○ (지정가치 있음)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가운데 하나인 현진이 수화승을 맡아서 제작한 삼세불상으로 조형적으로 뛰어난 조선후기의 불상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

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가치 있음)

목조삼세여래좌상은 대좌에 새겨진 묵서명에 통하여 조선시대 1630년에 조각승 玄眞과 勝一 등이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동감과 입체감이 돋보이는 현진 불상의 초기 작품과 달리, 이 불상들에 보이는 다소 밋밋하며 평판적인 느낌은 그의 후기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현진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결가부좌한 무릎 사이로 흘러내린 정중앙의 옷주름 단이 세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들 불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존 모두 양팔의 길이가 짧게 조각되었으며, 코의 길이 역시 그다지 길지 않은 것도 현진의 작품이다. 특히 턱 부분에 뚫린 작은 구멍은 현진에 의해 1614년에 구례 천은사에서 조성된 목조보살좌상들에서도 확인되어 현진 작의 또 하나의 표현 방법임을 알려 준다.

관룡사 목조삼세여래좌상은 현진 작 불상 중에서 후기적인 특징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서 조각승의 개인적인 작품이나 조선시대 17세기 초의 불상 양식 연구의 기준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좌까지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목조삼세여래좌상은 크기나 조각의 수준을 통하여 볼 때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지정가치 있음)

이 석가여래삼존불상은 대좌 밑면에 기록된 묵서명에 의하면 승정 2년(1629, 인조7) 己巳年 10월에 불상 조성을 시작하여 다음해 五月에 造成役事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화원은 玄眞, 勝一, 天敏, 守英, 坦行, 哲義 등이 참여하였다. 현진은 17세기 전반기에 크게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이고, 승일은 현진, 무염, 청현 등 17세기 전반기 대화승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간 조각승 중 하나이다. 이 삼불상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를 협시로 하는 석가여래삼불형식이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임진왜란 이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진행된 재건 불사의 과정과 이에 따른 가람배치의 변화 및 사상적, 신앙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불상으로 생각된다.

이 삼불상은 현진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작은 얼굴에 늘씬하고 청년적인 이미지에서 단구적이고 통통한 아동적인 이미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단구적인 양식은 현진의 조각에서 163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많이 구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불상은 163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현진과 승일 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조각하였다는 점에서 조각승의 활동과 계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7세기 전반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석가여래좌상, 1630년, 나무, 상높이 150 무릎폭 98 대좌 74×117×92



아미타여래좌상(우), 1630년, 나무,
상높이 124 무릎폭 80 대좌 64×98×88.5



약사여래좌상(좌), 1630년, 나무,
상높이 122 무릎폭 82.5 대좌 64×98×81



석가여래좌상 대좌 목서



아미타여래좌상 대좌 목서



약사여래좌상 대좌 목서
(사진제공: 영산문화재연구소)

5.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咸陽 法印寺 甘露王圖)

가. 심의사항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1)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는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442호(2006.04.06.지정)
- 명 칭 :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咸陽 法印寺 甘露王圖)
- 소유자(관리자) : 법인사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3
- 수 량 : 1폭
- 규 격 : 142.5×142.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 1726년
- 제작자 : 채인(彩仁), 일민(日敏), 태현(太玄)

라. 내용 및 특징

함양 법인사 감로도(甘露王圖)는 1726년에 彩仁, 日敏, 太玄 등 세 화사가 안국암에 봉안하기 위해 함양군 금대암에서 제작한 하단탱 불화이다. 현재 이 불화는 법인사에

봉안되어 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함양포교당(법인사)이 세워지면서 이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견 당시에는 족자 형태였지만, 보수처리과정을 거쳐 액자형태로 변화하였다.

법인사 감로도의 화면 구성은 내용에 따라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진다. 상단 중앙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칠여래를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 인로왕보살, 좌측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중단 중앙에는 齋壇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고 재단 오른쪽으로 천도재를 집행하는 작법승과 참여하는 후손들을, 재단 왼쪽으로 왕후장상을 표현하였다. 재단 앞에는 합장하고 있는 아귀를 배치했는데 보통의 감로도에서 보이는 한 쌍의 아귀가 아닌 단독상으로 그려졌다. 아귀는 전체적으로 밝고 차분한 의복을 입고 있으며, 표정 또한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 일반적으로 감로도에 표현되는 아귀와는 다르다.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 주변에는 천도의 대상인 천인, 선인, 왕후장상, 승려 등이 마치 의례의 참석자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그림 좌측 상단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산불로 죽음을 맞는 이, 집이 무너져 죽은 이, 호랑이에게 화를 당한 이, 홍수로 죽은 이 등 당시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다.

상단과 중단 사이에는 경계 짓기 위해 구름과 나무를 배치하였으며, 황갈색 배경에 어울리도록 구름을 녹색, 분홍, 노랑 등 밝은 색을 사용하였고 나무도 수묵으로 표현하였다. 각 인물과 상황은 세밀한 선묘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적색과 녹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청색으로 의습선 끝자락을 마무리하여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인물표현은 상단의 여래와 마찬가지로 가는 선묘를 사용하여 얼굴과 의습선 등을 묘사했고, 둥근 얼굴에 눈과 코, 입은 작게 표현했다. 승려와 후손의 모습은 당시 복식을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과 유사한 도상을 가진 작품으로는 고성운흥사감로탱화(173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가 있다. 법인사 감로도에서 수화승을 맡은 채인은 18세기 전반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義謙과 관련이 있는 화사이며, 운흥사 감로탱화 조성에도 참여하였다. 채인과 일민은 1722년 의겸이 주도하는 청곡사영산회괘불탱(1722년, 국보 제302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의겸의 영향을 받았다. 법인사 감로도 외에도 채인이 주도한 도림사 아미타회상도(1730)도 전체적인 구도나 필선, 형태 등이 의겸작과 매우 유사하다.

○ 화기

畫記：雍正四季丙午四月日慶尙右道咸陽郡方丈山金臺庵下壇幀造成」奉安于

安國庵」 施主秩」 基布施主金氏兩主保体」 施主金振玉兩主保体」 施主林斗仁兩主保体」 施主一雄」 施主信侃比丘」 緣化秩」 證師永休比丘」 霜菊比丘」 持殿景和」 坦湖比丘」 誦呪智學」 □行」 曇澄比丘」 畫員彩仁」 日敏」 太玄」 比丘」 供饋守藏比丘」 大日」 天俊比丘」 來往順英」 時住持素敏比丘」 老德道澄」 慈尙比丘」 大禪師天悟」 別座妙覺比丘」 化主性覺」 引勸化主英海比丘」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이 그림은 화기에 의하면 원래 안국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함양군 금대암에서 제작되었다.

화면의 구성은 상부에 칠여래, 인로왕보살, 관음·지장보살을, 중심부에는 齋壇, 아귀, 법회를 주관하는 작법승, 참여하는 후손들이, 그리고 하단에는 산불, 호랑이, 홍수 등 사람들이 죽는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등, 18세기의 일반적인 감로왕도 도상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얼굴을 비롯한 몸체의 윤곽선과 의복 등의 묘선이 매우 섬세하며, 적색과 녹색을 중심으로한 비교적 엷은 부채법과 잘 어울려 화면전체에서 부드러운 화취가 느껴진다. 더구나 칠여래 아래의 소극적인 나무 표현, 표정이 없는 듯한 아귀의 묘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에 걸 맞는 강한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먹으로 표현한 영혼의 형상이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이 그림은 화면 아래의 화기에 의하면 1726년에 彩仁, 日敏, 太玄 등 세 화사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들은 18세기 전반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義謙의 화업에도 참여하였다. 수화승인 채인은 운흥사 감로왕도(173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제작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인지 양자는 도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현존 감로왕도가운데 제작시기가 비교적 이르고, 당시의 화풍을 잘 전해주고 있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다. 지정명칭은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로 하여야 한다.

○ (지정가치 있음)

1726년 의겸과 화승인 채인과 일민 등이 제작한 이 감로도(도)는 함양 금대암에서 조성하여 안국암에 봉안했던 것이다. 정사각형의 화면은 전체적으로 가로와 세로로 접힌 자욱이 많지만 보존처리를 거쳐서인지 화면의 상태도 양호하며 채색 또한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색감을 보여준다. 특히 섬세한 인물표현과 비수가 표현된 가늘고 유려한 선묘는 의겸과 화승들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화승들의 능숙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하단의 각 장면 옆에는 인물

들의 동작과 동일한 모습의 망령들을 수목으로 그려 넣었는데, 채인이 1730년에 의경과 함께 제작한 운흥사 감로도에서도 같은 모습의 망령이 표현되어 있어 운흥사 감로도에 앞선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채인 등은 안국암 감로도를 조성한 4년 뒤, 스승인 의경과 함께 좀 더 많은 도상을 첨가하여 운흥사 감로도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감로도는 전체적으로 화면의 구성력이 뛰어나며, 세련되고 능숙한 필선, 차분한 색감, 사실적인 인물묘사 등에서 18세기 전반 감로도의 전형을 이룬 작품이자 의경과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가치 있음)

본 법인사 감로도는 색채가 안정되어 있고 화면 구성 및 인물 표현법 등에 있어 18세기의 전형적인 양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색채의 채용과 자연스럽게 세련된 필선 구사로 작품성이 뛰어나다. 또한 아귀상을 1구만 그리고 다른 감로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모착용의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나름대로 독창성을 보이고 있으며, 18세기 불교화단을 이끌어 온 의경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현재 지정명칭이 ‘함양법인사감로탱(咸陽法印寺甘露幀)’으로 되어있어 국가문화재 승격 시 ‘함양 법인사 감로도’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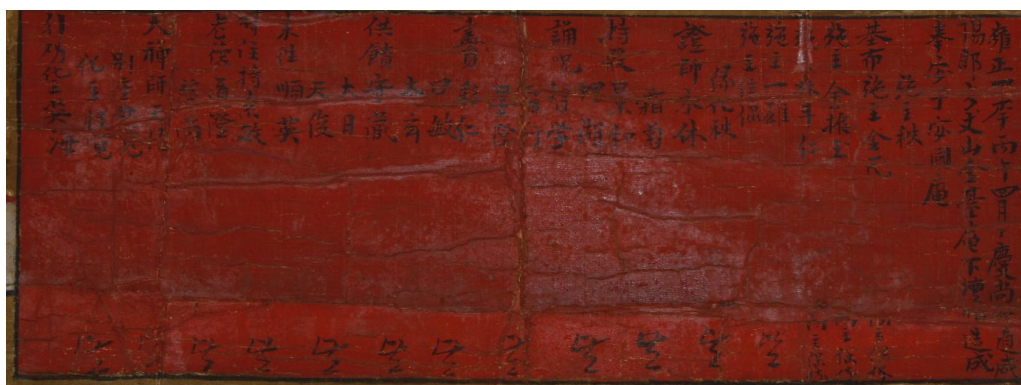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기 지정된 감로왕도 현황

종별	번호	명 칭	소유자 주소	소유자	수량	지정일	제작연대
보물	1553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감로왕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선암사	선암사	1폭	08/03/12	1736년
보물	1641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남장사	남장사	1폭	10/02/24	1701년
보물	1696	하동 쌍계사 감로왕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쌍계사	쌍계사	1폭	10/12/21	1728년
보물	1697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1폭	10/12/21	1723년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1726년, 비단, 142.5×142.5, 1폭,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2호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화기

6.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昌原 聖住寺 甘露王圖)

가. 심의사항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1)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는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336호(1998.11.13.지정)
- 명 칭 :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昌原 聖住寺 甘露王圖)
- 소유자(관리자) : 성주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02
- 수 량 : 1폭
- 규 격 : 263×19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 1729년
- 제작자 : 성징(性澄), 신정(愼淨), 한영(漢英), 인행(印行), 세관(世冠), 국영(國暎)

라. 내용 및 특징

성주사 감로도(甘露王圖)는 1729년에 性澄을 증명과 수화승으로 맡고 愼淨, 漢英, 印行, 世冠, 國暎 등이 참여하여 그린 하단탱 불화이다. 성주사 감로도는 조선 후기의 일

반적인 감로도와는 다르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화면 중단의 재단과 작법승의 장면을 생략하고 상단의 인로왕보살을 화면 중앙부에 배치하여 표현했다는 점이다.

화면 상단에는 칠여래와 관음보살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칠여래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인로왕보살과 관음·지장보살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우측에 칠여래와 백의관음보살을 두고 좌측에는 연지가 있는 화려한 전각을 그렸다. 전각 안에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여래와 아난, 가섭, 세 보살이 붉은 바탕위에 금니로 그려져 있으며, 이는 극락세계와 왕생자가 화생하는 극락연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사 감로도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던 화면 중앙의 齋壇이 생략되면서 재단 오른편에 그려지던 작법승도 함께 생략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서 재단이 생략된 감로도는 직지사 감로도(1724), 국청사 감로도(1755), 관룡사 감로도(1791)등이 있다. 사라진 재단과 작법승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는 망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장보살과 인로왕보살이 그려져 있다. 다른 감로도에서 상단에 배치되던 인로왕보살은 망자가 그려진 공간에 표현되었으며, 아래로 내려뜨린 번과 구름은 강림하여 망자를 인도하는 인로왕보살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함장을 한 아귀와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지장보살 옆에는 수록재를 개설한 아난 혹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우란분재를 개설한 목건련으로 추정되는 승려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지장보살, 아귀, 인로왕보살 주변에는 죽음을 맞이한 천인, 선인, 왕후장상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이 맞이하는 다양한 죽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아귀 옆의 나무에 묘사된 작은 아귀의 표현과 다른 감로도나 달리 수군 간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성주사 감로도는 직지사 감로도(1724)를 그린 性澄과 世冠, 印行 등에 의해서 그려졌다. 특히 성정은 상주 南長寺 감로도(1701, 보물 제1641호)부터 직지사, 성주사까지 모두 감로도 제작에 참여했으며, 성주사 감로도는 직지사 감로도를 모본으로 하고 있다. 성주사 감로도는 불·보살·아귀 등 중요한 장면에는 능숙한 형태묘사를 보이나, 부수적인 전쟁장면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직지사 감로도에 비해 생략을 많이 하면서, 감로도의 주제를 살리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 화기

畫記：雍正七年己酉五月「日謹摹」下壇幀一部奉安「于慶尙右道昌」原都護府南佛「母山聖住寺」施主秩「婆幀施通政通慧」婆幀施通政再英「婆幀施比丘太明爲」亡母朴召史保體「婆幀施加善萬行」供養施比丘大安晶哲「等爲亡父安成就」

施主金時太兩主」施主白順哲兩主」施主金召史保體」施主金永遠保體」施主金永
 彌兩主」施主金再白兩主」施主朱進石兩主」施主宋贊伊兩主」施主朴召是」施主
 軒命石兩主」施主崔善文兩主」施主金氏召史」施主徐云石兩主」施主鄭厚石兩
 主」施主南善文兩主」施主南必發兩主」施主金哲宗兩主」緣化秩」證明道人惠
 華」誦呪道人震日」持殿道人一淸」指證龍眠比丘性澄」通政比丘愼淨」比丘漢
 英」畫員比丘印行」比丘漢英」畫員比丘世冠」比丘國暎」炊供隨喜道人致眼」
 比丘眞性」比丘偉贊」光明助緣敬淳」比丘以學」鍊軸通政處鑿」都監嘉善信敏」
 別座通政日雲」大功德大化土碧」巖孫道人眞淨」願以此功德」皆共成佛道」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이 그림의 화면구성은 상부에 七如來와 관음보살을 중앙부에는 지장보살, 인로
 왕보살을 비롯하여 아귀와 작법승 등 의식장면을 하부에는 역시 인간의 생활 양
 태와 죽음을 맞이하는 양상을 배치하였다. 이 그림의 가장 두드러진 도상적 특
 징은 조선 감로왕도 도상의 필수적 구비 조건이었던 시식대 즉 齋檀과 작법승의
 장면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화면을 향하여 오른쪽 상부에 극락세
 계를 의미한 전각이 배치되고 칠여래가 매우 강조되었고 전투 장면이 육상이 아
 닌 해전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1729년에 수화승 性澄을 비롯하여 愼淨, 漢英, 印行, 世
 冠, 國暎 등이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재단이 생략된 감로왕도는 3점이 더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앞서는 직지사 舊藏 감로왕도(1724)
 역시 이 그림을 그린 性澄과 世冠, 印行 등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성주
 사 감로왕도는 직지사 구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조화로운 색감과 섬세한 세부묘사 등 안정된 화취를 지니고 있고, 도
 상적인 특이성 특히 직지사 구장본의 행방이 확실하지 않은 현재 매우 중요한
 감로왕도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한다.

○ (지정가치 있음)

18세기 경상도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性澄과 世冠 등이 그린 감로도(1729년)로서,
 당시 성행하던 일반적인 감로도 형식과 달리 중앙의 시식대를 생략하고 화면 상
 부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칠여래와 아미타삼존의 극락보
 전 및 極樂池를 표현하였으며 화면 중앙의 아귀 1구 주위에 인로왕보살과 지장
 보살, 승형 인물을 표현하고 그 주위로 여러 가지 환란장면과 선계장면 등을 표

현하며 海戰 장면을 묘사하는 등 특징적인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이 감로도의 이러한 구성은 이보다 5년 전인 조성된 1724년 직지사 감로도 및 이보다 약 30년 후에 조성된 1758년의 안국사 감로도 형식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특히 직지사 감로도와는 조성화원(性澄과 世冠 등) 및 구성형식이 거의 흡사하여 직지사 감로도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능숙한 필선의 인물묘사, 아미타삼존과 극락지의 묘사와 같은 독창적인 화면 구성 등에서 당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성징과 세관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가치 있음)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성징 작 성주사 감로도는 화면 우측 하단에 일부 결실된 부분이 엿보일 뿐 거의 완전한 그림으로 화면구성과 존상의 배치에 있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화기가 확실하게 남아있어 그 내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탁휘·세관 등 당시 화원들과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주사 감로도는 국가문화재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 현재의 지정명칭이 ‘창원성주사감로왕탱(昌原聖住寺甘露王幀)’으로 되어 있어 국가문화재 승격 시에는 ‘창원 성주사 감로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1729년, 비단, 263×190, 1폭,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6호

雍正七年己酉五月
 日謹摹
 下壇幘一部奉安
 于慶尚右道昌
 原都護府南佛
 母山聖任寺
 捲五秋
 婆順施通政通慧
 婆順施通政再英
 婆順施比丘大明為
 父母抄寫史擇體

持殿道人一清
 拍證龍眠比丘性澄
 通政監慎淨
 比丘漢英
 畫負比丘市行
 比丘漢英
 畫負比丘吉冠
 比丘國暎
 炊洪隨畫道人致眼
 比丘真性
 比丘偉督
 九明明緣教信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화기

7.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金鼓)

가. 심의사항

“부산 국청사 청동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9)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부산 국청사 청동북”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유형문화재 제93호(2008.09.11.지정)
- 명 칭 : 부산 국청사 청동북(釜山 國淸寺 靑銅金鼓)
- 소유자(관리자) : 국청사(범어사 위탁보관 중)
- 소재지 : 부산 금정구 청룡동 566 범어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지름 66cm 두께 14.8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1666년
- 제작자 : 태응(太應), 신열(愼悅), 영득(永得)

라. 내용 및 특징

현재 범어사정보박물관에 위탁되어 전시중인 국청사 금고는 전체지름 66cm, 최대 너비 14.8cm로 금고 중 규모가 제법 큰 편이다. 금고 배면에는 施主秩과 化主秩을 기록한 명문을 양각으로 주조하였는데, 옆에 명문을 그대로 베껴 적은 묵서명이 있어 명문의 판독이 용이하다. 이 명문을 통해 금고가 康熙5年(1666년) 3월에 太應과 愼悅, 永得이 조성하여 障川寺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천사는 현재 울주군 두동면에 있던 신라대 창건된 것으로 전해오던 사찰로 추정되나, 사찰의 정확한 창건 연대나 폐사기록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몸통의 측면에는 寺內秩과 施主秩을 點字로 추가 기입하였다.

금고의 형태는 원형의 몸체 外緣에 거는 고리[耳] 3개를 달고, 전면에 梵字文과 唐草文을 간략하게 장식한 모습이다. 17세기에 제작된 금고는 현재 영천 은해사 청동북(1646년, 보물 제1604호)이 남아있으며, 국청사 금고가 은해사 금고 다음으로 제작 연대가 이르다. 그러나 봉황문과 운문, 연화문을 전면에 가득 장식한 은해사 청동북에 비해 조형성이나 장식성이 떨어진다. 국청사 금고의 범자문 문양 배치가 유사한 작품은 남해 화방사 청동반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5호)와 남해 용문사 반자가 있으며, 이후에 제작된 조선 후기 금고는 크기가 더 커지고 문양을 시문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국청사 금고는 제작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17세기 금고로서 조선 후기 금고의 선행된 형식과 과도기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청사 금고는 표면이 일부 산화된 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명문

銘文：慶尙道慶州府南蓮花山障川寺禁氣重百斤」康熙伍年丙午三月日鑄成」施主秩」朴忠民」李莫男」大匠太應」愼悅」永得」化主秩」戒湖」雪崑」雪岩」雪心」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시대의 금고 역시 고려시대 못지않게 많은 수량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후기의 작품들로서 현재까지도 사찰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시대의 금고는 고려시대와 달리 撞座區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고려말기에서부터 나타나던 현상이다. 鼓面의 隆起同心圓 장식이 소멸되며, 있다고 해도 1~2줄로 지극히 간략화 된다. 화려한 연화문이나 당초문, 구름문이 사라지는 대신

梵字文이 새롭게 등장되는 것도 조선시대 금고의 주요한 양식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금고의 문양은 더욱 간략화 되어 전혀 시문을 하지 않은 금고도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통일신라시대 威通銘(865년)금고에 보였던 古拙한 단순함과 달리 주조기술의 퇴보에 기인하는 생략화의 추세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뒷면이 넓게 뚫린 형식의 금고로서, 명칭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와 달리 형태에 따른 구별이 없이 ‘飯子, 禁口, 金鼓, 金口’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범어사 소장 국청사 금고의 경우도 ‘禁氣’라 하여 楞伽寺 금고(1765년)의 ‘금기(金器)’와 동일한 발음이지만 이와 다른 표기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금고가 비교적 많은 수가 확인되지만 의외로 조선 전기의 작품은 남아있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 전기 즉 임진왜란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일본 대마도 普光寺에 있는 청동 금고가 유일하다. 이후 17세기에 만들어진 금고 역시 그 수요가 극히 적은 편으로서 은해사 소장 금고(1646)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국청사 소장 금고 역시 1666년에 제작된 작품으로서 은해사 소장 금고보다 불과 20년 뒤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17세기에 제작된 자료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금고의 전체 직경은 40.5cm로서 중형에 속하며 측면이 뒤로 접혀 짧은 전을 형성하고 뒷면에 넓게 공명구가 뚫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을 따랐다. 鼓面은 2줄의 동심원으로 구획하여 중앙의 당좌구는 문양이 없는 소문으로 만들었고 그 바깥인 中區에는 6자 광명진언 가운데 5자 만을 두른 원권 범자문으로 장식되었다. 이렇게 6개의 광명진언 범자문을 두른 것은 비슷한 시기의 범종에서도 볼 수 있는 양상으로서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은 이 금고가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반영해 주는 모습이라 추측된다. 단순한 원권 범자문과 달리 가장 바깥 구획에는 단선이지만 유려한 연당초문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외구의 당초문 역시 다른 조선 후기 금고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고려 후기 금고의 여운이라 할 수 있다. 측면에는 3개의 반원형 고리가 달려있으며 일반적인 금고가 대부분 이 측면에 명문을 음각으로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국청사 소장 금고는 후면에 양각으로 명문이 새겨진 점이 독특하다. 기록된 명문은 ‘慶尙道慶州府南蓮花山障川寺禁氣重百斤」 康熙伍年丙午三月日鑄成」 施主秩」 朴忠民」 李莫男」 大匠太應」 愼悅」 永得」 化主秩」 戒湖」 雪峯」 雪岩」 雪心」 ’으로서 간단히 풀이해 보면 ‘경상도 경주부남의 연화산 장천사의 금기(금고)로 중량 백근을 들며 강희50년 병오 삼월일에 주성하였고 시주는 박충민 이막남 이고 제작자로는 대장 태응과 신열, 영득 그리고 절의 화주로는 계호 설은 설암 설심’이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앞서의 은해사 소장 수도사 금고가 비록 이 작품보다 먼저 만들어진 수작이지만 ‘畫員□□’라 하여 그 제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승려 장인으로 보이는 ‘大匠太應’이라는 장인을 밝힐 수 있어 조선 후기 장인 계보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측면에 남아있는 점자 명문은 이 금고가 제작한 이후 어느 시기인지 별도로 추측된 인명으로 보인다.

명문에 기록된 원래의 소장처였던 장천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장천사지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그려진 울산 읍성 지도에 의하면 울산 지도의 마지막 부분에 달천창(達川倉)이라는 곳과 그 동남쪽에 울산 界 바로 전에 盤龜亭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그 북서쪽 위에 障川寺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이 국청사 소장 금고의 원소재지인 장천사의 위치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대곡댐이 건설되면서 수몰지역에 포함되어 수몰되었다. 수몰되기 전인 1999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강희40년에 제작된 명문와가 확인된 바 있어 장천사 역시 비슷한 시기인 18세기경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명문에서는 大匠太應 愼悅 永得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大匠의 직함으로 기록된 太應은 현재 알려진 조선후기 금속공예품으로서는 이 작품 하나만이 확인된다. 아울러 태응은 그 이름과 뒤에 나열된 다른 승려들의 법명으로 보아 당시승려 장인집단을 이끌던 우두머리 승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외에도 태응의 이름이 확인되는 비슷한 시기의 불교미술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작품이 더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그중 불교공예품으로서 1636년 中師子庵銘 法住寺鍾의 대시주 명단에서 태응의 이름이 확인되며 1633년 무량사 대세지보살좌상의 복장 발원문에서 태응이 화원으로서 불상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태응이 금속공예 장인이면서 무량사 대세지보살좌상의 화원으로 기록된 것은 당시 불상을 제작한 것이라기보다 복장물과 같은 금속기의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태응의 기록은 1673년 수덕사의 노사나 괘불화에도 그 이름이 등장되어 당시 승려 장인들의 다양한 활동 상황을 추정케 한다.

이 국청사 소장 금고는 단순한 문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예가 많지 않은 17세기 작품이라는 점과 후면에 양각으로 명문을 새긴 독특한 방법은 조선시대 금고의 구조방법과 관련된 기술사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지지 못했던 17세기의 승려 장인 태응의 행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조선 후기 장인사회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국청사 소장 장천사명 금고는 은해사 소장 수도사명 금고와 함께 조선시대 금고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리라 본다.

○ (지정가치 있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3호(2008.09.11 지정)인 국청사 금고는 원래 장천사(障川寺) 금기(禁氣)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직경 66cm 크기의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형태는 금고거(虞)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리가 3개 달려있으며, 전면은 세 선과 태선으로 구성된 2줄의 태조선대(太彫線帶)로 구획된 내구(內區)와 외구(外區)에 양각 문양이 있고, 뒷면의 공명구는 넓게 뚫린 모양이다. 전면 내구에는 중앙의 당좌를 중심으로 5개의 원문범자(圓文梵字)가 돌려져 있으며, 외구에는 간략한 잎과 간지(幹枝)가 육릉형(六菱形)을 이루는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어 장식성이 엿보인다. 뒷면의 구연부는 수평이 아니라 약 40° 각도로 뚜렷하게 벌어져 있으며 그 안쪽에는 1666년에 연화산 장천사 금고를 태응(太應), 신열(愼悅) 영득(永得)이 제작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한 양각 명문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목서가 한번 더 쓰여 있다. 측면에는 사내질(寺內秩)과 시주질을 점각(點刻)해 놓았다.

국청사 금고는 현재로서는 조선시대 기년명(紀年銘) 금고 중 영천 은해사 금고(1646년, 보물 제1604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다. 은해사 금고는 사장인 김암(金峇)이 제작한 것으로 전면에 봉황문과 운문, 연화문을 장식한 형태인데 비해 국청사 금고는 대비구(大比丘; 목서명) 태응을 비롯한 승장들이 제작한 것으로 원문범자가 금고에 처음 등장한 점이 다르다. 이후 18세기 금고들은 김룡사 금고처럼 전면에 당좌와 1~2줄의 태조선대만 있는 무문이거나 남해 용문사 금고, 의성 고운사 금고(1790년)처럼 당좌와 외구에 원문음자만 있는 예로 대별된다. 따라서 국청사 금고는 18세기 금고의 선행양식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국청사 금고는 규모가 큰 편이고 장식성과 제작수법이 우수한 점, 조선시대 금고 중 두 번째 기년명이면서 승장이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불교공예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해서 보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 (지정가치 있음)

국청사 청동금고는 撞座區, 內區, 外區로 구성된 전통적인 금고 형식을 따르고 있다. 각 구획은 몇 개의 가늘고 굽은 용기선을 중첩한 線帶로 구분 지었다. 내구에는 조선 후기 금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원권문 안에 범자를 양각하였으며, 외구에는 넝쿨을 6葉의 연꽃모양으로 윤곽을 잡고 그 사이 사이에 번갈아 가며 고추모양의 잎을 넣었다. 금고의 측면에는 3개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共鳴口의 입술은 폭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은 넓은 편이다. 鼓面의 뒷면에

는 특이하게 陽刻으로 鑄成記를 남겼다. 주성기에 따르면, 이 금고는 ‘慶尙道 慶州府 蓮花山 障川寺 禁氣’로 제작되었으며, 제작 시기는 康熙伍年 丙午, 즉 1666년(현종 7)이다. 금고를 만든 장인은 太應, 愼悅, 永得 등이다.

이 금고는 내·외구에 문양을 넣어 앞선 시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내구에 연화문 대신 시문한 梵字文, 외구에 화형으로 처리한 唐草文, 그리고 曲率 없이 평면으로 처리한 鼓面 등은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이후에 제작되는 금고는 대체로 이 금고의 형태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고가 갖는 의의가 크다. 또한 조선 전기에 제작된 금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고를 통해 앞선 시대의 양식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 발전, 변모되어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一抹의 단서를 제공받고 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또한 분명한 제작시기와 제작자, 봉안사찰을 밝히고 있는 17세기 금고는 은해사(1646년, 보물 제1604호)와 국청사 금고 단 2점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정 보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부산 국청사 청동북, 1666년, 청동,
지름 66 두께 14.8,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목서

8. 양산 내원사 청동북(梁山 內院寺 靑銅金鼓)

가. 심의사항

“양산 내원사 청동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9)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양산 내원사 청동북”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58호(1972.2.12.지정)
- 명 칭 : 양산 내원사 청동북(梁山 內院寺 靑銅金鼓)
- 소유자(관리자) : 내원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지름 40.5cm 두께 10.7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1091년
- 제작자 : 미 상

라. 내용 및 특징

현재 통도사정보박물관에 기탁 보관 중인 내원사 금고의 크기는 전체지름 40.5cm, 최대너비 10.7cm이며, 共鳴口의 지름 33.8cm, 두께 약 0.6cm이다. 원형의 몸체에 거는 고리[耳]가 2개 달린 형태로 표면에 문양 장식을 많이 하지 않은 고려 초기 금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문양은 전면 중앙에 시문하지 않은 원형 撞座 바깥으로 12잎의 연꽃을 겹쳐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태선으로 굽게 돌린 2개의 동심원 밖으로 울동적으로 도안화된 雲文을 4곳에 배치하였다. 연화문과 운문은 모두 線條로 표현하였는데, 간략하면서 유려한 미가 돋보인다. 공명구를 비교적 크게 제작한 배면에는 문양이 없이 2줄의 동심원을 돈을 새김하였다.

몸체의 측면에는 제작상황을 기록한 명문을 線刻하였다. 이를 통해 내원사 금고는 大安7年(1091년) 5월에 조성하여 金仁寺에 봉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원사 금고와 제작시기가 비슷한 금고 중 비교가 되는 유물로는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大安元年銘 半子(1085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00호)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암사 쇄북(1073년, 瓊巖寺銘 靑銅 金鼓)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전면에 연화문과 운문을 시문하였는데, 연꽃잎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내원사 금고와 달리 문양을 도식적으로 시문하였다. 내원사 금고는 일부분이 갈색과 먹색으로 변색되었으나, 원형 그대로의 형태가 남아있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 명문

銘文：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造納金仁寺飯子一口重二十斤印」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쇠북, 즉 金鼓란 글자의 뜻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서 禁口, 또는 飯子(半子) 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쓰인 儀式法具의 하나이다. 범종이 주로 아침·저녁의 예불이나 중요한 의식법회 때 사용된 것과 비교해 불 때 금고는 供養시간을 알린다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 그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앞면은 납작한 圓盤形이지만 뒷면은 구연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져 짧은 전을 형성하고 넓게 뚫려 공간을 이룬 독특한 모습이다. 앞면인 鼓面에는 두세 줄의 同心圓을 도드라지게 배치하고 그 중앙부를 범종의 당좌와 동일한 형식의 연판문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이 撞座區 주위는 구름문이나 당초문, 화문 등으로 시문하기도 하였다. 측면에는 架에 걸 수 있도록 2~3개의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이 측면이나 후면 구연부에는 금고를 만든 날짜와 절 이름, 發願文과 제작자, 무게 등 금고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의 유일한 금고인 咸通六年銘(865년) 禁口는 고면에 두 줄의 隆起同心

圓이 둘러져 있으나 撞座區를 비롯한 고면 전체에는 문양이 전혀 시문되어 있지 않아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통일신라의 금고가 軍威麟角寺에서 발견되었는데, 외형은 유사하지만 뒷면이 좁혀지고 고면에 蓮瓣文이 등장되고 있어 고려시대 금고로의 이행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금고의 형태는 뒷면이 넓게 뚫린 기본형식과 함께 뒷면의 구연이 확장되어 共鳴口가 좁아지는 형식, 그리고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리는 소위 일본의 와니구찌식(鰐口式) 금고 등의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금고는 통일신라에 비해 우선 고면의 중앙에는 연판문과 연밥을 장식한 撞座區가 완전히 독립된다. 이 당좌구 주위로는 두세 줄의 용기동심원을 두르고 그 구획마다 연화문, 구름문, 또는 화문, 如意頭文, 당초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고려 초기 금고의 경우 이러한 장식문양은 당좌를 중심으로 하여 外區에 한해서만 간략한 구름문, 당초문이 표현되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고면 전체에 빠짐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이 첨가된다. 고려후기에 와서는 금고의 크기가 축소되는 한편 당좌구나 외구의 구획이 분명치 않게 되며 연판문, 당초문의 장식은 도식화되어 별모양(星形)이나 물결무늬로 바뀐 구조기술의 급격한 퇴락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금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紀年銘 작품은 威雍九年銘(1073년) 瓊巖寺 금고이며, 大定九年銘(1169년) 금고는 후면의 구연부가 확장되어 공명구가 좁혀지는 형식을 지닌 작품이다. 또한 貞祐二年銘(1214년) 景禪寺 금고는 앞, 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열구식 공명구가 뚫린 형식의 금고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고려시대 금고 가운데 紀年銘을 지닌 작품은 약 40여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13세기 초부터 중엽에 제작된 금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작품이 양식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 금고 가운데 통도사에 소장된 내원사 금고는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일반적인 형식의 반자형 금고이다. 고면은 아직까지 두줄의 용기동심원으로 나누어 내구는 소문의 당좌를 그리고 그 외연에는 팔엽의 연화문을 변형시킨 화문을 섬세하게 장식되었다. 가장 바깥인 외구에는 네 곳을 돌아가며 유려한 운문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운문은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大安元年銘(1085) 半子の 운문보다는 훨씬 울동적이면서 도안화된 느낌이다. 특히 고면의 구획이 아직까지 2구로 간략히 세분되었고 경암사 반자의 운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11세기의 마지막 편년작품이면서도 섬세하고 유려한 문양이 잘 표현된 고려 금고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된다. 측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부착되었으며 이 측면을 돌아가며 ‘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造納金仁寺飯子一口重二十

斤印'이라는 굵은 필치의 음각명문을 정연하게 새겨놓았다. 기록된 내용은 '대안 칠년인 1091년 신미 5월일에 동량승인 정묘가 금인사에 만들어 시납한 반자 1구로써 이십근의 중량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금인사의 소재는 분명치 않지만 고려시대 절로서 소장처인 내원암과의 관련을 유추해 볼 때 내원암의 원 이름이거나 근처에 소재했던 사찰로 추측된다. 아울러 명문에 보이듯 반자라는 표기가 쇠금변에 반자(반자)로 사용되어 경암사명 반자(1073)의 盤子에서 대안원년(1085) 半子에서 다사 명칭이 바뀌어 가는 고려시대 금고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명문의 말미에 기록된 '印'자는 의미 없는 종결 어미로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의 명문에 많이 사용된 이두식 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고면의 문양이 섬세한 수작인 동시에 손상 없는 명문은 고려 금고 연구의 귀중한 편년 자료가 된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점에서 이 작품은 하루빨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됨이 타당 하리라 본다.

○ (지정가치 있음)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8호(1972. 02. 12 지정)인 내원사 금고는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띠고 있으며, 위쪽에 2개의 현수용 고리가 달려있고 뒷면의 공명구는 넓게 뚫린 형태이다. 전면은 2줄의 굵은 선조(線條)로 내·외구를 나누어서 내구에는 중앙의 약간 도드라진 원형 당좌를 중심으로 주위에 보상화문을 시문했으며, 외구에는 꼬리가 달린 둥글둥글한 4개의 운문을 배치했다. 보상화문과 운문은 비수(肥瘦)가 있는 양각선으로 표현하였는데, 보상화문은 끝이 뾰족하고 좌우가 안으로 말려든 6엽화판과 간엽(間葉)이 있는 모양이어서 생동감이 감돈다. 이렇듯 화판좌우가 안으로 말려든 사실적인 표현수법은 원주 법천사지 석조부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금고의 측면에는 1091년에 정묘(貞妙)스님이 화주가 되어 금인사(金仁寺)에 조성 봉안한 것이며 중량은 20근이라는 내용을 적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내원사 금고보다 앞선 작품으로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 금고인 경암사명 금고(瓊巖寺銘金鼓, 1073년)를 비롯하여 소재불명 법해사명 금고(法海寺銘金鼓, 1084년), 원주 법천리 출토 대안원년명 금고(大安元年銘金鼓, 1085년)가 있으나 모두 금고 중앙의 연판문이나 외구의 운문은 도안화된 문양인데 비해 내원암 금고의 문양은 간략하면서도 사실성이 깃들여 있다.

내원사 금고는 기년명 고려시대 금고로는 네 번째로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문양의 표현수법, 제작수법, 보존상태 등이 매우 양호하여 공예사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이보다 제작시기가 늦은

봉업사명 금고(1217년)가 보물 제576호(1973.12.31 지정)인 점, 한중서가 만든 옥천사 금고(1252년)도 보물 제495호(1968.12.19 지정)인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 (지정가치 있음)

이 금고의 측면에 새겨진 음각 명문을 통해 大安 7年 辛未(宣宗 8, 1091) 5월에 棟梁僧 眞妙 次知등이 조성하여 金仁寺에 봉안한 반자임을 알 수 있다. 금고의 前面은 무문의 撞座區, 內區, 外區로 구분한 전형양식에 속한다. 당좌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내구에는 翻葉이 가해진 6葉의 연화문을 얇게 돌출시켰다. 내구와 외구는 굽은 2줄의 용기대로 구획하였으며 외구의 4곳에는 허공을 흘러가는 율동적인 구름문을 장식하였다. 측면도 굽은 용기대로 2분하고 앞쪽에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陰刻하였다. 윗면에는 몇 내지 않은 단순한 고리가 2개 부착되어 있다. 鼓面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 이른바 배가 부른 형태여서 鼓面이 편평한 조선 후기 금고에 비해 볼륨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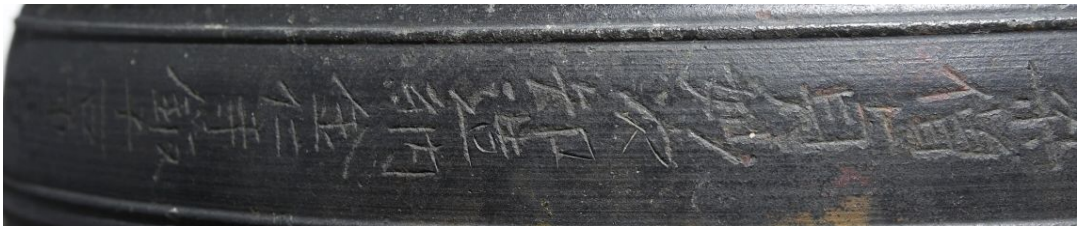
이 금고는 측면 음각명문을 통해 1091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주체를 알 수 있다. 전면을 3부분으로 구획하고 내구와 외구에 도식화되지 않은 율동적인 연화문과 구름문을 여백과 공간감을 최대한 살려 시원스레 시문하였다. 이러한 문양의 공간배치는 이 시기에 제작된 다른 금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이 시기 금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명문이 있는 반자 중에서 咸通 6年銘 禁口(865, 국립중앙박물관), 咸雍9年銘 盤子(1073년, 국립중앙박물관), 大康10年銘 鉢子(1084년, 일본소재), 大安元年銘 半子(1085, 동아대박물관, 부산시 유형 제100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금고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 금고는 정확한 제작시기 및 제작주체, 봉안사찰,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양산 내원사 청동북, 1091년, 청동, 지름 40.5 두께 10.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8호



양산 내원사 청동북 명문

9.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梁山 通度寺 靑銅銀入絲香垸)

가. 심의사항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9)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101호(1979.05.02.지정)
- 명 칭 :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梁山 通度寺 靑銅銀入絲香垸)
-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높이 21cm 입지름 20.5cm
- 재 질 : 청동·은
- 제작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제작자 :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양산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청동은입사 향완의 크기는 전체높이 21cm, 입지름 20.5cm, 받침부 지름 14.9cm로 향완 가운데 비교적 작은 편이다. 몸통부와 받침부의 지름과 높이가 거의 동일하여 기형이 안정적이다. 문양은 향완 전체에 시문되어 있다. 몸통부에 如意頭文을 두른 圓文 안에 범자를 입사하고, 그 좌우로 蓮唐草文으로 전체를 장식하고 밑은 연판문으로 마무리하였다. 받침부는 연판문을 둘러 위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운문, 연당초, 보상당초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모든 문양은 은입사기법으로 시문하였으며, 범자는 면입사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양배치는 봉은사 청동 은입사 향완(1344년, 보물 제321호), 개인소장 청동 은입사 향완(1346년, 보물 제28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곡사 향완(1397년) 등 14세기에 제작한 향완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다만 이들 세 작품은 범자원문 좌우 연당초가 2단으로 시문하는데 반해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향완은 1단인 점이 차이가 난다. 조선시대 이러한 문양배치 형식을 따른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곡사 향완(1397년)이 있다.

상단부 전의 低部에는 施主秩과 “僧房寺施納通度寺”라는 문구가 點字로 새겨져 있어 이 향완이 통도사에 봉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향완은 상단의 전이 약간 휘어 굴곡지고, 전체 표면에 검고 광택이 있는 물질이 칠해져 있으나 보존상태는 파손부가 없이 양호한 편이다.

○ 명문

銘文：施主嘉善大夫□□仁彦 子□□ 鄭□厚 僧房寺 施納 通度寺」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자향로와 함께 불단 앞에 놓이는 청동제의 高杯形 香垵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고배형 향완이란 구연이 밖으로 벌어져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아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으로 구성된 형식으로서 대부분이 몸체와 다리 부분을 따로 주조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향로는 명문에 보이듯 특별히 ‘香垵’이라 명칭하고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향로의 표면에는 梵字를 비롯하여 보상당초, 연당초, 雲龍, 봉황 뿐 아니라 회화적인 蒲柳水禽文 등을 은입사로 화려하게 장식한 예가 많다. 고배형 향완은 가장 이른 白月庵 향완(1164년)의 예처럼 문양은 아직 부분 부분에만 간략히 묘사되다가 고려후기가 되면 몸체, 다리 할 것 없이 전면을 가득 채우며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다. 나팔형 다리가 매우 짧아지면서 옆으로 갑자기 벌어져 둔중한 느낌을 주는 고려 말 향완의 모습은 조선시대 향완으로 계승된다.

전형적인 고려 향완에서는 원형 如意頭廓 안에 梵字文, 연화당초, 연관, 당초 등이 시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 바깥으로 벌어진 몸체의 전부 상면에 쌍구체의 유려한 당초문을 화려하게 시문하였으며 몸체 사면에는 여의두곽을 만들어 그 내부에 네 글자의 굵은 범자문을 입사하였다. 이 범자문 여의두곽과 여의두곽 사이를 유려한 연당초문으로 연결시켰다. 고려시대 고배형 향완은 대부분 爐部와 臺部를 별도로 구조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향로 역시 노부 받침의 내면 중앙에 그러한 연결부를 볼 수 있다. 향완의 대부는 크게 노부 받침과 나팔형의 다리, 그리고 대부받침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연당초문이 시문된 노부의 하단에는 연관문을 등글게 돌아가며 시문하였고 그 아래 붙은 받침은 2단의 물딩형 턱을 두어 위쪽에는 간략화 된 당초문을, 아래 단에는 구름 형태를 간략히 시문하였다. 노부 받침 아래 붙은 다리는 아래로 가면서 점차 넓게 퍼지다가 끝단으로 가면서 1단의 둥근 물딩과 그 아래로 둥근 받침을 형성한 모습이다. 다리의 상부면은 긴 종선으로 구획하여 그 내부 연잎마다 꽃술 장식이 첨가된 이 첨가된 覆蓮 형식의 연관문을 주회시켰다. 이 아래로 다리의 넓은 전면을 돌아가며 쌍구체의 연화당초문이 굴곡진 줄기와 함께 유려하게 시문되었다. 다리 아래 단 물딩 부분에도 몸체의 전부 상면에 표현된 당초문과 동일한 형태의 쌍구체의 당초문이 전면을 돌아가며 시문되었다. 2단의 물딩 부위 가운데 아래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첨가되었다. 이처럼 이 향완은 기본적인 외형과 은입사, 세부 문양에서 고려 후기 향완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깥으로 벌어진 구연 전부의 밑부분에는 ‘施主嘉善大夫呂敬仁彦 子万晋 鄭元厚 淨房寺 施納 通度寺’라는 연점각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주목되는데 시주자 이름과 정방사, 그리고 시납 통도사 명문이 확인된다. 嘉善大夫의 직명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시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향완에 조선시대의 어느 시기에 와서 별도의 시주자 명단을 다시 추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이 향완의 기록된 명문을 원래의 명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제작연대는 지금까지의 고려 향완 자료와 비교하여 편년 내릴 수 있다. 향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이 작품은 비록 크기가 작지만 단정한 외형을 지니면서도 아직까지 둔중해 지지 않은 대부의 균형 잡힌 모습과 노부의 유려한 연당초문, 그에 비해 약화된 여의두곽 안의 범자문 등으로 미루어 14세기 중엽에서 후반 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국립박물관 소장 靑谷寺 향완(1397)과 비교해 보아도 그와는 다른 고려적인 요소가 대부분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향완 가운데 14세기에 제작된 편년 작품은 至正4년(1344) 重興寺銘 향완, 국립박물관 소장 至正17년(1357)명 향완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의 향완이라고

알려져 왔던 지금까지의 견해와 달리 이 통도사 소장 향완은 앞서와 같은 고려 후기 향완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으로 새롭게 파악될 수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지정가치 있음)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1호(1979.05.02 지정)인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청동은 입사향완은 21cm 크기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 향완은 보물 제334호인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을 모본 삼아 조성한 듯 은입사수법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와 문양포치법이 같다. 표면은 보존처리하면서 옷칠을 한 듯 약간 검붉은 빛이 감돌며, 군데군데 은선이 박락되었는데 그 부분이 검은 선처럼 보인다.

전체적인 조형감은 보물 제334호 향완에 비해 다소 넓적해진 느낌이 드나, 보물 제1354호인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1674년)보다는 덜 둔중해 보인다. 즉 로신(爐身)은 구연부가 약간 오므라들고 배가 살짝 풍만감이 드는 보물 제334호 향완의 로신에 비해 구연부에서 내려온 외형선이 약간 안으로 휜 선형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전에는 운당초문(雲唐草文)이 시문되었고 로신은 주문양으로 네 곳에 여의 두문이 둘러진 원 안에 커다란 범자가 면상감 되었다. 4개의 범자 사이에는 종속 문양으로 커다란 연화당초문이, 하부에는 양련이 시문되었다. 특히 보물 제334호 향완의 로신에는 전체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여백을 쫓아내고 은물을 메꾼 박지 면상감기법(剝地面象嵌技法)을 썼으나 이 향완에는 범자만 제외하고 모두 일률적인 두께의 은선이 상감되었으나 대부의 복련을 보면 입사할 때부터 쫓아낸 골에 은선을 넣은 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후일 사용하면서 은선이 많이 박락된 것 같다. 전의 뒷면에는 「施主嘉善大夫呂敬仁彦 尹万晋 鄭元厚 僧房寺 施納通度寺」라고 점각되어 있어 통도사에 시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도사정보박물관 청동은입사향완과 전체적인 조형감, 문양 등에서 14세기에 제작된 봉은사 소장 청동은입사향완(1344년, 보물 제321호)나 광영대 소장 청동은입사향완(1346년, 보물 제288호)과 가장 유사한데, 입사된 문양은 14세기 작이 치밀한데 비해 다소 느슨해진 느낌이다. 이 향완은 비록 은입사선이 여러 군데 박락되어 있으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점,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 양식을 따르고 있어 향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지정가치 있음)

전(口緣)이 약간 일그러져 있고, 銀入絲한 일부가 탈락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향완은 입이 크게 벌어진 爐身을 나팔모양의 받침대가 받치고 있

는 이른바 高杯形을 띤다. 曲率이 없는 爐身은 아래쪽 접시모양의 받침대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구연부의 윗면에는 보상당초문을 입사하였고, 爐身에는 圓圈 네 곳에 六字大明王眞言 중 4字만을 面入絲하고 주위는 如意頭文으로 에워쌌다. 다시 그 주위를 연화당초문을 시문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몸체의 아래 부분에는 도식적인 仰蓮의 연화문을 돌렸고, 사발모양의 받침 머리에는 구름문을 입사하였다. 그 아래 목 부분에는 覆蓮을 시문하였고, 원반모양 받침대의 상면에는 몸체와 거의 같은 연화당초문을 돌려 장엄하였다.

이 향완은 爐身의 곡률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낮고 높은 이중의 隆起帶, 구연부 상면을 비롯한 향완 전반에 걸쳐 여백 없이 다소 도식화된 문양을 입사한 점 등은 14세기 중엽 경에 제작된 은입사 향로들과 비교된다. 하지만 14세기 작품에 문양이 보다 간결해졌고 문양과 문양사이의 여백도 많아져서 간결해진 느낌이다. 또한 입사된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선묘도 약간 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구연부 저면 點刻으로 새긴 시주질에 조선시대 文散階의 品階인 ‘嘉善大夫 戶曹 鄭仁彦’이 등장하고, 이어서 ‘子 □□ 鄭光厚’가 나온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太宗 5年(1405) 정 3품인 司宰監으로 致仕된 鄭仁彦이 등장하고 있다. 「迎日鄭氏世譜」에도 제8대 鄭仁彦, 제9대 鄭光厚로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 등장하는 정인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향완은 조선 초 鄭仁彦 父子의 施主로 통도사에 시납된 것으로 보인다. 이 點刻 명문이 주성 당시의 명문인지 주성 이후 시주자가 통도사에 시납하면서 追刻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향완의 기형, 문양, 선, 그리고 명문에 등장하는 품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향완의 제작 시기는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향완은 조형적으로 몸체와 받침대의 비례가 조화롭고, 몸체에서 받침대로 연결되는 곡률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비록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시납된 사찰명이 분명하고 시주자를 통해 제작의 하한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금속공예의 보기 드문 자료라는 점, 끝으로 이 시기 향완의 수작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청동·은,
전체높이 21 입지름 20.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명문

10.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五十三)

가. 검토사항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체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0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五十三)
- 소유자(관리자) : 부소암(불교중앙박물관 위탁보관 중)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1권1축
- 규 격 : 전체 29.7×1081.7cm, 상하간 24.2cm
- 재 질 : 종이(楮紙)
- 제작연대 : 고려시대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大方廣佛華嚴經 卷53(晉本), 佛馱跋陀羅(東晉, 359~429) 譯
고려시대(11~12세기 추정), 종이(楮紙), 전체 29.7×1081.7cm, 상하간 24.2cm, 1권1
축

木版本(卷子本), 上下單邊, 無界, 全葉 24行17字

卷頭題 / 卷末題 : 大方廣佛華嚴經

板首題 : 晉五十三

函次 : 宙

卷末音釋 : 值遇(上直吏切), 齊整(下之郢切), 讌集(上於殿切), 危脛(下楚稅切), 在
隅(下愚音)

※ 전체크기(총 22장 연결; 표지 제외) :

16.3(표지)+50+49.3+49+49+49.2+49+49+48.9+49+48.9+49
+49+48.7+48.7+49+49+49.2+48.8+49.1+49.2+49.2+51.5 = **1081.7cm**

○ 조사내용

『大方廣佛華嚴經』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전문 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 중의 하나로서 이를 줄여서 ‘華嚴經’이라 부른다. 이 경전이 중국으로 전래되어 번역된 漢譯本은 현재 晉本(60卷本)·周本(80卷本)·貞元本(40卷本)의 三本이 전하고 있다. 이 화엄경은 佛馱跋陀羅(359~429)가 전체 34品을 60卷으로 번역한 晉本 가운데 권53의 1권1축으로 수록된 내용은 ‘入法界品第三十四之十’이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권자나 첩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上下間의 판의 높이는 24.2cm이다. 한 장의 길이는 대략 49.0cm이며, 행수는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되어 있다. 卷軸의 크기는 세로 29.7cm 가로 1081.7cm이며, 紙質은 楮紙이고 裝訂은 卷軸裝이다. 卷頭에는 軸이 없으나 卷末에는 軸이 있으며, 軸의 材料는 香木인 듯하고 部分的으로 朱漆이 되어 있다.

전체가 22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련 부분에는 ‘晉 五十三’으로 역본 및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고, 제3·5·11·14장의 장차 아래에는 각수명이 있다. 卷末에는 ‘值遇(上直吏切)’, ‘齊整(下之郢切)’, ‘讌集(上於殿切)’, ‘危脛(下楚稅切)’, ‘在隅(下愚音)’ 등 半切法에 의한 音釋이 수록되어 있으며, 간기는 없다.

표지는 일부 결실되었으며 제2장의 1~2, 7~8, 11~14행에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1~4자가 손상되었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먹색이 번짐 등이 있을 뿐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상태는 양호하다.

권두제 아래에 “宙”자 函次가 적혀있는데 이는 재조대장경에서는 『大般若波羅

蜜多經』에 해당하는 함차로서 『大方廣佛華嚴經』 진본 권53의 “道”자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고려시대 사간본으로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찰판본인 점에서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여타의 사간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 卷53은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번역한 진본(晉本) 60권중의 부분으로 1권 1축이다.

함차(函次)가 나타나 있으나 재조대장경에 편입된 화엄경 동권(同卷)의 함차가 도(道)인데 반하여 조사 대상본은 주(宙)인 점에서 화엄경만을 별도로 간행한 별본의 사찰본으로 판단된다. 같은 판본이 보이지 않는 고려판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불교 및 서지학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大方廣佛華嚴經」卷53은 佛馱跋陀羅(359-429)가 漢譯한 晉本「大方廣佛華嚴經」60卷 중의 卷53의 1卷1軸本으로 수록된 내용은 <入法界品第三十四之十>이다. 發行地와 發行處는 不明하며, 高麗時代(11-12세기) 版刻의 經板에서 印出한 版本으로 推定된다. 또한 高麗時代 木版印刷文化를 窺見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佛敎學·書誌學 研究의 귀중한 文獻資料로 傳本이 드문 貴重本이다.

調査本「大方廣佛華嚴經」卷53은 函次가 高麗再雕大藏經本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보물 제959-2-7호로 지정되어 있는 慶州 祇林寺 塑造毘盧舍那佛 腹藏典籍 중의 晉本「大方廣佛華嚴經」卷53과도 다른 版本이라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調査本「大方廣佛華嚴經」卷53은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아울러 調査本은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佛敎中央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기는 하나, 卷頭部分에 一部分의 切斷과 毀損이 있으므로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지정가치 있음)

이 『大方廣佛華嚴經』 卷53은 佛馱跋陀羅(359-429)가 漢譯한 晋本 60卷 중의 卷53의 1卷 1軸으로 수록된 내용은 ‘入法界品第三十四之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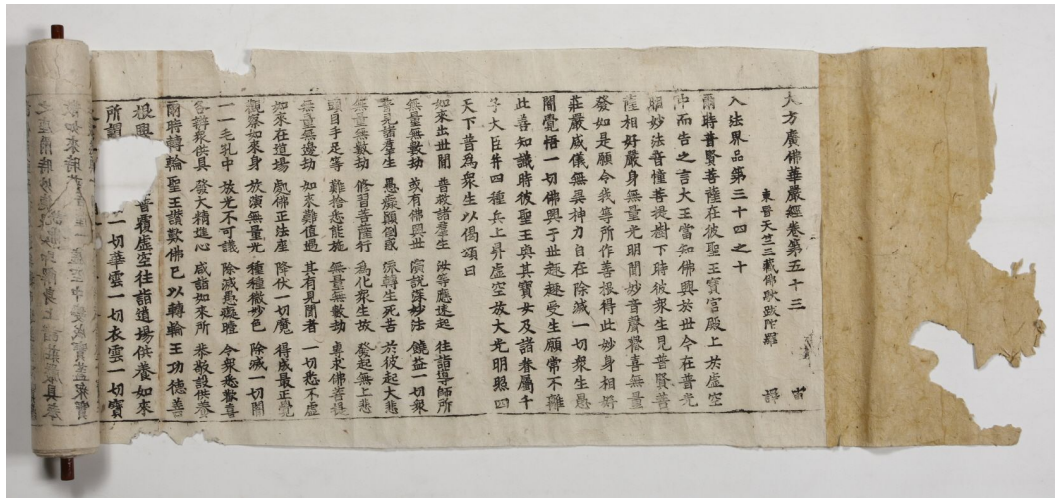
고려 전기에 사찰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권두제 아래에 “宙”자 函次가 적혀있는데 이는 재조대장경에서는 『대반야바라밀다경』에 해당하는 함차로 『大方廣佛華嚴經』 권53의 “道”자와 차이가 있어 여타의 사간본 및 대장경에 수록된 판본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되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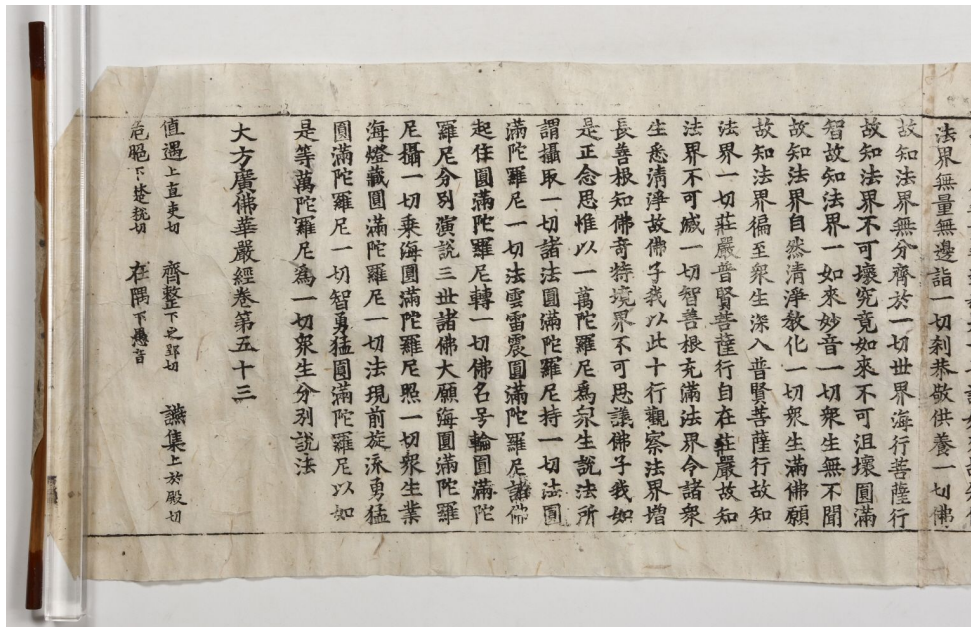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기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현황

종별	번호	명칭	소유자 주소	소유자	수량	지정일	제작연대
보물	685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7 성암고서박물관	조병순	1권 1축	81/03/18	고려숙종년간
보물	686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8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7 성암고서박물관	조병순	1권 1축	81/03/18	고려숙종년간
보물	1017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 주본 권38, 정원본권2, 38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구인사	구인사	4권 4첩	89/08/01	12~13세기
보물	119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한솔제지(주)	한솔제지 (주)	1권 1축	94/01/05	13~14세기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卷首), 고려시대, 종이, 상하간 24.2, 1축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卷末)

11.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가. 심의사항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0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몽산화상육도보설”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1.01~11.30)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 소유자(관리자) : 성주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천성동 102
- 수 량 : 1책
- 규 격 : 반곽 20.1×13.5cm
- 재 질 : 종이(楮紙)
- 제작연대 : 1497년

라. 내용 및 특징

- 서지사항
蒙山和尚六道普說

1497년, 종이, 전체 28.7×17.3cm, 반곽 20.1×13.5cm, 1책, 수장고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半葉 6行13字,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板心題: 普
卷末 刊記: 弘治十年八月日全羅道鎮安地聳出山懸庵開板」
表題: 普說

[참고자료]

一 聖住寺 地藏殿 <地藏菩薩坐像> 복장유물로 발견

主佛願文, 筆寫本, 51.9×144.9cm, 1매

願文: 主佛願文」康熙二十辛酉年四月日造成佛像十王安于佛母山熊神寺」願以此
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施主秩」布施大施主通政大夫靈
寬比丘」布施大施主朴同志兩主」圃團大施主朴命吉兩主」地藏主大施主李
云世兩主」道明尊者大施主戒介單身」無毒鬼王大施主南奉先兩主」第一秦
廣大王大施主璇玉比丘」第二初江大王大施主尙學楚式比丘」第三宋帝大王
大施主金聖達兩主」第四五官大王大施主一英天日比丘」第五閻羅大王大施
主崔是金崔道男兩主」第六變成大王大施主曹彭祚李順命兩主」第七太山大
王大施主金斗和兩主」第八平等大王大施主金以成兩主梁召史保体」第九都
市大王大施主靈悟比丘」第十五道轉輪大王大施主李仁立兩主」判官大施主
裴從發保体」判官大施主裴終必保体」鬼王大施主尙璘比丘」鬼王大施主一
性比丘」使者大施主惠俊比丘」使者大施主三眼比丘」將軍大施主黃已用兩
主姜召史兩主」童子大施主吳順發兩主」童子大施主順發保体」童子大施主
崔卞立兩主」童子大施主崔召史兩主」童子大施主妙哲比丘」童子大施主李
已用保体」童子大施主雲日比丘」能長保体」童子大施主一叩比丘」童子大
施主金已蓮崔兩主」腹藏大施主羅戒生兩主」腹藏大施主是偕比丘」朱紅大
施主坦修比丘」喉鈴桶大施主黃戒奉兩主」喉鈴桶大施主曹春白兩主」腹藏
大施主勝琳比丘」鐵物大施主朴日萬兩主」喉鈴桶施主李順生兩主」燈燭清
蜜兼大施主寶閑比丘」緣化秩」證明誌公和尚」持殿尙文比丘」畫員勝湖比
丘」尙倫比丘」嚴淨比丘」卓文比丘」天淨比丘」宝藏比丘」呂岑比丘」竺
令比丘」禪俊比丘」法眼比丘」處屹比丘」守行比丘」處行比丘」儀淨比
丘」法宗比丘」敏偕比丘」天龍保体」海發保体」供養主玉熙比丘」玉定比
丘」海玉比丘」別坐熙尙比丘」金黍立兩主」化主熙卞比丘」

○ 조사내용

『蒙山和尚六道普說』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和尚 德異가 중생에게 業因에 따라 輪回하는 地獄·餓鬼·畜生·阿修羅·人間·天上의 六道와 聲聞·緣覺·菩薩·佛의 四聖을 더한 十界를 설하여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몽산화상육도보설』은 弘治 10年(1497, 燕山君 3) 8월에 全羅道 鎭安에 있는 聳出山 懸庵에서 開板 되었다. 그 판각은 시주질 司直金益禧兩主 등에 이어 大施主 金祜山兩主 이하 여러 檀越과 승려들의 시주와 간역작업은 鍊板은 罔智가 맡고, 刻手는 義敬이 새기고, 化主 河一 등 12인 및 供養主 義圭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판서본의 필서와 새김이 정교하며 새기자 바로 찍어내서 인쇄가 또한 진하고 깨끗하다.

불분권 1책의 목판본으로 판식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0.1×13.5cm이며, 계선은 없고 行字數는 6行13字이다. 판구는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다. 본문에는 필사한 口訣 표시가 있고, 난외에도 註가 기록되어 있다. 聖住寺 地藏殿 地藏菩薩坐像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품이다. 표지는 線裝으로 改裝되었고 보존상태는 표지와 판심부분의 磨滅·毀損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종래 알려진 조선전기의 세종 14(1432)년 판본, 성종 21년(1490)의 黃海道 瑞眞地 慈悲嶺寺版本, 중종 4년(1509) 大光寺版本 등은 殊菴 필서의 판서본으로서 반엽 6行13~16字에 無魚尾로서 판식 및 서체가 다르다. 수암 판서본이후 이 聳出山 懸庵版本인 반엽 6행 13자의 선장본이 출간되어 16세기이후에 보급되었다. 15세기 말의 조선전기 사찰판본인 점에서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이 『蒙山和尚六道普說』은 1497(燕山君 3)년 8월에 전라도(全羅道) 진안(鎭安)에 있는 용출산(聳出山)의 현암(懸庵)에서 간행한 불분권 1책의 목판으로 간행된 사찰판이다. 판서본(板書本)의 필서와 새김이 정교하고 인쇄가 선명한 점에서 판각후 초쇄본으로 판단된다. 권말에는 간기와 함께 시주자 명단과 판각에 참여한 연판자(鍊板者), 각수(刻手)등이 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세필(細筆)로 묵서(墨書)한 구결현토(口訣懸吐)가 달려 있어 이 책의 석독(釋讀)에 도움을 준다. 조선전기의 간본으로 조선전기의 불교학 연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가치 있음)

調査本「蒙山和尚六道普說」은 元朝 末期의 고승인 蒙山 德異(1231-1308)和尚의 六道普說을 弘治 10(1497, 燕山君 3)년 8월에 全羅道 鎭安地 聳出山 懸庵에서 開板한 不分卷 1책(24장)본이다.

調査本「蒙山和尚六道普說」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版本 중의 하나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또한 調査本「蒙山和尚六道普說」은 佛敎學의 研究에 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學術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本「蒙山和尚六道普說」은 이미 알려진 古刊本의 세종 14(1432)년의 刊行處 不明本, 성종 21(1490)년의 黃海道 瑞眞地 慈悲嶺寺版本, 중종 31(1536)년의 雪嶽山 神興寺版本, 중종 34(1539)년의 安東 下駕山 廣興寺版本 등과 는 달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版本 중의 하나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따라서 調査本「蒙山和尚六道普說」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아울러 「蒙山和尚六道普說」은 현재 表紙와 版心 部分의 磨滅·毀損된 채 전문적인 保存施設을 갖추지 못한 聖住寺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保存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專門機關에 寄託할 필요가 있을 듯하며, 專門 匠人에 의한 補修·保存處理와 表紙製作이 요망된다.

○ (지정가치 있음)

이 『蒙山和尚六道普說』은 1497(燕山君 3)년 8월에 全羅道 鎭安에 있는 聳出山 懸庵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판서본의 필서와 새김이 정교하며 새기자 바로 찍어내서 인쇄가 진하고 선명하다. 권말에는 간행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과 鍊板 및 刻手가 명시되어 있어 조선전기 불서판본의 간행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傳本이 드문 귀중본에 속하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몽산화상육도보설, 1497년, 종이, 반곽 20.1×13.5, 1책



몽산화상육도보설 권말 간기

II.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안건번호 동산 2011-06-012

1.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무령왕비 금제관식(국보 제155호)’의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물 소장처 국립공주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함 사항을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
- 신청인 : 국립공주박물관장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국립공주박물관
- 수량 : 1점
- 크기 : 전체길이 22.7cm
- 재질 : 금(金)
- 제작연대 : 삼국시대(백제 6세기)

라. 보존상태

- 무령왕비 금제관식의 꽃이부분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1971년 무령왕릉 발굴 후 묘실내 잔존물을 모아둔 박스에서 왕비 금제관식의 꽃이부분(잔편)을 찾아냄.
- 꽃이 잔편은 총3개로 분리되어 있으며(현재는 전시를 위해 가접합함), 단면은 녹이 석출되어 있는 상태임.

마. 보존처리 계획

- 꽃이 잔편 접합을 위한 사전 계측 조사(실시완료)
 - 꽃이 잔편 직선길이(7.35cm)와 금제관식에 붙어있는 잔존부 최소길이(2.1cm)의 합이 완형의 다른 금제관식 꽃이 직선길이(9.45cm)와 동일하므로 접합,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단면 멸실 부분 없음)
- 사전 상태조사
 - 처리 전 유물의 상태조사(육안·실체현미경·X-선 조사 등)를 통해 유물의 부식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존처리 방법을 결정함.
- 이물질 제거 : 물리적방법(실체 현미경 및 각종 소도구)을 위주로 실시하되, 부분적으로 에틸알콜, 면봉 등을 이용하여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함.
- 안정화처리 : Benzotriazole(B.T.A) 3%(in alcohol) 용액에 침적하여 추후 부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 강화처리 : Paraloid B72 10%(in xylene) 용액을 사용하여 감압 함침함.
- 접합·복원 및 색맞춤 : 접합·복원제의 재료로는 에폭시 수지, Microballoon, 안료 등을 사용하고, 색맞춤은 아크릴 물감 등을 이용하여 복원된 부분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착색함.
- ※ 유물의 결손 부분에 대한 복원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원상(原狀)을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행하도록 하고, 복원된 부분은 원래 부분과 구별되게 처리하되 전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대략 2m) 이상에서는 판별이 어렵도록 함.
- 보존처리카드의 작성 : 추후 재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전 상태, 처리 과정, 처리 후 상태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을 남김.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



도1. 금제관식(전면)



도2. 금제관식(후면)



도3. 금제관식 세부(전면, 꽃이 잔존부)



도4. 금제관식 세부(후면, 꽃이 잔존부)



도5. 금제관식 편
(전면, 새롭게 찾은 꽃이 잔편)



도6. 금제관식 편
(후면, 새롭게 찾은 꽃이 잔편)

2.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당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가 곰팡이 등의 미생물에 의한 훼손이 확인된 유물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일괄 검토하여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308호 ‘홍진 호성공신교서’ 등 17건(붙임 참조)
- 현상변경 내용 : 보존처리 등
- 추진방침
 - 단위 문화재별 문화재위원 등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을 받도록 함.
 - 보수·보존처리는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함.
 - 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함.

라. 조치사항

-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붙임 :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현상변경 허가대상 목록 1부.

[붙임]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현상변경 허가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1	강원 홍천	보물 제1308호 홍진 호성공신교서	보존처리 및 복제	51,150천 원	'09년 정기조사 결과 반영
2	충북 청주	보물 제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150,000천 원	'08년 정기조사 결과 반영
3	충북 청원	보물 제613호 신숙주초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150,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긁임 및 박락)
4	충남 부여	보물 제1565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550,000천 원	'10년 안전진단 결과 반영
5	전북 완주	보물 제1255호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보존처리	170,000천 원	'11년 긴급보수사업으로 추진, 예산부족분 추가 반영
6	전남 여수	보물 제1566호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기록화사업	200,000천 원	균열등이 관찰되어 안전진단 및 기록화사업 추진
7	전남 순천	보물 제1467호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남방천왕, 서방천왕 개채	200,000천 원	'10년 보존처리 완료 후 개채 필요
8	전남 순천	보물 제1549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	보존처리	100,000천 원	'11년 기록화사업 결과 반영
9	전남 순천	보물 제1494호 황현초상 및 사진	보존처리	150,000천 원	'08년 정기조사 결과 반영
10	전남 장흥	보물 제1664호 풍아익	보존처리	150,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습기로 인한 훼손)
11	전남 장흥	보물 제1254호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보존처리 및 개채	200,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곰팡이 피해)
12	전남 해남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모사	400,000천 원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
13	경북 안동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	130,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14	경북 영천	보물 제652호 이형상 수고본	보존처리	110,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찢김 및 얼룩)
15	경북 예천	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보존처리	5,000천 원	'09년 정기조사 결과 반영
16	경남 양산	보물 제1711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모사	300,000천 원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
17	경남 산청	보물 제774-2호 선종영가집(언해)	보존처리	24,000천 원	보존상태 불량 (오염 및 찢김)
		합계		3,016,150천 원	국비(70%) + 지방비(30%)

Ⅲ.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안건번호 동산 2011-06-014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가. 심의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안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일 유형의 국가지정동산문화재의 지정명칭 명명(命名)방식이 상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명명 방식의 통일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정명칭의 일제 정비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 개선 계획을 보고('11.10.13)하였으며, 분야별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에서 검토되어 변경예고('11.11.8~12.7)된 공예·과학기기류, 불교회화류, 일반회화류, 도자·토기류, 일괄류 지정명칭 개선(안) 348건에 대한 변경(안)을 최종 심의하고자 함.

다. 관련경과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계획보고('11.10.13)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공예·과학기기류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11.10.11)
 - 내 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공예·과학기기류 94건 명칭 검토
 - 참석자 : 김리나(동산분과위원장), 최응천(문화재위원), 손영문(문화재전문위원), 이상태·양보경(지도류 관계전문가)
 - ※ 박재광(무기류 관계전문가, 전쟁기념관 학예실장) 서면검토의견서 제출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불교회화류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11.10.18)
 - 내 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불교회화류 110건 명칭 검토
 - 참석자 : 김리나(동산분과위원장), 정우택·홍선스님(문화재전문위원),

- 김창균·김정희·손영문(문화재전문위원)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일반회화류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11.10.21)
 - 내 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일반회화류 44건 명칭 검토
 - 참석자 : 김리나(동산분과위원장), 조선미(문화재전문위원), 박정혜·손영문(문화재전문위원), 김상엽(문화재청 인천공항감정관실 감정관)
 - 국가지정문화재 도자·토기류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11.10.21, '11.10.30)
 - 내 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도자·토기류 170건 명칭 검토
 - 참석자 : 김리나(동산분과위원장), 나선화·김재열(문화재전문위원), 방병선·이희경·손영문(문화재전문위원), 최종택(관계전문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 합동소위원회('11.11.2)
 - 분야별 소위원회 명칭 개선안 및 일괄류 14건 명칭 검토
 - 참석자 : 김리나(동산분과위원장), 정우택·조선미·김재열·나선화·최응천(문화재전문위원), 손영문(문화재전문위원)
 - 관보 변경 예고('11.11.8~12.7)
 - 예고 관련 접수 의견 : 3건(붙임 참조)
 - 육군박물관 측에 무기류 지정명칭 변경안 검토 협조 의뢰('11.11.25)
 - 이견 없다는 회신 받음('11.12.5)

라. 검토결과

- 분야별 명칭 개선안 검토 및 분야별 개별문화재 명명 기준안 마련(붙임 참조)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단, 불교회화류는 자문회의 개최 후 재심의

예고 관련 접수 의견

○ 의견 제목 : 감로왕도 명칭 숙고 요청

○ 의견 제출인 / 제출일자 : 권순학 / 2011. 11. 10

○ 의견 내용

문화재 보호와 사랑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재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왕에 거론됐던 문화재 명칭 '감로(왕)탱'에 관해 저의 소견을 다시 밝히오니,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명칭검토에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명칭은 일목요연하고 타당성 있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인의 쉬운 이해를 고려함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비유하였듯 '영산회상도'는 부처님이(제가 불교신자라서 명호에 '님'을 붙임을 양해 바랍니다) 유일한 부처로 도상 중앙에 크게 표현되어도, 그림의 주제가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이라서 '석가도' 또는 '석가탱'이라 부르지 않고, '영산회상도'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상의 경우도 '감로도' 혹은 '감로탱'이 적절한 표현이고, 다만 설명에는 "감로왕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을 비롯한 七佛이 감로법을 설하고, 영가들에게 영반을 시식하며.....(중략)..... 하단에는 중생계의 여러 모습이 표현....(생략)....."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럴테면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한 사진을 두고, 공식 사진명칭을 '한국대통령 사진'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G20 정상 단체사진'이라고 해야 타당하고, 보도설명에서는 "한국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정상들이 기념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 심의 때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도(圖)나 탕(幀)이냐는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탱'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 독특하게 쓰는 별난(?) 술어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중국의 문자(한자)를 빌되, 이면에는 원어인 티벳의 '탕가'를 오히려 존중하는 뜻도 담겨있어 어떤 면에서는 국제교류나 원음중시의 중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은 王을 붙임으로 해서 “영가를 위하여 불보살이 감로법을 펼치는 그림”이라는 넓은 뜻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1.감로탱 2.감로도의 순서로 명칭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만, 행여 후손들에게 지적 당하더라도 당대에 이런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남겨두고 싶을 따름입니다.

○ 의견 제목 : 불교회화 지칭용어에 대하여

○ 의견 제출인 / 제출일자 : 이희갑 / 2011. 12. 04

○ 의견 내용

이 글은 불교신문 2011년 11월 19일 발행 제2769호에 게재된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된 ‘불교회화 지칭용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전통문화의 맥은 혁신되거나 쇠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유히 교류되고 스며드는 것이며 특히 역사적, 종교적, 사상적 정체성으로서 기록, 의식, 전래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불화는 감성화 위주의 일반회화와는 달리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화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역사성과 畵記의 기록, 철저한 종교 의식의 표상으로 지켜온 聖寶의 명칭을 한순간 편리성과 획일성으로 소멸시키는 일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幀·幀畵’의 명칭을 ‘圖’로 바꾸어 사용함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유

첫째, ‘탱화·탱’등의 어원은 티벳 라마불교의 탕카(Thangkas)라는 말에서 음借되어 쓰여진 불화 명칭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몽골의 원나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의 불교적 의식으로 전래되어져 사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경과 의식을 행하는 전각의 탕화, 괘불 등에서 사용되어진다.

그 예로서 일본 약선사 감로탱(1589년), 죽림사 괘불(1622년), 신원사 괘불(1644년), 안심사 괘불(1652년), 내소사 괘불(1700년), 동국대 소장 장곡사 아미타후불(1708년) 등 17세기에서 오늘날까지 전국 각 사찰에 조성된 수많은 불화 명칭 중에서 약 90%가 幀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적 자료를 인정하여야 하며, 고유한 우리문화유산의 독창성이 전승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불화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서 ‘탱화’의 해석이 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불화란 예배대상인 탱화, 공덕을 기리는 사경화·사불화, 교화용의 본생도·불전도, 의식장엄용의 幡 그림 등 소의경전에 상응하는 모든 회화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탱화’는 의식의 수단으로 모여지는 尊像의 그림이다.

이운·복장·점안 의식을 거쳐 佛壇을 형성하여 공양과 예경 의식을 올리때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幀’字를 직역하거나 위치에 따라 모가진 그림, 틀에 짠 그림, 거는 그림 등으로서 형태적 분류에 국한시켜 해석하는 것은 역사성을 배제한 궁색한 논리의 편의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굳이 분류한다면 신앙 체계적 분류로서 공양과 예경의식의 대상이 되는 불화는 幀畫, 교화와 장엄, 현대적의미의 불화는 佛圖로서 구분지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어원이 티벳에서 시작되어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어졌으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독창적인 종교 의식용어로서 그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넷째, 탱화를 수량이나 거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과 사상적 의식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야외에 걸려지면 괘불탱, 불상 뒤에 걸려지면 후불탱, 벽에 걸려지면(예, 강진무의사 극락보전, 안동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탱으로 불려진다.

또한 불상이 모셔지지 않는 곳에서도 불단을 형성하여 의식용 그림이 그려지면 산신탱, 조왕탱, 칠성탱, 신중탱 등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다섯째, 표기의 분류, 용어해석, 외국어 번역 등의 편리함으로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획일 된 용어로 고쳐 쓰고자 함은 그 문화의 정체성과 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점으로 매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불교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문화재 관련 기관 및 고명하신 학자님들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가기능보유자 불화장	임 석 정
국가기능보유자 불화장	임 석 환
일섭문도회장	전 연 호

대한민국 변영1번지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자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5742호(2011.11.16)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하동 쌍계사로부터 불임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동군 공문 1부,
2. 쌍계사 공문 1부

경 상 남 도 지 사



주무관 김석환 모용지교리모용 연가 모용애소과장 권관 12/07
최도준

합조자

시청 문화예술과-19604 (2011. 12. 07.) 접수 유형문화재과-6157 (2011. 12. 08.)

우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 <http://www.gnd.net>
문화예술과

전화 055-211-4745 전송 055-211-4719 / ish777@korea.kr / 대한민국기

대한민국 변영1번지 경남



하 동 군



수신자 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5724호(2011. 11. 16.) 및 경상남도 문화예술과-18690호(2011. 11. 21), 하동군 문화관광과-19589호(2011. 11.23.), 쌍계사 제161호(2011. 12. 1.) 등과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회화, 도자, 공예 등 지정명칭 변경예고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견을 붙임과 제출합니다.

○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내용

지정번호	당초명칭	변경예고명칭	의견내용
보물 925호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설법도	영산회상도는 석가여래의 수많은 설법 중 영축산에서 설법을 뜻하며, 불교경전에서 영축산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영산이라는 명칭을 비는 것은 부적절함. →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물 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채물탱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삼물회도	한국의 탱화는 중국,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형식이자, 신앙대상으로 일반적인 문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탱'이라는 말을 비고 '도'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천년이상된 탱화의 명칭도 우리 고유의 문화로 오히려 강력하고 홍보해야 한다. → 하동 쌍계사 삼채물탱, 하동 쌍계사 대웅전 삼채물탱 →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팔상탱, 하동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하동 쌍계사 팔상전 석가여래팔상탱
보물 1365호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팔상도	

붙임 1.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 제출 공문 1부. 끝.

修行과 傳法으로 精進하는 曹溪宗
- 結界와 布薩의 生活化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수 신 : 하동군수

참 조 : 문화관광과장

제 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에 따른 이의제기의 건

1. 문화관광과-1958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이 변경 예고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 래 -

지정번호	당초명칭	변경예고명칭	이의제기사유
보물925호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하동쌍계사 석가여래설법도	영산회상도는 석가여래의 수많은 설법 중 영축산에서의 설법을 뜻하며, 불교경전에서 영축산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영산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은 부적절함
보물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명	하동쌍계사 석가여래 삼불회도	한국의 명화는 중국,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불화 형식이자, 신앙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불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명'이라는 말을 빼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보물1365호	쌍계사 팔상전 팔상명	하동쌍계사 석가여래팔상도	티벳불교의 '달카'가 일반명사화 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 1000년이상 사용된 '명화'라는 명칭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므로 문화재청에서 오히려 강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경담 성조



담당자 : 총무과장 이호상 사무장 정준화

문서번호 : 쌍계사 제161호

시행일자 : 2011. 12. 1

867-824 경남 하동군 회계면 쌍계사길 59번지 / 전화 : 055) 883-1901~2 / 팩스 055)883-6084

분야별 명칭 명명(命名) 기준안 및 검토 결과

□ 공예·과학기기류 : 총94건 중 41건 변경

○ 검토 기준

-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되, 무기류는 지역 및 재질을 명칭에 적용하지 않음.
- 소장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명을 맨 앞에 추가 표기할 경우, 지역명은 현재 행정구역명을 적용함.

검토 대상 연번	변경 안 연번	종 별	지정 번호	분류	문화재명칭(현행)	문화재명칭(변경안)	변경사유	지정일
1	1	국보	121	탈	하회탈및병산탈 (河回탈및屏山탈)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安東 河回탈 및 屏山탈)	○ 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동' 추가 ○ 띄워 쓰기	64/03/30
2	2	국보	193	공예	유리제병및배(98호남분) (琉璃製瓶및杯(98號南墳))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慶州 九十八號 南墳 琉璃瓶 및 盞)	○ 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주' 추가 ○ 띄워 쓰기	78/12/07
3	3	국보	233	공예	영태이년명납석제호 (永泰二年銘蠟石製壺)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傳 山淸 石南巖寺址 蠟石舍利壺)	○ 출토지를 명확하게 위해 '석남암사지' 추가 ○ 띄워 쓰기	86/10/15
4	4	국보	288	공예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扶餘 陵山里寺址 石造舍利龕)	○ 출토지를 명확하게 위해 '능산리사지' 추가 ○ 띄워 쓰기	96/05/30
5	5	보물	134	공예	경질 (經帙)	순천 송광사 경질 (順天 松廣寺 經帙)	○ 소장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순천 송광사'를 추가 ○ 띄워 쓰기	63/01/21
6	6	보물	175	공예	송광사경패 (松廣寺經牌)	순천 송광사 경패 (順天 松廣寺 經牌)	○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순천' 추가 ○ 띄워 쓰기	63/01/21
7	7	보물	336	공예	정지장군환삼 (鄭地將軍環衫)	정지장군 갑옷 (鄭地將軍 甲衣)	○ '환삼'용어를 쉽게 표기하기 위해 '갑옷'으로 표기함. 단, 한문표기는 甲衣로 함. ○ 정지인명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갑옷의 의미와 분리되기 때문에 '장군'을 그대로 씀. ○ 띄워 쓰기	63/01/21
8	8	보물	486	공예	은혜사백홍암 극락전수미단	영천 은혜사 백홍암 수미단	○ 백홍암에 극락전이 한 곳뿐이기 때문에 '극락전'	68/12/19

					(銀海寺百興庵 極樂殿須彌壇)	(永川 銀海寺 百興庵 須彌壇)	생략 ○ 띄워 쓰기	
9	9	보물	559	공예	유문칠우 (有文漆盃)	채화칠기 (彩畵漆器)	○ 유물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	71/12/21
10	10	보물	560	공예	진술선예백장동인 (晋率善濊伯長銅印)	청동 진술선예백장 인장 (靑銅 晋率善濊伯長 印章)	○ 재질을 강조하기 위해 ‘동’을 ‘청동’으로 풀어씀. ○ 띄워 쓰기	71/12/21
11	11	보물	595	공예	초충도수병 (草蟲圖繡屏)	자수 초충도 병풍 (刺繡 草蟲圖 屏風)	○ ‘병’은 ‘병풍’으로 통일 ○ ‘재질’을 앞쪽에 표기 ○ 띄워 쓰기	75/05/16
12	12	보물	653	공예	자수사계분경도 (刺繡四季盆景圖)	자수 사계분경도 (刺繡 四季盆景圖)	○ 띄워 쓰기	79/02/08
13		보물	654	공예	자수가사 (刺繡袈裟)	현행유지		79/02/08
14	13	보물	684	공예	용문사윤장대 (龍門寺輪藏臺)	예천 용문사 윤장대 (醴泉 龍門寺 輪藏臺)	○ 지역명 표기 ○ 띄워 쓰기	80/09/16
15	14	보물	741	공예	민애대왕석탑사리호 (敏哀大王石塔舍利壺)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사리호 (傳 大邱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蠟石舍利壺)	○ 발견된 석탑 명칭을 명확하게 함. ○ 띄워 쓰기	82/12/07
16	15	보물	747	공예	최문병의병장안장 (崔文炳義兵將鞍裝)	최문병 의병장 안장 (崔文炳 義兵將 鞍裝)	○ 띄워 쓰기	83/05/07
17	16	보물	956	공예	태안사대바라 (泰安寺大鉢羅)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 (谷城 泰安寺 靑銅 大鉢羅)	○ 유물을 명확하게 설명 하기 위해 ‘청동대바라’로 표기 ○ 띄워 쓰기	88/06/16
18	17	보물	957	공예	탁영거문고 (濯纓 거문고)	김일손 거문고 (金駟孫 琴)	○ ‘김일손’이 ‘탁영’보다 대중적 ○ 띄워 쓰기	88/06/16
19	18	보물	865	서지	민간활자및인쇄용구 (民間活字 및 印刷用具)	민간 목활자 및 인쇄용구 (民間 木活字 및 印刷用具)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 게 전달하기 위해 ‘목’을 추가 ○ 띄워 쓰기	86/03/14
20	19	보물	1413	공예	범주사철환 (法住寺鐵鑊)	보은 범주사 철술 (報恩 法住寺 鐵鑊)	○ ‘환’을 ‘술’으로 한글 표기하되, 한자표기는 ‘鑊’으로 표기함.	04/08/31
21		보물	1444	공예	은입사귀면문철퇴 銀入絲鬼面文鐵鎚	현행유지		
22	20	보물	599	무기	쌍자승자총통 (雙字勝字銃筒)	쌍자총통 (雙字銃筒)	○ 명문을 근거로 명명	
23	21	보물	647	무기	가정을묘명천자총통 (嘉靖乙卯銘天字銃筒)	천자총통 (天字銃筒)	○ 중국연호 삭제	78/12/07
24	22	보물	648	무기	만력기묘명승자총통 (萬曆己卯銘勝字銃筒)	승자총통 (勝字銃筒)	○ 중국연호 삭제	78/12/07
25		보물	854	무기	세총통 細銃筒	현행유지		
26		보물	855	무기	차승자총통 次勝字銃筒	현행유지		
27		보물	856	무기	소총통 小銃筒	현행유지		

28		보물	857	무기	대완구 大碗口	현행유지		
29		보물	858	무기	중완구 中碗口	현행유지		
30		보물	859	무기	중완구 中碗口	현행유지		
31		보물	860	무기	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	현행유지		
32		보물	861	무기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현행유지		
33		보물	862	무기	지자총통 地字銃筒	현행유지		
34		보물	863	무기	지자총통 地字銃筒	현행유지		
35		보물	884	무기	삼안총 三眼鏡	현행유지		
36		보물	885	무기	현자총통 玄字銃筒	현행유지		
37		보물	886	무기	황자총통 黃字銃筒	현행유지		
38		보물	1233	무기	현자총통 玄字銃筒	현행유지		
39	23	국보	228	천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	○ 띄워 쓰기	85/08/09
40	24	국보	230	천문	혼천시계 (渾天時計)	혼천의 및 혼천시계 (渾天儀 및 渾天時計)	○ 띄워 쓰기	85/08/09
41	25	보물	561	천문	금영측우기 (錦營測雨器)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 띄워 쓰기	71/12/21
42	26	보물	842	천문	대구선화당측우대 (大邱宣化堂測雨臺)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 띄워 쓰기	85/08/09
43	27	보물	843	천문	관상감측우대 (觀象監測雨臺)	관상감 측우대 (觀象監 測雨臺)	○ 띄워 쓰기	85/08/09
44	28	보물	844	천문	창덕궁측우대 (昌德宮測雨臺)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 띄워 쓰기	85/08/09
45	29	보물	848	천문	신법천문도병풍 (新法天文圖屏風)	보은 범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屏風)	○ 지역명 및 소재지 명확 하게 하기 위해 ‘보은 범 주사’ 추가	85/08/09
46	30	보물	883	천문	늦쇠지구의 (늦쇠地球儀)	지구의 (地球儀)	○ 재질을 명칭에 삽입하 는 것은 부적절	86/11/19
47	31	보물	837	천문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각 석 (復刻天象列次分野之圖刻 石)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復刻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	○ 띄워 쓰기	85/08/09
48	32	보물	839	천문	송정구년명신법지평일구 (崇禎九年銘新法地平日晷)	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 중국연호 삭제	85/08/09
49	33	보물	840	천문	신법지평일구 (新法地平日晷)	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 띄워 쓰기	85/08/09
50	34	보물	852	천문	휴대용양부일구 (攜帶用仰釜日晷)	휴대용 양부일구 (攜帶用 仰釜日晷)	○ 띄워 쓰기	86/03/14

51		보물	841	천문	간평일구혼개일구 簡平日晷渾蓋日晷	현행유지		
52		보물	845	천문	양부일구 仰釜日晷	현행유지		
53	35	보물	1652	천문	통영측우대 (統營測雨臺)	통영 측우대 (統營 測雨臺)	○ 띄워 쓰기	10/04/23
54		국보	248	지도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현행유지		
55	36	보물	853	지도	수선전도목판 (首善全圖木板)	수선전도 목판 (首善全圖 木板)	○ 띄워 쓰기	86/03/14
56	37	보물	882	지도	곤여전도목판 (坤輿全圖木板)	곤여전도 목판 (坤輿全圖 木板)	○ 띄워 쓰기	86/11/19
57	38	보물	1373	지도	통도사 금동천문도 (通度寺 金銅天文圖)	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 (梁山 通度寺 金銅天文圖)	○ 지역명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산' 추가	03/04/14
58	39	보물	1535	지도	숙빈최씨소령원도 (淑嬪崔氏昭寧園圖)	숙빈최씨 소령원도 (淑嬪崔氏 昭寧園圖)	○ 띄워 쓰기	07/12/31
59	40	보물	1598	지도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咸鏡道·京畿道·江原道地 圖)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 (咸鏡道·京畿道·江原道 地圖)	○ 띄워 쓰기	08/12/22
60	41	보물	1601	지도	조선본천하여지도 (朝鮮本天下輿地圖)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 의미상 '조선본' 삭제	08/12/22
61		보물	849	지도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현행유지		
62		보물	850	지도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현행유지		
63		보물	1318	지도	신·구법 천문도 新.舊法天文圖	현행유지		
64		보물	1358	지도	동여도 東輿圖	현행유지		
65		보물	1533	지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현행유지		
66		보물	1534	지도	서궐도안 西闕圖案	현행유지		
67		보물	1536	지도	월중도 越中圖	현행유지		
68		보물	1537	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 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 圖	현행유지		
69		보물	1538	지도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현행유지		
70		보물	1542	지도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현행유지		
71		보물	1560	지도	도성도 都城圖	현행유지		
72		보물	1581	지도	대동여지도 목판 大東輿地圖木板	현행유지		
73		보물	1582	지도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總圖	현행유지		
74		보물	1583	지도	함경도전도	현행유지		

					咸鏡道全圖			
75		보물	1584	지도	해서지도 海西地圖	현행유지		
76		보물	1585	지도	영남지도 嶺南地圖	현행유지		
77		보물	1586	지도	전주지도 全州地圖	현행유지		
78		보물	1587	지도	조선지도 朝鮮地圖	현행유지		
79		보물	1588	지도	호남지도 湖南地圖	현행유지		
80		보물	1589	지도	호서지도 湖西地圖	현행유지		
81		보물	1590	지도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현행유지		
82		보물	1591	지도	해동지도 海東地圖	현행유지		
83		보물	1592	지도	여지도 輿地圖	현행유지		
84		보물	1593	지도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현행유지		
85		보물	1594 -1	지도	청구도 靑邱圖	현행유지		
86		보물	1594 -2	지도	청구도 靑邱圖	현행유지		
87		보물	1594 -3	지도	청구도 靑邱圖	현행유지		
88		보물	1595 -1	지도	목장지도 牧場地圖	현행유지		
89		보물	1595 -2	지도	목장지도 牧場地圖	현행유지		
90		보물	1596	지도	동여비고 東輿備攷	현행유지		
91		보물	1597	지도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현행유지		
92		보물	1599	지도	경상총여도 慶尙總輿圖	현행유지		
93		보물	1600	지도	진주성도 晉州城圖	현행유지		
94		보물	1602	지도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攬圖	현행유지		

□ 불교회화류 : 총110건 중 91건 변경

○ 검토 기준

- 이미 변경된 분야(불교조각, 석조물 등)의 명칭기준에 따라 소재지, 사찰명, 도순으로 문화재명칭을 부여함. 단, 국·공립기관, 대학박물관, 개인소장 불화는 현행대로 문화재 명칭만 부여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괘불은 독존일 경우 석가여래 괘불도로 표기하고, 군상일 경우 영산회 괘불도로 표기함.
- “석가”, “아미타”, “약사”는 “여래”를 붙여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로 표기하되, “비로자나”, “미륵”은 “여래” 대신, “불”을 사용하여 “비로자나불”로 표기함.
- 삼불회도 중 비로자나 삼신불을 제외한 삼불회의 경우 주존불의 명칭을 중심으로 ‘삼불회도’로 표기함.
-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도”로 통일하여 표기함.
- 회상도는 “설법도”로 통일하여, 영산회상도는 “석가여래설법도”로 표기하고, 아미타회상도는 “아미타여래설법도”로 표기함.
- 불화의 한 장르인 벽화는 명칭에 벽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벽화’로 표기하며, 벽화 앞에는 전각명을 표기함.
- 복장유물 등을 동반한 문화재의 부(附)·병(并)·및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한글 ‘및’으로 통일함.
- “괘불도”를 보관하는 “궤”는 “함”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되, “괘불도”를 거는 괘불대 지주는 “지주”로 결정함.
- 위의 예를 벗어난 경우 기준(안) 속에서 존상의 구성형식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으로 부여함.

검토 대상 연번	변경 안 연번	종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현재)	문화재명칭(변경안)	변경 사유	지정일
1	1	국보	46	부석사조사당벽화 (浮石寺祖師堂壁畫)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榮州 浮石寺 祖師堂 壁畫)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62/12/20
2	2	국보	218	아미타삼존도 (阿彌陀三尊圖)	아미타여래삼존도 (阿彌陀如來三尊圖)	○ 존칭 ‘여래’ 추가함.	84/08/06
3	3	국보	296	칠장사오불회괘불탱 (七長寺五佛會掛佛幀)	안성 칠장사 비로자나오불회 괘불도 (安城 七長寺 毘盧遮那五佛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9/22

4	4	국보	297	안심사영산회괘불탱 (安心寺靈山會掛佛幀)	청원 안심사 영산회 괘불도 (淸原 安心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97/09/22
5	5	국보	298	갑사삼신불괘불탱 (甲寺三身佛掛佛幀)	공주 갑사 비로자나삼신불 괘불도 (公州 甲寺 毘盧遮那三身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97/09/22
6	6	국보	299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新元寺盧舍那佛掛佛 幀)	공주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도 (公州 新元寺 盧舍那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97/09/22
7	7	국보	300	장곡사미륵불괘불탱 (長谷寺彌勒佛掛佛幀)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괘불도 (淸陽 長谷寺 彌勒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97/09/22
8	8	국보	301	화엄사영산회괘불탱 (華嚴寺靈山會掛佛幀)	구례 화엄사 영산회 괘불도 (求禮 華嚴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97/09/22

						기함. ○ 띄워 쓰기	
9	9	국보	302	청곡사영산회괘불탱 (靑谷寺靈山會掛佛幀)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도 (晉州 靑谷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97/09/22
10	10	국보	313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康津 無爲寺 極樂殿 阿彌陀如來三尊壁畫)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 (康津 無爲寺 極樂殿 阿彌陀如來說法圖 壁畫)	○ 띄워 쓰기	09/09/02
11		국보	314	순천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 順天 松廣寺 華嚴經 變相圖	현행유지		03/02/03
12	11	보물	578	흥국사대웅전후불탱 (興國寺大雄殿後佛幀)	여수 흥국사 석가여래설법도 (麗水 興國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74/07/09
13		보물	593	이상좌불화첩 李上佐佛畫帖	현행유지		75/05/16
14	12	보물	670	직지사대웅전삼존불탱 화 (直指寺大雄殿三尊佛 幀畫)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金泉 直指寺 釋迦如來三佛會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80/08/23
15	13	보물	784	지장도 (地藏圖)	지장보살도 (地藏菩薩圖)		84/08/06
16	14	보물	924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 불탱화 (泉隱寺極樂殿阿彌陀 後佛幀畫)	구례 천은사 아미타여래설법도 (求禮 泉隱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87/07/16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17	15	보물	925	쌍계사팔상전영산회상도 (雙溪寺八相殿靈山會相圖)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설법도 (河東 雙溪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87/07/16
18	16	보물	926	수월관음보살도 (水月觀音菩薩圖)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 관음보살 관련 도상은 관음보살도로 통일함.	87/07/16
19	17	보물	1041	통도사영산전팔상도 (通度寺靈山殿八相圖)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팔상도 (梁山 通度寺 釋迦如來八相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90/09/20
20	18	보물	1042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 (通度寺大光明殿三身佛圖)	양산 통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梁山 通度寺 毘盧遮那三身佛會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90/09/20
21		보물	1048	지장시왕도 地藏十王圖	현행유지		90/09/20
22	19	보물	1204	의겸등필수월관음도 (義謙等筆水月觀音圖)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 관음보살 관련 도상은 관음보살도로 통일함.	94/07/29
23	20	보물	1210	청량산괘불탱 (淸涼山掛佛幀)	석가여래괘불도 (釋迦如來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94/10/17
24	21	보물	1214	과계사영산회상도 (把溪寺靈山會上圖)	대구 과계사 석가여래설법도 (大邱 把溪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95/01/10
25		보물	1238	아미타여래도 阿彌陀如來圖	현행유지		96/04/04
26	22	보물	1239	감로탱화 (甘露幀畫)	감로왕도 (甘露王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96/04/04
27	23	보물	1256	칠장사삼불회괘불탱 (七長寺三佛會掛佛幀)	안성 칠장사 영산회괘불도 (安城 七長寺 靈山會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97/08/08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28	24	보물	1257	청룡사영산회괘불탱 (靑龍寺靈山會掛佛幀)	안성 청룡사 영산회 괘불도 (安城 靑龍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29	25	보물	1258	보살사영산회괘불탱 (菩薩寺靈山會掛佛幀)	청주 보살사 영산회 괘불도 (淸州 菩薩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0	26	보물	1259	법주사괘불탱 (法住寺掛佛幀)	보은 법주사 괘불도 (報恩 法住寺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1	27	보물	1260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麻谷寺釋迦牟尼佛掛佛幀)	공주 마곡사 영산회 괘불도 (公州 麻谷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2	28	보물	1261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廣德寺盧舍那佛掛佛幀)	천안 광덕사 노사나불 괘불도 (天安 廣德寺 盧舍那佛)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97/08/08

					掛佛圖)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33	29	보물	1262	용봉사영산회괘불탱 (龍鳳寺靈山會掛佛幀)	홍성 용봉사 영산회 괘불도 (洪城 龍鳳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4	30	보물	1263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修德寺盧舍那佛掛佛幀)	예산 수덕사 노사나불 괘불도 (禮山 修德寺 盧舍那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5	31	보물	1264	개심사영산회괘불탱 (開心寺靈山會掛佛幀)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불도 (瑞山 開心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6	32	보물	1265	무량사미륵불괘불탱 (無量寺彌勒佛掛佛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7/08/08
37	33	보물	1266	금당사괘불탱 (金塘寺掛佛幀)	진안 금당사 괘불도 (鎭安 金塘寺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97/08/08

						<p>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p> <p>○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p> <p>○ 띄워 쓰기</p>	
38	34	보물	1267	안국사영산회괘불탱 (安國寺靈山會掛佛幀)	<p>무주 안국사 영산회 괘불도 (茂朱 安國寺 靈山會 掛佛圖)</p>	<p>○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p> <p>○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p> <p>○ 띄워 쓰기</p>	97/08/08
39	35	보물	1268	내소사영산회괘불탱 (來蘇寺靈山會掛佛幀)	<p>부안 내소사 영산회 괘불도 (扶安 來蘇寺 靈山會 掛佛圖)</p>	<p>○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p> <p>○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p> <p>○ 띄워 쓰기</p>	97/08/08
40	36	보물	1269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 초본 (開巖寺靈山會掛佛幀 및草本)	<p>부안 개암사 영산회 괘불도 및 초본 (扶安 開巖寺 靈山會 掛佛圖 및 草本)</p>	<p>○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p> <p>○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p> <p>○ 띄워 쓰기</p>	97/08/08
41	37	보물	1270	은해사괘불탱 (銀海寺掛佛幀)	<p>영천 은해사 괘불도 (永川 銀海寺 掛佛圖)</p>	<p>○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p> <p>○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p> <p>○ 띄워 쓰기</p>	97/08/08
42	38	보물	1271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	○ 사찰명 앞에 지역명	97/08/08

				(修道寺盧舍那佛掛佛幀)	괘불도 (永川 修道寺 盧舍那佛 掛佛圖)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43	39	보물	1272	불영사영산회상도 (佛影寺靈山會上圖)	울진 불영사 석가여래설법도 (蔚珍 佛影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97/08/08
44	40	보물	1273	해인사영산회상도 (海印寺靈山會上圖)	합천 해인사 석가여래설법도 (陝川 海印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97/08/08
45	41	보물	1278	북장사영산회괘불탱 (北長寺靈山會掛佛幀)	상주 북장사 영산회괘불도 (尙州 北長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8/06/29
46	42	보물	1279	죽림사세존괘불탱 (竹林寺世尊掛佛幀)	나주 죽림사 석가여래괘불도 (羅州 竹林寺 釋迦如來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98/06/29
47	43	보물	1286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 관음보살 관련 도상은 관음보살도로 통일함.	98/10/10
48		보물	1287	지장보살삼존도 地藏菩薩三尊圖	현행유지		98/10/10
49	44	보물	1302	청룡사감로탱 (靑龍寺甘露幀)	안성 청룡사 감로왕도 (安城 靑龍寺 甘露王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00/10/16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50	45	보물	1314	무위사극락전백의관음도 (無爲寺極樂殿白衣觀音圖)	강진 무위사 극락전 관음보살도 벽화 (康津 無爲寺 極樂殿 觀音菩薩圖 壁畫)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의 한 장르인 벽화는 명칭에 벽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벽화'로 표기함. ○ 띄워 쓰기	01/08/03
51	46	보물	1315	무위사극락전내벽사면벽화 (無爲寺極樂殿內壁四面壁畫)	강진 무위사 극락전 내부벽화 (康津 無爲寺 極樂殿 內部 壁畫)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01/08/03
52	47	보물	1316	울곡사괘불탱 (栗谷寺掛佛幀)	산청 울곡사 괘불도 (山淸 栗谷寺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1/08/03
53	48	보물	1317	운흥사괘불탱및궤 (雲興寺掛佛幀및櫃)	고성 운흥사 영산회괘불도 및 함 (固城 雲興寺 靈山會掛佛圖 및 函)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1/08/03
54	49	보물	1326	함창상원사사불회탱 (咸昌上院寺四佛會幀)	사불회도 (四佛會圖)	○ 개인 소장이므로 '함창 사원사' 삭제	01/10/25
55	50	보물	1330	예천용문사팔상탱 (醴泉龍門寺八相幀)	예천 용문사 석가여래팔상도 (醴泉 龍門寺 釋迦如來八相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1/10/25
56	51	보물	1331	흥국사노사나불괘불탱 (興國寺盧舍那佛掛佛)	여수 흥국사 노사나불괘불도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02/01/02

				幀)	(麗水 興國寺 盧舍那佛掛佛圖)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57	52	보물	1332	흥국사수월관음도 (興國寺水月觀音圖)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 (麗水 興國寺 觀音菩薩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02/01/02
58	53	보물	1333	흥국사십육나한도 (興國寺十六羅漢圖)	여수 흥국사 16나한도 (麗水 興國寺 十六羅漢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띄워 쓰기	02/01/02
59	54	보물	1339	오덕사괘불탱 (五德寺掛佛幀)	부여 오덕사 영산회괘불도 (扶餘 五德寺 靈山會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0	55	보물	1340	천은사괘불탱 (泉隱寺掛佛幀)	구례 천은사 석가여래괘불도 (求禮 泉隱寺 釋迦如來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1	56	보물	1341	도림사괘불탱 (道林寺掛佛幀)	곡성 도림사 괘불도 (谷城 道林寺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2	57	보물	1342	미황사괘불탱	혜남 미황사 석가여래	○ 사찰명 앞에 지역명	02/07/03

				(美黃寺掛佛幀)	괘불도 (海南 美黃寺 釋迦如來 掛佛圖)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63	58	보물	1343	다보사괘불탱 (多寶寺掛佛幀)	나주 다보사 영산회 괘불도 (羅州 多寶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4	59	보물	1344	금탑사괘불탱 (金塔寺掛佛幀)	고흥 금탑사 석가여래삼불 괘불도 (高興 金塔寺 釋迦如來三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5	60	보물	1345	만연사괘불탱 (萬淵寺掛佛幀)	화순 만연사 영산회 괘불도 (和順 萬淵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07/03
66	61	보물	1350	통도사석가여래괘불탱 (通度寺釋迦如來掛佛幀)	양산 통도사 괘불도 (梁山 通度寺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02/10/19

67	62	보물	1351	통도사괘불탱 (通度寺掛佛幀)	양산 통도사 괘불도 (梁山 通度寺 掛佛圖)	○ 띄워 쓰기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10/19
68	63	보물	1352	통도사화엄탱 (通度寺華嚴幀)	양산 통도사 화엄경변상도 (梁山 通度寺 華嚴經變相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10/19
69	64	보물	1353	통도사영산회상탱 (通度寺靈山會上幀)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설법도 (梁山 通度寺 釋迦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2/10/19
70	65	보물	1363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탱 (華嚴寺 大雄殿 三身佛幀)	구례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求禮 華嚴寺 毘盧遮那三身佛會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03/02/03
71	66	보물	1364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雙溪寺 大雄殿 三世佛幀)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삼불회도 (河東 雙溪寺 釋迦如來三佛會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03/02/03

						기함. ○ 띄워 쓰기	
72	67	보물	1365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雙溪寺 八相殿 八相幀)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팔상도 (河東 雙溪寺 釋迦如來八相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3/02/03
73	68	보물	1367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후불탱·십육 나한탱 (松廣寺 應眞堂 釋迦牟尼後佛幀·十六 羅漢幀)	순천 송광사 석가여래설법도 및 16나한도 일괄 (順天 松廣寺 釋迦如來說法圖 및 十六羅漢圖 一括)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3/02/03
74	69	보물	1368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松廣寺 靈山殿 後佛幀·八相幀)	순천 송광사 석가여래설법도 및 팔상도 (順天 松廣寺 釋迦如來說法圖 및 八相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3/02/03
75	70	보물	1374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龍興寺 三佛會 掛佛幀)	상주 용흥사 석가여래삼불 괘불도 (尙州 龍興寺 釋迦如來三佛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3/04/14
76	71	보물	1379	축서사 괘불탱 (鶯棲寺 掛佛幀)	봉화 축서사 석가여래 괘불도 (奉化 鶯棲寺 釋迦如來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03/08/21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함. ○ 띄워 쓰기	
77	72	보물	1397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寧國寺 靈山會後佛幀)	영동 영국사 석가여래설법도 (永同 寧國寺 釋迦如來說法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4/03/03
78	73	보물	1419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 탱 및 부속유물일괄 (仙巖寺釋迦牟尼佛掛 佛幀 및 附屬遺物一括)	순천 선암사 석가여래 괘불도 및 복장유물 (順天 仙巖寺 釋迦如來 掛佛圖 및 腹藏遺物)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4/11/26
79	74	보물	1426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 관음보살 관련 도상 은 관음보살도로 통일 함.	05/1/22
80	75	보물	1432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磧川寺 掛佛幀 및 支柱)	청도 적천사 괘불도 및 지주 (淸道 磧川寺 掛佛圖 및 支柱)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5/04/15
81	76	보물	1445	예천용문사영산회괘불 탱 (醴泉龍門寺靈山會掛 佛幀)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도 (醴泉 龍門寺 靈山會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5/09/06
82	77	보물	1446	남해용문사괘불탱 (南海龍門寺掛佛幀)	남해 용문사 괘불도 (南海 龍門寺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5/09/06
83	78	보물	1472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通度寺 阿彌陀如來說法圖)	양산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梁山 通度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타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띄워 쓰기	06/07/18

84	79	보물	1522	영산회상도 (靈山會上圖)	석가여래설법도 (釋迦如來說法圖)	○ 영산회상은 석가여래 설법으로 변경함.	07/07/13
85	80	보물	1551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鎭川 靈水寺 靈山會掛佛幀)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도 (鎭川 靈水寺 靈山會 掛佛圖)	○ 사찰명 앞에 지역명 을 표기하여 다지역 동 명 사찰과의 혼동을 피 하기 위함.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8/03/12
86	81	보물	1552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海南 大興寺 靈山會掛佛幀)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도 (海南 大興寺 靈山會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 띄워 쓰기	08/03/12
87	82	보물	1553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감로왕도 (順天 仙巖寺 西浮屠庵甘露王圖)	순천 선암사 감로왕도 (順天 仙巖寺 甘露王圖)	○ '서부도암'은 현존하 지 않기 때문에 삭제함.	08/03/12
88		보물	1554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順天 仙巖寺 三十三祖師圖	현행유지		08/03/12
89	83	보물	1562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榮州 浮石寺 五佛會 掛佛幀)	영주 부석사 영산회 괘불도 (榮州 浮石寺 靈山會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08/04/22
90	84	보물	1608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星州 禪石寺 靈山會掛 佛幀)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도 (星州 禪石寺 靈山會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09/02/23
91	85	보물	1609	포항 보경사 괘불탱 (浦項 寶鏡寺 掛佛幀)	포항 보경사 괘불도 (浦項 寶鏡寺 掛佛圖)	○ 불화를 통칭하는 탱, 탱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 기함.	09/02/23
92	86	보물	1610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大邱 桐華寺 阿彌陀會上圖)	대구 동화사 아미타여래설법도 (大邱 桐華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존칭 '여래'를 추가하 고 회상을 설법으로 변 경함.	09/02/23
93		보물	1611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삼불회도 慶州 祇林寺 毘盧遮那三佛會圖	현행유지		09/02/23
94	87	보물	1612	영천 봉림사	영천 봉림사	○ 영산회상은 석가여래	09/02/23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永川鳳林寺靈山會上 圖 및 腹藏遺物)	석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永川 鳳林寺 釋迦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설법으로 표기함.	
95		보물	1613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淸道 雲門寺 毘盧遮那三身佛會圖	현행유지		09/02/23
96	88	보물	1614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安東 鳳停寺 靈山會上壁畫)	안동 봉정사 대웅전 석가여래설법도 벽화 (安東 鳳停寺 大雄殿 釋迦如來說法圖 壁畫)	○ 영산회상은 석가여래 설법으로 표기함.	09/04/22
97	89	보물	1638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龜尾 水多寺 靈山會上圖)	구미 수다사 석가여래설법도 (龜尾 水多寺 釋迦如來說法圖)	○ 영산회상은 석가여래 설법으로 표기함.	10/02/24
98		보물	1639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 지눌진영 大邱 桐華寺 普照國師 知訥眞影	현행유지		10/02/24
99		보물	1640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聞慶 金龍寺 靈山會 掛佛圖	현행유지		10/02/24
100		보물	1641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 尙州 南長寺 甘露王圖	현행유지		10/02/24
101		보물	1642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 安東 鳳停寺 靈山會 掛佛圖	현행유지		10/02/24
102	90	보물	1643	안동 봉정사 아미타설법도 (安東 鳳停寺 阿彌陀說法圖)	안동 봉정사 아미타여래설법도 (安東 鳳停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존칭 ‘여래’ 추가 표 기함.	10/02/24
103		보물	1644	예천 용문사 천불도 醴泉 龍門寺 千佛圖	현행유지		10/02/24
104	91	보물	1651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釋迦如來三世佛圖 및 腹藏遺物)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불회도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釋迦如來三佛會圖 및 腹藏遺物)	○ ‘삼세불도’를 ‘삼불회 도’로 변경함.	10/04/23
105		보물	1692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統營 安靜寺 靈山會 掛佛圖	현행유지		10/12/21
106		보물	1693	고성 옥천사	현행유지		10/12/21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107		보물	1694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固城 雲興寺 觀音菩薩圖	현행유지		10/12/21
108		보물	1695	하동 쌍계사 괘불도 河東 雙溪寺 掛佛圖	현행유지		10/12/21
109		보물	1696	하동 쌍계사 감로왕도 河東 雙溪寺 甘露王圖	현행유지		10/12/21
110		보물	1697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 陝川 海印寺 甘露王圖	현행유지		10/12/21

□ 일반회화류 : 총44건 중 32건 변경

○ 검토 기준

-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
- 작품명 앞에 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호를 작가명으로 표기하고 작가가 왕인 경우, '대왕'의 칭호는 표기하지 않으며,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이라는 단어를 표기함.
- 기존 표기 '~병'은 '~병풍'으로, '~도첩'은 '~도화첩'으로 풀어 표기하고, 제목에 '팔첩', '십첩' 등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표기하지 않음.

검토 대상 연번	변경 연번	종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칭(현재)	문화재명칭(변경안)	변경 사유	지정일
1	1	국보	135	혜원풍속도 (蕙園風俗圖)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申潤福筆 風俗圖 畫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형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화첩'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70/12/30
2	2	국보	139	군선도병 (群仙圖屏)	김홍도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筆 群仙圖 屏風)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형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병'을 '병풍'으로 변경,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71/12/21
3	3	국보	180	완당세한도 (阮堂歲寒圖)	김정희필 세한도 (金正喜筆 歲寒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74/12/31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 함.	
4	4	국보	207	천마도장니 (天馬圖障泥)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慶州 天馬塚 障泥 天馬圖)	○ 출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경주 천마총’을 추가 표기,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2/11/16
5	5	국보	216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	정선필 인왕제색도 (鄭澈筆 仁王霽色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 함.	84/08/06
6	6	국보	217	금강전도 (金剛全圖)	정선필 금강전도 (鄭澈筆 金剛全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 함.	84/08/06
7	7	국보	237	고산구곡시화병 (高山九曲詩畫屏)	고산구곡시화도 병풍 (高山九曲詩畫圖 屏風)	○ 형식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화병’을 ‘화도병풍’으로 표기함.	87/07/16
8		국보	249	동궐도 東闕圖	현행유지		89/08/01 95/06/23
9		보물	391	부산진순절도 釜山鎭殉節圖	현행유지		63/09/02
10		보물	392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현행유지		63/09/02
11		보물	485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현행유지		68/12/19
12	8	보물	522	도산서원도 (陶山書院圖)	강세황필 도산서원도 (姜世晃筆 陶山書院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 함.	70/08/27
13	9	보물	527	단원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 (金弘道筆 風俗圖 畫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도첩’을 ‘도화첩’으로 변경,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70/12/30

14		보물	638	기사계첩 耆社契帖	현행유지		78/12/07
15		보물	639	기사계첩 耆社契帖	현행유지		78/12/07
16	10	보물	732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병 (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屏)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 屏風)	○ 형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병’을 ‘병풍’으로 변경함.	82/03/04
17	11	보물	733-1	헌종가례도병 (憲宗嘉禮圖屏)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屏風)	○ 형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진하’를 추가, ‘병’을 ‘병풍’으로 변경함.	82/03/04
	12		733-2	헌종가례진하도병풍 (憲宗嘉禮陳賀圖屏風)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屏風)		
18	13	보물	743	정조대왕필과초도 (正祖大王筆芭蕉圖)	정조필 과초도 (正祖筆 芭蕉圖)	○ 문화재로 객관화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대왕’이란 존칭을 표기하지 않으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2/12/07
19	14	보물	744	정조대왕필국화도 (正祖大王筆菊花圖)	정조필 국화도 (正祖筆 菊花圖)	○ 문화재로 객관화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대왕’이란 존칭을 표기하지 않으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2/12/07
20	15	보물	782	단원화첩 (檀園畫帖)	김홍도필 병진년 화첩 (金弘道筆 丙辰年 畫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화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병진년’을 표기함.	84/08/06
21	16	보물	783	동자견려도 (童子牽驢圖)	김시필 동자견려도 (金視筆 童子牽驢圖)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호’를 ‘작가명’으로 변경,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을 추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4/08/06
22	17	보물	866	이기룡필남지기노회도 (李起龍筆南池耆老會圖)	이기룡필 남지기로회도 (李起龍筆 南池耆老會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6/10/15
23		보물	867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현행유지		86/10/15
24	18	보물	868	성세창제시미원계회도 (成世昌題詩薇垣契會圖)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 (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6/10/15
25	19	보물	869	성세창제시하관계회도 (成世昌題詩夏官契會圖)	성세창 제시 하관계회도 (成世昌 題詩 夏官契會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86/10/15
26		보물	870	호조낭관계회도 戶曹郎官契會圖	현행유지		86/10/15
27		보물	871	연정계회도 蓮亭契會圖	현행유지		86/10/15
28	20	보물	873	정선필육상묘도	정선필 육상묘도	○ 읽기 쉽게 하기 위하	86/10/15

				(鄭敬筆 毓祥廟圖)	(鄭敬筆 毓祥廟圖)	여 띄워 쓰기함.	
29	21	보물	929	기해기사계첩 (己亥耆社契帖)	기사계첩 (耆社契帖)	○ ‘간지’표기를 하지 않아도 문화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	87/12/26
30	22	보물	930	쾌장및사쾌장연회도첩 (几杖및賜几杖宴會圖帖)	이경석 쾌장 및 사쾌장 연회도 화첩 (李景奭 几杖 및 賜几杖宴會圖 畫帖)	○ 용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도첩’은 ‘도화첩’으로 풀어표기함.	87/12/26
31		보물	1045	신해생갑회지도 辛亥生甲會之圖	현행유지		90/09/20
32		보물	1046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현행유지		90/09/20
33	23	보물	1199	혜산유숙필매화도 (蕙山劉淑筆梅花圖)	유숙필 매화도 (劉淑筆 梅花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94/05/02
34		보물	1328	기영회도 耆英會圖	현행유지		01/10/25
35	24	보물	1392	이암필 화조구자도 (李巖筆 花鳥狗子圖)	이암필 화조구자도 (李巖筆 花鳥狗子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03/12/30
36	25	보물	1393	김홍도필 추성부도 (金弘道筆 秋聲賦圖)	김홍도필 추성부도 (金弘道筆 秋聲賦圖)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03/12/30
37	26	보물	1394	경기감영도병 (京畿監營圖屏)	경기감영도 병풍 (京畿監營圖 屏風)		03/12/30
38	27	보물	1406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霜臺會圖 및 金從漢 教旨)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 霜臺會圖 및 金從漢 教旨)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 쓰기함.	04/05/07
39	28	보물	1430	화성행행도팔첩병 (華城行幸圖八疊屏)	화성행행도 병풍 (華城行幸圖 屏風)	○ 수량을 표현하는 ‘팔첩’은 삭제하고, ‘병’은 ‘병풍’으로 풀어 표기함.	05/04/15
40	29	보물	1431	정사신동참제계회도 (鄭士信同參諸契會圖)	정사신 참석 계회도 일괄 (鄭士信 參席 契會圖 一括)	○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띄워쓰기를 하고, 여러점을 제목에서 알 수 있게 ‘일괄’이란 단어를 표기함.	05/04/15
41	30	보물	1442	일월반도도팔첩병 (日月蟠桃圖八疊屏)	일월반도도 병풍 (日月蟠桃圖 屏風)	○ 수량을 표현하는 ‘팔첩’은 삭제하고, ‘병’은 ‘병풍’으로 풀어 표기함.	05/08/12
42	31	보물	1443	왕세자탄강진하도십첩병 (王世子誕降陳賀圖十疊屏)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王世子誕降陳賀圖 屏風)		05/08/12
43	32	보물	1531	영조을유기로운·경현당수작연도병 (英祖乙酉耆老宴·景賢堂受爵宴圖屏)	영조 기로운·수작연도 병풍 (英祖 耆老宴·受爵宴圖 屏風)	○ 수량을 표현하는 ‘팔첩’은 삭제하고, ‘병’은 ‘병풍’으로 풀어 표기함.	07/10/24
44		보물	1616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 禮安金氏家傳契會圖一括	현행유지		09/04/22

□ 도자·토기류 : 총170건 모두 변경

○ 검토 기준

- 명명의 기본원칙은 도기는 도기와 토기로 구분하고 종류>형상(장식·모양)>기형(용도·기능) 순으로 하고, 도자기는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함.
- 용이한 이해를 위해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함. 단,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함.
- 뚜껑자체가 특정 모양이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한글로 풀어쓰고, 한자표기로는 ‘蓋香爐’로 표기함.
 - ※ 단, 단순한 뚜껑이 있는 기형의 경우는 ‘유개’로 표기함
- ~형(形)→~모양
 - ※ 단, 기존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쓸 수 없거나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일 경우에는 ‘형’으로 표기함.
- ~식(飾)→~장식
- 청화백자는 백자청화로 통일하여 표기함.
- 호(壺), (缸)의 한자표기는 호(壺)로 통일하고,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한글은 ‘항아리’로 표기하고, 한자표기는 호(壺)와 입호(立壺)로 함.
- 채색기법은 시문방식에 따라 철화(鐵畵), 동화(銅畵), 청화(靑畵), 또는 철채(鐵彩), 동채(銅彩)로 함.
- 양인각(陽印刻) 기법은 양각(陽刻)으로 통일하고, 반양각은 음각으로, 분청사기의 조화(彫花) 기법은 음각으로 하고 기존의 투각과 투조는 ‘투각(透刻)’으로 통일함.
- 문양 표기는 주문양을 대표로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문양을 나타내는 한자표기는 ‘文’으로 함.
- 크기를 나타내는 ‘대’, ‘중’, ‘소’의 표기는 명칭에서 사용하지 않음.
- 위의 기준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물을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명함.

연번	종별	지정번호	분류	문화재명칭(현재)	문화재명칭(변경안)	변경사유	지정일
1	국보	91	토기	도제기마인물상 (陶製騎馬人物像)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陶器 騎馬人物形 明器)	○종류>형상>기형	62/12/20
2	국보	195	토기	토우장식장경호 (土偶裝飾長頸壺)	토우장식 장경호 (土偶裝飾 長頸壺)	○띄워 쓰기	78/12/07
3	국보	275	토기	기마인물형토기 (騎馬人物形土器)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陶器 騎馬人物形 角杯)	○종류>형상>기형 ○기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뿔잔’이란 한글 표기를 함. ○띄워 쓰기	93/01/15
4	보물	453	토기	녹유탁잔(綠釉托盞)	도기 녹유 탁잔 (陶器 綠釉 托盞)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기’를 추	67/06/21

						가 ○띠위 쓰기	
5	보물	555	토기	평저주형토기 (平底舟形土器)	도기 배모양 명기 (陶器 舟形 明器)	○종류>형상>기형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한문표기인 '舟形'을 '배모양'이란 한글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71/12/21
6	보물	556	토기	토이(土履)	도기 신발모양 명기 (陶器 履形 明器)	○종류>형상>기형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한문표기인 '履'을 '신발모양'이란 한글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71/12/21
7	보물	597	토기	용기문토기 (隆起文土器)	도기 용기문 발 (土器 隆起文 鉢)	○종류>형상>기형 ○기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발'을 추가함. ○띠위 쓰기	75/05/16
8	보물	598	토기	마두식각배 (馬頭飾角杯)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 (陶器 馬頭飾 角杯)	○종류>형상>기형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한문표기인 '馬頭飾角杯'을 '말머 리장식 뿔잔'이란 한 글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75/05/16
9	보물	636	토기	서수형토기(미추왕릉) (瑞獸形土器(味鄒王陵))	도기 서수형 명기 (陶器 瑞獸形 明器)	○종류>형상>기형 ○띠위 쓰기	78/12/07
10	보물	637	토기	차륜식토기 (車輪飾土器)	도기 바퀴장식 뿔잔 (陶器 車輪飾 角杯)	○종류>형상>기형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한문표기인 '車輪'을 '바퀴'란 한 글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78/12/07
11	국보	60	청자	청자사자유개향로 (靑磁獅子有蓋香爐)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靑磁 獅子形蓋 香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獅子有蓋'을 '사자형뚜껑'이고 풀 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2	국보	61	청자	청자비룡형주자 (靑磁飛龍形注子)	청자 어룡형 주전자 (靑磁 魚龍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注子'을 '주 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3	국보	65	청자	청자기린유개향로 (靑磁麒麟有蓋香爐)	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靑磁 麒麟形蓋 香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기존 '麒麟有蓋'을 '기린형뚜껑'으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4	국보	66	청자	청자상감유죽연노원앙문정병 (靑磁象嵌柳竹蓮蘆鴛鴦文淨瓶)	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 (靑磁 象嵌蓮池鴛鴦文 淨瓶)	○띠위 쓰기	92/04/20
15	국보	68	청자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磁象嵌雲鶴文梅瓶)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靑磁 象嵌雲鶴文 梅瓶)	○띠위 쓰기	62/12/20
16	국보	74	청자	청자압형수적 (靑磁鴨形水滴)	청자 오리모양 연적 (靑磁 鴨形 硯滴)	○용이한 이해를 위해 기존 '鴨形'을 '오리모양'으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7	국보	94	청자	청자소문과형병 (靑磁素文瓜形瓶)	청자 참외모양 병 (靑磁 瓜形 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기존 '瓜形'을 '참외모양'으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8	국보	95	청자	청자칠보투각향로 (靑磁七寶透刻香爐)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靑磁 透刻七寶文蓋 香爐)	○용이한 이해를 위해 '칠보문뚜껑'을 추가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19	국보	96	청자	청자귀형수병 (靑磁龜形水瓶)	청자 구룡형 주전자 (靑磁 龜龍形 注子)	○유물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구룡형 주전자'로 표기함. ○띠위 쓰기	62/12/20
20	국보	97	청자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 (靑磁陰刻蓮花唐草文梅瓶)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 (靑磁 陰刻蓮花唐草文 梅瓶)	○띠위 쓰기	62/12/20
21	국보	98	청자	청자상감모란문항 (靑磁象嵌牡丹文缸)	청자 상감모란문 항아리 (靑磁 象嵌牡丹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缸'을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84/08/06
22	국보	113	청자	화청자양류문통형병 (靑磁楊柳文筒形瓶)	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靑磁 鐵畫楊柳文 筒形 瓶)	○띠위 쓰기	62/12/20
23	국보	114	청자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병 (靑磁象嵌牡丹菊花文瓜形瓶)	청자 상감모란국화문 참외모양 병 (靑磁 象嵌牡丹菊花文 瓜形 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瓜形'을 '참외모양'으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24	국보	115	청자	청자상감당초문완 (靑磁象嵌唐草文盃)	청자 상감당초문 완 (靑磁 象嵌唐草文 碗)	○띠위 쓰기	62/12/20
25	국보	116	청자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靑磁象嵌牡丹文瓢形瓶)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牡丹文 瓢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해 '瓢形注子'을 '표주박모양 주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62/12/20
26	국보	133	청자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 (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銅畫蓮花文 瓢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해 '瓢形注子'을 '표주박모양 주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74/07/09
27	국보	167	청자	청자인형주자	청자 인물형 주전자	○용이한 이해를 위	90/05/21

				(靑磁人形注子)	(靑磁 人物形 注子)	해 '注子'을 '주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28	국보	169	청자	청자양각죽절문병 (靑磁陽刻竹節文瓶)	청자 양각죽절문 병 (靑磁 陽刻竹節文 瓶)	○띠워 쓰기	62/12/20
29	국보	173	청자	청자철채퇴화점문나한좌상 (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	청자 퇴화점문 나한좌상 (靑磁 堆花點文 羅漢坐像)	○띠워 쓰기	90/05/21
30	국보	220	청자	청자상감용봉모란문개합 (靑磁象嵌龍鳳牡丹文蓋盒)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靑磁 象嵌龍鳳牡丹文 盒 및 托)	○유물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탁'을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90/05/21
31	국보	252	청자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靑磁陰刻蓮花文梅瓶)	청자 음각'효문'명 연화문 매병 (靑磁 陰刻'孝文'銘 蓮花文 梅瓶)	○유물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명문'을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74/07/09
32	국보	253	청자	청자양인각연당초·상감모란문은구대접 (靑磁陽印刻蓮唐草·象嵌牡丹文銀鈎大椀)	청자 양각연화당초상감모란문은테 받 (靑磁 陽刻蓮花唐草象嵌牡丹文銀鈎 鉢)	○용이한 이해를 위해 '銀鈎'를 '은테'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70/12/30
33	국보	254	청자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靑磁陰刻蓮華折枝文梅瓶)	청자 음각연화문 유개매병 (靑磁 陰刻蓮花文 有蓋梅瓶)	○띠워 쓰기	74/07/09
34	국보	270	청자	청자모자원형연적 (靑磁母子猿形硯滴)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靑磁 母子猿形 硯滴)	○용이한 이해를 위해 '母子猿形'를 '모자원숭이모양'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62/12/20
35	보물	237	청자	청자순화사년명호 (靑磁淳化四年銘壺)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靑磁 '淳化四年'銘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63/01/21
36	보물	286	청자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 (靑磁象嵌葡萄童子文梅瓶)	청자 상감포도동자문 매병 (靑磁 象嵌葡萄童子文 梅瓶)	○띠워 쓰기	63/01/21
37	보물	340	청자	철채백화삼엽문매병 (鐵彩白畵蓼葉文梅瓶)	청자 철채퇴화삼엽문 매병 (靑磁 鐵彩堆花蓼葉文 梅瓶)	○띠워 쓰기	63/01/21
38	보물	342	청자	청자상감복사문매병 (靑磁象嵌幙紗文梅瓶)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靑磁 陰刻牡丹象嵌幙紗文 有蓋梅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幙紗'를 '보자기'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63/01/21
39	보물	344	청자	청자양각위로수금문정병 (靑磁陽刻葦蘆水禽文淨瓶)	청자 양각갈대기리기문 정병 (靑磁 陽刻葦蘆文 淨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葦蘆水禽'를 '갈대기리기'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63/01/21
40	보물	346	청자	청자상감진사모란문매병 (靑磁象嵌辰砂牡丹文梅瓶)	청자 상감동채모란문 매병 (靑磁 象嵌銅彩牡丹文 梅瓶)	○띠워 쓰기	63/01/21
41	보물	349	청자	청자상감모자합 (靑磁象嵌母子盒)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靑磁 象嵌菊花牡丹唐草文 母子盒)	○유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화모란당초문'을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63/01/21
42	보물	416	청자	청자투각돈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유물을 명확히 하	65/04/01

				(靑磁透刻墩)	(靑磁 透刻連環文 墩)	기 위해 '고리문(連環)'을 추가 표기함. 용이한 이해를 위해 '墩'을 '의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43	보물	452	청자	청자귀형수주 (靑磁龜形水注)	청자 구룡형 주전자 (靑磁 龜龍形 注子)	○띠위 쓰기	67/06/21
44	보물	558	청자	청자상감운학모란국화문매병 (靑磁象嵌雲鶴牡丹菊花文梅瓶)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瓶)	○띠위 쓰기	71/12/21
45	보물	646	청자	청자상감상약국명합 (靑磁象嵌尙藥局銘盒)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靑磁 象嵌'尙藥局'銘 陰刻雲龍文 盒)	○띠위 쓰기	78/12/07
46	보물	789	청자	청자조각쌍사자두침 (靑磁彫刻雙獅子頭枕)	청자 쌍사자형 베개 (靑磁 雙獅子形 枕)	○용이한 이해를 위해 '枕'을 '베개'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84/08/06
47	보물	903	청자	청자상감매조죽문매병 (靑磁象嵌梅鳥竹文梅瓶)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靑磁 象嵌梅竹鶴文 梅瓶)	○띠위 쓰기	86/11/29
48	보물	1022	청자	청자상감동채연당초용문병 (靑磁象嵌銅彩蓮唐草龍文瓶)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용문 병 (靑磁 象嵌銅彩蓮花唐草龍文 瓶)	○띠위 쓰기	90/05/21
49	보물	1023	청자	청자음각운룡문"상약국"명합 (靑磁陰刻雲龍文"尙藥局"銘盒)	청자 음각'상약국'명 운룡문 합 (靑磁 陰刻'尙藥局'銘 雲龍文 盒)	○띠위 쓰기	90/05/21
50	보물	1024	청자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枝文大椀)	청자 양각연화당초 상감운학문 완 (靑磁 陰刻蓮花唐草 象嵌雲鶴文 碗)	○띠위 쓰기	90/05/21
51	보물	1025	청자	청자도형연적 (靑磁桃形硯滴)	청자 복숭아모양 연적 (靑磁 桃形 硯滴)	○용이한 이해를 위해 '桃形'을 '복숭아모양'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52	보물	1026	청자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 (靑磁陽印刻饜饕文方形香爐)	청자 양각도철문 방형 향로 (靑磁 陽刻饜饕文 方形 香爐)	○띠위 쓰기	90/05/21
53	보물	1027	청자	청자구룡형삼족향로 (靑磁龜龍形三足香爐)	청자 구룡형뚜껑 향로 (靑磁 龜龍形蓋 香爐)	○유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뚜껑'을 추가 표기함. ○띠위 쓰기	90/05/21
54	보물	1028	청자	청자반양각연당초문호 (靑磁半陽刻蓮唐草文壺)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향아리 (靑磁 陰刻蓮花唐草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향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55	보물	1029	청자	청자상감모란문주자 (靑磁象嵌牡丹文注子)	청자 상감모란문 주전자 (靑磁 象嵌牡丹文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해 '注子'를 '주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56	보물	1030	청자	청자상감운학문화분 (靑磁象嵌雲鶴文花盆)	청자 상감운학문 화분 (靑磁 象嵌雲鶴文 花盆)	○띠위 쓰기	90/05/21
57	보물	1031	청자	청자양인각파어·포련문접시 (靑磁陽印刻波漁·浦蓮文楹匙)	청자 양각연지어문 화형 접시 (靑磁 陽刻蓮池魚文 花形 楹匙)	○띠위 쓰기	90/05/21
58	보물	1032	청자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 지문대접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 枝文大楹)	청자 음각연화당초 상감국화문 완 (靑磁 陰刻蓮花唐草 象嵌菊花 文 碗)	○띠위 쓰기	90/05/21
59	보물	1033	청자	청자상감운학국문표형주자 승 반 (靑磁象嵌雲鶴菊花文瓢形注子·承 盤)	청자 상감운학국화문 표주박모 양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雲鶴菊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	○용이한 이해를 위 해 '瓢形注子'를 '표주 박모양주전자'로 풀 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60	보물	1034	청자	청자상감연판문매병 (靑磁象嵌蓮瓣文梅瓶)	청자 상감연판문 매병 (靑磁 象嵌蓮瓣文 梅瓶)	○띠위 쓰기	90/05/21
61	보물	1035	청자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청자 음각운문 병 (靑磁 陰刻雲文 瓶)	○띠위 쓰기	90/05/21
62	보물	1036	청자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靑磁象嵌鸚鵡文瓢形注子)	청자 상감앵무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鸚鵡文 瓢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瓢形注子'를 '표주 박모양주전자'로 풀 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63	보물	1037	청자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靑磁陰刻菊唐草文大楹)	청자 음각국화당초문 완 (靑磁 陰刻菊花唐草文 盪)	○띠위 쓰기	90/05/21
64	보물	1038	청자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靑磁鐵彩陽刻蓮瓣文小瓶)	청자 철채양각연판문 병 (靑磁 鐵彩陽刻蓮瓣文 瓶)	○띠위 쓰기	90/05/21
65	보물	1039	청자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靑磁象嵌牡丹折枝文바릿대)	청자 상감모란문 발우 및 접시 (靑磁 象嵌牡丹文 鉢盂 및 楹 匙)	○용이한 이해를 위 해 '바릿대'를 '발우' 로 표기 함. ○띠위 쓰기	90/05/21
66	보물	1071	청자	조선청자호 (朝鮮靑磁壺)	청자 유개항아리 (靑磁 有蓋壺)	○유물을 명확히 표 현하기 위해 '유개 항아리'로 변경함.	91/01/25
67	보물	1168	청자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靑磁象嵌梅竹鶴文梅瓶)	청자 상감매죽학문 매병 (靑磁 象嵌梅竹鶴文 梅瓶)	○띠위 쓰기	93/09/10
68	보물	1228	청자	청자음각반룡문주자 (靑磁蟠龍文注子)	청자 음각용문 주전자 (靑磁 陰刻龍文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95/12/04
69	보물	1382	청자	청자상감국모란문[신축]명벼 루 (靑磁象嵌菊牡丹文[辛丑]銘 硯)	청자 상감'신축'명 국화모란문 벼루 (靑磁 象嵌'辛丑'銘 菊花牡丹文 硯)	○띠위 쓰기	03/12/30
70	보물	1383	청자	청자철화초충조문매병 (靑磁鐵畫草蟲鳥文梅瓶)	청자 철화초충조문 매병 (靑磁 鐵畫草蟲鳥文 梅瓶)	○띠위 쓰기	03/12/30
71	보물	1384	청자	청자상감유로매죽문편병 (靑磁象嵌柳鷺梅竹文扁瓶)	청자 상감유로매죽문 편병 (靑磁 象嵌柳鷺梅竹文 扁瓶)	○띠위 쓰기	03/12/30
72	보물	1385	청자	청자양각운룡문매병 (靑磁陽刻雲龍文梅瓶)	청자 양각운룡문 매병 (靑磁 陽刻雲龍文 梅瓶)	○띠위 쓰기	03/12/30
73	보물	1386	청자	청자상감어룡문매병	청자 상감어룡문 매병	○띠위 쓰기	03/12/30

				(靑磁象嵌魚龍文梅瓶)	(靑磁 象嵌魚龍文 梅瓶)		
74	보물	1389	청자	청자상감매죽유문[장진주]명매 병 (靑磁象嵌梅竹柳文[將進酒]銘 梅瓶)	청자 상감'장진주'시명 매죽양 류문 매병 (靑磁 象嵌'將進酒'詩銘 梅竹楊 柳文 梅瓶)	○띠위 쓰기	03/12/30
75	보물	1398	청자	청자상감압형주자 (靑磁象嵌鴨形注子)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鴨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鴨形注子'를 '오 리모양 주전자'로 풀 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4/03/03
76	보물	1399	청자	청자퇴화표형주자 (靑磁堆化瓢形注子)	청자 퇴화선문 표주박모양 주 전자 (靑磁 堆花線文 瓢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瓢形注子'를 '표 주박모양 주전자'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4/03/03
77	보물	1420	청자	청자상감화류문주자 및 승반 (靑磁象嵌花柳文注子 및 承 盤)	청자 상감모란양류문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牡丹楊柳文 注子 및 承盤)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4/11/26
78	보물	1421	청자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靑磁堆花花文注子 및 承盤)	청자 퇴화화문 주전자 및 승반 (靑磁 堆花花文 注子 및 承盤)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4/11/26
79	보물	1447	청자	청자상감화조문도판 (靑磁象嵌花鳥文陶板)	청자 상감화조문 도판 (靑磁 象嵌花鳥文 陶板)	○띠위 쓰기	06/01/17
80	보물	1449	청자	청자기린연적 (靑磁麒麟硯滴)	청자 기린모양 연적 (靑磁 麒麟形 硯滴)	○띠위 쓰기	06/01/17
81	보물	1451	청자	청자상감운학국화문병형주자 (靑磁象嵌雲鶴菊花文瓶形注 子)	청자 상감운학국화문 병형 주 전자 (靑磁 象嵌雲鶴菊花文 瓶形 注 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6/01/17
82	보물	1452	청자	청자상감연화유문'덕천'명 매 병 (靑磁象嵌蓮花柳文'德泉'銘 梅 瓶)	청자 상감'덕천'명 연화양류문 매병 (靑磁 象嵌'德泉'銘 蓮花楊柳文 梅瓶)	○띠위 쓰기	06/01/17
83	보물	1453	청자	청자유개주자 (靑磁有蓋注子)	청자 주전자 (靑磁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6/01/17
84	보물	1454	청자	청자음각연화문팔각장경병 (靑磁陰刻蓮花文八角長頸瓶)	청자 음각연화문 팔각장경병 (靑磁 陰刻蓮花文 八角長頸瓶)	○띠위 쓰기	06/01/17
85	보물	1540	청자	청자표형주자 (靑磁瓢形注子)	청자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瓢形 注子)	○용이한 이해를 위 해 '注子'를 '주전자' 로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07/12/31
86	보물	1573	청자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靑磁陽刻蓮瓣文 碟匙)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靑磁 陽刻蓮瓣文 碟匙)	○띠위 쓰기	08/08/28
87	국보	93	백자	백자철화포도문호 (白磁鐵畫葡萄文壺)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白磁 鐵畫葡萄猿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62/12/20

						○띄워 쓰기	
88	국보	107	백자	백자철화포도문호 (白磁鐵畫蒲萄文壺)	백자 철화포도문 항아리 (白磁 鐵畫葡萄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62/12/20
89	국보	166	백자	백자철화매죽문대호 (白磁鐵畫梅竹文大壺)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 (白磁 鐵畫梅竹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74/07/09
90	국보	168	백자	백자진사매국문병 (白磁辰砂梅菊文瓶)	백자 동화매국문 병 (白磁 銅畫梅菊文 瓶)	○띄워 쓰기	74/07/09
91	국보	175	백자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白磁象嵌蓮唐草文大楹)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대접 (白磁 象嵌蓮花唐草文 大楹)	○띄워 쓰기	74/07/09
92	국보	261	백자	백자호 (白磁壺)	백자 유개항아리 (白磁 有蓋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개항아리'로 변경 표기 함. ○띄워 쓰기	91/01/25
93	국보	262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아리'로 변경 표기함. ○띄워 쓰기	91/01/25
94	국보	281	백자	백자주자 (白磁注子)	백자 병형 주전자 (白磁 瓶形 注子)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병형 주전자'로 변경 표기 함. ○띄워 쓰기	93/09/10
95	국보	286	백자	백자발 (白磁鉢)	백자 '천' '지' '현' '황'명 발 (白磁 '天' '地' '玄' '黃' 銘 鉢)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천' '지' '현' '황'명을 추가 표기함. ○띄워 쓰기	95/12/04
96	국보	309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아리'로 변경 표기함. ○띄워 쓰기	07/12/17
97	국보	310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아리'로 변경 표기함. ○띄워 쓰기	07/12/17
98	보물	238	백자	백자박산향로 (白磁博山香爐)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白磁 博山形蓋 香爐)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뚜껑'을 추가 표기함. ○띄워 쓰기	63/01/21
99	보물	240	백자	백자투조모란문호 (白磁透彫牡丹文壺)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 (白磁 靑畫透刻牡丹唐草文 立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모란당초문'을 추가 표기 함. ○띄워 쓰기	63/01/21
100	보물	345	백자	백자상감모란문매병	백자 상감모란문 매병	○띄워 쓰기	63/01/21

				(白磁象嵌牡丹文梅瓶)	(白磁 象嵌牡丹文 梅瓶)		
101	보물	645	백자	백자철화운룡문호 (白磁鐵畫雲龍文壺)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 (白磁 鐵畫雲龍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78/12/07
102	보물	659	백자	백자청화매죽문병 (白磁靑華梅竹文瓶)	백자 청화매조죽문 병 (白磁 靑畫梅鳥竹文 瓶)	○띄워 쓰기	79/04/30
103	보물	788	백자	청화백자군어문호 (靑華白磁群魚文壺)	백자 청화잉어문 항아리 (白磁 靑畫鯉魚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84/08/06
104	보물	791	백자	백자상감모란엽문편병 (白磁象嵌牡丹葉文扁瓶)	백자 상감모란잎문 편병 (白磁 象嵌牡丹葉文 扁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葉文'를 '잎문'으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84/08/31
105	보물	806	백자	백자반합 (白磁飯盒)	백자 반합 (白磁 飯盒)	○띄워 쓰기	84/12/07
106	보물	807	백자	백자상감모란문병 (白磁象嵌牡丹文瓶)	백자 상감모란문 병 (白磁 象嵌牡丹文 瓶)	○띄워 쓰기	84/12/07
107	보물	1054	백자	백자병 (白磁瓶)	백자 병 (白磁 瓶)	○띄워 쓰기	91/01/25
108	보물	1055	백자	백자태항<내·외호> (白磁胎缸<內·外壺>)	백자 태항아리 (白磁 胎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태항아리' 변경 표기함. ○띄워 쓰기	91/01/25
109	보물	1060	백자	백자철화승문병 (白磁鐵畫繩文瓶)	백자 철화끈무늬 병 (白磁 鐵畫垂紐文 瓶)	○용이한 이해를 위해 '繩文'를 '끈무늬(垂紐文)'으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91/01/25
110	보물	1061	백자	백자철채각배 (白磁鐵彩角杯)	백자 철채 빨잔 (白磁 鐵彩 角杯)	○용이한 이해를 위해 '角杯'를 '빨잔'으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91/01/25
111	보물	1065	백자	백자태호<내·외호> 및 태지석 (白磁胎壺<內·外壺>및胎誌石)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白磁 胎壺 및 胎誌石)	○용이한 이해를 위해 '胎壺'를 '태항아리'으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91/01/25
112	보물	1169	백자	백자태항<내·외>과 태지석 (白磁胎缸<內·外>과 胎誌石)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白磁 胎壺 및 胎誌石)	○용이한 이해를 위해 '胎缸'를 '태항아리'으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93/09/10
113	보물	1230	백자	백자상감연·당초문병 (白磁象嵌蓮·唐草文瓶)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병 (白磁 象嵌蓮花唐草文 瓶)	○띄워 쓰기	95/12/04
114	보물	1231	백자	백자철화운죽문호 (白磁鐵畫雲竹文壺)	백자 철화운죽문 항아리 (白磁 鐵畫雲竹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띄워 쓰기	95/12/04

115	보물	1329	백자	백자청화소상팔경문팔각연적 (白磁靑畫瀟湘八景文八角硯 適)	백자 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 (白磁 靑畫瀟湘八景文 八角硯 適)	○띠워 쓰기	01/10/25
116	보물	1390	백자	백자청화동정추월문호 (白磁靑畫洞庭秋月文壺)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白磁 靑畫洞庭秋月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03/12/30
117	보물	1391	백자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白磁透刻象嵌牡丹文瓶)	백자 상감투각모란문 병 (白磁 象嵌透刻牡丹文 瓶)	○띠워 쓰기	03/12/30
118	보물	1425	백자	백자철화매죽문호 (白磁鐵畫梅竹文壺)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 (白磁 鐵畫梅竹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04/11/26
119	보물	1437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 아리'로 변경 표기함. ○띠워 쓰기	05/08/12
120	보물	1438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 아리'로 변경 표기함. ○띠워 쓰기	05/08/12
121	보물	1439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 아리'로 변경 표기함. ○띠워 쓰기	05/08/12
122	보물	1441	백자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달항 아리'로 변경 표기함. ○띠워 쓰기	05/08/12
123	보물	1448	백자	백자청화보상당초문호 (白磁靑畫寶相唐草文壺)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 (白磁 靑畫寶相唐草文 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06/01/17
124	보물	1457	백자	백자사각제기 (白磁四角祭器)	백자 사각발형 제기 (白磁 四角鉢形 祭器)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발형' 을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06/01/17
125	보물	1458	백자	백자청화철화접문시명팔각연 적 (白磁靑畫鐵畫蝶文詩銘八角硯 滴)	백자 청화철화'시'명나비문 팔 각연적 (白磁 靑畫鐵畫'詩'銘蝶文 八角硯 滴)	○용이한 이해를 위 해 '蝶文'를 '나비문' 으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06/01/17
126	국보	177	분청 사기	분청사기인화문태호(내외호) (粉靑沙器印花文胎壺(內外 壺))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粉靑沙器 印花菊花文 胎壺)	○띠워 쓰기	74/07/09
127	국보	178	분청 사기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 (粉靑沙器彫花魚文扁瓶)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粉靑沙器 陰刻魚文 扁瓶)	○띠워 쓰기	74/07/09
128	국보	179	분청 사기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粉靑沙器剝地蓮魚文扁瓶)	분청사기 박지연화어문 편병 (粉靑沙器 剝地蓮花魚文 扁瓶)	○띠워 쓰기	74/07/09
129	보물	239	분청 사기	상감초화문병 (象嵌草花文瓶)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매병 (粉靑沙器 象嵌牡丹文 梅瓶)	○종류를 명확히 하 기 위해 '분청사기'를	63/01/21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130	국보	259	분청 사기	분청사기상감용문호 (粉靑沙器象嵌龍文壺)	분청사기 상감운룡문 항아리 (粉靑沙器 象嵌雲龍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91/01/25
131	국보	260	분청 사기	분청사기박지모란문철채자라 병 (粉靑沙器剝地牡丹文鐵彩자라 瓶)	분청사기 박지철채모란문 자라 병 (粉靑沙器 剝地鐵彩牡丹文 扁瓶)	○띠워 쓰기	91/01/25
132	보물	268	분청 사기	분청사기연화문편호 (粉靑沙器蓮花文扁壺)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粉靑沙器 象嵌蓮花文 扁瓶)	○띠워 쓰기	63/01/21
133	보물	287	분청 사기	분청박지화문병 (粉靑剝地花文瓶)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 (粉靑沙器 剝地鐵彩花文 瓶)	○띠워 쓰기	63/01/21
134	보물	347	분청 사기	청자상감유어문매병 (靑磁象嵌游魚文梅瓶)	분청사기 상감어문 매병 (粉靑沙器 象嵌魚文 梅瓶)	○띠워 쓰기	63/01/21
135	보물	348	분청 사기	분청사기모란문반합 (粉靑沙器牡丹文飯盒)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粉靑沙器 象嵌牡丹文 飯盒)	○띠워 쓰기	63/01/21
136	보물	577	분청 사기	정통오년명분청사기상감어문 반 (正統五年銘粉靑沙器象嵌魚文 盤)	분청사기 상감‘정통5년’명 어문 반형 묘지 (粉靑沙器 象嵌‘正統五年’銘 魚文 盤形 墓誌)	○띠워 쓰기	74/07/09
137	보물	787	분청 사기	분청사기철화어문호 (粉靑沙器鐵畫魚文壺)	분청사기 철화어문 항아리 (粉靑沙器 鐵畫魚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풀어 표기 함. ○띠워 쓰기	84/08/06
138	보물	1062	분청 사기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 (粉靑沙器鐵畫唐草文장군)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장군 (粉靑沙器 鐵畫唐草文 獐本)	○띠워 쓰기	91/01/25
139	보물	1067	분청 사기	분청사기상감연당초문병 (粉靑沙器象嵌蓮唐草文瓶)	분청사기 상감연화당초문 병 (粉靑沙器 象嵌蓮花唐草文 瓶)	○띠워 쓰기	91/01/25
140	보물	1068	분청 사기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호 (粉靑沙器象嵌牡丹唐草文壺)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유개 항아리 (粉靑沙器 象嵌牡丹唐草文 有 蓋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개’ 를 추가 표기함. ○띠워 쓰기	91/01/25
141	보물	1069	분청 사기	분청사기조화수조문편병 (粉靑沙器彫花樹鳥文扁瓶)	분청사기 음각수조문 편병 (粉靑沙器 陰刻樹鳥文 扁瓶)	○띠워 쓰기	91/01/25
142	보물	1070	분청 사기	분청사기조화박지모란문장군 (粉靑沙器彫花剝地牡丹文장 군)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장군 (粉靑沙器 剝地牡丹文 獐本)	○띠워 쓰기	91/01/25
143	보물	1229	분청 사기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粉靑沙器象嵌牡丹柳文瓶)	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 (粉靑沙器 陰刻蓮花文 扁瓶)	○띠워 쓰기	95/12/04
144	보물	1387	분청 사기	분청사기철화모란문장군 (粉靑沙器鐵畫牡丹文장군)	분청사기 철화모란문 장군 (粉靑沙器 鐵畫牡丹文 獐本)	○띠워 쓰기	03/12/30
145	보물	1388	분청 사기	분청사기박지연화문편병 (粉靑沙器剝地蓮花文扁瓶)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 (粉靑沙器 剝地蓮花文 扁瓶)	○띠워 쓰기	03/12/30
146	보물	1400	분청 사기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粉靑沙器象嵌牡丹唐草文장 군)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粉靑沙器 象嵌牡丹唐草文 獐 本)	○띠워 쓰기	04/03/03
147	보물	1422	분청 사기	분청사기상감모란문호 (粉靑沙器象嵌牡丹文壺)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항아리 (粉靑沙器 象嵌牡丹文 立壺)	○용이한 이해를 위 해 ‘壺’를 ‘항아리’로	04/11/26

						풀어 표기 함. ○띠위 쓰기	
148	보물	1423	분청사기	분청사기인화문장군 (粉靑沙器印花文장군)	분청사기 인화점문 장군 (粉靑沙器 印花點文 獐本)	○띠위 쓰기	04/11/26
149	보물	1428	분청사기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正統十三年銘 粉靑沙器象嵌墓誌 外 印花粉靑沙器 一括)	분청사기 상감'정통 13년'명 묘지 및 분청사기 일괄 (粉靑沙器 象嵌'正統十三年'銘 墓誌 및 粉靑沙器 一括)	○띠위 쓰기	05/01/22
150	보물	1450	분청사기	분청사기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인화문사각편병 (粉靑沙器象嵌四角墓誌 및 粉靑沙器印花文四角扁瓶)	분청사기 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 (粉靑沙器 象嵌四角墓誌 및 粉靑沙器 印花文 四角扁瓶)	○띠위 쓰기	06/01/17
151	보물	1455	분청사기	분청사기상감파어문병 (粉靑沙器象嵌波魚文瓶)	분청사기 상감파도어문 병 (粉靑沙器 象嵌波濤魚文 瓶)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파도어문'으로 변경 표기 함. ○띠위 쓰기	06/01/17
152	보물	1456	분청사기	분청사기박지태극문편병 (粉靑沙器剝地太極文扁瓶)	분청사기 박지태극문 편병 (粉靑沙器 剝地太極文 扁瓶)	○띠위 쓰기	06/01/17
153	보물	1541	분청사기	분청사기상감모란유문병 (粉靑沙器象嵌牡丹柳文瓶)	분청사기 상감모란양류문 병 (粉靑沙器 象嵌牡丹楊柳文 瓶)	○띠위 쓰기	07/12/31
154	국보	170	청화백자	청화백자매조죽문호 (靑華白磁梅鳥竹文壺)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 (白磁 靑畫梅鳥竹文 有蓋壺)	○띠위 쓰기	74/07/09
155	국보	176	청화백자	청화백자홍치이년명송죽문호 (靑華白磁<弘治銘>松竹文壺)	백자 청화'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 (白磁 靑畫'弘治二年'銘 松竹文 立壺)	○띠위 쓰기	74/07/09
156	국보	219	청화백자	청화백자매죽문호 (靑華白磁梅竹文壺)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 (白磁 靑畫梅竹文 立壺)	○띠위 쓰기	84/08/06
157	국보	222	청화백자	청화백자매죽문호 (靑華白磁梅竹文壺)	백자 청화매죽문 유개항아리 (白磁 靑畫梅竹文 有蓋立壺)	○유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개'를 추가 표기함. ○띠위 쓰기	84/12/07
158	국보	258	청화백자	청화백자죽문각병 (靑華白磁竹文角瓶)	백자 청화죽문 각병 (白磁 靑畫竹文 角瓶)	○띠위 쓰기	91/01/25
159	국보	263	청화백자	청화백자산수화조문대호 (靑華白磁山水花鳥文大壺)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白磁 靑畫山水花鳥文 立壺)	○띠위 쓰기	91/01/25
160	국보	294	청화백자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 (靑華白磁鐵砂辰砂菊花文瓶)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白磁 靑畫鐵彩銅彩草蟲文 瓶)	○띠위 쓰기	97/01/01
161	보물	644	청화백자	청화백자송죽인물문호 (靑華白磁松竹人物文壺)	백자 청화송죽인물문 항아리 (白磁 靑畫松竹人物文 立壺)	○띠위 쓰기	78/12/07
162	보물	785	청화백자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백자 청화운룡문 병 (白磁 靑畫雲龍文 瓶)	○띠위 쓰기	84/08/06
163	보물	786	청화백자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백자 청화운룡문 병 (白磁 靑畫雲龍文 瓶)	○띠위 쓰기	84/08/06
164	보물	1056	청화백자	청화백자철화삼산뇌문산뢰 (靑華白磁鐵畫三山雷文山壘)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 (白磁 靑畫鐵畫三山雷文 山壘)	○띠위 쓰기	91/01/25
165	보물	1057	청화백자	청화백자<망우대>명국충문 전접시 (靑華白磁<忘憂臺>銘菊蟲文)	백자 청화 '망우대'명 초충문 접시 (白磁 靑畫'忘憂臺'銘 草蟲文)	○띠위 쓰기	91/01/25

				전(擘)匙)	擘)匙)		
166	보물	1058	청화백자	청화백자초화문표형병 (靑華白磁草花文瓢形瓶)	백자 청화칠보난초문 병 (白磁 靑畫七寶蘭草文 瓶)	○ 띄워 쓰기	91/01/25
167	보물	1059	청화백자	청화백자난초문지통 (靑華白磁蘭草文紙筒)	백자 청화초화문 필통 (白磁 靑畫草花文 筆筒)	○ 띄워 쓰기	91/01/25
168	보물	1063	청화백자	청화백자매월십장생문팔각접시 (靑華白磁梅月十長生文八角擘匙)	백자 청화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 (白磁 靑畫梅月十長生文 八角擘匙)	○ 띄워 쓰기	91/01/25
169	보물	1064	청화백자	청화백자운룡문호 (靑華白磁雲龍文壺)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 (白磁 靑畫雲龍文 立壺)	○ 띄워 쓰기	91/01/25
170	보물	1066	청화백자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靑華白磁花鳥文八角筒形瓶)	백자 청화화조문 팔각통형 병 (白磁 靑畫花鳥文 八角筒形 瓶)	○ 띄워 쓰기	91/01/25

□ 일괄류 : 총14건 모두 변경

○ 검토 기준

- “~일괄”이라고 표기하여 유물의 성격을 분명히 함.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칭(현재)	문화재명칭(변경안)	변경사유	지정일
1	보물	326	이충무공유물 (李忠武公遺物)	이순신 유물 일괄 (李舜臣 遺物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하고 충무공을 이름으로 변경함. ○ 띄워 쓰기	63/01/21
2	보물	343	문양전 (文樣塼)	부여 외리 문양전 일괄 (扶餘 外里 文樣塼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하고 출토지를 표기함. ○ 띄워 쓰기	63/01/21
3	보물	440	통영충렬사팔사품 (統營忠烈祠八賜品)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統營 忠烈祠 八賜品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66/03/04
4	보물	451	안동태사묘삼공신유물 (安東太師廟三功臣遺物)	안동 태사묘 삼공신 유물 일괄 (安東 太師廟 三功臣 遺物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67/06/23
5	보물	481	해남윤씨가전고화첩 (海南尹氏家傳古畫帖)	해남 윤씨 가전 고화첩 일괄 (海南 尹氏 家傳 古畫帖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68/12/19
6	보물	671	곽망우당유물 (郭忘憂堂遺物)	곽재우 유물 일괄 (郭再祐 遺物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하고 망우당을 이름으로 변경함. ○ 띄워 쓰기	80/08/23

7	보물	672	김덕원묘출토의복 (金德遠墓出土衣服)	김덕원묘 출토 의복 일괄 (金德遠墓 出土 衣服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0/08/23
8	보물	718	진주이씨고림군파종중문서 (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書)	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 (全州李氏 高林君派 宗中 文書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1/03/18
9	보물	724	성도도씨종중문서 (星州都氏宗中文書)	성주도씨 종중 문서 일괄 (星州都氏 宗中 文書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1/07/15
10	보물	725	남원양씨종중문서 (南原楊氏宗中文書)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 (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1/07/15
11	보물	727	남양전씨종중문서 (南陽田氏宗中文書)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1/07/15
12	보물	900	부안김씨종중고문서 (扶安金氏宗中古文書)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6/11/29
13	보물	955	선암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 (仙巖寺三層石塔內發見遺物)	순천 선암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順天 仙巖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역명을 추가하고, 발견유물을 사리장엄구로 변경 표기함. ○ 띄워 쓰기	88/06/16
14	보물	1003	조정임진란기록 (趙靖壬辰亂記錄)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 (趙靖 壬辰亂記錄 一括)	○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괄'을 추가 표기함. ○ 띄워 쓰기	89/05/23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1-06-015

1.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 (馬天牧 佐命功臣錄券)

가. 검토사항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 신청('09.04.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2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469호 (2006. 04. 28지정)
- 명 칭 :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 佐命功臣錄券)
- 소유자(관리자) : 장흥 마씨 중앙종회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291(국립고궁박물관 위탁)
- 수 량 : 1축
- 규 격 : 세로 39.0 × 가로 570.0 cm
- 재 질 : 壯紙
- 판 종 : 筆寫本
- 형 식 : 卷子本(두루마리)

○ 제작연대 : 1401년(조선 태종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승격 가치 미흡)

마천목(馬天牧:1358-1431)은 뒷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李芳遠:1367-1422)을 도와서 정종 2년(1400)에 있었던 제2차 왕자의 난의 평정에 참여하였다. 그 공로로 이듬해인 1401년에 47명의 신하들이 좌명공신에 책봉되었는데, 마천목은 그때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에 책봉되었고, 이때 사급(賜給)받은 것이 지금 전하는 보물1469호(2005.4.지정)로 지정된 <馬天牧佐命功臣錄券>이다. 전래되는 좌명공신녹권이 워낙 희귀하고 정공신이라는 점이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문화재 가운데 국보로 지정하는 유물은 같은 보물 중에서도 으뜸의 것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을 검토해보면, 보존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녹권의 전반부 하단의 많은 부분이 심하게 마멸 또는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처리를 통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타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 문화재의 등급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보물의 지위를 유지하되, 추후 보물로 지정된 여타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에 재평가 하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 (승격 가치 미흡)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조선 태종 1(1401)년 功臣都監에서 折衝將軍 雄武侍衛司上將軍 馬天牧(1358-1431)에게 賜給한 筆寫本 1軸의 佐命三等 功臣錄券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초기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연구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價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이미 國家文化財 寶物 제1469호로 지정되어 研究·管理·保存되고 있으므로 굳이 行政力의 浪費를 감수하면서까지 國寶로 승격시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을 近來에 保存處理를 하였으나 여전히 菌類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므로 紙類專門家의 자문을 통한 專門機

關 및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再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승격 가치 미흡)

녹권의 앞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승격 가치 미흡)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1401년(태종 1년) 2월에 芳遠을 도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어 마천목에게 사급된 필사본이다. 마천목 傳記자료와 功臣관련 研究 및 고문서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좌명공신 47명에게 발급된 것 중의 하나로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유일본이다. 그러나 앞부분의 손상이 심하며, 좌명원종공신 중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국보 제278호, 1993. 4.27.지정)이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평가에서 보물 제1657호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국보로 지정된 공신녹권은 모두 개국공신과 관련 자료이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佐命功臣錄券 / [功臣都監 發給] ; [馬天牧(1358-1431) 受給]. -- 筆書原本.
-- [漢城] : [功臣都監], [太宗 1(1401) 推定].

1軸 : 四周單邊, 朱絲欄, 132行 字數不定 ; 39.0×570.0cm. 壯紙. 卷軸裝(改裝).

受給者: 馬天牧(1358-1431)

○ 錄券 全文

참고로 녹권의 全文을 옮긴다.

功臣都監

[吏曹之印]

翊戴佐命功臣折衝將軍/馬天牧本貫

右員乙佐命功臣錄券□□奇□□

同議申言建文三年正月二十三日準議政府關建文三年正月十五日左副承旨朴信次知

口傳

王旨往者逆臣朴苞包藏禍心陰挾懷安父子謀害我骨肉遂至稱兵向闕肆爲凶逆

宗社安危間不容髮是去有乙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居易門]

下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英茂]

左軍惣制叔蕃中軍惣制無咎左軍同知惣制克禮驪城

君無疾等協心徇義應機決策戡定禍難再安

宗社盡忠佐命以有今日爲齊藝文春秋館學士李來徇義忘私

聞變首告以防禍難盡忠佐命以有今日爲齊義安[公和完山]

侯天祐等聞變赴急以制禍難翊戴佐命以至今日爲齊[昌寧]

伯石璘完川君淑門下侍郎贊成事之蘭開城留後司留後

居正知三軍府事尹抵英烈右軍同知惣制尹坤刑曹典書

朴豈都承旨錫命上將軍天牧判殿中寺事希閔奉常卿柳

沂等推誠戮力累曾効忠翊戴佐命以至今日爲齊叅贊

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叅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

[吏曹之印]

使李稷叅知三軍府事柳亮中軍惣制趙卿左軍惣制

承霏左軍同知惣制徐益前同知惣制洪恕兵曹典書子當

左承旨李原右承旨升商漢城尹鼎卿右副承旨徐愈上

將軍從茂李膺龜嶺大將軍嗣宗韓珪金字文彬前右

軍將軍尹穆等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命以[至今日]

爲齊軍器少監居信在予潛邸之時當危救患翊戴佐命

以至今日爲齊爲等如並只功勞重大永世難忘是去有等以

褒賞之典有司舉行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關是白有良尅臣等叅詳逆臣朴

苞包藏禍心陰挾懷安父子謀害/宗親遂至稱兵向/闕肆爲凶逆

宗社安危間不容髮危急之際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

門下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趙]

英茂左軍惣制李叔蕃中軍惣制閔無咎左軍同知惣
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協心徇義應機決策戡定
禍難再安/宗社以有今日實由/殿下/聖德神功
天與人歸所致然猶忠義之臣同心協力盡忠佐

[吏曹之印]

命克定危難以至今休誠如/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一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封爵錫土父母妻超
三等封贈直子超三等蔭職無直子者甥姪女婿超二等
田幾結奴婢幾口丘史七名眞拜把領十名許初入仕嫡長世
襲不絕其祿子孫則記其政案曰佐命一等功臣某之後雖有罪
犯宥及永世藝文春秋館學士李來徇義忘私聞變首
告以防禍難盡忠佐

命以有今日義安公和完山侯天祐等聞變赴急以制禍難翊戴佐
命以至今日誠如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二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父母妻超二等封贈直
子超二等蔭職無直子者甥姪女婿超等田幾結奴婢幾口
丘史五名眞拜把領八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絕其祿子孫
則記于政案曰佐命二等功臣某之後雖有罪犯宥及永世
昌寧伯成石璘完川君淑門下侍郎贊成事李之蘭開城留
後司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抵金英烈右軍同知惣制
尹坤刑曹典書朴嘗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
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推誠戮力累曾効忠翊戴佐
命以至今日誠如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三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父母妻超一等封贈直子
超一等蔭職無直子者甥姪女婿蔭職田幾結奴婢幾口丘史

[吏曹之印]

三名眞拜把領六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絕其祿子孫則記
于政案曰佐命三等功臣某之後雖有罪犯宥及永世叅贊門
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叅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
李稷叅知三軍府事柳亮中軍惣制趙卿左軍惣制金
承霍左軍同知惣制徐益前同知惣制洪恕兵曹典書尹子
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右副承旨徐

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岭大將軍延嗣宗韓珪金宇
文彬前右軍將軍尹穆等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
命以至今日軍器少監宋居信在
殿下潛底之時當危救患翊戴佐
命以至今日誠如/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稱下佐命四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父母妻封贈直子蔭
職田幾結奴婢幾口丘史一名眞拜把領四名許初入仕嫡長
世襲不絕其祿子孫則記于政案曰佐命四等功臣某之後雖
有罪犯宥及永世上項功臣褒賞事件一依定
社功臣之例移文各掌官舉行爲良如教諭乃謹錄申
聞爲白乎亦中建文三年正月二十四日左副承旨通政大
夫經筵叅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教充藝文春秋
館編修官知禮曹事臣朴信伏奉
王旨依申教矣一等功臣乙良各田一百五十結奴婢各十三口各白銀五
十兩表裏各一段內廐馬各一匹式以賞賜爲齊二等功臣
[吏曹之印]

乙良田各一百結奴婢各十口各白銀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廐
馬各一匹式以賞賜爲齊三等功臣昌寧伯石璘完川
君淑門下侍郎贊成事之蘭開城留後司留後居正知
三軍府事尹抵英烈右軍同知惣制尹坤等乙良田各
八十結奴婢各八口白銀各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廐馬
各一匹刑曹典書朴豈都承旨錫命上將軍天牧判殿中
寺事希閔奉常卿柳沂等乙良田各八十結奴婢各八口
銀品帶各一腰表裏各一段內廐馬各一匹式以賞賜爲齊
四等功臣叅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叅贊門
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叅知三軍府事柳亮中軍
惣制趙卿左軍惣制承霏左軍同知惣制徐益前同
知惣制洪恕漢城尹鼎卿等乙良田各六十結奴婢各六口白
銀各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廐馬各一匹兵曹典書子
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右副承旨徐愈上將軍從
茂李膺龜岭大將軍嗣宗韓珪文彬金宇前右軍將
軍尹穆軍器少監居信等乙良田各六十結奴婢各六口
銀品帶各一腰表裏各一段內廐馬各一匹式以賞賜
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有良尅祿券施行

[吏曹之印]

建文三年辛巳二月日

錄事權知議政府錄事金[手決]

錄事權知式目都監錄事前將仕郎架閣庫直長金[手決]

[吏曹之印]

判官前宣敎郎繕工注簿宋[手決]

判官通善郎司水監丞安[手決]

使通訓大夫判繕工監事朴[手決]

判事嘉靖大夫藝文館學士商議議政府事兼判司水監事鄭[手決]

判事嘉靖大夫叅知義興三軍府事同知議政府事金[手決]

都監/佐郎承議郎考功佐郎柳[手決]

佐郎承議郎兼尙瑞注簿韓[手決]

正郎通德郎考功正郎知製敎兼尙瑞司丞經筵副檢討官金[手決]

正郎通德郎兼義興三軍府經歷司都事玄[手決]

議郎奉正大夫藝文春秋館應敎知製敎經筵侍讀官金[手決]

議郎奉正大夫李[手決]

知曹事

典書嘉善大夫金[手決]

典書

判事

吏曹

別監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經筵叅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敎先藝文春秋館編修館知
禮曹事朴[手決]

[吏曹之印]

折衝將軍神武侍衛司上將軍兼判閣門事具[手決]

中直大夫司憲中丞安[手決]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마천목(馬天牧:1358-1431)은 뒷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李芳遠:1367-1422)을 도와서 정종 2년(1400)에 있었던 제2차 왕자의 난의 평정에 참여하였다. 그 공로로 이듬해인 1401년에 47명의 신하들이 좌명공신에 책봉되었는데, 마천목은 그때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에 책봉되었고, 이때 사급(賜給)받은 것이 지금 전하는 보물 1469호(2005.4.지정)로 지정된 <馬天牧佐命功臣錄券>이다. 전래되는 좌명공신녹

권이 워낙 희귀하고 정공신이라는 점이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문화재 가운데 국보로 지정하는 유물은 같은 보물 중에서도 으뜸의 것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을 검토해보면, 보존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녹권의 전반부 하단의 많은 부분이 심하게 마멸 또는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처리를 통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타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 문화재의 등급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보물의 지위를 유지하되, 추후 보물로 지정된 여타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에 재평가 하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 功臣都監, 佐命功臣錄券 / [功臣都監 發給] ; [馬天牧(1358-1431) 受給]. 筆寫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1(1401) 推定].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의견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심의결과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佐命功臣錄券 / [功臣都監 發給] ; [馬天牧(1358-1431) 受給]. -- 筆寫本. -- [漢城] : [功臣都監], [太宗 1(1401) 推定].

1軸 : 四周單邊, 朱絲欄, 132行字數不定 ; 39.0×570.0cm. 壯紙. 卷軸裝(改裝).

受給者: 馬天牧(1358-1431)

狀態: 保存處理는 되었으나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이 있음

□ 現狀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조선 태종 1(1401)년 功臣都監에서 折衝將軍 雄武侍衛司上將軍 馬天牧(1358-1431)에게 賜給한 筆寫本 1軸의 佐命三等功臣錄券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寶物 제1469호(2006. 04. 28)로 지정되어 있

으며, 全羅南道 谷城郡 石谷面 芳松里 291번지의 長興 馬氏 中央宗會의 소유로 현재 國立古宮博物館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고 있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크기는 세로 39.0cm 가로 570.0cm 내외이며, 紙質은 壯紙이다. 裝訂은 卷軸裝으로 改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改裝 때에 補充된 軸이 있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원래 상태는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이 있었으나, 近來에 保存處理를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毀損·磨滅·汚損되었던 부분에는 菌類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專門的인 保存施設이 完備된 國立古宮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紙類專門家의 자문을 통한 專門機關 및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再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 佐命功臣은 조선 초기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功을 세운 인사들에게 내린 功臣號이다. 1·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靖安君(1367-1422, 太宗)은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한 뒤, 그의 원(1401)년 정월 15(을해)일에 태조가 즉위한 직후 太祖朝의 開國功臣 錄勳의 예에 따라 자신이 卽位할 수 있도록 助力한 47명의 功臣을 선정하여 佐命功臣으로 稱下하고 4등급으로 나누어 錄勳하였다.¹⁾ 그리고 태종은 동년(1401)년 2월 12(신축)일에 馬巖의 壇 아래에서 佐命功臣과 더불어 敵血同盟하였으며²⁾ 동년(1401) 2월 25(갑인)일에는 北

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月 15(乙亥)日條.

錄佐命功爲四等 敎曰 往者逆臣朴苞 包莊[包藏]禍心 陰挾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兇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裁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藝文春秋館學士李來 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和·完山侯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昌寧伯成石璘·完川君淑·門下贊成事李之蘭·開城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祗·金英烈·右軍同知摠制尹坤·刑曹典書朴嘗·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勳力 累曾効忠 翊戴佐命三等稱下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婿蔭職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參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霖·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右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珪·金字·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 人 輸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竝皆立閣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於政案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上之在潛邸也 田於漢山之西 遇怒豹 墜馬 居信躍馬而過 豹逐之上得脫 至是 俾參佐命之列 門下左政丞李居易等上箋 請辭佐命功臣賞賜物件云 臣等嘗於戊寅定社之時 伏蒙主上殿下推獎之恩 濫受賞賜 今又伏蒙殿下特稱佐命功臣 令議政府備辦賞賜 臣等不敢疊受 不允.

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12(辛丑)日條.

上如馬巖壇下 與佐命功臣 敵血同盟 用祭服 其載書曰 維建文三年歲次辛巳二月朔庚寅十二日辛丑 朝鮮國王李諱 謹率勳臣 義安大君和·上黨君李佇·完山君天祐·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周制有盟載之法 漢興有帶礪之誓 所以要質神明 而固忠信也 惟我太上王 以神武之德 應運開國 以建無疆[無疆]

亭에서 佐命功臣에게 잔치를 베풀고 義安大君 李和(?-1408) 등 47인을 불러 손수 敎書·錄券·賜牌를 하사하였다.³⁾ 또한 태종 2(1402)년 2월 15(무진)일에는 임금의 御容을 그리면서 佐命功臣 40명의 影幀도 아울러 그리도록 하였다.⁴⁾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受給者인 馬天牧(1358-1431)은 麗末鮮初의 武臣으로 本貫은 長興이며, 諡號는 忠靖이다. 고려 우왕 7(1381)년에 散員에 初授된 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조선 太祖朝 초에 大將軍이 되고 태조 7(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靖安君(太宗)을 도와 功勳을 세웠다. 定宗 원(1399)년에 上將軍이 되고 이듬해(1400)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靖安君(太宗)의 선봉이 되어 크게 공헌하여 태종 원(1401)년에 翊戴佐命功臣 3등에 녹훈되면서 田 80結, 奴婢 8口, 銀品帶 1腰,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하사받고, 會寧君에 책봉되면서 同知摠制로 승진하였다. 그에게 내려진 功臣錄券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태종 8(1408)년 11월에 會寧君兼中軍摠制이 되고 이듬해(1409) 9월 監巡廳에 재직 중에 典吏 高乙貴를 招撻하여 致死한 사건으로 司憲府의 請罪를 받았으나 太宗의 배려로 谷城에 유배됨에 그쳤으며, 동년(1409) 10월에 十一道都節制使를 설치하면서 全羅道都節制使에 복직되었다. 태종 11(1411)년 1월 各衛節制使를 설치하면서 龍騎侍衛司節制使가 되고 이듬해(1412) 5월에 全羅道兵馬都節制使 判羅州牧使로 파견되었으며, 태종 14(1414)년에는 長興君으로 改封되었다. 태종 16(1416)년에는 都摠制에 개수되었다가 곧 全羅道兵馬都節制使로 파견되고 태종 18(1418)년 2월에 內侍衛節制使가 되었다. 世宗 즉위(1418)년 8월에 左右牌를 左右禁衛로 개편할 때 右禁衛節制使가 되고 長興君에 仍封되었으며, 세종 5(1423)년 9월에 判右軍都摠制府事가 되었다. 세종 6(1424)년 3월에 偏母를 봉양하기 위하여 谷城縣으로 下鄉하여 곧 母親喪을 치렀으며, 세종 10(1428)년 7월 長興君에 復職되었다. 이듬해(1429)에 年老를 이유로 致仕를 청하였으나 도리어 長興府院君에 進封되었고, 府院君으로서 卒去하였다. 성품이 廣深하고 醇謹하며, 武略이 있어 侍衛와 國防에 공헌한 人物이었다.

之業 不幸權奸貪寵挾幼 恭我兄弟 變在不測 尙賴上天誘衷 親勳協力 克底平定 以嫡以長 挾我上王 受命繼統 天倫以紱 宗社以定 不圖又有狡猾懷姦構逆 謀我骨肉 稱兵向闕 禍在呼吸之間 又緣親勳奮忠効力 旋即討平 上王乃慮國本未定 人心易搖 謂予不穀 爲同母弟 且於開國定社之際 又有微効 命爲儲副 委以監撫之權 夙夜兢惕 尙懼不堪 遽承上王傳付神器 辭不護[獲]命 乃卽于位 載念不穀 得至今日 實惟親勳忠義之臣 協力靖亂 翊戴佐命之力是賴 嘉乃丕績 永世難忘 爰命有司 舉行賞典 茲卜吉辰 祀于明神 用結盟好 旣盟之後 永肩一心 至誠相與 患難相救 過失相規 終始一義 共保丕基 子孫萬世 無忘今日 苟或規利避害 挾私背公 干盟犯好 欺罔變詐 陰謀讒害 神明必殛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非予敢違 惟其自取 各欽誓言 永克時忱 上遂至成均館 謁文廟.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25(甲寅)日條.
宴佐命功臣于北亭 召義安大君和等四十七人 手授敎書錄券及賜牌.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2年 2月 15(戊辰)日條.
命寫御容 佐命功臣四十影子并畫之.

□ 特徴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馬天牧이 佐命功臣 3等으로 錄勳되어 受給한 功臣錄券으로, 당시 佐命功臣 47명에게 발급된 것 가운데의 하나이다. 이때 馬天牧은 佐命三等功臣으로 녹훈되어 그에게 田 80結, 奴婢 8口, 銀品帶 1腰, 表裏 1段, 內廐馬 1匹이 賜給되었다.

調査本은 원래 王旨 등 馬天牧의 遺物과 함께 長興 馬氏家에 전해져 왔는데 王旨를 비롯한 古文書資料集 등은 유실되고 錄券만이 1900년에 忠靖公 馬天牧의 影堂인 忠靖祠를 中건할 때에 마루바닥 밑에서 발견되어 확인된 것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크기는 세로 39.0cm 가로 570.0cm 내외이며, 紙質은 壯紙이다. 裝訂은 卷軸裝으로 改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改裝 때에 補充된 軸이 있다. 원래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이 있어 文章을 알아 볼 수 없었으나, 近來에 保存處理를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상태이다. 그러나 毀損·磨滅·汚損되었던 부분에는 여전히 菌類의 번식이 進行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 國家指定文化財로서 國寶로 지정되어 있는 <功臣錄券>은 朝鮮 태조 원 (1392)년에 사급된 <李和開國功臣錄券>(국보 제232호)의 開國功臣錄券 1점을 비롯하여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69호)과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250호)의 開國原從功臣錄券 2점 등 3점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開國功臣과 開國原從功臣에게 사급된 錄券들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보물 제1469호)과 同一類의 佐命功臣의 錄券으로 國家文化財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보물 제1657호)과 <金英烈 佐命功臣敎書>(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05호)가 있다.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은 원래 國家文化財 國寶 제278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寶物 제1657호로 지정이 變更되었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초기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연구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朝鮮 태종 1(1401)년 功臣都監에서 折衝將軍 雄武侍衛司上將軍 馬天牧(1358-1431)에게 賜給한 筆寫本 1軸의 佐命三等 功臣錄券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초기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연구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歴史的·學術的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이미 國家文化財 寶物 제1469호로 지정되어 研究·管理·保存되고 있으므로 굳이 行政力의 浪費를 감수하면서까지 國寶로 승격시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을 近來에 保存處理를 하였으나 여전히 菌類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므로 紙類專門家의 자문을 통한 專門機關 및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再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근거 기준 :

현재 國家指定文化財로서 國寶로 지정되어 있는 <功臣錄券>은 태조 원(1392)년에 사급된 <李和開國功臣錄券>(국보 제232호)의 開國功臣錄券 1점을 비롯하여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69호)과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250호)의 開國原從功臣錄券 2점 등 3점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開國功臣과 開國原從功臣에게 사급된 錄券들이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보물 제1469호)과 同一類의 佐命功臣의 錄券으로 國家文化財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보물 제1657호)과 <金英烈 佐命功臣敎書>(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05호)가 있다.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은 원래 國家文化財 國寶 제278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寶物 제1657호로 지정이 變更되었다.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보물 제1469호)의 頭部 및 下端에 있는 毀損·磨滅·汚損 등은 본 錄券의 價値를 激減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이미 國家文化財 寶物 제1469호로 지정되어 研究·管理·保存되고 있으므로 굳이 行政力의 浪費를 감수하면서까지 國寶로 昇格 指定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문헌자료

- 功臣都監, 佐命功臣錄券 / [功臣都監 發給] ; [馬天牧(1358-1431) 受給]. 筆寫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1(1401) 推定].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의견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심의결과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http://www.memorykorea.go.kr/>>

○ 기 타

□ 所藏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은 寶物 제1469호(2006. 04. 28)로 지정되어 있으며, 全羅南道 谷城郡 石谷面 芳松里 291번지의 長興 馬氏 中央宗會의 소유로 현재 國立古宮博物館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고 있다.

□ 保存 : 調査本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원래 상태는 頭部 및 下端에 毀損·磨滅·汚損 등이 있었으나, 近來에 保存處理를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毀損·磨滅·汚損되었던 부분에는 菌類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專門的인 保存施設이 完備된 國立古宮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紙類專門家의 자문을 통한 專門機關 및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國家指定 및 市·道指定 敎書·錄券類 :

◇開國功臣(太祖 01, 1392)

- 국보 제69호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 국보 제232호 李和開國功臣錄券
- 국보 제250호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437호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726호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076호 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160호 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282호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294호 李濟開國功臣敎書

◇定社功臣(定宗 卽, 1398)

◇佐命功臣(太宗 01, 1401)

- 보물 제1469호 馬天牧佐命功臣錄券
- 보물 제1657호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전 국보 제278호)
- 경북유형 제305호 金英烈佐命功臣敎書

◇靖難功臣(端宗 01, 1453)

◇佐翼功臣(世祖 01, 1455)

◇敵愾功臣(世祖 13, 1467)

- 보물 제604호 張末孫敵愾功臣敎書
- 경북유형 제13호 孫昭敵愾功臣錄券
- 경남유형 제313호 金嶠敵愾功臣敎書

- ◇翊戴功臣(睿宗 卽, 1468)
- ◇佐理功臣(成宗 02, 1471)
 - 보물 제716호 金吉通佐理功臣敎書
- ◇靖國功臣(中宗 01, 1506)
 - 보물 제900-6호 金錫弼靖國原從功臣錄券.
- ◇定難功臣(中宗 02, 1507)
- ◇衛社功臣(明宗 01, 1546) (保翼) 削勳
- ◇光國功臣(宣祖 23, 1590)
 - 보물 제460-3-1호 柳成龍光國功臣敎書
 - 보물 제896-4호 權機光國原從功臣錄券
 - 광주유형 제22호 奇大升光國原從功臣錄券
- ◇平難功臣(宣祖 23, 1590)
- ◇扈聖功臣(宣祖 37, 1604)
 - 보물 제160-11호 柳成龍扈聖功臣敎書
 - 보물 제739호 高曦扈聖功臣敎書·扈聖功臣錄券
 - 보물 제874호 李忠元扈聖功臣敎書
 - 보물 제1175호 沈岱扈聖功臣敎書
 - 보물 제1308호 洪進扈聖功臣敎書
 - 서울유형 제87호 金良輔扈聖功臣錄
 - 충북유형 제166호 朴崇元扈聖功臣敎書
- ◇宣武功臣(宣祖 37, 1604)
 - 보물 제952호 李光岳宣武功臣敎書
 - 보물 제668-2호 權應銖宣武功臣敎書
 - 보물 제1001-6호 李夢鸞宣武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133호 元均宣武功臣敎書
 - 보물 제1212호 李雲龍宣武功臣敎書
 - 보물 제1237호 朴慶新宣武原從功臣錄券
 - 보물 제1564호 李舜臣宣武功臣敎書
 - 광주유형 제25호 李愼儀宣武原從功臣錄券
 - 경남유형 제344호 朴蒙龍宣武原從功臣錄券
 - 경남유형 제289호 金有富宣武原從功臣錄券
- ◇淸難功臣(宣祖 37, 1604)
 - 보물 제1380호 辛景行淸難功臣敎書
- ◇衛聖功臣(光海 05, 1613) 削勳

- 보물 제494-1호 鄭琢衛聖功臣敎書
- 보물 제1304호 柳夢寅衛聖功臣敎書
- ◇翼社功臣(光海 05, 1613) 削勳
 - 서울유형 제85호 成時憲翼社功臣錄
- ◇定運功臣(光海 05, 1613) 削勳
- ◇亨難功臣(光海 05, 1613) 削勳
- ◇靖社功臣(仁祖 01, 1623)
 - 보물 제1174-1호 李重老靖社功臣敎書
 - 충북유형 제268호 俞伯曾靖社功臣錄券
 - 전북유형 제147호 朴世重振武原從功臣錄券
- ◇振武功臣(仁祖 02, 1624)
 - 중민자료 제21-5-3호 南以興振武功臣敎書
 - 충북유형 제178-1호 李守一振武功臣錄券
 - 전북유형 제147호 朴世重振武原從功臣錄券
 - 경남유형 제56호 李休復振武功臣敎書
 - 경남유형 제347호 趙益道振武原從功臣錄券
- ◇昭武功臣(仁祖 05, 1627)
- ◇寧社功臣(仁祖 06, 1628)
- ◇寧國功臣(仁祖 22, 1644)
- ◇保社功臣(肅宗 06, 1680)
- ◇奮武功臣(英祖 04, 1728) (揚武)
 - 보물 제1177호 吳命恒揚武功臣敎書
 - 경북유형 제190호 權喜學奮武功臣敎書

□

○ 현 상

전래과정에서 앞 부분(頭部)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으나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된 후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쳤다.

○ 내용 및 특징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그의 좌명공신상훈교서와 함께 일제시대에 간행된 『조선사료집진속』에 소개되어 그 존재가 일찍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사당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 2006년에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사료집진속』에는 녹권의 상태가 온

전하였으나 전래과정에서 앞 부분(頭部)이 크게 손상되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녹권의 앞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의견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전라남도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심의결과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2009.
- <<http://www.memorykorea.go.kr/>>

□

○ 현 상

앞부분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결락되어 있고 습기로 인한 얼룩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 2009년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였음.

○ 내용 및 특징

이 녹권은 1401년(조선 태종 1) 2월에 공신도감에서 折衝將軍 雄武侍衛司上將軍 마천목에게 발급한 좌명공신녹권으로 필사본이다.

좌명공신은 조선 초기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1400년(조선 定宗 2) 1월에 芳遠(뒤의 太宗)을 제거하려던 芳幹과 그를 추종하던 朴苞가 난을 일으키자 芳遠이 이를 平定하고 王位에 올랐다. 太宗은 太祖가 卽位한 직후 太祖開國功臣을 책봉한 例를 좇아, 자신을 도운 47명의 功臣을 선정하여 4등급(1등 9명, 2등 3명, 3등 12명, 4등 23명)으로 나누어 褒賞하였다. 이 때 마천목은 3등 공신으로 이 녹권을 사급받았다

마천목(1358~1431)은 려말선초의 무신, 字는 君戀, 號는 梧川, 본관은 長興. 고려 禡王朝에 入仕하여 武官職인 散員에 임명되고, 조선에 들어와 司直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靖安君(李芳遠)을 도와 공훈을 세워 大護軍으로 삼고 이어 上將軍으로 전임. 1401년에 방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翊戴佐命功臣으로 녹훈되고 이어 同知摠制로 승진, 1406년 영변 大都護府使, 龍驤龍騎龍武司 上護軍, 中軍摠制, 1411년 吉州察理使, 1412에 全羅道 兵馬都節制使 判羅州牧使, 1414년에 長興君에 봉해졌다. 1416년에 都摠制, 全羅道 兵馬都節制使를 거쳐 전라병영성을

축조하여 해안지역의 방비에 주력한 장군이기도하다. 1418년 內侍衛 節制使, 우금위 일번절제사, 정헌대부 병조판서, 判右軍都摠制府使,를 지내고 1428년 집현전 대제학 겸 삼군부사, 1429년 長興府院君을 제수하고 영돈령부사 겸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忠靖이다.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朝鮮史料集眞』에 보면 原文의 全文은 물론, 사진 및 공신교서, 영정까지 수록하였다. 이후 이 녹권은 2차 자료로서 『한국의 古文書』에는 全文이, 『朝鮮前期古文書集成』에는 全文과 도판이 실려 있어 지금까지 사료로서 크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중에 燒失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990년 마씨 종가에서 忠靖祠 중건공사 과정 중 마루바닥 밑에서 발견된 것이다. 2005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를 통하여 2006년 4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 좌명원종공신인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은 국보 제278호(1993. 4.27.지정)이었는데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평가에서 보물 제1657호로 변경되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공신녹권은 1392년 이화 개국공신녹권(국보 제232호), 1395년 이원길 개국공신녹권(국보 250호)과 1397년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국보 제69호) 등 3건이 있다.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모두 목활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1401년(태종 1년) 2월에 芳遠을 도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어 마천목에게 사급된 필사본이다. 마천목 傳記자료와 功臣관련 研究 및 고문서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좌명공신 47명에게 발급된 것 중의 하나로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유일본이다. 그러나 앞부분의 손상이 심하며, 좌명원종공신 중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국보 제278호, 1993. 4.27.지정)이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평가에서 보물 제1657호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국보로 지정된 공신녹권은 모두 개국공신과 관련 자료이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馬天牧 佐命功臣錄券』, 2006. 4.

서병패, 「조선 초기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에 관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제29호, 한국서지학회. 2005. 12.

○ 기 타

장흥 마씨 중앙총회 소유이며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하여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1-06-016

1.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현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음.
- 본 위원회에서 현품이 검토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30건49점
- 규 격 :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11.2cm 무릎폭 11.4cm
보살입상(우) 상높이 8.2cm 어깨폭 2.2cm

보살입상(좌) 상높이 8.2cm 어깨폭 2.3cm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1450년
- 제작자 : 해료(海了)

라. 내용 및 특징

통도사정보박물관에는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및 불감이 함께 일괄 유물로 소장하고 있다. 불감은 불상을 모셔두기 위해 후대(조선말~근대)에 조성한 것이다. 통도사에서는 이 불상이 금강산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1차 조사 때에 복장발원문만 꺼내어 공개되었고, 2004년 2차 조사 때에는 본존대좌의 아래쪽에 위치한 복장공에서 30여 건의 복장물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불상은 “景泰元年”인 1450년에 제작되었으며, 상의 제작자는 “造土海了”임을 알 수 있다.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가운데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협시보살상이 각각 연화대좌 위에 서 있다. 좌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불좌상이, 우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 각각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 보살은 양손으로 棒 모양의 물건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 경권으로 추정된다. 대좌는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진 삼단 연화대좌이다. 상대와 중대는 8판의 연화가 양련과 복련 형태로 장식되었고, 중대는 8각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와 중대가 만나는 양 측면으로부터 각각 한 줄기씩의 연꽃줄기가 튀어나와 작은 양련대좌를 형성하고 있다.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좌상은 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하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형태이다. 왼손은 오른발 위에 약간 공간을 띄운 채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여 수평으로 두었는데 엄지와 장지를 가까이 대고 있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서 대좌 윗면까지 닿는 축지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는 가름한 편으로 육계가 거의 생략되어 있으며 나발의 머리 위에 큰 정상계주가 위치하고 있다. 편단우견의 대의자락은 가슴을 사선으로 지나는데 오른쪽 가슴 위에 안에서 접혀져 나온 승기지 자락이 살짝 늘어져 있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보관에 표현된 불좌상과 정병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형상이 거의 유사하다. 보살상의 얼굴은 둥근 편으로 볼과 턱에 살집이 있어 원만하게 표현하였다. 보관은 끝이 구부러진 당초줄기를 대칭되게 세워 수목형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나신이다. 보살상의 영락장식은 가슴부위 장식과 하반신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잡하고 화려하다. 가슴에는 U형으로 늘어진 영락에서 세로로 떨어진 3줄의 장식모양이며, 허리와 무릎에도 희미하게 영락장식이 남아있다. 천의는 S자형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하의

옷주름은 다리 윤곽을 따라 U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이후 지속되어 온 고전적인 불상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대좌에 삼존을 배치하는 방식, 끝이 뾰족한 여래의 육계, 협시보살의 이색적인 보관 형태, 봉 형태의 지물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난다. 재질면에서도 청동이 아닌 은을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형식의 불상으로는 미국 세클러박물관 소장의 은제삼존불좌상(15세기)과 금강산 향로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29년)과 내강리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53년) 등이 있다. 또한 청동이 아니라 은과 백동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 말~조선 초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처럼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14세기말~15세기 초에 새로이 유입된 중국화된 티베트 양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여러 전통적인 요소들이 융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 명문

① 願成彌陀三尊同發願文, 1450년, 종이, 34.2×36.4, 1매

願成彌々三尊同發願」願我世生處」常於般若不退轉」如□□師勇孟志」如彼舍那大覺果」如彼□□大智惠」如彼普賢廣大行」如彼地藏無過身」如彼觀音三十應」十方世界無不現」普願□生入無爲」聞我名者□三途」見我形者得解脫」如是教化恒沙劫」畢竟無佛及衆□」願諸天龍E八部神」爲我擁護不難身」於諸難處無諸難」如是大願能成龍」發願已皎命三禮寶」金哲」中敏」訥音」召吏」八月」者斤」老見」延之」元敬」銀金」春非」無通」寶强」牧舟」者土」成舟」思達」明達」于强」…」…」自田」善敬」銀德」內□伊」小斤太」文子」得敬」姜□吉」終乙」訥斤伊」崔今守」巾藏」甘音伊」金松」流伊藏」金□」金逸」古邑耶只」崔仁彦」…」…」…」…」崔仁德」達正」志一」今月」金難」金彦」豆打非」義乳」義由」徐加求之」□伊藏」內□E惠只」金□龍」加□加伊」梁用」高□□」梁氏」眞□」…□□」鄭仇金」洪禪」太石蘭」銀珠」洪道」行正」李氏」三月」白德只」處義」朴乙生」李尙」全吉」義修」石山」者老」坦湮」長枝」亡龍」千龍奉」□非」…古□」金…太」…」…知伊」內□土」僧加」心方」金□」現龍」金德」金二龍」難金」柳氏」良衣□伊」珍衣□」加□加伊」加阿之」金苐」甫泰」信元」衆伊」良衣伊藏」金他乃」有子」柳中」貴同」者斤召吏」住□」徐繼分」金眞梅」善妃」李夫斤失」梁罔」吳氏」万花」孝道」金思量」成子」万德只」龍世」權守」朴今音勺」卜眞」陳□」□德只」月梅」金仇知□妻」李哲」心□」召□」□得守」者

斤伊」梁現三」長每邑金」宋竹」金氏」仇知金」李官」朴正龍」將美」梁長命氏」
 金元界」永德」梁禹之」金德」巾之」芍若」金臣業」孫德」申万」芍香」洪守謙」
 者斤」金夫」徐延」毛得只」賴太」有知」同金」幼正□」成夫□」金呂溫」金氏」
 惠智」牧舟」寶紙」全氏」金剛」春敬」性」永春」梁氏」梁末同」□春」□惠」哲
 牛」金兩」志澄」金奉」金同」心方」信義」朴習」□頌」道禪」性明」六明」尙
 明」六和」六問」春金」琴氏」大敬」信成」德之」中敬」金氏」□山」□住」夫
 存」毛伊乎」金氏」金正善之」衆伊」宋以」於乙火伊」長氏」凡智□」黃氏」玄
 三」德中」形氏」奴甲加」形玉龍夫妻」尹漢」趙氏」性行」處□」加□」豆□」迷
 同」哲山」道者」山非」崔中海」本致」金破吐」丹正」長今音同」觀音」崔之」白
 德」曹以奉」敬存」義敬」希顏」四德」敬生」金儲」柳和」柳承吉」四寶」□權」
 淮□」德之」□山」末生」□海」者斤」碧文」所進」金巨亡彦」者斤召吏」金已」
 卽生」□□」定峯」明菴」□□」道菴」正菴」志修」海胡」俊菴」祖敏」賴性」性
 惠」義尙」允義」德敬」智岑」問然」義□」學智」正環」□惠」性涼」性照」洪
 道」義圓」信正」學存」壬環」學惠」問玉」義明」洪惠」性照」處峯」海惠」性
 月」壬敏」信義」尙敏」學眉」…」…」問憚」洪乙」學□」□一」石三」信心」洪
 樞」信觀」性了」惠明」海惠」義悟」元玉」海衍」覺志」尙敏」義見」竹林」一
 明」性明」法正□」…」…」性了」性雲」省問」洪俊」惠□」得尙」信海」性海」
 金豆乙」者斤召吏」卜眞」月海」吏」小斤伊」繼南」毛邑非」…」…」…」□□」
 李万」□金」正達」豆乙彦」尙□京」寶排」个問」乙大」爲方」金天」召吏」吉
 通」達通」心方」李漢兩」正月」崔大介」成美」正月」仇哲」□惠敬夫妻」□□□
 甲」李仁桂」內□E藏」尹通」李仁」朴陽」三德只」崔金守」鄭氏□藏」□□」流□
 藏」…」…生」如□□□」金藏」加乙个」化土義月惠月」石窓」幹善道士超然」信
 頓」造士海了」景泰元年庚午」五月日畢」共登蓮願往」生」

② 복장유물 일괄 腹藏遺物 一括

1450년 추정, 30건 49점, 통도사정보박물관

위치	수습순서	내용물	수량	크기(mm)	재질
대좌(中臺)	1	은제원관	1	∅=22, t=0.7	銀
	2	원형직물편	10여매	∅=22, t=총5	비단
	3	腹藏記	1	34.2×36.4	종이
대좌(上臺)	4	녹색직물편	1	계측불가	비단

	5	실뭉치	1	24×22	비단
	6	녹색직물편	1	40×65	비단
		남색직물편	1	70×70	비단
	7	황색직물편	1	30×35	비단
	8	식물뿌리(?)	4편	16×12/13×12 18×8/13×5	木
	9	수정원판	1	∅=17, t=6	수정
	10	수정구슬	1	∅=14	수정
佛身(下體)	11	진주	1과	∅=3	진주
	12	실뭉치	1	30×40	비단
	13	종이뭉치	3		종이·木
	14	香油	4편	L=8,5,14,16,20	木
	15	진주와 사리	2과	진주∅=1.5 사리∅=3	진주·사리
	16	금은제원판	1	∅=9.2, t=0.5	금은
	17	금동팔화문판	1	∅=12, t=0.4	금동
佛身(上體)	18	종이뭉치	1	16×11	종이
	19	종이뭉치	1	12×8	종이
	20	종이뭉치	1	19×8	종이
	21	종이뭉치	1	13×11	종이
	22	종이뭉치	1	8×5.7	종이
	23	종이뭉치	1	10	종이
	24	종이뭉치	1	20	종이
	25	종이뭉치	1	4×2	종이
	26	종이뭉치	1	12×9.6	종이
	27	종이뭉치	1	10×5.8	종이
	28	종이뭉치	1	11×8	종이
	29	직물뭉치	1	17×7	비단
	30	금동원통	1	5×3	금동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체 높이 11.2cm의 소형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불의 크기가 6.9cm, 좌우협시 보살입상의 높이가 7.86cm와 7.93cm로 소형의 상이다. 본존불의 오른손은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부처의 왼쪽 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아미타불이 표현된 관음보살상이고 오른쪽 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정병이 있어 세지

보살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존불은 도상적으로 아미타불로 볼 수 있다. 두 보살상이 들고 있는 긴 막대 같은 것은 보살상의 지물로는 이례적이나 아마도 두루마리 경전이 아닐까 한다. 이 삼존상의 본존불에서는 귀중한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주자 명단 끝에 景泰元年 庚午 5월 즉 1450년(세종 32년)에 조성되었고 제작자는 造士海了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은 개금을 두껍게 하여 세부표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보살의 관이나 영락장식 그리고 대좌표현의 장식이 정교하다. 특히 부처의 머리 정상에 정상 계주가 있는 것은 이 상이 고려를 통해서 들어온 원 불상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들의 양식은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성연대가 확실한 15세기 금은제삼존불상으로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전체적인 특징과 주조법 등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미타여래좌상 왼쪽 어깨 위의 옷주름 장식에 보이는 조선초기의 특징과 양협시보살의 보관을 장엄한 화형 장식에 보이는 여말선초의 모티프, 정상계주에서 확인되는 藏傳불교미술의 특징, 대좌에 보이는 연주문 장식등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다. 한편 불상 안쪽에 보이는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표현된 주조 흔적도 이 시기 주조의 특징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1450년 명 彌陀三尊發願文에서는 발원문 앞부분에 후대에 많은 조성기에서 인용되는 懶翁선사(1262-1342)의 원문이 쓰여 있으며, 제일 뒷부분에는 조각승(造士) 海了와 조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불상의 조성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 준다.

한편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불상 조성에 사용된 재질이 동이 아니라 은이라는 점도 주목되는데, 불상재로서 은이 사용되는 시기 역시 여말선초에 해당된다.

불감은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 일괄과 달리 후대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

그러나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성 내용을 알려 주는 발원문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 불상 조성에 참여한 많은 발원자의 이름을 통하여 이 불상이 여말선초에 유행했던 彌陀香徒신앙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작은 크기지만 관음보살 보관에 새겨진 화불, 대세지보살 보관에 새겨진 보병, 아미타여래좌상의 오른 쪽 발가락과 왼쪽 젓꼭지 표현, 보살상 양 무릎 위의 꽃 장식 등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한 점 등은 이 불상이 불교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려 준다.

따라서 통도사 금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 일괄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景泰元年 庚午(1450, 세종 32)에 아미타삼존상으로 조성된 것이다. 팔각연화대좌 위에 향마촉지인을 짓고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연화좌 위에 선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을 좌우 협시로 두었다. 본존상은 아미타불상으로는 드물게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관음·대세지보살상 역시 이들 도상에서 볼 수 없는 經卷을 지물로 들고 있어 주목된다.

불상에서 보이는 형식과 양식은 금강산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구의 불상과 양식상 공통점을 보인다. 즉 팽이 형으로 솟은 육계 위에 연봉형의 큼직한 정상계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단엄한 얼굴표정, 오른 팔뚝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오희 주름, 작은 체구지만 당당하고 육감적으로 표현한 가슴, 두터운 법의에 표현된 탄력 넘치고 골 깊은 주름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원·명대 라마양식 불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여말선초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소재불명)이나 景泰 2年명(1451년, 문종 원년) 금동아미타삼존좌상(금강산 은정골 출토) 등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금강산 일대에서 조성된 소형 금동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성발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450년에 조성된 작품임에 틀림없다.

이 불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왕실발원으로 금강산 일대에서 많이 만들어진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당당하면서도 품격 높은 예술성, 그리고 종교적 이상성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여말선초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 시기 아미타여래삼존도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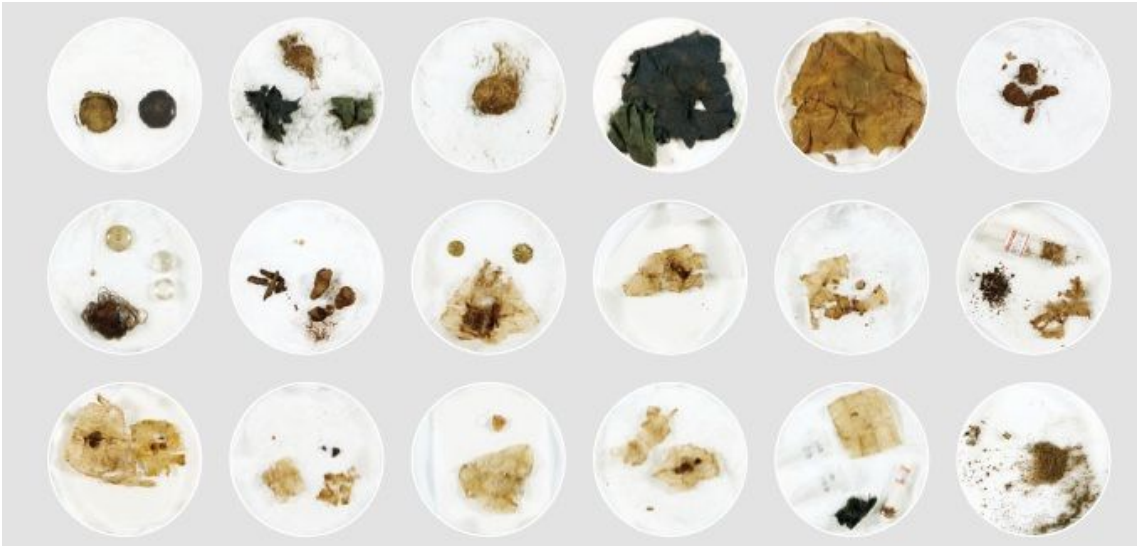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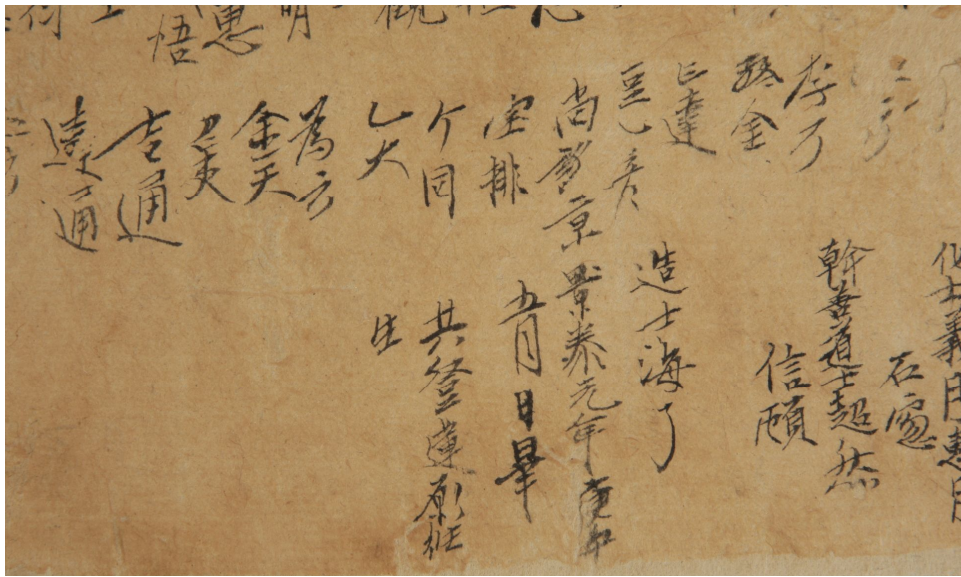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1450년, 금·은,
①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11.2 무릎폭 11.4 ② 보살입상(우) 상높이 8.2 어깨폭 2.2 ③
보살입상(좌) 상높이 8.2 어깨폭 2.3

敕成弥人三尊同發願
 敕我世生之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藏死過身 如彼觀音予應
 十方世界無不見 普願 生入死為
 閻名我者免途 畢竟死佛及眾
 如是教化恒沙劫 為我擁護不難身
 於諸難處死諸難 如是六觀能成死
 發願已故命三祀 寶具
 金格 小斤六 金難 朴山生 李尚
 中教 文子 金難 朴山生 李尚
 銀惠 金格 小斤六 金難 朴山生 李尚

복장원문, 1450년, 종이, 34.2×36.4, 1매

敕成弥人三尊同發願
 敕我世生之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藏死過身 如彼觀音予應
 十方世界無不見 普願 生入死為
 閻名我者免途 畢竟死佛及眾
 如是教化恒沙劫 為我擁護不難身
 於諸難處死諸難 如是六觀能成死
 發願已故命三祀 寶具
 金格 小斤六 金難 朴山生 李尚
 中教 文子 金難 朴山生 李尚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2.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天聖山 觀音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시장으로부터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7.1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10.06)를 실시하였음.
-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에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소장경위 및 불복장의 관리 계획 등에 대한 파악 및 현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음.
- 본 위원회에서 소장경위, 관리계획 및 현품이 검토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天聖山 觀音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 : 추경애(부산 동래구 온천1동 77-5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박물관(위탁보관)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
- 규 격 : 불상(상 높이 67.0cm, 어깨 폭 30.3cm, 무릎 폭 45.8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아미타여래삼존 중 협시
- 제작연대 : 1502년(연산군 8), 1706년(숙종 32) 중수개금
- 제 작 자 : 도유(道裕), 의웅(義雄), 신매(信梅)
중수화원 : 성희(省希), 초안(楚眼), 석규(釋珪)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제작연대나 관련 기록이 완전하고 복장물에 포함된 직물이나 유리제품등 보기 드문 예들이 포함 되었고 특히 고려시대의 인삼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보물로 일괄지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할 것은 알려진 상이 드문 북한소재였던 상이 어떤 경위를 거쳐 현 소유자에게로 이관되었고 또 북한에서 전래된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한 좀더 확실한 내용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머리부분은 얼굴과 같은 통목으로 제작되었으나 상투부분을 잘라낸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상의 개금이나 회로 덧칠하여 원래의 상의 세부가 두꺼워진 것도 다시 벗겨내어 새로이 개금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상이 16세기초의 상임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물지정 이후에도 상과 복장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수장할 것을 권유한다.

○ (지정가치 있음)

이 보살상은 당당한 자세와 담대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수작인 반면, 전면에 베풀어진 改金이 거칠고 어둡고, 신체 곳곳에 훼손과 균열, 변형된 부분이 있으며, 別製의 보관도 결실되고 寶髻는 전체가 세로로 잘려나갔으며 양 어깨 위에 드리운 寶髮도 後補하는 등 원상이 변형되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준거가 되는 여러 요소(확실성, 희소성, 圖像과 양식의 특수성,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복장 발원문에 의해 조성시기(1502년)와 조성주체(副畫 義雄, 副畫 信梅 造像 前興敎住持大禪師 道裕)가 밝혀진 朝鮮 前期 조각의 基準作이다.
- 이 시기는 연산군(1495~1506)에 의한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시기로, 따라서 현존하는 유례가 희소한 상태(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치보살상이 유일한 예)에서 당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발원문 중의 天聖山 觀音寺는 현재의 문헌자료에 비추어 ‘평안도 은산현 천성

산'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불모지에 가까웠던 조선 전기 평안도 지역의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양식적으로, 허리를 곧추 세운 당당한 자세와 담대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목조 조각의 수작으로, 보발·목걸이·영락 등 일체의 장식이 생략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담대한 조형성은 같은 시기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불상만이 지닌 독창성이다.
- 도상적으로, 15세기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불의 도상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음과 세지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불로 변화하는데, 이 보살상은 그 변화의 시원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는 점에서 불교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 다양하고 새로운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뤄졌던 조선 전기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복장물은 그 형식과 납입방식에서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복장물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특징에 비추어 이 불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과 보존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 불상의 원 소장처가 평안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1990년대 이전의 소장 경위가 분명히 밝혀진 후 지정되어야 하며,
- 지정 이후에도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보존처리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 특히 복장유물은 분리 보관될 경우 원상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일괄 보존처리(한 세트)로 보관되어야 한다.

○ (지정가치 있음)

이 보살상은 1502년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의 아미타여래삼존상의 협시로 조성된 보살상으로 조성시기(1502년), 봉안사찰(天聖山 觀音寺), 조성작가(道裕, 義雄, 信梅 등), 발원자, 시주자 등 조성주체가 모두 밝혀져 있어 조선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는 물론, 발원자의 추이나 동향 연구에도 활용할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특히 이 보살상은 불교탄압이 가장 극심했던燕山君代에 조성되었다는 점과 조선시대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지역의 불상양식 연구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양식적으로 늘씬한 신체비례, 간결하고 탄력적인 선묘, 넓고 깊은 오행을 가진 무릎, 보발의 처리나 세부 주름표현 등에서 조선전기 15세기 瘦身形 불상

양식의 전통을 계승하여 16세기 초반에 조성된 불상이다. 비록 후대에 격조 없이 덧칠해진 개금이 예술적, 종교적 감성을 반감시키지만, 세련되고 간결한 선묘, 늘씬하면서도 균형 잡힌 비례, 그리고 단아한 상호에서 뛰어난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할 점이 있다. 우선, 원봉안처로 추정되는 평안도 은산현 천성산 관음사에서 현재의 봉안처인 부산 원광사로 언제, 누구에 의해 이안, 봉안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봉안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사찰 측에서는 선대의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나 소장경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 오곡, 오약 등 일부 유기물들은 특별한 보관시설이 갖추지 못한 곳에 보관할 경우 이른 시간 내에 소실, 산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들이 우선 해결된 연후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보류 - 정확한 유통경로 확인 후 재검토

조사 보고서 전문



○ 내용 및 특징

현재 부산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위탁보관중인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은 발원문과 귀중한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조성 시기는 1502년(弘治 15년, 연산군 8년) 제작되었다. 원래는 평안남도 은성군 天聖山 관음사에 있던 상이라 한다. 보살상의 표현은 조선시대 초기의 전통을 보여주면서 곧은 자세에 허리가 길고 걸가부좌의 다리폭이 넓어서 당당한 느낌을 준다.

착의형식에서 보이는 단순하고 간결한 조각표현 역시 이 상이 주는 엄격한 조형성에서 조선초기 15세기의 흑석사나 천주사 불상이 주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발원문에는 상의 제작내력을 쓰고 조각승은 흥교사주지였던 道裕대선사이고 많은

시주자들과 승려들의 이름이 발원문에 적혀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상은 제작연대나 관련 기록이 완전하고 복장물에 포함된 직물이나 유리제품등 보기드문 예들이 포함 되었고 특히 고려시대의 인삼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보물로 일괄지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할 것은 알려진 상이 드문 북한소재였던 상이 어떤 경위를 거쳐 현 소유자에게로 이관되었고 또 북한에서 전래된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한 좀더 확실한 내용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머리부분은 얼굴과 같은 통목으로 제작되었으나 상투부분을 잘라낸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상의 개금이나 회로 덧칠하여 원래의 상의 세부가 두꺼워진 것도 다시 벗겨내어 새로이 개금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상이 16세기초의 상임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물지정이후에도 상과 복장물들을 잘 보존할수 있는 장소에 수장할 것을 권유한다.

□

○ 현 상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도 뛰어나지만, 전면에 베풀어진 改金이 거칠고 어두우며 신체 곳곳에 훼손, 균열, 박락된 부분이 많다. 別製의 보관은 결실되었고 머리의 寶鬘는 전체가 세로로 잘려나갔으며 양 어깨 위에 드리운 寶髮은 後補한 것이다. 여러 매의 나무를 붙여 조각하는 접목조 기법으로 조성되었는데 모두 5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과 몸체는 앞뒤 2매 목판을 접합하였으며, 두 팔과 양 무릎은 따로 만들어 못으로 고정시켰다.

이상의 특징에 비추어 처음 제작 이후 계속 補修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된 부분을 제작 당시의 원래 모습으로의 복원이 시급하다.

○ 내용 및 특징

(1) 보살상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의 발원문에는 至正24년(1364)에 동제아미타삼존불을 주조하였으나 도적에 의해 흠을 입어 弘治 15년(1502)년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므로, 이 보살상은 연산군 8년에 조성한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불상을 통틀어 몇 예가 남아 있지 않는 1500년대 불상의 귀중한 예이다.

아미타구품인 중의 中品下生印을 맺고 당당한 자세로 결가부좌한 보살좌상으로

길쭉한 佛身과 方形의 얼굴, 세부 장식이 지극히 절제된 단순한 조형이 특징적이다.

얼굴은 이마가 좁은 방형으로, 입술에 붉은 칠이 있고 인중과 턱에 초록색 수염이 그려져 있다. 단정한 머릿결이 표현된 이마 상단은 턱을 주어 별제의 보관이 놓이도록 하였으며, 머리 정상의 寶鬘는 시작 부분에서 세로로 단정히 잘려 나갔다. 얼굴 뒷면에 길게 드리운 머리카락은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모습으로, 이처럼 중앙선을 중심으로 네 가닥의 동심 타원형이 좌우로 맞붙어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특이한 모습의 보발표현은 조선시대 조각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형식이어서 주목된다.

寶鬘은 귀를 감아 둔 뒤 직선적으로 내려와 어깨 위에 드리워진 모습으로, 현재 어깨 위에 늘어진 보발은 못으로 고정하였다. 이 부분은 세부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어깨와 분리되어 있어 뒤에 만들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보발은 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의 예에 비추어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 늘어뜨리지 않고 귀 중간을 감아 돌면서 이어지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불신은 가슴과 허리의 윤곽 표현이 없는 길쭉한 모습이며 밋밋한 불륨의 상체에는 2매의 천의를 걸쳤다. 어깨를 넓게 덮고 양 측면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천의는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중간이 잘려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가슴에 대각선으로 걸친 또 하나의 천의는 팔 밑으로 늘어진 자락은 모두 결실된 상태이지만 왼쪽 어깨에서 따로 만들어 붙였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외 보살상에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목걸이와 영락 장식은 생략되어 전체적으로 담대한 조형성을 나타낸다.

두 손은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내려 中品印을 맺었지만 관음보살의 그것과는 달리 좌우 손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 발원문에서 말하는 ‘勢至大聖尊’일 가능성이 크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는데, 일반적으로 손목 부분까지 부드럽게 이어지게 조각하여 끼우는 형식과는 달리 손목까지만 조각한 뒤 축을 통하여 손목에 끼운 형식이 특징적이다. 현재 몸체는 赤松으로, 팔과 무릎은 은행나무로 제작되었는데, 별조한 양손도 은행나무여서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허리의 균의는 허리띠로 묶은 뒤 끝단을 한번 접어 그 끝을 삼각형 형태로 넓게 드리운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균의 끝단의 마무리 표현 역시 드물게 나타나는 조선 초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결가부좌한 하체는 낮은 편이나 다른 불상에 비해 앞뒤 폭이 깊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하단의 옷자락은 넓은 부채살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다.

밑판은 못으로 불상과 고정하였으며 뒷면에 치우쳐 15.3×12.1cm 크기의 사각형 복장공이 단정히 뚫려 있는데, 복장공의 밑판은 없어진 상태이다. 단정히 파낸 불

상의 내부는 이마 부분까지 中空이며, 아래쪽에 접합용 鐵釘이 노출되어 있다.

(2) 복장물 및 발원문 (목록은 ‘복장 유물 조사결과보고’ 참조)

현재 복장물은 동아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어서 긴급한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복장물의 숫자와 종류가 많을 뿐아니라 유물의 크기 또한 매우 미세하고 어떤 유물들은 일괄로 분류되어 있어 자칫 분리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반드시 별도의 보존과학적 처리를 통하여 일괄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복장물은 發願文과 重修願文, 黃銅八葉筒, 종이에 싸인 五穀, 五香, 五藥의 일부, 각종 織物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것과 중수 당시의 것이 섞인 것으로 생각되나 구별이 어려운 상태이다.

복장물은 밑바닥에 발원문을 비롯한 紙類로 가득 채우고, 그 위로 황동팔엽합이 나왔는데, 그 속에는 종이에 싼 오곡을 비롯하여 67과의 유리, 소형 금판, 7점의 수정 등 모두 75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뚜껑을 갖춘 화형의 합은 표면에 종이를 붙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종이끈으로 합을 묶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은 국내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예이며, 조선 후기 후령통의 시원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황동합 내부의 내용물을 싼 한지 일부에는 표면에 ‘人蔘’ ‘稻穀’ ‘麻子’ ‘眞珠’ 등의 명칭을 쓰고 끝 부분에 ‘封’을 써서 내용물을 명기한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전통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선 前期的인 특징인지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매의 발원문에 의하면, 불상은 처음 지정24년(1364)에 동조아미타삼존불로 조성하였는데 도적에 의해 보처불이 흠을 입어 홍치15년(1502)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을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이며, 불상 제작을 맡은 인물은 ‘副畫 義雄, 副畫 信梅 造像前興教住持大禪師 道裕’ 등이다. 발원문 중의 ‘天聖山’은 문헌상 평안도와 경상도 두 곳에 보이지만 내용중에 보이는 ‘觀音寺’와 ‘天聖寺’가 함께 있는 곳으로는 <평안도 은산현 천성산>이 유력하다.

또다른 발원문은 康熙45년(1706)에 천성사의 불상들을 도금하고 채색한다는 내용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보살상은 당당한 자세와 담대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수작인 반면, 전면에 베풀어진 改金이 거칠고 어둡고, 신체 곳곳에 훼손과 균열, 변형된 부분이 있으며, 別製의 보관도 결실되고 寶髻는 전체가 세로로 잘려나갔으며 양 어깨 위에 드리운 寶髮도 後補하는 등 원상이 변형되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준거가 되는 여러 요소(확실성, 희소성, 圖像과 양식의 특수성,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복장 발원문에 의해 조성시기(1502년)와 조성주체(副畫 義雄, 副畫 信梅 造像 前興敎住持大禪師 道裕)가 밝혀진 朝鮮 前期 조각의 基準作이다.
- 이 시기는 연산군(1495~1506)에 의한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시기로, 따라서 현존하는 유례가 희소한 상태(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치보살상이 유일한 예)에서 당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발원문 중의 天聖山 觀音寺는 현재의 문헌자료에 비추어 ‘평안도 은산현 천성산’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불모지에 가까웠던 조선 전기 평안도 지역의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양식적으로, 허리를 곧추 세운 당당한 자세와 담대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목조 조각의 수작으로, 보발·목걸이·영락 등 일체의 장식이 생략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담대한 조형성은 같은 시기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불상만이 지닌 독창성이다.
- 도상적으로, 15세기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불의 도상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음과 세지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불로 변화하는데, 이 보살상은 그 변화의 시원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는 점에서 불교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 다양하고 새로운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뤄졌던 조선 전기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복장물은 그 형식과 납입방식에서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복장물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특징에 비추어 이 불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과 보존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 불상의 원 소장처가 평안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1990년대 이전의 소장 경위가 분명히 밝혀진 후 지정되어야 하며,
- 지정 이후에도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보존처리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 특히 복장유물은 분리 보관될 경우 원상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일괄 보존처리(한 세트로 보관)되어야 한다.

○ 기 타

복장물 중의 人蓼은 과학적인 연대측정 결과 12세기 고려 인삼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인삼이 불상이 처음 조성된 1364년에 납입된 복장물이라고 해도 어떻게 100여년 동안 傳世되어 오다가 불상 내부에 납입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취득경위는 1993년 당시 원광사 주지 금파스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소장경위가 불분명하므로, 보다 분명한 소장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현 상

이 보살상은 2008년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서 불상을 보수하기 전 미리 실시한 복장유물조사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八葉蓋, 五穀, 五藥, 五寶 등 각종 복장의식물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여러 장의 한지를 연결하여 작성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至正 24년(1364)년 天聖山 觀音寺의 阿彌陀如來三尊像으로 鑄成된 것인데, 조성 이후 己未年(1379, 1439, 1499년 중 하나)에 보처불이 도적에 의해 흠을 입어 弘治 15년(1502) 前 興教寺 住持 道裕를 청하여 觀音과 大勢至菩薩像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보살상은 1502년에 만든 좌우 보처불 중 하나로 판단된다. 불상의 중수는 1708년에 이루어졌으며, 省希, 楚眼, 釋珪 등의 조각승이 담당하였다.

보살상의 원래 봉안 장소는 天聖山 觀音寺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기록을 통해 山名과 寺名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평안도 殷山縣 天聖山 觀音寺이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의 봉안 사찰인 釜山 元光寺로 이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머리와 하나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寶鬘는 후대 인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 역력하며, 머리카락은 좌우대칭으로 가지런히 빗질하였다. 특히 가르마를 중심으로 U자형으로 빗질한 독특한 뒷머리는 인상적인데, 이러한 모습은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해인사 대적광전 금동법기보살상의 머리모양에서도 확인된다. 귀를 덮은 보발자락은 뒤쪽에서 별도로 제작한 보발과 연결시켜 어깨 위로 드리웠다. 귀 뒤쪽의 보발은 현대식 못으로 고정하여 후보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단부에 원래의 못 흔적이 있어 원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호는 두텁게 칠해진 假金 속에 가려 미묘한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름한 얼굴형에 이목구비를 단정하게 표현하여 전반적으로 단아한 기품이 흐른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며, 늘씬한 불신에는 두 장의 천의를 걸쳤다. 우선 대각선으로 하나를 먼저 걸친 다음, 그 위에 다시 다른 하나의 천의를 솔처럼 걸친 형식이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걸친 천의의 정면과 후면의 끝자락은 맵시 있게 한번 걸쳐 빼 내렸고, 솔처럼 걸친 천의의 끝자락은 결실되었다. 이러한 천

의형식의 전통은 統一新羅시대의 天衣式 보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솔처럼 어깨를 폭넓게 덮어 내린 것은 朝鮮前期의 요소로 생각된다.

섬려하게 別造한 두 손은 가슴부근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지 않고 비껴 지은 수인이 특징적이다.

하체는 균의를 입었으며, 오른발은 노출시키고 균의로 감싼 왼발은 그 부분을 불룩하게 처리하여 여운만을 나타내었다. 결과부좌한 오른발목 아래로 지그재그로 반전한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몇 가닥의 짧고 간결한 호선주름을 표현하였다. 무릎 앞으로는 좌우대칭을 이룬 부채살 주름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무릎 주름의 표현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이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66~1474년경),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66년) 등 15세기 후반의 불상들과 비교되지만, 짧고 간결해진 호선의 주름이라든지 무릎 위의 인상적인 귀솟음 주름이 생략된 점은 시기적 차이에서 오는 변화로 생각된다.

[복장유물]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1502년), 중수원문(1706년), 보협인다라니경, 황동제 팔엽통, 다양한 형태의 직물편 47점이 발견되었다. 팔엽통은 몸통과 두껍 모두 八葉의 모양으로 제작하고 그 속에 오곡, 오약, 오보 등을 납입하고 황초폭자 대신 종이로 감쌌다.

1502년에 작성된 조성발원문에는 불상을 조성한 이유와 시기, 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을 낱낱이 기록하여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706년에 작성된 중수원문에도 불상을 중수하게 된 이유, 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불상의 중수과정을 중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47점의 有, 無文의 재질은 견직물이 28점, 면직물이 4점, 마직물이 8점, 교직은 7점이며, 색깔은 적색, 청색, 짙은 검색(혹은 흑색), 황색, 백색 등 오방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형태는 삼각, 직사각, 정사각, 부정형의 형태를 띤다. 아마도 五方鏡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 4개의 수술이 달린 형태의 오방색 직물은 五綵幡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대는 불상의 조성과 함께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보고서』, 한국전통문화학교전통문화연수원, 1010

정은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석당논총』 4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붙임1>

문화유산을 아끼고, 잘 보존합시다.



동래구



수신자 수신자 창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제출

1.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유물 소장 경위(2011.10.21.)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4943(201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유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보완 요청사항	보완사항
1) 원 봉안처로 추정되는 평안남도 은산현 천성산 관음사에서 현 봉안처인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원광사로 이안된 경위 또는 소장(봉안) 경위 2) 취득경위서에서 현 소유자(추경애)에게 소유권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붙임 소장 경위서와 같음.

붙임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유물 소장 경위(별첨), 끝.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신자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이정형 문화재담당주무관 이순심 문화공보과장 10/24 이종원

참조자

시행 문화공보과-36594 (2011.10.24.) 접수 ()


우 607-7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관로94번길 55 /
전화 051-550-4081 전송 051-550-4089 / yijh@korea.kr / 공개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 및 복장일괄유물 소장경위.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 및 복장일괄유물이 소장되어 있던 원광사는 태고종에 속하는 사찰로서 1954년경에 금파스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금파스님께서는 어릴때 동원회가 하시어 울산과 부산 등지의 사찰을 거쳐 지금의 원광사를 창건하시게 되었습니다. 심플이 끝으셔서 다른 의부의 사찰이나 스님들의 왕래도 거의 없으셨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시다가 1992년 89세를 일기로 입적하셨습니다. 지금의 원광사 주지 도진스님은 27세 때 (1992년) 금파스님의 권유로 원광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천태종 광명사에 <금정구 장전동소재> 있었는데 금파스님께서 상좌로 삼으시고 원광사 주지 임명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광사 법당을 재건축 하게 되었고 모든 일을 권체 직으로 도진스님께 일임을 시키고 1978년 10월경 원광사 소유권 이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은 아주 오래된 부처님이니 이 다음에 누리해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은 평소 금파스님께서 주무시는 벽장속에 흰가아저 베에 싸여 계셨고 항상 벽장문은 닫혀 있었으므로 일반보살님 들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스님이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은 금파스님으로 부터 받은 시기는 지금의 묘사채를 지을때 <1990년경에> 받으셨습니다. 천집묘사채를 허물어 버릴때 금파스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 소유주 추경애는 18세에 원광사에 기도하러 와서 머무르게 되었고 금파스님의 권유로 1981년 도진스님과 추경애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애는 불교 진흥무용을 하여 전수원을 차리면서 묘한꿈을 꾸게되어 도진스님께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을 묘사채 해 달라고 도진스님께 몇번이나 청을하여 허락을 받게 되었고 2008년 10월 상묵스님 <양산시 덕계동 통방사 주지>을 통해 제갑식씨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여>를 소개받아 현재까지 왔습니다.

2008년 10월 제갑식씨는 이관습(전통문헌학교수)과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정은우 교수님께 의뢰를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관습 교수님과 정은우 교수님이 조사를 하여 2010년 10월경에
 서울 경복궁에서 기자 발표회가 있었고 발표회가 끝난후 불상과
 복장유물의 가치를 알게되어 바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천성산 관음사 복조보살좌상을
 후대에 까지 널리 알리며 많은 불자님들이 참배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헌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고르리
 못하지만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원광사 주지: 도진 횡장
 (본명) 김 상 등 

소유자: 추 경애 

적성자: 추 경애 

<붙임2>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유물 보존관리 대책 방안

소유자 : 추경애

본 원광사(추경애)에서는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일괄 유물에 대한 보존관리는 원광사에서 보존관리 가능한 수준의 시설을 완비하기 전까지는 향온향습 시설이 구비된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유물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자 :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는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일괄 유물에 대하여 원광사에 보존관리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위탁받아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소유자 : 추경애



위탁관리자 : 동아대학교박물관장 정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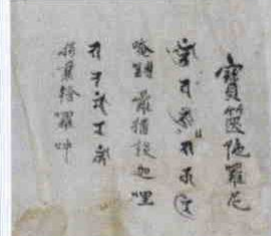
<붙임>

복장유물 목록

	유물명	크기	수량	비고
	녹색보상화문단	73/87	1	
	녹색연화만조문 이색단	86/100	1	
	녹황색소화조보 문단	90/86	1	
	두록색운문이색 단	173/105	1	
	두록색운문이색 단	42/300		

	적색무문단	115/70	1	
	주황색사저교직포	경150	1	
	청녹색면포	250/56	1	
	청녹색생주	190/76 191/74 191/74 192/71	4	
	홍색운문이색단	41/94	1	

	홍색주	225/63	1	
	대마포	78/150	1	
	대마씨		다수	
	범씨		다수	
	범씨 및 팔		다수	
	인삼		다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결과 1060A.D(±80B.P) 770A.D~1160A.D
	팔		다수	
	금판	9/6	1	
	사리	0.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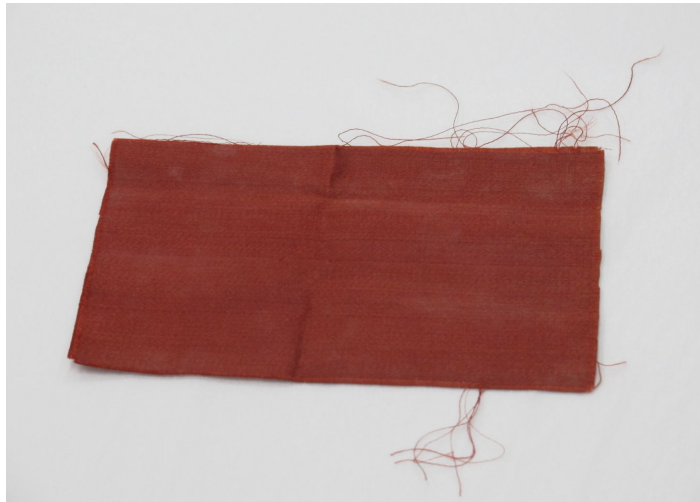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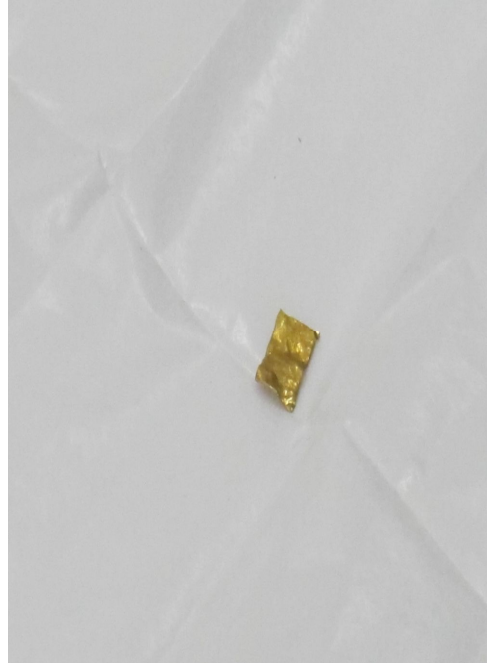
	수정(황동제팔엽함내)	31/35, 37/33, 29/27, 25/27, 27/23, 30/25, 7/12	7	
	실에 묶은 청색 백색(황동제팔엽 함내)		3	
	오색유리(황동제 팔엽함내)	청색 대 20/8 창색 중 12/5 밤색 6/5.5	총 67 옥색 31 청색 25 밤색 11	
	황동제팔엽함과 내용물	뚜껑 75/75/30 통67/70/29	1	
	복장발원문	275/3801	1	
	중수발원문	520/956	1	
	보협다라니	670/565 630/545	2	



목조 보살좌상



복장유물 : 오색유리, 인삼, 황동제팔엽함



복장유물 : 수정, 금판, 적색무문단

3.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3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 수 량 : 1구, 복장유물 14건 26점
- 규 격 : 높이 51.5cm, 무릎 폭 36 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아미타여래 독존형식
- 제작연대 : 1586년(선조 19)
- 작 자 : 나운(蘿雲), 법정(法正)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16세기 후반의 기년불상으로서 조성을 담당했던 蘿雲비구, 法正비구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며, 조성배경으로 공회빈 윤씨(덕빈윤씨)와 같은 왕실의 인물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목조아미불좌상은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으로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이다. 즉 복장유물인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이 불상은 曦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彌陀八大菩薩 1幀과 彌陀兩大菩薩 2幀과 함께 조선시대 선조 19년(1586)에 봉안되었다. 발원문에 보이는 함께 봉안되었던 불화는 목조아미타불상 후벽을 장엄했던 후불탱화로 추정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나 각 부분의 특징 등에서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며, 상당히 수준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불상에 보이는 수준 높은 작품은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기록된 順懷世子の 妃였던 덕빈이나 덕빈과 관련있던 비구니 박씨, 윤씨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복장유물을 통하여 宣祖 19년(1586)에 조성되어 孝宗 1년(1650)과 光武 8년(1904) 등 몇 차례에 걸쳐 개금되었다. 즉 불상의 유래나 전승 과정이 복장 기록에 구체적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상 조성에 관여했던 화원인 蘿雲비구와 法正比丘의 이름이 확인된다는 점과 조선전기 불상 복장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기한 몇가지 점에서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양식적 특징상 조선전기 15세기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16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도 간직하고 있다. 즉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 중앙의 큼직한 반달형의 육계라든지, 날카롭게 뺀친 나발, 그리고 양감이 넘치는 귀엽고 부드러운 상호의 표현, 왼쪽 팔꿈치의 약화된 요형태의 주름 표현, 양무릎 위에 표현된 약하게 돌출한 주름 등은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년)이라든가,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1578년),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 그리고 1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불상 등 16세기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1586년의 시기와 양식적으로 일치하며, 몇 구 傳하지 않는 16세기 불교 조각 자료로써 소중하다.

더욱이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 통해 1586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제작주체뿐만 아니라 蘿雲과 法正이라는 이 시기 새로운 조각승도 알 수 있고, 1586년 조성된 이래 1650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된 기록을 담고 있어 불상의 가치를 한층 더해준다. 특히 발원문 중에서 등장하는 德嬪尹氏가 發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왕실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불상과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1) 아미타여래좌상의 현상과 특징

봉암사는 신라하대 헌강왕 5년(879) 지증대사 道憲(824-882)이 개창한 曦陽山 선문의 본산으로 경문왕의 누이였던 단의장옹주 등의 후원을 받으며 번영하였으나 나말려초의 혼란기에 폐사되었다. 이후 고려 태조 18년(935)에 정진대사 兢讓(878~956)이 대대적으로 중창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도록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중심사원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51.5cm로 비교적 크기가 작은 편인데, 복장에서 나온 조성발원문을 통해 선조 19년(1586)에 蘿雲비구, 法正비구의 두 화원에 의해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어 임진왜란 직전 16세기 후반의 불교조각과 조각승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 외에도, 개금 발원문(1650년), 立志發願文(1904년)과 같은 발원문들, 사경·다라니의 전적류, 오보병, 보자기, 실몽치, 삼각·원·반월경 등의 후령통 납입유물 등이 발견되어 이 불상의 조성 및 중수의 배경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조성발원문에는 당시 이 불상과 함께 ‘아미타팔보살’와 ‘미타양대보살’의 불화를 조성하여 ‘봉암사 禪堂 香爐殿’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의 불사 규모와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발원문의 보이는 왕실축원의 내용 가운데 주상전하(선조)와 왕비전하(의인왕후)의 다음에 ‘德嬪邸下’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덕빈저하는 명종의 외아들로 열세살의 어린 나이에 죽은 順懷世子(1551~1563)의 빈이었던, 공조참판 尹玉(1511-1584)의 딸, 恭懷嬪 윤씨로 생각된다. 또한 불상과 불화의 조성시기가 1584년에 죽은 윤옥의 大喪을 맞은 해라는 점도 주목된다.

아미타여래좌상을 살펴보면, 어깨가 좁은 아담한 佛身에 머리 중앙에는 커다란 반달형의 중계주와 정상에 동그란 정상계주가 표현되었으며, 나발은 원추형의 뿔처럼 삐죽삐죽 뻗어있다. 이와 같은 머리모양은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과 유사한 것으로서 조선전기 16세기에 유행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콧날이 오뚝하고 양 뺨이 통통한 佛顔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相好를 보인다. 大衣는 통견식으로 입었고 그 위에 다시 한 벌을 덧입었으며(이 착의에 대해서 울타라승 위에 대의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편삼을 입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옷주름의 표현은 비교적 간결하며 양쪽 무릎에 살짝 융기된 한 가닥의 옷주름이 표현된 점은 조선전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불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두 손은 別材로 만들어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양손의 검지와 무명지를 약간 구부려 說法印을 나타내고 있다. 불상의 저부에는 방형의 복장공이 뚫려있으며 복장공에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이 구멍을 막는 봉합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종이로 막혀있다.

(2) 발원문

① 조성발원문(1586년)

伏願

彌陀大聖白玉明毫光流處處無不攝生紫金巖相影化重重有」
 緣皆度尋□□接引應念拔苦是以弟子等敬請良工眞天下之妙筆」
 希人間之奇手像佛彌陀一軀畫成彌陀八菩薩一幀彌陀兩大」
 菩薩二幀安于曦陽山鳳巖寺禪堂香爐殿禮敬者皆家樂」

歸依者俱獲吉祥丙戌正月十八日特占善慶之吉日敬設點眼之法會於」
□□八十種隨形之妙好燦若蓮芳四十八廣大之深願皎如秋月伏願先亡父母」
師尊列名靈駕百層樓閣之中常見彌陀而遊戲九品蓮花之上恒伴菩薩」
而逍遙亦願各「隨喜弟子等增五福於現在圓三覺於未來信根堅固生」
常踐於淨土種智圓明「不離於彌陀彌陀爲師菩薩爲友然後願」
蠢四生貪嗔愛欲之濁浪茫「九類盡入彌陀大願之清波稽首再拜至願」
萬曆十四年大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文」

承功德伏願」

主上殿下聖壽無疆」

王妃殿下壽無疆」

德嬪邸下壽千秋」

比丘尼朴氏」

尹氏」

畫員 蘿雲比丘」

法正比丘」

證明 德普比丘」

別座 戒淳比丘」

供養主 性敏比丘」

幹善 信寬比丘」

佛像大施主 朴希宗兩主」

後佛大施主 牛根兩主」

瓦 兩主

大施主 里面

大施主 崔閏伊」

吳介屎」

白順亨 兩主」

李命長 兩主」

金椽伊 兩主」

金弼伊 兩主」

朴氏今伊」

錢氏內+ㄱ以」

內+ㄱ山」

金毛作 兩主」

良女片今」

鄭彥國」

洪億岭」 太英」

白叔只」

白仁壽」

神烽」

羅云」

一學」

許叱文乙伊」

丕介屎」

左是」

② 개금발원문(1650년)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

改金大施主山人明安」

施主嘉善大夫朴順生」

施主 朴淳」

證明 瑞訓」

持殿 綻蓮」

畫員 清允」

供養主 大元」

處豈」

別座 管草」

化主 裕察諸人亦」

來往 快然 負木 坦熏」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③ 立志發願文(1904년)

稽首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不捨慈悲哀攝受」
三寶弟子比丘沼善等常願今此改金」
佛像因緣不墮三途超生淨土見 佛聞法」
頓悟無生再還娑婆廣度衆生以報諸」
佛莫大之恩然後願憑此功德 皇風永」
扇帝道遐昌 佛日永明法輪常轉」
伽藍土祇護國安民負識含靈同登覺」
岸」

大韓光武八年甲辰夏四月十一日改金于清華」
山圓寂寺」

化主 比丘 石橋沼善
相虛尙曄

證明比丘 雪巖尙宜」
永明慧日」

沙彌 體律」
金魚比丘 鏡月亘曄」
炳奎」

誦呪比丘 玄奇 奉政」

都監比丘 法天」

別座比丘 法信」

供司比丘 圓照」

淨桶清信士 天然」

持殿比丘 包空法林」

施主比丘楞庵 永規」

清信女普惠性金氏」

道玄」

奉爐 圓白」

大安」

圓宗」

奉茶 圓昊」

童子 海崑」

庵主 法悟」

道藏山 涑源庵 佛像改金騰錄」

(3) 복장유물 목록

- 腹藏發願文, 1586년, 34.5×67.0cm, 모시에 墨書.
- 改金發願文, 1650년, 71.8×28.2cm. 한지에 朱書.
- 立志發願文, 1904년, 71.8×28.2cm. 한지에 朱書.
- 腹藏發願文, 조선시대, 내용확인 불가.
- 橡紙銀泥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여말선초, 2장.
- 木版本五輪種子陀羅尼, 조선시대, 1장.
- 筆寫陀羅尼, 조선시대, 3장
- 五寶瓶, 조선시대, 5점.

中央-黃色(23.4x25.5): 牛黃, 琥珀, 黃芥, 乳香, 麻子, 附子.

東-靑色(22.0x30.0): 靑木香, 人蔘, 大麥, 生金, 蒔蘿, 大黃.

南-朱色(22.2x24.5): 甘草, 眞珠, 紫芥, 稷, 雄黃, 雌黃, 丁香.

西-白色(27.5x32.8): 沈香, 小黃, 白芥, 生銀, 桂皮, 藿香, 楮.

北-黑色(17.0x25.7): 沈香, 阿梨, 瑠璃, 蔓菁, 象豆.

- 보자기, 조선시대, 5점. 실패와 실뭉치를 싸서 넣음.
- 황초포자, 조선시대, 1장, 35.5×45.0cm, 비단, ‘南’이란 묵서.
- 보자기와 五方鏡, 조선시대, 圓鏡, 三角鏡, 半圓鏡을 보자기에 싼 것.
- 八葉文, 조선시대, 1개, 28.5×28.1cm, 楮紙.
- 便紙, 조선시대, 1매, 25.8×35.4cm.
- 실뭉치, 조선시대, 2개.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16세기 후반의 기년불상으로서 조성을 담당했던 蘿雲비구, 法正비구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며, 조성배경으로 공회빈 윤씨(덕빈윤씨)와 같은 왕실의 인물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상 및 특징

1. 목조아미타불좌상

禪門九山 중 曦陽山派의 중심 사찰인 봉암사는 『朝鮮寺刹全書』에 수록된 「鳳巖寺史蹟」에 의하면, 소실된 사찰을 조선시대 1572년에 信和가 중건하였으며, 1907년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尹世煜에 의해 寮舍가 새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대좌는 결실되었으나 佛身은 온전한 상태이다. 이 불상은 비록 51.5cm의 작은 크기지만, 전체적으로 조각 수준이 높고,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어서 불상의 존격과 조성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다. 즉 조선시대 1586년에 조성된 아미타불좌상이다. 아마 「봉암사사적」에 기록된 바와 같이 1572년의 사찰 중건 후에 전각에 모시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복장유물 중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는 이 불상을 어느 전각에 봉안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나 불상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보물 1574호인 봉암사 극락전의 주존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복장 유물을 넣었던 불상 속 가슴 부위에는 여러 개의 목재가 확인되는데, 육안으로 보아 불상에 사용된 나무와 재질이 달라서 후대에 수리 등 어떤 목적에서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과학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아미타불상은 통견형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중지과 약지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가슴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도 중지과 약지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앞으로 내민 모습의 설법인을 결하였다. 전체적인 비례를 보면, 상호나 상체가 약간 긴 듯하지만 무릎의 폭과 깊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단아하고 안정된 모습이다. 측면에서 보면, 턱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긴 것을 제외하면, 깨끗하게 수직으로 선 상체와 안정감 있는 하체를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의 불상이 고개를 숙이거나 상체를 구부린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조각의 깊이는 상체나 하체가 비슷하여 17세기 이후에 조성된 불상에 비해 다소 밋밋한 느낌이 나지만, 신체의 윤곽선이 잘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아마 불상의 크기에 따른 조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이 크기의 불상을 17세기 이후의 불상과 같이 입체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는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 이마가 짧은 편이지만 원만한 모습이다. 양 볼에는 살이 오른 모습이다. 하나하나 만들어 붙인 나발은 불상에 비해 큰 편이며 삼각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보주 형태의 정상 계주와 비교적 큰 편인 반원형의 중앙 계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1474년에 조성된 경주 왕룡사원의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1615호)에서 확인된다. 중앙 계주가 보주 형태가 아닌 원통형태로 바뀌는 것이 17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불상의 하한 연대가 16세기 후반임

을 추측하게 한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따로 조각하여 끼운 양손의 손바닥에는 음각으로 손금이 새겨져 있으며, 손가락 끝은 짧고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결가부좌하고 있는 오른발의 발가락에서도 확인된다. 왼발은 옷자락 속에 감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하체를 덮고 있는 법의는 다리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잘 처리되었다. 특히 양쪽 다리의 장단지 부분은 옷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안으로 보아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사실적으로 처리되었다. 정면의 옷주름은 좌우대칭 형식으로 처리되었으며, 고려시대 후기부터 보이던 양 발 사이에 S자형의 옷주름 처리가 많이 흐트러진 모습이다. 고려후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옷주름 표현 방식의 또다른 흐트러진 모습은 왼팔의 상박부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즉 'ㄴ' 식으로 처리되던 고려후기의 전통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상태다. 한편 결가부좌한 양쪽 허벅지 윗부분의 접힌 옷자락이 약간 도드라지게 처리한 방식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282호, 1458년)과 강원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221호, 1466년), 왕릉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 전기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 나발과 계주의 처리 방식, 법의의 처리 방식 등 양식적으로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의 특징으로 잘 갖추고 있다. 특히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은 불상의 조성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불상이 1586년에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불상은 작례가 많지 않은 16세기 불상의 기준작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복장유물

복장유물은 모두 1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 寫本(宣祖 19년(1586))

1枚, 34.5×67.0cm, 모시

年紀：萬曆十四年太歲丙戌(1586)正月十八日發願

발원문 앞 부분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彌陀 1軀, 彌陀八大菩薩 1幀, 彌陀兩大菩薩 2幀을 曦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안치하고 點眼法會하였다. 佛像大施主는 朴希宗, 後佛大施主는 牛根 등이며, 畫員은 蘿雲比丘, 證明은 德普比丘, 別座는 戒淳比丘 등이다. 萬曆十四年太歲丙戌正月十八日에 發願하였다"

발원문에는 '德嬪邸下壽千秋'라고 기록되었고 그 옆에는 비구니 '朴氏, 尹氏'

라는 기록이 보인다. 덕빈은 尹玉의 딸로써 順懷世子の 妃이었으나, 순회세자가 요절하자 평생 궁에서 홀로 지낸 인물이다. 비구니 박씨와 윤씨는 덕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불상이 조선 궁실과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阿彌陀佛坐像腹藏改金發願文 寫本(孝宗 1년(1650))

1枚, 71.8×28.2cm.

年紀：崇禎紀元後庚寅(1650)十月日改金.

朱筆로 필사된 改金發願文이다. 당시 시주는 山人 明安, 嘉善 朴順生, 朴淳 등이며, 證明은 瑞訓, 持殿은 綻蓮, 畫員 淸允 등이다.

③ 阿彌陀佛坐像腹藏立志發願文 寫本(光武 8년(1904))

1枚, 71.8×28.2cm.

年紀：大韓光武八年甲辰(1904)夏四月十一日改金.

朱書로 쓰여졌으며, 聞慶의 淸華山 圓寂寺의 비구 沼善 등이 三途에 떨어지지 않고 淨土에 태어나 불법을 들어 돈오하여 사바세계에 다시 오지 않고 중생을 널리 제도함으로써 諸佛에 보답하고자 하는 개금의 동기를 기록되어 있다. 持殿은 法林, 化主는 沼善, 시주는 永規, 證明은 尙宜, 金魚는 巨擘 등이다. 말미에는 道藏山 源源庵 佛像 改金 謄錄이라 기록되어 있다.

④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 寫本(조선시대)

1枚.

훼손이 심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판독한 글자 중에는 改金 畫員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어 改金할 때의 발원문으로 보인다.

⑤ 橡紙銀字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寫本(고려말 조선초)

2張(落張), 破本, 31.2cm. 上下單邊, 匡郭上下: 20.1cm, 有界, 6行18字

크기는 한 장은 31.2×56.8cm이며, 다른 한 장은 31.2×109.2cm이다. 경문에 "釋迦牟尼天人師(中略)曾於無量劫苦行(中略)今現在王舍大城과 波斯匿王於其夜(中略)王宮中聞有女人高聲(中略)願大王聽我所說我年十四嫡於夫家經三十年三十子"란 구절이 있어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일부문으로 추정된다. 계선은 금으로 구획했고, 경문은 은자이다.

⑥ 阿彌陀佛坐像腹藏陀羅尼 木版本(조선시대)

1枚, 27.8×48.7cm

四周單邊, 匡郭:18.5×35cm, 有界, 17行 字數不同.

五輪種子陀羅尼이다. 주색으로 인쇄한 목판본이다. 우측 난 외에 板施竺澤이라 새겨져 있다.

⑦ 阿彌陀佛坐像陀羅尼 寫本(조선시대)

3枚

1)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20.1×46.7cm)

2)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18.9×24.0cm):

문중에 文殊定業呪란 문구가 있다.

3)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19.6×23.8cm)

⑧ 阿彌陀佛坐像腹藏五方瓶(조선시대)

5瓶, 작은 비단 조각 속에 아래의 물품을各色 종이에 싸서 넣었다.

1) 17.0×25.7cm, 黑: 蔓菁, 阿梨, 菽豆, 瑠璃, 沈香.

2) 22.2×24.5cm, 朱: 眞珠, 紫芥, 稷, 雄黃, 甘草, 丁香, 雌黃.

3) 23.4×25.5cm, 黃: 麻子, 附子, 牛黃, 黃芥, 琥珀, 乳香.

4) 22.0×30.0cm, 綠: 人蔘, 青木香, 生金, 大麥, 大黃, 蒔蘿.

5) 27.5×32.8cm, 白: 小黃, 白芥, 楮, 生銀, 藿香, 桂皮, 沈香.

⑨ 阿彌陀佛坐像腹藏五方瓶(조선시대)

5瓶, 비단에 각각 아래의 물품을 싸서 넣었다.

1) 17.0×26.2cm, 黑: 갈색 실패.

2) 14.7×29.8cm, 靑: 실패와 실.

3) 24.3×25.0cm, 朱

4) 13.5×22.8cm, 綠: 갈색 실타래.

5) 7.1×18.5cm, 朱: 갈색 작은 실타래.

⑩ 阿彌陀佛坐像 황초포자(조선시대)

1枚, 35.5×45.0cm, 비단, '南'이란 목서가 있다.

⑪ 阿彌陀佛坐像五方鏡(조선시대)

3枚, 壯紙에 箔을 입힌 거울을 백색 비단에 짠 것이다.

1) 圓鏡: 徑 3.2cm

2) 三角鏡: 底 3cm

3) 半圓鏡: 2.1×3.3cm

⑫ 阿彌陀佛坐像腹藏八葉文[추정](조선시대)

1조: 28.5×28.1cm, 楮紙

복장물을 찢던 八葉文으로 추정되며, 해체시 손상되었으나 범자 일부는 남아 있다.

⑬ 阿彌陀佛坐像腹便紙 寫本(조선시대)

1枚, 25.8×35.4cm.

吳部?宅에 보낸 편지인데, 원래 복장유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어떤 경로로 납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⑭ 阿彌陀佛坐像 실물치(조선시대)

2塊, 각각 7cm, 1.3cm.

⑮ 阿彌陀佛坐像腹藏공막이(조선시대)

1枚, 17.1×19.1 cm, 楮紙, 불상 복장공을 막은 종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봉암사 목조아미불좌상은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으로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이다. 즉 복장유물인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이 불상은 曩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彌陀八大菩薩 1幀과 彌陀兩大菩薩 2幀과 함께 조선시대 선조 19년(1586)에 봉안되었다. 발원문에 보이는 함께 봉안되었던 불화는 목조아미타불상 후벽을 장엄했던 후불탱화로 추정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나 각 부분의 특징 등에서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며, 상당히 수준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불상에 보이는 수준 높은 작품은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기록된 順懷世子の 妃였던 덕빈이나 덕빈과 관련있던 비구니 박씨, 윤씨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복장유물을 통하여 宣祖 19년(1586)에 조성되어 孝宗 1년(1650)과 光武 8년(1904) 등 몇 차례에 걸쳐 개금되었다. 즉 불상의 유래나 전승 과정이 복장 기록에 구체적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상 조성에 관여했던 화원인 蘿雲비구와 法正比丘의 이름이 확인된다는 점과 조선전기 불상 복장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복장유물 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기한 몇가지 점에서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봉암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曩陽山門의 宗刹로서, 879년(헌강왕 5)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智證大師 智誥이 창건하고, 935년(태조 18) 靜眞大師 兢讓이 중창하였다. 조선 1431년(세종 13)에 己和가 중수하였고, 1674년(현종 15) 화재로 소실된 뒤 信和가 중건하였다. 1907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世旭이 다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禪刹이다.

봉암사 아미타불좌상은 높이 51.5cm, 무릎 폭 36cm의 작은 규모의 불상이다. 최근 불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 상지은니사경, 오보병 등 多種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은 발원문을 통해 萬曆 14년(1586, 선조 19)에 良工을 초청하여 완성한 아미타불상임을 알 수 있다. 불상 조성은 나운, 또한 발원문에는 妙筆을 요청하여 阿彌陀八大菩薩圖 1幀, 阿彌陀兩大菩薩圖 2幀도 함께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불사현황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발원문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王室三殿下의 祝願에서 世子邸下가 빠지고, 이를 대신하여 德嬪尹氏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德嬪尹氏가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덕빈은 尹玉의 딸로써 順懷世子の 妃이었으나, 순회세자의 요절로 말미암아 평생 궁에서 홀로 지낸 인물이다.

머리에는 크고 날카롭게 뺨친 나발을 부착하였으며, 나발 사이에는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구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둥글고 살집이 전체적으로 복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어깨는 좁고 무릎은 넓어 다소 왜소한 느낌이 드는 佛身에는 불의를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부드럽고 간결한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처리한 균의의 끝단이 표현되었다. 특히 왼쪽 어깨를 따라 나팔모양으로 늘어뜨리고 그 끝을 요형태로 마무리한 주름의 표현은 15세기 불상들에 비해 많이 약화된 모습이며, 양 무릎 위쪽에 표현된 돌출 주름 역시 조선전기 불상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길상좌로 앉은 무릎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무릎 앞쪽으로는 주름을 비스듬히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닿을 듯 말 듯 처리한 下品中生印이다.

○ 복장유물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크게 발원문류, 후령통 납입유물, 전적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내력을 기록한 조성원문과 중수내력을 기록한 개금발원문(1650년), 입지발원문(1904), 그리고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한 발원문 1점 등 모두 4점이 발견되었다.

사각 한지의 표면에 납입물목을 적어 오방색 비단으로 만든 오보병 내에 납입하였다. 東의 靑色寶瓶에는 生銀, 靑木香, 大黃, 人參, 蒔蘿, 大麥을 납입하였다. 西의 白色寶瓶에는 稻, 生銀, 桂皮, 藿香, 沈香, 白芥, 小黃을 납입하였다. 南의 赤色寶瓶에는 稷, 甘草, 紫芥, 雄黃, 雌黃, 丁香, 珍珠를 납입하였다. 北의 黑色寶瓶에는 阿梨, 蔓菁, 沈香, 瑠璃, 泉豆를 납입하였다. 중앙의 黃色寶瓶에는 附子, 乳香, 琥珀, 麻子, 牛黃, 黃芥를 납입하였다. 복장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이에 적어 이를 대신한 예는 조선후기 불상에서 더러 확인되는데,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방편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 보인다.

이외 銀箔을 입힌 삼각경, 원경, 반월경과 이를 감싼 백색 비단보자기, 실뭉치를 싼 비단보자기 5점 등이 발견되었다.

○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재질	수량	년대	크기 (cm)	비고
1	造成願文	종이	1	1586년	34.5×67.0	*萬曆十四年太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
2	改金發願文	종이	1	1650년	71.8×28.2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改金
3	立志發願文	종이	1	1904년	28.2×71.8	*大韓光武八年甲申夏四月十一日改金
4	改金發願文	종이	1	-	측정불가	*발원문 뭉치
5	五寶瓶	비단	5	조선시대	靑: 22.0×30.0 白: 27.5×32.8 朱: 22.2×24.5 黑: 17.0×25.7 黃: 23.4×25.5	*물목을 한지에 묵서하여 각각의 보병에 납입함.
6	보자기	비단	5	조선시대	①17.0×26.2 ②14.7×29.8 ③24.3×25.0 ④13.5×22.8 ⑤7.1×18.5	*실패가 있는 실뭉치 2개와 1개의 실뭉치를 납입함.
7	황초폭자	비단	1	조선시대	35.5×45.0	*'南'이란 묵서가 있음
8	보자기	비단	1	조선시대	-	*종이에 은박을 입힌 삼각경, 반월경, 원경을 감싼 보자기임.
9	팔엽문	종이	1	조선시대	28.5×28.1	
10	실뭉치		2			
11	橡紙銀泥 佛說長壽滅罪護罪 童子陀羅尼經	종이	2장	여말선초	①31.2×56.8 ②31.2×109.2	
12	陀羅尼	종이	1	조선시대	27.8×48.7	
13	筆寫陀羅尼	종이	3	조선시대	①20.1×46.7 ②18.9×24.0 ③19.6×23.8	
14	便紙	종이	1	조선시대	25.8×35.4	

○ 조성발원문(1586)

伏願

彌陀大聖白玉明毫光流處處無不攝生紫金巖相影化重重有」
緣皆度尋□□接引應念拔苦是以弟子等敬請良工眞天下之妙筆」
希人間之奇手像佛彌陀一軀畫成彌陀八菩薩一幀彌陀兩大」
菩薩二幀安于曦陽山鳳巖寺禪堂香爐殿禮敬者皆家樂」

歸依者俱獲吉祥丙戌正月十八日特占善慶之吉日敬設點眼之法會於」
□□八十種隨形之妙好燦若蓮芳四十八廣大之深願皎如秋月伏願先亡父母」
師尊列名靈駕百層樓閣之中常見彌陀而遊戲九品蓮花之上恒伴菩薩」
而逍遙亦願各「隨喜弟子等增五福於現在圓三覺於未來信根堅固生」
常踐於淨土種智圓明「不離於彌陀彌陀爲師菩薩爲友然後願」
蠢四生貪嗔愛欲之濁浪茫「九類盡入彌陀大願之清波稽首再拜至願」
萬曆十四年大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文」

承功德伏願」

主上殿下聖壽無疆」

王妃殿下壽無疆」

德嬪邸下壽千秋」

比丘尼朴氏」

尹氏」

畫員 蘿雲比丘」

法正比丘」

證明 德普比丘」

別座 戒淳比丘」

供養主 性敏比丘」

幹善 信寬比丘」

중단

佛像大施主 朴希宗兩主」

後佛大施主 牛根兩主」

瓦 兩主

大施主 里面

大施主 崔閏伊」

吳介屎」

白順亨 兩主」

李命長 兩主」

金椽伊 兩主」

金弼伊 兩主」

朴氏今伊」
錢氏內+ㄱ以」
內+ㄱ山」
金毛作 兩主」

하단
良女片今」
鄭彦國」
洪億崙」 太英」
白叔只」
白仁壽」
神拏」
羅云」
一學」
許叱文乙伊」
互介屎」
左是」

○ 개금발원문(1650년)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
改金大施主山人明安」
施主嘉善大夫朴順生」
施主 朴淳」
證明 瑞訓」
持殿 綻蓮」
畫員 清允」
供養主 大元」
處豈」
別座 管草」
化主 裕察諸人亦」
來往 快然 負木 坦熏」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 立志發願文(1904년)

稽首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不捨慈悲哀攝受」
三寶弟子比丘沼善等常願今此改金」
佛像因緣不墮三途超生淨土見 佛聞法」
頓悟無生再還娑婆廣度衆生以報諸」
佛莫大之恩然後願憑此功德 皇風永」
扇帝道遐昌 佛日永明法輪常轉」
伽藍土祇護國安民負識含靈同登覺」
岸」

大韓光武八年甲辰夏四月十一日改金于清華」
山圓寂寺」

化主 比丘 石橋沼善

相虛尙擘

證明比丘 雪巖尙宜」

永明慧日」

沙彌 體律」

金魚比丘 鏡月亘擘」

炳奎」

誦呪比丘 玄奇 奉政」

都監比丘 法天」

別座比丘 法信」

供司比丘 圓照」

淨桶清信士 天然」

하단

持殿比丘 包空法林」

施主比丘楞庵 永規」

清信女普惠性金氏」

道玄」

奉爐 圓白」

大安」

圓宗」

奉茶 圓昊」
 童子 海崑」
 庵主 法悟」
 道藏山 溪源庵 佛像改金騰錄」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불상은 양식적 특징상 조선전기 15세기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16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도 간직하고 있다. 즉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 중앙의 큼직한 반달형의 육계라든지, 날카롭게 뺀 나발, 그리고 양감이 넘치는 귀엽고 부드러운 상호의 표현, 왼쪽 팔꿈치의 약화된 옴형태의 주름 표현, 양무릎 위에 표현된 약하게 돌출한 주름 등은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이라든가,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1578년),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 그리고 1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불상 등 16세기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1586년의 시기와 양식적으로 일치하며, 몇 구 傳하지 않는 16세기 불교조각 자료로서 소중하다.

더욱이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 통해 1586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제작주체뿐만 아니라 蘿雲과 法正이라는 이 시기 새로운 조각승도 알 수 있고, 1586년 조성된 이래 1650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된 기록을 담고 있어 불상의 가치를 한층 더해준다. 특히 발원문 중에서 등장하는 德嬪尹氏가 發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왕실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은 아래와 같다.

〈문경 봉암사 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

차레	명칭	연대	수량	재질	크기(cm)	특징 및 비고
1	發願文 ⁵⁾	1586	1	모시	35.5 × 64.5	萬曆十四年大歲丙戌(선조19,1586)正月十八日發願文
2	改金發願文 ⁶⁾	1650	1	저지	71.8 × 28.2	崇禎紀元後庚寅(孝宗1,1650)十月日改金
3	立志發願文 ⁷⁾	1904	1	저지	71.8 × 28.2	大韓光武八年甲辰(光武8,1904)夏四月十一日改金
4	[發願文] ⁸⁾	[조선]	1	저지		
5	橡紙銀泥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⁹⁾	[麗末鮮初]	1	저지	31.2	上下單邊. 匡郭上下: 20.1cm. 1行18字
6	陀羅尼 ¹⁰⁾	[조선]	1	저지	27.8 × 48.7	四周單邊. 匡郭: 18.5 × 35cm. 有界. 17行字數不同.

7	陀羅尼 ¹¹⁾	[조선]	3	저지	각주참조	
8	五寶瓶 ¹²⁾	[조선]	5		각주참조	
9	五寶瓶 ¹³⁾	[조선]	5		각주참조	
10	黃綉幅子	[조선]	1	비단	35.5 × 45.0	‘南’(墨書)
11	五方鏡 ¹⁴⁾	[조선]	3		각주참조	
12	[八葉文] ¹⁵⁾	[조선]	1	저지	28.5 × 28.1	
13	便紙 ¹⁶⁾	[조선]	1	저지	25.8 × 35.4	
14	실몽치	[조선]	2		지름: 7.0 지름: 1.3	
15	공막이 ¹⁷⁾	[조선]	1	저지	17.1 × 19.1	

- 5) 선조 19(1586)년 정월 18일에 彌陀 1軀, 彌陀八大菩薩 1幀, 彌陀兩大菩薩 2幀 등을 曦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봉안하고 點眼法會를 열었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佛像 大施主는 朴希宗부부, 畫員은 蘿雲比丘, 證明은 德普比丘, 別座는 戒淳比丘, 幹善은 信寬比丘 등이 맡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6) 朱書로 된 개금발원문이다. 당시 대시주는 山人 明安, 시주는 嘉善大夫 朴順生과 朴淳. 證明은 瑞訓, 持殿은 統蓮, 畫員은 淸允 등이 맡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 공덕으로 (자신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 7) 朱書로 된 입지발원문이다. 淸華山 圓寂寺의 비구 沼善 등이 개금불상의 인연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록해 두었다. 당시 持殿은 法林, 化主는 沼善, 시주는 永規, 證明은 尙宜, 金魚는 巨曄, 都監은 法天, 別座는 法信 등이었다. 道藏山 源源庵 佛像 改金 騰錄이라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 8) 改金할 때의 발원문으로 추정됨.
- 9) 금니로 구획하고, 은니로 사성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가운데 부분이다. 한 장은 31.2 × 56.8 cm, 다른 한 장은 31.2 × 109.2 cm이다.
- 10) 주색으로 인쇄한 목판본 다리니이며, 우측 난외에는 板施竺澤이라 새겨져 있다. 한자와 범어가 함께 사용된 다리니로 五輪種子, 眞心種子 등의 한자가 있다.
- 11) ① 20.1 × 46.7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
② 18.9 × 24.0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文殊定業呪라는 제명이 있음).
③ 19.6 × 23.8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
- 12) 5寶瓶 : 오색의 비단 조각에 각각 아래와 같이 여러 물품이 포장되어 있다.
① 17.0 × 25.7 cm. 黑: 蔓菁, 阿梨, 泉豆, 瑠璃, 沈香.
② 22.2 × 24.5 cm. 朱: 眞珠, 紫芥, 稷, 雄黃, 甘草, 丁香, 雌黃.
③ 23.4 × 25.5 cm. 黃: 麻子, 附子, 牛黃, 黃芥, 琥珀, 乳香.
④ 22.0 × 30.0 cm. 綠: 人蔘, 青木香, 生金, 大麥, 大黃, 蒔蘿.
⑤ 27.5 × 32.8 cm. 白: 小黃, 白芥, 栴, 生銀, 藿香, 桂皮, 沈香.
- 13) 5寶瓶 : 오색의 비단 조각에 각각 아래와 같이 여러 물품이 포장되어 있다.
① 17.0 × 26.2 cm. 黑: 갈색 실패.
② 14.7 × 29.8 cm. 靑: 실패와 실.
③ 24.3 × 25.0 cm. 朱
④ 13.5 × 22.8 cm. 綠: 갈색 실타래.
⑤ 7.1 × 18.5 cm. 朱: 갈색 작은 실타래.
- 14) ① 圓鏡: 徑 3.2 cm.
② 三角鏡: 底 3 cm.
③ 半圓鏡: 2.1 × 3.3 cm.
- 15) 복장물을 썼던 八葉文으로 추정됨(범자 일부는 남아있음).
- 16) 吳部○宅에 보낸 편지.
- 17) 불상의 복장공을 막은 종이.

4.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가. 검토사항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3.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4.2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 수 량 : 3구
- 규 격 : 지장보살좌상 높이 99, 무릎 폭 75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4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56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지장보살삼존형식
- 제작연대 : 1651년(효종 2)
- 작 자

조성화원 : 무염(無染), 도우(道祐), 해심(海心), 덕명(德明), 처상(處常),
성잠(性岑), 원철(元哲), 도규(道珪), 민기(敏奇), 의신(義信),
영택(靈澤), 처인(處仁), 일상(日祥)

화성화원 : 성륜(性倫) 봉휘(峯徽), 신욱(信旭), 현담(玄淡), 득천(得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홍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복장 축원문의 ‘順治八年八月十九日 (중간 생략) 造成畫員秩 無染’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 효종2년(1651)에 무염의 책임 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首 조각승의 위치에서 무염이 조성한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1635년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보물 제1377호]이다. 조각승 무염의 주 활동 무대가 전라도이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 당시 조각승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장보살삼존상은 도명존자상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개금 상태나 채색된 안료 등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들 상들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상호는 무염과 조각승들이 구사했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보살상의 둥근 어깨와 사실적인 옷주름 처리, 실존 인물과 같은 도명존자상의 모습, 17세기 금관조복을 착용한 문인을 연상하게 하는 무독귀왕상 등은 수준 높은 무염과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성 시기와 목적, 시주자, 증명법사, 조각승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복장 축원문을 동반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명부전의 여러 존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부가 각각 비용을 분담하였거나, 오대산부터 천관산에 이르기까지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증명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지장보살좌상의 양식은 전형적인 조각승 무염의 작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염과 관련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선시대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조각 수준을 보여 주고, 이들 삼존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축원문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불상제작에 있어 造成畫員과 畫成畫員,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시 불상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조성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 청헌 등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조각승이고,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와 그의 조각경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또한 상체는 부드러운 선묘로, 하체는 강직한 선묘로 처리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종교적 긴장감을 차츰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자 높은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시왕권속들이 모두 도난당하여 완전한 구성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속초 신흥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을 제작한 조각승 無染은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삼불좌상(보물 1377호)을 비롯하여 1650년대 까지 꾸준히 작품을 남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특히 1650년대에는 대전 비래사(1650년), 속초 신흥사(1651년), 정수사 극락전(1652년), 고창 문수사(1653년), 영광 불갑사(1654년) 등 해마다 작품을 남겨 무염의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염이 30년대에 제작한 불상들과 비교하여 신흥사 지장삼존은 어깨가 넓어 안정감있는 신체 비례와 조각의 두께감에서 당당함이 잘 표출되었으며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권속들의 온화한 미소에서 명부전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즉 이 지장삼존상은 전체적인 도상이나 양식은 시대 양식을 따르면서도 무염만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신흥사 명부전에는 원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지장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 지장삼존상만 봉안되어 있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연대와 17세기중엽 이후 많은 조각승들에게 영향을 미친 무염의 개성이 잘 반영된 불상의 우수성, 시대성이 반영된 기준작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신홍사 명부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좌우에서 시립하고 있다. 2002년 문화재청과 조계종 유적조사단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에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해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각승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당시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는 복장조성기, 권선문첩, 다라니 53장, 후령통, 奉祝文, 신타래가, 도명존자에는 복장조성기, 다라니 14장, 후령통 등이 봉납되어 있었다.

조성기에 의하면,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선시대 1651년 8월 19일에 무염, 도우, 해심 등 13명의 조각승에 의해 함께 조성되었다. 복장발원문에 造成畫員 秩과 畫成畫員 秩을 구분하여 적고 있어 불상과 함께 불화도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4년 미군에 의해 촬영된 사진에 보면 명부전에 시왕상과 함께 시왕도가 있는데, 이후 어느 시기에 이들 상과 그림이 분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부전의 높은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삼존상 위의 단집과 함께 조선후기에 불상 봉안 형식을 잘 보여 준다. 좌협시상인 좌협시인 도명존자의 뒷부분이 약간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개금 상태 등 상당히 보존이 잘 된 편이다.

지장보살좌상은 통견형식의 착의와 결가부좌한 자세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와 구도를 갖추고 있는 단아한 모습이다. 승려형 머리에 이마가 넓고 평평하며, 미간 아래에서 바로 뺨어 내린 곧은 코를 갖추고 있다. 둥근 어깨, 양 무릎 사이가 넓고 두께가 두꺼운 하체, 그리고 그 위에는 옷주름이 좌우대칭 가까운 가사가 걸쳐져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오른발 위에 두고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지장보살상 왼쪽에는 도명존자가 합장을 하고 서있으며, 오른쪽에 무독귀왕이 역시 합장하고 있다. 두 상 모두 소매가 넓고 긴데, 특히 무독귀왕의 복장은 1954년 사진 속 시왕과 일치한다.

불상 조성 당시에 무염을 포함하여 13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은 도명존자와 무

독귀왕을 포함한 지장삼존 3구를 비롯하여 시왕,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 20여 구에 달하는 존상을 동시에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염을 중심으로 한 이들 조각승 집단은 극락보전 안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한 조각승 명단 과도 일치하여, 이들은 명부전 안의 20여구 존상뿐만 아니라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도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염이 首 조각승으로 조성한 작품 중 현전하는 가장 이른 예는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삼세불상이다. 그런데 1635년 불갑사의 불상과 1651년 신흥사의 지장보살상은 형식이나 양식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635년 불갑사 불상은 어깨가 넓고 상체가 긴장하지만 그에 반해 양 무릎사이의 폭이 좁고 두께도 얇다. 반면 신흥사 지장보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 무릎사이의 폭이 넓고 두께도 두꺼워진 모습이어서 안정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35년 이미 首 조각승으로 불사에 참여하던 무염이 1651년 신흥사 불사 당시에는 노령이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그의 제자인 도우나 해심이 중심이 되어 신흥사 불사를 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654년 같은 영광 불갑사의 지장보살상의 경우 무염은 養師로 물러났고 실질적인 조각 작업은 ‘首 해심’이 주도했는데, 신흥사 지장보살좌상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처럼 1651년 신흥사 지장보살좌상이 1635년 불갑사의 삼세불과는 다르고 1654년 불갑사 지장보살상과 유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다.

(1) 地藏菩薩坐像

지장보살좌상은 높이 99cm, 무릎 폭 75cm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에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민머리에 인자한 눈, 뺨어 내린 코, 약간 긴장된 모습의 입 등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다. 통견 형식으로 착용한 법의와 가슴 밑까지 수평으로 올라온 내의, 두발을 덮은 대의의 옷주름 표현이 자연스럽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무릎 위에 내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맺고 있다. 양 어깨는 양감이 풍부한 곡선으로 처리되어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상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2) 道明尊者立像

지장보살상의 좌측[向右]에 봉안된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두 손을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다. 민머리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도명존자라기보다 조선 후기 승려들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법의는 絹本眞彩로 처리되었으며 적색 가사 안에 청색 大衣를 입고 있다. 옷자락에는 보상화 덩굴무늬를 여러 가지 색깔로 섬세하게 묘사하였으며, 가사에는 금니 문양이 시문되었다.

(3) 無毒鬼王立像

지장보살의 우측[向左]에 봉안된 무독귀왕도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다. 머리에 金冠[梁冠]을 쓰고, 두 손을 합장한 채 서 있다. 무독귀왕은 조선시대 17세기의 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상들과 비교된다. 신체에 비하여 두상의 비례가 다소 커 보이지만 같은 시대에 조성된 다른 예들에 비해서 보다 안정된 느낌이다.

(4) 服藏遺物

신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의 복장유물은 2002년에 문화재청과 조계종 유적조사단이 실시한 강원도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에 확인되었다. 지장보살상에서는 복장조성기, 축원문, 권선문첩, 다리니, 후령통, 봉축문, 신타래 등이 발견되었다. 축원문에 1651년(순치8년, 효종 2년) 무염 스님이 책임자로 하여 13명의 조각승이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시왕,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 20여구의 조성에 참여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도명존자상에서도 복장조성기와 다리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복장 축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祝願文】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莊卍祝願 朝鮮國王李壽萬歲
 王妃殿下張氏壽萬歲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世子邸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各各隨喜施主壽命長 各各先亡往西方 見佛聞法悟無生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供養大施主李喬連 兩主 貼金大施主河氏瓊玉 兩主
 地藏大聖造成大施主 鄭豆應巾 兩主 金祿立 兩主 道明尊者造成大施主
 金千同 兩主 預芥谷 比丘 無毒鬼王造成大施主 南千壽 兩主 南聖云 保体
 第一秦廣大王造成大施主 槩奉□ 兩主 槩奉男 兩主
 第二初江大王造成大施主 鄭武金 兩主 第三宋帝大王造成大施主
 金氏莫年 保体 第四五官大王造成大施主 洪砬 兩主
 第五閻羅大王造成大施主 蔡俊 申龍 第六變成大王造成大施主
 李植樑 兩主 張氏乙生 保体 李承金 兩主 第七泰山大王造成大施主
 姜連守 兩主 張氏禮香 兩主 姜豐業 保体 第八平等大王造成大施主
 孫應春 兩主 孫愛天 兩主 孫起天 兩主 第九都市大王造成大施主
 金伯男 兩主 金大允 兩主 洪氏白花 兩主 全氏桂梅 兩主
 第十五道轉輪大王造成大施主 金應善 兩主 金貴漢 兩主
 李泰英 兩主 泰山大王造成大施主 判官王造成大施主 崔永祿 兩主
 善簿童子大施主 朴世俊 保体 左右使者造成大施主 鄭金伊山 兩主

地藏王造成施主 比丘 法明 各各隨喜施主壽命長 本寺秩 首僧法明
 禪德道悟 慈信 天鑑 性珠 眞湜 眞認 眞楚 王淳 惠元 六和
 六軒 省浩 道行 珎清 六坦 碧崇 居士 金慶福 兩主 金慶祚 兩主
 鄭成一 保休 證明金剛山法祖 十王助祿兼證明登徽 楓岳山雙彥
 五臺山積稟 宝盖山明照道一 妙香山義淳 智異山覺性 天冠山戒牛
 太白山楚日 五峯山道源 造成畫員秩 無染 道祐 海心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珪 敏奇 義信 靈澤 處仁 日祥 畫成畫員秩 性倫
 峯徽 信旭 玄淡 得天 持殿清印智軒 化主兼別座蓮玉 化主守潭
 化主珎文 化主汝蓮 助緣能溶 色掌善謙 尙文 大化主靈瑞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신홍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복장 축원문의 ‘順治八年八月十九日 (중간 생략) 造成畫員秩 無染’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 효종2년(1651)에 무염의 책임 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首 조각승의 위치에서 무염이 조성한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1635년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목조 석가여래삼존불좌상[보물 제1377호]이다. 조각승 무염의 주 활동 무대가 전라도이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 당시 조각승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장보살삼존상은 도명존자상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개금 상태나 채색된 안료 등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들 상들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상호는 무염과 조각승들이 구사했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보살상의 둥근 어깨와 사실적인 옷주름 처리, 실존 인물과 같은 도명존자상의 모습, 17세기 금관조복을 착용한 문인을 연상하게 하는 무독귀왕상 등은 수준 높은 무염과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성 시기와 목적, 시주자, 증명법사, 조각승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복장 축원문을 동반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명부전의 여러 존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부가 각각 비용을 분담하였거나, 오대산부터 천관산에 이르기까지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증명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지장보살좌상의 양식은 전형적인 조각승 무염의 작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염과 관련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선시대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조각 수준을 보여 주고, 이들 삼존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내용 및 특징

1954년 미군이 촬영한 신흥사 명부전 내부 사진에는 원래 지장보살상을 主尊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10대왕과 권속들이 모셔져 있었으나, 시왕상 및 권속들은 이후 어느 시점에나 도난당하고 현재는 지장보살삼존상만이 봉안되어있다.

2002년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과정에서 지장보살삼존상에 대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장 내에서 「祝願文」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순치 8년 辛卯(1651, 효종 2) 8월 19일에 복장이 안장되었다. 복장안장 의식이 곧 불상조각의 완성 후 개금과 점안을 포함한 마무리 의식으로 여겨지므로 낙성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극락보전에 모셔진 아미타불상의 바닥 면에 적힌 묵서명을 통해서 입증된다. 즉, 불상의 바닥 면에는 墨書로 “香山普賢寺 造佛次雪岳山 新興寺佛像造成也”와 위치를 달리하여 “順治八年辛卯八月日化主 靈瑞 畫員無染勤封”이라 적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아미타삼존불과 마찬가지로 지장삼존상도 같이 낙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장보살상의 복장유물도 아미타불상의 복장유물과 마찬가지로 조사 후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발견된 복장안장축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風岳山の 雙彦, 楓岳山の 積稟, 宝盖山の 明照 道日, 妙香山の 義淳, 智異山の 覺性, 天冠山の 戒牛, 太白山의 梵日, 五峯山の 道源 등 전국 명산대찰의 고승들의 증명 아래, 전라도 일원에서 이름을 크게 떨쳤던 無染派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특히 불상 조성에 造成畫員과 畫成畫員으로 나누어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조성화원은 불상을 직접 조각한 조각승으로 생각되고, 화성화원은 개금이나 채색을 담당한 화원으로 이해된다. 조성화원은 無染, 道祐, 海心,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珪, 敏奇, 義信, 靈澤, 處仁, 日祥이며, 화성화원은 性倫, 峯徽, 信旭, 玄淡, 得天이다.

본존 지장보살상은 높은 수미단 위에 다시 부정형의 팔각연화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는 푸른색으로 채색한 僧形의 민머리이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골 위로 눈썹 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우뚝 솟은 콧날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코뿌리에서 갑자기 솟은 돌출코로 특징이 있으며, 콧날은 길고 부드러워 복스럽다. 이러한 돌출코는 17세기 불상에서 더러 확인되나, 무염의 조각에서는

1650년경의 불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 사이로 그윽하게 잠긴 듯 표현한 눈매는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깊이 사유하는 지장보살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복스러운 얼굴은 같은 해 만들어진 극락보전의 아미타불상의 상호와 상통한다. 이 상에서 보이는 양감은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1635년)이나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상 등 무염의 전반기 작품들 보다 더욱더 양감이 강조되고 중후해진 느낌이며, 이와 함께 날렵하게 솟은 돌출코는 무염의 후반기 조각경향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된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군의를 입었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곡선이 드러난다. 佛身에 걸친 佛衣는 그다지 두텁지 않아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 중지와 약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설법인을 짓고 있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체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처리하여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바람에 펄럭이듯 한차례 반전시킨 못 깃 주름 등 특징 있는 주름을 제한 대부분의 주름은 생략하였지만, 무릎 앞으로 펼쳐진 주름은 단순한 호선주름을 부채살 모양으로 속도감 있게 펼쳐 강한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무릎 앞쪽으로 표현된 세밀한 수평의 용기선 주름은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과 조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좌협시 도명존자는 자세, 착의형식 등 세부표현에서 본존불과 차이 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이다. 민머리의 도명존자는 청색의 장삼 위에 붉은색 가사를 편단 우견을 걸쳐 입고 합장하였다. 무독귀왕은 원유관과 붉은색 관복을 착용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였는데, 지장보살이나 도명존자의 얼굴에 비해 양감이 많이 절제된 가름한 형태이며, 콧날도 다소 뭉툭해지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祝願文】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莊卽祝願 」 朝鮮國王李壽萬歲 」
 王妃殿下張氏壽萬歲 」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 世子邸下李壽萬歲 」
 國泰民安法輪轉 」 諸宮宗室各安寧 」 文武百僚忠輔禮 」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 各各隨喜施主壽命長 」 各各先亡往西方 」 見佛聞法悟無生 」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 供養大施主李黍連 兩主 」 貼金大施主河氏瓊玉 兩主 」
 地藏大聖造成大施主 」 鄭豆應巾 兩主 」 金祿立 兩主 」 道明尊者造成大施主 」

金千同 兩主 」 預裕 比丘 」 無毒鬼王造成大施主 」 南千壽 兩主 」 南聖云 保体
 」
 第一秦廣大王造成大施主 」 槩奉□ 兩主 」 槩奉男 兩主 」
 第二初江大王造成大施主 」 鄭武金 兩主 」 第三宋帝大王造成大施主 」
 金氏莫年 保体 」 第四五官大王造成大施主 」 洪砬 兩主 」
 第五閻羅大王造成大施主 」 蔡俊 申龍 」 第六變成大王造成大施主 」
 李植樑 兩主 」 張氏乙生 保体 」 李承金 兩主 」 第七泰山大王造成大施主 」
 姜連守 兩主 」 張氏礼香 兩主 」 姜豐業 保体 」 第八平等大王造成大施主
 孫應春 兩主 」 孫愛天 兩主 」 孫起天 兩主 」 第九都市大王造成大施主 」
 金伯男 兩主 」 金大允 兩主 」 洪氏白花 兩主 」 全氏桂梅 兩主 」
 第十五道轉輪大王造成大施主 」 金應善 兩主 」 金貴漢 兩主 」
 李泰英 兩主 」 泰山大王造成大施主 」 判官王造成大施主 」 崔永祿 兩主 」
 善簿童子大施主 」 朴世俊 保体 」 左右使者造成大施主 」 鄭金伊山 兩主 」
 地藏王造成施主 」 比丘 法明 」 各各隨喜施主壽命長 」 本寺秩 」 首僧法明 」
 禪德道悟 」 慈信 」 天鑑 」 性珠 」 眞湜 」 眞認 」 眞楚 」 王淳 」 惠元 」
 六和 」
 六軒 」 省浩 」 道行 」 琮清 」 六坦 」 碧崇 」 居士 金慶福 兩主 」 金慶祚
 兩主 」
 鄭成一 保体 」 證明金剛山法祖 」 十王助祿兼證明登徽 」 楓岳山雙彦 」
 五臺山積稟 」 宝盖山明照道一 」 妙香山義淳 」 智異山覺性 」 天冠山戒牛 」
 太白山楚日 」 五峯山道源 」 造成畫員秩 」 無染 」 道祐 」 海心 」 德明 」
 處常 」
 性岑 」 元哲 」 道珪 」 敏奇 」 義信 」 靈澤 」 處仁 」 日祥 」 畫成畫員秩 」
 性倫 」
 峯徽 」 信旭 」 玄淡 」 得天 」 持殿清印智軒 」 化主兼別座蓮玉 」 化主守潭 」
 化主琮文 」 化主汝蓮 」 助緣能溶 」 色掌善謙 」 尙文 」 大化主靈瑞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축원문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 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불상제작에 있어 造成畫員과 畫成畫員,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시 불상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조성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 청헌 등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조각승이고,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와 그의 조각경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
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
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또한 상체는 부드러운 선
묘로, 하체는 강직한 선묘로 처리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종교적 긴장감을 차츰 고
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가
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자 높은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시왕권속들이 모두 도난당하여 완전한 구성체계는 갖추지 못했
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

○ 현상 및 특징

신흥사 명부전에는 본존인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왼쪽 도명존자, 오른쪽 무독귀왕
으로 구성된 지장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방형에 가까운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살짝 올린 모습 그리고 넓은 주름에 무릎에는 수평의 좁밀한 옷
주름 까지 극락전의 아미타불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오른손은 가슴 부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다음 손바닥을 위로 향하
여 같은 수인을 결하였다. 어깨는 넓으며 조각의 두께가 두꺼워 전체적으로 안정
감있는 비례를 보인다. 민머리의 도명존자와 관을 쓴 무독귀왕 역시 비슷한 모습
이지만 입상에 합장을 하였으며 좀 더 길죽한 얼굴에 인자함이 돋보인다. 또한 채
색 때문인지 지장보살상 보다는 세속적인 얼굴 모습이다.

불상에서는 2002년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복장조성기를 비롯하여 권선문첩, 다
라니, 후령통, 봉축문, 신타래 등이 지장상에서 발견되었다. 도명존자에서도 다라
니와 후령통 등이 나왔다. 지장보살상의 조성기에는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造成畫員秩 無染 道祐 海心...” 등 제작연대와 상을 만든 장인, 각 상들에 시주한
재가신도들의 이름들이 각각 쓰여 있다. 이를 통해 1651년 8월 19일에 제작되었으
며 조성화원은 無染, 道祐, 海心등 13명으로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과 함께 제
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부전에는 현재 지장삼존상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시왕상이 그 옆에 있었으며
시왕도도 함께 봉안되었으나 언젠가 없어졌음을 1954년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통
해 알 수 있다. 사진에는 시왕상 5구와 시왕도 3점이 남아 있으며 17세기의 전형
적인 시왕상의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나 지장보살상에서 나온 축원문에는 지장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삼존상과 시왕 그리고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의 시주자 이름들이 보여 모든 권속들이 일괄로 조성되었음도 확인된다.

상을 만든 무염은 1630년대부터 50년대 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으로는 순치8년(1651) 신흥사 지장상과 권속들을 조성 한 뒤 순치11년(1656) 영광 불갑사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두 작품은 얼굴이나 신체 비례라든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점도 보인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속초 신흥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을 제작한 조각승 無染은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삼불좌상(보물 1377호)을 비롯하여 1650년대 까지 꾸준히 작품을 남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특히 1650년대에는 대전 비래사(1650년), 속초 신흥사(1651년), 정수사 극락전(1652년), 고창 문수사(1653년), 영광 불갑사(1654년) 등 해마다 작품을 남겨 무염의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염이 30년대에 제작한 불상들과 비교하여 신흥사 지장삼존은 어깨가 넓어 안정감있는 신체 비례와 조각의 두께감에서 당당함이 잘 표출되었으며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권속들의 온화한 미소에서 명부전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즉 이 지장삼존상은 전체적인 도상이나 양식은 시대 양식을 따르면서도 무염만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신흥사 명부전에는 원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지장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 지장삼존상만 봉안되어 있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연대와 17세기중엽 이후 많은 조각승들에게 영향을 미친 무염의 개성이 잘 반영된 불상의 우수성, 시대성이 반영된 기준작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가. 검토사항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7.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1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북유형문화재 제246호(1990.08.07.지정)
- 명 칭 :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경흥사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806
- 수 량 : 3구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146cm, 무릎 폭 98.3cm
좌협시보살상 높이 135cm, 무릎 폭 86.2cm
우협시보살상 높이 133.5cm, 무릎 폭 86.5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석가여래삼존형식
- 제작연대 : 1644년(인조 22)

- 작 자 : 증명(證明) 쌍신(雙信), 화원(畫員) 청허(淸虛) 부화원(副畫員) 영색(英蹟), 현욱(玄旭), 정혜(淨惠), 신웅(信雄), 나흠(懶欽), 영이(英伊)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조삼존불좌상은 본존이 148cm이고 좌우협시보살상은 132와 134cm로 본존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나 16세기 전반의 상으로 보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불상들의 얼굴은 네모난 편이나 아랫부분이 이마 쪽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 이 삼존불상의 개금불사 때에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順治 1년 甲申 즉 1644에(인조 22) 수화원 淸虛비구와 부화원 英蹟비구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협시 보살의 대좌에서도 같은 해인 1644년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이 발견 되었다. 조각승 청허의 활동 시기는 1605년에 수화승 元悟 밑에서 김해 선지사의 목조아미타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1914년에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1640년에는 수화승으로 덕유산 연수사에서 목조아미타불을 제작하였는데 이상은 현재 거창 심우사에 봉안되어 있다. 경흥사의 상에서 보이는 청허의 양식은 상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고 법의의 표현은 굵은 옷자락 표현을 대담하고 깊게 조각하였다. 청허가 경흥사 삼존불좌상을 제작할 즈음에는 조각승으로서 활동한 경력도 많이 쌓여서 청허조각이 완숙된 경지에 이른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한편 같이 조각에 참여한 英蹟은 1626년 조각승 현진과 함께 법주사 소조삼신불을, 1639년에는 청헌과 함께 쌍계사 목조삼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조각승들은 그 당시의 조선후기 불상 양식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조각가들로 이 경흥사의 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양식이 정형화 되어가는 시기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활동한 조각승 청허에 의해 1644년에 조성되었다. 이들 불상은 청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원숙기에 조성된 것으로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기준작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불상과 보살상의 이마가 넓고 반듯하게 처리된 것이나 눈썹과 눈을 옆으로 가늘고 길게 표현한 것은 청허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목조삼존불좌상 중에서 주존인 불좌상은 높이가 148cm로서 대형에 속하며, 전

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 수준도 우수하다. 보살상의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거나, 결가부좌한 하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등 17세기 중반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서 복장기에 기록된 1644년 작인 것을 양식적, 도상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복장기에는 구체적인 불상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전라도 금산사의 화원인 청허를 초청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조각승들의 교류 활동을 추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청허의 불상 조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조각승 청헌과의 불분명한 관련성 등을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과 대좌 묵서명을 통해 사찰의 창건연기는 물론 1644년이라는 정확한 불상의 조성시기와 명확한 조성주체, 불상을 제작한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靑虛가 전라도 금산사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17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크게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적인 경향에서도 양감이 절제된 단엄하면서도 고요한 상호, 당당한 신체비례, 강직한 직선위주의 선묘, 주름표현 등에서 1640년대 靑憲이나 청허의 작품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중엽경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도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조각승 청허의 조각세계를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이 목조삼존불좌상은 본존이 148cm이고 좌우협시보살상은 132와 134cm로 본존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나 16세기 전반의 상으로 보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불상들의 얼굴은 네모난 편이나 아랫부분이 이마 쪽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 이 삼존불상의 개금불사 때에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順治 1년 甲申 즉 1644에(인조 22) 수화원 淸虛비구와 부화원 英蹟비구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협시 보살의 대좌에서도 같은 해인 1644년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이 발견 되었다. 조각승 청허의 활동 시기는 1605년에 수화승 元悟 밑에서 김해 선지사의 목조아미타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1914년에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1640년에는 수화승으로 덕유산 연수사에서 목조아미타불을 제작하였는데 이상은 현재 거창 심우사에 봉안되어 있다. 경흥사의 상에서 보이는 청허의 양식은 상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고 법의의 표현은 굵은 옷자락표현을 대담하고 깊게 조각하였다. 청허가 경흥사 삼존불좌상을 제작할 즈음에는 조각승으로서 활동한 경력도 많이 쌓여서 청허조각이 완숙된 경지에 이른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한편 같이 조각에 참여한 英蹟은 1626년 조각승 현진과 함께 법주사 소조삼신불을, 1639년에는 청헌과 함께 쌍계사 목조삼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조각승들은 그 당시의 조선후기 불상 양식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조각가들로 이 경흥사의 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양식이 정형화 되어가는 시기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 현상 및 특징

1989년, 경흥사 대웅전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목조삼존불좌상 중 주존 불좌상에서 복장기가 발견되었다. 복장기는 다시 불상 속에 넣어 실물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복장기 사진과 복장기의 내용을 필사했던 徐思選(1579-1651)의 『東臯先生文集』(동고는 서사선의 호)에 수록된 [慶興寺佛像造成記]에 의하면 조각승 淸虛에 의해 조선시대 인조 22년(1644)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 우협시보살의 대좌에서도 順治 1년(1644)의 묵서명이 확인되어 이들 불상이 대좌와 함께 조선시대 1644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조삼존불좌상은 손상되었거나 보수된 곳이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각 존상의 대좌는 상대 위에 설치되었던 난간 부분이 없어졌고, 대좌 다리의 일부가 보수되었다.

주존인 목조불좌상은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있으며, 결가부좌하고 있다. 대의는 왼팔과 왼쪽 어깨를 덮고 목 뒤를 감은 다음, 오른쪽 어깨를 덮고서

S자를 그리면서 내려와 오른쪽 팔꿈치 밑으로 들어간다. 오른손은 축지인을 결하고 왼손은 설법인의 취하고 있다. 왼손은 따로 조각하여 끼웠다. 상체와 하체의 비례는 적절하다. 육계는 낮고 편평하며,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다. 얼굴은 방형으로서 약간 숙인 모습이다. 상호의 이마 부분에 보이는 넓고 평판적인 느낌과 옆으로 길게 처리된 눈썹과 눈 등은 청허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하체도 어느 정도의 폭과 높이를 지니고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 보다 입체적으로 조각되었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인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옷주름 처리는 단순하며, 1線 위주의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가슴 아래 裙衣를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띠 밑에는 간략한 음각선 2개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이는 1616년에 조성된 천곡사 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대좌는 편팔각형으로 상대와 중대, 하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중대는 꽃으로 장엄되었다. 불상의 존격은 석가모니불로 추정된다.

좌협시인 목조보살좌상은 불상보다는 약간 작으나 상호가 원만하고 전체적인 비례도 적절하다. 반듯하고 넓은 이마와 가늘고 긴 눈썹과 눈 등은 청허의 작품이다. 얼굴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모습은 주존과 같다. 중앙의 머리카락은 상투로 틀어 올렸으며, 좌우의 것은 땅아서 어깨 위로 내려 뜨렸다.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관이나 대좌 역시 보살상이 조성되던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보관에는 꽃과 봉황 장식, 梵字 장식, 화염과 구름 장식 등이 달려 있다. 보살상의 상호나 조형적인 특징은 주존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존이 1線 위주로 처리되었다면, 좌협시 보살상은 3선 위주의 선조를 구사한 것이 특징이다. 3선의 처리 방식은 비슷한 작품을 지녔던 조각승 淸憲이 1643년에 조성한 진주 凝石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보살상의 오른손 엄지와 중지 사이에는 보주가 조각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에 보이는 보살상의 특징이다. 양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손목에는 팔찌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보살상은 주존의 존격을 통하여 문수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우협시인 목조보살좌상은 좌협시 보살상보다 약간 작으나 육안으로 구별되진 않는다. 상호가 원만하고 전체적인 비례도 적절하다. 이마가 넓고 반듯하며, 눈썹과 눈을 옆으로 길게 처리한 것은 청허의 작품이다. 우협시 보살상의 보관과 대좌도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좌 형식은 주존의 것과 같다.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얼굴과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것도 주존과 같다. 어깨가 주존과 좌협시보살보다 처져 있어서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수인은 좌협시보살상과 반대로 되어 있다. 역시 왼손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다. 양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손목에는 팔찌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보관에는 범자 장식이 없고 봉황과 꽃 장식만 있다. 보관에 보이는 꽃 모양은 대좌에서도 같은 것이 확인된다. 보살상은 3존 중에서 가장 얇게 조각되어 입체감이

떨어진다. 보살상은 보현보살상으로 추정된다. 대좌는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편팔각형의 평면에, 상대와 중대, 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의 정면과 좌우면에는 꽃이 각각 조각되어 있다.

17세기 전반 국난이 끝난 뒤인 인조 13년(1635)에 경흥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3년만이 인조 15년(1637)에 완공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인조 22년(1644)에 불상을 조성하고 복장물을 넣었다. 불상 조성을 위하여 전라도 金山寺에서 화원[조각승] 청허를 모셔 왔다. 청허는 이 불상을 3개월만에 완성하였다. 우협시보살상의 대좌 아래 묵서명에 의하면, 불상의 조성은 1644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각승 청허는 이 불상 외에도 1605년에는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등을 조성하였는데,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은 1644년의 작품으로 청허의 원숙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慶興寺 木造三尊佛坐像 腹藏記]

歲在乙亥有僧海雲與義瓊惠寬學眞登卜施于動學山之南麓謀健新刹海雲斫聚禪僧兩堂之材未及赴役兩身病義瓊惠寬學眞登召匠創建義淡燔瓦盖之越三年丁丑眞寬爲法堂化主營建數年盖瓦修粧既畢法尙爲丹青及繪佛化主數年之間丹□照躍法界儼然號曰慶興寺衆納推靈主爲佛像化主諸處勸善三年之內凡具已備邀請全羅道金山寺畫員始役于草庵證師名雙信畫員名清虛三闕月而佛像已成奉安于法堂衆僧瞻拜歡聲雷動共命鳥三乙鳥爭飛於蓮花臺上嗚呼千萬古草莽空山今乃爲一境大鹿宮此非有數存焉拾其間耶於千萬年能不變谷不遷佛像其永無疆則普施衆生亦將福田無窮矣甲申五月二十二日前參奉徐思選誌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활동한 조각승 청허에 의해 1644년에 조성되었다. 이들 불상은 청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원숙기에 조성된 것으로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기준작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불상과 보살상의 이마가 넓고 반듯하게 처리된 것이나 눈썹과 눈을 옆으로 가늘고 길게 표현한 것은 청허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목조삼존불좌상 중에서 주존인 불좌상은 높이가 148cm로서 대형에 속하며,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 수준도 우수하다. 보살상의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거나, 결가부좌한 하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등 17세기 중반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서 복장기에 기록된 1644년 작인 것을 양식적, 도상적으로 뒷

받침해 준다.

복장기에는 구체적인 불상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전라도 금산사의 화원인 청허를 초청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조각승들의 교류 활동을 추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청허의 불상 조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조각승 청헌과의 불분명한 관련성 등을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 내용 및 특징

경흥사는 신라 무열왕대 慧空이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미술사적 자료나 문헌은 없다. 1989년 삼존상의 개금불사 시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사찰의 개략적인 연혁과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의 조성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찰의 건립은 1635년 海雲이 義瓊, 惠寬 學眞 등과 함께 동학산 남쪽에 새 사찰을 건립하기를 발원하고, 3년이 지난 1637년에 이르러 盖瓦와 修粧, 丹青 등이 마무리 되고 사찰이름을 慶興寺라고 한 것이 실제적인 창건 시기가 아닐까 한다.

또한 삼존불상은 靈圭가 화주가 되어 全羅道 金山寺의 畫員 雙信과 淸虛를 초청하여 雙信을 證師로, 淸虛을 首畫員으로 하여 1644년 2月 晦日에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5월 22일에 완성하였다. 이는 대좌에 적힌 묵서명, 즉 “順治一年甲申始役二月每日造作五月廿二日畢役”의 내용과 일치한다.

경흥사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降魔觸地印의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관을 쓴 菩薩이 협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 석가여래의 협시보살은 문수, 보현보살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 범어사 석가여래삼존상처럼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을 협시로 하여 三世佛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명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선불리 존명을 부여할 수 없다.

삼존상은 꽃무늬가 화려하게 투각된 八角臺座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착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우견편단식이다. 둥글게 처리한 머리에는 따로 만든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고,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육계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방형의 얼굴은 양감이 적절하며,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이목구비도 뚜렷하다. 고요히 뜬 시선은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듯 자비롭고, 입가의 절제된 미소는 단엄하면서도 차분한 인상을 준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직선의 선묘로 위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곡선의 선묘로 변화를 주었다. 당당한 가슴에는 화형으로 맵시 있게 접은 裙衣의 끝단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균의를 묶은 띠 자락의 여운을 남겨놓았다. 결가부좌한 무릎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처리하였고, 오른발 아래로 부메랑 처럼 드리운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수평 2단주름으로 처리하였다. 신체에 비해 머리는 다소 크지만, 어깨 폭과 무릎의 폭과 높이가 적절하여 안정인 형태감을 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가 다소 크고, 당당함이 넘쳐나는 신체 비례나 형태, 강약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직선 위주의 선묘 등에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이나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靑憲이나 靑虛의 작품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좌우 협시보살상도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한 인상을 주며, 본존불과 달리 天衣는 이중착의로 걸치고, 수인은 양손을 下品中生印처럼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대칭적으로 하여 결가부좌하였다. 보관은 화염, 구름, 봉황, 꽃무늬를 따로 제작하여 화형으로 능을 준 母板에 부착하여 장엄하였다. 머리는 2갈래의 상투로 단정하게 땅아 올렸으며, 양 어깨에로 드리워진 보발은 2개의 고리모양으로 엮고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다. 귀에는 화형의 귀고리와, 손목에는 여의두 모양으로 머리를 맞댄 팔찌를 착용하였다. 세부적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비례, 주름의 표현, 양감 등은 본존불과 거의 같다.

[대좌목서명]

順治一年甲申始 役二月每日造作 五月廿二日畢役

[발원문]

歲在乙亥有僧海雲與義瓊惠寬學眞等卜地于
 動鶴山之南麓謀建新刹海雲所聚禪僧兩堂之材
 未及赴役而身病義瓊惠寬學眞等召匠創建義
 淡燔瓦盖之越三年丁丑眞寬爲法堂化主營建數年盖
 瓦修粧既畢法尙爲丹青及繪佛化主數年之間丹
 獲照耀法界儼然號曰慶興寺衆衲推靈主爲佛像
 化主請處勸善三年之內凡具已備邀請全羅道
 金山寺畫員始役于草庵證師名雙信畫員名
 淸虛三關月而佛像已成奉安于法堂衆僧瞻拜
 歡聲雷動共命鳥三足鳥爭飛於蓮花臺上嗚呼

千萬古草莽空山今乃爲一境大梵宮此非有數存」
焉於其間耶於千萬年陵不變谷不遷佛像其永」
無疆則普施衆生亦將福田無窮矣甲申五月二十二日」
前參奉徐思選誌」
主佛大施主李榮主兩主左補處大施主李彥良兩主右」
補處大施主吳命守兩主二青大施主禦侮將軍金國明兩主」
黃金大施主眞寬比丘淨齋末布施兼大施主安夢山兩主」
供養布施茶禮兼大施主安旺男兩主開眼大施主曹成龍兩主」
?米茶禮大施主陳淵龍兩主食罪清蜜大施主仇彥」
忠兩主清蜜灯燭兼大施主李彥好兩主布施茶禮大施」
主李丙同兩主釘子大施主朴難好兩主腹藏大施主朴好己」
兩主腹藏大施主金汝哲兩主大施主李順兩主大施主徐」
永和兩主大施主趙春發兩主大施主玉守兩主大施主」
河龍華兩主大施主陳石音福兩主大施主孫千萬兩主」
大施主金蕃生兩主大施主甘守兩主施主柳日兩主施主」
李春福兩主施主金松立兩主施主申莫同兩主施主雲峯」
兩主」
施主丁崇夫兩主施主李吾左末兩主施主鄭金同兩主施主李」
義善兩主施主金介屎兩主施主金介夫兩主施主朴?信」
兩主施主金文鶴兩主施主安精信兩主施主孝善兩主」
洪泗龍兩主金祿守兩主施主愛龍兩主施主李同兩主施主」
施主陳滄山兩主申榮海兩主朴命吉兩主曹慶主兩主」

2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極樂國同見」

無量壽皆共成佛道」

寺內秩」

義瓊比丘」勝禪比丘」眞寬比丘」惠寬比丘」文信比丘」元學比丘」性覺比丘」義環
比丘」宝罔比丘」坦英比丘」法藏比丘」双益比丘」彥謙比丘」處玉比丘」彦奇比
丘」印潭比丘」善道比丘」忠湜比丘」玄己比丘」幸玄比丘」天海比丘」

衍清比丘」衍均比丘」弘戒比丘」覺?比丘」懷淨比丘」印?比丘」幸修比丘」懷濟比
丘」印海比丘」淨岑比丘」僅淨比丘」懷印比丘」衍贊比丘」懷獻比丘」一和比丘」
處日比丘」坦能比丘」清元比丘」懷訥比丘」戒默比丘」法尚比丘」道淳比丘」懷惠
比丘」

衍雄比丘」覺惠比丘」法心比丘」德獻比丘」熙淨比丘」信弘比丘」覺惠比丘」懷益

比丘」
緣化秩」
證明 雙信比丘 畫員 清虛比丘 副畫員 英蹟比丘」
持殿 雲雨比丘」
玄旭比丘 淨惠比丘 信雄比丘 懶欽比丘 英伊」
供養主 處玉比丘 懷哲比丘 來往衍行比丘 聖俊」
聖悅比丘 彥性比丘 衍聰挺敏 保体」
別座 忠信比丘」
幹善道人 靈圭比丘」

3.

崇禎二年丁丑六月日慶興寺新創記」

供養大施主趙夢仙兩主」

布施大施主張雲善兩主」

李敬日兩主」

金春生」

劉希世兩主」

韓豆音」

朴得敏伏爲」

亡父朴青山靈駕」

孫千萬」

金業伊」

滄德保体」

韓從男」

李奉尙」

金芴伊兩主」

申英海」

鐵物大施主吳福伊兩主」

李英泉」

金芴叱金」

末醬大施主李順伊兩主」

供養施主 惠寬比丘」

本師運力秩」

義瓊比丘」 文熙比丘」 竺岑比丘」 智明比丘」 敬岾比丘」 元學比丘」 僅還比丘」 法藏

比丘」幸修比丘」彦兼比丘」釋明比丘」太均比丘」克雲比丘」學能比丘」僅淡比丘」印淡比丘」彦哲比丘」處敏比丘」裕識比丘」釋明比丘」
學?比丘」戒眞比丘」應湖比丘」哲雲比丘」釋還比丘」慧日比丘」忠信比丘」卓淳比丘」敏學比丘」神明比丘」性慳比丘」懶嚴比丘」彦性比丘」克動比丘」處玉比丘」處日比丘」淨應比丘」學玄比丘」弘戒比丘」淨行比丘」學宗比丘」裕印比丘」
木手秩」
尙允比丘」三應比丘」法澄比丘」三俊比丘」
工和比丘」慧天比丘」慧澄比丘」竺玄比丘」妙雲比丘」懷淨比丘」海元比丘」天玉比丘」

緣化秩」
別座慧寬比丘」
供養主處性比丘」
覺湖比丘」
智男比丘」

應丹比丘」
成造化主眞寬比丘」
盖瓦化主覺慧比丘」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三創時謄書」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삼존상은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과 대좌 묵서명을 통해 사찰의 창건연기는 물론 1644년이라는 정확한 불상의 조성시기와 명확한 조성주체, 불상을 제작한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靑虛가 전라도 금산사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17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크게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적인 경향에서도 양감이 절제된 단엄하면서도 고요한 상호, 당당한 신체비례, 강직한 직선위주의 선묘, 주름표현 등에서 1640년대 靑憲이나 청허의 작품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중엽경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도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조각승 청허의 조각세계를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검토사항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7.0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3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문화재자료 제334호(1994.11.04.지정)
- 명 칭 :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木造阿彌陀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봉서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봉서사
- 수 량 : 3구
- 규 격 : (1) 목조아미타불좌상: 높이 103cm, 무릎 폭 72cm
(2)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무릎 폭 66cm
(3)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2.5cm, 무릎 폭 65.3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19년(광해군 11)
- 작 자 :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초(靈招)(또는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충청남도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은 세 상의 크기가 모두 100 cm가 넘는 목조상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소조상이 아니라 목조상으로 판명되었다. 세 상중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복장 발원문이 나왔는데 萬曆 46년(1618, 광해군 10) 8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정월, 즉 1619년에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시주사들의 이름 뒤에 증명과 조각을 둘 다 守衍비구가 하고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寶熙 등 5인의 조각승들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연은 현진, 무염과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하나로 현재 남아있는 수연의 불상 중에서는 이 봉서사 상은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이다.

삼존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취하는 삼존형식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삼존상이다. 삼존불의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몸체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상의 체구가 장대하게 보이고 옷 주름 표현 역시 굵고 단순하여 상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준다. 이 상이 조성되는 1618년은 아직도 조선후기불상의 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조각가의 활달한 조각 수법과 형식화되지 않은 개성 있는 수법이 돋보인다. 이후 수연은 1623년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불좌상과 1634년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에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목조 삼불조상도 원래는 전라북도 남원 풍곡사에서 1639년 수연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상이다. 이 봉서사 불상의 복장물에서도 간기가 있는 15세기 16세기의 중요한 경전이 발견되었으나 올 초(2011년) 개금시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수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17세기 불상 양식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복장발원문에 의하여, 조선시대 1619년에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영철이나 운혜(雲惠)에게 영향을 주었던 수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수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온전한 상태이다. 다소 상체가 큰

감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장중한 느낌의 종교성을 보다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다. 원만한 상호와 범의 자락의 유려한 처리 방식에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불상이 정형화되는 17세기 중반 이후의 전조적인 특징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조선후기 불상의 성립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이 불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의 모습이나 전체적인 비례에서 삼존이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변화를 주고 있어서 섬세한 표현 의식도 읽을 수 있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에 보이는 X자 형식의 가슴결이 장식은 조각승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불상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준다고 하겠다.

상기한 몇 가지 점에서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불교조각 사 연구의 기준작이 될 뿐만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관음, 대세지보살이 협시하는 아미타삼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조선후기 예 중에서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삼존상에서 발견된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19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기준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守衍은 17세기 전반기에서 중반기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인데, 그는 1615년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태전을 도와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현진을 도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하였다. 이후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3년)과 익산 송림사 영원전 지장시왕상(1624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1639년)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이 들 중에서 이 작품은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그의 초기의 조각적 경향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중요하다. 즉, 턱이 짧은 넓은 얼굴에 도톰하게 자리 잡은 넓은 코, 여기에 짧은 인중과 두툼한 턱으로 중후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얼굴, 넓고 두툼한 가슴과 긴 허리에서 오는 중량감 넘치는 형태, 강직한 선 위주로 표현한 도식화된 주름이나 왼쪽 어깨나 무릎 아래로 펼쳐진 독특한 형태의 주름표현 등에서 그의 조각적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전반기 추구했던 대중적 평담미와 수연이 추구한 중량감

있는 형태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불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충청남도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은 세 상의 크기가 모두 100 cm가 넘는 목조상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소조상이 아니라 목조상으로 판명되었다. 세 상중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복장 발원문이 나왔는데 萬曆 46년(1618, 광해군 10) 8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정월, 즉 1619년에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시주사들의 이름 뒤에 증명과 조각을 둘다 守衍비구가 하고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寶熙 등 5인의 조각승들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연은 현진, 무염과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하나로 현재 남아있는 수연의 불상 중에서는 이 봉서사 상은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이다.

삼존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취하는 삼존형식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삼존상이다. 삼존불의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몸체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상의 체구가 장대하게 보이고 옷 주름 표현 역시 굵고 단순하여 상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준다. 이 상이 조성되는 1618년은 아직도 조선후기불상의 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조각가의 활달한 조각 수법과 형식화되지 않은 개성 있는 수법이 돋보인다. 이후 수연은 1623년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불좌상과 1634년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에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목조 삼불조상도 원래는 전라북도 남원 풍곡사에서 1639년 수연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상이다. 이 봉서사 불상의 복장물에서도 간기가 있는 15세기 16세기의 중요한 경전이 발견되었으나 올 초(2011년) 개금 시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수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17세기 불상 양식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 현상 및 특징

19세기 중반에 건축된 봉서사 극락전에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2003년에 개금할 때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삼존상은 조선시대 1618년 8월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다음해인 1619년 1월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복장발원문은 삼존상에서 각각 1장씩 발견되었으며, 원문 형식은 거의 같다. 발원문에 나타난 불상 조성에 관여한 조각승으로는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이다. 즉 수연의 지도 하에 여러 조각승들이 조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연은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만든 후, 1623년에는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좌상을, 1634년에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현재 익산 승림사 봉안)을, 1639년에 전라북도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상(현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봉안)을 조성하였다. 성옥은 수연과 함께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외에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좌상도 조성하였다. 영철은 수연과 함께 봉서사 불상 외에 풍국사 불상을 조성하였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통견식으로 착의를 하고, 엄지와 검지를 맞댄 모습의 설법인을 결한 채 결가부좌하고 있다. 상체를 지나치게 크게 조성함으로써 상체에 비해 상호와 하체가 빈약한 편이다. 불좌상은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갖춘 나발의 두발과 넓고 편평한 느낌의 상호를 갖추고 있다. 살짝 뜬 두 눈은 좌우로 길게 표현되었고, 코는 짧고 콧매가 예리하며, 입은 다물고 있어서 엄정한 모습이다. 양볼 좌우측 아래(귀 밑 부분)에 살이 올라 있어서 장대한 상체와 함께 불상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편평하며, 허리는 길다. 결가부좌한 하체는 양 무릎의 폭이 좁고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다. 하체의 왼쪽 다리 위로 흘러내린 법의의 모습은 고려시대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던 것으로, 폭이 넓고 둥글게 처리한 모습에서 조선시대 17세기의 특징이 확인된다. 또한 양쪽 무릎 끝 부분에 접힌 법의 주름을 살짝 세운 모습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1586년에 발원된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도 확인된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통견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신체 비례, 상호, 수인, 착의법 등의 표현에서 주존인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를 덮고 있는 옷주름이나 왼쪽 무릎 위로 흘러내린 고려적인 전통의 법의 자락의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왼쪽 무릎 위를 덮고 흘러내린 법의자락은 주존의 것보다 변화된 모습이다. 보살상은 높게 상투를 틀고 있으며, 보발은 귀 뒤로 내린 다음, 살짝 묶어 다시 가닥을 지어 어깨까지 흘러 내렸다. 귀에는 화형 귀걸이를 하고 있다. 한편 가슴

앞에 표현된 X자형 장식은 보기 드문 예로서, 보살상의 일반적인 가슴장식과는 구분된다.

목조대세지보살좌상도 통견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신체 비례와 상호, 수인, 착의법 등의 표현에서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거의 동일하나 수인은 좌우가 바뀐 모습이다.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를 덮고 있는 옷주름과 왼쪽 무릎 위로 흘러 내린 고려적인 전통의 법의 자락의 표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왼쪽 무릎 위를 덮고 있는 법의자락은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이 왼발 정강이 부분을 덮고 흘러내린 것과 달리 무릎 위에서 간략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보살상은 높게 상투를 틀고 있으며, 보발은 귀 뒤로 내린 다음, 살짝 묶어 다시 가닥을 지어 어깨까지 흘러 내렸다. 귀에는 화형 귀걸이를 하고 있다. 한편 가슴 앞에 표현된 X자형 장식은 보기 드문 예로서, 보살상의 일반적인 가슴장식과는 구분된다.

[복장발원문]

1619년, 종이, 43.5×58.8, 3매

① 관세음보살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太雄 體木大施主金恂一兩主 黃金大施主
宣德希兩主 供養大施主宋於石兩主 布施大施主金希春兩主 褰布大施主崔青山兩主
喉鈴筒大施主全氏兩主 施主鄭斤石兩主 施主挨德保体 施主朴四文兩主 施主_ㄹ介保体
施主太浩比丘 施主天心比丘 施主勝攢比丘 施主罔天比丘 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哲 應仁 宝熙 時 〃 供給飯頭弘敏比丘 時 〃 供敬熟頭道全比丘 永男保体
福男保体 大化主兼大施主玉岑比丘 玉了比丘 三剛能照 萬曆四十六年八月始 己未年
正月畢

② 대세지보살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寶三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太雄 體木大施主金恂一 黃金大施主宣德
熙 布施大施主金希春 供養大施主宋於石 褰布大施主崔青山 喉鈴筒施主全氏 施主鄭
斤石 施主挨德 施主朴四文 施主太浩 施主_ㄹ介 施主天心 施主勝攢 玉了 罔天 三剛
能照 緣化秩 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守衍 性玉 令招 應仁 宝熙 飯頭弘敏 熟頭道

全 永男 福男 大化師兼大施主玉岑 匙筋食器施主崔靛福兩主 萬曆四十六年戊午八月日 爲始己未正月日終畢

③ 아미타불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途 願我速斷貪嗔癡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修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故禮三寶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大雄 體木大施主金恂一 黃金大施主宣德熙
布施大施主金希春 供養大施主宋於石 裹布大施主崔青山 喉鈴筒施主全氏 施主鄭斤
石兩主 施主挨德 施主朴四文 施主太浩 施主_▲介 施主天心 施主勝攢 玉了 罔天 三
剛能照 匙筋食器施主崔靛福兩主 緣化秩」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守衍 性玉 靈招
應仁 寶熙 飯頭弘敏 熟頭道全 永男 卜男 大化師兼大施主雲勸玉岑 萬曆四十六年
戊午八月日爲始 己未正月日終畢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복장발원문에 의하여, 조선시대 1619년에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영철이나 운혜(雲惠)에게 영향을 주었던 수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수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온전한 상태이다. 다소 상체가 큰 감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장중한 느낌의 종교성을 보다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다. 월만한 상호와 법의 자락의 유려한 처리 방식에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불상이 정형화되는 17세기 중반 이후의 전조적인 특징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조선 후기 불상의 성립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이 불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의 모습이나 전체적인 비례에서 삼존이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변화를 주고 있어서 섬세한 표현 의식도 읽을 수 있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에 보이는 X자 형식의 가슴걸이 장식은 조각승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불상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준다고 하겠다.

상기한 몇 가지 점에서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불교조각 사 연구의 기준작이 될 뿐만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로 하는 전형적인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이 삼존상은 기존에 소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올 해(2011) 이루어진 개금공사에 참여했던 개금공의 증언과 무게나 두들김에 대한 소리 반응으로 볼 때 목조불상이 분명하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¹⁸⁾ 이 삼존상은 萬曆 46年 戊午(1618) 8월에 造成役事를 시작하여 다음해 己未(1619) 正月에 완성된 것이다. 불상 대시주 大雄스님을 비롯한 體木大施主 金恂日 등 僧俗이 합심하여 불상 조성에 필요한 물목들을 시주하고, 守衍,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宝熙 등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이 불상을 제작하였다. 首彫刻僧인 수연은 불상이 잘 이루어졌는지 최종 감수하는 證明 역할까지도 맡고 있어 그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본존불의 머리는 육계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높이가 낮아 빈약해 보인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각각 구형과 반월형의 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도드라지게 나타내었다. 반개한 긴 눈은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며, 콧날은 짧고 콧방울은 넓게 자리 잡았으며 인중은 짧고 입술은 얇다. 상하 폭이 좁은 방형의 얼굴은 턱이 짧고 양악의 살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후한 느낌을 준다. 이렇듯 이 불상은 중후함과 개성이 넘치는 얼굴모습은 익산 승림사 영원전 지장보살상이나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이나 수덕사 대웅전 불상 등 그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작품들과 유사점이 있다. 다만, 이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살집이 지나치게 강조된 짧은 턱을 통해 수연의 초기 작품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지는 불신에는 법의를 이중으로 걸쳤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을 새의 날개처럼 도식적으로 처리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살며시 맞댄 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넓게 연 가슴에는 사선으로 한번 접은 군의자락을 표현하였고, 무릎 아래로는 긴 대롱모양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첩첩히 주름을 겹쳐 부채살처럼 활짝 펼친 것이나, 왼쪽 무릎 앞의 쪽 무릎을 다 덮을 만큼 큼직한 소맷자락은 대단히 특징이 있다.

좌우협시 보살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은 최근에 새로 제작된 보관을 썼다. 두 보살상의 머리는 상투모양으로 땀아 올렸고, 구렛나루를 타고 내린 머리카락은 컷불을 가로질러 어깨 위에서 타래모양을 형성하며 길게 드리워졌다. 또한 귀불에는 화형의 귀고리를, 가슴에는 X형으로 교차한 영락장식을 착용하였다. 이외 상호의 표현이나 착의형식 등은 본존불과 차이가 없으나, 대세지보살상의 경우 왼쪽 팔꿈

18) 현재 이 복장발원문과 함께 발견된 전적, 후령통 등 복장유물은 2011년 봄에 시행된 개금불사 때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치 부근에 치우쳐 표현한 요형 주름이나 무릎 아래로 짙막하게 드리운 소맷자락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상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머리, 중후한 얼굴에 짧은 턱, 넓고 당당한 가슴, 두툼고 긴 허리, 깊고 넓은 무릎을 가지고 있어 건장하고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형감은 조각승 수연이 즐겨 구사한 조각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살집이 강조된 중후하면서도 순박한 상호, 왼쪽 팔꿈치 부근이나 무릎 주름의 표현 등은 구례 천은사 보살좌상, 진주 월명암 아미타불상 등 현진이 조성한 불상들과 친연성이 있어 다른 조각유파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아미타불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途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修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상단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日」

黃金大施主 宣德熙」

布施大施主 金希春」

匙 供養大施主 宋於石」

筓 囊布大施主 崔青山」

食 喉鈴筒施主 金氏」

器 施主 鄭斤石兩主」

施 施主 挨德」

主 施主 朴四文」

崔 施主 太浩」

靛 施主 白+ㄱ介」

福 施主 天心」

兩 施主 勝攢」

主 玉了
 罔天」
 三綱 能照」

하단

緣化秩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招」

應仁」

宝熙」

飯頭 弘敏」

熟頭 道全」

永男」

卜男」

大化主兼大施主 雲勸玉岑比丘」

萬曆四十六年八月日爲始」

己未正月日終畢」

「관음보살좌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상단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日兩主」

黃金大施主 宣德希兩主」

供養大施主 宋於石兩主」

布施大施主 金希春兩主」
囊布大施主 崔青山兩主」
喉鈴筒大施主 金氏兩主」
 施主 鄭斤石兩主」
 施主 挨德兩主」
 施主 朴四文兩主」
 施主 白+ㄱ介保体」
 施主 太浩比丘」
 施主 天心比丘」
 施主 勝攢比丘」
 施主 問天比丘」

하단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哲」
 應仁」
 宝熙」

時 ” 供給飯頭 弘敏比丘」
時 ” 供敬蒸頭 道全比丘」
 永男保体」
 福男保体」

大化主兼大施主 玉岑比丘」
玉了比丘」
三綱 能照」
萬曆四十六年八月始」
己未年正月畢」

「대세지 보살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寶(下)三(上)」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一」

黃金大施主 宣德熙」

布施大施主 金希春」

供養大施主 宋於石」

囊布大施主 崔青山」

喉鈴筒施主 金氏」

施主 鄭斤石」

施主 挨德」

施主 朴四文」

施主 太浩」

施主 白+ㄱ介」

施主 天心」

施主 勝攢」

玉了」

罔天」

三綱 能照」

하단

緣化秩」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令招」

應仁」

宝熙」

飯頭 弘敏」

熟頭 道全」

永男」

福男」

大化主兼大施主 玉岑」
匙筋食器施主 崔昶福 兩主」
萬曆 四十六年 戊午八人始日日」
爲始己未 正月終畢」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관음, 대세지보살이 협시하는 아미타삼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조선후기 예 중에서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삼존상에서 발견된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19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기준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守衍은 17세기 전반기에서 중반기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인데, 그는 1615년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태전을 도와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현진을 도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하였다. 이후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1623년)과 익산 승림사 영원전 지장시왕상(1624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1639년)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이 작품은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그의 초기의 조각적 경향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중요하다. 즉, 턱이 짧은 넓적한 얼굴에 도톰하게 자리 잡은 넓적한 코, 여기에 짧은 인중과 두툼한 턱으로 중후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얼굴, 넓고 두툼한 가슴과 긴 허리에서 오는 중량감 넘치는 형태, 강직한 선 위주로 표현한 도식화된 주름이나 왼쪽 어깨나 무릎 아래로 펼쳐진 독특한 형태의 주름표현 등에서 그의 조각적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전반기 추구했던 대중적 평담미와 수연이 추구한 중량감 있는 형태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불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1.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 수 량 : 3구
- 규 격 : 1)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07cm, 무릎 폭 194cm
2) 소조약사불좌상: 높이 265cm, 무릎 폭 159cm
3) 소조아미타불좌상: 높이 265cm, 무릎 폭 160cm
- 재 질 : 비로자나삼불형식
- 제작연대 : 1633년(仁祖 11)
- 작 자 : 무염(無染), 천언(天彦), 도우(道祐), 성수(性修), 성율(性律), 쌍조(雙

照), 해심(海心), 성관(性寬), 대우(大祐), 신견(信堅), 애생(愛生), 순일(淳日) 법해,(法海) 무염(無染), 도우(道祐), 성수(性修), 신뢰(信懷), 해심(海心), 운일(雲日), 성관(性寬), 설근(雪僅), 신견(信堅), 옥행(玉行), 쌍용(雙隆)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많은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대웅전에 있는 비로사나 삼불좌상은 본존의 크기가 3미터가 넘으며 좌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265 센티미터로 국내 현존하는 최대불상중의 하나로 꼽을수 있다. 세 불상은 몸체가 유난히 길죽하여 시원스러우면서도 균형감이 돋보이고 또 부드러운 얼굴표정과 우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중앙의 비로사나불상의 木造座臺 안쪽으로 긴 조성 목서기가 있는데 崇禎 6년 癸酉年(인조 11, 1633년) 2월에 불사를 시작하여 7월에 세 상을 완성하였으며 대표화원이 無染비구이며 天彦, 道祐 性修 性律비구등 10여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 봄 옷칠을 하고 금을 입히고 4월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전라북도 김제의 歸信寺에는 이 선운사의 비로자나삼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소조 삼불좌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찰의 불상조성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선운사상보다 2년 후인 1635년에 무염이 제작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의 목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신체비례나 얼굴 표정에서 좀더 전형적이 조선시대의 불상양식을 따라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염의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를 뿐 아니라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이 선운사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정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걸작품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이 세 상의 대좌에 기록된 목서명 중 “昆盧遮那 藥師如來 阿彌陀佛 亦三尊”의 ‘亦’을 ‘木’으로 읽어 목불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亦’은 ‘等’의 이체자로 보이기 때문에 木佛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나무로 윤곽을 만든 뒤 흙으로 성형한 소조불로 추정된다. 세 불상과 함께 목서명이 기록된 대좌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선운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대좌를 갖춘 대형의 불상들이다. 불상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길쭉하고 편평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해 보인다거나 중존인 소조비로자나불좌

상의 양쪽 어깨를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 식의 평면 구조를 이룬 모습은 17세기 전반 불상에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또한 이들 불상은 양난 이후에 소실되거나 훼손된 사찰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대형의 목심소조불상들이 전국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밑에는 불상 조성과 관련된 목서가 쓰여 있다. 목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조선시대 인조 11년(1633)에 법해와 무염 등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듬해에 화공 을영에 의해 개금되었다고 한다. 조각승과 관련하여 법해보다 무염의 이름이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조각승은 무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상의 상호의 양쪽 볼에 살이 오른 듯한 표현 방식이나 결가부좌한 양쪽 다리 사이에 보이는 옷주름의 처리 방식에서 이후 무염에 의해 조성된 여러 불상(예를 들어 원래 안심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대전의 飛來寺 대적광전에 소장되어 있는 1650년명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전조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따라서 무염이 수화승으로서 조성한 그의 초기작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존 소조비로자나불좌상과 좌협시 불상인 소조약사불좌상, 우협시 불상인 소조아미타불좌상은 각각 孔守龍과 尹弘立, 韓仁南에 의해 발원되었다. 세 사람이 하나의 전각 속에 봉안되는 불상들을 각각 나누어 후원했다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전란 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불교 교리나 사상과 관련하여 볼 때, 중앙에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고, 양쪽에 각각 동방의 약사불상, 서방의 아미타불상을 배치한 것은 삼세불 사상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선운사 삼존불상은 횡삼세불의 사상과 신앙적인 배경 속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불교 신앙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당시 최고의 조각승이었던 무염에 의해 조성된 1633년의 기년작으로서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준작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형의 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서명을 지닌 대좌를 동반하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 횡삼세불상이라는 도상을 통하여 불교사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불상의 형태는 넓고 당당 어깨,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

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갖춘 대형 소조상들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전반기 각지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조성된다. 대형의 소조불상의 조성 목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고, 전란으로 소실된 불상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데 소조라는 재질이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삼불상은 양대전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과 당시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좌의 밑면에 기록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1633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17세기기 전반기의 대표적 조각승 무염과 그의 門下僧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정확한 조성주체가 밝혀져 있고,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각적·종교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많은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대웅전에 있는 비로사나 삼불좌상은 본존의 크기가 3미터가 넘으며 좌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265 센티미터로 국내 현존하는 최대불상중의 하나로 꼽을수 있다. 세 불상은 몸체가 유난히 길죽하여 시원스러우면서도 균형감이 돋보이고 또 부드러운 얼굴표정과 우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중앙의 비로사나불상의 木造座臺 안쪽으로 긴 조성 묵서기가 있는데 崇禎 6년 癸酉年(인조 11, 1633년) 2월에 불사를 시작하여 7월에 세 상을 완성하였으며 대표화원이 無染비구이며 天彦, 道祐 性修 性律비구등 10여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 봄 옷칠을 하고 금을 입히고 4월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전라북도 김제의 歸信寺에는 이 선운사의 비로자나삼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소조 삼불좌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

어 두 사찰의 불상조성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선운사상보다 2년 후인 1635년에 무염이 제작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의 목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신체비례나 얼굴 표정에서 좀더 전형적이 조선시대의 불상 양식을 따라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염의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를 뿐 아니라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이 선운사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정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걸작품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이 세 상의 대좌에 기록된 묵서명 중 “毘盧遮那 藥師如來 阿彌陀佛 亦三尊”의 ‘亦’을 ‘木’으로 읽어 목불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亦’은 ‘等’의 이체자로 보이기 때문에 木佛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나무로 윤곽을 만든 뒤 흙으로 성형한 소조불로 추정된다. 세 불상과 함께 묵서명이 기록된 대좌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현상 및 특징

선운사 대웅전에 봉안된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중존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측에 약사불상, 우측에 아미타불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상은 대좌를 동반하고 있는 온전한 상태의 존상들이다.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불상들은 木心을 세우고 壘土를 바른 다음 천을 두껍게 덧씌워 금박을 입힌 상태이다.

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대형의 작품으로, 양난(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훼손되었던 사찰을 중건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인조 11년(1633)에 조성한 것이다. 불상 조성의 연대는 비로자나불상 대좌 밑에 쓰여진 묵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묵서내용]참조).

묵서 내용으로 불상의 존격과 조성시기, 조성에 걸린 시간, 발원자의 이름, 조각승과 옷칠한 승려의 이름 등이 있다. 즉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들은 橫三世佛像인 中央世의 비로자나불좌상, 東方世의 약사불좌상, 西方世의 아미타불좌상이다. 이들 불상은 1633년 2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7월에 點眼 완성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존상마다 각각의 발원자가 있다는 것인데, 비로자나불상은 孔守龍이, 약사불상은 尹弘立이, 아미타불상은 韓仁南이 발원하였다. 法海 비구와 無染 비구 등이 조각하였으며, 불상 완성 후 다음해 봄에 화공 을영(乙永)이 옷칠을 하였다.

중존인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견식의 착의 형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비로자나불상의 대표적인 수인인 無上菩提印을 결하고 있다. 반원형태의 중앙계주와 마치 鉢을 얹어 놓은 듯한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다. 평판적인 느낌의 상호 속에서도 양 볼에 약간 살이 오른 모습이 엿 보인다. 이는 이후 조성되는 무염의 특징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이다. 허리와 얼굴이 긴 편이며 무릎의 높이는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가슴의 넓이이 비해 두께가 얇아 편평한 느낌이다. 비로자나불좌상의 양쪽 어깨 부분을 앞으로 모아 \wedge 식의 평면 구조를 한다면 명치 아래부분이 약간 돌출되게 표현한 것은 17세기 전반의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상체와 하체의 조각의 깊이가 비슷하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의 처리가 과장된 듯하며, 왼쪽 무릎 윗부분의 옷주름은 다소 복잡한 느낌마저 준다. 반면 불상 뒷면의 옷주름은 정면과 상반되게 매우 간략화된 모습이다. 이 불상은 1624년에 조성된 김제의 귀신사 불상과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얼굴이 좁고 긴 편인 것이 특징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손금이 이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손톱 표현도 원통형의 손가락 끝부분을 음각선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결가부좌한 왼 발은 법의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오른 발은 반만 덮어 발꿈치부분을 노출하였다. 양쪽 무릎 가장자리에는 법의가 꺾여 살짝 돌아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려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약사불상과 아미타불상에서도 확인된다.

좌협시 불상인 소조약사불좌상도 통견식의 착의형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나 표현 형식은 중존과 같다. 다만 수인은 약사불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른손에 藥壺가 올려져 있으며, 왼손은 가슴 쪽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17세기 중반에 많이 보이던 엄지와 중지 사이에 놓인 보주를 이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편평해 보이는 불신은 중존과 같이 상체가 길고 무릎의 높이가 낮아 다소 빈약한 느낌이 든다. 옆에서 보면, 상체를 곳곳이 세운다음 앞으로 약간 기울게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중존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wedge 식으로 양쪽 어깨를 가슴 중앙으로 모우지는 않았다. 상체와 하체, 불상 측면과 뒷면의 조각의 깊이가 비슷하다. 노출된 왼쪽 팔꿈치에 보이는 근육에서 매우 사실성에 가깝게 조각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중존과 차이는 가슴 중앙에서 레이스 장식과 같은 법의의 처리와 가로지른 띠 아래에 양옆에 각각 2개의 음각선으로 옷주름을 표현한 것이다. 발의 모습이나 손가락의 표현 방식 등은 중존과 같다.

우협시 불상인 소조아미타불좌상은 긴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은 점, 편평한 느낌의 불신, 좁고 긴 얼굴, 발이나 손의 표현 등 모든 면에서 앞의 두 불상과 유사하다. 다만 불신 정면에 보이는 상체와 하체의 조각의 깊이가 다른 두 불상에 비해 얇아서 더욱 편평하고 밋밋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측면과 뒷면의 조각은 좌협시 불상인 약사불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면보다 측면이나 뒷면의 조각이 보다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인은 좌협시불상과 대칭되게 처리하였는데, 오른손을 가슴부분까지 들어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묵서 내용1]

次年 春鳥時 衆日記

崇禎六年癸酉 二月日始役爲定 毘盧佛 藥師如來 阿彌陀佛 木三尊 七月日白像初點
眼爲止 明春甲戌之季 佛像三尊 烏黃金 乙永畢 其此四月廿二日 法堂安綏佛像 後人
觀者 詳之如何哉 毘盧佛大施主孔守龍 藥師大施主尹弘立 彌陀大施主韓仁南 畫員秩
法海比丘 首元畫員 無染比丘 證明 處明比丘 道祐比丘 持殿一淡比丘 性修比丘 信
懷比丘 海心比丘 雲日比丘 性寬比丘 雲議比丘 信堅比丘 玉行比丘 雙隆比丘 大化
士 法淨比丘 崇敦比丘 趙金仁

[목서 내용기2]

佛像上年始役衆日記

證明 處明 持殿 日曇 畫員秩 執元畫員 無染比丘 天彥比丘 道祐比丘 性修比
丘 性律比丘 雙照比丘 海心比丘 性寬比丘 大祐比丘 信堅比丘 愛生 淳日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선운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대좌를 갖춘 대형의 불상들이다. 불상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길쭉하고 편평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해 보인다거나 중존인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쪽 어깨를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 식의 평면 구조를 이룬 모습은 17세기 전 반 불상에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또한 이들 불상은 양난 이후에 소실되거나 훼손된 사찰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대형의 목심소조불상들이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데,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밑에는 불상 조성과 관련된 목서가 쓰여 있다. 목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조선시대 인조 11년(1633)에 법해와 무염 등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듬해에 화공 을영에 의해 개금되었다고 한다. 조각승과 관련하여 법해보다 무염의 이름이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조각승은 무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상의 상호의 양쪽 볼에 살이 오른 듯한 표현 방식이나 결가부좌한 양쪽 다리 사이에 보이는 옷주름의 처리 방식에서 이후 무염에 의해 조성된 여러 불상(예를 들어 원래 안심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대전의 飛來寺 대적광전에 소장되어 있는 1650년명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전조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따라서 무염이 수화승으로서 조성한 그의 초기작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존 소조비로자나불좌상과 좌협시 불상인 소조약사불좌상, 우협시 불상인 소조아미타불좌상은 각각 孔守龍과 尹弘立, 韓仁南에 의해 발원되었다. 세 사람이 하나의 전각 속에 봉안되는 불상들을 각각 나누어 후원했다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전란

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불교 교리나 사상과 관련하여 불 때, 중앙에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고, 양쪽에 각각 동방의 약사불상, 서방의 아미타불상을 배치한 것은 삼세불 사상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선운사 삼존불상은 횡삼세불의 사상과 신앙적인 배경 속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불교 신앙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당시 최고의 조각승이었던 무염에 의해 조성된 1633년의 기년작으로서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준작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형의 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서명을 지닌 대좌를 동반하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 횡삼세불상이라는 도상을 통하여 불교사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 내용 및 특징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불좌상은, 지권인의 비로자나를 주존으로 좌우에 說法印을 지은 수인만을 대칭적으로 표현된 2구의 佛像이 협시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의 삼존형식이다. 이 삼불상은 나무로 불상의 전체 윤곽을 이룬 뒤 흙으로 성형하여 완성한 목심 소조불상이다.

본존불상의 대좌 밑면에 불상의 造成來歷을 적은 목서명이 전하고 있어 불상 연구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서명에 따르면, 삼불상은 1633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아미타불 등 삼불을 조성하여 7월에 白像에 첫 점안을 한 뒤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해(1634) 봄 삼존불상에 옷칠과 황금을 칠하고 4월 22일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삼불상은 귀신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1633년) 조성에도 證明을 맡은 處明이 다시 증명을 맡아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한 화원은 無染, 天彦, 道祐, 性修, 性律, 雙照, 海心, 性寬, 大祐, 信堅, 愛生, 淳日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 참여한 화원은 法海, 無染, 道祐, 性修, 信懷, 海心, 雲日, 性寬, 雪僅, 信堅, 玉行, 雙隆인데, 이곳에는 1차 點眼때 참여하지 않은 화원들도 주목되지만, 무염이 1차 때는 執元 畫員, 2차 때는 首元 畫員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 번째 단계의 공사에서 무염이 비록 법해의 뒤에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 위에 수원화원이라고 특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불상을 그가 주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해는 이미 완성된 불상의 개금공사에 잠깐 초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짧은 단문의 목서명이지만 불상의 조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없이 유익한 자료이다.

삼불상의 구성형식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이른바 삼신불과 공간적 삼세불 신앙을 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로자나삼불형식은 석가여래 삼불형식과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전란으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전각 내 다양한 사상과 신앙 형태를 담고 있는 三佛을 봉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는 머리에는 잘고 날카로운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반듯하고 넓으며 눈썹 사이에는 작게 도드라진 백호를 표현하였다. 행인형으로 부드럽게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고, 눈초리는 짧게 처리하였다. 코는 오뚝하며 입술은 작고 턱은 긴 편이다. 입 주위를 둥글게 파내어 깊이 있는 고요한 미소를 표현하였다. 길쭉한 형태의 얼굴은 관자놀이부터 분명한 곡률을 주었으며, 兩顎은 후덕하게, 입술 아래로는 주머니 모양으로 두툼하게 처리하여 자비로운 인상을 자아낸다.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은 주먹 권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치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로 지긋이 누르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은 명대 비로자나불에서 나타나는 수인으로, 1624년에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이 등장한다. 좌우 협시불상은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엄지와 중지를 자연스럽게 맞댄 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친 본존불의 옷 주름은 오른쪽 가슴 아래로 제비꼬리처럼 날카롭게 반전한 옷자락이나 왼쪽 팔뚝으로 단풍잎처럼 넘긴 옷자락이 특징적이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裙衣가 표현되었으나, 묶은 띠자락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볼록하게 내민 복부는 밋밋하게 처리하여 간결함을 더해 주고 있다. 불신에 표현된 주름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억양이 일정한 선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여 장대한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정면의 신체 곡선은 편평하지만, 측면의 윤곽선은 자연스럽다. 특히 양어깨 끝에 표현된 짧은 삼각형의 주름과, 거의 수평에 가깝게 길게 처리한 무릎 주름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좌협시 약사불상은 이중착의로 대의를 걸쳐 입었고, 크게 연 가슴에는 꽃잎형으로 묶은 군의가 표현되었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에 2번 반전시켜 경직된 주름에 부드러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아래로 내린 오른손 바닥 위에는 약사불의 상징 지물인 약호를 올려놓았고,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약사불상과 달리 오른쪽 어깨를 덮지 않은 이중착의법으로 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외 얼굴표현, 표정, 옷 주름의 표현, 비례, 형태, 선 등 세부표현에서 본존불과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삼불상의 相好에서 볼 수 있는 양감이 강조된 호남형의 얼굴은 조각승 무염이 잘 구사하던 표현방식으로, 이 삼불상은 무염의 초기 작품경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생각된다.

[대좌목록서 1]

佛像上年始役衆目」

證明 處明」

持殿 日曇」

畫員秩」

執元畫員 無染比丘」

天彦比丘」

道祐比丘」

性律比丘」

双照比丘」

海心比丘」

性寬比丘」

大祐比丘」

信堅比丘」

愛生」

淳日」

[대좌목록서 2]

次年春鳥時」

衆日記」

崇禎六年季癸酉」

二月始役爲定毘」

盧佛藥師如來」

阿彌陁佛亦三尊七月」

日白像初點眼爲止」

明春甲戌之季佛像三」

尊烏黃金乙永畢其」

此四月廿二日法堂安移」

佛像後人觀者詳之」

如何哉」

毘盧佛大施主 孔守龍」

藥師大施主 尹弘立」

彌陁大施主 韓仁南」

畫員秩」

法海比丘」

首元畫員 無染比丘」

證明 處明比丘 道祐比丘」

性修比丘」

信懷比丘」

信懷比丘」

海心比丘」

雲日比丘」

性寬比丘」

雪僅比丘」

信堅比丘」

玉行比丘」

双隆比丘」

大化士 法淨比丘」

崇敦比丘」

趙金仁」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삼불상의 형태는 넓고 당당한 어깨,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갖춘 대형 소조상들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전반기 각지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조성된다. 대형의 소조불상의 조성 목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고, 전란으로 소실된 불상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데 소조라는 재질이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삼불상은 양대 전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과 당시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직 ·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좌의 밑면에 기록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1633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17세기기 전반기의 대표적 조각승 무염과 그의 門下僧에 의해 제작되었

다는 정확한 조성주체가 밝혀져 있고,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각적·종교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8.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益山 彌勒寺止 金銅香爐)

가. 검토사항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1.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益山 彌勒寺止 金銅香爐)
- 소유자(관리자) : 국유(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428(기양리 104-1)
- 수 량 : 1점
- 규 격 : 총고 30.3cm, 지름 29.7cm, 무게 7.15kg
- 재 질 : 구리에 도금
- 형 식 : 수각형 향로
- 제작연대 : 통일신라(8세기 중엽~8세기 말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출토 금동 수각향로의 조형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료가 전무하여 중국과 일본 수각 향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 수각 향로 가운데 미륵사지 향로와 비교되는 唐代의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6개의 다리와 6獸面을 지닌 741년의 慶山寺址 출토의 향로가 미륵사지 향로의 조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향로는 미륵사지 향로와 달리 수각의 모습이 앞으로 길게 뻗으면서 굴곡을 이루었고 獸面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리 끝부분에 움크린 듯 생동감있게 묘사된 든든한 발톱은 수각 향로의 이른 시기의 조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입을 벌린 獸面に 연결된 고리도 크고 작은 원형 고리를 이중으로 연결하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점은 중국 수각 향로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 후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향로는 다리의 수는 줄어들지만 짧아지면서 생동감을 잃게 되고 뚜껑의 보주 장식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수면과 고리가 번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비해 미륵사지의 향로에서 볼 수 있는 운두 높은 뚜껑과 납작한 몸체와 같은 형태는 오히려 日本 火舎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일본 화사의 양식 변천을 참고해 보면 고식의 것이 다리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수각의 형태도 크고 과장된 모습에서 貓脚形이라는 불리는 짧고 간략화된 형태로 변화된다. 그러나 미륵사지 향로의 다리는 4개로 줄어들었으며 늘씬한 형태라기보다 굵고 짧은 형태에 수각과 수면의 모습은 크고 웅건하면서 과장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수면과 고리의 모습은 오히려 682년에 제작된 感恩寺址 舍利外函에서 조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蓮瓣文과 배연공 역시 고식의 문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 慶山寺址 출토 향로가 반드시 741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한 년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륵사지 향로가 반드시 741년보다 뒤늦게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미륵사지 향로는 당대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 향로의 조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고식의 연판 모습과 감은사지 사리감과 유사한 獸面과 고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 초에 이루어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 금동향로와 동일한 금·구리 아말감 도금법을 사용한 점 역시 이 향로의 제작시기를 올려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와 세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향로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불교미술과 함께 금속공예에 있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8세기 전반에서 중엽을 넘어서지 않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토대로 다른 동반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 향로가 858년 이전에 埋納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편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화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번도 확인되지 못한 수각향로의 첫 발견 예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이 수각 향로는 唐代 중국 작품에 보이는 번잡하기까지 한 장식성과 구별되는 다분히 실용적으로 변모된 생략과 힘찬 동세, 그리고 단아함이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수각 향로는 비록 그 기원과 형식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적 獸脚香爐로 정착을 이룬 한국적인 수각 향로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수각 향로인 火舎는 이러한 미륵사지 수각 향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출토 경위가 확실하며 완벽한 보존 상태를 지닌 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첫 예가 되는 통일신라의 금동 수각향로라는 점에서 국보 백제 금동향로에 버금가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향로는 하루 빨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여러 개의 짐승 다리를 가진 중국 수각향로의 계보로서 고려시대 이전의 다족수각향로의 예로는 유일하다. 중국에서 다족수각향로로서 연대가 확실한 것은 唐의 慶山寺址에서 출토된 741년의 다족수각향로가 있다. 이와 참고하여 8세기 중후반 이후로 비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향로 뚜껑의 꼭지와 어깨 부분에서 시문된 연판문은 삼국시대 백제 후기의 연판문의 고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시대를 올려보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하한연대는 동원 승방지 출토 대중(大中) 12년명 토기편으로 인하여 858년으로 보고 있다. 연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출토지가 확실한 가장 이른 시기의 다족 수각형 금동향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미륵사지 금동향로의 중요성은 향로의 형식뿐 아니라 제작기법에서도 파악된다. 금동향로의 뚜껑과 몸체 부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용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기선은 미륵사지 서원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 중 心柱 중앙의 舍利孔에서 발견된 金銅舍利外壺에서도 확인된다. 금동향로나 금동사리 외호에 시문된 이들 선은 장식 효과를 더하지만 실제로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녹로성형이란 대략적인 형태를 주조한 연후에 거기에 온도처리를 더해 경화시킨 다음 녹로에 고정시켜 기벽을 얇게 깎아 그릇 형태를 정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녹로 성형의 과정 중 기벽을 깎는 과정에서 양·음각선들이 생기는 것이다. 녹로 성형을 하게 되면 금속기의 기벽이 얇아지고 뛰어난 광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그릇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일본으로 수입되어 현재 일본 정창원에 다수 남아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몸체와 뚜껑부분의 용기선으로 볼 때 비교적 두껍게 주조한 다음 이를 깎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의 두께는 용기선의 높이일 것이다. 뚜껑의 꼭지 부분을 따로 접착하지 않고 이를 주조한 다음 깎은 것을 볼 때 녹로성형 기술이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다족수각향로가 실물로는 발견되지 않아 제작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우나 연판문이 백제계의 고식인 점 그리고 수각형 다리의 윗부분의 귀면문이 경주에서 발견된 귀면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미륵사 현지 공방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주의 귀면와의 경우 이를 드러내고 크게 벌린 입 양쪽으로 수염과 같은 갈기가 각각 표현되어 있으나, 금동향로의 귀면문에서는 수염이 중앙 부분에서 한 갈래로 뻗어 있다가 중간에 두 갈래로 갈라진 특징이 보인다.

이와 같이 향로의 형식이나 제작 기법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파악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국내에서 매우 보기드문 수각형 향로로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각형 향로가 거의 없으며, 유사한 형태의 향로는 창녕 말흘리 출토 유물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말흘리 출토 유물은 다리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며, 뚜껑이 없고 크기가 매우 작다. 그에 비해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으며, 특별히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크기도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우수한 금속공예품이다.

이 향로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학설에서는 8세기경까지 올려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향로들이 중국 섬서성 경산사지와 섬서성 법문사지 등에서 출토된 예들이 있으며, 이들과 향로의 수각문 및 괴수문 형태를 비교해 보면 경산사지 향로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향로는 병향로 서너점과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만 남아 있어서 현존 예가 매우 드문 편인데, 이 중에서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가 가장 뛰어난 양식과 보존상태를 보여준다.

이 향로가 출토된 미륵사지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 연간에 발원된 사찰로서, 고려시대까지 법등을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미륵사지 출

토 금동향로의 존재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에도 비교적 크고 훌륭한 法具를 사용할 정도로 寺格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향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서는 보기드문 대형의 뛰어난 금속 주조 공예품으로서, 동아시아 불교 공예사와 불교 의례를 연구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출토된 대형의 수각 향로로서, 동시대 중국 및 일본의 불교 공예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미술사적 가치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상 및 특징

미륵사지 출토 수각 향로는 총 높이 30.0cm, 지름이 29.7cm의 비교적 큰 크기로서 전체의 구성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 [蓋部] 과 운두가 낮은 납작한 대야형의 몸체 [身部], 그리고 4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대부 [臺部]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뚜껑 [蓋部]

향로의 뚜껑은 가운데로 가면서 둥그렇게 솟아오른 중앙부의 굽은 돌기 위에 寶珠形으로 높다랗게 돌출된 鈕가 있으며 그 주위를 한단의 圓座로 둘러쌌다. 寶珠形 鈕는 중단의 띠를 둘러 위, 아래로 나누었는데 상부는盒 모양의 뚜껑처럼 둥글게 처리되어 하부는 굽고 넓은 앞으로 묘사된 6葉의 蓮瓣文으로 장식하였다. 이 보주형 鈕의 아래 부분은 잘록하게 좁아져 그 아래를 짧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고 이 주위를 돌아가며 3줄의 隆起同心圓이 돌출 시문되었다. 동심원 주위로 구획을 둔 뒤 8엽의 蓮瓣으로 구성된 蓮瓣文帶를 두었는데, 이 연판문은 백제 연화문 瓦當을 연상케 하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그 끝단의 중앙 부분을 살짝 말아 올린 유려한 모습이다. 특히 연봉형 鈕의 상부 중앙과 연판문대의 2개의 연판과 연판 사이에 해당되는 상부 쪽에 1개씩 도합 4곳에 排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소

孔을 뚫어 놓았다.

연판 아래로는 몇 줄의 동심원을 둘러 區劃을 마련하였는데, 蓮瓣文帶 아래의 좁은 구획다음에 있는 넓은 구획의 4곳에 택해 透孔을 장식하였다. 透孔의 형태는 중앙의 하트형 문양을 중심으로 왼쪽 상부로는 고사리처럼 좌우로 말려 돌기된 모습이며 오른쪽에는 길게 휘어진 꼬리 무늬로 구성되었다. 이 투공 역시 장식적 문양과 함께 排煙孔의 역할도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뚜껑을 밑에서 들어보게 되면 중앙 연봉형에 해당되는 큰 排煙孔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연판 상부에 뚫린 4개의 배연공과 문양의 효과를 노리면서도 배연의 역할까지 한 4개의 雲唐草文 투공 등 도합 9개의 배연공이 돌아가며 뚫려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뚜껑의 구연 끝단은 살짝 밖으로 外反되도록 처리되었다.

2) 몸체 [身部]

높고 둔중한 뚜껑에 비해 운두가 낮은 몸체의 외형은 마치 洗盤과 같은 형상으로서 상부의 구연은 뚜껑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립된 짧은 턱을 두었고 다시 옆으로 外反되면서도 아래쪽으로 꺾인 독특한 모습이다. 몸체의 밑면은 납작한 평면을 이루었으며 측면에는 중간과 하부 쪽에 3줄의 隆起同心圓이 돌려져 있다. 이 옆면에 별도의 리벳팅 방식을 이용하여 4개의 怪獸形 다리를 배치하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해당되는 3곳의 공간에 聯珠形의 원형 고리를 물고 있는 괴수 머리의 장식을 도드라지게 별도로 부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몸체의 측면에 별도로 구조하여 부착한 獸面 장식을 살펴보면 역시 獸脚과 마찬가지로 동일 范으로 구조된 듯 3점 모두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갖추었다.

다리에 비해 조각의 양감이 뚜렷하고 보다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옆에서 보면 마치 丸彫처럼 입체적이면서 한층 역동적이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좌우로 굴곡을 이룬 갈기가 묘사되었으며 주름진 이마 위로 좌우로 갈라진 뿔이 솟아 있다. 두툼한 눈썹 아래로는 부릅뜬 눈과 양 눈 사이에 크고 몽툰한 코가 세밀히 묘사되었다. 크게 벌린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표현되었는데, 입의 양쪽으로 공간을 뚫어 별도의 聯珠形 고리를 끼우도록 하여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타원형을 한 연주형 고리는 그 끝단을 사각으로 처리하여 이 부분이 입안으로 끼워지는 방식을 취하였다. 獸面에는 머리 가운데 하나, 좌우의 갈기 부분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 3개의 굵은 못을 이용하여 리벳팅하는 방법으로 몸체에 부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다리 [臺部]

4개로 구성된 다리는 그 외형이 거의 동일하여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怪獸의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기가 묘사된 것이 마치 날개를 뻗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머리 위로는 좌우로 뻗친 빨과 삼각형으로 솟아오른 갈기가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었고 불거진 눈과 뭉툭한 코 아래로는 길게 찢어진 입이 표현되었다. 벌려진 입 안에는 위쪽에서 솟아난 날카로운 이빨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길게 내려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혀바닥이 보이고 이 아래 다시 턱과 같은 굴곡을 마련한 모습이다.

얼굴 아래로 연결된 짧지만 굵고 든든한 다리는 위쪽과 아래쪽 2단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발톱으로 묘사되었다. 발톱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처리되었지만 웅크린 듯 힘을 모은 발끝에서 강한 역동감이 느껴진다. 이 괴수형 다리 역시 향로의 몸체 부분과 연결되도록 머리 위와 좌우에 뻗친 갈기 부분에 구멍을 뚫고 못으로 리벳팅하여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4개의 獸脚은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어 하나의 范으로 주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뒷면은 다리부분이 원통으로 주물되어 전체가 둥그렇게 감싸져 있으며 머리와 갈기에 해당되는 면은 뒤쪽이 안으로 움푹 파인 부조형태로 주조되었다. 특히 이 4개의 다리 좌우와 머리 위로 퍼진 갈기면의 세부 처리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미륵사지 출토 금동 수각향로의 조형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료가 전무하여 중국과 일본 수각 향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 수각 향로 가운데 미륵사지 향로와 비교되는 唐代의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6개의 다리와 6獸面을 지닌 741년의 慶山寺址 출토의 향로가 미륵사지 향로의 조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향로는 미륵사지 향로와 달리 수각의 모습이 앞으로 길게 뻗으면서 굴곡을 이루었고 獸面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리 끝부분에 웅크린 듯 생동감있게 묘사된 든든한 발톱은 수각 향로의 이른 시기의 조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입을 벌린 獸面에 연결된 고리도 크고 작은 원형 고리를 이중으로 연결하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점은 중국 수각 향로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 후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향로는 다리의 수는 줄어들지만 짧아지면서 생동감을 잃게 되고 뚜껑의 보주 장식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수면과 고리가 변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비해 미륵사지의 향로에서 볼 수 있는 운두 높은 뚜껑과 납작한 몸체와 같은 형태는 오히려 日本 火舎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일본 화사의 양식 변천을 참고해 보면 고식의 것이 다리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수각의 형태도 크고 과장된 모습에서 猫脚形이라는 불리는 짧고 간략화된 형태로 변화된다. 그러나 미륵사지 향로의 다리는 4개로 줄어들었으며

늘씬한 형태라기보다 굵고 짧은 형태에 수각과 수면의 모습은 크고 웅건하면서 과장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수면과 고리의 모습은 오히려 682년에 제작된 感恩寺址 舍利外函에서 조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蓮瓣文과 배연공 역시 고식의 문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 慶山寺址 출토 향로가 반드시 741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한 년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륵사지 향로가 반드시 741년보다 뒤늦게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미륵사지 향로는 당대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 향로의 조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고식의 연판 모습과 감은사지 사리감과 유사한 獸面과 고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 초에 이루어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 금동향로와 동일한 금·구리 아말감 도금법을 사용한 점 역시 이 향로의 제작시기를 올려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와 세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향로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불교미술과 함께 금속공예에 있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8세기 전반에서 중엽을 넘어서지 않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토대로 다른 동반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 향로가 858년 이전에 埋納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편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화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번도 확인되지 못한 수각향로의 첫 발견 예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이 수각 향로는 唐代 중국 작품에 보이는 번잡하기까지 한 장식성과 구별되는 다분히 실용적으로 변모된 생략과 힘찬 동세, 그리고 단아함이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수각 향로는 비록 그 기원과 형식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적 獸脚香爐로 정착을 이룬 한국적인 수각 향로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수각 향로인 火舎는 이러한 미륵사지 수각 향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출토 경위가 확실하며 완벽한 보존 상태를 지닌 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첫 예가 되는 통일신라의 금동 수각향로라는 점에서 국보 백제 금동향로에 버금가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향로는 하루 빨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 현 상

가. 2000. 11~2007.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나. 부식물 제거, BTA3%방청처리, Pararoid NAD-10강화처리, 몸체 구연 파손부위 접착, 몸체 귀면과 다리는 에폭시수지로 임시 접합.

○ 내용 및 특징

-연혁

삼국유사에 의하면 미륵사는 백제 30대 무왕(A.D.600~641) 창건되었고, 조선시대 무장현의 강후진의 臥遊錄(A.D.1735)에 “미륵사 석탑이 100여년전에 벼락에 의해 무너졌고” 문헌기록과 기와에 쓰인 萬曆15년(1587년)丁亥 수키와 기록 등에 의해 조선 중기(1600)를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된다.

-금동향로의 특징

가. 금동향로는 두껍, 몸체, 다리로 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향로의 크기는 지름이 29.7cm, 높이 30.0cm, 7.15kg이다. 다리는 4개이며 다리 사이에 향로 손잡이 장식 4개가 달려 있다. 손잡이 장식의 고리는 4개 중 2개만 출토 되었다. 뚜껑은 지름 26.2cm로 상단 중앙에는 8엽 연화문의 연봉오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상면에는 心葉形의 구멍이 뚫려 있다. 뚜껑의 상단부에는 8엽의 연화문이 있고, 하단부에는 4개의 운문이 투조되어 있다. 뚜껑에는 향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心葉形의 구멍이 손잡이 상단 중앙에 1개, 상단부 8엽 연화문 사이에 4개, 하단부에 운문 구멍 4개가 상단의 心葉形의 구멍(0.9×0.9cm) 사이에 뚫려있다. 이러한 구성은 형태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부여 陵山里 출토의 金銅香爐에 뚫린 배연공의 구성 방식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뚜껑 손잡이와 8엽 연화문, 운문 사이에는 2줄씩의 둥근줄이, 운문과 구연부 사이에는 4줄이 둘러져 있다. 뚜껑의 외형은 반구형이며, 구순부가 둥글게 마무리 되었고 뚜껑의 구연부는 몸체의 구연부 내부에 얹혀진다. 뚜껑 내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나. 몸체의 지름은 26cm, 전까지 포함한 지름은 29.7cm, 높이 9.1cm이다. 운두가 낮은 몸체의 외형은 마치 洗盤과 같은 형상으로서 상부의 구연은 뚜껑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립된 짧은 턱을 두었고 다시 옆으로 外反되면서도 아래쪽으로 꺾인다. 몸체의 밑면은 납작한 평면을 이루었으며 측면에는 중간과 하부 쪽에 3줄의 隆起同心圓이 둘러져 있다. 이 옆면에 별도의 리벳팅 방식을 이용하여 웅건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의 4개의 怪獸形 다리를 부착하였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간 4곳에는 聯珠形의 원형 고리를 물고 있는 별도의 괴수 머리의 장식이 도드라지게 부착되어 있다.

몸체의 측면에 부착된 獸面 장식은 동일 范으로 주조되어 4점 모두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갖추었다. 浮彫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수각에 비해 丸彫처럼 입체적으로 조각 되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좌우로 굴곡을 이룬 갈기가 묘사되었고 주름진 이마 위로 좌우로 갈라진 뿔이 솟아 있다. 두툼한 눈썹 아래로 부릅뜬 눈과 양 눈 사이에 크고 몽툰한 코가 세밀히 묘사되었다. 크게 벌린 입 안에는 날카

로운 이빨이 표현되었는데, 이 입의 양쪽으로 공간을 뚫어 별도의 타원형을 한 聯珠形 고리 끝단을 사각으로 처리하여 끼워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獸面은 머리 가운데 하곳, 좌우의 갈기 부분에 한곳씩 3곳을 굵은 못을 이용하여 리벳팅하는 방법으로 부착시켰다.

다. 4개로 구성된 다리는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怪獸의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기가 묘사된 것이 마치 날개를 뻗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머리 위로는 좌우로 뻗친 뿔과 삼각형으로 솟아오른 갈기가 묘사되었고, 불거진 눈과 뭉툭한 코 아래로는 길게 찢어진 입이 표현되었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그 아래로 두 단의 굴곡을 두었는데 마치 혀를 길게 내민 듯이 보인다. 얼굴 아래로 뻗어있는 굵고 든든한 다리는 5개의 커다란 발톱으로 묘사되었는데 2단의 굴곡을 이루며 그 끝단은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이 괴수형 다리는 향로의 몸체 부분과 연결되도록 머리 위와 좌우에 뻗친 갈기 부분에 구멍을 뚫고 못으로 리벳팅하여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4개의 獸脚은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어 하나의 范으로 주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리 부분의 뒷면은 평면의 주물을 말아서 전체가 둥그렇게 감싸져 있으며 머리와 갈기에 해당되는 면은 뒤쪽이 안으로 움푹 파인 부조형태로 주조된 점이 주목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여러 개의 짐승 다리를 가진 중국 수각향로의 계보로서 고려시대 이전의 다족수각향로의 예로는 유일하다. 중국에서 다족수각향로로서 연대가 확실한 것은 唐의 慶山寺址에서 출토된 741년의 다족수각향로가 있다. 이와 참고하여 8세기 중후반 이후로 비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향로 뚜껑의 꼭지와 어깨 부분에서 시문된 연판문은 삼국시대 백제 후기의 연판문의 고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시대를 올려보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하한연대는 동원 승방지 출토 대중(大中) 12년명 토기편으로 인하여 858년으로 보고 있다. 연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출토지가 확실한 가장 이른 시기의 다족 수각형 금동향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미륵사지 금동향로의 중요성은 향로의 형식뿐 아니라 제작기법에서도 파악된다. 금동향로의 뚜껑과 몸체 부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용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기선은 미륵사지 서원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 중 心柱 중앙의 舍利孔에서 발견된 金銅舍利外壺에서도 확인된다. 금동향로나 금동사리외호에 시문된 이들 선은 장식 효과를 더하지만 실제로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녹로성형이란 대략적인 형태를 주조한 연후에 거기에 온도처리를 더해 경화시킨 다음 녹로에 고정시켜 기벽을 얇게 각아 그릇 형태를 정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녹로

성형의 과정 중 기벽을 깎는 과정에서 양·음각선들이 생기는 것이다. 녹로 성형을 하게 되면 금속기의 기벽이 얇아지고 뛰어난 광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그릇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일본으로 수입되어 현재 일본 정창원에 다수 남아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몸체와 뚜껑부분의 용기선으로 볼 때 비교적 두껍게 주조한 다음 이를 깎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의 두께는 용기선의 높이일 것이다. 뚜껑의 꼭지 부분을 따로 접착하지 않고 이를 주조한 다음 깎은 것을 볼 때 녹로 성형 기술이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다족수각향로가 실물로는 발견되지 않아 제작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우나 연판문이 백제계의 고식인 점 그리고 수각형 다리의 윗부분의 귀면문이 경주에서 발견된 귀면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미륵사 현지 공방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주의 귀면와의 경우 이를 드러내고 크게 벌린 입 양쪽으로 수염과 같은 갈기가 각각 표현되어 있으나, 금동향로의 귀면문에서는 수염이 중앙 부분에서 한 갈래로 뻗어 있다가 중간에 두 갈래로 갈라진 특징이 보인다. 이와 같이 향로의 형식이나 제작 기법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파악된다.

□

○ 현 상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향로로서, 뚜껑과 몸체, 다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도금이 잘 남아 있고 양호한 편이지만, 몸체의 구연부의 전은 일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향로의 몸체 내부는 그을음 흔적과 녹이 조금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향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수각형 다리가 달린 향로이다. 몸체에 비해 높고 크게 만들어진 뚜껑은 용기선에 의해 3단으로 구획되어 있다. 뚜껑의 중앙에는 둥그스름한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손잡이의 중간부분에는 단판의 연판문을 얇은 부조로 조각해 놓았다. 뚜껑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뚜껑의 맨 아랫단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으나, 두 번째 단에는 당초문 형태에 가까운 구름 문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사방에 하나씩 모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구름 문양의 구멍은 네 개가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정을 사용하여 手工으로 뚫었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와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그중 하나의 구멍은 구부러진 당초의 윗부

분이 모두 뚫려서 원형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다(도 1). 맨 윗단에는 8엽의 단판 연화문대가 조각되어 있는데, 연판문의 사이사이에는 연잎 2개마다 지름 1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모두 4개의 圓孔이 있다. 두 번째 단의 구름 문양의 구멍과 맨 윗단의 둥근 구멍들은 모두 향을 피울 때 연기가 바깥으로 피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뚜껑에 표현된 연화문은 모두 단판의 연화문으로서, 비교적 古式 문양에 속한다.



도 1. 향로 뚜껑의 안쪽에서 본 당초 구름 모양의 구멍.



도 2. 향로 몸체의 안쪽. 구연부의 전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보이며, 다리와 장식을 연결한 못의 뒷부분이 몸체 측면에 군데군데 보인다.

몸체는 대야 모양에 가까우며, 윗부분에 전이 직립하여 달려 있는데, 이 전의 일부가 파손되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파손된 부분은 현재 복원되었으나 구부러진 부분은 원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도 2). 다소 복원된 부분이 약하고 몸체 내부에 녹과 그을음 흔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금상태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몸체 바깥쪽에는 사방에 모두 4개의 수각형 다리를 별도로 만들어 못으로 연결했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의 빈 공간에는 역시 고리를 입에 물고 있는 괴수 모양의 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못으로 부착해 놓았다. 향로의 몸체와 다리 및 장식을 연결하는 굵은 못들은 머리가 둥그스름한 형태로, 연결부의 구멍을 통과해서 향로 몸체 안쪽에서 마감을 하여 각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구멍에는 못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리와 장식의 상태는 양호하다. 수각형 다리의 형태는 윗부분은 갈기, 혹은 날개 형태의 장식이 달린 괴수의 머리 모양으로 생겼으며, 입에서는 당초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다리의 아래부분은 짐승의 발 모양을 하고 있다. 수각형 다리와 그 사이의 괴수 모양의 장식은 모두 별도로 주조된 것으로, 다리의 후면부는 속이 일부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도 3). 다리와 괴수가 입에 문 고리 부분은 녹이 좀 많이 나 있고, 도금층도 많이 사라진 편이다.

이러한 수각형 향로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기형의 특징은 중국 唐代 慶山寺 및 法門寺 출토의 금동 수각형향로의 계보를 이으면서도(도 4) 뚜껑이나 구멍의 모양으로 볼 때, 중국과는 다른 통일신라시대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향로는 이후 일본에서 종종 발견되는 화사향로의 형식 과도 연결되어, 이러한 형식의 향로들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수각형 향로는 5족, 혹은 6족이 많은데 비해서, 이 향로는 4족의 안정된 형태이다. 용기문이 장식된 동체나 뚜껑의 형태, 사자와 비슷한 형태의 괴수문 표현, 안정된 단판의 연화문 등은 통일신라시대 불교 공예 양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리 4개 중에서 1점은 좀 더 갈기 부분의 음각선 조각 등이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3개의 다리와는 약간 조각수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 3. 향로 다리의 아래 부분. 속이 일부 빈 형태로 만들어졌음이 구멍의 존재로 확인된다.



도 4. 중국 섬서성 法門寺 지궁 전실 출토 금동수각형향로. 중국 唐, 9세기.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국내에서 매우 보기드문 수각형 향로로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각형 향로가 거의 없으며, 유사한 형태의 향로는 창녕 말흘리 출토 유물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말흘리 출토 유물은 다리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며, 뚜껑이 없고 크기가 매우 작다. 그에 비해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으며, 특별히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크기도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우수한 금속공예품이다.

이 향로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학설에서는 8세기경까지 올려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향로들이 중국 섬서성 경산사지와 섬서성 법문사지 등에서 출토된 예들이 있으며, 이들과 향로의 수각문 및 괴수문 형태를 비교해 보면 경산사지 향로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향로는 병향로 서너점과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만 남아 있어서 현존 예가 매우 드문 편인데, 이중에서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가 가장 뛰어난 양식과 보존상태를 보여준다.

이 향로가 출토된 미륵사지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 연간에 발원된 사찰로서, 고려시대까지 법등을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의 존재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에도 비교적 크고 훌륭한 法具를 사용할 정도로 寺格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향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서는 보기드문 대형의 뛰어난 금속 주조 공예품으로서, 동아시아 불교 공예사와 불교 의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출토된 대형의 수각형향로로서, 동시대 중국 및 일본의 불교 공예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미술사적 가치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기 타

이 향로는 2000년 미륵사지 보수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건물지 건널목 시설 공사를 하던 중, 미륵사지 중원 북회랑지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정식 발굴에 의해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기 정비공사가 완비된 곳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 발굴된 곳의 주위에서는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공반 유물도 없었다.

발굴 당시 위치는 지표면 아래 20cm 지점이었으며, 향로의 다리가 하늘을 향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뚜껑은 손잡이가 하늘을 향하고 구연부가 아래쪽을 향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발견 당시 다리와 장식들은 일부 분리된 상태였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를 3년동안 진행하여 복원했다. 현재 이 향로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전시중이다.

9.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醴泉 龍門寺 重修龍門寺記碑)

가. 검토사항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예천 용문사 중수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3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1.)를 실시하였음.
- 본 위원회에서 현품이 검토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醴泉 龍門寺 重修龍門寺記碑)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195cm, 너비 93cm, 두께 10cm
- 재 질 : 오석
- 형 식 : 규수형(圭首形)
- 제작연대 : 1185년(고려 명종 1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비는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대사, 대사, 입선, 참학, 중직 등의 직명이 보이는 데, 특히 사법제자에 수미산하의 주기를 가진 인명이 4명이나 보여 학술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고려 중기의 불교계 단면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겠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그 보존과 관리가 허술하여 손상부분이 많은 데다, 잘려나간 부분의 원형을 복원할 수 없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비는 해조국사의 경과를 초월한 탄력성과 교종까지 수용한 조응의 선풍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중기의 불교계의 단면을 알 수 있으므로 유익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 비의 상태는 최근 수 십년간 보존과 관리의 잘못으로 매우 손상되어 있다.(주지 수님은 내년에 보수하여 용문사 내의 성보박물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문화재 지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중수용문사기비는 1184년(고려 명종 14) 조산대부 좌산기상시 보문각학사 한림학사 지제고 이지명이 왕명에 의해 짓고, 이듬해 4월 普濟寺住持 性印禪師 淵懿가 쓰고, 茶井寺住持 重大師 冲默과 重大師 思秀 등이 立石을 맡았고, 入選 解錫이 刻字한 중수기와 1188년(명종 18) 에 추기된 음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사 조응의 사승관계와 조응의 사법제자·집사제자의 등을 통하여 고려중기 불교사 특히 선종계의 동향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 비의 상태는 깨어진 부분의 연결모습이 좋지 않고, 보존과 관리가 소홀하여 손상 부분이 많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조사보고서 전문

□

○ 현상

비는 오랜 세월 풍우에 시달려 낡은 데다, 하단의 중간 부분이 반 토막으로 깨지거나 잘려진 부분을 아무 고증을 거치지 않고 시멘트로 붙여 연결시켰다. 깨지거나 잘려진 부분의 글 내용과 글씨 서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크기보다 10여 cm 이상 줄어든 듯하다. 당시 음기의 탁본과 판독이 없기 때문에 중수기의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조선 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작성시와 같은 보완이 불가능하다. 또한 서예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없는 듯하다.

또한 현재 비가 서 있는 곳이 원래의 위치가 아니며, 용문사 측에서도 오석(烏石)이라서 세월이 시달려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도 여러 곳 있다.

○ 내용 및 특징

중수용문사기비의 비문은 보문각학사 이지명(李知命, 1127~1191)이 고려 명종 14년(1184) 12월 경 왕명에 의해 짓고, 1185년 다정사 주지인 성인선사(性印禪師) 연의(淵懿)가 썼으며, 다정사 주지인 중대사 충묵(冲默)과 사수(思秀) 등이 입석을 맡았다.

이 비의 음기는 사법제자(嗣法弟子)와 집사제자(執事弟子)로 구성되어 있고, 중대사(重大師), 대사(大師), 입선(入選), 참학(參學), 중직(重職) 등의 직명이 보인다. 특히 사법제자에 수미산하(須彌山下)의 주기를 가진 인명이 4인이 있으며, 집사제에 화엄(華嚴)소자(疎子)의 주기(註記)를 가진 인명이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 비는 1930년 이후 좌측 중단부분에서 우측 하단부분으로 깨져서 글자가 부분적으로 망실되었으나 조선금석총람, 해동금석원, 읍지 등에 그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중수기에는 용문사를 중수한 조옹(祖膺)의 이력과 활동이 소개되어 음기의 문도는 조옹의 문도 제지임을 알 수 있다. 중수기가 완성된 1185년의 3년 뒤인 1188년에 음기가 작성되므로써 조옹의 사후 제자 명단이 추각된 것으로 추론된다.

내용은 조옹의 제자를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구분해 놓아 당시 불교계의 정황과 교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비의 네 돌레는 모두 파련문(波蓮文)이 조각되어 있는데, 상부의 좌우측은 7엽의 연꽃 위에 석류를 얹은 전형적인 병머리초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매우 드문 양식으로 보인다.

비문의 글씨는 정성을 기우려 쓴 것으로 중국 당나라시대 저수량의 서풍을 띠고 있다. 매우 평범하고 특징이 없어 전문 서예가가 쓴 것이 아닌 듯싶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비는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대사, 대사, 입선, 참학, 중직 등의 직명이 보이는 데, 특히 사법제자에 수미산하의 주기를 가진 인명이 4명이나 보여 학술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고려 중기의 불교계 단면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겠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그 보존과 관리가 허술하여 손상부분이 많은 데다, 잘려나간 부분의 원형을 복원할 수 없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현 상

비는 좌측 중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깨어진 것을 고증이나 검증도 없이 상하를 그대로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 그래서 깨어진 부분의 글자는 없어졌고, 크기도 원래보다 약 10센티 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현재 비가 있는 곳은 원래의 위치가 아니며, 용문사 측에서도 원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석재는 오석(烏石)인데 재질이 강하지 못한 탓에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곳이 더러 있다. 더욱이 현재의 위치는 습기가 많은 곳이어서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고, 하부는 더 심하다.

○ 내용 및 특징

중수용문사기비의 비문은 보문각학사인 이지명(李知命, 1127~1191)이 1184년(고려 명종 14) 12월경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지은 것이다. 이 비문은 1185년 4월에 보제사 주지인 성인선사(性印禪師) 연의(淵懿)가 썼다. 입석은 다정사 주지인 중대사 충묵(冲默)과 중대사 사수(思秀) 등이 맡았다.

비는 1930년 이후 좌측 중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깨어져 글자가 부분적으로 망실되었으나 다행히 읍지와 조선금석총람, 해동금석원 등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내용은 용문사의 위치, 태조 왕건의 지원, 주지 조옹(祖膺)의 용문사 중수와 낙성사실 그리고 그의 일대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비석 뒷면의 읍기는 1188년 4월에 작성된 것인데, 누가 짓고 새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조옹의 제자를 사법제자(嗣法弟子)와 집사제자(執事弟子)로 구분해놓아 당시 불교계의 정황과 교류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비의 네 둘레 모두 파련문(波蓮文; 옆에서 본 연꽃 문양으로 당초문의 일종)이 있다. 상부의 좌우측은 7엽의 연꽃 위에 석류를 엮은 전형적인 병머리초 문양이다. “우리나라 비석 중에는 네 둘레 모두 파련문(연초문)을 두른 것은 거의 없다.”는 문양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한기문은 특히 비석 후면의 음기를 통해, “혜조국사의 선풍은 사굴산과와 수미산파를 포용하는 탄력성이 있었고, 조응의 선풍 역시 교종과 천태종까지 교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비는 혜조국사의 계파를 초월한 탄력성과 교종까지 수용한 조응의 선풍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중기의 불교계의 단면을 알 수 있으므로 유익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 비의 상태는 최근 수십년간 보존과 관리의 잘못으로 매우 손상되어 있다.(주지 수님은 내년에 보수하여 용문사 내의 정보박물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문화재 지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문헌자료

한기문, 醴泉 “重修龍門寺記” 碑文으로 본 高麗中期 禪宗界의 動向: 陰記의 紹介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제24호 한국문화사학회, 2005.

용문사성보유물관 개관도록, 예천, 용문사, 2006.

□

○ 현 상

위쪽에 귀접이를 한 圭首形 碑身이며, 좌측 중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깨어진 상태를 상하 그대로 시멘트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크기보다는 10cm이상 줄어들었다. 깨어진 부분의 글자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석재도 烏石이라 강하지 못하여 떨어져 나간 부분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현재의 위치는 습기가 많은 곳이어서 비석 하부에는 이끼가 심하게 끼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중수용문사기비의 비문은 1184년(고려 명종 14) 12월 경 朝散大夫 左散騎常侍 寶文閣學士 翰林學士 知制誥 李知命(1127~1191)이 왕명에 의해 지었고, 1185년 4월 普濟寺住持 性印禪師 淵懿가 쓰고, 茶井寺住持 重大師 冲默과 重大師 思秀 등이 立石을 맡았고, 入選 解錫이 새기었다.

이 비는 1930년 이후 어느 시기에 좌측 중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깨어져 파손이 되어서 글자도 부분적으로 잃었는데 경상도읍지, 朝鮮金石總覽·海東金石苑 등에는 파손되기 전의 탁본을 이용하여 활자화하였으므로 비문의 전모는 알 수 있다. 내용은 용문사의 위치, 용문사를 중수한 대선사 祖應의 이력사항과 활동한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

비석 뒷면의 음기는 1188년 4월에 작성되었으나 書者 및 刻者는 명기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내용은 조응의 제자를 嗣法弟子와 執事弟子로 구분해 놓음으로써 당시의 불교계의 정황과 交流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비의 네 둘레에는 모두 波蓮文(당초문의 일종)이 있고 상부의 좌우측에는 7엽의 연꽃 위에 석류를 얹은 전형적인 병머리초 문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중수용문사기비는 1184년(고려 명종 14) 조산대부 좌산기상시 보문각학사 한림학사 지제고 이지명이 왕명에 의해 짓고, 이듬해 4월 普濟寺住持 性印禪師 淵懿가 쓰고, 茶井寺住持 重大師 冲默과 重大師 思秀 등이 立石을 맡았고, 入選 解錫이 刻字한 중수기와 1188년(명종 18)에 추가된 음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사 조응의 사승관계와 조응의 사법제자·집사제자의 등을 통하여 고려중기 불교사 특히 선종계의 동향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 비의 상태는 깨어진 부분의 연결모습이 좋지 않고, 보존과 관리가 소홀하여 손상 부분이 많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 문헌자료

한기문,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음기의 소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4, 2005.

용문사, 『용문사성보유물관도록』, 예천, 용문사, 2006.

10. 불조삼경(佛祖三經)

가. 검토사항

“불조삼경”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불조삼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1.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운흥사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972
- 수 량 : 1책1권
- 규 격 : 가로 16.5cm 세로 28cm / 38장(표지 2장 포함)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361년(고려 공민왕 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편자인 몽산화상 덕이(德異)는 중국 송대의 저명한

학승으로, 고려(高麗)의 문인들과 서신을 왕래하는 등 교류가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 의저자인 이승휴(李承休:1224-1300)의 문집에는 덕이가 보내온 글과 이에 대한 이승휴의 답신이 수록되어 전한다.

현재 국내에 전존하고 있는 『불조삼경』은 1361년(공민왕 10)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중간한 판본과 20여년 뒤인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2종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 판본으로 이와 같은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삼성리움박물관 : 보물 제694호, 1981.3.지정). 이외에 1384년 판본 3종도 각기 보물 695호(삼성 리움,1981.3.), 보물 1224호(범어사,1995.7.), 보물 1224-2호(한솔제지,2007.9.) 로 지정되었다.

운흥사 소장본 불조삼경(佛祖三經)』은 현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361년에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책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고려시대의 불교학연구의 경향과 인쇄 출판문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조삼경』은 고려시대의 간본 2종이 있다. 한 종은 전주 원암사에서 1361년(공민왕 10)년에 중간한 것이고, 다른 한 종은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것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1책이 보물 제69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 동일한 판본으로 공개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고조 21-141)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귀111-A) 그리고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복장의 「불설사십이장경」(전남 유형문화재 제200호,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반엽이 결락되었음) 등이 있다.

이 책은 몽산화상을 숭배하던 고려말기 불서간행의 정황과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희귀한 판본이다. 약간의 흠결은 있으나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佛祖三經』은 러말선초 사이에 한국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 덕이가 편찬한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의 三經의 합집이다. 권말의 誌文에서 1361년에 전라도 전주의 圓嶺寺에서 行心の 발원으로 法空이 刊役의 총책을 맡아 판각한 목판본으로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밝히고 있다. 불조삼경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2종이다. 현재 이와 동

일한 판본이 보물 694호(삼성미술관 리움)로 지정되어 있다. 1384년판도 보물 제695호(미술관), 보물 제1224호(한솔종이박물관), 보물 제1224-2호(범어사) 등 3건이 지정되어 있다. 불교문화사와 출판인쇄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서지기술> : 佛祖三經/--木版本--全州 圓岩寺 1361板刻.

1冊: 四周單邊, 半郭20.2 X 15cm. 無界 8行17字 注雙行 ; 16.5×28.0cm. 楮紙 (印經紙). 線裝(改裝). 판심제 : 四十二章經/ 遺經/ 滄山

<敍> : 至元丙戌(1286)燈節絕 牧叟 德異 敘

<序> :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注滄山警策序---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 左朝奉大夫 新廣南東路轉運判官 張銖 撰)

<發願文>: 至正辛丑(1361)六月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行心誌

<현상태 >

원래의 표지는 결락되고 표지가 후일에 가철상태로 개장되어 있음. 덕이의 서문 첫째 장의 일부에 5자가 부분결락되었으나, 나머지는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제는 첫 번에 수록된 「佛說四十二章經」의 약칭인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이란 서명의 책은 없다. 다만 불교계에서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을 합칭하여 『불조삼경』으로 부른다. (德異序文 : 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

『불설사십이장경』은 석가의 가르침을 42장으로 간추려 설명한 것으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불교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불유교경(佛遺敎經)』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적은 것이고, 「위산경책」은 중국 선종(禪宗)의 일파인 위양종(滄仰宗)을 개창한 위산 영우(靈祐)가 지은 책이다. 이들 세 책의 학습은 학불작조(學佛作祖)의 지름길로 일컬어져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조사대상 3경은 모두 송(宋)의 학승인 수수(守遂)의 주본(注本)이다.

책의 구성은 지원(至元) 병술(1286)년에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德異)가 지은 서문, 「불설사십이장경」, 송진종(宋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敎經序)와 「불유교경」, 장수(張銖)의 「注滄山警策序」와 「위산경책」의 순서로 되어있다.(본서에는 위산경책서의 저자를 표시하는 행(行)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권말에는 조사 대상서의 판각배경과 시기를 보여주는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이 실려 있어서 이 책이 1361년에 전주(全州) 원암사(圓嶽寺)에서 개판된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로 행심의 발원문과 간행관련 기사의 전문(全文)을 수록한다.

右三經乃佛祖深切之語凡學者之所不易者也太祖云若依吾教雖去五千里如常在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 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六月日 重刊留全州圓嶽寺流益永祀者

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 善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편자인 몽산화상 덕이(德異)는 중국 송대의 저명한 학승으로, 고려(高麗)의 문인들과 서신을 왕래하는 등 교류가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의 저자인 이승휴(李承休:1224-1300)의 문집에는 덕이가 보내온 글과 이에 대한 이승휴의 답신이 수록되어 전한다.

현재 국내에 전존하고 있는 『불조삼경』은 1361년(공민왕 10)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중간한 판본과 20여년 뒤인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2종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 판본으로 이와 같은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삼성리움박물관 : 보물 제694호, 1981.3.지정). 이외에 1384년 판본 3종도 각기 보물 695호(삼성리움, 1981.3.), 보물 1224호(범어사, 1995.7.), 보물 1224-2호(한솔제지, 2007.9.)로 지정되었다.

운홍사 소장본 불조삼경(佛祖三經)』은 현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361년에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책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고려시대의 불교학연구의 경향과 인쇄 출판문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① 上蒙山和尚謝賜法語(動安居士雜著一部 :한국문집총간 제2집 390면)

月日。頭陀山動安居士李某稽首。歸依瞻想。絕牧和尚行化家風。其所游刃恢恢乎有餘。隨機接物。應病與藥。方便妙密。由是。凡蒙一言一句。隨所根堪。莫不悟入。此豈古佛幻有重入相門於五濁世中。以退位利生爲樂而來哉。禪風始扇。中吳法乳。旁流東國。航海法參者。帆相屬也。顧如老夫人身朽邁。動必借人。烏能爾耶。但翹誠景仰。瞻之在前。有年矣。越前年八月初七日。伏承四月十二日垂示法語一封。專出非望。顏無所措。某在朝時。以安上恤下爲念。竭力趨公。流落已來。僻在遐陬。未逢善友開示。不知所爲。但以看藏教爲事爾。行年七十有五。來日無多。常恐辜負平生。姑息待死。何圖於千萬里關山之外。興起大悲。賜之經要話頭。令下鈍上。蓋普賢之化。無間於遠近方隅。皆在一念故也。始自拜賜之日。至今將爲二百日矣。觀劣心浮。猶未知歸。然以謂以大宗匠。加被之深。豈元一日作二伽陀曰。拖泥帶水引初機。示以參詳四種疑。不待揚眉資目擊。朝焚夕點禮爲師。返炤功夫縱未圓。也知三教一根源。綿綿密密崖來去。誓報他家莫大恩。以此發願立志。必於當當來世。隨所住處親近承事去也。願傾慈接引。許爲內眷。和南。

< 和尚所寄法語 >

古今無二道。三才三教一根源。惺惺靈利者。迴光一炤。便可悟明。以一行一相三昧。洗滌多生塵習。不滯無爲。不住有爲。遊普賢道園十力家風。動安居士李司諫承休。具大丈夫志氣者也。宜看五祖演和尚示衆云。釋迦彌勒。猶是他奴。他是阿誰當疑。釋迦彌勒是佛因甚。猶是他奴。又疑畢竟他是阿誰。大疑之下。必有大悟。無疑不悟。或者疑輕時。更疑生從何來。卽今性命在何處。生死到來作麼生脫。死從何去。又有此四種疑。疑得重也。却提他是阿誰一句作話頭。迴本念光。自看獨炤。功圓一聲。■地疑團破盡。法法圓通洞明。父母未生前面目。下得三轉語諦。當得承當已。更宜見本色宗匠。求指快進。高超闊步。取于力妙果。吾祖達摩大師有教誠頌云。悟佛心宗等無差玄行解相應。名之曰祖解者。眞全之解。非意解學解等解也。行者稱實之行。普賢妙行也。末渾中多有學口頭三昧。以助談柄爲禪者。錯用身心。一生光陰易過。生死岸頭得力否。具大志氣者。眞參實悟。此道非大悟。不能洞明悟了。又要掃蕩情意。識及盡玄妙。然後於六六時中。四威儀內。綿綿密密。提撕話

頭。話頭自然現前時。方知得力。五欲八風不能入。作動靜如一。到這裏。大悟近矣。却不可將心待悟。亦不可用意卜度。尋文字語言解會。妙在惺惺。不待緣而炤。不觸事而知。從教話頭。歷歷於無造作處。築著磕著。徹底掀翻大悟。最爲奇特。切忌得少爲足。千萬惺惺。大德元年丁酉歲四月十二日。書于中吳休休禪庵蒙山德異。

② 佛祖三經 수록 德異 敍文(운흥사 장본)

道無今古 人有悟迷 是故釋迦老人承願力 示現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 言無言言 開示人天 令各悟入佛之知見 惟四十二章經 遺教經者 是始終教誡法寶也 後漢永平間 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 焚驗有靈 立教與宗 梁大通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 前來直指 與經符契 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 而有大幸也 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 言下有悟 執侍數載 三拜得髓 授受衣盂 七傳而至百丈 百丈得黃蘗運公滌山祐公大振玄風 增輝佛日 滌山因見學者少有放逸 遂述法語 警其未悟 策其未到 文簡語直 義博意深 叢林中以四十二章經 遺教經 滌山警策謂之佛祖三經 能一覽而直前者 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 宣和間又得遂禪師直注深義 初學易通妙矣哉 自此有志於道者省力甚多 不懷香而見佛祖 不動步而登覺場 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休休庵 以廣其傳哉 以財鉞梓名財施 以教傳法名法施 財法二施名大施 佛云 能行大施者 決證菩提 靜山將來種智圓明 十號俱彰 因此勝緣也 覽斯經者 卻宜淨心如虛空 向未開卷以前著眼 掀翻窠臼 洞徹玄微 挽回眞風 大興末運 若也見義勇爲 將來亦可成器 其或循行數墨 辜負佛祖多矣 至元丙戌(1286)燈節絕 牧叟德異敘

** 본서에는 行草로 되어 있는 것을 楷書로 옮긴 것임.



○ 현 상

원래의 표지가 결락된 가철상태임. 첫째 장 가운데 하단이 손상되어 5자가 결락되었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함. 표제는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는데 「佛說四十二章經」을 간략하게 쓴 것으로 판단됨.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은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滌山警策)」 등을 합철한 책이다. 「불설사십이장경」은 석가의 가르침을 42장으로 간추려 설명한 것으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불유교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고, 「위산경책」은 중국 위양종(滌仰宗)의 조사인 위산 영우(靈祐)의 경책(警策)이다. 모두 송나라의 수수(守遂)가 주석을 달았다. 관심의 제목은 각각 「四十二章」, 「遺教」, 「滌山」이다.

책의 편성은 지원 병술(1286)년에 몽산화상 덕이(德異)가 지은 원래의 서문에 이어 「불설사십이장경」,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불유교경」, 「注滌山警策序」, 「위산경책」 등이 차례로 있다.

권미에는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이 있고, 발원문의 끝에는 “同願比丘 法空刊行」 助緣居士 尹善”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간본은 행심이 발원하고, 운선의 도움으로 범공이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운흥사 소장본은 권미 지문(誌文)의 “至正辛丑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과 같이 1361년(공민왕 10)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인쇄된 시기는 간행된 지 수 십년이 지난 여말선초로 판단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조삼경』은 고려시대의 간본 2종이 있다. 한 종은 전주 원암사에서 1361년(공민왕 10)년에 중간한 것이고, 다른 한 종은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것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1책이 보물 제69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 동일한 판본으로 공개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고조21-141)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귀111-A) 그리고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복장의 「불설사십이장경」(전남 유형문화재 제200호,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반엽이 결락되었음) 등이 있다.

이 책은 몽산화상을 숭배하던 고려말기 불서간행의 정황과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희귀한 판본이다. 약간의 흠결은 있으나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기 타

충남 예산 수덕사의 응담 대종사가 당시 수덕사의 성종스님(속명 김동화)에게 기증하였고, 이후 운흥사 주지(1992~1996)로 재임하게 된 성종스님이 2009년 4월 10일에 후임 주지인 혜원스님과 협의하여 운흥사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함.



○ 현 상

전체적인 현상은 양호하나 앞뒤의 표지는 탈락되어 가철 상태로 제책되어 있다. 표제는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는데, 이는 ‘佛說四十二章經’을 축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 서지사항

佛祖三經. 蒙山 德異 編

木版本. 全州, 圓嶺寺, [1361년(恭愍王 10)刻, 麗末鮮初 印出].

1책. 四周單邊, 반곽 20.2×15cm, 無界, 8행 17자 注雙行, 상하향흑어미, 28×16.5cm. 楮紙. 線裝.

관심제 : 四十二章, 遺教, 滄山

序 : 至元丙戌(1286)…… 德異敍

注滄山警策序 : 紹興 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滄山警策 末 : 右三經乃/佛祖深切之語凡學者之所不易者也/六祖云若依吾教雖去吾千里如常在/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發願比丘 行心誌/同願比丘 法空刊行/ 助緣居士 尹善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석가가 설법한 「佛說四十二章經」과 석가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 가르침인 「佛遺教經」, 그리고 중국 僞仰宗의 개창조로 알려진 위산 靈祐의 어록인 「滄山警策」을 합집한 책이다. 특히 「佛說四十二章經」은 불교의 호한한 내용을 42장의 요지로 나누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스님들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佛祖三經』은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361년에 全州 圓嶺寺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권수에는 원나라 蒙山 德異가 초서로 쓴 서문이 붙어 있고 서문 다음 장에 ‘佛說四十二章經’이란 권두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의 2행에 역자인 ‘迦葉摩騰’과 ‘法蘭’ 등이 3행에는 주해자인 守遂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송나라 眞宗이 쓴 ‘불유교경’에 대한 어제 서문이 실려 있다. 이 서문에 이어

‘佛遺教經’의 권두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에 역자 및 주해자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불유교경’에 이어서 張銖가 1139년에 쓴 ‘위산경책’의 서문이 실려 있고, 서문 다음 장부터 ‘滄山警策’의 경문이 시작되고 있으며, 끝에는 비구 行心の誌文이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은 행심이 발원하고 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尹善의 도움으로 1361년에 全州 圓嶺寺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宋元板을 저본으로 고려시대에 전라도 전주 원암사에서 1361년에 간행된 판본과 1384년에 간행된 것 등 2종의 판본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흡사하나 판식의 특징상 판면에 계선의 유무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1361년판은 계선이 없고, 1384년판에는 계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원암사판은 권말에 병술(1286)년에 益大가 짓고 쓴 발문이 없는 차이가 있다.

운홍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694호(1981. 3. 지정)로 지정되어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국립도서관, 고대도서관 그리고 장흥보림사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호암미술관 및 보림사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본과 비교한 결과, 모든 형태적 특징은 동일하나 인쇄상태가 완결劑缺이 보이고 있으나 희소성이 있는 판본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佛祖三經』은 러말선초 사이에 한국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 덕이가 편찬한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의 三經의 합집이다. 권말의 誌文에서 1361년에 전라도 전주의 圓嶺寺에서 行心の 발원으로 法空이 刊役의 총책을 맡아 판각한 목판본으로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밝히고 있다. 불조삼경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2종이다.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694호(삼성미술관 리움)로 지정되어 있다. 1384년판도 보물 제695호(미술관), 보물 제1224호(한솔종이박물관), 보물 제1224-2호(범어사) 등 3건이 지정되어 있다. 불교문화사와 출판인쇄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송일기, 부산 범어사 소장 『佛祖三經』 해제, 금정구청, 2010

○ 기 타

예산 수덕사에 계셨던 응담 대종사가 소장하다가 성종스님(속명 김동화)에게 전승한 것을 성종스님이 나주 운홍사에 2009년 4월 10일 무상기증하였다고 한다.

11.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가. 검토사항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4.0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 유형문화재 제17호(1972.05.14.지정)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용주사 효행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용주사
- 수 량 : 73판(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 규 격 : 목판: 세로 31.5 × 가로 53.5 cm 내외
동판: 세로 22.5 × 가로 44.5 cm 내외
석판: 세로 27.5 × 가로 43.0 cm 내외
- 재 질 : 목·동철·석(木·銅鐵·石)
- 판 종 : 목판·동철판·석판(木版·銅鐵版·石版)
- 형 식 : 경판(經版)
- 제작연대 : 1796~1799년(正祖 20~23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7張, 科判2張, 漢文本22張, 國文本49張)의 木版·銅鐵版·石版의 經版으로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다.

정조 20(1796)년 仲夏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木版이 조성되자 經版이 보다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變相圖」는 특별히 銅鐵版에 版刻하고 漢文의 經文도 石版으로 다시금 조성하였는데, 銅鐵版은 木版과 함께 정조 20(1796, 병진)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고 石板은 正祖 23(1799, 기미)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恩重經圖鐵板 7板」, 「經文 13板」, 「圖 5板」, 「諺解 25板」, 「恩重經石板 24板」 등 74판의 經版 중에서 현재 漢文本 木版의 刊記 1版(?)을 제외한 73판의 經版이 龍珠寺에 完整하게 전래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經版의 특징은 매우 정교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變相圖>에는 檀園 金弘道(1745-?)의 畫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本文은 당대의 名筆이던 寤修 黃運祚(1730-1800)의 書風이 우리를 安息할 수 있게 해주는 名品の 經版이다. 오늘날 龍珠寺 刊行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經典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孝心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匠人들이 魂心을 쏟아 造成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 채 花山 龍珠寺에 소장되어 오고 있다. 비록 그 造成의 시기가 조선시대 後期라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正祖大王의 孝行心과 匠人의 藝術的 英魂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王室文化財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등 73판의 경판은 정조 20년(1796)부터 이후 3년 사이에 정조의 효심으로 조성되었다. 목판에는 변상도, 과문, 한문본, 국문본 등을, 동철판에는 변상도, 석판에는 과문과 한문본 등을 새겨 놓았다. 그러므로 목판으로 된 한 질, 동철판과 석판으로 된 한 질 등 모두 두 질이 다른 매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경판들은 당대 최고 장인들의 예술성까지 곁들여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더욱이 보존상태가 온전하다는 점, 18세기말의 국어사 자료가 된다는 점, 이전의 판화와는 달리 경판의 변상도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용주사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板은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모두 73판으로 1796~1799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목판은 변상도, 科判, 한문본, 국문본 등이 양면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특히 목판의 刀刻 형태까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석판은 과판과 한문본 등으로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이 경판들은 정조의 명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匠人의 솜씨와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상태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화성 용주사에서 보내져서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사실이 「鑄字所應行節目」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書誌記述: 調查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 [編譯者不明]; [正祖·純祖 御命製作]. -- 木版·銅鐵版·石版. -- [漢城]: [製作處不明], [正祖 20-23(1796-1799) 推定].

木版 42版, 銅鐵版 7版, 石版 24版, 合73版: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2.0×16.0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花口, 上內向黑魚尾; 32.5×21.2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卷頭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불설대보부모은중경[版]

版心題(花口): 恩重經·恩重經諺解

內容: -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7張), -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2張), -佛說大報父母恩重經(22張), -불설대보부모은중경(49張) (합 80장)

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 -初序分, -二正宗分四<一報恩因緣三(一如來頂禮·二佛認宿世·三二分問答), 二歷陳恩愛二(一彌月劬勞·二十偈讚頌), 三廣說業難二(一指數諸愆·二援喻八種), 四果報顯應三(一啓發懺修·二阿鼻墮苦·三上界快樂)>, -三流通分三<一八部誓願, 二佛示經名, 三人天奉持>

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如來頂禮, 懷耽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回乾就濕恩, 乳哺養育恩, 洗濁不淨恩, 遠行憶念恩, 爲造惡業恩, 究竟憐愍恩, 周遶須彌, 阿鼻墮苦, 上界快樂.

卷末刊記: 歲柔逃執徐(丙辰, 1796, 正祖 20)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木版本·石版本 同一)

版크기: 木版: 세로 31.5 × 가로 53.5 cm 내외

銅版: 세로 22.5 × 가로 44.5 cm 내외

石版: 세로 27.5 × 가로 43.0 cm 내외

木版數: <斷面 4版, 兩面 38版, 合 42版, (斷面 4張, 兩面 76張, 合 80張)>

變相圖; (도01·한03), (도02·도06), (도03·한05), (도04·과01), (도05·한04), [도06·도02], [도07·한01]. <斷面 無, 兩面 5版, 合 5版>

科判; [과01·도04], [과02·한10]

漢文本; (한01·도07), (한02·한16), [한03·도01], [한04·도05], [한05·도03], (한06·한17), (한07·공00), (한08·한19), (한09·한11), (한10·과02), [한11·한09], (한12·한18), (한13·공00), (한14·한22), (한15·한20), [한16·한02], [한17·한06], [한18·한12], [한19·한08], [한20·한15], (한21·공00), [한22·한14] <斷面 3版, 兩面 9版, 合 12版>

國文本; (국01·국02), (국03·국04), (국05·국06), (국07·국08), (국09·국49), (국10·공00), (국11·국12), (국13·국14), (국15·국16), (국17·국18), (국19·국20), (국21·국22), (국23·국24), (국25·국26), (국27·국28), (국29·국30), (국31·국32), (국33·국34), (국35·국36), (국37·국38), (국39·국40), (국41·국42), (국43·국44), (국45·국46), (국47·국48), [국49·국09] <斷面 1版, 兩面 24版, 合 25版>

銅版數: 斷面 7版 合 7版

變相圖; (동01·공00), (동02·공00), (동03·공00), (동04·공00), (동05·공00), (동06·공00), (동07·공00) <斷面 7版, 合 7版>

石版數: 斷面 24版, 合 24版

科 判; (석01·공00), (석02·공00).

漢文本; (석03·공00), (석04·공00), (석05·공00), (석06·공00), (석07·공00), (석08·공00), (석09·공00), (석10·공00), (석11·공00), (석12·공00), (석13·공00), (석14·공00), (석15·공00), (석16·공00), (석17·공00), (석18·공00), (석19·공00), (석20·공00), (석21·공00), (석22·공00), (석23·공00), (석24·공00) <斷面 24版, 합 24版>

마구리 및 保護圍: 木版(마구리 있음), 銅版(없음), 石版(四面保護圍 있음)

狀態: 73版 完版完整

□ 現狀: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7張, 科判2張, 漢文本22張, 國文本49張)의 木版·銅鐵版·石版의 經版이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版數는 木版의 경우 <變相圖>·<科判>·<漢文本>·<國文本>을 합하여 斷面4版 兩面38版 合42版(斷面4張 兩面76張 合80張)이고, 銅鐵版의 경우 <變相圖>만 斷面7版 合7版이며, 石版의 경우 <科判>·<漢文本>을 합하여 斷面24版 合24版이다. 도합 73版의 이들 經版은 完整的 完版의 상태로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木版과 銅鐵版은 正祖 20(1796)년 무렵에 製作되고, 石版은 正祖 23(1799)년 무렵에 造成된 것으로 推定된다. 木版의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 53.5cm 내외이고 銅鐵版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44.5cm 내외이며 石版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43.0cm 내외이다. 木版에는 마구리가 있으나 銅鐵版에는 없으며, 石版에는 上下左右 四面에 保護圍가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京畿道 華城市 泰安邑 松山里 188의 龍珠寺의 소유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본래 佛敎의 발상지인 印度에서 撰述된 經典이 아니라,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布敎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撰述된 ‘僞經’으로 알려지고 있어 正式의 佛敎經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심지어 西夏에서도 오래된 經典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大乘經典에 못지않게 널리 유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高宗朝에 王室에서 金銀泥로 書寫한 寫經이 일본의

京都博物館에 남아 있고 忠烈王朝에 木版에 판각하여 인출한 木版本이 경주의 祇林寺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후로 高麗末期까지 王室에서 여러 차례 刊行된 사실이 있다. 또한 儒敎社會인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전국의 유명 寺刹에서 漢文과 國文으로 빈번하게 간행되어 그 種數는 무려 83種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儒敎를 國是로 하였던 조선사회에도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많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功德을 기원하는 佛經으로 신봉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정조(1752-1800)는 일찍이 그의 14(1790, 경술)년 9월에 隆園(莊獻世子)의 齋宮으로 花山에 龍珠寺를 조성하고 청장관 이덕무로 하여금 용주사(龍珠寺) 전각(殿閣) 및 승방의 주련(柱聯) 16구를 지어 나무판에 새겨 절도록¹⁹⁾ 하고, 그의 19(1795, 을묘)년에는 龍珠寺의 奉佛式을 위하여 祈福偈 10首를 親製하면서 “大海量만큼의 墨과 須彌山 무더기만큼의 筆을 몰래 가져다 이 8만 4천 普眼法門의 經義와 敎義를 베끼고, 삼가 偈語를 지어서 三業供養을 바치고, 은혜에 보답하는 福田을 닦으려 한다.”고 한 바 있다.²⁰⁾

또한 그의 20(1796, 병진)년 봄에는 親製한 “이와 같이 들었노라(如是我聞)/ 부처님께서 열 가지 은혜를 깨치시고 사람들에게 권하시니(佛諦十恩爲人勸)/ 수미산 둘레를 천 바퀴 돌고(遶須彌千匝)/ 경전 만권을 만들지라도(造經典萬卷)/ 여덟 종류의 범음으로 대중에게 고하는 것만 못하니(不如以八種梵音告大衆)/ 각각 아버이를 위하여(各各爲爺孃)/ 천상에서 쾌락을 누리도록 일제히 발원하라(得生天上快樂齊發願)”는 <恩重經偈語>를 간행하여 頒帙하고 이어서 그 체를 모방하여 諸臣에게 和答하도록 명하면서 “佛乘에 대해서는 일찍이 어두운 바였다. 그런데 「大報父母恩重經」은 偈頌으로 깨우침이 절실하고 간절하여 衆生을 손잡고 引導하여 極樂에 오르도록 하니, 우리 儒敎의 조상의 은혜를 갚으며 人倫을 돈독하게 하는 취지와 부절처럼 들어맞는다. 그것을 어찌 선달 그믐날이나 단오날 書雲觀에서 찍어 주는 재앙을 물리치게 하는 符籙에다 견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선달 그믐날과 단오날의 두 명절에 이 偈頌을 대신 붙이도록 하고 그 印本을 두루 내려 주게 하였다.”²¹⁾고 하였다. 정조의 <恩重經偈語>를 바탕으로 여러 신하들이 賡進한 「

19) 李德懋 著, 靑莊館全書. 卷20. 雅亭遺稿稿稿 12. 應旨各體. ‘龍珠寺柱聯’條.

庚戌九月 華城之龍珠寺成 承命製進柱聯十六句 仍躬往 監董劄劄以揭之 三千歲優鉢花 長春壽國 十萬種菩提子 有秋福田 護聖殿 八萬四千法門 同臻彼岸 二百五十大戒 共拔迷塗 大雄寶殿 二萬里和訶國 普沾石井功德泉 八十項祇陀園 遍開金地 吉祥蕊 十方七灯閣 結無盡喜歡緣 常住極樂淨土 除一切苦惱想 普渡大願慈航 極樂天願殿 鴈形獅形鵠形 諸佛諸天千劫護 牛乘鹿乘羊乘 善男善女一時聽 天保樓前 蓮花偈貝葉經 不二門中天籟 香積飯伊蒲饌 無量劫前地肥 天保樓後 兜巒宮中稟 大偈 普濟衆生 般若台上演眞詮 超脫浩劫 曼殊利室 直到佛祖不知處 祇是半塗 且向父母未生前 試道一句 那由他寮.

20) 正祖 著, 弘齋全書. 卷55. 雜著2.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十首并解 乙卯)’條.

寺爲顯隆園齋宮而建也 小子竊取大海量墨 須彌聚筆 書寫此八萬四千普眼法門之經義乘敎 謹述偈語 以效三業供養 一業謂身至誠敬禮 二業謂口發言稱美 三業謂意正意念 用修報恩福田 謂父母有養育之恩 若能供養恭敬 是名報恩福田 ….

21) 正祖 著, 弘齋全書. 卷56. 雜著 3. ‘印頒恩重經偈語 仍倣其體 命諸臣和之(并小序 丙辰)’條.

恩重偈廣載軸」이 편찬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정조는 “佛經은 내가 본래 모르는 것이다. 병진(1796)년 봄에 우연히 「大報父母恩重經」의 偈語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생동감 있는警句와 간절하고도 진지한 내용이 우리 儒敎에서 조상의 은혜를 갚고 人倫을 돈독하게 하는 취지와 表裏를 이루는 점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달 그믐날과 端午의 두 명절에 이 偈를 印刷하여 바치게 하여 門楣에 붙여서, 書雲觀에서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符籙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시 게 한 편을 지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偈語에 廣載한 이는 14인이다.”²²⁾고 하였다.²³⁾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조는 父母의 回甲을 맞이하여 평소 자신이 존경했던 獅駟(?-?) 寶鏡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찬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版刻·印施하여 널리 流布시키고자 하였다.

정조는 “異端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人倫을 어그러뜨리고 父母를 버리기 때문이다. 「恩重經」도 불교서적 중의 한 가지 법이나, 그 책에는 父母가 애써 길러 준 은혜에 크게 보답할 것을 말하고 因果應報가 뚜렷하게 감응하는 구분을 낱낱이 서술하여 上界와 阿鼻地獄의 圖說에 이르러서는 똑똑히 알 수가 있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고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刊行하는 일은 실로 感應奮發하고 징계하는 뜻을 부여한 것이거니와, 읽는 사람을 만약 佛經을 숭상하고 믿는 것으로 의심한다면, 오랑캐의 내용이면 물리치고 師門의 내용이면 나오게 한다는 義理가 결코 아니다.”²⁴⁾²⁵⁾고 하면서 이에 당시 圖畫署의 으뜸 畫員이었던 檀園 金弘道(1745-?)로 하여금 變相圖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한 당대의 名筆

佛乘嘗所味 而大報父母恩重偈 警切割摯 導衆生以躋極樂 與吾儒報本篤倫之旨義 爲溪心之印月 豈比於除夕重午雲觀擗頌之禳辟符 自今兩名日 代貼此偈 以印本遍與之 如是我聞佛諦 十恩爲人勸 遠須彌千匝 造經典萬卷 不如以八種梵音告大衆 各各爲爺孃 得生天上快樂齊發願.

22) 正祖 著,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4. 御定 4. 廣載軸. ‘恩重偈廣載軸’條.

佛乘予所素味 而丙辰春 偶覽大報父母恩重偈 愛其警切割摯 與吾儒報本篤倫之旨相表裏 遂命除夕重午兩名日 印進此偈 貼諸楣上 以代雲觀擗頌之禳辟符 復爲偈語一篇 頒示諸臣 廣載者十四人.

23) 蔡濟恭 著, 樊巖先生集. 卷59. 雜著. ‘廣進御製大報父母恩重經偈’條.

臣奉前偶上竹山七長寺 見有恩重經 拈讀未半 感淚自然盈眶 此人心之不待勉強而然者 夫吾儒之不以佛乘爲 在夷狄則進之者 以其不知有五倫之重也 今是經也說及父母恩重 描寫得十分真切 造人所不能到 其感人之深 不必讓陸子靜論說 魯論旨義聽之者汪然流涕 此豈可以不列於學者載籍少之也哉 遂懇僧人挾以來 至今置在几上 珍惜愛護 恨世之同我見者蓋尠 今伏承聖製恩重偈 益知天地之大無物不容 而推原聖意 蓋欲使天下之圓顛方趾 皆有以知父母恩重而致比屋可封之俗也 況除夕重午除雲觀禳辟符 用此偈代之 尤有補於化俗之政 臣百回莊誦 乃敢廣韻以進曰 如是我聞 努目低眉是懲勸 恩重半偈 亦足以金繩引路 顧安事汗牛之八萬大藏卷 報父母恩 上極樂界 不報父母恩 墮阿鼻獄 閻浮羅各各衆生 阿鼻獄是願 極樂界是願.

24) 正祖 著, 弘齋全書. 卷177. 日得錄 17. ‘原任直閣臣南公轍丙辰錄’條.

所惑乎異端者 以其悖倫而違親也 恩重經 亦佛書中一法 而其言大報父母劬勞之恩 而歷敘果報顯應之分 以至上界阿鼻之圖說 歷歷可指 足令愚夫愚婦見而知曉 故今番刊印之舉 實寓感發懲創之意 讀者若以崇信佛經見疑 則大非夷狄則揮 門牆則進之義也 (原任直閣臣南公轍丙辰錄).

25) 南公轍 著, 金陵集. 卷20. 日得錄. ‘丙辰錄’條.

所惑乎異端者 以其悖倫而違親也 恩重經 亦佛書中一法 而其言大報父母劬勞之恩 而歷敘果報顯應之分 以至上界阿鼻之圖說 歷歷可指 足令愚夫愚婦見而知曉 故今番刊印之舉 實寓感發懲創之意 讀者若以崇信佛經見疑 則大非夷狄則麾 門牆則進之義也 以上丙辰錄.

家였던 寤修 黃運祚(1730-1800)로 하여금 漢文과 國文의 版下本을 淨書하도록 하였다.²⁶⁾²⁷⁾ 정조는 평소 “지금 사람들의 글자는 대개가 무게가 없고 경박스러워서 뼈뚫하게 기울어지거나 날카롭고 약해 보이지 않으면 사납고 거칠다. 이것이 비록 예사로운 筆札의 미미한 것이기는 하나, 이렇게 習俗이 점점 못해지고 순수하고 참된 기상이 나날이 엷어지고 있으니, 어찌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王右軍도 필요 없고 鍾太傅도 필요 없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惇實하고 圓厚하며 沈著하고 安定되어야 한다. 둔탁하여 墨豬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깡말라서 고니를 새기려다 오리를 만드는 결과는 빗지 말며, 졸렬하더라도 참된 기운은 그대로 있게 할지언정 공교롭게 하려다 기이하고 거짓됨만을 숭상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 정채될지언정 흐르지는 말게 하고 차라리 둔탁할지언정 각박하게는 하지 말며, 용렬할지언정 기이하게는 하지 말고 平凡할지언정 까다롭고 편벽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적인 데로 빠져 든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는 참됨을 전수하는 要訣이다.”²⁸⁾ 하였다. 版下本을 淨書한 黃運祚는 당시 정조가 즐겨 쓴 ‘惇實하고 圓厚하며 沈著하고 安定’된 書風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正祖朝에 版刻과 印刷를 전담했던 鑄字所나 校書館에서 특출한 匠人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木版에 版刻하도록 하였다. 版刻에 사용된 목재는 가볍고 단단한 落葉樹를 사용한 듯 經板은 종이처럼 가볍다. 그것은 당시 芸閣에서 版刻한 木版의 특징에서 볼 있듯이 정교하게 鍊版되었던 때문인 듯하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의 版刻이 완료되자 정조는 마지막 經版에 ‘歲柔逃執徐(丙辰, 1796)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製作時期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은 정조 20(1796)년 仲夏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조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이 보다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20(1796)년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玉石에 새기도록 명하여 ‘變相圖’는 특별히 銅鐵版에 版刻하고 漢文의 經文도 石版²⁹⁾³⁰⁾으로 다시금 제작하

26) 宋煥箕 著, 性潭先生集, 卷21. 墓碣. ‘道谷黃公墓碣銘(并序)’條.
… 乙卯承命書進恩重經.

27) 洪直弼 著, 梅山先生文集, 卷41. 墓誌銘. ‘僉中樞黃公墓誌銘(并序)’條.
… 丁巳上特下新刊恩重經以寵之曰 爾文學行誼 予所稔知 此經雖佛書 亦一孝親之具 忠孝無二致 爾其識之 兼賜杜律.

28) 正祖 著,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柳公權曰心正筆正 程子曰作字非是要字好 卽此是學 書字雖卽技之小者 亦不可胡亂無法 只求妍美 全欠典則 卽近世所謂善書者 若論以心正是學之語 果何如哉 今人寫字 類皆輕佻浮薄 如不斂斜尖肥 便多怒張荒率 此雖尋常筆札之微 其習俗之每下 淳眞之日漓 有如此 豈勝慨然之甚 不必曰王右軍 不必曰鍾太傅 一言蔽之 惇實而圓厚 沈著而妥帖 寧肥而犯墨豬之謬 毋瘦而歸刻鵠之陋 寧拙而眞氣自在 毋巧而詭僞徒尙 寧滯母流 寧鈍母刻 寧劣毋母狂奇 寧庸庸毋苛僻 莫曰矯枉而過實 是真傳之訣爾.

29) 尹行恁 著, 碩齋稿, 卷15. 題跋. ‘題黃道谷(運祚)恩重經石刻帖後.’

였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의하면 “恩重經圖鐵板 七板 丙辰造成內入”,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이라 기록³¹⁾되어 있어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銅鐵版은 木版과 함께 정조 20(1796, 병진)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고 石板은 正祖 23(1799, 기미)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은 造成된 후에 곧바로 鑄字所에 收藏되었다가 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중 木版·銅鐵版·石版의 도합 73판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이 顯隆園(莊獻世子)의 願刹이던 花山の 龍珠寺로 移管되었던 듯하다.³²⁾³³⁾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에 대하여는 「鑄字所應行節目」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鑄字所應行節目」의 <冊板>條에는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花山用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등으로 기록³⁴⁾되어 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關聯 經版數와 <龍珠寺所藏>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關聯 經版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表> <鑄字所 所藏>과 <龍珠寺 所藏>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數 比較

筆家之有王羲之 猶儒家之有六經也 筆而捨王則外道也 黃道谷卽王之正脈也 後人如欲求王 當先從黃求 戊午春日 著泉子書.

- 30) 李圭景 著,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釋典類. ‘釋典總說’條.
我東則正廟丙辰間 命刻恩重經于玉石 而亦有御筆 藏於華城龍珠寺 蓋因顯隆園願刹故也.
- 31)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摛文院], [純祖 14(1814) 推定].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
- 32) 朴允默 著, 存齋集. 卷9. 詩. ‘題曼殊利室壁上(室在龍珠寺東廡)’條.
天賜華題侈寺門 万年爲是護仙園 淨供祭品君臣義 虔奉經文父母恩 寺藏恩重經板 地迥丹樓通瑞氣 山深玉井發眞源 福田更有新秋稅 惠澤如今及緇髡.
- 33) 朴允默 著, 存齋集. 卷8. 詩. ‘龍珠寺’條.
花山之山何崔嵬 龍從千里蜿蜒來 及到山盡水住處 吐出寶珠明光開 所以大拓吉祥地 金殿石樓相對起 天錫嘉額以侈之 二字煌煌因地美 爲是咫尺奉仙寢 四時豆實備祭品 昔年聖孝無不及 禪場艸木亦能感 仰瞻寶偈十襲藏 夜夜空山發虹光 更有一部恩重經 古龕猶帶內府香 緬昔琬琰登梓日 承命董役恐遺失 今來摩挲增悽愴 悅若前生不可悉 寄語曼殊寮中髡 佛告大衆父母恩 君父一體能知否 若有知之意有存 念念齊發保護願 丹心長照不二門.
- 34)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摛文院], [純祖 14(1814) 推定].
…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華城龍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

項 目	版 種	鑄字所	內 入 時 期	龍珠寺	備 考
恩重經圖 鐵板	銅鐵版	7	丙辰(1796)造成內入	7	
經文	木 版	13	丙辰(1796)造成下送 花山用珠寺	12	漢文本 刊記 1版(?)
圖	木 版	5		5	變相圖
諺解	木 版	25		25	國文本
祈福偈	木 版	9		-	
恩重經眞言 大板	木 版	1	丙辰(1796)造成	-	
	小板	1		-	
恩重經 石板	石 版	24	己未(1799)造成內入	24	
石板		12	自原營上來恩重經用 餘封置	-	
計	木銅鐵石	97		73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祈福偈 9板’, ‘恩重經眞言大板 1板 小板 1板’, ‘石板 12板’ 등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나,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恩重經圖鐵板 7板’, ‘經文 13板’, ‘圖 5板’, ‘諺解 25板’, ‘恩重經石板 24板’ 등 74판의 經版 중에서 漢文本木版의 刊記 1版(?)을 제외한 73판의 經版이 龍珠寺에 完整하게 전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薨去하고 그의 둘째 아들 순조는 즉위 초기부터 父王의 遺志를 받들어 父王이 저술한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正祖朝에 제작이 완료되어 龍珠寺에 所藏되고 있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으로 印出한 經典도 오늘까지 많은 도서관과 개인들에 의하여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 천부 이상을 印出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正祖朝에 제작된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經版의 특징은 매우 정교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아주 정형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各行은 界線으로 구별되어 있고 每半葉의 行字數는 8행 16자이다. 版心部의 上部에는 黑魚尾가 內向하고 있고 下部에는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魚尾의 上部에는 ‘恩重經’의 花口가 있다. 특히 <如來頂禮>·<懷耽守護恩>·<臨產受苦恩>·<生子忘憂恩>·<咽苦吐甘恩>·<回乾就濕恩>·<乳哺養育恩>·<洗濁不淨恩>·<遠行憶念恩>·<爲造惡業恩>·<究竟憐愍恩>·<周遶須彌>·<阿鼻墮苦>·<上界快樂> 등의 變相圖에는 檀園 金弘道(1745-?)의 畫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本文은 당대의 名筆이던 寤修 黃運祚(1730-1800)의 書風이 우리를 安息할 수 있게 해주는 名品の 經版이다.

오늘날 龍珠寺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經典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孝心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匠人들이 魂心을 쏟아 造成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 채, 아직 지방유형문화재로 머물러 있다. 비록 그 조성의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라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정조의 孝行心과 匠人の 藝術的 英魂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王室文化財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7張, 科判2張, 漢文本22張, 國文本49張)의 木版·銅鐵版·石版의 經版으로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다.

정조 20(1796)년 仲夏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木版이 조성되자 經版이 보다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變相圖’는 특별히 銅鐵版에 版刻하고 漢文의 經文도 石版으로 다시금 조성하였는데, 銅鐵版은 木版과 함께 정조 20(1796, 병진)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고 石板은 正祖 23(1799, 기미)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恩重經圖鐵板 7板’, ‘經文 13板’, ‘圖 5板’, ‘諺解 25板’, ‘恩重經石板 24板’ 등 74판의 經版 중에서 현재 漢文本 木版의 刊記 1版(?)을 제외한 73판의 經版이 龍珠寺에 完整하게 전래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經版의 특징은 매우 정교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變相圖>에는 檀園 金弘道(1745-?)의 畫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本文은 당대의 名筆이던 寤修 黃運祚(1730-1800)의 書風이 우리를 安息할 수 있게 해주는 名品の 經版이다. 오늘날 龍珠寺 刊行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經典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孝心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匠人들이 魂心을 쏟아 造成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 채 花山 龍珠寺에 소장되어 오고 있다. 비록 그 造成의 시기가 조선시대 後期라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正祖大王의 孝行心과 匠人の 藝術的 英魂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王室文化財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木版·銅鐵版·石版本.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推定]. 龍珠寺 所藏本.

- [正祖·純祖 御命 製作,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木版·銅鐵版·石版.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 純祖 2(1802) 製作 推定]. 龍珠寺 所藏品本.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木版本.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推定].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한古朝21-6, 한古朝21-6-2).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銅鐵·石版本. [漢城] : [鑄字所], [純祖 2(1802) 推定].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古朝21-5-1, 한古朝21-5-2)
-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 [摛文院印], [純祖 14(1814) 推定]. 奎章閣 所藏本. (奎貴 7909)
- 李能和 著, 朝鮮佛教通史. 서울 : 신문관, 1918.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기 타

□ 所藏管理 :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으며, 京畿道 華城市 泰安邑 松山里 188의 龍珠寺의 소유로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獅駟(?-?): 조선 正祖朝의 승려로 호는 寶鏡이다.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全羅南道 長興郡 가지산 寶林寺에 있었다. 정조에게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바쳐 正祖를 佛敎에 歸依시켰다. 정조 14(1790)년에 국왕이 思悼世子(1735-1762)의 舊墓에 龍珠寺를 창건하여 齋社로 삼으려 할 때 그를 南漢山城 都摠攝으로 임명하여 역사를 감독하였고, 사찰이 완공되자 佛像을 조성하였다. 공사 중에 그는 八道都化主가 되어 팔도의 승려들에게 기부를 받아들였고, 완공 후 龍珠寺都摠攝 겸 八道都僧統으로 임명되었다.

□ 金弘道(1745-?):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士能이며, 호는 檀園·丹邱·西湖·高眠居士·醉畫士·輒醉翁 등이다. 萬戶를 지낸 金震昌의 종손이자 金錫武의 아들이다. 당대의 鑑識者이며 文人畫家인 姜世晷(1712-1791)의 천거로 圖畫署畫員이 된 그는 姜世晷의 지도 아래 畫格을 높이는 동시에 29세인 영조 49(1773)년에는 영조의 御眞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肖像을 그리고, 이듬해(1774) 監牧官의 직책을 받아 司圃署에서 근무하였다. 정조 5(1781)년에는 정조의 御眞 翼善冠本을 그릴 때 韓宗裕(1737-?)과 申漢枰(1726-?) 등과 함께 同參畫師로 활약하여 察訪에 되었다. 이 무렵부터 明朝의 문인화가 李流芳

(1575-1629)의 호를 따라 ‘檀園’이라 自號하였다. 정조 12(1788)년에는 金應煥(1742-1789)과 함께 王命으로 金剛山 등 嶺東一帶를 기행하며 그곳의 명승지를 그려 바쳤다. 그리고 정조 15(1791)년에 정조의 御眞 遠遊冠本을 그릴 때도 참여하여 그 공로로 忠淸道 延豐縣監에 임명되어 정조 19(1795)년까지 봉직하였다. 縣監에서 퇴임한 후 晩年에는 病苦와 가난이 겹친 生活苦에 시달리다가 餘生을 마쳤다. 그는 외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또한 도량이 넓고 성격이 활달해서 마치 신선과 같았다 한다.

그는 산수·道釋人物·풍속·화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부터 이름을 크게 떨쳤다. 정조는 “繪事に 속하는 일이면 모두 홍도에게 주장하게 했다.”고 할 만큼 그를 총애했으며, 강세황으로부터는 ‘近代名手’ 또는 ‘우리나라 今世의 神筆’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 黃運祚(1730-1800): 본관은 昌原이고 字는 士用이며 號는 寤修 또는 道川이다. 李适의 난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芝所 黃一皓의 현손이다. 正祖朝의 학자이자 서예가로 어려서부터 학문과 書道에 힘써 이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다. 蔭職으로 出仕하여 관직은 都正에 이르렀다. 尹淳(1680-1741)과 金相肅(1717-1792) 등과 함께 江都三絶로 불리었다. 정조 21(1797)년에 왕명에 따라 「通監綱目」과 「春秋左傳」의 ‘綱’을 써서 바쳐 加資되었다. 仁川府使로 재직 중에 善行碑 2기가 세워졌으며, 孝行으로 고향에 旌門이 세워졌다. 현조 黃一皓의 神道碑文에 글씨를 썼고 漣川 金載久의 墓碑問을 썼으며, <雙峯寺寺蹟碑>를 썼다.

□ 鑄字所應行節目:

板堂考

鑄字所應行節目

鑄字所雖是本閣句管而各在東西近無印役一向拋置未克照察所藏書籍冊板鑄字及諸般物種雨漏蠹傷且多散亂誠極悶然自今爲始另成節目以爲永久遵之地爲齊

一 生生字整理字之當初藏置非不謹嚴而一經印役輒致散佚誠極寒心今番印役後一一照數另成都錄各別典守俾無如前疎虞之弊爲齊

一 生生字整理字今番印役後守櫥諸員等渠自照數依前分入七櫥亦使渠等各自封標成出都錄仍置板堂各櫥都錄下書諸員姓名是置日後出用之時如有欠縮之事依數徵捧後除汰重治爲齊

一 守櫥諸員遞易之時新舊諸員入來鑄所照數傳掌後新差諸員以無頃之意告于本閣而若有頃則依節目徵捧科治同都錄下改錄姓名爲乎矣該色閣吏照管爲齊

一 今番成節目時衛夫人字韓構字及各樣活字所當同爲照數而既非今番出用之字則不

必更考依原都錄修正是遣典守之方一依新節目舉行爲齊
一各樣字照數入櫥後都錄及鑰匙封置本閣爲齊
一各樣冊板及鐵印札俱載於本所都錄依都錄詳細照數區分類別俾無淆雜之弊爲於今
番印役後各樣物種添錄於都錄並爲着實典守俾無闕失之弊爲齊
一內下冊子本所冊子屢經兩漏多致腐傷今既一一照檢釐正目錄是置典守之方曝曬之
節該色閣吏另念舉行爲乎矣若有不謹疎忽之弊該吏論罪爲齊
一冊子曝曬以每年一次爲定而該吏二人無以舉行諸閣吏通同舉行爲齊
一本所各處該色閣吏每朔一次看審有無頃告于入直官前爲於若值大雨則隨時看審爲
齊
一該色閣吏二人自 官劃出專管舉行而限二年遞易爲齊
一本所舊遺在各樣紙地及考文館所在梓作板數爻並移載於都錄中一體典守爲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甲戌七月 日

活字

御筆序文大字四百三十五字

孟子真書字五千五百九十四字

諺書字四千六百五字

衛夫人銅字大字十萬五千六百三十八字

小字四萬四千五百三十二字

丁酉自箕營鑄成

韓構銅字八萬三千六百六十字壬寅自箕營鑄成

燕質木字大字一萬一千五百字

小字一萬一千四百五十字

庚戌質來

燕質木字大字九千六百字辛亥質來

小字九千九百字辛亥質來

生生木字大字十五萬七千二百字

小字十六萬四千三百字

甲寅造成

整理銅字大字十六萬字

小字十四萬字

丙辰鑄成

五倫行實諺書字四千四百字乙卯造成

春秋綱字五千二百六十字丁巳造成○曹筆黃筆並入

冊板

正音通釋五十九板辛丑自箕營造成

八子百選一百十三板癸卯自箕營造成

祈福偈十七板乙卯造成

奎章全韻大本九十板

小本九十板

乙卯造成

立春板大板五言三句

中板七言六句

小板五言九句

七言二十七句

丙辰造成越送本閣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 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華城龍珠寺

恩重經真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整理儀軌圖五十六板 丁巳造成

五倫行實一百六十五板 丁巳造成

五經百篇一百五十五板 戊午造成

春秋黃筆四百五十七板 戊午造成

曹筆四百五十七板 己未造成下送完營次

濟衆新編一百六十四板 己未造成出給典醫監

雅誦七十二板 己未造成

朱書百選九十五板 庚申造成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 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御定四部手圈三百八十八板 辛酉造成

小學大全一百六十三板

諺解二百四十八板

辛酉自原營上來

濟衆丹板二立大一小一

冊芝里

衛夫人字鐵芝里三十板內十三板外閣○十行十八字

韓構字鐵芝里十二板十行二十字

生生字鐵芝里二十五板十行二十字

鐵芝里二十板十行十八字

小芝里十板十行二十二字（上段附記）五板印札鐵條所入裁折移用於分韻小板

整理字鐵芝里三十板十行二十字

整理儀軌鐵芝里十五板十二行二十二字 八坐杜律分韻小板移用

日省錄鐵印札板一坐十行二十字

五經百篇木印札板一坐七行

實錄鐵印札板一坐十五行 杜律分韻小板移用

御製鐵芝里二坐十行二十字

鑄字穀

湖南移劃米五千五百石丁巳五月自均廳移劃

城役加區劃移錄米三千六百七十四石

丁巳耗三百六十七石六斗

丁巳閏六月自均廳移劃

質置米五千二百八石九斗戊午五月質置

以上米一萬四千七百五十石

嶺南劃付米五千二百五十石丁巳閏六月移劃

都合兩南米二萬石每年耗條二千石○嶺南劃付米五千二百五十石內十四石二斗六升

三合九夕戊午因繡啓反逋除減

器用

御筆孟子字櫛壹坐

衛夫人字櫛柒坐

韓構字櫛柒坐

生生字櫛伍坐

整理字櫛柒坐

燕質唐字櫛貳坐

奎章全韻大板匣肆坐

小板匣伍坐

正音通釋板櫛貳坐

八子百選板橫伍坐
·曹筆春秋板匣拾貳坐
·五經百篇板匣肆坐
·整理儀軌板匣壹坐
·祈福偈板匣壹坐
·四部手圈板橫拾壹坐
行用冊櫥壹坐 移奉於 宙合樓
·會計大橫壹坐
一去本閣行用中橫肆坐 壹坐 實錄鑄字入盛藏於外閣
紙籠壹坐 腐傷
·三十二大函壹百坐 陸拾坐見失
·冊登床肆坐
·長臺床捌坐
裁折長檝板貳坐見失
·刀鍊檝板參坐壹坐失
·短足長冊床貳坐
·小冊床肆坐
·濕紙板參立 壹立失
墨石拾坐 貳立失
·褙板壹立
○·藏書卓子拾壹坐
○·冊衣卓子壹坐
·朱漆大櫥壹坐
·登床壹坐
·長橫壹坐
·省記板壹坐
○·硯匣參部
○·硯滴壹箇
○·要江貳坐
○·唾口壹坐
○·灰橫參坐 貳坐破傷
○·大硯貳面 壹面失
○·小硯肆面 貳面失
○·銅絲壹巨里 懸鈴具

・門帳貳部
提燈壹坐 破傷
講圖○・屏風壹坐
○・食鼎參坐 壹坐失
○・鍤沙用壹坐
水桶壹坐 破傷
○・水釜壹坐
○・鍤大也壹坐
○・火爐壹坐
○・燭臺壹坐
○・木燭臺貳坐
地衣伍浮 腐傷
草席地衣貳浮 腐傷
按息肆坐 腐傷
方席參立 腐傷
坐板拾伍立 還下戶曹
・大粉板壹坐
癸酉印役時新備器用
○・小硯匣貳坐
○・硯石肆面
○・硯滴參箇
只有臺三○茶鍾參箇臺具
要江壹坐
・衣巨里貳箇
○・提燈貳坐
○・木燈檠貳坐
○・大盤壹坐
・櫟匙捌立
・一方席參立
・十四又四毛方席貳拾伍立
・七草方席拾貳立
・小門帳壹浮
・六按息柒坐
・五登每陸立

·斗壹坐
·紅函參坐
灰櫝參箇
小磨墨石伍箇
○·鑰煮壹箇
○·鎖鑰拾箇
·大鎖鑰貳箇
○·法貳箇
○·執介貳箇
○·搗鍊刀參箇
水桶壹坐
○·巨褙引刀貳箇
·巨褙板壹立
·濕紙器伍立
·濕紙板貳立
新·冊桌子貳坐
·冊登床壹坐
木函伍坐
刀鍊板壹坐
裁折長板壹坐
·方丫赤肆箇
·每要壹坐
恒式丁巳六月定式
春夏六朔每朔柴油債六兩式三十六兩
秋冬六朔每朔柴油債十兩式六十兩
每朔公事次白綿紙二卷每卷價二兩式四十八兩
行用次白紙二十卷每卷價三錢式七十二兩
告祀債三兩式三十六兩
監官朔下十五兩式一百八十兩
大廳直二名加布各四兩式九十六兩冊匠兼役
使令二名朔下各九兩式二百十六兩
房直二名朔下各五兩式一百二十兩
軍士二名朔下各四兩式九十六兩
每年謄錄次白綿紙五卷每卷價二兩式十兩

正書會計次白綿紙四卷每卷價二兩式八兩

草會計次白紙五卷每卷價三錢式一兩五錢

日記次白紙五卷每卷價三錢式一兩五錢

以上錢文九百八十一兩

官(押)

內下冊子庚申 內下

五經百篇拾件

春秋壹百拾件一件送于玉堂一件 頒賜在一百件 八件無不帙壯白紙合七十六冊在

八子百選壹百捌拾柒件三十七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五十九件 九件加 不帙六冊在

朱書百選貳百柒拾肆件二十四件 內入及 頒賜在二百五十三件 三件加 不帙五冊在

史記英選貳百拾捌件 二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二百六件 十件加 不帙七冊在

陸奏約選貳百參拾陸件十三件 內入及 頒賜在二百三十四件 十一件加

奎章全韻壹千肆百伍拾捌件大本捌百捌拾柒件小本伍百柒拾壹件大小合百二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一千二百四十四件 八件加

杜律分韻參拾參件 十三件 內入及 頒賜在二十三件 三件加

杜陸分韻伍件 在四件內一件第一第二无一件无

杜陸千選壹百貳拾捌件六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二十一件 一件无

雅誦貳百貳拾陸件 三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九十六件 二件加

五倫行實壹百肆拾捌件 在一百四十一件 七件无 不帙八冊在

鄉禮合編參拾壹件 在三十二件 一件加 不帙一冊加

賡載軸伍拾捌冊

人瑞錄參拾捌件 在三十九件 一件加

整理儀軌貳拾件 三件出給都監一件 內入在十七件 一件加一件移奉 望廟樓

忠武公全書肆拾件在三十四件 六件无

濟衆新編陸拾玖件

四部手圈玖拾柒件 在九十五件 二件无 不帙二十三冊在

正始文程貳拾柒件

瓊林聞喜錄貳件

賓興錄拾肆件

司馬榜目拾參件

太學恩盃詩集貳拾貳件 在二十一件 一件无

恩重經具解肆件

祈福偈貳拾柒件

孟子壹件

周易壹件
詩傳壹件
水原外帑庫上來冊子甲子九月上來本閣甲戌九月移置本所
新印經書毛面紙本壹件 木匣
壯紙本壹件
嶺板經書貳件
諺解貳件
新印春秋壯紙壹件
白紙貳件
朱書百選伍拾件
八子百選拾玖件
史記英選伍件
陸奏約選貳拾柒件
五經百篇壹件
奎章全韻貳百參件
正音通釋貳拾捌件
大典通編柒件
兵學指南柒件
武藝通譜貳件 在一件內第一第二无 一件无
諺解壹件
五倫行實貳拾件
思齋集壹件
慕齋集壹件
朴訥齋集壹件
挹翠軒集貳件
石洲集壹件
孤山集壹件
金息菴集壹件
江漢集壹件
各種紙地實數
粉唐紙陸拾捌卷拾伍張
毛面紙參拾柒卷陸張 貳拾卷別置貸用
小毛面紙陸拾壹卷拾捌張
太史紙捌百貳拾陸卷

嶺冊紙玖卷

壯紙肆卷

寧邊紙肆拾壹卷 伍卷以別置完冊紙空印札伍卷相換

白綿紙空印札貳卷

藁精紙肆拾伍卷拾陸張 拾卷別置貸用丁亥五月二十七日

白紙貳千參百陸拾捌卷

嶺白紙壹百肆拾肆卷

一千卷丁丑十月初二日內入 五百卷己卯四月初四日內入五百卷戊寅七月十三日 內入 二百一卷十五張禮記五件印出所入合二千二百一卷十五張除實時在三百十卷五張

落幅紙陸軸伍張 大廳障子塗襜所入下己卯六月 日

自作板肆千玖百伍拾陸立庚辰三經四書開印時取用

壬辰九月各種紙地除腐傷從實數移付別置實數

·粉唐紙前在陸拾捌卷拾伍張

腐傷拾伍卷拾伍張

實伍拾參卷 移付別置

·毛面紙前在參拾柒卷陸張

別置前移去貳拾卷

腐傷參卷陸張

實拾肆卷 移付別置

·小毛面紙前在陸拾壹卷拾捌張

腐傷鼠破貳拾貳卷拾捌張

實參拾玖卷 移付別置

·太史紙前在捌百貳拾陸卷

破傷參拾玖卷

實柒百捌拾柒卷 移付別置

·嶺冊紙前在玖卷

腐傷貳卷拾張

實陸卷拾張 移付別置

·壯紙肆卷 移付別置

寧邊紙前在肆拾壹卷

·伍卷 以別置完冊紙空印札伍卷前已相換 移付別置

破傷貳張

·實參拾伍卷拾捌張內全張參拾卷玖張 移付別置裁折貳百拾捌張伍卷玖張

·白綿紙印札空冊貳卷 移付別置

·藁精紙前在肆拾伍卷拾陸張
 別置前移去拾卷 丁亥五月二十七日
 破傷拾貳張
 ·實參拾伍卷肆張 移付別置
 ·白紙前在參百拾卷伍張
 參拾卷 壺洞左議政宅取用追會減
 腐傷玖卷拾貳張
 ·實貳百柒拾卷拾參張內 印札空冊拾壹卷拾參張 移付別置
 官(押)
 (摺文院印 五六個處)



○ 현 상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목판, 동철판, 석판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수량과 내용이 다르다. 목판은 변상도(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과판(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 한문본(佛說大報父母恩重經), 국문본(불설대보부모은중경장) 등이 4판의 단면(4장)과 38판의 양면(76장)에 양각되어 있다. 동철판(변상도 7판)은 단면에 양각되어 있고, 석판(과판, 한문본 등 24판)은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경판의 수는 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등 73판이며, 장수로는 111장이 된다.

목판은 정조 20년(1796) 5월에 제작되었고, 석판은 1796년부터 1799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동철판 역시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판에는 마구리가 있으나 동철판에는 없다. 전체 경판의 보존 상태는 온전하다.

○ 내용 및 특징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전이다. 줄여서 『부모은중경』 또는 『은중경』이라고 한다. 이 불전은 “불설”이라는 관제와는 달리 후대에 찬술된 僞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사경과 판본이 일본과 국내에 전하는 등 비교적 중요시 여긴 불경이다. 이 경은 정조가 「恩重偈廢載軸」에서 말하였듯이 “조상에 대한 보은과 인륜을 돈독하게 하는 유교의 뜻과 표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80여회나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주사에 소장된 세 종류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목판과 동철판에 양각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도」는

如來頂禮 등 14종의 제명아래 그에 해당하는 변상도가 있다. 이전의 판본과 대비하면, 유교적 관념에 배치되는 변상도는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철판은 목판의 도각 흔적까지 복제해놓은 듯 목판과 거의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판의 글씨에 대해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영의정 채제공이 썼다.”³⁵⁾고 하였으나 후 당대의 명필가인 黃運祚(1730~1800)가 경판을 조성하기 한 해전인 1795년에 “왕명으로 은중경을 써서 바쳤다.”³⁶⁾는 기록도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변상도는 당대 최고 수준의 圖書署 화원이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판식은 사주쌍변, 반엽은 8행 16자, 판심 상단에는 대형의 내향 흑어미가 있다.

이 경판들은 목판과 석판의 권미에는 “歲柔逃執徐(丙辰)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이 경판들이 병진년인 정조 20년(1796)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자소응행절목』의 책판 조에는 이 경판의 완성 시기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恩重經圖鐵板七板(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丙辰造成下送花城龍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丙辰造成) ...恩重經石板二十四板(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이 기록을 따르면 철판(동철판) 7판,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문본) 25판, 『기복계』 9판, 『은중경진언』 대판 1판과 소판 1판 등은 병진년(1796)에 조성되어 주자소에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문본) 25판과 『기복계』 9판³⁷⁾ 등을 용주사에 내려 보낸 것이다. 그런데 『주자소응행절목』에는 석판 24판은 이보다 3년 뒤인 기미년(1799)에 조성되어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전하는 석판의 제24판에는 목판과 같이 정조 20년(1796)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자소응행절목』의 기록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석판은 1796년부터 1799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현재 용주사에는 한문본 17판, 국문본 25판 등의 목판과 동철판 7판, 석판 24판 등이 전하고 있다. 『주자소응행절목』에는 동철판 7판과 석판 24판에 대한 移送 기록은 없으나 이들도 이 시기에 용주사에 내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용주사

35)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 p.579, “命造佛說大報父母恩重經, 木鐵石三板本, 領議政蔡濟恭書之, 藏于華山之龍珠寺.”

36) 宋煥箕 著, 性潭先生集, 卷21, 墓碣, ‘道谷黃公墓碣銘(并序)’. “乙卯(1795)承命書進恩重經.”

37) 기복계 9판은 권말의 “予卽祚二十年乙卯(1795)仲夏”와 같이 1795년 5월에 조성되었음.

에 현전하는 목판 한문본은 모두 17판이므로 18판을 보냈다는 『주자서응행절목』의 기록과는 1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한문본과 변상도는 <표 1>에서 보듯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순서도 없이 판각해 놓았다. 곧 변상도와 과판 그리고 한문본 등을 한 묶음으로 판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본과 변상도를 장수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현전하는 경판의 내용 중에 결락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자소응행절목』에 기록된 18장은 17장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표 1>목판의 구분 및 판각순서³⁸⁾

구분	판각순서
변상도, 과판 및 한문본(17판)	(도1·한3), (도2·도6), (도3·한5), (도4·과1), (도5·한4), (도7·한1), (과2·한10), (한2·한16), (한6·한17), (한7·×), (한8·한19), (한9·한11), (한12·한18), (한13·×), (한14·한22), (한15·한20), (한21·×)
국문본(25판)	(국1·국2), (국3·국4), (국5·국6), (국7·국8), (국9·국49), (국10·×), (국11·국12), (국13·국14), (국15·국16), (국17·국18), (국19·국20), (국21·국22), (국23·국24), (국25·국26), (국27·국28), (국29·국30), (국31·국32), (국33·국34), (국35·국36), (국37·국38), (국39·국40), (국41·국42), (국43·국44), (국45·국46), (국47·국48)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등 73판의 경판은 정조 20년(1796)부터 이후 3년 사이에 정조의 효심으로 조성되었다. 목판에는 변상도, 과문, 한문본, 국문본 등을, 동철판에는 변상도, 석판에는 과문과 한문본 등을 새겨 놓았다. 그러므로 목판으로 된 한 질, 동철판과 석판으로 된 한 질 등 모두 두 질이 다른 매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경판들은 당대 최고 장인들의 예술성까지 곁들여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더욱이 보존상태가 온전하다는 점, 18세기말의 국어사 자료가 된다는 점, 이전의 판화와는 달리 경판의 변상도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용주사소장 영인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다수.

『주자소응행절목』(『한국의 책판목록·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5).

『홍재전서』 권182.

38) “도”는 변상도, “과”는 과문, “한”은 “한문본”, “국”은 국문본을 일컬음. 굵은 글씨는 구분이 필요한 경우임.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송환기, 『성담선생집』. 권2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상)』, 서울, 보림각, [1972].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조순향,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연구”, 『경기대학교논문집』 22집, 1988.
 이해경, “정조시대 판판본 판화연구”, 『미술사연구』 20집, 2006.



○ 현 상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목판 동판, 석판,

○ 서지사항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正祖 命製作]. 木版·銅鐵版·石版. [漢城] [正祖 20-23(1796-1799) 推定].

73판(木版 42版, 銅鐵版 7版, 石版 24版),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2.0×16.0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花口, 上內向黑魚尾 ; 32.5×21.2cm. 楮紙. 線裝.

表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卷頭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불설대보부모은중경[版]

版心題(花口): 恩重經·恩重經諺解

卷末刊記: 歲柔逃執徐(丙辰, 1796, 正祖 20)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木版·石版 同一)

○ 내용 및 특징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深重함을 說하여 유교적으로 변용된 불전의 하나로서 중국·한국·일본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어 부모은중경 또는 은중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원래는 불교경전이었던 것이 도중에 유교적으로 변용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특유한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고 조선 중기이후에는 언해본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용주사 佛說大報父母恩重經板은 목판, 동철판, 석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목판은 변상도, 科判, 한문본, 국문본 등이 양면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특히 목판의 刀刻 형태까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석판은 과판과 한문본 등으로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정조는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寶鏡스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

찬한 恩重經을 판각 印施하여 널리 유포시키고자 하였다. 한문과 순 한글을 병기하여 간행토록 하였는데 변상도는 당시의 우수한 도화사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글씨는 蔡濟恭으로 하여금 정서본을 한문과 한글을 따로 쓰게 하였다. (『樊巖集』 卷59 雜著) 판식은 四周雙邊이며, 界線이 있고. 반엽을 기준으로 목판의 세로는 31.5cm이며, 가로는 53.5cm로 되어 있다. 행자수는 8행으로 매행 16자씩 되어 있다. 판심에는 상허어미가 하향하고 있으며, 아래쪽에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어미 위쪽에 ‘恩重經’ 이란 花口가 있는데 如來頂禮, 懷耽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回乾就濕恩, 乳哺養育恩, 洗濁不淨恩, 遠行憶念恩, 爲造惡業恩, 究竟憐愍恩, 周遶須彌, 阿鼻墮苦, 上界快樂 등의 변상도이다. 용주사판은 한문 외에 한글로 동시에 간행되었으며, 또한 한문본은 목판에 판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石版으로도 간행되었다. 특히 변상도의 경우는 銅鐵版으로 구조되어 관심의 대상되고 있다. 목판과 석판의 말미에는 歲柔逃執徐(丙辰, 1796)仲夏開 印藏于花山龍珠寺’ 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이 경판들이 병진년인 1796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소응행절목』의 冊版條에는 철판 7판, 經文 13판, 圖 5판, 諺解 25판, 祈福偈 9판 등은 병진년(1796)에 조성되어 용주사에 보내졌고, 恩重經眞言 大板 1판, 小板 1판 등도 병진년(1796)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은중경 석판 24판은 기미년(1799)에 조성되어 납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전하는 용주사 석판은 1796년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나므로 1796~1799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용주사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板은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모두 73판으로 1796~1799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목판은 변상도, 科判, 한문본, 국문본 등이 양면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특히 목판의 刀刻 형태까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석판은 과판과 한문본 등으로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이 경판들은 정조의 명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匠人의 솜씨와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상태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화성 용주사에서 보내져서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사실이 「鑄字所應行節目」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 문헌자료

「鑄字所應行節目」, 『한국의 책판목록』 下, 서울, 보경문화사, 1999.
 蔡濟恭, 『樊巖集』 卷59, 雜著

○ 기 타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12. 양휘산법(楊輝算法)

가. 검토사항

“양휘산법”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장로부터 “양휘산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6.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휘산법(楊輝算法)
- 소유자(관리자) : 안숙자(홍명순)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 수 량 : 7권1책
- 규 격 : 34.0cm × 21.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443년 (세종 15년)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 「楊輝算法」은 중국의 楊輝(1238-1298)가 저술한 <乘除通變算寶·法算取

用本末>(3권)·<續古適奇算法>(2권) 및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등 도합 7권 1책의 수학서적으로 朝鮮 世宗 15(1433)년 이전에 中國 元朝의 木版本을 翻刻한 版에서 後印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시대 算學의 基本書로 조선시대의 數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1433)년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楊輝算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版本인 듯하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調査本 「楊輝算法」은 後印本이라 印出狀態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으므로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되며, 또한 현재 관리자 홍명순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우리나라에서 『宋楊輝算法』이 처음 간행된 때는 세종15년(1433)년으로 『실록』에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 당시 간기가 남아서 확인된 책이 일본의 宮內廳 書陵部, 일본 尊經閣에 각각 1건씩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1건, 개인소장가로 신영길씨가 1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대 본도 조사본과 마찬가지로 경주간행 간기 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간행된 책판을 바탕으로 1433년 이후 수십년 이내의 조선전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이 책은 주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算木計算의 방법으로 加, 減, 乘, 除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魔方陳에 대한 권위서로서 세종 당시 산학의 필수 과목이었으므로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 권의 목록 끝에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 또는 ‘古杭余氏 勤德書堂刊行’의 이라는 중국 刊記가 그대로 남아 있어 홍무11년(1378)에 明代 杭州지역에 있던 민간인쇄소인 근덕서당에서 간행한 이후에 1433년 慶州에서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중국본을 번각한 판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양휘산법』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점에서 서적교류사, 역사학, 서지학적 의의가 크며,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 희소성이 크다.(최근 2010년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남송특별전에서 경주간본이 1건 전시된 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된 『宋楊輝算法』은 동일본이 문화재로 지정된 적이 없다. 인쇄와

보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고 있지 않는 책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알려진 간본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편제면과 권말의 경주부 간기 등이 있는 면이 결락되어 있으나 국외 소장본이나 국내 개인 소장의 동일본으로 그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양휘산법』은 남송의 양휘가 저술한 수학서적으로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승제통변산보(乘除通變筭寶)』 3권,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筭法)』 2권 및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모두 7권1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휘산법』이 최초로 간행된 것은 『세종실록』에 의하여 1433년임이 확인되는데,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에서 1433년(조선 세종15) 이전에 후인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원간기와 간행소가 명시되어 있는 등 중국본의 서지학적 특징이 잘 남아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필수 과목이어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서로 국내에 전하는 『양휘산법』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最古本에 해당하는 판본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楊輝算法」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楊輝算法 / 楊輝(南宋, 1238-1298) 著. -- 木版(中國木版翻刻)後刷本. -- [發

行地不明]：[發行處不明]，[世宗 15(1433) 以前 翻刻의 後刷本 推定].

乘除通變算寶 3卷，續古摘奇算法 2卷，田畝比類乘除捷法 2卷 合 7卷1冊：表，插圖，四周雙邊，半郭 22.3×16.1cm，有界，15-16行25字 內外，上大黑口，上下內向1·2·3混葉花文·黑魚尾；34.0×21.5cm. 楮紙. 線裝(改裝).

表題：楊輝算法

卷首題：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續古摘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卷末題：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續古摘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版心題：乘除通變，算用，續古，法

附帶事實：四角朱色스탬프；〈登錄文化財/ 登錄番號 133/ 登錄年月日 '71. 8.

19/ 登錄物品 典籍/ 摘要 1433年/ 整理年月日 '71. 9. 29.〉이 楊輝算法序文首面(133)，乘除通變算寶卷中首面(133-2)，法算取用本末卷下首面(133-3)，續古摘奇算法目錄首面(133-4)，續古摘奇算法卷下首面(133-5)，田畝比類乘除捷法目錄首面(133-6)，田畝比類乘除捷法卷下首面(133-7) 등 7처에 날인되어 있다.

內容：〈序〉；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錢塘楊輝謹識. 〈序〉；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木記(謙光)，印文(晚山/書院). 〈序〉；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 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謹序，木記(謙光)，印文(晚山/書院)

〈乘除通變算寶〉；目錄(目錄末刊記；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卷上；習算綱目(乘除加減用法，因乘損三法則一，乘除加減定法)，相乘六法(單因，重因，身前因，相乘，重乘，損乘)，商除二法(實多法少，實少法多). -卷中；加術五法(加一位，加二位，重加，加隔位，連身加)，減術四法(減一位，減二位，減加，減隔位)，求一乘法(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求一除法(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九歸新舊題括(八十二歸，六十九歸)，算無定法(以括揆數，無括揆數，定位捷徑). -卷下；代乘成術一至三百，代除成術一至三百.

〈續古摘奇算法〉；目錄. -卷上；縱橫圖(洛書數，河圖數，四四圖，五五圖，六六圖，七七圖，六十四圖，九九圖，百子圖，聚五圖，聚六圖，聚八圖，聚九圖，八陣圖，連環圖)，箭管術五問(三五七數，七八九數，十一十二十三，二五七九)，六十甲子內音，求年內日甲，地支逢宿，甲子逢宿，三女歸盟，倍息一月，正斛法，量倉佚，諸田不求積歲竟答畝數，開河定日，共買紗絹，買果求停. -卷下；雉兔同籠，綾羅隱價，三雞析直，三果共價，三酒分身，方金求重，開河問積，乘除代換，河上蕩柁，兵士支絹，定率求差，二七差分，引

繩量木, 賊引盜絹, 方圓總論, 關方不盡法, 度影量竿, 以表望木, 隔水望木.
卷末刊記(古杭余氏勤德書堂)

<田畝比類乘除捷法>; 目錄(目錄末刊記;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
新刊). -卷上; 步法直田, 比斤疋斛, 直田步下帶尺, 比斤兩疋尺, 直田步下
帶寸, 比斤兩銖疋尺寸, 方里田, 比方圍箭, 圓田, 畹田比牛角丘田, 環田,
比方箭圓箭, 圭田, 比勾股梭田, 梯田, 比田塚圍. -卷下; 桑牆四不等田, 截
直田, 差步問長闊和, 和步問長闊差, 直田演段, 共積分方經, 截圭梯環圓
田, 錢田.

墨書: 松故

冊末: <刊年攷>;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
則當時監司通政大夫前刑曹右參議辛引孫/ 也 辛引孫靈山人刑判藝文館提
學.

狀態: 後印本이라 印出狀態가 좋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어 專門的
保存處理 要望.

□ 現狀 : 調査本 「楊輝算法」은 중국의 楊輝(1238-1298)가 저술한 <乘除通變算
寶·法算取用本末>(3권)·<續古適奇算法>(2권) 및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등 도
합 7권 1책의 수학서적으로 朝鮮 世宗 15(1433)년 이전에 中國 元朝의 木版本을
翻刻한 版에서 後印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表題는 ‘楊輝算法’이나 卷首題와 卷末題는 ‘乘除通變算寶’·
‘法算取用本末’·‘續古適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등이며 版心題는 ‘乘除通變’·‘算
用’·‘續古’·‘法’ 등이다. 本文에는 表와 插圖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版式
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3cm 가로 16.1cm 內外이며, 계선이
있고 每行 15-16行25字 內外이다. 版口는 上大黑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1·2·3混葉
花文 또는 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34.0cm 가로 21.5cm 內外이다. 紙質은 楮
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에는 7처에 걸쳐 四角朱色스탬프를 찍어 기록한 <登錄文化
財/ 登錄番號 133/ 登錄年月日 '71. 8. 19/ 登錄物品 典籍/ 摘要 1433年/ 整理年月
日 '71. 9. 29.> 등의 부대사실이 있는데, ‘楊輝算法序文首面(133)’, ‘乘除通變算寶卷
中首面(133-2)’, ‘法算取用本末卷下首面(133-3)’, ‘續古適奇算法目錄首面(133-4)’, ‘續
古適奇算法卷下首面(133-5)’, ‘田畝比類乘除捷法目錄首面(133-6)’, ‘田畝比類乘除捷
法卷下首面(133-7)’ 등의 7처에 날인·기록되어 있다. 이는 1971년에 文化財管理局
의 登錄文化財 일제조사를 통하여 등록되었던 典籍文化財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調査本「楊輝算法」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41-3 경동빌라 304호의 안숙자의 소유이며, 소재지 및 관리자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 아파트 501동 103호의 홍명순이다.

調査本「楊輝算法」은 後印本이라 印出狀態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으므로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되며, 또한 현재 관리자 홍명순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調査本 「楊輝算法」은 <乘除通變算寶上·乘除通變算寶中·法算取用本末下>(3권, 1274), <續古適奇算法上·續古適奇算法下>(2권, 1275) 및 <田畝比類乘除捷法上·田畝比類乘除捷法下>(2권, 1275) 등 도합 7권을 1책으로 엮은 수학서이다.

「楊輝算法」은 일용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에서는 승제법 계산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관하여 밝히고 그것을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續古適奇算法>에서는 비근한 문제로 예로부터 전해진 것을 소개하였으며, <田畝比類乘除捷法>에서는 당시의 지배자가 가장 중시한 田制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등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다. 「經國大典」의 考試科目에서도 「詳明算」, 楊輝의 「楊輝算」 및 「啓蒙算」으로 기록될 만큼 安止齋(明)의 「詳明算」 및 朱世傑의 「啓蒙算」과 더불어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서적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된 「楊輝算法」은 몇몇 筆寫本이 도서관에 전할 뿐이며, 우리나라에서 「楊輝算法」이 처음으로 刊印된 기록은 「世宗實錄」에 전한다. 곧 세종 15(1433)년 8월 25(을사)일에 “慶尙道 監司가 새로 인쇄한 宋朝의 「楊輝算法」 1백권을 진상하므로 集賢殿과 戶曹와 書雲觀의 習算局에 나누어 하사하였다.”³⁹⁾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간행된 것 중의 일부가 日本의 養安院과 尊經閣 및 宮內廳 書陵部(4권3책, 청구기호:404-17) 등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에는 “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 錢塘楊輝謹識”, “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 “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 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謹序” 등 3종의 原序가 기록되어 있고 ‘謙光’의 木記와 ‘晩山/書院’의 印文이 있다. 또한 <乘除通變算寶>의 目錄末에는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續古適奇算法>의 卷末에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8月 25(乙巳)日條.
慶尙道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는 “古杭余氏勤德書堂”，〈田畝比類乘除捷法〉의 目錄末에는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등의 原刊記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에서의 元本은 洪武 11(1378, 우왕 4)년에 勤德書堂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1433)년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乘除通變算寶〉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乘除加減用法’·‘因乘損三法則一’·‘乘除加減定法’의 〈習算綱目〉, ‘單因’·‘重因’·‘身前因’·‘相乘’·‘重乘’·‘損乘’의 〈相乘六法〉, ‘實多法少’·‘實少法多’의 〈商除二法〉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中에는 ‘加一位’·‘加二位’·‘重加’·‘加隔位’·‘連身加’의 〈加術五法〉, ‘減一位’·‘減二位’·‘減加’·‘減隔位’의 〈減術四法〉, ‘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의 〈求一乘法〉, ‘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의 〈求一除法〉, ‘八十二歸’·‘六十九歸’의 〈九歸新舊題括〉, ‘以括揆數’·‘無括揆數’·‘定位捷徑’의 〈算無定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代乘成術一至三百〉, 〈代除成術一至三百〉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續古摘奇算法〉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洛書數’·‘河圖數’·‘四四圖’·‘五五圖’·‘六六圖’·‘七七圖’·‘六十四圖’·‘九九圖’·‘百子圖’·‘聚五圖’·‘聚六圖’·‘聚八圖’·‘聚九圖’·‘八陣圖’·‘連環圖’의 〈縱橫圖〉, ‘三五七數’·‘七八九數’·‘十一十二十三’·‘二五七九’의 〈箭管術五問〉, 〈六十甲子內音〉, 〈求年內日甲〉, 〈地支逢宿〉, 〈甲子逢宿〉, 〈三女歸盟〉, 〈倍息一月〉, 〈正斛法〉, 〈量倉佚〉, 〈諸田不求積歲竟答畝數〉, 〈開河定日〉, 〈共買紗絹〉, 〈買果求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雉兔同籠〉, 〈綾羅隱價〉, 〈三雞析直〉, 〈三果共價〉, 〈三酒分身〉, 〈方金求重〉, 〈開河問積〉, 〈乘除代換〉, 〈河上蕩楫〉, 〈兵士支絹〉, 〈定率求差〉, 〈二七差分〉, 〈引繩量木〉, 〈賊引盜絹〉, 〈方圓總論〉, 〈關方不盡法〉, 〈度影量竿〉, 〈以表望木〉, 〈隔水望木〉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田畝比類乘除捷法〉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步法直田〉, 〈比斤疋斛〉, 〈直田步下帶尺〉, 〈比斤兩疋尺〉, 〈直田步下帶寸〉, 〈比斤兩銖疋尺寸〉, 〈方里田〉, 〈比方圍箭〉, 〈圓田〉, 〈畹田比牛角丘田〉, 〈環田〉, 〈比方箭圓箭〉, 〈圭田〉, 〈比勾股梭田〉, 〈梯田〉, 〈比田塚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桑牆四不等田〉, 〈截直田〉, 〈差步問長闊和〉, 〈和步問長闊差〉, 〈直田演段〉, 〈共積分方經〉, 〈截圭梯環圓田〉, 〈錢田〉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末張의 裏面에는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則當時監司通政大夫前刑曹右參議辛引孫/ 也 辛引孫靈山人刑判藝文館提學”

이라 하여 본 서적을 거래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 <刊年攷>라는 쪽지가 붙어 있다. 그 내용은 「世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楊輝算法」 관련기사의 원문을 옮겨 놓고 ‘당시의 慶尙監司는 尙州本의 「慶尙道先生案」에 의하면 石泉 辛引孫(1384-1445)으로 본관은 靈山이고 刑曹判書와 藝文館提學을 역임한 인물’임을 밝혀 놓고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시대 算學의 基本書로 조선시대의 數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1433)년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楊輝算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版本인 듯하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楊輝算法」은 중국의 楊輝(1238-1298)가 저술한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3권)·<續古適奇算法>(2권) 및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등 도합 7권 1책의 수학서적으로 朝鮮 世宗 15(1433)년 이전에 中國 元朝의 木版本을 翻刻한 版에서 後印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시대 算學의 基本書로 조선시대의 數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1433)년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楊輝算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版本인 듯하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調査本 「楊輝算法」은 後印本이라 印出狀態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으므로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되며, 또한 현재 관리자 홍명순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문헌자료

- 楊輝 著, 楊輝算法. 木版(中國木版翻刻)後刷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5(1433) 以前 翻刻의 後刷本 推定]. 안숙자 所藏本.
- 서울시 編, <「양휘산법」 國家指定申請書 關聯書類>. 서울 : 서울시문화관광과, 2010. (辛承云·宋日基·이완우·오용섭 諸教授의 調査內容)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기 타

□ 關聯人物 :

- 楊輝(南宋, 1238-1298): 중국 남송시대의 걸출한 數學者이며 數學教育者로 字는 謙光이고 漢族이며 오늘날의 杭州인 錢塘人이다. 중국 고대의 수학자요 수학 교육자이나 전기와 행력은 자세치 않다. 현존하는 문헌기록으로 추측하건대 그는 남송의 지방행정관원을 역임하면서 爲政이 清廉하였으며 그의 足跡은 蘇州와 杭州의 일대에 두루 미쳤던 듯하다. 그는 세계 제일의 풍부한 <縱橫圖>와 그 구성의 원리를 설명한 수학자였으며, 秦九韶·李治·朱世杰과 함께 宋元代的 數學 4대가로 칭송되고 있다. 그가 저술한 수학서는 「詳解九章算法」(12권, 1261년), 「日用算法」(2권, 1262년), 「乘除通變本末」(3권, 1274년, 제3권은 他人과 合編),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1275년), 「續古摘奇算法」(2권, 1275년, 他人과 合編) 등 5종 21권에 이르며, 그 중 「乘除通變本末」·「田畝比類乘除捷法」·「續古摘奇算法」의 3종은 그의 생애 후기의 저술로 일반적으로 「楊輝算法」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는 수학교육의 普及과 發展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算法通變本末」 속에 포함되어 있는 初學者를 위한 그의 <習算綱目>은 중국 수학교육사상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 辛引孫(1384-1445): 조선시대 초기의 文臣으로 本貫은 靈山이고 字는 祚胤이며, 號는 石泉이고 諡號는 恭肅이다. 부친은 辛有定이고 어머니는 薛崇의 따님이다. 태종 8(1408)년에 式年文科에 同進士로 급제하여 벼슬이 兵曹判書·大提學에 까지 올랐다. 처음에 史官에 보임되고 태종 13(1413)년에 承政院注書에 전임되어 항상 여러 大君과 함께 經典과 「史記」를 강론하였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를 각별히 대접하여 蘭竹屏風을 친히 그려주었다. 이어 禮曹正郎에 오르고 세종 2(1420)년에 舍人, 세종 10(1428)년에 執義, 세종 12(1430)년에 宗簿寺判事 겸 刑曹知事, 세종 14(1432)년에 左司諫大夫가 되고 곧 刑曹右參議가 되었다가 다시 慶尙道觀察使가 되었다. 세종 16(1434)년에 兵曹左參議가 되고 이내 承政院右承旨를 거쳐 都承旨에 승진하였다. 세종 20(1438)년에 兵曹參判, 세종 26(1444)년에 漢城府判事·兵曹判書에 이르렀다. 세종 27(1445)년에 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病으로 취임하지 못하였고, 母親喪을 당하여 슬퍼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지고 병도 깊어 享年 62세로 卒去하였다. 성질이 강직하고 아첨하지 못하며, 남의 과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탄없는 말로 내쳤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

○ 내용 및 특징

이 책의 내용은 乘除通變算寶 3권(算法通變本末, 乘除通變算寶, 法算取用本末), 續古摘奇算法 2권, 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총 7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乘除通變算寶 중에 상권인 算法通變本末에는 上乘과 下乘에 관한 곱셈의 기본규칙과 곱하는 수와 곱해지는 수 사이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존재할 경우 등 곱셈의 기초에 관한 계산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간단한 나눗셈을 다루었다. 乘除通變算寶의 중권인 乘除通變算寶에서는 加一位法, 加二位法, 減術四法 등을 다루었으며, 하권인 法算取用本末에서는 1부터 300까지의 범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續古摘奇算法은 洛書數, 河圖數, 四四圖, 五五圖 등을 내용으로 한 ‘縱橫圖’로 시작하는데, 특히 魔方陣(자연수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나열해 가로·세로·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지는 것)에 대한 권위서로 잘 알려져 있다. 마방진에 관한 내용과 행정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었으므로 大夫와 중인 사이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田畝比類乘除捷法은 농지측량, 고차방정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卷首에는 모두 양희의 서문으로 咸淳甲戌(1274)에 작성된 것과 德祐乙亥(1275)에 작성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乘除通變算寶目錄’이 있다. 目錄 뒤에 ‘洪武戊午(1378)冬至 勤德書堂新刊’의 木記가 있다. 본문은 크게 乘除通變算寶, 續古摘奇算法, 田畝比類乘除捷法の 3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본문의 시작은 乘除通變算寶의 하위 제목으로 권수제가 ‘算法通變本末’인 내용이 시작된다. 그리고 乘除通變算寶의 두 번째 하위제목인 ‘乘除通變算寶’, 세 번째 하위 제목인 ‘法算取用本末’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각 권 서명 다음에 ‘錢塘(지금의 중국 절강성 杭州)楊輝史仲榮編集’이 표시되어 이 책이 楊輝의 찬술임을 밝혀놓았다. 두 번째 장인 ‘續古摘奇算法’에 다시 목록이 있으며, 목록의 뒤에는 ‘古杭余氏 勤德書堂刊行’의 木記가 있다. 세 번째 장인 ‘田畝比類乘除捷法’에도 목록과 함께 뒤에는 또한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의 木記가 있다.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이라는 중국 간기를 통하여 明代 杭州지역에 있던 민간인쇄소인 근덕서당에서 새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변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算學의 고시과목으로 『詳明算』, 『楊輝算』, 『啓蒙算』이 명기되어 있으며, 조선전기 산학의 기본 서적으로 쓰인 책임을 알 수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우리나라에서 『宋楊輝算法』이 처음 간행된 때는 세종15년(1433)년으로 『실

록』에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 당시 간기가 남아서 확인된 책이 일본의 宮内廳 書陵部, 일본 尊經閣에 각각 1건씩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1건, 개인소장가로 신영길씨가 1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대본도 조사본과 마찬가지로 경주간행 간기 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 간행된 책판을 바탕으로 1433년 이후 수십년 이내의 조선전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이 책은 주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算木計算의 방법으로 加, 減, 乘, 除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魔方陳에 대한 권위서로서 세종 당시 산학의 필수 과목이었으므로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 권의 목록 끝에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 또는 ‘古杭余氏 勤德書堂刊行’의 이라는 중국 刊記가 그대로 남아 있어 홍무11년(1378)에 明代 杭州지역에 있던 민간인쇄소인 근덕서당에서 간행한 이후에 1433년 慶州에서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중국본을 번각한 판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양휘산법』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점에서 서적교류사, 역사학, 서지학적 의의가 크며,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 희소성이 크다.(최근 2010년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남송특별전에서 경주간본이 1건 전시된 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된 『宋楊輝算法』은 동일본이 문화재로 지정된 적이 없다. 인쇄와 보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고 있지 않는 책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알려진 간본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편제면과 권말의 경주부 간기 등이 있는 면이 결락되어 있으나 국외 소장본이나 국내 개인 소장자의 동일본으로 그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조사본 『宋楊輝算法』과 동일한 판본은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에 1건, 일본 尊經閣에 1건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1건, 개인소장가로 신영길씨가 1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인영의 『淸芬室書目』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乘除通變算寶三卷 田畝比類乘除捷法二卷 續古摘奇算法二卷 三冊으로 분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분실 소장본에도 권말에 ‘前通善郎 寧海都護府 儒學教授官 朴彧跋’과 ‘宣德八年癸丑五月日 慶州府板刊’의 간기 및 ‘觀察黜陟使 通政大夫 工曹右參議 辛引孫’ 등의 간각자 列銜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을해자본 『攷事撮要』의 경주 책판조에 수록된 『宋楊輝算法』도 바로 이 책이다.

○ 문헌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61권, 15년 1433 계축 명 선덕8년 8월 25일 을사
경상도 감사가 새로 인쇄한 송양휘산법 1백권을 진상하므로 집현전과 호조와 서
운관 습산국에 반사하였다.

慶尙道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 書雲觀習算局。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권두에 등록문화재 날인과 등록번호: 133, 등록년월일 :
1971년 8월 17일, 등록물품 : 전적, 적요 : 1433년, 정리 : '71.9.29이 기록되어 있
음. 인쇄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나 비교적 온전함

서지사항:

楊輝算法 / 楊輝(南宋, 1238-1298) 著. 木版本. 世宗 15(1433) 以前

7卷1冊(乘除通變算寶 3卷, 續古摘奇算法 2卷, 田畝比類乘除捷法 2卷). 表, 插
圖, 四周雙邊, 半郭 22.3×16.1cm, 有界, 15-16行25字 內外, 上大黑口, 上下內向
1·2·3混葉花文·黑魚尾; 34.0×21.5cm. 楮紙. 線裝.

表題: 楊輝算法

版心題: 乘除通變, 算用, 續古, 法

序: 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錢塘楊輝謹識.

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

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
謹序.

目錄末刊記;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冊末: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一百
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則當時監司通政大夫
前刑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曹右參議辛引孫/也辛引孫靈
山人刑判藝文館提學.

○ 내용 및 특징

양휘산법은 남송의 양휘가 저술한 수학서적을 모아 놓은 것이며, 『승제통변산보
(乘除通變算寶)』 3권,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算法)』 2권 및 『전무비류승제첩법(田
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모두 7권1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곱셈의 기본규칙과 곱
셈 계산과 나눗셈의 계산법과 그리고 魔方陣 및 농지측량법 등을 다루었다. 『경국대

전』에는 算學의 고시과목에 『상명산』, 『양휘산』, 『계몽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책은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 서적으로 쓰였다. 각 저작의 첫머리에는 「洪武戊午(1378,고려 우왕4)冬至勤德書堂新刊」이라는 원간기가 있다. 번각한 중국 원본의 1378년이라는 간행연대와 근덕서당이라는 간행소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장 이면에는 “刊年放”에 이어 4행의 글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다. 이 글은 책을 거래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실록』에 있는 『양휘산법』의 기사 원문을 옮겨 놓고, 당시 ‘경상도 감사는 상주의 선생안에 따르면 辛引孫이다.’라고 보충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양휘산법』이 처음 간행된 기록은 『세종실록』에 보인다. 세종 15년(1433) 8월 25일에 ‘경상도 감사가 새로 인쇄한 송나라의 『양휘산법』 1백 권을 진상하므로, 집현전과 호조와 서운관의 習算局에 나누어 하사하였다’고 한다. 당시 간행된 100권 중의 한 권(4권3책)이 일본의 궁내청 서능부(청구기호:404-17)와 일본 尊經閣에 각각 1권씩 전하고 있고 국내는 고려대도서관과 개인소장자 신영길씨가 각각 1권씩 소장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중국 刊記를 통하여 근덕서당에서 새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에서 1433년(조선 세종15) 이전에 후인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양휘산법』은 남송의 양휘가 저술한 수학서적으로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승제통변산보(乘除通變算寶)』 3권,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算法)』 2권 및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모두 7권1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휘산법』이 최초로 간행된 것은 『세종실록』에 의하여 1433년임이 확인되는데,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에서 1433년(조선 세종15) 이전에 후인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원간기와 간행소가 명시되어 있는 등 중국본의 서지학적 특징이 잘 남아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필수 과목이어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서로 국내에 전하는 『양휘산법』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最古本에 해당하는 판본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문헌자료

『세종실록』

○ 기 타

1975년경 현 소유자 안숙자씨의 남편(故 고중석)이 전남매일신문사에 근무시 지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金應南 扈聖功臣 教書 및 關聯 古文書)

가. 검토사항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장으로부터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1.01.0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金應南 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김명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5-403
- 수 량 : 공신교서 1축, 시호교지 1점
- 규 격 : 공신교서; 세로 39.0 × 가로 295.0 cm
증시교지; 세로 59.0 × 가로 106.0 cm
- 재 질 : 絹(교서), 壯紙(교지)
- 판 종 : 필사본, 필사본
- 형 식 : 축, 낱장
- 제작연대 : 공신교서; 1604년(선조 3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선조 37(1604)년에 扈聖功臣들에게 사급된 扈聖功臣敎書 및 錄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柳成龍扈聖功臣敎書>(보물 제160-11호), <高曦扈聖功臣敎書·扈聖功臣錄券>(보물 제739호), <李忠元扈聖功臣敎書>(보물 제874호), <沈岱扈聖功臣敎書>(보물 제1175호), <洪進扈聖功臣敎書>(보물 제1308호), <金良輔扈聖功臣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 <朴崇元扈聖功臣敎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있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中期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研究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價치는 매우 높다. 또한 敎書文의 製進者와 敎書文의 書寫者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扈聖功臣敎書와 비교할 때 外面과 內面의 表裝, 軸頭의 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의 原型과 原粧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扈聖功臣敎書의 形態的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贈諡敎旨>는 賜給 및 製作의 時期가 <扈聖功臣敎書>보다 훨씬 늦은 영조 29(1753, 건륭 18)년 4월 23(무신)일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호성공신교서와 시호 교지 모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김응남의 호성공신교서 및 증시교지는 김응남의 傳記자료로 및 임진난사 연구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古文書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여러 호성공신교서 중에서도 1604년 책록 당시의 原粧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성공신교서의 형태적 기준이 되고 또한 교서문을 지은 제진자와 교서문을 쓴 서사자가 적혀 있는 건수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은 <金應南扈聖功臣教書> 1점, <贈諡教旨> 1점 등 도합 2점으로 그 書誌 및 形態의 記述은 다음과 같다.

(1) <金應南扈聖功臣教書>

扈聖功臣教書 / [錄勳都監 發給] ; 安大進(1561-?) 製 ; 吳靖(1579-1623) 書 ; [金應南(1546-1598) 受給]. -- 筆寫本. -- [漢城] : [錄勳都監], [宣祖 37(1604) 推定].

1軸 : 四周單邊, 朱絲欄, 70行字數不定 ; 39.0×295.0 cm. 土黃色絹. 卷軸裝.

題簽: 扈聖功臣原城府院君金應南

製書者: 安大進製, 吳靖書

內容: 教/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傳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金應南書/王若曰國忘家公忘私既盡一介之節德懋官功懋/賞難作九原之人沒而有知生者可勸惟卿清/廟琴瑟廣廈棟樑才器夙成名已知於布衣韋/帶之日孝友天至人不問其父母昆弟之言金/馬玉堂之歷敷烏臺栢府之風采萬里鯨海遐/氓識朝廷之有臣廿載羔裘詩人美雍容之如/此屬島夷逆節之萌起揀廷紳專對而前陳周/旋單厥心荷/皇勅之敦勉忠憤有所感得該部之嘉歎逮至兇賊之長/驅惟知赴愬於/上國二三臣跋涉風露相從於患難知中數百年休養生/靈得保於危疑之際爰思載/主而首路必賴司馬之得人陵母之使者虛傳惟其所/在而致死劉珙之封辭雖功豈可捨卿而濟艱/專勾六師之芟糧無敢不多不逮備嘗萬死之/險阻罔或自逸自安賴/天朝拯濟之殊恩復舊都/宗社之遺址傷心慘目曷嘗寧居于一朝酬勞報功夫/我未遑於多難使之秉銓則公方之毛玠于以/作相則霖雨之傅巖予將仰成于重興天不憖/遺乎一老山河萬世之常在帶礪之盟可尋皇/霜十載之已經鍾鼎之名未

勒屬茲新勳之勳/定緬懷老成之儀形盤血初擎感淚先墮肆策/勳爲扈聖功臣二等超
二階爵其父母妻子亦/超二階無子則甥姪女壻超一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
仍賜奴婢九口田八十結銀/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上鉉加號竅
增殄瘁之深悲眞戶爰田惟爾子/孫之永賴薄示寵典少慰營[靈]魂故茲教示想宜/知
悉/一等/李恒福·鄭崑壽/二等/[李]珣·[李]瑄·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
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
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李]耆·景溫/景儉·申礪·安
滉/具晟/三等/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
宋康·高曦·李應順/[李]壽崑·姜綱·金起文/崔彥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
致雲/金鳳·金良輔·安彥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
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
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
/萬曆三十二年十月日[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2×10.1cm)

軸: 漆軸(左端), 多繪紐帶와 象牙針(右端)

狀態: 上下·左右의 各端의 蟲食·毀損이 있고 本文 一部에 毀損이 있어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됨

特記: 內外面表裝, 軸頭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 당시의 原粧이 잘 보존되
어 있어 扈聖功臣敎書의 形態의 典範이 될 수 있을 듯함

所藏: 김명호(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5-403)

(2) <贈諡敎旨>

贈諡敎旨 / [國王 發給] ; [金應南(1546-1598) 受給]. -- 筆寫本. -- [漢城] :
[國王], [英祖 29(1753) 推定].

1枚 : 13行字數不定 ; 59.0×106.0 cm. 土黃色壯紙. 낱장.

印文: 施命之寶(10.2×10.1cm)

內容: 敎旨/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
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金應南贈諡忠靖公/者/危身奉上曰忠/恭
己鮮言曰靖/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施命之寶]

特記: 補修 및 保存處理 要望

所藏: 김명호(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5-403)

□ 現狀：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은 宣祖 37(1604)년에 扈聖功臣 2等に 勅諭된 金應南(1546-1598)의 死後에 賜給된 <金應南扈聖功臣敎書> 1軸과 英祖 29(1753)년에 賜給된 <贈諡敎旨> 1점으로 構成되어 있다. <金應南 扈聖功臣敎書>는 세로 39.0cm 가로 295.0cm의 비단에 書寫된 1軸의 筆寫本이며, <贈諡敎旨>는 세로 59.0cm 가로 106.0 cm의 土黃色 壯紙에 書寫된 謄寫의 筆寫本이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의 레이크팰리스 135동 403호의 김명호가 先祖의 遺品으로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의 상태는 <金應南扈聖功臣敎書>의 경우 上下·左右의 各端에 蟲食·毀損이 있고 本文 一部에 毀損이 있으며, <贈諡敎旨>의 경우 比較的 良好하나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專門家의 諮問을 통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현재 소장자 김명호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宣祖 37(1604)년에 金應南의 死後에 賜給된 扈聖功臣 2等の 功臣敎書이다.

扈聖功臣은 선조 37(1604)년 6월 25(갑진)일에 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錄勳할 때 宣武功臣 및 淸難功臣 등과 함께 勅諭되었다. 扈聖功臣은 의주까지 始終 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린 것으로 1등은 李恒福·鄭岷壽로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信城君 李珣·定遠君 李桴·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 李耆·順義君 李景溫·順寧君 李景儉·申礪·安滉·具成으로 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吳定邦·李應順·愼壽崑·宋康·高曦·姜綱·內侍 金起文·內侍 崔彦俊·內侍 閔希蹇·醫官 許浚·李延祿·理馬 金應壽·理馬 吳致雲·內侍 金鳳·內侍 金良輔·內侍 安彦鳳·內侍 朴忠敬·內侍 林祐·內侍 金應昌·內侍 鄭漢璣·內侍 朴春成·內侍 金禮楨·內侍 金秀源·內侍 申應瑞·內侍 辛大容·內侍 金璽信·內侍 趙龜壽·醫官 李公沂·內侍 梁子儉·內侍 白應範·內侍 崔潤榮·內侍 金俊榮·內侍 鄭大吉·內侍 金繼韓·內侍 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

內需司別坐崔世俊·司謁洪澤·理馬全龍·理馬李春國·理馬吳連·理馬李希齡 등으로 忠勤貞亮扈聖功臣으로 하여 각각 爵位를 내리고 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內侍가 24명, 理馬가 6명, 醫官이 2명이고, 別坐와 司謁이 또 2명이었다.⁴⁰⁾ 그러나 이에 대하여 史臣은 “국가가 壬辰年의 倭變을 만나 宗社가 전복되고 乘輿가 파천했으며 園陵이 화를 입었고 생령들이 해독을 받았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한 일이다. 다행히 皇恩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八道가 다시 새로워졌으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論功行賞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扈從臣을 80여 명이나 錄勳하였고 그 가운데 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僕隸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⁴¹⁾고 비평하였다.

또한 선조 37(1604)년 10월 29(을해)일에는 扈聖功臣의 敎書를 頒給할 때에 別敎書를 내리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 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지난번 逆夷들이 亂을 일으키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흥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 성으로 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周旋하 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웠다. 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 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李恒福·鄭崑壽를 1等에 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3資級 초 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3자급을 超遷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壻를 2 자급 초천하라. 嫡長은 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伴佾 10인, 奴婢 13구, 丘史 7명, 田地 1백 50결, 銀子 10 냥, 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信城君李珣·定遠君李瑋·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大封功名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 爲扈聖功臣 分爲三等 錫號有差 … 其扈聖一等 李恒福·鄭崑壽 爲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 二等 信城君珣·定遠君瑋·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耆·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礪·安湜·具成 爲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三等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吳定邦·李應順·節慎正壽·宋康·高曦·姜綱·內侍金起文·內侍崔彦俊·內侍閔希壽·醫官許浚·李延祿·理馬金應壽·理馬吳致雲·內侍金鳳·內侍金郎輔·內侍安彦鳳·內侍朴忠敬·內侍林祐·內侍金應昌·內侍鄭漢璣·內侍朴春成·內侍金禮楨·內侍金秀源·內侍申應瑞·內侍辛大容·內侍金璽信·內侍趙龜·壽醫官李公沂·內侍梁子儉·內侍白應範·內侍崔潤榮·內侍金俊榮·內侍鄭大吉·內侍金繼韓·內侍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內需司別坐崔世俊·司謁洪澤·理馬全龍·理馬李春國·理馬吳連·理馬李希齡 爲忠勤貞亮扈聖功臣 各賜爵封君 凡八十六人 而內侍二十四人 理馬六人 醫官二人 別坐司謁又二人 …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 史臣曰 國家值壬辰之變 宗社顛覆 乘輿播遷 禍及園陵 毒被生靈 所可道也 言之慘也 幸賴皇恩遠暢 八路重新 則在人君賞功酬勞之典 似不可已也 而扈從之臣 至錄八十餘人 而中官二十四人 僕隸之賤 又是二十餘人 則不亦濫乎.

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李耆·順義君李景溫·順寧君李景儉·申礪·安湜·具成은 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2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2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1자급 초천하라. 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宋康·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綱·金起文·崔彦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1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1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加階하라. 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功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賞의 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輕重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아, 황상께서 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君臣을 일체로 여긴 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⁴²⁾는 것이었다.

수급자인 金應南(1546-1598)은 조선 宣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原州이고 字는 重叔이며, 호는 斗巖이고 諡號는 忠靖이다. 충청도병마절도사 金末孫의 증손자이며 金珩의 아들이다. 선조 즉위(1567)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선조 원(1568)년 增廣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藝文館·弘文館의 正字를 역임한 뒤 賜暇讀書를 하였으며 同副承旨에 이르렀다. 선조 16(1583)년에 兵曹判書 李珥(1536-1584)를 탄핵한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10月 29(乙亥)日條.

扈聖功臣敎書頒給時 別敎書 王若曰 無棄爾勞 礪世之當務 有功必賞 爲政之所先 永言構亂之逆夷 敢肆假途之兇計 極痛呼父 於情固然 以賊遺君 雖死不可 顧平昔至誠事大 予何敢云念奔走 竭力周旋 臣亦勞止 乃至効忠貞之節 以致盡羈縻之勤 雖事不同 厥功則一 宜敷渙汗之號 誕告盤血之班 肆策勳李恒福·鄭崑壽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則甥姪女婿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疋 信城君珥·定遠君瑄·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耆·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礪·安湜·具成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婿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疋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宋康·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綱·金起文·崔彦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婿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 功之等級 一而三, 未免高下之異 賞之恩數 多若寡 抑有輕重之差 何敢忘之 聊表嘉乃 於戲 皇上再造之天寵 固是無前 君臣一體之聖恩 庶幾垂後 往膺新命 咸服至懷 故茲敎示 想宜知悉.

三司의 宋應漑(?-1588)·許筠(1551-1588)·朴謹元(1525-1585) 등이 선조의 노여움으로 도리어 유배당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濟州牧使로 좌천되었으나, 평소 李珥를 존경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三司의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지에 도착하자 성심껏 饑民을 救恤하고 교육을 진흥시키며 民俗을 바로 잡아서 뒤에 인조 때 金尙憲(1570-1652)이 쓴 「南程錄」이나 효종 때 李元鎮(1594-1665)이 쓴 「耽羅誌」에는 그때의 치적을 칭송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2년 뒤 선조 18(1585)년에 右承旨로 기용되고 이어 大司憲·大司諫·副提學·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24(1591)년에 聖節使로서 明朝에 갔는데, 마침 明朝에서는 日本의 國書를 받고 朝鮮이 日本과 內通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자가 많아 이를 힘써 해명함으로써 의구심을 풀게 하였다. 귀국 후 漢城判尹이 되었는데, 다음해(1592) 壬辰倭亂이 일어나 先祖가 蒙塵에 오르게 되자 柳成龍(1542-1607)의 천거로 兵曹判書 겸 副體察使가 되었다. 선조 26(1593)년에 吏曹判書로서 국왕을 따라 환도한 뒤 이듬해(1594)에 우의정을 지내고 선조 28(1595)년에 左議政이 되어 領議政 柳成龍과 함께 임진왜란 후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켰다. 항상 나라를 복구하는 급선무는 군사를 훈련하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선조 30(1597)년 丁酉再亂 때에는 按撫使로서 嶺南地方에 내려갔다가, 慶尙道 豊基에서 병이 위독해져서 귀경 후 辭職하였으며 이듬해(1598)에 卒去하였다. 그는 관대하고 근신하며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銓曹의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門庭이 쓸쓸하여 뇌물을 바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賢才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다만 언론을 전개할 때에 고집스러움을 면치 못하여 士論이 단점으로 여겼다.⁴³⁾ 선조 37(1604)년 扈聖功臣 2등으로 原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義州까지 扈從하여 扈聖功臣 2등으로 錄勳된 金應南(1546-1598)에게 그가 卒去한 6년 뒤인 선조 37(1604)년에 賜給된 功臣敎書이다.

선조 31(1598)년에 金應南이 卒去하자 禮曹에서 “난리가 일어난 뒤로 禮葬에 관계된 일을 일체 停廢하여 대신의 喪事가 있더라도 官에서 도와주는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형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간혹 절박한 喪事가 있을 경우 점차 禮葬의 典禮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유독 大臣의 喪事에 있어서는 그대로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아 소소한 관원들과 다를 바 없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金應南의 집은 너무도 빈한하고 궁핍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으므로 듣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本道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墓軍 및 葬禮費用을 대주게 한다면 국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12月 6(丁巳)日條.

金應南 寬大謹慎 清儉自勵 常爲銓相 門庭寂然 賄賂不行 推轂賢才 以明揚爲己任 但言論之際 未免固滯 士論短之.

가에서 후대해 주는 恩典에도 손실이 없을 것이다.”고 보고하자, 宣祖는 參酌하여 施行할 것을 傳教⁴⁴⁾하였을 정도였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金應南의 官階와 宣祖가 蒙塵할 때 義州까지扈從한 功勞로 扈聖功臣 2등에 녹훈한다는 功績을 비롯하여, 그 褒賞으로 本人과 父母·妻子의 벼슬을 2階씩 올려주되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여조카에게 1階씩을 올려 주고 嫡長子에게 벼슬의 지위를 세습하도록 하며, 奴婢 9口, 田 80結, 銀子 7兩,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하사한다는 褒賞內容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등급별 功臣名單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萬曆三十二年十月 日’의 功臣教書의 賜給時期와 ‘施命/之寶’라는 宣祖의 御寶가 安印되어 있다. 軸의 外面에는 ‘安大進製 / 吳靖書’라 기록되어 있어 安大進(1561-?)이 功臣教書文을 撰述하고 吳靖(1579-1623)이 書寫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 37(1604)년에 사급된 扈聖功臣教書 및 錄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柳成龍扈聖功臣教書>(보물 제160-11호), <高曦扈聖功臣教書·扈聖功臣錄券>(보물 제739호), <李忠元扈聖功臣教書>(보물 제874호), <沈岱扈聖功臣教書>(보물 제1175호), <洪進扈聖功臣教書>(보물 제1308호), <金良輔扈聖功臣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 <朴崇元扈聖功臣教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있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中期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研究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가치는 매우 높다. 또한 教書文의 製進者와 教書文의 書寫者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扈聖功臣教書와 비교할 때 外面과 內面의 表裝, 軸頭의 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의 原型과 原粧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扈聖功臣教書의 形態的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贈諡教旨>는 영조 29(1753)년에 金應南에게 ‘忠靖’의 諡號를 내린 教旨이다.

<贈諡教旨>는 영조 29(1753, 건륭 18)년 4월 23(무신)일에 영의정 趙顯命(1690-1752)과 좌의정 鄭錫五(1691-1748) 등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시호가 하사될 때 좌의정 金應南에게도 ‘忠靖’이라는 諡號가 하사⁴⁵⁾되었는데, 이는 <贈諡教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12月 6(丁巳)日條.

禮曹啓曰 亂離以後 凡于禮葬 一切停廢 雖遇大臣之喪 絕無官庇之事 其勢然也 自上年來 或仍切迫之喪 稍開禮葬之例 而獨於大臣之事 仍廢不舉 與小官無異 以爲未安 金應南之家 尤甚貧乏 將無以營葬 聞者矜惻 若令本道 略給助墓軍及葬需 則庶不墜國家歸厚之典 傳曰 斟酌施行.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29年 4月 23(戊申)日條.

賜領議政趙顯命諡忠孝 左議政鄭錫五諡貞簡 東平尉鄭載崙諡翼孝 德陽君岐諡靖僖 禮曹判書李彥綱諡貞孝 左議政柳灌諡忠肅 知敦寧李哲諡莊靖 贈左贊成金錫衍諡貞僖 兵曹判書徐必遠諡貞毅 贈領議政張雲翼諡貞敏 贈左贊成張鵬翼諡武肅 禮曹

旨>의 發給日字인 ‘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과도 일치되고 있다. 또한 發給日字 위에는 ‘施命之寶’의 御寶가 安印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선조 37(1604)년에 扈聖功臣들에게 사급된 扈聖功臣敎書 및 錄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柳成龍扈聖功臣敎書>(보물 제160-11호), <高曦扈聖功臣敎書·扈聖功臣錄券>(보물 제739호), <李忠元扈聖功臣敎書>(보물 제874호), <沈岱扈聖功臣敎書>(보물 제1175호), <洪進扈聖功臣敎書>(보물 제1308호), <金良輔扈聖功臣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 <朴崇元扈聖功臣敎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있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中期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研究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價치는 매우 높다. 또한 敎書文의 製進者와 敎書文의 書寫者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扈聖功臣敎書와 비교할 때 外面과 內面의 表裝, 軸頭의 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의 原型과 原粧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扈聖功臣敎書의 形態的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贈諡敎旨>는 賜給 및 製作의 時期가 <扈聖功臣敎書>보다 훨씬 늦은 영조 29(1753, 건륭 18)년 4월 23(무신)일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 문헌자료

- 錄勳都監 發給, 安大進 製, 吳靖 書, 金應南 受給. 金應南扈聖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錄勳都監], [宣祖 37(1604)]. 김명호 所藏品.
- 英祖 發給, 金應南 受給, 諡號敎旨. 筆寫本. [漢城]: [國王], [英祖 29(1753)]. 김명호 所藏品.
- 英祖 發給, 金應南 受給, 諡號敎旨函. 木函. [漢城]: [國王], [英祖 29(1753)]. 김명호 所藏品.
- 서울시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시문화관광과, 2010. (辛承云·이완우·이동국 諸教授의 調査內容)

判書嚴緝諡貞憲 贈領議政鄭壽期諡貞簡 禮曹判書盧禎諡憲敏 吏曹判書申命仁諡貞淸 工曹判書李光迪諡靖憲 贈左贊成崔慶會諡忠毅 判尹任說諡文靖 贈領議政申最諡文肅 吏曹判書南銑諡貞敏 左議政金應南諡忠靖 以李宗白爲大司憲 任珣爲司諫 李仁源 李宜老爲正言 成天柱爲校理 李顯重爲副校理 申旼爲承旨 沈瓚爲輔德 韓光會爲舍人 李昌諠爲戶曹判書.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호성공신교서는 최초에 제작한 형태로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감긴 상태로 있어서 중간 꺾인 곳들이 많으며 상하로 터진 곳 등이 있어서 시급히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시호 교지 역시 꺾인 곳들이 많아서 지정 후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

○ 내용 및 특징

김응남(1546~15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충청도병마절도사 김말손(金末孫)의 증손자이며, 김형(金珩)의 아들이다. 156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8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대사헌, 대사간,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 길을 떠난 왕을 호종하여 하였다. 1593년에 이조판서로 왕을 따라 환도한 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안무사로 영남지방에 내려갔다가 풍기에서 병이 위독해져 귀경 후 사직하였다. 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호성공신교서는 바로 이때 발급된 것이다. 그에게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은 영조 29년의 일인데 역시 이때 발급된 교지가 바로 이번에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한 시호 교지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호성공신교서는 모두 4점이다. 유성룡 호성공신교서(보물 160-11), 고희 호성공신교서(보물 739),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보물 874), 심대 호성공신교서(보물 1175)가 그것이다. 보물로 이미 지정된 호성공신교서와 김응남의 교서는 문화재적 가치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김응남의 교서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호성공신교서와 시호 교지 모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영조실록』

- <<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꺾임이 심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金應南 扈聖功臣敎書

이 扈聖功臣敎書는 임진란에 선조와 세자를 호종하고 피란할 때 侍從한 공로로 난후인 1604년에 金應南에게 내린 것이다. 호성공신은 서울에서 義州까지 侍從한 신하들을 공로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모두 86명을 녹훈하였는데, 1등은 李恒福 등 2명, 2등은 李元翼 등 31명, 3등은 鄭琢 등 53명이다. 김응남은 2등공신의 9번째에 책록되었다.

本 敎書의 구성은 김응남의 官階에 이어 선조가 蒙塵할 때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2등 공신에 책봉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포상으로 본인과 부모·처자의 벼슬을 2階씩 올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여조카에게 1階씩을 올려 주며, 적장자에게 벼슬의 지위를 세습하게 하며, 奴婢 9구, 田 80結, 銀子 7兩,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列記하였다. 끝으로 공신 86명의 名錄과 본 교서의 발급일인 ‘萬曆三十二年十月日’을 쓰는 순서로 되어있다. 발급연월일 위에는 「施命之寶」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축의 바깥 하단부에는 ‘安大進製 吳靖書’ 가 쓰여 있어 교서문은 안대진(1561~?)이 짓고 교서문의 글씨는 오정(1579~1623)이 썼음을 알 수 있다. 결면과 안면의 표장, 軸頭의 형태, 축을 묶는 색실띠[多繪帶]와 象牙針 등이 최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현존하는 여러 호성공신교서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예에 해당된다.

호성공신의 책훈에 관한 내용은 『宣祖實錄』(宣祖 37年 10월 乙亥條)에 보이는데, 실록에 열거된 2등공신의 賞賜와 본 교서를 비교해보면 실록에 기재된 「伴尙六人」 과 「丘史 四名」 이 빠지고 「表裏一段」 이 추가된 것만 다르고 모두 일치하여, 공신의 책봉에 있어 같은 등급의 공신이라도 대상과 경우에 따라 賞賜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성공신교서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평가되어 이미 柳成龍(보물 제160-1호)·高曦(보물 제739호)·李忠元(보물 제874호)·沈垞(보물 제1175호)·洪進(보물 제1308호)·李憲國(보물 제1617호)·金良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朴崇元(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등이 지정된 바 있다.

2. 金應南 贈諡教旨 (1753년, 영조 29)

1753년(영조 29) 4월 23일에 김응남에게 ‘忠靖’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발급연월일 위에 「施命之寶」印이 날인되어 있다.

教旨/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
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
/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金應南贈諡忠靖公/者/危身奉上曰忠/恭已鮮言
曰靖/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

○ 教書 全文

教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
監春秋館事世子傅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
師原城府院君金應南書/

王若曰國忘家公忘私既盡一介之節德懋官功懋/
賞難作九原之人沒而有知生者可勸惟卿清/
廟琴瑟廣廈棟樑才器夙成名已知於布衣韋/
帶之日孝友天至人不問其父母昆弟之言金/
馬玉堂之歷敷烏臺栢府之風采萬里鯨海遐/
氓識朝廷之有臣廿載羔裘詩人美雍容之如/
此屬島夷逆節之萌起揀廷紳專對而前陳周/
旋單厥心荷/

皇勅之敦勉忠憤有所感得該部之嘉歎逮至兇賊之長/
驅惟知赴愬於/

上國二三臣跋涉風露相從於患難知中數百年休養生/
靈得保於危疑之際爰思載/

主而首路必賴司馬之得人陵母之使者虛傳惟其所/
在而致死劉珙之封辭雖功豈可捨卿而濟艱/
專勾六師之芟糧無敢不多不逮備嘗萬死之/
險阻岡或自逸自安賴/

天朝拯濟之殊恩復舊都/

宗社之遺址傷心慘目曷嘗寧居于一朝酬勞報功夫/
我未遑於多難使之秉銓則公方之毛玠于以/

作相則霖雨之傅巖予將仰成于重興天不憖/
遺乎一老山河萬世之常在帶礪之盟可尋皇/
霜十載之已經鍾鼎之名未勒屬茲新勳之勩/
定緬懷老成之儀形盤血初擎感淚先墮肆策/
勳爲扈聖功臣二等超二階爵其父母妻子亦/
超二階無子則甥姪女婿超一階嫡長世襲不/
失其祿宥及永世仍賜奴婢九口田八十結銀/
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
上鉉加號烝增殄瘁之深悲眞戶爰田惟爾子/
孫之永賴薄示寵典少慰營[靈]魂故茲教示想宜/
知悉

一等

李恒福 鄭崐壽

二等

珣	琇	李元翼
尹斗壽	沈友勝	李好閔
尹根壽	柳成龍	金應南
李山甫	柳 根	李忠元
洪 進	李 石+國	柳永慶
李幼澄	朴東亮	沈 岱
朴崇元	鄭姬藩	李光庭
崔興源	沈忠謙	尹自新
韓 淵	耆	景溫
景儉	申 礪	安 滉
具 晟		

三等

鄭 琢	李憲國	柳希霖
李有中	任發英	奇孝福
崔應淑	崔 賓	呂定邦
宋 康	高 曦	李應順
壽崐	姜 綱	金起文
崔彥俊	閔希騫	許 浚
李延祿	金應壽	吳致雲

金 鳳	金良輔	安彦鳳
朴忠敬	林 祐	金應昌
鄭漢璣	朴春成	金禮禎
金承源	申應瑞	辛大容
金璽信	趙龜壽	李公沂
梁子儉	白應範	崔潤榮
金俊榮	鄭大吉	金繼韓
朴夢周	李士恭	柳肇生
楊舜民	慶宗智	崔世俊
洪 澤	全 龍	李春國
吳 連	李希齡	

萬曆三十二年 十月 日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김응남의 호성공신교서 및 증시교지는 김응남의 傳記자료로 및 임진난사 연구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古文書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여러 호성공신교서 중에서도 1604년 책록 당시의 原粧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성공신교서의 형태적 기준이 되고 또한 교서문을 지은 제진자와 교서문을 쓴 서사자가 적혀 있는 건수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문헌자료

『宣祖實錄』

문화재청,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2010.

○ 기 타

교서 수령자의 後孫家에 전래된 遺品임.

14.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도 벽화 (高敞 禪雲寺 大雄殿 毘盧遮那三佛圖 壁畫)

가. 검토사항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도 벽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도 벽화”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1.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도 벽화
(高敞 禪雲寺 大雄殿 毘盧遮那三佛圖 壁畫)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 수 량 : 3구
- 규 격 : 비로자나설법도 476×430cm
약사여래설법도 471.5×318cm
아미타여래설법도 495×320cm
- 재 질 : 토벽에 채색
- 형 식 : 비로자나삼불형식의 벽화

○ 제작연대 : 1840년(헌종 6)

○ 작자 : 圓潭乃元, 護默, 白花德間, 益贊, 性稀, 佑和, 會允, 應叔, 道淳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은 광해군 5년(1613)에 세워진 건물로 보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후불 벽화는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여 그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소위 ‘비로자나삼불회도’이다. 이 벽화는 畫記에 의하면 道光二十年 즉, 1840년에 제작되었으며, 乃圓, 益贊 등 11명의 畫員이 참여하였다. 내원과 익찬은 천은사 신중도(1833년), 대둔사 치성광여래도(1845년) 등을 공동 제작하였듯이 전라도 일원에서 함께 활동한 화승이다.

이 벽화는 무위사 극락전과 봉정사 대웅전 벽화와 더불어 몇 안되는 ‘후불 벽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벽화의 국가 지정은 현재 18세기 중반이전에 제작된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 그림은 시기성에서 뒤떨어진다. 또한 여래의 광배와 가사 등에서 보체가 확인되는 등 보다 면밀한 원형 확인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후불 벽화’이며 점점 내구성이 약화되어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도 벽화는 탕화 대신 벽화로 후불화를 조성한 것으로, 후불벽화로는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1435년),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1476년), 봉정사 대웅전 벽화(보물 1313호)와 함께 우리나라에 단 3예 밖에 없는 작품이다. 더구나 3폭의 삼불벽화로서는 우리나라 유일한 예이며, 규모 면에서도 최대의 대형벽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벽화 제작에는 圓潭乃圓 및 益贊 등 19세기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수화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당대 전라도 최고 화승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현재 벽체가 갈라지며 여러 군데 벽이 떨어지고 벽화가 박락되어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지만, 다른 벽화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작연대가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필선이 굵고 거칠며 형식화된 부분이 많은 등 양식적인 면에서 다소 뒤처지는 면이 있다. 이에 하루빨리 지방유형문화재로라도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현존하는 후불벽화로는 조선전기 1476년에 제작된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설법도와 이곳 선운사 대웅보전 비로자나삼불벽화뿐이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에 해당된다. 특히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로 구성된 毘盧遮那三佛會 장면을 3쪽으로 나누어 그린 예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자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남기고 있는 벽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다만 이 벽화는 19세기 무렵 새롭게 대두된 새로운 화풍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회화자료이지만, 18세기 이전 불화의 맑고 온화한 담채풍의 색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고, 선묘에서도 유연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畫格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지정된 불화에 비해 1840년이라는 늦은 시기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우선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조사보고서 전문

□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은 광해군 5년(1613)에 세워진 건물로 보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후불 벽화는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하여 그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소위 ‘비로자나삼불회도’이다. 이 벽화는 畫記에 의하면 道光二十年 즉, 1840년에 제작되었으며, 乃圓, 益贊 등 11명의 畫員이 참여하였다. 내원과 익찬은 천은사 신중도(1833년), 대둔사 치성광여래도(1845년) 등을 공동 제작하였듯이 전라도 일원에서 함께 활동한 화승이다.

이 벽화는 무위사 극락전과 봉정사 대웅전 벽화와 더불어 몇 앓되는 ‘후불 벽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벽화의 국가 지정은 현재 18세기 중반이전에 제작된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 그림은 시기성에서 뒤 떨어진다.

또한 여래의 광배와 가사 등에서 보채가 확인되는 등 보다 면밀한 원형 확인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여도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후불 벽화’이며 점점 내구성이 약화되어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할 필요가 있다.

□

○ 내용 및 특징

선운사 대웅전내에는 비로자나 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불상 뒤쪽에는 비로자나불·약사불·아미타불의 삼신불 후불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불화는 토벽에 채색된 벽화로서, 1840년에 제작되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화와 아미타불화를 좌우에 배치한 것으로 三身佛畫와 三佛會圖가 복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벽화의 크기는 중앙의 비로자나불벽화가 세로 506cm, 가로 450cm로 가장 크고, 양쪽의 아미타불과 약사불벽화는 중앙벽화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세로 525cm, 가로335cm의 규모이다.

세 그림 모두 중앙에 본존불을 크게 묘사하고 좌우에 보살과 제자 또는 사천왕상을 묘사한 조선후기 군도형식과는 달리 간단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중앙에 배치된 비로자나불벽화의 본존인 비로자나불은 智拳印을 결하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수, 보현의 2대보살과 아난과 가섭존자, 그리고 사천왕상 등이 본존을 둘러싸고 있다. 문수와 보현보살은 각기 줄기가 긴 연꽃가지를 잡고있고 원형두광에 키모양의 신광을 진 특이한 광배형태를 하고 있다. 구름에 싸여 상반신만 보이는 사천왕은 비파, 창, 탑 등의 지물을 들었고 모두 화려한 보관을 썼다. 본존은 전 화면을 압도할 정도로 큼직하게 그리고 좌우여백에 각 4존씩 8존의 협시를 배치한 9존도 형식의 불화인데 장신의 불보살상 형태, 이마가 높고 긴 타원형 보살 얼굴, 연푸른 녹색조의 화면 등 독특한 도상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미타불은 비로자나불화의 향좌측에 그려졌는데, 백의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4보살과 아난, 가섭존자, 그리고 코끼리관과 사자관을 쓴 2구의 팔부중이 배치된 형식을 보여준다. 본존 좌측에선 관음보살이 각각 협시하고 있다. 천의 끝단에는 역시 창과 같이 뾰족한 묘법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약사불은 日光, 月光菩薩을 위시한 4보살이 2단으로 시립하였고 그 뒤로 구름속에 싸인 4구의 성중들이 시립하고 있다. 2중으로 된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었고 頭部는 육계와 구별하지 않고 중앙계주만 보이는데 나발의 소용돌이를 일일이 묘사하고 있다. 가름한 얼굴에 크게 쌍거풀진 눈의 묘사와 함께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수인은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대고 있으며 왼손은 같은 형식으로 결가부좌한 발 위에 놓아 說法印을 짓고 있다. 일광, 월광보살은 합장을 한 모습이며 다른 보살들

도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천의의 의습은 직선적이고 옷자락 끝은 뽀족하게 뻗어있어서 도식적이다. 성중을 둘러싼 공간을 채운 구름의 표현은 변화없이 같은 모양으로 녹색과 흰색을 반복하였다.

벽화의 구조색은 모두 적갈색, 녹색, 흰색을 사용하였고 공간구름은 흰색과 양 녹색을 칠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느낌의 색조를 보여준다. 화기에는 “道光二十年庚子八月日 敬畫三軸尊像仍爲奉安○爲”라 하여 三軸尊像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화와 아미타불화를 배치한 복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기]

毘盧遮那三佛壁畫 畫記

道光二十年庚子八月日敬畫三軸尊像仍爲奉安□爲」
緣化秩」證明 禪月 警察 誦呪 泰元 持殿 贊誠 察衆 義弘
監護 德一智云 旨供 性軒 世寶 火臺 日永 別座 義旻
化主 成贊 義弘 泰元 三綱 定日 奉彦 永允 公員 德山 壬房 敬學
住持 法洪 維那 贊誠 都監 □行 義弘 畫員
圓潭 乃元 護默 白花 德閒 益讚 性稀 佑和 會允 應淑 道淳
時會老少比丘大小施主人緣全叅現享壽福死歸蓮臺之願
高敞馬鳴居吳景章壽富貴多男子願

藥師佛後佛壁畫

施主秩 成贊」 洪」 舜海」 敬察」 永摠」 三弘」 □□」 泰(元)」 敬淳」 俱英」
□□」 □□」 □□」 □□」 □□」 □□」 □□」 □□」 □□」 □□」 □□」 □□」 □□」
□」 □□」 □□」 □□」

阿彌陀後佛壁畫

施主秩 本官司主」 通訓大夫」 金候有喜」 金道泓」 妻李氏」 金信學」 金在錫」 嚴榮昊」
妻金氏」 李在裕」 許氏」 徐敬元」 古阜金氏」 金氏」 □率萬」 鄭等福」 大少檀」
越□享」 □□死」 □歸蓮邦」 □□大願」 察□表琬鶴□□」 □□□□□□□□」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도벽화는 탕화 대신 벽화로 후불화를 조성한 것으로, 후불벽화로는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벽화(1435년),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1476년), 봉정사 대웅전 벽화(보물 1313호)와 함께 우리나라에 단 3예 밖에 없는 작품이다. 더구

나 3쪽의 삼불벽화로서는 우리나라 유일한 예이며, 규모 면에서도 최대의 대형벽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벽화 제작에는 圓潭乃圓 및 益贊 등 19세기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수화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당대 전라도 최고 화승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현재 벽체가 갈라지며 여러 군데 벽이 떨어지고 벽화가 박락되어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지만, 다른 벽화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작연대가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필선이 굵고 거칠며 형식화된 부분이 많은 등 양식적인 면에서 다소 뒤처지는 면이 있다. 이에 하루빨리 지방유형문화재로라도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 내용 및 특징

이 삼불벽화는 선운사 대웅보전의 후불벽에 그려진 벽화로, 불상의 존상배치와 동일하게 중앙에 비로자나설법도, 좌측에 약사여래설법도, 우측에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나타내었다. 후불벽면에 三身三世의 통합된 개념을 담은 삼불상을 벽화로 나타낸 현존 유일한 예이다. 이 벽화는 元潭 內院이 首畫僧으로 참여하고 護默, 白花德閒, 益贊 등 여러 명의 불화승들이 함께 참여하여 1840년(헌종 6)에 제작한 벽화이다. 수화승 원담 내원은 1820년 순천 송광사 화엄전 신중도를 시작으로 19세기 후반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긴 19세기를 대표하는 佛畫僧이다.

우선 중앙의 비로자나설법도는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고 蓮池에서 피어오른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본존불의 좌우에는 문수, 보현보살을 배치하고, 상단에는 붉은 두광을 가진 가섭과 아난존자, 그리고 사천왕상을 배치한 9존도의 간단한 구도의 불화이다. 불화의 상단 중앙에는 복장주머니를 그려 나타내었다.

좌측의 약사여래설법도와 아미타설법도는 비로자나설법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색채, 구도, 선묘를 보여주며, 등장인물만 변화를 주었다. 우선 약사여래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원형의 두신 광을 갖추고 연지에서 피어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藥器印을 짓고 있다. 화면의 상단과 하단을 채운으로 구분하고 하단에는 협시보살인 일광, 월광보살상을, 중단에는 제석과 범천을 배치하고, 화면의 상단 좌우에는 2구의 나한을 배치하였다.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인물의 크기를 작게 묘사하여 상승감을 주고 있다.

아미타설법도는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화면의 하단에는 협시보살인 백의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을, 중단에는 제석과 범천상을 배치하였고, 화면의 상단에는 아난과 가섭존자, 그리고 그 옆으로 사자관과 코끼리 관을 쓴 팔부중을 엄격한 좌우 대칭의 규칙에 입각해서 상승감 있게 배치하였다.

삼불상의 세부표현은 거의 흡사하다. 우선 불상의 머리는 중앙의 큼직한 중앙계주를 중심으로 우선회하는 굽직한 渦形螺髮을 풍성하게 표현하여 마치 파마머리처럼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연상시킨다. 머리에는 빛이 뻗어 나와 法界를 두루 비추고 있다. 얼굴 형태는 둥글고 넓적하고, 이목구비는 시원하고 단정하여 원만 상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풍성한 머리와 함께 큼직한 콧방울과 도톰한 입술로 개성적이다. 삼존불 모두 불상의 예와 달리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쳐 입었고, 가슴에는 균의를 묶은 띠자락이 표현되었다. 대의에는 부분적으로 바탕색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하여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물의 肉身部의 윤곽은 일정한 굽기의 부드러운 선으로 유려하게 처리하였으며, 세밀한 묘사가 필요한 존자나 사천왕상의 수염이나 머리털, 눈썹 등은 여러 번의 붓질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의습선은 다소 굵고 거친 선을 사용하여 차이를 두었다. 특히 佛衣에는 부분적으로 남색계통 덧칠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는데, 19세기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벽화의 색채는 연한 녹색과 검붉은 짙은 적색의 대비 속에, 백색, 황색, 흑색 계통을 적절히 조채하여 맑고 시원한 색채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본존의 광배와 하단의 연꽃줄기, 인물들 사이의 구름, 광배 등에 연푸른 녹색을 사용하여 싱그럽고 맑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 비로자나설법도 벽화 화기 1

道光二十年庚子八月日敬畫」

三軸尊像仍爲奉安」

□爲」

緣化秩」

證明 禪月警察 誦呪 泰元」

持殿 贊誠 察衆 義弘」

監護 德一 智云」

旨供性軒 世寬 火臺 日永」

別座 義旻」

化主 成贊」

義弘」

泰元」

三綱 定日 奉彦 永允」

公員 德山 任房 敬學」

住持 法洪 維那 贊誠」

都監 □行 義弘」
畫員」
圓潭乃元 護默」
白花德閒 益讚」
性稀 佑和 會允」
應叔 道淳」
時會老少比丘大小施主」
緣仝參現亨壽福死歸」
蓮臺之願」
高敞馬鳴居吳景章壽富貴多男子」

○ 약사여래설법도 벽화 화기

施主秩」
成贊」
法洪」
舜海」
敬察」
永摠」
三弘」
□恩」
泰□」
敬淳」
俱英」
.....

○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 화기

施主秩」
本官司主」
通訓大夫」
金候有喜」
金道弘」
姜李氏」
金信學」
金在錫」

姜李氏」
 金在鐸」
 嚴榮昊」
 姜金氏」
 京 李在裕」
 許氏」
 徐敬元」
 古阜 金氏」
 金氏」
 □率萬」
 鄭等福」
 大少檀」
 趙□亨」
 □□死」
 □歸蓮那」
 □□大願」
 察訓表珎鶴□□」
 □□……」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현존하는 후불벽화로는 조선전기 1476년에 제작된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설
 법도와 이곳 선운사 대웅보전 비로자나삼불벽화뿐이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에 해
 당된다. 특히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로 구성된 毘盧遮那三佛會 장면을 3폭으로 나
 뉘어 그린 예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자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남기고 있
 는 벽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다만 이 벽화는 19세기 무렵 새롭게 대두된 새로운 화풍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회화자료이지만, 18세기 이전 불화의 맑고 온화한 담채
 풍의 색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고, 선묘에서도 유연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畫格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지정된 불화에 비해 1840년이라는
 늦은 시기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아
 직 이른 감이 있다. 우선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한다.

15.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畵)

가. 검토사항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벽화로서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26~27)가 진행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畵)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월동면 영포리 268
- 수 량 : 6점
- 규 격 : 목록참조
- 재 질 : 흙벽에 채색
- 형 식 : 벽화
- 제작연대 : 17세기 후반

○ 지정대상 벽화 목록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연 대	위 치
1	藥師三尊圖	210×347	17세기 후반	내부 동측면 벽
2	阿修羅王圖	250.4×66	17세기 후반	
3	阿彌陀三尊圖	229×342.5	17세기 후반	내부 서측면 벽
4	六大菩薩圖	195×342.5	17세기 후반	
5	四天王圖	155×335	17세기 후반	
6	神衆圖	250.4×137	17세기 후반	

라. 내용 및 특징

1) 조사내용

신흥사 대광전에는 건물 외부 포벽과 측벽에 모두 17폭의 벽화가 있으며, 내부 좌우측 벽 및 포벽, 후불벽 등에 57폭의 벽화가 있어 대광전 내외에 총 80여 점의 벽화가 남아있다. 내부의 동벽에는 약사삼존도와 팔부중, 서벽에는 아미타삼존도와 6대보살도 및 팔부중, 좌우포벽에 팔상도 등이 있으며, 후불벽 뒷면에는 三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다.

이들 벽화 가운데 내부 동측면의 약사삼존도와 팔부중, 내부 서측면의 아미타삼존도와 6대보살도, 사천왕도, 신중도 등은 대광전 건립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의 벽화들은 1801년 대광전을 중수할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광전 후불벽에는 벽화는 남아있지 않고 대신 탕화가 봉안되어 있으나 좌우에 약사삼존도 벽화와 아미타팔대보살도 벽화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조성 당시에는 영산회상도 벽화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삼세불 도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측면 벽화]

서측면 벽의 중앙은 3단으로 구성해 상단에 아미타삼존, 중단에는 6대보살, 하단에는 사천왕을 배치했다. 서측벽 중앙칸 상단은 상방이 가로질러 토벽이 상하로 나뉘고 다시 2개의 벽선으로 나뉘어 모두 6쪽의 흙벽과 상방표면에 걸쳐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칸 중단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도는 그 아래 함께 그려진 6보살도와 함께 아미타팔대보살도를 이루고 있다.

상단 중앙의 아미타불은 좌우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과 함께 그려졌는데, 결과부좌한 아미타불은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작고 육계가 불분명하며 중앙계주가 크게 묘사되었다. 계란형의 얼굴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입이 작

다. 신체는 비대하며 건강한 편인데 사각형적인 신체에 직각에 가까운 어깨, 평판적인 가슴, 폭이 좁은 무릎 등 전체적으로 방향의 느낌이 강하다. 수인은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내려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결하였다. 대의는 통건으로 걸치고 있는데 옷깃에만 무늬가 표현되었다. 좌측의 관음보살은 왼쪽다리를 내린 유희좌로 앉아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백의를 걸쳤는데, 보관에는 아미타화불이 표현되어 관음보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얼굴은 풍만한 편으로 눈이 치켜 올라갔으며 입이 작은 것이 본존과 비슷하다. 우측의 세지보살 역시 둥글고 풍만한 얼굴 등이 관음보살과 비슷한 모습인데, 화려하고 복잡한 보관을 쓰고 있으나 보관에 정병은 분명치 않다. 얼굴에 비해 장대한 체구는 본존과 닮았다. 가슴과 팔에는 영락장식이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아미타삼존 아래에는 6구의 보살이 입상으로 나란히 서 있다. 6대보살의 가슴 높이에 중방이 가로 지르고 벽선으로 나뉘어 6쪽의 토벽과 수장재 표면에 걸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들 6대보살은 아미타삼존도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팔대보살을 이루었는데, 아미타불의 좌우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대보살은 문수보살·보현보살·지장보살·미륵보살·금강장보살·제장애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탑과 여의 같은 지물을 들거나 천의자락을 잡고 있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지물이 표현되지 않아 존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보통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 등이 서로 상대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볼 때 향우측에서부터 금강장보살, 지장보살(두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여의), 제장애보살(그릇)로 추정된다. 이들 역시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보관의 장식이 정교하고 수식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6대보살 아래로는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이곳에는 중인방 밑에 2개의 벽선을 세워 3쪽의 토벽과 벽선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雨期의 빗물과 습기로 인해 박락과 손상이 심하며, 사람들의 손길이 쉽게 닿는 곳이어서인지 신장의 얼굴은 고위적으로 지워졌거나 훼손된 곳이 많으며 補彩도 가해졌다. 3칸으로 벽을 나누어 중앙에는 2구, 좌우에 각 1구씩의 천왕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의 사천왕은 보통 동북천왕, 서남천왕이 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볼 때, 용을 든 천왕이 동방지국천, 칼을 든 천왕이 북방 다문천, 화살을 든 천왕이 남방 증장천, 비파를 든 천왕이 서방 광목천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천왕상들과 지물이 달라 존명은 확실하지 않다. 천왕은 모두 장대한 신체에 갑옷을 입고 있으며 신장으로서의 위엄과 당당한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한편 중앙칸 벽화의 향우측 벽에는 팔부중 가운데 4구가 그려져 있다.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구반다가 배치되었으며 그 아래로 象王이라고 적힌 코끼리 모습의 신장과 홀을 든 천, 어금니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모습의 마후라가가 그려졌다.

이와 상대하는 반대편 동벽에도 나머지 4구의 신장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팔부중 가운데 1구만 남아있다.

[동측면 벽화]

동측면 벽에는 서측면벽과 마찬가지로 상인방이 그림의 중앙을 가로 지르고 벽선이 상하에 2개씩 있어 6쪽으로 되어 있다. 중앙칸은 서측벽과 마찬가지로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중단과 하단의 벽화는 탈락되었으며 왼쪽 칸 하단은 문으로 되어 있어 벽화가 그려지지 않았고 오른쪽 칸의 벽 일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중앙칸에는 약사삼존도가 묘사되어 있다. 다양한 색대로 장식된 광배를 배경으로 본존 약사불은 결과부좌의 자세로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육계가 뽕족하며 머리 중앙에 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눈 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신체는 어깨가 직선적이며 사각형적이어서 아주 장대해 보인다. 옷은 통견으로 붉은 대의를 걸쳤으며 옷깃에만 무늬가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들었으며 왼손은 배에 대어 약그릇을 든 약기인을 취하였다. 왼쪽에는 일광보살, 오른쪽에는 월광보살이 협시하였는데 각각 보관에는 붉은 해와 흰 달을 표현하였으며 일광보살은 연꽃줄기, 월광보살은 여의를 들었다. 풍만한 얼굴에 장대한 체구가 서측벽면의 아미타삼존도와 유사하다.

약사삼존도 아래에는 人獅子王이라고 쓴 입상의 신장이 1구 배치되어 있다. 하체부분의 탈락이 심하지만 붉은 머리칼이 위로 뻗쳐올라간 모습과 작은 얼굴에 치켜 올라간 눈, 팔자의 붉은 입 등에서 험상궂은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머리 옆에 흰 달의 모습이 보이고 양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수라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어 확신하기는 어렵다.

2) 자료 : 현판기문

○ 신흥사대웅전중수기 현판(1801년)



新興寺大雄殿重修記

洪惟我釋迦氏之垂化也分身百億應跡十方
 開導群迷□拔流品爲一代之教主作萬古之表準
 凡有寫刹之羅於八城者孰不爲之尊仰其範執持其
 道也哉梁之新興大雄殿亦善逝之遺貌而始創於
 順治己酉性淳師之所尸之也於焉之間棟樑腐隕
 丹碧漫漶風雨之侵幾及尊像不能免仰屋之
 歎久矣時九龍大士居其寺慨然發心押募疏得八百
 餘財辛酉仲春始運斧至孟夏設功而香爐殿五間
 亦同時改造輪奐翬飛增俊舊制余時在梵魚寺欲
 賀九龍之勞而無由也此際公作蓬萊之行因過余
 請記文余曰諾自古名山勝刹豐功偉績之傳於後世
 者皆由記而詳也今公之善葺亦出於□神積□而能
 易舊增新興廢補完惡不可記而傳之耶雖然兔角
 龜毛之畫樑混入於空花幻域之中而景色本空無物
 可取復何有寶刹之莊嚴酣宮之修飾乎且談功記績皆涉
 於誇而喪於儉非吾佛所謂難相不着之意也公若脫之而歸
 功於太空卽無形之德不言之功垂空劫而無盡也公曰我則不有
 之功而都監淨雲師之執勞不可以不錄遂書而誌之

嘉慶六年辛酉七月日

浩溟軌觀述

施主秩	李宗權	一兩秩	金后是	
嘉善金斗善五十兩	金道昌		宋己男	緣化秩
嘉善有□二十兩	車至暎		宋興孫	都片手道云
襄開世十兩	洪樂函		金一□	前韓大順
崔尙□十兩	金□口		禹春成	後吳石天
金奉才十兩	金七宝		兪□□	安□枝
宝敏七兩	朴命石		金有成	金命得
萬峰五兩	姜以大		文性	卜但
吳大行五兩	池仁采		助□秩	金□化
鄭德□	二兩秩 池魚大		有札	知閑
奇□□	池麗□		瑞允	快文
韓□□	金大成		瑞快	趙允卜
全□安	□□□		幻一	冶金正云
永守	南氏		兼玉	蓋瓦朴同仁

萬學	通度寺	寬□	允□
道心	梵魚寺	有文	鉅刀裴后時
有行	吳正寺	定守	金正孫
金□任□	一兩秩 國清寺	性守	負木朴得世
三星暑澄	雲水寺	成□	供養 文字
影月□澄	石南寺	普札	戒玉
念一	極樂菴	成一	性云
宝□	內院菴	成□	本寺秩
有希	呂一禮	成□	前御平順
慎寬	尹臈	慶信	有寬
抱印	體有	成玉	有札
戒□	崔□卜	成學	瑞允
守悟	林□柱	性□	觀榮
有還	尹尙□	有登	董玉
能玳	黃得用	性□	宝敏
萬曄	金用□	天俊	時任憂定
偉□	鄭靜□	有安	書記萬□
宏學	安□校	金昇用	典座萬曄
炯心	劉漢徵	張三采	首僧成侃
就奎	劉漢慶	金□文	直歲有信
成俊	李思烈	菊洋	三補性覺
鄉校中	徐昌永	金血喆	東片長成敏
養士齋	金奉世	李是石	西片長性惠
作廳	朴慶俊	金孫男	山中秩
杖房	金啓用	安望重	淨雲體休
校首老廳	張一奉	金次喆	藥峰永希
判廳正祖十石		林□年壽	九龍有澹
大化士九龍有檐		金壽福	持殿戒言
都監淨雲體休		金 俊	寺主有寬
次化藥峰永希		金卜來	功刻□秀文五貫
別座通政萬曄		化主陪行成敏	性林
外都監通政有札		性□	
持殿新岩戒言募得二千貫立法字長灯本資又以爐殿			
修裝等事專身用苦不必皆記			

内外往返幹事通政觀榮 侍奉定和同苦
里一日土役 成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건물 내·외벽과 포벽, 건물 내부의 대랑과 고주에 그려진 별화 등을 포함하여 50여점에 이른다.

내부의 벽화는 동·서면(건물을 향하여 우와 좌측)의 벽체와 남·북면의 포벽과 내목도리 윗벽 그리고 후불벽 뒷면 등 빈 공간 없이 부처의 세계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건물이 맞배지붕이어서 동·서면의 벽면이 매우 넓은데 이에 걸맞게 그려진 불·보살도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용이 느껴진다. 동면의 벽화는 벽면 중앙 윗부분에 앉은 자세의 藥師三尊圖, 좌·우측의 평주와 창방 위에는 如來圖와 八相圖, 벽면을 향하여 왼쪽 끝 창방 아래 벽에는 阿修羅圖가 배치되어 있다.

서면의 벽화는 벽의 가로부재인 중방과 상방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하 거의 三等分으로 구분한 화면에 그려져 있다. 제일 윗부분에는 앉은 자세의 阿彌陀三尊圖, 중간부분에는 6軀의 菩薩圖를, 중방 아래인 제일 밑부분에는 四天王圖를 배치하였다. 좌·우측의 평주와 창방 위에는 동벽과 마찬가지로 如來圖와 八相圖를, 벽면을 향하여 왼쪽 끝 창방 아래 벽에는 神衆圖가 그려져 있다.

후불벽 뒷면에는 검은 군청 바탕에 白色顔料로, 좌상의 관음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음을 묘사한 <線描 三觀音圖>가 있다. 이 이외에도 빗반자, 포벽, 내목도리 등에 각종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신흥사 대광전은 1988년 해체보수 때 발견된 상량문의 ‘順治十四年 丁酉年(1657)’이라는 기록과, 이보다 4년 앞선 ‘順治十年(1653)’銘의 암막새 기와를 통해 1657년(효종 8)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광전은 원래는 대웅전 이었던 듯하며, 『新興寺大雄殿重修記』 현판의 내용에 의하면 1801년 대대적인 보수가 시행되었다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우선 17세기 후반 건물을 중창하였을 때 그려졌고 이후 또 한번 대대적으로 중수한 1801년에 개채 또는 새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벽화의 상태를 살펴보면, 동벽과 서벽의 약사와 아미타삼존도는 일부 개채가 있기는 하지만 17세기 후반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서벽의 6軀의 보살도와 그 아래의 사천왕도 역시 개채가 되었으나 비교적 원상을 잘 전하고 있다. 그러나 東西 양 벽의 八相圖를 비롯하여 포벽과 내목도리 윗벽의 여래도 등은 여러 번에 걸친 개채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잃었으며 후불벽 뒷면의 <線描 三觀音圖>는 1801년 대대적 중수시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비록 일부가 개채되었고 19세기 초 중수시에 그려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동·서면의 약사삼존도와 아미타삼존도의 경우는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불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서면의 벽화는 국내 유일의 17세기후반의 귀중한 사례로 아수라도, 신중도와 함께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양산 신흥사는 원효대사(617~686)가 처음 개창했다고 전한다. 이후 사적기라든가 관련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지만, 1988년 대광전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암막새 기와에 ‘順治十年四月’이라고 쓴 명문이 발견되어 1653년에 대광전에 사용할 기와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체 보수 때 종도리 뱃바닥에서 발견된 묵서된 상량기에 ‘順治 十四年 丁酉年 四月 十七日 上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657년에 현재의 대광전이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대광전에 남아 있는 「新興寺大雄殿重修記(1801년)」 현판에 “... 대웅전은 順治 己酉년에 性淳스님이 주관하여 창건했으나 세월이 흘러 棟樑이 썩어 떨어지고 단청이 흩어졌으며, 비바람이 尊像에 미치게 되니 지붕을 쳐다보고 탄식함을 면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때 九龍대사가 절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募緣을 하여 신유년 仲春에 공사를 시작하여 초여름에 이르러 공역을 마쳤으며, 香爐殿 5칸도 동시에 개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 1801년에 대광전을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17세기 후반 건물의 중창과 함께 그려진 듯하며, 「신흥사대웅전중수기」에서 보듯이 19세기 초 중창 때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벽화들은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17세기에 대광전이 중수될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물에 보이는 형태적 특징, 예를 들어 풍만한 얼굴과 큼직한 나발의 표현, 치켜 올라간 얼굴과 작은 입, 방형의 건장한 신체표현 등은 1687년 쌍계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1649년 보살사 영산회상패불도, 1653년 화엄사 영산회상패불도 등 17세기 중반 경의 불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벽화 또한 17세기 중엽 경에 처음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서벽 하단의 사천왕도라든가 동벽 하단의 팔부중도 같은 일부 벽화는 사람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위치하고 또 벽체를 통해 들어온 빗물의 피해로 인해 벽체의 손상과 채색의 박락이 심하며 후보의 흔적이

보인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서측면 벽에 아미타팔대보살도와 사천왕 및 팔부중을 배치하고 동측면 벽에는 약사삼존도와 팔부중을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후불벽에 석가모니벽화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도는 중앙에 석가모니불화를 배치하고 향우측에 약사여래도, 향좌측에 아미타여래도를 배치하는 삼세불화의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시대 벽화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세불벽화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뿐 만 아니라,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벽화 가운데에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자 다양한 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1988년 해체수리 시, ‘順治十年四月’銘이 있는 암막새가 발견되었고 종도리 뱃바닥에는 ‘順治十四丁酉年四月十七日 上樑’이라는 묵서상랑기가 발견되어, 1657년에 크게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01년에 씌여진 「新興寺大雄殿重修記」에 따르면, 順治 己酉年 性淳이 주관하여 창건한 대웅전이, 棟樑이 썩고 단청이 흩어져 비바람이 존상에 미치게 되어 九龍大師가 모연하여 嘉慶 6年 辛酉(1801) 仲春에 공사를 시작하여 초여름에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해, 초창기에는 ‘大雄殿’이라는 전각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1801년에 단청을 비롯한 벽화 등에도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신흥사 대광전 내·외벽에는 총 71폭의 벽화가 현존하고 있다. 그 중 주제의 완결성을 가진 벽화는 좌·우측벽의 약사·아미타여래설법도, 신중도, 그리고 후불벽면의 三觀音菩薩圖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며, 지정대상 검토 대상도 이에 한정한다.

대광전 좌·우 벽면에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와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가 그려졌다. 대광전의 좌우 측벽은 건축의 구조상 상하로 3개의 벽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좌우 벽면의 벽화도 3단 구도로 되어 있다. 서벽에 그려진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최상단에 아미타여래삼존도를, 중단에 6대보살, 하단에 사천왕상과 신중을 위계질서에 맞게 배치하였다. 좌측벽의 최상단에는 日光과 月光菩薩을 협시로 한 약사여래삼존도가 그려졌고, 중단은 후대에 벽체가 교체되어 어떠한 벽화가 그려졌는지 알 수 없으며, 하단에는 아수라왕도 1위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앙 후불벽에는 석가여래설법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레야만이 초창기의 대웅전의 전각명과 부합한다.

신흥사 대광전 좌우측벽의 약사여래삼존도 및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는 임진왜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에서 크게 유행한 삼불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삼불신앙은 조각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어 그 예가 많은 편이나 불화는 일반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많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불화에서는 3폭의 후불화로 그려진 예가 많으며, 벽화로 그려진 예는 신흥사 대광전 벽화를 비롯하여 범어사 대웅전, 통도사 약사전 등이 있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조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후불화 내지 벽화와 후불화의 혼합된 형태로 조성되어 나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신흥사 대광전 약사삼존도,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는 벽화로서는 매우 드문 三佛會 형식의 構成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아미타여래삼존, 6대보살, 사천왕, 팔부중이 체계적으로 배치된 설법도적 구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라고 하겠다. 비록 후대에 일부에서 보채와 보수 흔적이 있지만 필선, 형태, 채색, 문양 등에서 17세기 후반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간직한 벽화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三佛會 벽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불벽면 뒷벽에 흑색바탕에 백색 선묘로 그려진 三觀音菩薩圖는 水月觀音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魚籃觀音과 白衣觀音이 협시하는 형태로 그려진 벽화이다. 33변화 관음 중 수월, 백의, 어람관음 3위를 선택하여 마치 삼존형식처럼 구성한 독특한 형식의 선묘불화이자 국내 유일한 예에 해당한다. 삼관음보살도는 색채를 제외한 인물표현이나 선묘, 형태, 비례 등에서 아미타설법도 벽화와 거의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나 수법이나 기량에서 다소 떨어진다. 동시기, 같은 화원에 의해 조성되었을 수도 있으나, 수법 상 1801년 중수 시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흥사 대광전의 건물 내·외벽에 그려진 채색 벽화는 내부 56점, 외부 15점 등이 전한다. 외부 벽화는 풍화로 인해 박락이 심해 도상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내부 벽화는 벽체의 균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하며, 뛰어난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벽화가 사라져가는 점을 고려할 때, 대광전 벽화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현재 내부 벽화 중 가장 주목되는 벽화는 동·서측 벽화와 후불벽 이면의 관음벽화다. 동측벽은 중앙칸을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약사와 일

광·월광보살로 구성된 약사삼존도를 그렸고, 중하단 벽체는 새로 교체된 것으로 현재 벽화는 남아있지 않으며, 하단부 향좌측 벽에는 아수라상이 그려져 있다. 서측벽도 동측벽과 같이 중앙칸을 상·중·하 3단으로 구성하였고, 중앙칸의 상단에는 아미타와 관음·세지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도를, 중단부에는 육대보살을, 하단에는 사천왕을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단부 향우측벽에는 신장상을 그렸다.

동서측벽의 약사삼존도와 아미타삼존도의 본존상은 설법인에 결가좌를 취하고, 협시보살상은 모두 한쪽 발을 아래로 내려뜨린 유희좌의 자세이다. 약사여래의 두부는 지발과 치솟은 육계에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아미타는 지발과 완만하게 솟은 육계 사이에 중간계주만 표현하였을 뿐 정상계주는 생략하고 있다. 본존의 상호는 장방형에 턱 선이 약간 가름한 편으로, 양쪽 눈 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입술 가운데는 완만한 능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뚝 솟았으며 양쪽 입 꼬리는 수평상으로 길게 뻗은 형태이다. 신체는 넓게 떡 벌어진 어깨를 지닌 건장한 모습이다. 협시 보살상의 측면 얼굴은 양볼에 양감을 지닌 통통한 모습으로 17세기 불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본존의 가슴아래에 중방이 가로질러 채색의 결락과 마모현상이 보이며, 연화대좌의 청색 안료의 박락도 심하다. 게다가 약사삼존도의 연화대좌 줄기에 채색된 녹색이 아미타삼존도에는 백록색으로 칠해진 점, 육보살상의 안면에 칠해진 백색과 군의의 백록색 등은 모두 후대에 가해진 흔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단부에 그려진 사천왕과 신장상 부분에 농채 및 농묵의 거칠고 경직된 선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황색, 흑색, 대자, 백색, 백녹색 등의 보채, 안면부의 색선묘, 농묵의 이중선묘의 의습선 등에서 개채 흔적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벽화의 하단부는 상단부보다 훼손되기 쉬운 위치이어서 몇차례 걸쳐 보채나 가필 등 개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불벽 뒷면의 흑색 바탕에 백선묘로 그린 관음벽화는 중앙의 수월관음좌상을 중심으로 어람관음과 백의관음 입상을 협시로 배치하였다. 이 벽화는 본존 관음좌상을 중심으로 응신장면을 조합하여 구성한 관음벽화로 조선 후기 주전각 후불화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중앙의 관음좌상의 상호는 동서측벽 본존상의 표현기법과 거의 흡사하다. 관음의 정병 역시 17세기 정병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으며, 3위의 관음상의 착의에 시문된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의 모티프 역시 16세기 선묘불화의 문양을 이어받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후대에 손을 댄 흔적이 엿보인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의 조성시기는 대광전이 1657년(효종8)에 중창된 건물로 추정되어 동·서측 주요 벽화는 1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신흥사대웅전중수기」 현판을 통해 대광전이 1801년에 중수된 사실로 미루어 이 시기에 벽화가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부분적으로 개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조선시대 사찰벽화로서 규모도 대작일 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조성된 사례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벽체에 묘사된 도상들의 조합 역시 한국 불교회화사 연구에 자료적인 가치가 높으며 화풍 또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벽화는 전각 건물과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관음벽화는 제작시기에 대해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藥師三尊圖, 210×347, 17세기 후반



阿修羅王圖, 250.4×66, 17세기 후반



阿彌陀三尊圖, 229×342.5, 17세기 후반



六大菩薩圖, 195×342.5, 17세기 후반



四天王圖, 155×335, 17세기 후반



神衆圖, 250.4×137, 17세기 후반

16. 양산 통도사 용화전 벽화 (梁山 通度寺 龍華殿 壁畫)

가. 검토사항

“양산 통도사 용화전 벽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벽화로서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26~27)가 진행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통도사 용화전 벽화(梁山 通度寺 龍華殿 壁畫)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수 량 : 7점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흙벽에 채색
- 형 식 : 벽화
- 제작연대 : 18세기 후반

○ 지정대상 벽화 목록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연 대	위 치
1	一姪空懷精慾喜圖	122.5×143.5	18세기 후반	내부 동측면 벽
2	玄奘秉誠建大會圖	138.5×162.3	18세기 후반	
3	鳳僊郡冒天止雨圖	130.0×145.8	18세기 후반	내부 서측면 벽
4	難滅加持圓大覺圖	128×144.5	18세기 후반	
5	度孤魂蕭禹正空門圖1	139×73.8	18세기 후반	
6	度孤魂蕭禹正空門圖2	138.5×73.5	18세기 후반	
7	黑松林三衆尋師圖	128.5×137.8	18세기 후반	

라. 내용 및 특징

통도사 용화전의 벽화는 건물 내·외부에 남아있다. 외부 벽화는 건물의 남·북 측면 포벽에 각 7점씩 총 14점과 동·서측면 벽체의 상단에 3점씩 총 6점이 남아 있다.

벽화의 배치는 남측면에는 모두 如來圖를 그리고, 북측면에는 羅漢圖, 花鳥圖, 草蟲圖, 故事人物圖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모두 채색의 박락현상이 심한 편이다. 그리고 동·측면 벽체의 벽화들 가운데 동측면의 경우 좌로부터 金剛力士圖, 虎鵠圖, 蝦蟆仙人圖의 순으로 그려져 있으며, 서측면에는 松鶴圖, 雲龍圖, 童子吹笛圖의 순으로 배치되었다. 이 벽화들 또한 포벽화와 마찬가지로 채색박락이 많이 진행되었다.

내부벽화는 포벽과 동·서 측면의 벽체 상단에 그려진 벽화들이 남아 있다. 대체로 외부 벽화들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섬세하고 뛰어난 수작들이다. 내부 포벽은 외부 포벽과 달리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상부 포벽에 18점, 하부 포벽에 14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중 상부 포벽화는 하부 포벽화에 비해 좀 더 다양한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서 측면에는 고사인물도 4점이, 남·북 측면에는 나한도 6점, 고사인물도 5점, 樹木圖 3점이 있다. 반면 하부 포벽화는 남·북 측면 모두 나한도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북측면에만 유일하게 地藏菩薩圖 1점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서 측면 벽체에는 모두 『西遊記』의 내용을 그렸다.

동·서 측면의 벽에 그려진 西遊記圖는 동측면에 3점, 서측면에 4점으로, 이 중 서측면의 중앙칸에 그려진 2점은 하나의 내용을 두 폭에 나누어 그렸으므로 동·

서측면 벽체에는 총 여섯 장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벽화로 그려졌다. 또 그림에는 각각 방제를 기록해 놓아 해당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동측면은 좌측부터 ‘一經空懷情慾喜’, ‘玄裝秉誠建大會’, ‘鳳仙郡冒天止雨’의 순이며, 서측면은 ‘難滅加持圓大覺’, ‘度孤魂蕭禹正空門’, ‘黑松林四衆尋師’의 순이다. 벽화들은 그림의 배치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나 가장 큰 화면인 양측면 중앙칸에 현장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西遊記』 벽화들은 그림의 배치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나 가장 큰 화면인 양측면 중앙칸에 현장법사에 관한 이야기인 11·12회를 그렸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11회 ‘현장병성건대회’는 현장이 정성스럽게 법회를 베푸는 장면으로, 그림의 중앙하단에 등장하는 승려들 중 맨 앞에서 합장하고 이가 바로 현장법사인 듯하다. 이처럼 일부장면이긴 하지만 서유기가 사찰의 벽화로 그려진 것은 현존하는 유일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찰벽화에는 고사인물이나 『삼국지』와 같은 소설류의 내용을 주제로 한 것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서유기』의 판본 가운데 18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드문데, 이러한 내용을 사찰벽화로 나타낸 것은 통도사 용화전이 최초의 경우라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대략 건물이 중건된 해인 1725년(영조 1)에서 용화전 후불탱이 조성된 1798년(정조 22)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벽화에 그려진 여래의 표현이 용화전 후불탱의 여래와 유사하여 18세기 후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외부벽화들은 전체적으로 주조색이 동일해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찰에 전해오는 『佛宗刹略史』에 의하면, 건물은 18세기 초반에 중창된 이후 1858년(철종 9) 飜瓦 불사와 1899년 중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외벽화는 건물의 중수연대를 고려해 대략 19세기 후반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측면의 포벽화 중 일부는 후대에 덧칠한 흔적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통도사 용화전의 벽화는 건물 내·외부 모두 합하여 40점에 가깝다.

내부 벽화는 포벽에는 주로 고사인물도, 나한도, 樹木圖 등이 그려져 있고, 동·서면에는 『西遊記』의 내용이 묘사되었다.

동·서면에 그려져 있는 西遊記圖는 동서 각각 세 가지 내용으로, 모두 여섯 장면인데, 각 장면에는 방제가 기록되어 있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즉, 100건의 이야기 가운데, 東面은 좌측부터 94회 ‘一經空懷情慾喜’, 11회 ‘玄裝

秉誠建大會’, 87회 ‘鳳仙郡冒天止雨’를, 西面은 84회 ‘難滅加持圓大覺’, 12회 ‘度孤魂蕭禹正空門’, 81회 ‘黑松林四衆尋師’를 圖繪하였다.

용화전은 1725년(英祖元年)에 중건되었고, 『佛宗刹略史』에 의하면, 1858년(철종9년)에 飜瓦 불사를, 1899년에 다시 중수되었다 한다. 내부벽화 가운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西遊記圖는 1798년(정조 22)에 제작된 용화전 후불화와 화풍상 유사하여 그 제작시기를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개채의 흔적도 보인다. 나아가 그 이외의 벽화들은 개채가 심하여 제작시기의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西遊記圖는 일부장면이기는 하지만 현존 유일의 사찰 벽화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통도사 용화전에는 건물 내·외부벽에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남아있다. 외부의 벽화는 如來圖를 비롯하여 羅漢圖, 花鳥圖, 草蟲圖, 故事人物圖, 金剛力士圖, 虎鵠圖, 蝦蟆仙人圖, 松鶴圖, 雲龍圖, 童子吹笛圖 등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상당부분 채색이 박락되었다. 이들 벽화는 용화전이 중수된 1858년(철종 9) 飜瓦 불사와 1899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벽화는 후대에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부 벽화는 외부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다. 내부에는 고사인물도를 비롯하여 나한도, 樹木圖, 地藏菩薩圖, 西遊記 벽화가 그려졌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서측벽에 그려진 6점의 『西遊記』 벽화이다. 서유기 벽화는 동측면에 좌측부터 94회 ‘姪空懷情愆喜’, 11회 ‘玄裝秉誠建大會’, 87회 ‘鳳仙郡冒天止雨’, 서측면에 84회 ‘難滅加持圓大覺’, 12회 ‘度孤魂蕭禹正空門’, 81회 ‘黑松林四衆尋師’가 배치되었다. 사찰 벽화에 서유기를 그린 것은 통도사 용화전과 불국사 대웅전이 대표적인데, 불국사 대웅전 서쪽 벽에는 61회 ‘저팔계가 도와서 마왕을 이기고 손오공은 파초선을 세 번 부친다’[豬八戒助力敗魔王 孫行者三調芭蕉扇]는 내용의 豬八戒助被魔圖(도26), 오른쪽에는 62회 ‘몸과 마음 맑게 하여 탑을 쓸고 마귀를 正道로 귀의시킨다’[滌垢洗心惟掃塔 縛魔歸正乃修身]는 내용의 縛魔皈正得修身圖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불국사와 통도사에 모두 『西遊記』 벽화가 그려진 것은 1759년 임한과 옥상, 수성 등이 통도사 대광명전과 용화전의 벽화를 그린 후 8년 뒤인 1767년에 임한의 수제자였던 하운이 중심이 되어 불국사 대웅전 벽화를 제작함에 따라 두 사찰의 벽화가 유사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도사 용화전 벽화 중 내부벽화는 1759년경 대광명전 벽화와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록색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쓴 점이든가 윤곽선을 따라 짙게 적색으로 음영을 가한 기법 등이 20세기 중엽 대응전을 중수할 무렵 후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국사 대응전 벽화와 매우 유사하여, 기본적인 도상은 18세기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채색은 20세기 중엽경에 새로 덧칠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벽화중 서유기벽화 6점은 비록 후에 보채되긴 하였지만,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西遊記』의 판본 가운데 18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드물고 또 사찰벽화로 표현된 것은 통도사 용화전 서유기벽화가 최초라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통도사 용화전에 남아 있는 내부벽화 총 39점 중 지정검토 대상은 현장법사의 『서유기』와 관련된 벽화 7점이다. 『西遊記』는 중국 法相宗의 창시자인 玄奘法師가 入竺求法の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이다. 서유기의 주요 장면 중 일부를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용화전 내부 벽화로 채택한 것은, 현장이 중국 법상종의 창시자라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용화전 벽화도상으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서유기』 벽화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서는 유일한 예로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서유기』 벽화는 도상적으로 희귀하고 양식적 특징상 18세기 후반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하지 않고 인물표현이나 세부표현, 색채, 필선 등에서 종교적, 예술적 감성이 잘 발휘된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상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통도사 용화전의 벽체에 그려진 채색벽화는 내부 39면, 외부 20점에 이른다. 외부 벽화는 박락현상이 심해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내부 동·서측의 벽면과 포벽, 남·북측 포벽 등의 벽화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채색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다.

동·서측의 중앙 벽면과 좌우벽면에는 西遊記 관련 도상이 그려져 있다. 총 6 장면으로 장면마다 목서의 방제명이 있는데, 동측면은 ‘一經空懷情慾喜’, ‘玄裝秉誠建大會’, ‘鳳仙郡冒天止雨’, 서측면은 ‘難滅加持圓大覺’, ‘度孤魂蕭禹正空門’, ‘黑松林四衆尋師’라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동·서측 벽면의 상단 포벽에는 고사인물도가 그려져 있고, 남·북측 상하 포벽에도 고사인물도를 비롯하여 나한

도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지장보살도와 수목도 등이 그려져 있다.
동·서측 벽화의 중앙칸에 그려진 ‘玄裝秉誠建大會’ 장면은 현장이 법회를 베푸는 장면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찰벽화에 고사인물이나 『삼국지』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사례가 적지 않으나, 『서유기』 관련 설화도를 사찰 벽화에 표현한 사례는 통도사 용화전 벽화가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양산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조선후기 벽화를 이해하는데 그 자료적 가치면에서나 화풍상으로 볼 때 중요한 벽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유기 장면 중 극히 일부 장면만이 설화풍으로 그려진 사례이며, 벽화 39점의 규모도 소규모에 해당한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하한선이 18세기말 경으로 추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부결



一姪空懷精慾喜圖, 122.5×143.5, 18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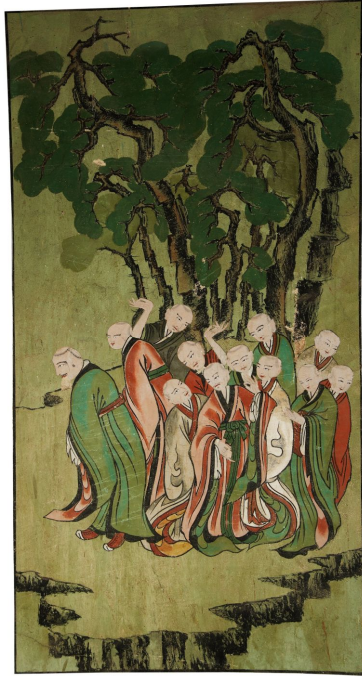
玄奘秉誠建大會圖, 138.5×162.3, 18세기 후반



鳳僊郡冒天止雨圖, 130.0×145.8, 18세기 후반



難滅加持圓大覺圖, 128×144.5, 18세기 후반



度孤魂蕭禹正空門圖1
139×73.8, 18세기 후반



度孤魂蕭禹正空門圖2
138.5×73.5, 18세기 후반



黑松林三衆尋師圖, 128.5×137.8, 18세기 후반

17.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陝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 經板)

가. 검토사항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는 2008년도에 진행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서부지역)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로 2차 소위원회('10.09.16)에서 지정검토 대상으로 보류된 사안임.
- 보류 사유는 지정가치는 있으나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소장경위 조사 후 국보 제32호에 추가 지정, 보존·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해인사 관음암으로부터 입수 및 보존관리 계획서를 접수받았음.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陝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 經板)
-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 관음암(불교중앙박물관 기탁)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수 량 : 2매
- 규 격 : 전곽 21.8×48.5cm
- 재 질 : 나무

- 형 식 : 경판류
- 제작연대 : 고려시대

라. 내용 및 특징

1) 형태사항

내전수함음소 경판 內典隨函音疏 經板

고려시대, 나무, 전체 24.7×78×4.1, 전곽 21.8×48.5, 2매

板心題 :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刊記 :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所藏板 : (1, 2), (3, ×)

2) 조사내용

[경판내용] -

이 경판은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으로 490권에 해당하는 불경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一部十卷>의 音疏이다. 내전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을 말하며, 음소는 음에 관한 주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불경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실천 덕목은 바로 <육바라밀다>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불경은 대승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터득하여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전체 내용은 모두 10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품에서 제4품까지는 일반적인 서술로서 대승 반야에 대해서 말한 뒤, 제6품에서 제10품까지는 6바라밀 각각에 대해서 한 품씩 나누어서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승 반야 사상을 6바라밀다의 수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판은 모두 2판으로 앞뒤 양면으로 조각되어 있으나, 음소가 수록된 면은 모두 3면으로 되어 있다. 권수 경제부분에 권490에 해당되는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1부 전 10권을 대상으로 음소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권말에는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판각기가 새겨져 있어 1245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판에서 인출한 자료가 일본의 大谷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인출시기는 대략 고려 말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판은 합천 해인사 판전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고려 말 이후 어느 시점에 유출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판내용] -

『內典隨函音疏』는 唐末 五代의 行韜스님이 편찬한 音義書이며 전체는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內典隨函音疏』 권490 목판은 2판 3장으로 1245년

(고려 고종 32)에 판각된 것이다. 내용은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중 권10에 대한 音義 대상부분을 1~3장에 나누어 수록한 138개 어휘 항목에 대한 주석이다. 권수에는 제목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에 이어 ‘貞元’ ‘音詮字體 疏釋經文’이라 小字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框’의 함차가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 ‘響川西巒沙門 釋 行韜 製’라는 저자가 있고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一部十卷 闍賓國三藏般若譯’에 이어 본문은 계빈국 반야가 한역한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一部分인 10권에 대한 음의를 1장 50개, 2장 50개, 3장 38개 모두 138개가 수록되었다. 끝에 ‘已上大乘理趣經一部十卷竟’은 이상 『大乘理趣經』 일부인 10권이며 함차는 ‘竟’임을 표시하고, 권말에는 권말제와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표시되어 있다. 이 목판의 총길이는 77.3cm, 총 넓이는 24cm, 두께는 3.1cm, 刻字面部 길이 48.6cm, 刻字面部 넓이 21.8cm, 마구리 두께 4cm, 1면은 23행 14자이며, 양면으로 새겼고 경이 끝나는 3장은 일면으로 끝났다. 1장과 3장 난외에는 ‘德之’라는 각수명이 새겨져 있고 2장과 3장 끝에 板尾題에 해당하는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第三張 框’이라는 經名, 卷次, 張數, 函次를 새겼으며, 두 끝의 마구리 각목에도 ‘框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第三丈’의 순으로 새겼다. 네 모서리에 銅製 장식을 하였는데 고려 고종판과 거의 같다. 이 內典隨函音疏 권490은 고려 고종판과 동일한데 현재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32호)에는 남아 있지 않다. 『內典隨函音疏』는 현재 京都國立博物館의 守屋collection 중에 金栗山藏經의 零本으로서 권307이 전해지고, 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 고려대장경 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靈要門 권말에 권481과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卷10 말에 권490이 붙어 있다. 대곡대학 고려대장경은 1381년에 廉興邦과 廉悌臣 등의 시주로 印經하였음을 밝히는 李穡의 발문이 붙어 있는 신록사 소장 대장경이었는데 1414년(태종 14)에 일본 국왕에게 보내준 것이 여러 번 옮겨지다가 대곡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이 『內典隨函音疏』는 대장경의 계보와 음의연구에 귀중한 자료인데 현재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본과 영인본에는 없다.

[경판내용] -

내전수함음소는 고려 고종 때 완성한 해인사(팔만)대장경의 수록분으로 1245년(을사, 고종32)에 대장도감에서 각성한 경판이다.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오타니(大谷)대학 소장 고려대장경”에 따르면, 일본 교토 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되어있는 587상자에 4,995첩의 고려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의 간인본으로 알려졌다. 오타니대학 소장본 마지막 권의 권말에 있는 이색의 발문을 따르면, 이 대장경은 1381년(우왕7) 당시 재상이었던 廉興邦 등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장경에는 국보 제32호인 해인사(팔만)대장경판에

이미 결락되어 영인본에도 수록되지 못한 內典隨函音疏 권481과 권490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전수함음소는 법원주립, 일체경음의, 속일체경음의 등과 함께 해인사(팔만)대장경에만 수록된 소중한 불서이다.

해인사 관음암 소장의 내전수함음소 권490은 오타니대학에 소장중인 대장경의 해당부분의 경판이다. 이 소가 국보 제32호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의 전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대장경을 만든 고려인들이 이 소를 대장경 전질에 포함시켜 인경한 사실을 볼 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해인사 판전에 보존 관리 협의 후 지정)

이 목판 문화재는 현재 합천 해인사 판전에 수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에 포함되어 함께 보존 관리되어야 하나, 유출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장경 목판은 현재 국보(제32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재이다. 따라서 별도로 지정 관리하기 보다는 해인사 판전에 보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유물 소장자와 관리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문건으로 명시될 때까지 지정을 보류하고, 합의 이후 기 지정된 번호에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 (해당 경판에 대한 조사 후 지정)

이 『內典隨函音疏』 권490 목판의 규모 및 체재, 마구리 네모서리에 동제 장식 등은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고종판과 동일하다. 현재 해인사 대장경판에는 남아 있지 않고 인출본이 일본 大谷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인사 대장경판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에 추가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소유자인 관음암(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하는 제반 절차가 선결된 후에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해인사 대장경판에 보존관리 절차 후 지정)

이 경판은 향후 국보 제32호인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되어야 할 경판이다. 그러나 이 경판이 언제 유출되었는지를 아직 조사하지 못하였고, 또 이러한 경판이 향후 더 발견 또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판의 유출과 보존 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거친 뒤, 국보 제32호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보류

<붙임>

해인사 관음암

수 신 : 문화재청장
참 조 : 유형문화재과장
제 목 : "내전수함음소" 고려목판의 보존관리 계획서 제출의 건

1.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써 민족문화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화재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유형문화재과-5806(2010.11.11)호 관련 공문입니다.

3. "내전수함음소" 고려목판의 보존관리 계획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 "내전수함음소" 보존관리 계획
나. "내전수함음소" 입수 경위. 끝.

해인사 관음암 감원 혜 일



□ 문서번호 : 제 2010 - 10호 □ 시행일 : 2010. 11. 15.
□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관음암 □ 전화 : 055)934-1064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입수 및 보존관리의 계획서

가. "내전수함음소" 고려 목판에 대한 소장기관(관음암)의 보존관리 계획
해인사 관음암 소장, 고려시대 목판 <내전수함음소>은 현재 보존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불교중앙박물관(서울 조계사 경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내전수함음소>는 역사적 중요성이나 상징성 등과 보존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을 살펴볼 때 해인사 장경각 관전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인사 대중의 일원인 소장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물 구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문중 스님들과 해인사 본사 측과 함께 논의하여 해인사 장경각 관전에 영구 위탁하는 시기와 절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내전수함음소" 고려 목판의 입수 경위

고려시대 목판 <내전수함음소>는 2008년 경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구입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고인쇄박물관이 해인사박물관측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없었던 해인사박물관측으로부터 해인사 관음암 명의로 유물을 구입하여 가야산 해인사 산내에 <내전수함음소>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입·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내전수함음소>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고, 귀중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인사(관음암) 측에 유물을 양보해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

가. 검토사항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도로개설 현장에서 발견('09.05.11)된 후, 발견매장문화재분류평가심의회('09.10.29) 및 보존처리('10.04.~09.)를 거쳐 국가귀속('11.09.05)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10.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 무게 115kg
- 재 질 : 화강암 자연석
- 제작연대 : 441년(신라 눌지왕25년) 혹은 501년(신라 지증왕2년)으로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비는 신라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의 발견 장소가 냉수리신라비 발

견 장소로부터 8.7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 데다, 비문의 내용 또한 유사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민이 관여된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 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 판결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관직명과 관등 표기의 유사성 및 냉수리 신라비에 나타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신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내용을 연구·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에서 그 연대가 가장 앞선 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라의 서예사와 신라인의 심미경향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문장 기술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의 한문(漢文)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비문의 서체로 보아 중국의 한(漢)나라 또는 위진(魏晉)시대 서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 비의 서체를 굳이 중국의 서예 발전의 과정 상에서 비추어 본다면, 소전(小篆)으로부터 예서(隸書)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상의 고예(古隸)에 비견해 보거나, 상하 장방형(長方形)의 소전체로부터 좌우 편방형(偏旁形)의 예서체로의 이행 과정 상에서 잠시 나타났던 파책(波磔)이 없는 고예체에 비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서체와 서풍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신라의 자생적, 토속적 서체·서풍이라 하겠다. 글자의 결구가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무정형(無定形)적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서체·서풍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篆法)·예법(隸法)·해법(楷法)은 물론 행법(行法)까지도 두루 섭취·융합하여 불균형의 조화를 구현하고 있는 신라적 자생서예라고 하겠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비의 서체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풍모와는 크게 구별되면서도, 앞서 지적했던 이 비의 서체 특징을 광개토태왕비의 서체에 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역시 파책이 없는 고예에 가까운 데다,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또한 어느 한 서체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예법·해법·행법을 두루 섭취·융합하고 있다. 다만 포항 중성리신라비가 보다 무정형적이라면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는 보다 정형적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 신라시대의 심미의식과 초기 신라서예사를 밝히는 데 획기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와 문화 예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고고학적 연대 추정이나 사료적 가치에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비문 내용의 문장 해독을 시도해 본 결과에 의한 소견만을 말하기로 한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석문은 토지나 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판결문으로서의 성격을 띤 문서로 추정되며, 이를 돌에 새겨서 세워두었다는 데에 큰 특색이 보인다.

이 비문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금석문이 출현하지 않는 한, 이 비문 자체의 완벽한 해독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이 비문 그 자체만으로도 서기 6세기 초[이 금석문에 표기된 간지 신사(辛巳)년을 서기 501년으로 비정할 경우]의 신라 사회상이나 제도, 관명, 인명 및 언어 사용의 관행과 신분제도사의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석문이 일단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하여 금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연구를 통하여 고신라비로서 판명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서예의 측면에서 자료의 가치와 근거기준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이 비의 글씨체는 예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곧 고구려의 광개토호태왕비와 통하는 고예서로서 신라특유의 진솔미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가로획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울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예서임을 증좌 할 수 있으며 다소 보이는 해서의 필의는 단양적성비 같은 고해서로 변해가는 전초요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수리비와 봉평비보다도 더욱 신라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진 냉수리비나 봉평비 등에서 밝혀졌듯이 이 비에서도 글씨체에서 보이고 있는 6세기 전반의 특징 속에서 당시의 문자생활의 정도와 고대 한자어의 쓰임 및 용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사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의견들을 근거로 하여 이 비의 중요성은 물론 서예의 예술적인 차원 또한 매우 높은 점을 주안점으로 볼 때 그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부합된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辛巳年 곧 441년, 501년, 561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라전기의 빗돌은 간혹 희미한 글자가 있기는 하나 세척, 적외선 촬영 방법으로 판독이 거의 가능하며, 연대도 올진 봉평비(국보 제124호)나 영일냉수리비(국보 제264호)와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직명, 출신지명, 인명, 관등명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교시를 내리는 이, 교시를 받는 이, 아뢰는 이, 소송당사자, 서약하는 자, 기록하는 자 등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있어 신라 전기의 소송 내용 및 제도, 인물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보급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지정 가치 있음)

1. 석비는 시대에 따라 치석 수법이나 명문을 새기는 기법 등이 점차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암벽이나 자연석에 가까운 돌에 명문을 새기는 방식에서 점차 비신면을 고르게 다듬어 정연한 모습으로 명문을 새기게 된다. 또한 비신을 사각형태로 정연하게 치석하고 각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명문을 새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비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나 개석을 마련하여 비신을 보호하거나, 통일신라초기에 들어서면 귀부나 이수를 결구하여 비신에 대한 상징성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서체와 명문 각자 기법이 완전한 모습보다는 자연적이어서 다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받침이나 개석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신은 정연한 치석 수법 보다는 자연석 상태의 화강암을 고르게 다듬지 않고 비문이 새겨지는 면만 비교적 깔끔하게 다듬어 글자를 음각하여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적인 신라 석비로는 무술명 오작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남산신성비, 올진 봉평 신라비, 영천 청계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석비 양식이 발전하면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순수비와 같이 비교적 정연한 치석으로 건립된 석비들이 출현하게 된다.

3. 이러한 신라석비 변천 과정으로 보아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신에 새겨진 명문이 신라의 지명, 인명, 관직과 관등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문 첫머리에 辛巳라는 간지가 있어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이 영성한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본 포항 중성리신라비는 상부가 약간 넓고 하부가 약간 좁은 모습으로, 최대높이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이며, 무게는 115kg이다.

비의 윗부분은 가장자리를 따라 일부 손상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크게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굴삭기 등의 장비에 긁힌 흔적이 비면의 중앙과 아래쪽 부분에 남아 있다.

글자의 새김은 앞면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면을 약간 편평하게 치석한 후 새긴 듯 하다. 뒷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나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다. 글자는 모두 12행이며, 각 행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가 새겨져 있다. 총 글자 수는 최다 203자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글자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글의 행은 우로부터 좌로, 위로부터 아래로 읽는 순서로 새겨져 있으며, 중간부분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새겨져 줄이 전체적으로 비뚤어져 있다. 비의 오른쪽 가장자리면의 형태가 중앙부분에서 약간 들어가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진 때문이다.

비에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최소 2×2cm에서 최대 3×5cm 정도다. 글자가 새겨진 전면의 경우 1행과 12행을 제외한 매 행의 글자가 새겨진 부분은 57~71.7cm 정도이다. 글자가 새겨진 가로 폭은 30~44cm 정도이고, 상당부분이 하단부분에 비해 다소 넓은 모양이다. 비의 좌우 가장자리에도 약 1.5~5.5cm 정도의 여백을 두고 글자를 새겼다. 글자의 배치 상태로 보아 비의 윗부분은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남겨 둔 채 비의 태두리 형태를 따라 가장 위쪽에서부터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행의 첫 글자들은 높낮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약간씩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비의 아랫면은 약 19~22cm 정도 높이만큼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빈 공간을 남겨 두었다. 비를 다른 물체 (비좌 등) 위에 끼워 새우기 위한 여유 공간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비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각자의 심도도 깊어서 판독하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나, 몇 개의 글자가 마모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데다, 관직과 관등 또는 인명 등을 명확하게 읽어 낼 수 없고, 문장 또한 세련되지 못하여 전체 내용을 완전히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해독 내용은 앞으로의 더 깊고 정확한 연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시 정리하여 아래에 옮긴다.

“신사년 □□ 중 절로□ 휘부의 습지아간지와 사훼의 사덕지아간지가 사훼의 이추지나마와 휘부의 본지나마에게 명을 전한다. 본모자(원주인)인 휘의 사리이사리의 말에 의하면, 소송한 사람은 휘의 평공사미, 사훼의 이수모단벌, 휘의 사리일벌과 피말지·본피훼의 사간지와 불내일벌, 금평사간지, 제지일벌이고, 사인은 나소독지이며, 도사는 휘의 염모지와 사훼의 추수지이다. 이에 거벌의 일사리소두와 고리촌의 구추열지간지와 비죽휴일금지, 나음지촌의 복악간지 및 주근일금지에 명령하고 세간에 알린다. 진벌은 옛날 한 때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의 것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다시 모단벌훼의 작민 사간지에게 돌려 주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사인 과서모리는 후세에 만약 이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중벌을 가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전서 여모두가 그 까닭을 기록하고, 사훼의 심도리가 □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辛巳□□中折盧□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德智阿干支

教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皮末智本彼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干支祭智壹伐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蘇豆古利村仇鄒列支

干支沸竹休壹金智那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支

珍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尔今更還

牟旦伐喙作民沙干支使人果西牟利白口若後世更

善人者与重罪典書与牟豆故記

沙喙心刀里□

이 비의 특징은 <영일냉수리신라비(503년)>, <울진봉평신라비(524년)>과 같은

유형의 울령비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의 명칭과 지명·인명·관직·관등명 등이 다수 언급되어 신라문화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는데 있다. 이 비에 나타나는 고유명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部)의 명칭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것, 인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 관직 및 관등명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향후 이 비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당시 지방 통치방식 및 관등체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부의 명칭에 휘부(喙部), 사훼(沙喙)가 등장하고, 지명에 거벌(居伐), 고리촌(古利村), 나음지촌(那音支村), 진벌(珍伐)이 등장하고, 관등명에 아간지(阿干支), 사간지(沙干支), 나마(奈麻), 간지(干支), 일벌(壹伐)이 등장하고, 관직명으로 도사(道使), 사인(使人)이 등장하고, 인명에 습지(習智), 사덕지(斯德智), 이추지(亦抽智), 사리(斯利), 나마독지(奈麻毒只), 구추열지(仇鄒列支), 비죽휴(沸竹休) 등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요구된다.

이 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 가장 연대가 앞선 것으로, 영일냉수리신라비·울진봉평신라비 등의 서체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도, 보다 신라적인 서예의 원형성을 간직한 신라의 자생적 서예라는 점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비는 신라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의 발견 장소가 냉수리신라비 발견 장소로부터 8.7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 데다, 비문의 내용 또한 유사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민이 관여된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 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 판결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관직명과 관등 표기의 유사성 및 냉수리신라비에 나타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신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내용을 연구·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에서 그 연대가 가장 앞선 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라의 서예사와 신라인의 심미경향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문장 기술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의 한문(漢文)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비문의 서체로 보아 중국의 한(漢)나라 또는 위진(魏晉)시대 서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 비의 서체를 굳이 중국의 서예 발전의 과정 상에서 비추어 본다면, 소전(小篆)으로부터 예서(隸書)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상의 고예

(古隸)에 비견해 보거나, 상하 장방형(長方形)의 소전체로부터 좌우 편방형(偏旁形)의 예서체로의 이행 과정 상에서 잠시 나타났던 파책(波磔)이 없는 고예체에 비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서체와 서풍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신라의 자생적, 토속적 서체·서풍이라 하겠다. 글자의 결구가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무정형(無定形)적 서예 미학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서체·서풍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篆法)·예법(隸法)·해법(楷法)은 물론 행법(行法)까지도 두루 섭취·융합하여 불균형의 조화를 구현하고 있는 신라적 자생서예라고 하겠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비의 서체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품모와는 크게 구별되면서도, 앞서 지적했던 이 비의 서체 특징을 광개토태왕비의 서체에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역시 파책이 없는 고예에 가까운 데다,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또한 어느 한 서체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예법·해법·행법을 두루 섭취·융합하고 있다. 다만 포항 중성리신라비가 보다 무정형적이라면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는 보다 정형적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 신라시대의 심미의식과 초기 신라서예사를 밝히는 데 획기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와 문화 예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내용 및 특징

- 토지나 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판결문으로서의 성격을 띤 문서
- 6세기 초의 사회상이나 제도, 관명, 인명 및 언어 사용의 관행을 알 수 있음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고고학적 연대 추정이나 사료적 가치에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비문 내용의 문장 해독을 시도해 본 결과에 의한 소견만을 말하기로 한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석문은 토지나 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판결문으로서의 성격을 띤 문서로 추정되며, 이를 돌에 새겨서 세워두었다는 데에 큰 특색이 보인다.

이 비문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금석문이 출현하지 않는 한, 이 비문 자체의 완벽한 해독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이 비문 그 자체만으로서도 서기 6세기 초[이 금석문에 표

기된 간지 신사(辛巳)년을 서기 501년으로 비정할 경우]의 신라 사회상이나 제도, 관명, 인명 및 언어 사용의 관행과 신분제도사의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석문이 일단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 현 상

화학작용에 의한 변색이 나타나있고 발굴당시 굴삭기에 의한 상흔이 테두리에 조금 발견되지만 상태가 매우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部の 명칭, 지명, 인명 그리고 관직명 등을 통하여 당시의 지방의 통치방식, 관등 체계 지방의 행정단위나 그 편제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예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체는 古隸書에 속하며 단양적성비의 세련된 古楷書체 이전의 냉수리비, 적성비 등과 맥을 같이 하는 6세기 전반의 서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하여 금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연구를 통하여 고 신라비로서 판명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서예의 측면에서 자료의 가치와 근거기준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이 비의 글씨체는 예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곧 고구려의 광개토호 태왕비와 통하는 고예서로서 신라특유의 진솔미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가로획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울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예서임을 증좌할 수 있으며 다소 보이는 해서의 필의는 단양적성비 같은 고해서로 변해가는 전 초요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수리비와 봉평비보다도 더욱 신라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진 냉수리비나 봉평비 등에서 밝혀졌듯이 이 비에서도 글씨체에서 보이고 있는 6세기 전반의 특징 속에서 당시의 문자생활의 정도와 고대 한자어의 쓰임 및 용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사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의견들을 근거로 하여 이 비의 중요성은 물론 서예의 예술적인 차원 또한 매우 높은 점을 주안점으로 볼 때 그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부합된다고 본

다.

○ 문헌자료

기존의 연구자료인 냉수리비, 봉평비, 천전리서석, 창녕비, 북한산비 등등의 것들과 2009년 9월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

○ 내용 및 특징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에 위치한 곳에서 발견된 이 비는 흑운모 화강암의 자연석에 최대 높이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 무게 115kg의 빗돌에 새겨진 신라고비로, 글자는 모두 12줄, 각 줄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이며, 총글자수는 203자 가량이다.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2×2cm에서 최대한 3.5cm정도이다. 빗돌에 나타난 관직명, 인명, 출신지명, 관등명 등인데, 관직명 3건, 출신지명 9건, 인명 25건 가량, 관등명 8건, 비문상 용어 몇 건 등 다양하다. 빗돌이 흠에 묻혀 있어 간혹 희미하여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세척 등의 방법으로 판독되고 있다. 고비는 대동소이하게 새로운 관직명이나, 인명, 지명, 제도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이나, 이 비 역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을 위해 소송한 내용을 판결, 서약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연구가 정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나타난 것만으로도 신라 고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사료되느니 만큼 매우, 소중한 자료임.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辛巳年 곧 441년, 501년, 561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라전기의 빗돌은 간혹 희미한 글자가 있기는 하나 세척, 적외선 촬영 방법으로 판독이 거의 가능하며, 연대도 올진 봉평비(국보124호)나 영일냉수리비(국보 제264호)와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직명, 출신지명, 인명, 관등명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교시를 내리는 이, 교시를 받는 이, 아뢰는 이, 소송당사자, 서약하는 자, 기록하는 자 등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있어 신라 전기의 소송 내용 및 제도, 인물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보급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 현 상

1.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행정 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

의 현 홍해 중앙교회 앞에서 발견되었다. 이 일대는 발견 당시 포항시가 시행하는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도로개설 작업 중 큰 돌들이 출토되었는데, 정지작업을 위하여 한쪽으로 치워 놓았다고 한다. 이 돌들 중 비교적 편평한 돌을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옮겨 놓았다고 한다. 보관 중이던 돌이 빗물에 씻기면서 일부 글자가 확인되었고, 세척하여 고비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알렸고, 고비임을 확신하게 되어 포항시에 신고하였다. 포항시는 2009년 5월 14일 문화재청에 발견문화재 신고를 하였으며, 관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연락하여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를 조사한 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석비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관 조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비신만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부에 받침시설이나 상부에 개석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석비는 흑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흑운모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암석의 색은 담회색이며 풍화면은 담갈색을 띠고 있다. 비신은 오랜 세월로 인한 자연적인 마멸과 훼손, 도로개설 공사 중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인한 균열과 파손 등이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의 비신은 보존처리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3. 비신은 앞면을 비교적 고르게 다듬어 명문을 세로로 음각했으며, 좌우와 상부에 파손 흔적이 있어 최초 조성시의 명문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다. 특히 향좌측은 크게 파손된 흔적은 없지만 향우측과 상부는 최근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있어 도로개설 공사 중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 명문이 파손 마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감이 있다. 비신 뒷면은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지만 앞면과 동일하게 표면을 고르게 다듬었으며, 앞면보다 많은 면적이 파손된 상태이다. 비신 측면은 파손되어 구체적인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상부로 올라가면서 약간 넓어지는 형태로 치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파손 상태로 보아 최초 조성시에는 평면 사각 형태로 치석되어 비문이 새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1.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앞면은 비면을 비교적 고르게 치석한 후 명문을 새겼는데, 모두 12행으로 각 행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까지 새겼다. 비신의 마멸과 파손으로 인하여 많은 명문이 탈락되었지만,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 남아있는 총 글자 수는 203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경은 최소 2cm에서 최대 5cm까지 크기가 다르며, 비신의 가장자리에는 여백을 두었다.

2. 지금까지 판독된 비문에 의하면 명문의 내용은 신라의 6부와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신라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의 관등명과 관직명도 확인되고 있으며, 사람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신라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3. 비신의 건립 시기는 비신의 치석 수법과 비정형적인 서체, 신라 6부의 명칭이나 관등 관직명 등으로 보아 5-6세기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특히 비문 첫머리에 辛巳가 새겨져 있는데, 辛巳年은 비신의 양식과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501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1. 석비는 시대에 따라 치석 수법이나 명문을 새기는 기법 등이 점차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암벽이나 자연석에 가까운 돌에 명문을 새기는 방식에서 점차 비신면을 고르게 다듬어 정연한 모습으로 명문을 새기게 된다. 또한 비신

을 사각형태로 정연하게 치석하고 각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명문을 새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비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나 개석을 마련하여 비신을 보호하거나, 통일신라초기에 들어서면 귀부나 이수를 결구하여 비신에 대한 상징성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서체와 명문 각자 기법이 완전한 모습보다는 자연적이어서 다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받침이나 개석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신은 정연한 치석 수법 보다는 자연석 상태의 화강암을 고르게 다듬지 않고 비문이 새겨지는 면만 비교적 깔끔하게 다듬어 글자를 음각하여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적인 신라 석비로는 무술명 오작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남산신성비, 울진 봉평 신라비, 영천 청제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석비 양식이 발전하면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순수비와 같이 비교적 정연한 치석으로 건립된 석비들이 출현하게 된다.

3. 이러한 신라석비 변천 과정으로 보아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신에 새겨진 명문이 신라의 지명, 인명, 관직과 관등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문 첫머리에 辛巳라는 간지가 있어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이 영성한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 新羅碑』, 2009.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 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움』, 2009.

한국고대사학회, 『韓國古代史研究』 56, 2009.

한국고대사학회, 『韓國古代史研究』 59, 2009.

19.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가. 검토사항

“이순신 관련 고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 현충사에 기탁된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매은 2011년도 제2차 회의('11.04.14) 심의를 거쳐 보물 제1564호 지정된 바 있음.
- 본 위원회에 부의하는 2점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1.12.02)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최순선(현충사)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 수 량 : 2매
- 규 격 : (1) 사패교지(賜牌教旨) 세로 79.2 × 가로 119.0 cm
(2) 증직교지(贈職教旨) 세로 64.3 × 가로 101.0 cm
- 재 질 : (1) 사패교지(賜牌教旨): 楮紙,
(2) 증직교지(贈職教旨): 紅紙
- 형 식 : 낱장
- 제작연대 : (1) 사패교지(賜牌教旨): 1653년(효종 4)
(2) 증직교지(贈職教旨): 1793년(정조 1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1653, 孝宗 4, 順治 10)>와 (2) <李舜臣 贈職教旨(1793, 正祖 17)>는 그 동안 李忠武公 宗孫家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忠武公 李舜臣 관련 일괄문서로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따라서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와 (2) <李舜臣 贈職教旨>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두 유물은 그동안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 관련 일괄문서로서 보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이순신의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보물 제1564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 함.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문서의 하단 부분이 표구하여 전시하는 과정에서 잘려 나갔으며 교지의 경우 상태가 나빠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 (1653년, 효종 4)

이순신은 1604년 6월 25일에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정식 명칭은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이순신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고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超遷)하도록 했다. 아울러서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婿)를 두 자급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반당(伴佻)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도 하사하였다. 그러나 전란 직후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듬해 즉 1605년 정월 19일에야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에 있던 관노비 8명을 상으로 내렸다.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 1564-11이다. 나머지 5명은 전쟁이 끝난 한참 후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1653년, 즉 효종 4년 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작성한 교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안동부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 사재감, 종친부의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2. 李舜臣 贈職教旨 (1793년, 정조17)

정조는 이순신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재위 17년이던 1793년 7월 21일에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 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이 명령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린 교지가 바로 이것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두 유물은 그동안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

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 관련 일괄문서로서 보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정조실록』

『난중일기』

『서애집』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 古文書の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1) <李舜臣 賜牌教旨>

教旨 / 李舜臣(1545-1598) 受給.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順治 10(1653, 孝宗 4).

1枚 : 9行15字 内外 ; 79.2×119.0cm. 楮紙. 낱장.

內容: 教旨/ [施命之寶]卒統制使李舜臣丁酉討倭時參宣/ 武一等功而奴婢五口未及受出故將/ 安東案付禮賓寺婢南化三所生奴/ 得化司宰監婢千介六所生奴莫奉/ 婢鄭代五所生婢善介宗親府婢莫/ 今三所生婢末叱每司瞻寺婢春伊/ [施命之寶]四所生婢一玉等特賜賞可傳永世者/ 順治十年二月[施命之寶]

(2) <李舜臣 贈職教旨>

教旨 / 李舜臣(1545-1598) 受給.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癸丑(1793, 正祖 17).

1枚 : 20行10字 内外 ; 64.3×101.0cm. 紅紙. 낱장.

內容: 教旨/ 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 效忠仗義迪毅協力宣/ 武功臣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左議政兼/ 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德豐府院君行/ 正憲大夫全羅左水/ 軍節度使兼忠清全羅/ 慶尙三道統制使贈諡/ 忠武公李舜臣贈效忠/ 仗義迪毅協力宣武功/ 臣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 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象監事德豐府院/ 君贈諡忠武公者/ 癸丑七月二十一日/ 加贈事承/ 傳[施命之寶]

□ 現狀：

調査 古文書 (1)<李舜臣 賜牌教旨>와 (2)<李舜臣 贈職教旨>는 表具 또는 襟接하는 과정에서 각각 문서의 下端部가 잘려 나갔으며, 보다 高級의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1653, 孝宗 4, 順治 10)> : 임진왜란이 끝난 뒤 宣祖는 그의 37(1604)년 6월 25일에 임진왜란에 혁혁한 武功을 세운 李舜臣(1545-1598)을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1등으로 책봉⁴⁶⁾하였다. 그리고 동년(1604) 10월 29일에 이순신의 肖像畵를 그려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官爵과 品階를 3資級씩 超遷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父母와 妻子도 3자급씩 초천하도록 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婿를 2자급씩 초천하고 嫡長은 世襲하도록 하여 그 祿俸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伴佻 10人, 奴婢 13口, 丘史 7名, 田地 150結, 銀子 10兩, 內廐馬 1匹도 賜給하도록 하였다.⁴⁷⁾

約定된 賜給奴婢는 13口였으나 당시는 전란의 직후라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賜給하지 못하다가 이듬해(1605) 정월 19일에야 비로소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의 官奴婢 8名을 賜給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로 지정되어 있다.

約定된 賜給奴婢 13口 중 나머지 5口는 倭亂이 끝난 한참 후까지 賜給하지 못하다가 효종 4(1653, 順治 10)년 2월에 이르러 賜給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교지가 바로 본 <李舜臣 賜牌教旨>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安東府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사재감·종친부 등의 奴婢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 <李舜臣 賜牌教旨>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大封功名 … 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 爲宣武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 其宣武一等 李舜臣·權慄·元均三大將 爲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二等 申點·權應銖·金時敏·李廷範·李億祺 爲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三等 鄭期遠·權恢·柳思瑗·高彦伯·李光岳·趙徹·權俊·李純信·奇孝謹·李雲龍 爲効忠仗義宣武功臣 各賜爵封君 凡十八人.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10月 29(乙亥)日條.

宣武功臣教書頒給時 宣讀別教書 王若曰 爲臣子所貴 急病當效扞艱之忱 越先王率惟救功 盡學懋賞之典 茲循彝章 用推渙恩 頃緣雲雷之構屯 而致家國之多難 奔鯨倉卒 勢難制於觸羅 駭獸蒼黃 孰能禦乎窟藪 哀百年之宗社 慘一朝而丘墟 何幸賴夫天之靈 又有仗諸臣之力 鳴劍抵掌 爭奮袂於同仇 沐雨櫛風 共殫誠於循國 茲生氣之稍在 庶死灰之復燃 合勢前驅 克掃舳舻之衆 背城一戰 能却百萬之師 專節制於四方 服勤勞於七載 其他奔走告急 與夫果毅傷功 豈曰小補乎時哉 蓋亦將多乎前矣 若非諸卿之興起 而竭盡其心 安能庶事之否艱 而保有今日 一生一死 雖死生之不同 是崇是褒 豈褒崇之有異 肆策勳李舜臣·權慄·元均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 則甥姪女婿 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佻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匹 … 於戲 出此三物 既共山河帶礪之盟 傳諸百代 永享子孫仍雲之祿 故茲教示 想宜知悉.

(2) <李舜臣 贈職教旨(1793, 正祖 17)> : 정조대왕은 임진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正祖實錄」에 의하면 정조 17(1793)년 7월 21일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領議政을 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수군도독 조선국 증 호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덕풍부원군 행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⁴⁸⁾고 전지하였다.

정조의 하명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려진 교지가 바로 본 <李舜臣 贈職教旨>이다.

본 <李舜臣 贈職教旨>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1653, 孝宗 4, 順治 10)>와 (2) <李舜臣 贈職教旨(1793, 正祖 17)>는 그 동안 李忠武公 宗孫家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忠武公 李舜臣 관련 일괄문서로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따라서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와 (2) <李舜臣 贈職教旨>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 「正祖實錄」
- 「亂中日記」
- 「西厓集」
- <<http://www.memorykorea.go.kr/>>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7年 7月 21(壬子)日條.

遣承旨 奉審皇壇奉室 行副護軍李源 奉審宣武祠 加贈忠武公李舜臣議政府領議政 教曰 是日何日也 嗚呼 神皇再造之恩 與天無極 匪風之感 下泉之思 將於何寓其萬一乎 既遣近臣 替審奉室 申使武臣李源 往于宣武祠周視之者 蓋欲識此日 而此何足以識之也 象德報功 有國喊典 況以小國陪臣 荷被天朝寵章 而爲天下名將者 李忠武是也 昔武寧王徐達之碑 皇帝臨書之 有司治其功 謹敢遵倣 曾令該道斲石 以篆首之書下 銘詩之撰示 昨以民事未遑 今日召問忠武後孫 俾督其役 且思之 忠武之忠之武 沒後尙闕首相之加贈 實爲欠事 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忠武公李舜臣 加贈議政府領議政 堅碑日致祭 前有知委 而贈官宣誥 并行於伊日 莫曰春秋無地可讀 三傳束之高閣 此義此理 長在宇宙間 與日星并葆光輝 烏可不思講明之方 是日何日也.



○ 현 상

문서의 하단 부분이 표구하는 과정에서 잘려 나갔으며 상태가 不良하므로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 (1653년, 효종 4)

사패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해 줄 때 쓰인다.

이 교지는 1653년 2월에 충무공 이순신에게 지급하지 못한 노비 5구를 지급하면서 발급한 사패교지이다. 지급된 노비는 경상도 안동부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 사재감, 종친부의 관노비 들이다.

이순신은 임진난에 공을 세워 1604년 6월 25일에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그해 10월 29일에는 賞勳으로 이순신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고 관작과 품계를 세 資級 超遷하도록 했다. 아울러서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고 嫡長은 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반당伴尙 10인, 奴婢 13구, 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銀子 10냥, 內廐馬 1필도 하사하였다. 노비 13구 중 1605년 정월 19일에 全羅道 扶安, 高山, 忠淸道 溫陽, 稷山, 天安, 珍山, 恩津 등지에 있던 관노비 8명을 상으로 내렸다.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이다.

교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教旨/卒統制使李舜臣丁酉討倭時參宣/ 武一等功而奴婢五口未及受出故將/ 安東案付禮賓寺婢南化三所生奴/ 得化司宰監婢千介六所生奴莫奉/ 婢鄭代五所生婢善介宗親府婢莫/ 今三所生婢未叱每司瞻寺婢春伊/ 四所生婢一玉等特賜賞可傳永世者/ 順治十年二月

2. 李舜臣 贈職教旨 (1793년, 정조17)

이 교지는 국왕(정조)이 1793년 7월 21일에 충무공 이순신에게 議政府領議政으로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증직교지이다. 『正祖實錄』(正祖 17年 7월 21일條)에 有明 水軍都督 朝鮮國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傳 德豐府院君 行 正憲大夫 全羅左水軍節度使 兼 三道統制使 忠武公李舜臣에게 議政府領議政을 加贈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교지전문은 다음과 같다.

教旨/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水/軍節度使兼忠
淸全羅/慶尙三道統制使贈諡/忠武公李舜臣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
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德豐府院/君贈諡忠武公
者/癸丑七月二十一日/加贈事承/ 傳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이순신 선무공신교서는 보물 1563-1호이며, 그밖에 이순신의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을 비롯하여 별급 문기,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등 13건이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20. 조선왕조어보 및 관련 유물 (朝鮮王朝御寶 및 關聯 遺物)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어보 및 관련 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어보 및 관련 유물” 3,372점은 조선왕조 왕권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어보뿐만 아니라 보록, 보통, 시가, 의향, 영자 등 모두 완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제2차 회의('11.04.14) 때 지정 계획 보고를 한 후, 관계 전문가의 조사('11.05.06/'11.05.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왕조어보 및 관련 유물(朝鮮王朝御寶 및 關聯 遺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 수 량 : 3,372점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금속, 옥석, 종이, 견
- 형 식 : 어보, 보록, 보통, 자물쇠, 열쇠, 시가, 모전, 인주함, 의향, 보자기, 영자
- 제작연대 : 1705~1928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왕실의 어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손색없이 갖춘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유산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보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보통, 보록, 보자기를 어떠한 순서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지정하는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보인과 함께 그 상징성과 수량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왕실 어책(御冊)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왕조어보의 가치는 한 왕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형의식이나 변천과정 및 정치적 배경과 그에 따른 경제 기반 등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문화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유물은 통시성과 완결성, 예술성을 모두 갖춘 왕실의 상징적인 문화재로서 의례에 기록과도 일치하는 중요한 예이다. 불교 유입 이래 사리장엄이 금, 은, 금동 순으로 겹겹이 봉안하는 포장문화를 대표했으나 조선시대 어보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관장들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한 왕실 공예품으로 조선시대 포장문화를 대표한다.

보통은 어보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듯이 대략 대·중·소형으로 나뉘어지며 형태는 매우 단순하지만 “상자제작”이라는 금속공예의 최절정 기법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면과 면을 좀 더 튼튼하게 접합시키기 위해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 맞짜임 등 목공예의 짜임방식을 도입해서 마치 작은 뒷박을 짜듯 성형했는데, 금속공예에서의 이런 짜임결구방식은 현대 공예가들이 전혀 모르는 전통적인 성형방법이다.

정밀주조로 제작한 후 조이질로 세부표현을 더해 사실성이 충만한 어보와 난이도가 높은 直角잡기가 돋보이는 보통, 조이질한 화려한 두석과 銀入絲한 匙家가 장식된 보록은 조선시대 금속공예기법이 총망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보관련 일괄유물은 역사성, 왕권의 상징성, 자료적 가치, 예술성, 왕

실 포장문화 등이 응축되어 있고, 제작과정을 기록한 의궤까지 수반하고 있어 지정 신청된 보물을 넘어 곧 국보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역대 왕족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고, 왕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추어졌던 어보는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겠다.

국립 고궁 박물관 유물 창고에서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는 어보는 국보의 지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한 차원 더 높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라 하겠다.

○ (지정 가치 있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왕조어보」는 모든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종합예술품이다.

그중에서 금속공예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대공예가들이 제작하기 힘든 어려운 기법들이 많이 쓰여졌으며 뛰어난 조형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현대공예가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시기법과 도구, 공구들이 어떠하였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아쉽게 느껴진다.

「조선왕조어보」는 당연하게 국가보물로 지정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보인록들은 그 재료에 있어 목공 칠분야는 물론 금속, 섬유, 피혁(수피, 어피) 종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하여 궁중 공예품의 양식면에서 또 재질면에서 변화, 발전,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다양한 공예분야의 편년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어보 직물유물은 어보 보자기의 제작기술과 宮襟의 장엄형식을 확인하고 고증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며, 16세기에서 국말까지의 직물제작기술과 문양의 조형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복식사, 직물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어보관련 직물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사료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어보에 관한 유물을 일괄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태조의 4대조인 목조부터 순종황제까지 27대에 걸친 왕, 왕비, 세자, 세자빈의 가례 길례 등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의 포장물인 보자기, 영자, 주머니 등의 이천 여 점의 일괄 유물은 조선왕실의 뛰어난 포장문화를 알 수 있는 통시성을 갖춘 중요한 문화재이다. 비록 후대에 재제작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자와 어보 보자기 등의 섬유류 유물들에 관하여 중요한 문헌자료인 『의궤(懿軌)』에 제작하기 위한 직물 재료와 치수는 물론 포장 방법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었을 뿐아니라 기록내용과 남아있는 유물들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므로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보자기나 영자에 사용된 다양한 직물의 제작방법과 무늬의 조형성들이 조선시대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선왕조의 어보- 직물’ 자료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왕실의궤에서 어보 관련 보자기의 문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운보문 외에도 실제 보자기 제작에 선택되었던 절지화문, 원룡문, 나비문, 매화문, 화봉문, 화조문, 박쥐문, 도류불수문, 암팔선문 등이 확실하게 보존된 본 유물들은, 왕실에서 귀하게 여기던 길상문의 종류와 직물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물 고증 자료이다. 또한 이 보자기들에는 해당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직물 또는 왕실의 어보를 보관하는 데에 적합한 고급 직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직물사 방면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자기 중에는 내용물의 외곽모서리에 의해 사각형 모양으로 색이 탈색되거나 주름이 형성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생생하게 확인되는 유물도 상당수이며, 이러한 흔적은 전통 왕실생활문화의 단편으로서 본 조사대상 유물들의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부속물에 해당되는 직물영자와 끈영자 역시 일관되고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직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어보, 보통, 보록을 짜는 보자기는 일반적으로 홍색계열이지만 간혹 곁감은 짙은 분홍색이며 안감이 푸른색인 보자기가 보이는데, 이는 후대에 대량으로 제작된 보자기 중 한 가지로 판단되며 제작 당시의 의료 요건과 생활상을 드러내 주고 있다.

본 조사대상 유물들에는 문헌에 기록된 형태와 일치하는 유물이 다량으로 포함되었고, 미적인 가치가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동시에 실제로 사용된 흔적들도 다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왕실의 어보보자기, 보록보자기, 보통보자기의 전형적인 여건을 갖춘 유물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보자기와 부속물들은 국가적 보물이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려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보류

조사보고서 전문



○ 내용 및 특징

어보란 왕실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의식용 인장으로서 왕세손·빈, 왕세제·빈, 왕·후의 책봉 및 국장 등 왕실의 주요의례에 제작되었고 어책과 함께 종묘에 봉안된 것이다. 기록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보는 총 352과이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수량은 총 316과가 파악된다. 이 중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과는 국립박물관에 4과, 고려대박물관 2과와 LACMA 1과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매를 통해 成宗大王妃 恭惠王后 어보(1469; 연산군 12년) 1과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어보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방형의 보신(寶身)과 주로 거북형상이나 용형으로 조각된 보뉴(寶鈕)로 구성되어 있다. 보신의 바닥에는 글씨가 새겨 있어 이를 보면(寶面) 또는 인면(印面)으로 부른다. 재질은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지는데 금보(金寶)와 옥보(玉寶)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금보는 동과 함석을 섞어 주조한 후 금도금한 것이며 보뉴와 보신을 따로 주조한 뒤 리벳으로 결합하고 그 이음새를 접합 처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옥보는 전체를 하나의 옥으로 조각하

였지만 금보보다 정교함이 떨어진다. 한편 다른 재질의 보인으로는 은보(銀寶) 5점과 주석제 1점이 파악되지만 정밀한 성분 분석을 통하면 재질의 분류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며 세부적인 성분과 함량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보아야 할 과제이다.

어보는 다른 금속공예품에 비해 전통성이 강한 편으로서 형태의 다양한 변화가 많지 않고 세부적인 특징도 뚜렷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어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보의 보수가 시대에 따라 독특한 양상과 변화를 지니며 제작되어온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300여점이 넘는 엄청난 양을 하루에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빠듯한 일정과 시간의 제약으로 결국 전체 어보를 조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에 어보 보고서에 게재된 연구 논문⁴⁹⁾을 참고하여 보고서에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우선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조의 4대조인 목조부터 순종황제까지 27대 왕과 왕비, 세자, 세자빈의 인장 316과이다. 이들 어보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전기에 만들어진 어보로 34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북의 형상을 충실히 드러낸 사실적인 표현이 두드러져 귀두의 세밀한 얼굴 묘사와 귀갑의 중앙 부분이 높이 도드라지면서 귀갑을 여러 줄로 중첩 시문하는 특징을 보인다. 세 갈래 꼬리는 길고 뽕족하게 묘사되었고 네 다리 굽힘이 절도 있다. 이 시기 금속제 어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세종 28년(1446)에 제작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금보(金寶)이다.

다음의 후기는 임진왜란이후에서 순조(純祖)까지로서 남아있는 어보의 39%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 전기의 어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전기에 보였던 사실적인 귀부의 모습에서 점차 추상화되고 장식성이 강해진다. 즉 귀갑의 중앙부분이 점차 낮아지면서 점차 귀갑 외연의 구획이 사라지고 귀갑문 내부에 작은 화문을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짧은 목과 뭉툭한 얼굴의 귀두, 휘어진 꼬리의 표현과 다리에 짧은 단선의 화염문을 첨가하였다.

말기인 현종(憲宗)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의 어보는 귀갑에 비해 목과 머리가 커지면서 위로 돌출되고 귀갑이 납작해져 움추린 형상이며 음각 위주의 단순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마지막으로 25점 정도가 남아있는 대한제국기의 어보는 귀부형(龜趺形)이 아닌 한 마리 웅크린 용으로 구성된 용뉴형(龍鈕形)만이 제작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어보 역시 정해진 양식 속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안정과 같은 시대 배경과 그 연맥을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며 꾸준히 계승되어 왔던 점이 파악된다. 앞으로 이러한 양식적 특징 뿐 아니라 개개의 성분 분석과 같은 과학적 분석을 포함하여 제작기법 등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9) 정창운, 「조선시대 어보 보누 양식 연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제3책 -조선왕실의 禦寶-』 제1권(문화재청, 2010.12), pp.724~743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처럼 조선 왕실의 어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손색없이 갖춘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유산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보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보통, 보록, 보자기를 어떠한 순서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지정하는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보인과 함께 그 상징성과 수량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왕실 어책(御冊)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

○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어보는 1441년(세종23년)부터 1928년(순종22년)까지 제작되어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총 316점의 현존하는 유물자료이다. 보존상태 또한 일부 훼손된 금속 재질 2점과 옥석재질 1점 등 3점을 제외한 313점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사용된 재료는 151점의 금속 재질과 164점의 옥석 재질 및 1점의 도자 재질로 표현되어졌다.

인뉴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1441년(세종23년) 문종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현덕이라는 시호를 받으면서 제작된 현덕왕후 금인과 1460년(세조 6년) 예종비 장순왕후의 백철인 또한 1524년(중종19년) 인종비 인성왕후가 왕세자빈에 책봉되면서 제작된 은인 3점이 자루형태의 직사각형 손잡이이다.

나머지 313점 중 290점이 거북 형태이고 23점이 용 형태이다. 용 형상의 것은 2점만이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금속 재질을 중심으로 제작기법 및 조형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금속의 형 제작은 주조 후 표면을 각 기법으로 다듬어지고 선각과 타각으로 표면장식 하였다.

즉, 몸체는 동이나 은의 합금 금속으로 주조되고 금 아말감으로 표면처리되었음을 귀뉴의 머리가 훼손되고 보문의 인면이 마모된 선조비 인목왕후 금보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금속의 성분 분석은 비파괴 성분 분석을 통한 표면 재질만의 성분 분석이 아니라 심부의 재질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보의 조형분석은 금속제 어보를 대상으로 하여 시대별 조형 형식과 변화과정을 인뉴부의 거북 형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초기인 세종대의 금속제 귀뉴의 거북 표현은 등판의 중앙부에 5쪽으로 배열

하고 좌, 우 각각 4쪽으로 13쪽의 등각을 표현하고 등껍질의 테두리는 머리 쪽과 꼬리 쪽을 기준으로 하여 각 1쪽씩 배열한 후 좌, 우로 10쪽씩으로 하여 22쪽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머리는 약각 처든 형태로 하고 꼬리는 3쪽으로 구분지어 수평으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마무리는 조이질에 의한 선각 기법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종 즉위년인 1450년 제작부터는 등껍질 테두리부의 머리 쪽의 기준 쪽(목을 감싸는 듯한 등껍질 테두리 부분의 무늬 분리판)이 위로 젖혀진 형태로 변하면서 다시 이 부분의 중앙에 굴곡을 주었다.

예종 1년에 제작된 예종금보는 초기형태의 것으로 되돌아가 성종5년 제작된 성종비 공혜왕후 금보까지 이어지고 머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치켜세워지며 수평이던 꼬리도 위로 향한다.

이후 연산1년인 1495년 제작부터는 꼬리는 다시 수평으로 내려가는 반면 등껍질은 더욱 봉긋해지며 등각의 표현도 곡선의 형태로 둥글둥글하게 표현되어진다.

중종25년(1530년)대에 이르러는 형태의 표현이 세련되어지고 표면장식이 섬세하며 등껍질 테두리의 각도 좌, 우 각각 1쪽씩 추가되어 이전의 10쪽에서 11쪽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상은 명종9년(1554년)까지 지속되나 명종20년 제작부터는 점차적으로 밋밋한 형태로 쇠퇴하여 꼬리는 점점 줄어들어 등껍질 속으로 감출어진 듯한 형태로 변화되지만 선조33년(1600년)대에는 다시 옛 모습으로 변화된다.

인조16년(1638년)대에는 등판에 선각과 더불어 타각에 의한 점상의 화문이 추가되어 화려하게 표현되어진다.

숙종2년(1676년)대에 제작된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부터는 등판 테두리 형성의 기준이 되는 중심각이 더욱 넓게 표현되어 넓혀지고 이 부분에 머리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선각이 표현된다. 또한 숙종10년(1684년)에 제작된 현종비 명성왕후 금보에서는 방사형의 선각 끝에 원형의 돈을 새김이 추가되며 등판의 등각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어 그 정교함과 화려한 기품은 정점에 이른다.

그 후 숙종20년(1694년)에 제작된 숙종비 인현왕후 금보부터 등판 테두리의 중심부 문양이 변형되어 숙종 2년대의 형식으로 되돌아가 숙종28년(1702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숙종31년(1705년) 후부터 다시 원상태의 것으로 되돌아가지만 방사형 선각이 예전과는 다른 역방향으로 향하고 끝이 갈라진 나뭇가지의 형으로 선각되어진다. 이 같은 변화는 경종 즉위년인 1720년까지 지속된다.

경종2년(1722년)에 제작된 경종비 선의왕후 금보에 이르러는 등판 테두리의 기준부인 젖힘 부분이 테두리 형성에서 분리되어 등판 중심부에 수용되며 표현되지만 테두리 쪽수는 23쪽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등판의 화각문은 사라지고 생략되어 도식적 형상만을 갖춘 조형미의 쇠퇴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현종1년(1835년)에 제작된 순조금보의 표현에서 등판 테두리의 기준부가 다시 짚혀지고 제 위치로 자리하지만 좁아지고 빈약하여 전체적인 비례는 어색하고 균형감마저 상실한다.

중국과의 사대관계에 있어 신하의 도리를 상징하는 거북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나 고종 대에 조선이 청나라와의 관계를 종결하면서 황제의 위상에 걸맞은 용 형태의 어보가 거북 형태의 어보와 병행되어 제작되어지는 표현상의 변화는 보이거나 숙종대의 화려함과 품의는 되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 공예문화의 역사인 조선왕조 어보의 가치는 한 왕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형의식이나 변천 과정 및 정치적 배경과 그에 따른 경제 기반 등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문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이유는 어보라는 단일대상을 통해 한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른 문화의식의 변화과정이나 조형 형식의 변화 과정이 시대적 여건에 따라 상세히 반영되어 보존되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는 그 나라 국력과 상관계이다.

□

문화재명 : 어보 - 보통

수 량 : 총 311점

소 유 자 : 국립고궁박물관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34번지

제작년대 : 조선시대

재 질 : 황동(구리, 아연, 주석 등), 황동에 도금, 종이, 견

크기(표본): 대 20×20×17.5cm, 몸 12.3cm, 뚜껑 5cm(어보34-2,3호)

중 15.5×15.5×14.3cm, 몸 9.8cm, 뚜껑 4.5cm(어보178-2,3호)

소 13.7×13.7×14cm, 몸 9.5cm, 뚜껑 4.5cm(어보18-2,3호)

[寶筒의 개요]

왕실의 의식용 인장인 어보는 嘉禮, 吉禮, 上尊, 諡號 등 각종 의례가 있을 때 최고의 기예를 가진 官匠들이 제작한 것이어서 최고의 왕실공예품이다. 寶筒은 주조한 금보나 옥으로 조각한 옥보를 보자기에 싸서 넣는 내함으로 다시 보자기에 싸여져 보록에 내장한 후 또 한번 보자기에 싸인다.

왕권을 상징하는 어보는 제작부터 봉안까지의 전 과정이 많은 의뢰에 기록되어

있다. 《復位祔廟都監儀軌》(1698)나 《金寶改造都監追補儀軌》(1705)에 의하면, 금보는 禮器尺을 사용하여 만들며, 熟銅으로 주조한 후 전체를 황금으로 도금하였다.(그림1) 寶筒은 熟銅으로 네 개의 판재를 만든 후 뿔은으로 方形을 만들어 내부 벽에는 종이를 바른 후 紅扇子紙가 배접된 紅雲緞을 붙이고 통 바닥에는 紅氈을 붙인다. 謚寶가 흔들리지 않도록 빈 공간을 雪綿子로 채우고, 衣香을 넣고 이것을 다시 외함인 寶盞에 넣었다. 특히 《寶印所儀軌》(1876)에는 궁중의 寶印을 改鑄, 改造 혹은 修補한 과정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 11顆의 寶印과 보관할 寶筒, 寶盞, 護匣 등 부속기물 일습의 크기와 제작방법, 彩色 見樣이 실려 있다. 寶印들을 싸서 보관함에 넣는 절차인 封裹式과 소요 물자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록인 稟目, 전체 기물을 제작한 장인들이 기록된 匠人秩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현존 유물과 대조하여 조선왕실의 포장문화를 규명할 수 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316과의 어보와 관련된 부속유물 총 3372점 중 印筒 44점을 포함한 보통은 총 311점 가량 남아있다(유물번호 어보311-2,3까지). (그림2) 크기는 의궤에 따라 어보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듯이 대략 대·중·소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형은 玉寶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몇몇은 표면이 검게 변색된 것도 있고 홍색 보자기로 싼 모양까지 표면에 흔적이 남아있는 예도 있다.

그런데 의궤에는 제작방법에 대해 보통과 朱筒을 숙동으로 鑄成한 후 도금한다는 내용과 豆錫(황동)으로 은뿔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주조한 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⁵⁰⁾(그림3, 4)

보통은 외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정밀한 주조기법을 보여주는 어보나 어자문기법으로 만든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보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금속공예의 최절정적인 기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즉 금속공예기법 중 가장 어려운 기법은 일명 “箱子 제작기법”이다. 평면들을 직각으로 접합하여 각 모서리가 곧은 직선인 상자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뚜껑까지 상, 하 2개가 아귀를 맞도록 몸체 내부에 턱(齒)을 장치해서 꼭 단아져 외관상 육면체로 만들기는 숙련된 금속공예가들도 쉽지 않다. 더욱이 뚜껑은 斜面(栗角)이 져서 4개의 면이 더 있어 4면이 더 있고 네 모서리의 斜角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통처럼 판재를 뿔하여 만든 우리나라 금속사각함의 예는 통일신라시대 감은사지 동서탑 발견 사리장엄구인 금동외함(높이 28cm) 을 들 수 있겠다. 각 면을 세워 뿔 한 뒤 다른 판을 덧대어 접합상태가 가리워진 경우이다. 전 황복사지 삼

50) 유물 수량이 많아 일일이 하나씩 조사하지 못하고 寶筒 조사위원 3인이 표본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주조기법으로 만든 유물은 볼 수 없었는데, 만일 보통 내부 벽에 붙인 楮紙나 붉은 비단이 떨어져서 밀면의 모서리가 드러나면 판별할 수 있겠으나 도금된 것은 은뿔 흔적의 유무를 알 수 없었다. 의궤 내용대로 주성한 것이 있는지 또는 주성의 의미를 우선 합금한 황동을 용해해 기본적인 “바둑”상태로 주물 부은 다음 메질해서 평면체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는 향후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규명될 수 있겠다.

층석탑 발견 금동사리의합(높이 21.8cm)은 각 면의 모서리를 서로 뺨으로 접합하지 않고 판을 밴드처럼 잘라서 리베팅기법으로 성형한 것으로 보이며, 불국사 석가탑 발견 금동장방형사리합(높이 6.8cm)은 각 모서리를 뺨했으나 선이 직선적이 못하고 약간 안으로 휘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금제사리내합은 몸체는 각 면을 접어 모서리를 만들고 한 부분만 뺨하여 성형하였고, 뚜껑은 판을 늘여 사각뿔을 만들어 1단은 사면을 접어 수평모서리를 만든 후 뺨한 것이다. 보통의 뚜껑처럼 중간에 斜面이 진(넓게 모 죽임) 2단 뚜껑은 고려시대 포퓰수금문나전칠기합을 볼 때 아마 고려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I. 현황 및 내용

어보와 보통은 일제 강점기 때 기본적으로 다 교란되어 제작년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숙종, 영정조, 고종 때 제작한 보통이 우수한 편인데, 특히 숙종 때 일괄로 많이 만들어진 보통의 질이 좋다고 한다.⁵¹⁾ 즉 숙종 31년에 종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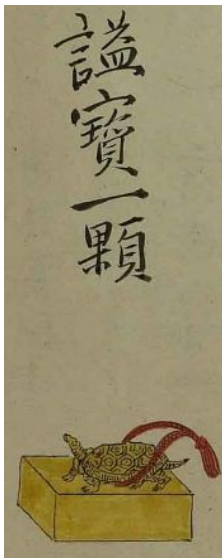


그림84. 금보,
《宣祖懿仁王后祔廟一房儀軌》, 1610



그림 85. 寶筒(전체 수량의 1/2)

51) 전체 어보와 관련유물을 조사하고 전시 및 도록 발간까지 한 전 국립고궁박물관 정계옥 과장의 진언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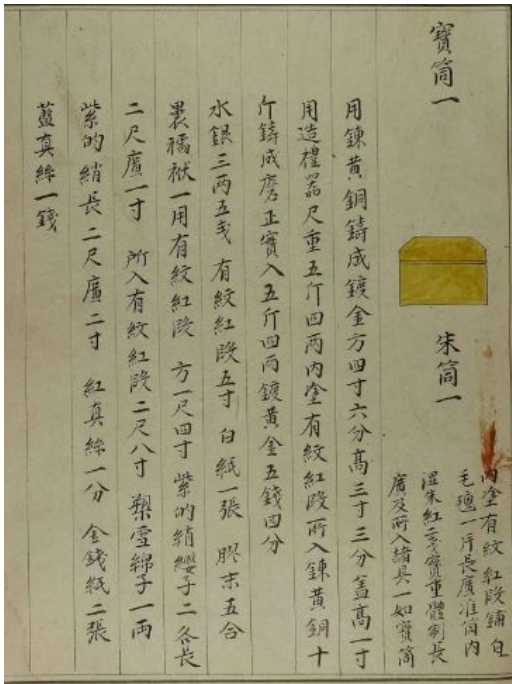


그림86. 보통의 견양과 제작방법(鍊黃銅으로鑄成 후 도금), 《宣祖懿仁王后祔廟一房儀軌》,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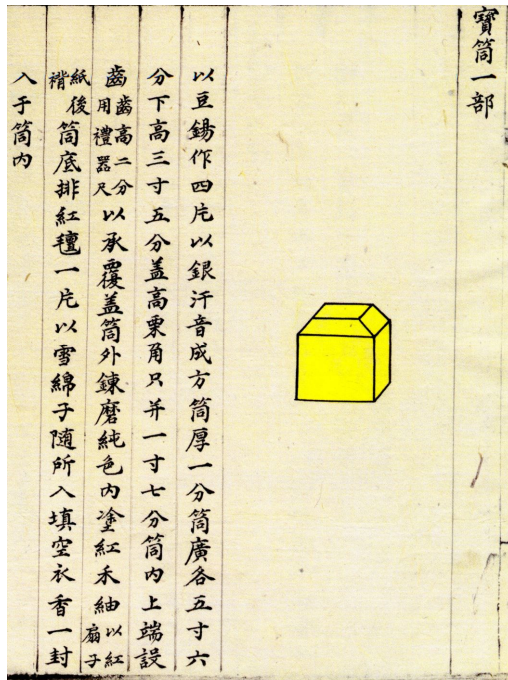


그림87. 보통의 견양과 제작방법(豆錫 [황동] 을 은땀 성형), 《寶印所儀軌》, 1878



그림88. 숙종 금보 보통(어보24-2,3)



그림89. 숙종 금보 보통의 내부(有文紅絨 배접)

永寧殿의 금보와 관련 기물들을 개조 및 修補한 과정을 기록한 《金寶改造都監儀軌》(1705)에는 숙종이 종묘에 봉안되어 있는 寶冊을 친히 奉審한 후, 일부 보책과 匣 등이 파손 또는 결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유실된 영녕전 제11실 명종대왕의 금보를 제작하고, 종묘와 영녕전 각 실의 寶緩, 寶盞, 寶匣, 寶槩, 鎖鑰 등의 諸具를 새로 장만하도록 하였다. 一房에서는 金寶, 寶槩, 印槩, 寶緩, 寶盞槩, 寶匣

杅, 印橫杅, 寶槓 등을, 二房에서는 寶匣, 印匣, 朱匣 등을, 三房에서는 寶蠶, 印蠶, 朱蠶 등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또한 《金寶改造都監追補儀軌》에는 神懿王后 한씨와 태조의 四祖(穆祖, 翼祖, 度祖, 桓祖) 및 그 妃들의 금보를 제작하여 종묘와 영녕전에 봉안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현존 어보의 제작시기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⁵²⁾

현존유물은 어보 번호는 1, 보통의 몸체는 1-2, 보통의 뚜껑은 1-3으로 분류했으므로 보통의 번호는 1-2,3이며, 어보의 번호만큼 보통도 있는 셈이다.

어보와 보통의 제작시기는 의궤내용과 유물로 보아 숙종이후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어보와 보통의 수량을 보면 숙종은 금보 3과, 옥보 1과로 모두 4과이며, 인경왕후는 금보 5과, 옥보 2과, 인현왕후는 금보 2과, 옥보 2과, 인원왕후 금보 5과, 옥보 9과로 숙종과 그 비의 어보가 총 29개이므로 보통도 29개나 된다.(그림5,6) 순조는 금보 9과, 옥보 2과이며 순조 비는 금보 7과, 옥보 8과인데, 보통들은 합금상태가 좋지 않다. 현종은 금보 1과, 옥보 1과, 현종비 효현왕후는 금보4과, 옥보 3과이며, 효정왕후는 옥보만 15개이며 보통의 수량도 마찬가지로이다. 대한제국기에는 고종이 皇帝御璽를 비롯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직계만 다시 제작하였는데, 문조는 금보 13과, 옥보 2개로 15과이고, 문조 비 신정왕후는 금보 3과와 옥보 21과로 총 24과나 된다. 명성황후의 옥보도 9개이다.

1)보통의 크기

《寶印所儀軌》(1876)에 보이는 보통의 見樣은 “寶筒一部”항에 그림과 함께 재료, 표1. 《寶印所儀軌》에 보이는 보통 관련 내용



분류	내 용	비 고
크기 및 제작방법	寶筒一部 以豆錫作四片以銀汗音成方筒 厚一分筒廣各五寸六分下高三寸五分 蓋高栗角只弁一寸七分 筒內上端設齒(齒高二分用禮器尺) 以承覆蓋 筒外鍊磨純色 內塗紅雲緞(以紅扇子紙後裱) 筒底排紅氈一片以雪綿子隨所入填充 入衣香一封入于筒內	몸통: 밀변 16 × 높이 10 cm 턱: 5.7cm 뚜껑사면: 4.9cm 두께: 2.9cm
재료	寶筒一部所入 熟銅含錫(造成後從實入次) 汗音黃銀三錢五分 礪砂五錢 砥礪二錢 三甫二月乃 封裏次楮注紙一張 蓋塗次紅雲文緞方五寸三分一片 下塗次紅雲文緞方四寸二分一片 四面塗次紅雲文緞長四寸二分廣三寸五分四片 後排次紅扇子紙半張 楮注紙一張 膠末五合 紅氈方四寸一片 衣香一封(內局) 填充雪綿子五兩	도금하는 경우 鍍黃金四錢五分 水銀一兩을 쓴다
도구	豆錫匠所用 風爐一坐(前排) 廣堊 中堊 了赤 芻只各一個 大堊 小堊各二個 小釘 釘子金各五個 薄松板二立 毛狗皮一令 五味子二斤 監落五度 庭落八張 擧乃次前排青木衣八件 破油菴五番 水青木五個 條所二良衣	줄, 갈기 사용 脫脂용액으로 오미자 사용

52) 《속중실록》 42권, 31년 6월 17일 기유.

	紅假函兩雙 木果瓢各二箇 炭二石 陶所羅二坐 中礪石一塊 大銅絲十八尺 土火爐二坐 布手巾三件 楮注紙十張 白休紙三斤 良水一斗	굵은 동사 515.5cm 사용
장인	寶印改鑄改造修補時 寶匠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 豆錫匠鄭聖雲 金匠李快吉	두석장으로 기록

전체크기와 각 부분, 표면처리 방법, 내면에 비단을 배접하고 의향을 넣는 것은 방식도 규정해 놓았고 所用 재료와 제작 匠人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때 제작한 보통은 모두 9개인데, 禮器尺으로 두께는 모두 1분이고 몸통의 가로와 세로는 1개만 6寸(17.2cm), 높이는 4촌7분(13.5cm)이고 8개는 5촌6부, 3촌5분이다. 몸체의 뚜껑받이(齒)는 모두 2분이고, 뚜껑의 높이는 사면(栗角)이 1촌7분이다. 禮器尺 1尺은 28.64cm이므로 5촌 6분은 약 16cm 정도 되며 뚜껑받이 턱(齒) 2분은 5.7mm 정도이다.(표1) 이와 같은 내용은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1921)에도 “寶筒一部[鍍黃金筒 內塗紅雲文緞] 豆錫 四片을 은땀하여 만드는데 높이는 五寸六分”이라고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고종시기에는 통일된 견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물마다 턱이 넓은 것도 있고 중간 것, 아주 좁은 것도 있다. (그림7) 아주 좁은 경우는 마무리 작업 시 角을 잡거나 표면을 다듬기 위해 줄로 많이 깎아냈기 때문이다.

그림7. 뚜껑받이(齒)의 두께 표본

얇은 예	두꺼운 예
	
선조비 인목왕후 옥보 보통(133-2)의 齒	예종비 장순왕후 금보 보통(116-2)의 齒

보통의 형태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다양하지만 대체로 뚜껑을 닫은 모양의 Front View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진다. 크기는 어보와 상관성이 있는데, 대형은 옥보인 경우가 많고 중형과 소형은 대개 금보를 넣는 것이다. [표2]는 전체 보통을 놓고서 대중소 별로 몇 점씩 선택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그 중 대형 정사각형 보통은 뚜껑 높이가 대략 5cm이고 직사각형의 뚜껑 높이는 대략 6cm이다. 숙종 옥보 보통과 진종 은인 인통은 똑같아서 아마도 크기를 정해서

일괄 제작했을 것이다.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보통과 중종비 문정왕후 금보 보통은 크기도 같을 뿐 아니라 내부에 배접한 직물 문양도 같은데, 영·정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형은 전반적으로 년대가 올라가며 대개 숙종 때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 중 문종 비 현덕왕후 금인 인통과 효종 금보 보통은 크기도 같고 내부의 비단무늬도 같아서 동일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종과 현종은 년대 차이가 있어 보통이 교란된 것이거나 어느 때 일괄로 제작 또는 보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2)보통의 재료

보통의 재료는 황동으로 동(Cu)+아연(Zn)이다. 황동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 Cu 70% + Zn 30% 의 7-3황동 (비중:8.65, 용융온도 950도)

└ Cu 60% + Zn 40% 의 6-4황동 (비중:8.43 용융온도 900도)

가 일반적이며 백동은 구리75%, 니켈18%, 아연 17%이다. 의궤에 보이는 熟銅은 청동이다. 황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천공개물》에 “구리(紅銅)에 노감석이 나 또는 아연을 넣어 제련하면 빛깔이 변해서 황동이 되며, 또 비상 등의 약을 넣어 제련하면 백동이 된다. 명반이나 초석 등의 약물을 넣어 제련하면 청동이 된다.”고 했다.⁵³⁾ 《五洲書種博物考辨》에 의하면 “황동은 爐甘石이나 또는 아연을 구리에 넣어 녹여 만든다. 紅銅 6근마다 아연 4근을 앞뒤로 도가니에 넣어 녹여서 식힌 다음

표2. 대·중·소형 보통의 크기 비교 (표본, 단위 cm)

분류	명칭	유물번호	전체 크기 (가로×세로×높이)	몸체 높이	뚜껑 높이	비고
대형	중종비 문정왕후 금보 보통	123-2,3	17.5×17.5×20.5	16	4.5	-23번과 42번은 똑같음. 크기를 정해서 일괄 제 작했을 것.
	선조 옥보 보통	16-2,3	20×20×15.7	11.4	4	
	숙종 옥보 보통	23-2,3	18.8×18.8×17.8	12.8	5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보통	168-2,3	17.5×17.5×20.5	15.9	4.6	-168번과 123번 은 똑같고, 내부 에 배접한 직물 문양도 같음. 영, 정조 때 제작 -정사각형:뚜껑 대략 5cm 직사각형:뚜껑 대략 6cm
	영조 옥보 보통	34-2,3	20×20×17.5	12.3	5	
	진종 은인 인통	42-2,3	18.8×18.8×17.8	12.8	5	
	정조 옥보 보통	54-2,3	17.7×17.7×20	15	5	
	순조 금보 보통	61-2,3	17.5×17.5×20.5	16.8	약 4	
중형	익조비 정숙왕후 금보 보통	104-2,3	15.9×15.9×12.6	9.4	3.2	-155번부터 중형 은 전반적으로 년대가 올라감. 대개 숙종 때
	예종비 장순왕후 금보 보통	116-2,3	15.3×15.3×16.0	11	5	

53) 최 주 주역, 《天工開物》, 진통문화사, 1997, 314쪽.

	선조 금보 보통	17-2,3	15.9×15.9×13.5	9.3	4.2	만들었을 것.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보통	155-2,3	15×15×13	8.5	4.5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보통	176-2,3	15×15×13	8.6	4.4	
	경종비 단의왕후 금보 보통	178-2,3	15.5×15.5×14.3	9.8	4.5	
	문조 금보 보통	79-2,3	15.1×15.1×15.1	11	4.1	
	철종 금보 보통	95-2,3	15×15×14.3	10.6	3.7	
	순종 옥인 인통	102-2,3	16.2×16.2×16.3	12	4.3	
소형	도조 금보 보통	3-2,3	13.6×13.6×14.0	9.5	4.5	-소형 다섯 예는 같은 시기 작품으로 추정. 직물의 문양이 희귀. -22번과 113은 크기, 내부 비단이 같아 동일장인의 작품일 것.
	태조 금보 보통	5-2,3	13.5×13.5×14.8	9.5	5.3	
	문종비 현덕왕후 금인 인통	113-2,3	13.3×13.3×15.2	10	5.2	
	선조 금보 보통	18-2,3	13.7×13.7×14	9.5	4.5	
	효종 금보 보통	22-2,3	13.3×13.3×15.1	10	5.1	

꺼내면 황동이 된다. 구리 1근을 노감석 1근과 함께 녹이면 鑪石 1근반이 된다. 豆錫은 황동의 속명이며 황동의 주조에는 홍동6에 아연 4를 녹인 것이 가장 정교하다.”고 소개되어 있다.⁵⁴⁾ 보통 재료로 황동을 쓴 이유는 연마했을 때 本色이 금색과 같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赤銅보다 단단하고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황동은 시기별로 합금하는 금속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할 때마다 합금 성분이 차이가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통의 금속 성분은 다음과 같이 구리를 중심으로 여덟 가지 구성을 보인다.

- ①구리, 아연, 주석의 합금
- ②구리, 아연, 납
- ③구리, 아연
- ④구리, 아연, 금
- ⑤구리, 주석, 금
- ⑥구리, 아연, 주석, 납
- ⑦구리, 주석, 금, 은
- ⑧구리, 아연, 철

이 배합 중 구리에 아연을 합금한 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②,③순이고 ④,⑤,⑥,은 몇 예만 있고 ⑦,⑧ 한 예만 있다. 예컨대 선조 비 의인왕후의 옥보 보통 3점 중 129-2,3은 구리, 아연, 주석 합금이고 130-2,3과 131-2,3은 구리, 아연, 납 합금이며, 금보 보통 128-2,3은 구리, 아연 합금, 132-2,3은 구리, 아연, 주석 합금이

54) 노감석은 菱亞鉛鑛(ZnCo3)으로서 구리와 도가니에 넣고 숯불로 녹이면 숯불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CO)로 ZnO가 환원되어 황동인 Cu-Zn 합금이 된다. 이규경 지음, 최주 역, 《오주서종박물고변》, 학연문화사, 2008, 69쪽의 주 11 및 77~78쪽 참고.

어서 의인왕후의 보통 5점은 기본적인 구리 + 아연 외에 제작시 경우에 따라 주석과 납을 첨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의 재료인 황동의 합금비율은 대략 샘플만 볼 때, 구리는 70% 가까이 되며 아연은 30% 가량이다. 인목왕후의 보통처럼 구리와 주석만 합금한 경우 주석이 29.9%면 엄밀히 말해 청동에 속하며 40%면 백동에 가깝다.(표3)

표3. 보통의 성분 분석 예

유물 / 성분	부분	구리(Cu)	아연(Zn)	주석(Sn)
선조 인목왕후 옥보 보통 (어보133-2,3)	동체	59.3%		40.5%
선조 인목왕후 금보 보통(어 보134-2,3)	동체	67.5%		29.9%
숙종 인원왕후 금보 보통 (어보167-2,3)	뚜껑	68.2%	27.4%	1.4%
	동체	65.9%	30.9%	0.5%
	바닥	66.8%	28.9%	1.5%

3)보통의 제작방법





어보의 龜形印鈕는 밀납 모형을 주조한 후 세부표현을 釘으로 쪼이질 한 것이

고
보록에는 금속장식에 어자문기법이 구사되어 화려한데 비해 보통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금속공예의 최절정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히 면과 면을 접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튼튼하게 목공예의 짜임방식을 도입해서 마치 작은 뒷박을 짜

듯
구성했는데, 이 방법 역시 鈹材 두께와 짜임의 凹凸이 꼭 맞아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금속공예의 짜임결구방식은 현대 금속공예가들이 전혀 모르는 전통적인 성형방법이었음을 보통을 통해 알게 되었다. 황동은 3~5mm 사이의 鈹材를 사용했으며, 결구는 제작시기가 이룰수록 여러 개로 짜맞춤을 했다. 우선 네 면을 붙이는 짜임은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 맞짜임, 사개짜임과 주먹장짜임을 혼합한 경우가 있었다.(그림8) 서로 짜여진 부분이 직선인 맞짜임은 현대에는 H짜임이라 부른다. 밀판 성형은 세 가지로 밑에서 덮은 것, 짜임한 것, 밑에서 끼운 것이 있었으며 짜임한 것은 사개짜임, 주먹장짜임, 사개와 주먹장짜임을 혼용한 방법이 모두 이용되었다.

그림8. 보통의 결구방식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	맞짜임	사개, 주먹장짜임 혼합
------	---------	-----	--------------

			
인조 금보 보통 (20-2)의 결구	문조 옥보 보통 (70-2)의 결구	고종 옥보 보통 (96-2)의 결구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보통 (어보167)의 밀판 결구

이러한 결구방식으로 먼저 어떤 틀(진흙, 모루쇠, 내화토)에 대고 형태를 맞추도록 각 면을 세워 군데군데 시접땀(기본 고정땀)을 했을 것이다. 다음은 시접땀한 가성형 보통을 철사로 얼기설기 묶어서 고정한 뒤 화로에 넣어 서서히 가열한 뒤 적정한 온도가 되면 꺼내 접합선에 땀은을 흘려보내서 땀은이 골을 타고 흘러내려서 순간적으로 한번에 접합했을 것이다.(그림9) 사용된 은땀(銀汗音)은 약 은성분이 70% 정도로 추정된다. 도금할 경우 鍍黃金과 水銀을 썼으며, 모두 다 한 것 아니고 경우에 따라 두텁게 또는 얇게 도금했다. 이는 장인의 차이(솜씨)나 재료 사정(금)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보통도 금색이 찬란한 것과 흐린 것이 있다.

그림9. 은땀(銀汗音) 흔적 양상

정조 금보 보통 뚜껑 (어보56)		접합부분 따라 직선으로 드러 난 은땀 흔적 A(斜面 아래)
문조 금보 보통 뚜껑 (어보78)		접합부분 따라 직선으로 드러 난 은땀 흔적 B(斜面 위)

숙종비 인 현왕후 금 보 보통 뚜껑 (어보163)		점모양 시접은 땀(왼쪽)과 직 선으로 드러난 접합은땀 흔적
숙종비 인 원왕후 금 보 보통 뚜껑 (어보177)		거칠게 접합된 은땀 흔적

조사자들이 제작방법에 관점을 두고 자세히 살펴본 대표적인 유물들의 간략한 현상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순조 옥보 보통(어보59) : 은땀한 곳은 부식되었고, 바탕도 짜여져 있다. 네 벽은 4~5mm 두께로 H자 맞짜임. 뚜껑은 3.5mm 정도, 밑판은 4.4mm이다.
- 영조 옥보 보통(어보34) : 은땀으로 두께 3.0mm 밑판을 통채로 붙임.
- 인조 금보 보통(어보20) : 2.5mm두께의 밑판을 때운 부분이 울어 안으로 약간 꺼졌음. 장인의 기술문제 또는 酸 처리가 잘 안되어 편편하게 못한 것 같다.
- 정조 금보 보통(어보56) : 판은 1.84mm로 얇음. 밑판은 통판끼움.
- 문조 옥보 보통(어보84) : 대한제국기, 두께 2mm
- 정종 금보 보통(어보7) : 숙종대 대대적으로 제작한 것. 내부는 결이 다 보이는 귀하고 고운 縮(생사)가 배접되었음. 형태는 H자 맞춤, 밑판은 통판끼움.
 r 높이 16.5mm(노출된 齒 7.5mm)
 |└ 접합된 전 (0.9~10mm) 땀이 들어간 상태
- 태조 금보 보통(어보5) : 숙종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내부 배접 직물은 초중기에 속함. 밑판은 통판끼움.
-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보통(어보167): 형태 접합면이 울어서 갈아냈으므로 얇아짐. 밑판은 사개짜임과 주먹장사개짜임이 섞임. 뚜껑을 끼우기 위해 뚜껑받이를 round지게 했고 살짝 안으로 內反 함. 뚜껑과 바닥의 색은 같고 동체만 약간 다른데 아마 주석이 적은 것이 어둡게 보임.(그림10)
- 선조비 인목왕후 옥보 보통(어보133): 구리 59.3% 주석 40.5%여서 백동색에 가깝고 도금은 안했음. 표면이 부풀었고 군데군데 시접땀 자국(-●--●--●--●)이 드러남. 밑판은 통끼움.
-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보통(어보177): 산화가 많이 되었고, 성형도 잘 안되었

음. 재료가 고급이 아니며 뿔자국도 몸체에 흘렀음.(그림9)

- 목조 금보 보통(어보1) : 전체적으로 각이 안 맞음
- 예종비 장순왕후 금보 보통(어보116) : 전체적으로 각이 안맞고 외형선은 저부를 향해 안으로 휘었음.



그림10.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보통(어보167)의 밑판에 드러난 합금의 차이

4)도구와 장인

보통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보인소의궤》에 보이듯이 豆錫匠(다른 의궤에는 보통장이 쓰는 앞에 놓는 풍로와 넓은 줄, 중간 줄, 큰 줄, 떡지 갈아내는 갈기, 작은 줄, 작은 정, 鑿子金各五個, 얇은 송판, 개가죽, 표면 탈지용 오미자, 어교, 설면자, 비상, 봉사, 중간 크기 숫돌, 성형할 때 간략히 드문 드문 뿔하여 각 면을 고정시키고 형태를 묶는 굵은 동사 515.5cm(때로는 細銅鐵絲), 토제화로 2개가 쓰였다.(표1)

제작 장인은 의궤에 寶匠 다음 순서로 “寶筒匠”으로 나오며, 따로 보통장이 없는 경우는 寶匠 다음에 “豆錫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석이 황동임을 감안하면 보통장으로 추정된다.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는 官匠으로 보장이나 보통장이 따로 없으나 17세기 이후의 의궤에는 이들이 등장한다. 조사자가 파악한 몇 사람만 예를 들면 《宣祖懿仁王后祔廟一房儀軌》(1610)의“工匠秩”에“寶匠李於叱金(邊首)劉夢松 味匠姜命希 金守智”라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화장은 금속을 다루므로 강명희와 김수지는 보통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의왕대비 장렬왕후의 옥보를 제작할 때의 기록인 《尊崇都監都廳儀軌》(1651)에는 “匠人秩 玉匠金莫男 林六奉(安東) 寶筒匠金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자의대비의 옥보인 어보146-2,3과 어보

147-2,3 중 1개는 이때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神德王后祔廟都監儀軌》(1669)의 “工匠秩”에는 “宝匠朴汗吉 宝筒匠洪龍”이, 《端宗定順后復位祔廟都監儀軌》(1698)의 “匠人秩 寶筒鄭宗建 李浚善 劉貴尙 寶匠朴成建 朴尙元 郭二山”,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1726)에는 “宝筒匠金太石(內司)”이 활약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國朝寶鑑監印廳儀軌》(1848)에 “工匠 豆錫匠李快龍”이, 《寶印所儀軌》(1878)의 “寶匠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 豆錫匠鄭聖雲 金匠李快吉”, 《國朝寶鑑監印所儀軌》(1902)에 “工匠 豆錫匠裴德淳 沈景文 朴永吉”이 따로 보통장 없이 앞부분에 두석장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보록을 만들 때 쓰이는 두석장식만을 제작한 사람이기보다는 보통을 만든 장인으로 생각된다.

5) 보존상태

총 311점의 보통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유물은 보존처리 및 복원을 필요로 한다.(그림11)

①紅禾紬襦袢으로 보통을 짠 상태로 표면에 襦袢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가 들어있던 보통은 표면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문조의 옥보가 들어있던 보통은 표면은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배접된 직물은 검게 변색된 상태이다. 정조비 효의왕후의 금보가 들어있던 보통은 표면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고 보통을 짰던 직물이 군데군데 붙어있으며, 안에 배접된 직물은 검게 변색되었고 하얀 곰팡이가 핀 상태이다.

②스카치테이프 흔적

어느 때인지 유물에 관리번호를 표기하기 위해서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는데, 스카치테이프의 잘라진 톱니모양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영조 금보 보통의 표면은 부식이 심한 상태로 바닥면이 검게 부식되어 있고, 배접된 직물은 부분적으로 검은 반점들이 있는 상태이다. 순종비 금보 보통은 전체적으로 산화가 심해 짙은 갈색으로 얼룩져 있고 땀질한 부분은 부식으로 인해 녹청이 드러난 상태이다.

그림11.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예

③내부의 紅紬 배접이 박락된 상태

문종비 현덕왕후의 금보 보통은 내부에 배접된 홍색 蔓草蓮花文緞이 내부에서 떨어져 있고, 표면에는 보자기로 인한 얼룩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성종 금보 보통과 선조비 옥보 보통도 내부의 직물이 박락되었다.

④내부의 紅紬가 부식, 변색된 상태

선조비 의인왕후 옥보 보통은 면은 부식이 매우 심하여 검은 녹이 표면에 많

紅 禾 紬 襦 袂 흔 적			
	英祖妃 金寶 寶筒(어보186-2,3)	文祖 玉寶 寶筒(어보 84-2,3)	正祖妃 金寶 寶筒(어보229-2,3)
스 카 치 데 이 프 흔 적			
	英祖 金寶 寶筒(어보37-2,3)	純祖 玉寶 寶筒(어보58-2,3)	純宗妃 金寶 寶筒(어보309-2,3)
紅 紬 배 접 박 락			
	文宗妃 金寶 寶筒(어보112-2)	成宗 金寶 寶筒(어보12-2)	宣祖妃 玉寶 寶筒(어보137-2)
紅 紬 부 식			
	太祖 金寶 寶筒(어보5-3)	宣祖妃 玉寶 寶筒(어보131-2)	仁祖 金寶 寶筒(어보 20-3)

이 드러나 있고, 배접된 직물은 검게 변색된 상태이다. 인조 금보 보통은 전체적으로 검게 변색되었고 뚜껑 윗면은 하얗게 부식되었으며, 몸체 바닥면에 영자의

일부가 남아있고 배접된 직물은 열화가 심한 상태이다. 태조 금보 보통의 내부에는 卍字窠文緞이 배접되어 있으나 몸체 뚜껑받이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 劣化와 녹이 함께 진행되어 변색된 상태이다.

II. 조사자 의견

1910년 이후 종묘에 남아있던 조선왕실의 상징 어보와 관련유물이 일괄로 정리되어 일차적인 전시와 그 결과물인 도록까지 발간된 일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권위의 상징인 어보가 극소수 유출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316과의 어보와 관련된 부속유물 총 3372점 중 인통 44점을 포함한 보통은 총 311점 가량 되는데, 그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크다.

1) 국가문화재 지정가치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유물은 통시성과 완결성, 예술성을 모두 갖춘 왕실의 상징적인 문화재로서 의궤에 기록과도 일치하는 중요한 예이다. 불교 유입 이래 사리장엄이 금, 은, 금동 순으로 겹겹이 봉안하는 포장문화를 대표했으나 조선시대 어보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관장들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한 왕실공예품으로 조선시대 포장문화를 대표한다.

보통은 어보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듯이 대략 대·중·소형으로 나뉘어지며 형태는 매우 단순하지만 “상자제작”이라는 금속공예의 최절정 기법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면과 면을 좀 더 튼튼하게 접합시키기 위해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 맞짜임 등 목공예의 짜임방식을 도입해서 마치 작은 뒷박을 짜듯 성형했는데, 금속공예에서의 이런 짜임결구방식은 현대 공예가들이 전혀 모르는 전통적인 성형방법이다.

정밀주조로 제작한 후 조이질로 세부표현을 더해 사실성이 충만한 어보와 난이도가 높은 直角잡기가 돋보이는 보통, 조이질한 화려한 두석과 銀入絲한 匙家가 장식된 보록은 조선시대 금속공예기법이 총망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보관련 일괄유물은 역사성, 왕권의 상징성, 자료적 가치, 예술성, 왕실 포장문화 등이 응축되어 있고, 제작과정을 기록한 의궤까지 수반하고 있어 지정 신청된 보물을 넘어 곧 국보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2)향후 과제

조사자의 견해로는 어보관련 일괄유물은 향후 몇 단계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거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단계는 유물 조사와 정리를 거쳐 기본 연구와 전시 및 도록발간

제2단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일부 훼손된 유물의 보존과 보수

제3단계는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연구 필요(2-3년 내)

제4단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 문화적 자긍심 높임

현재 제1,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후 문화재청의 중점 사업으로 책정해서 어보와 함께 제작된 玉冊에 관한 全文 해석을 마치고, 의궤와 연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옥책의 내용이 신속히 완역되어 왕의 행장이 어보를 뒷받침해준다면 그 상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선왕실의 왕릉과 의궤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제 어보와 옥책까지 등재된다면 왕릉, 의궤, 어보는 조선시대 왕권을 상징하는 삼대문화로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줄 것이다.

□

○구성 및 기법

어보의 보통에 사용된 기법은 황동 금속재료를 판재로 만들어 그 금속 판재를 두드리고 자르고 불히기를 하여 만들어진 BOX(상자) 제작의 판금 기법이다.

전체적인 제작 순서는 먼저 보통의 크기를 정한 후 육면체의 펼친그림을 그리고 정해진 크기대로 금속 판재를 9조각 재단하여 그 금속 판재 9조각을 하나하나 BOX(육면체) 모양으로 붙여서 묶은 다음 커다란 화로 가마에 몸체 전체를 넣어 가열해서 은땀하여 만들었다.

뚜껑(덮개) 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9조각으로 재단하여 하나하나 형태 별로 모아 묶은 다음 가마에 넣고 전체를 가열하여 은땀 하여 만들었다.

보통은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부분과 그릇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릇의 뚜껑을 닫았을 때 뚜껑이 미끄러지지 않고 고정되면서 덮일 수 있도록 그릇 부분의 안쪽으로 전을 달아 바깥쪽에서는 표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 하였다.

전을 만들 때는 세로 16.5cm 정도 자르고 가로는 안쪽 내경에 맞도록 직사각형 4조각을 재단하여 서로 붙여 은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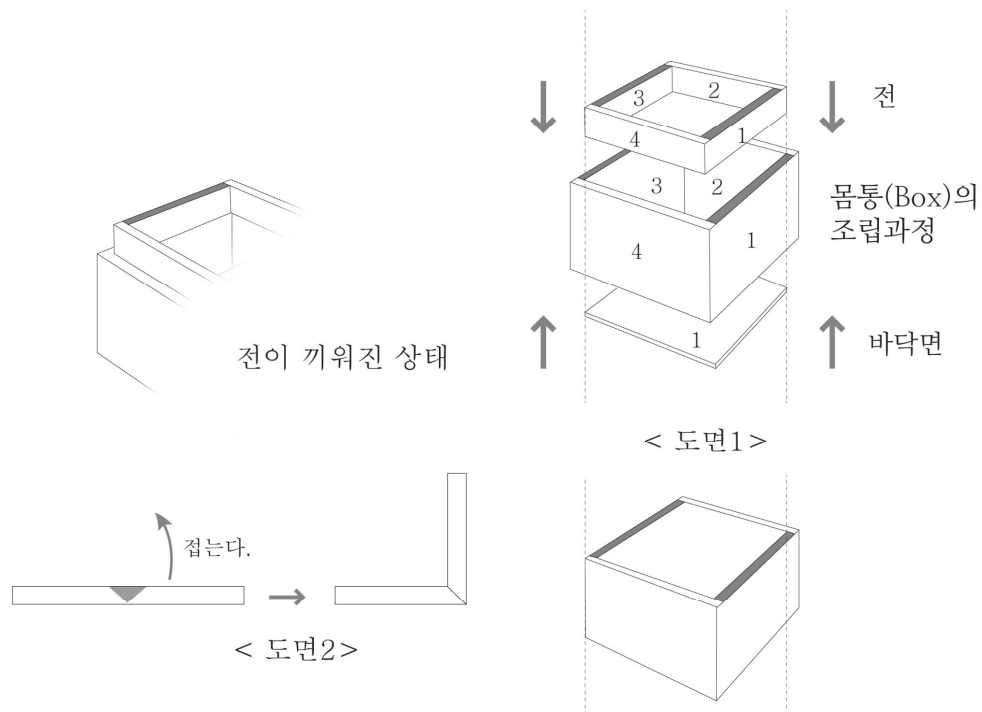
어보를 담은 그릇 부분은 금속 판재 4개를 재단하여 4방향으로 세워 놓고 조립하여 은땀을 하였고 그 다음 과정으로 전을 붙이고, 마지막에 바닥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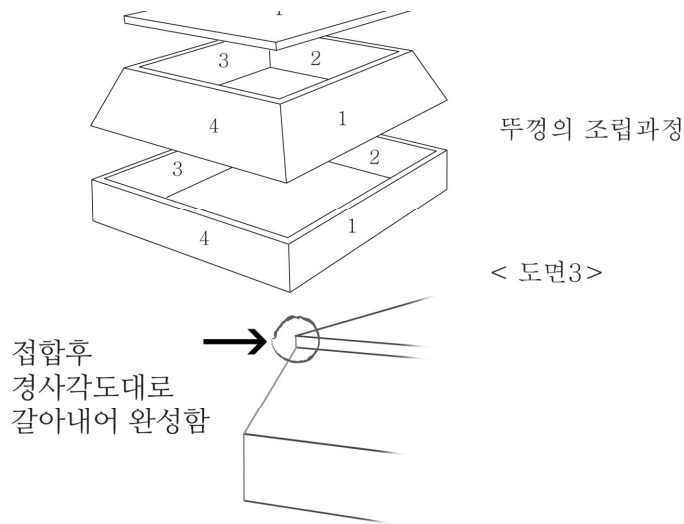
이때 4개의 금속 판재를 붙이는 모양은 <도면 1> 과 같이 붙였다.

※서양에서는 판재에 90°홈을 파내고 피사 접어서 직각으로 세워 땀한다. <도면2>

바닥을 만들 때는 4개의 금속 판재를 붙여 바닥없는 육면체 상태에서 내경 치수로 재단 된 1개의 금속 판재를 끼워 맞춰 은땀하여 바닥을 붙였다. <도면3>

※땀 할 때 은땀의 녹는 온도는 황동(몸체 재료)이 녹지 않도록 800℃~830℃ 정도에서 녹는 땀은을 만들었을 것이다.





보통의 가조립된 상태 가마에 넣고 몸통전체를 가열 할 때에 낮은 온도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면서 몸통 전체에 가열된 온도가 몸통 부분 전체에 똑같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열 할 때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동 재료의 몸체가 가열에 의해 열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면서 황동의 용점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녹는 땀은 녹아 흘러 가조립된 4개의 판재와 판재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끼워진 미세한 틈으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녹은 땀은 흘러 들어가 빈틈에 매워지면서 판재와 판재가 서로 접합되는 것이다.

※이때 땀은 덩어리가 가열하여 온도 상승에 의해 녹기 시작 하면서 녹은 땀은 액체 상태가 되어 판재와 판재의 미세한 틈 사이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주 짧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땀이 된 상태가 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순간에 시간이 지체되면 몸체가 녹아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시간의 지체라는 것이 워낙 짧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인들의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보여 질 수 있는 기술은 과학으로도 해결 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보통 만들기 작업은 재료에서도 언급했듯이 합금된 금속 판재이므로 접합 시 땀은 녹는 온도까지 계속 가열하여야 하는데 이때 4조각의 금속 판재가 각각 심하게 뒤틀리고 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보통의 형태가 완전한 평면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이다. 금속 판재가 그것도 순금속도 아닌 합금된 황동재료가 수평면을 이루는 판재 작업이라는 것은 그것도 옛날 이조시대에 복잡한 메카니즘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은 아마도 세계에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조시대의 오랫동안 만들어진 유물 전체가 보여준 것은 완벽에 가까운 육면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을 용케도 해결하여 그 유물 하나하나마다 완벽한 육면체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당시에는 작업 중에 뒤틀림을 해결해주는 이조시대 당시의 장인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이 분명히 오랫동안 전수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보통에서는 세계의 어떤 유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다 하겠다.

그것은 한국 전통 목공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목가구 짜임기법을 금속공예 보통 제작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어떤 것들은 하나의 판재를 옆면과 연결할 때 넓게 가운데 부분 한곳을 목공 짜임기법으로 물렸으나 그것이 점점 발전하여 3곳을 따내고 끼웠으며 나중에는 완전한 목공예 기법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먹장 짜임(나비장식)으로 서로의 모서리를 서로 물려 흠어지지 않도록 끼워 맞추기 한 후에 은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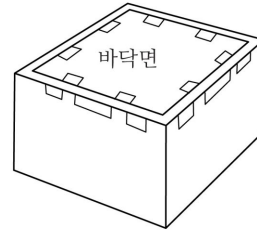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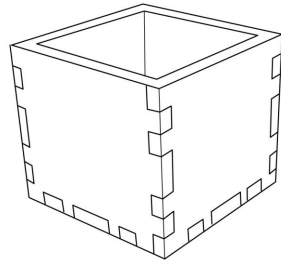
유물을 보면 금속 판재가 목공기법 짜임에 의해 접합된 상태가 가히 신의 경지에 가깝다 하겠다. 서로가 물려 있는 상태가 너무나 완벽하게 작업 된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바닥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 맞춘 후 은땀하여 옆면과 밑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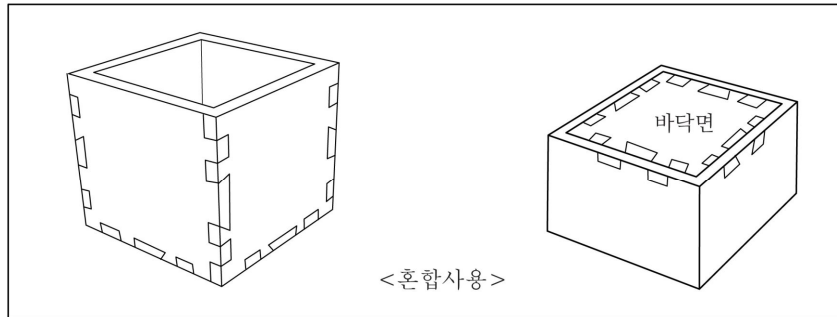
뚜껑 부분은 조각들이 작아 <도면4> 작업하기 쉬울 듯하지만 작은 조각들을 9개씩이나 붙여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이 어보를 담을 그릇 부분의 위쪽에 붙은 전과 크기가 맞아 뚜껑을 닫았을 때 온전한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조시대 당대 최고의 솜씨를 보유한 장인의 솜씨라 하더라도 그 기술은 분명 세상 어느 유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대단한 기술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을 만들 때 어보를 담을 그릇 부분에서 금속 판재 9조각을, 뚜껑에서도 9개의 조각을 서로 붙여 만들었는데, 몸통과 뚜껑에 각각 9조각씩하여 모두 18개의 조각을 조합하여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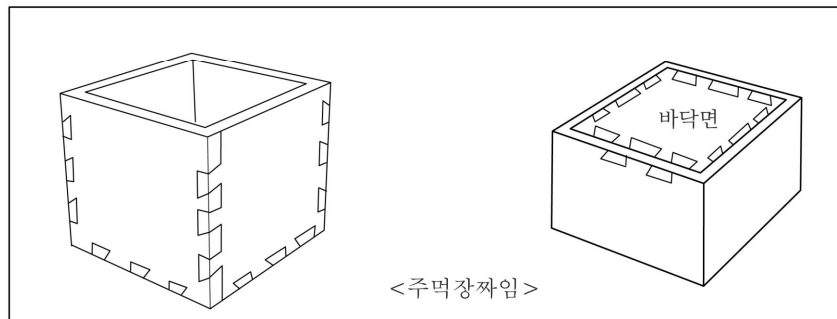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듯도 하다 하겠다.



<사개물림>



<혼합사용>



<주먹장짜임>

도면 4

○ 조형성

보통의 전반적인 형태는 정육면체의 BOX(상자) 형태와 가로·세로·높이의 길이가 약간씩 가감된 직육면체이고, 사다리꼴 형태의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은 외관상 전체적인 형태의 느낌은 서양의 황금비례와는 다르게 정육면체, 그리고 가로·세로길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직육면체이다.

만약에 보통이 황금비례에 의한 직육면체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움직임이나 동적인 율동감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형태는 정육면체 형태로서 그자태가 묵직하고,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 당시 궁중의 위엄이나 권위를 한껏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뚜껑의 윗부분을 사각뿔로 하지 않고 사각뿔 부분이 없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것은 보통을 비단 보자기로 쌓아야 하고, 보자기에 쌓은 보통을 다시 나무상자

에 넣고, 또다시 그 나무상자를 수놓은 비단 보자기에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처음 단계부터 정확하게 계산된 다음 절차들을 생각한 듯하다.

이같은 제작 계획대로 모두 만들어진 마지막 완성된 모습에서 어보 전체를 쌓아야 하는 수놓은 화려한 비단 보자기를 위함 인듯하다 하겠다.

비단보의 문양이나 특징은 당대 사용자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장식하였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다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려면 보통의 뚜껑 윗부분은 (정) 사각형의 넓은 면적이 위쪽에 필요했을 것이다.

완성된 어보의 외형에서 보여 지게 되는 것은 화려한 비단 장식보에다 소유자를 알릴 수 있는 문양, 그리고 당대 최고의 장인들의 솜씨가 보여 질 수 있도록 가장 멋들어진 조형으로 이루어 졌다 하겠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역대 왕족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고, 왕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추어졌던 어보는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겠다.

국립 고궁 박물관 유물 창고에서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는 어보는 국보의 지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한 차원 더 높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라 하겠다.

○ 재료

보통은 언뜻 보기에다 사용된 재료는 황동재료가 대부분이다.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여 황동을 만들고 그 합금된 금속 덩어리(황동)를 달구었다 식혀서 두드리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필요한 두께가 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히고, 두드리는 보통제작에 필요한 황동 판재 만들기 작업을 계속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한군데도 흠이 없는 황동 판재를 만들려면 작업 시 사용되는 모루쇠와 망치 종류들 그리고 열 풀림 할 수 있는 가열 기구등, 사용 되는 도구들이 모두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도구를 사용여야만 된다.

만약에 사용 되는 도구와 공구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든지.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는 공구라면 온전한 금속 판재는 절대로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도 그러하지만, 특히 그 옛날 조선시대 장인들에게 있어서 사용되는 각종 공구와 도구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힘들었

을 것이고, 그것들은 분명, 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아니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이었을 것이다.

그것 하나하나가 혼이 깃든 장인 정신이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인도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어떻게 생긴 도구들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그 완벽한 도구들을 보통과 함께 지금 현재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하겠다.

판금 작업에 사용되는 금속 판재는 합금 안 된 순금속재료라 할지라도 비교적 다루기 어렵다. 더군다나 합금이 된 금속 판재는 순금속 재료보다 훨씬 단단하다. 그리고 합금재료는 작업하는 과정에 열을 가하면 뒤틀리거나 휘어지는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을 만들기 위한 황동금속판재 재료를 만드는 것 만해도 매우 힘든 작업이라 하겠다.

보통의 표면을 살펴보면 일부 합금과정에서 구리와 아연 혹은 구리와 주석 혹은 구리와 아연, 주석 합금을 하는 과정에서 합금 비율이 일부 조금씩 달라 유물(보통)에 나타난 표면의 색상이 회색빛, 혹은 검게 산화된 것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론 유물의 보관 상태나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금속 표면에 산화되어지는 상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노랑 빛을 띄어야만 될 금속 표면이 검게 산화된 것을 보면 합금과정에서 합금비율이 일정하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조선시대 역대 왕족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고, 왕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추어졌던 어보는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겠다.

국립 고궁 박물관 유물 창고에서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는 어보는 국보의 지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한 차원 더 높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라 하겠다.

□

「조선왕실의 어보」는 조선왕조 500년사를 통하여 축적된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품으로 인정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그 가치와 고유성이 돋보이고 있다고 본다.

어보란 왕실의 위호(位號)를 나타내는 도장으로 왕세손·빈, 왕세자·빈, 왕·후의 책봉 및 국장 등 왕실의 주요 의례 시 제작되어 어책과 함께 종묘에 봉안된 것이다. 재질에 따라 금속으로 만든 것은 금보, 옥으로 만든 것은 옥보라 하였다.

왕실에서 어보를 제작하게 되면 그 전 과정에 관한 절차를 의궤에 기록하였으며, 옥책에 기록보관하였다. 따라서 역대 왕과 왕비, 세자의 수에 비해 많은 수의 보인이 제작되었고 이를 록(錄)에 담아 보장(寶藏)보관하였다.

왕인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왕과 왕비의 사후에 따르는 보인은 국가의 귀중품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종묘의 각실에 보관하였다. 태묘에서의 어보를 보관하는 규정은 갑[보록]안에 석통이 있고 또 안팎에 홍보(紅緋)로 싸서 두는 것인데 관리 소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어보는 인장과 더불어 인장을 담는 제 1함 보통과 제2함 보록 등의 궤가 함께 제작되었으며

인장을 감싸는 제1보자기와 보통을 싸는 제2보자기 보록을 감싸는 제3보자기가 동시에 제작되었다.

따라서 어보제작을 위하여 모든 소재를 다루는 공예기술이 총망라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보는 조선시대 최고 공예가들의 수공기술과 조형예술의 총합체로 보인다.

어보제작에 쓰여진 수공 기술들을 소재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금속, 섬유, 돌(옥석), 목, 종이, 어피 등 소재와 천연도료, 안료 등 당시 가능한 천연 소재가 모두 다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본인은 금속 보통(寶筩)부분을 조사하였으며 금속공예기법과 조형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조사는 서류 및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제3책 「조선왕실의 어보」 책자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물 검토(2011년 5월11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그 뛰어난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조선왕실의 어보」에는 보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보통(寶筩): 어보를 담는 금속으로 만든 통으로 방형의 몸체와 율삭형의 뚜껑으로 이루어져있다. 내부는 직물로 배접되었고 바닥에 전을 깐 것도 있다.

■ 「보통(寶筩)」에 쓰인 금속기법

1. 합금기술

비철계금속(구리, 아연, 주석)을 합금 비율에 따라 함께 녹여서 괴를 만들어 판재 가공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단계이다.

필자가 조사한 「보통」의 경우 구리 65%~69% 아연 27%~30% 주석 0.5%~1.5% 등 현대에서는 황동(黃銅, Brass)이라고 불리는 합금비율(구리 67%, 아연 33%)에 비하면 약간의 주석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주석이 첨가됨으로써 현대에 통용되는 황동과는 색채와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합금 시 3가지 다른 원소가 잘 융합되는 용융점을 찾을 수 있는 우수한 화덕이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167 「보통」의 경우 뚜껑부분, 몸체 부분, 바닥부분의 합금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을 제작하기 위한 금속 판재가 동시에 합금된 것이 아니라 뚜껑부분, 몸체 부분, 바닥부분이 각기 다르게 합금 되었다는 것이다.

	구리	아연	주석
뚜껑부분	68.2%	27.4%	1.4%
몸체부분	65.9%	30.9%	0.5%
바닥부분	66.8%	28.9%	1.9%

왜 다르게 합금 되었을까? 당시 합금을 위한 화덕에 담겨질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었을 것을 짐작해 본다.

즉 화덕과 도가니(금속용해로)의 크기 제한 때문에 각기 따로 녹일 경우 같은 비례의 3가지 금속을 녹인다 하더라도 아연의 경우 열을 받는 각도 시간에 따라 쉽게 연소되어 버리기에 남아있는 원소는 달라질 수 있다.

당시 금속 장인들이 땀 흘리며 도가니에 풀무질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된다. 또한 구리, 아연, 주석이 동시에 녹여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황동과 청동의 중간 부분에 걸쳐있는 합금비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합금 후에 하는 열간가공, 단조기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금인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조사 중에 #133 「보통」은 59.3% 구리와 40.5%주석의 합금이어서 백동, 혹은 백동(白銅)이라고 불리는 합금인데 백색을 띠는 동합금이다.

백색의 표면색채 때문에 현대에서는 저면실버(German Silver)라는 상업명도 있는 합금인데 탄성이 너무 강하여 판재가공도 어렵고 판재성형도 매우 까다로운 재료이다.

필자가 조사한 #133 「보통」도 판재와 판재끼리의 은땀(Soldering)시 어려움이 많았는지 몸체 코너부분이 많이 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하여 완성도 있는 「보통」으로 제작되어 나름대로 만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단조기법

합금된 금속봉이나 덩어리를 단조망치로 망치질하며(벼름질) 다져나간다.

사방으로 늘려가면서 원하는 크기의 판재성형을 이루었을 것이다. 「보통」의 금속판 두께는 약 2.5mm~3mm 정도인데, 금속판재를 은땀으로 결구(結構)할 때 휘어진다거나 판재가 녹아 무너지는 경우를 생각하여 두꺼운 판을 쓴 것으로 보인다.

3. 은땀기법

「보통」을 실물조사하면서 금속판재를 결구한 부분에 확실한 은땀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땀은 금속 접합 시 쓰이는 대표적 기법이다. 금속 판재성형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법이며 현대에도 구리계 합금에는 은땀을 많이 쓰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은땀 기법이 널리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물 조사였다.

은땀은 은(50~70%)아연, 구리, 기타 등(50~30%)가 합금되어 용점이 각기 다르게 몸체 합금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아 두 판을 접합하게 만드는 용매제(溶媒劑)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은땀의 합금 성분비율을 알 수 없어 아쉬웠다.

4. 금속갈기 기법(줄질기법)

「보통」 제작을 위하여 은땀 기법으로 판재성형이 완성된 이후 평면적 표면 완성도를 위하여 금속판 외벽을 갈아내어야만 한다. 어떤 기법들이 쓰여 졌는지 확실 히 모르겠지만 갈기나 줄 등으로 분명 갈아낸 것만은 확실하며 금속 평면 갈기가 금속기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시 공예가들의 뛰어난 제작 능력을 이 금속갈기 기법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5. 「보통」 형태 및 판재 마름질

「보통」은 금속으로 만든 어보를 담은 통으로 방형의 몸체와 율삭형의 뚜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결구, 사개맞춤, 통끼움 방법들로 제작되었다.

- 결구(結構): 보통의 각 면을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사개맞춤(사개물림):모서리에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각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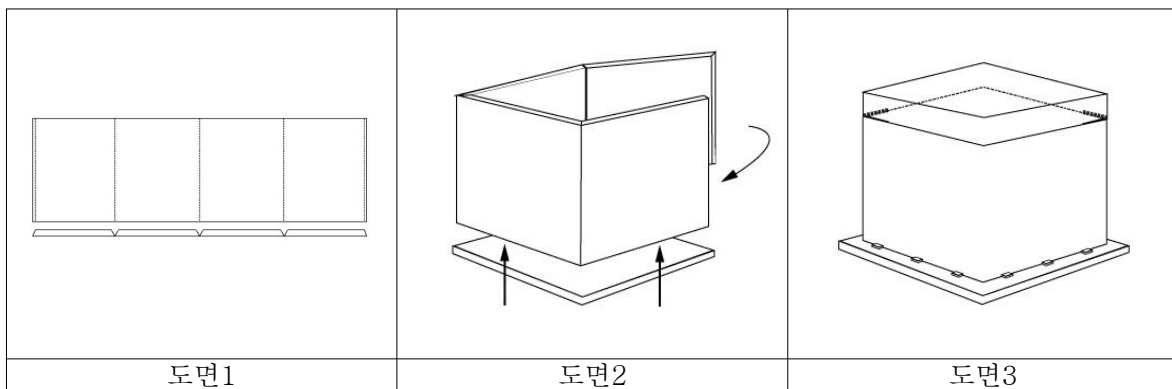
- 통끼움: 모서리에 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통으로 끼워서 접합한 방식이다.
 금속판을 은땀으로 결구하기 이전에 금속판을 마름질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면과 디자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 졌을 텐데 필자가 알고 있고 현대 금속공예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과는 다르게 목공예 판재 제작방법으로 결구가 된 것이 매우 특별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식 결구방법인 「각접기」 방식보다는 너무나 어렵고 용접하기 힘든 방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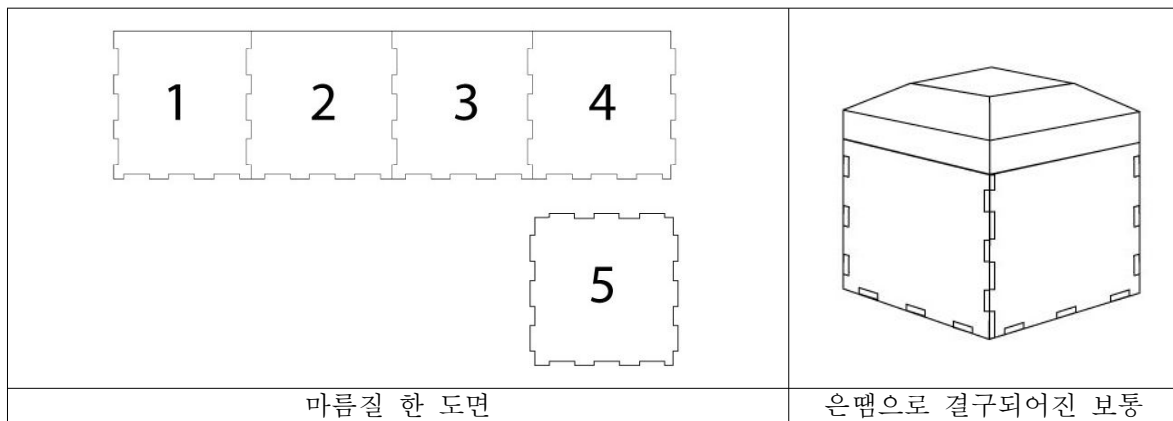
도면을 그려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 현대식 각접기(Scoring)로 사각상자 만들기

- 1) 금속판재를 먼저 마름질하고 꺾어질 부분에 골을 파낸다.(일반적으로 90도 가깝게)
- 2) 간단하게 사각상자모양으로 접은 다음
- 3) 은땀을 녹여 비어있는 공간에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면서 판재들을 결구한다.



- 「보통」에서 보여지는 사각상자 만들기
 (사개맞춤과 통끼움 방법)
 #167번의 경우



턱부침은 현대식과 유사하다.

현대식 각접기 기법과 「보통」의 결구방법은 현저히 다른 것이며 조선시대 「보통」의 결구방식은 금속판을 정확하게 재단하기 위한 매우 섬세한 금속판 절단 공구가 있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결구과정에서 은땀을 녹이기 위하여 화덕과 용접용 불대의 성능이 대단하였다고 보이는데 공구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6.도금기법

금속이 공기 중에서 산화하기 때문에 금도금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발달하여 왔다. 「보통」 제작에도 도금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보통」은 #167같이 뚜껑과 외부 사면체 까지는 도금을 하였지만 바닥은 도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도금기법은 수은 도금기법으로 금을 수은에 녹여 금 아말감을 형성한 후 (금과 수은은 1:10정도 비율)작은 입자가 된 금을 청동체에 발라 도금하는 고대기법.

■ 「보통(寶筒)」의 형태가 보여주는 조형적 요소

1. 기법에 따른 형태의 단아함.

금속판재를 조립식으로 결구한 기법을 써서 만들어진 금속함이기에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기법들이 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사각함을 만든 후 평면 맞추기를 정확하게 해서 어려운 과정의 같기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보통」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랜 경험을 쌓은 금속 공예가들의 실력과 노고로써 만이 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듯 하면서도 힘있는 육면체의 견고함과 더불어 강인함과 우아

함을 지닌 아름다운 「보통」이 탄생되었다.

조선시대 가장 귀하게 다루었을 옥보나 금보를 넣어두는 제1함으로써 매우 당당하고 고아한 「보통」의 형태가 당시 최고의 금속장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 몸체와 뚜껑부분의 비례미와 디자인 완성도.

「보통」은 첫눈에도 평안하면서도 장엄한 구도미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

크기는 大, 中, 小로 나누어져 있으나 딱히 정해진 틀이나 크기는 없이 매우 다양한 치수를 가지고 있어 당시 공예가들에게는 디자인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 같다.

大형 「보통」 크기를 재어보니 #154의 경우 19.8×19.8×20.4cm인데 몸체높이 14.3cm, 뚜껑높이 6cm 이다.

몸체 높이와 뚜껑높이 비례는 2.38:1정도인데 뚜껑 디자인이 율삭형이어서 수평으로 재어보는 높이보다는 훨씬 길고 많은 면적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약 1.6:1이라고 하는 황금비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통」의 몸체와 뚜껑비례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中”크기의 「보통」 #176의 경우 가로·세로·높이 15×15×13cm 인데 몸체높이 8.6cm, 뚜껑높이 4.4cm로써 율삭형 뚜껑 디자인을 생각해보면 “大”크기의 보통에서와 같은 비례를 볼 수 있다.

“小”크기의 보통 #3도 13.6×13.6×14.0cm로써 몸체 높이 9.5cm, 뚜껑 4.5cm감안 해 볼 때 유사한 비례감을 느낄 수 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大, 中, 小라는 그룹으로 나뉘어져도 아름다운 비례미의 조형성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인간이 갖는 본능적 선택이고 당시 공예가들도 이론적인 디자인과 비례미는 몰랐어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3. 전래되어온 장엄한 조형미

「보통」의 형태는 불교미술의 최고 정수인 사리함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불교미술의 상징물인 사리함에 당시 최고의 조형성과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듯이 조선시대의 「보통」도 그러한 존엄함을 담은 상자형태를 이어 받은 듯 하다.

● 참고자료

	
<p>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백제시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금제사리합 7.2×6×9.8cm)</p>	<p>금동제 경관내합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19.1×15.3×10.3cm)</p>

(유리사리병은 금제사리합에 들어가 있었고 이들은 금동제 경관내합에 경관과 금동여래입상과 같이 들어간다. 이 금동제내합은 다시 외함에 들어간다.)

백제시대의 유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에서 보여지는 조형성과 더불어 여러개의 합을 만들어 소중히 다루었던 방법들을 조선시대 「보통」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진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왕조어보」는 모든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종합예술품이다.

그중에서 금속공예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대공예가들이 제작하기 힘든 어려운 기법들이 많이 쓰여졌으며 뛰어난 조형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현대공예가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시기법과 도구, 공구들이 어떠하였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아쉽게 느껴진다.

「조선왕조어보」는 당연하게 국가보물로 지정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 양식 및 특징

1. 보록의 정의와 실태

寶蓋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존호를 새긴 금보 · 옥보를 보관하는 작은 껍데기를 말한다. 국왕과 왕비의 인장은 寶, 왕과 왕비 외에는 印, 諸司의 印信은 모두 印이라 하여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분별한다.

尊號와 諡號, 徽號에 관한 인장은 모두 보라 하였으며 재질에 따라 금속으로 만든 것은 금보, 옥으로 만든 것은 옥보라 하였다. 보록과 같은 크기와 형태를 하여 印朱筒을 담도록 한 것은 朱蠶이라고 하였다. 세자나 세자빈의 玉印이나 은인을 보관하는 경우는 印蠶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왕세자의 책례, 가례, 사후 국장 시에 추상하는 존호, 諡號 또 신분의 격상 시에 位號를 나타내고자 인장을 만들고 이에 관해 옥책에 기록하며 그 전 과정에 관한 절차를 의궤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역대 왕과 왕비, 세자의 수에 비해 많은 수의 보인이 제작되었고 이를 蠶에 담아 寶櫛에 보관하였다.

왕인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六典條例》 吏典 尙瑞院 璽寶 總禮에 따르면 왕인은 大內에 두며 왕인을 찍을 때에는 승정원에서 내오기를 주청하며 王印의 封에 御押이 있고 櫃封에 작은 啓字가 있으면 바로 열리어압과 계자가 없으면 微稟(격식을 갖추지 않고 아뢴다)하여 보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왕과 왕비의 사후에 따르는 보인은 국가의 귀중품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종묘의 각 실에 보관하였다. 태묘에서의 어보를 보관하는 규정은 갑(보록) 안에 석통이 있고 또 안팎에 紅襖로 싸서 두는 것이나 관리 소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12년 9월 11(갑자)일에 “인목왕후의 금보 하나와 옥보 하나에는 모두 석통과 외보가 없고 옥보 둘에는 외보가 없습니다. 부모도감에게 물으니 孝思殿에서 갖고 나올 때부터 본래 이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어찌면 이는 평소 대내에 있을 때 유실된 것으로 보이니 해조로 하여금 이제라도 구비하여 빠짐이 없게 하소서하여 상이 따랐다” 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종묘로부터 이관한 312과의 보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보인의 유물번호를 보인을 담았던 보인록에도 적용하였다

344번 의소세손(장조의 첫째아들 정)옥인 · 342번 문효세자옥인 · 343왕세손옥인(순조의 왕세손 · 341번왕세자(순종 왕세자)옥인 등 4과는 보록 없이 오동상자에 별도로 보관되어 보록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예식에 사용되는 기물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계기가 없다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실의 보록들은 임진왜란이 끝난 1600년대로부터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대까지 300여 년에 걸쳐 제작되었고 그동안 국내외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전해온 단일품목으로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골과 장석의 양식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사의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보인록들은 제작 당시에 금보만 제작하고 보록은 후에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보록을 후에 보수하여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관리 소홀로 일부 망실되고 교란되기도 하여 보인과 보록의 제작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록의 형성에 서부터 변화 발전하는 양식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보인을 조성하면서 기록한 당시의 의례를 참고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2. 록의 양식형성

록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조선시대에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고려시대는 왕의 인장을 璽綬(인장과 인장에 달린 끈)라 하고 왕태자, 태후, 왕비의 인장을 印寶라 하였다. 왕태자, 태후, 왕비 등의 책봉의식에 왕이 친히 太廟, 別廟, 景靈殿에 고유하고 해당부서에서 예식을 거행하며 冊函, 존호를 새긴 印寶, 물품목록을 올리었으나 그 예가 빈번하지는 않았음은 같은 책 宣宗에 “병인일에 왕이 왕태후에게 옥책을 올리고 백관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했다. 선대로부터 책봉하는 예식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다가 이번에 복구되었다”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 이후 희종, 공민왕, 공양왕 등 3대에 걸쳐 冊寶를 드리고 존호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예식에 있어서도 새수나 보인은 왕의 왼쪽에 案을 두고 그 위에 올려놓았으나 록 안에 넣었다는 기록은 확인 할 수 없었다.⁵⁵⁾

다른 하나는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 9월 24(기사)일에 “종묘 제사에 사용하는 관복 · 의물 · 음악을 송나라 제도에 따르기로 하다” 라는 기록이다. 중국에서도 보록의 사용이 송대에 시작되었음은 《송사》 여북지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는 秦制에 따르면 천자는 六璽가 있었으며 따로 국새가 있었다. 역대로 이를 이었다. 唐에서는 이를 고쳐 보라고 하였다. 그 제도에 는 여덟이 있었다. 五代의 난리에 흩어지고 망실되었다. 周의 廣順(951~954)연간에 비로소 두 개의 보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황제승천수명지보>이고, 하나는 <황제신보>이다. 태조(宋)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두개의 보를 전하였다. 그리고 또 <대송수명지보>를 만들었다. 태종대에 이르러 따로 <승천수명지보>를 만들었다. 이후에 역대제왕이 보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황제공용천명지보>라고 썼다. 이는 존호를 올린 것이다. 유사가 옥보로 만든, 즉 존호를 올린 글이다. 보는 옥을 사용하고 전문을 쓰고 폭이 사촌구푼, 두께가 일촌이푼이다. 금으로 만들고 용뉴를 사용하였다. … 소록에 넣었다.”⁵⁶⁾ 라고 하여 록의 사용이 송대에 시작되었

55) 신선원 고려사 제 65권 pp. 265~270.

56) 宋史 輿服志, “寶. 秦制, 天子有六璽 又有傳國璽 歷代之因 唐改爲寶 其制有八 五代亂離 或多亡失 周廣順中 始造二寶 其一曰 「皇帝承天受命之寶」 一曰 「皇帝神寶」 太祖受禪 傳此二寶 又製 「大宋受命之寶」. 至太宗, 又別製 「承

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4년 11월 11일에 명나라에 국왕의 고명과 조선국의 인장을 내려 달라고 청하는 글을 보낸 후 태종 1년 6월 12일에 사각에 전문으로 새긴 조선국왕 금인 1과와 金印池 한 개를 함께 넣은 상자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인과 금인지를 보내왔다고 하여 중국의 보록이 조선의 보록제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록은 《송사》여복지의 “금장으로 만들고 안에는 금상을 설치하였으며 아름다운 비단요(숨을 넣음)를 깔고 잡색의 호려, 벽석, 산호, 마뇌 등으로 장식하였다. 또 록은 이중으로 모두 금으로 장식하였으며 홍라수파로 덮었다.” 57) 하여 매우 화려한 양식을 하였으나 조선시대의 록은 보록과 보통의 이중으로 표면에 옷칠하여 안에는 비단을 바르고 장식에는 도금하였으며 모직요를 깔고 내보·외보 등 비단보자기로 싸는 정도로 매우 실용적이며 검소하게 제작되었다.

3. 樣式과 材料

록의 양식은 크기가 22cm에서 큰 것은 30cm 내외의 정방형 상자로 뚜껑의 사방을 모각아 뚜껑이 9면체를 보인다. 이러한 모각은 뚜껑을 한 상자양식은 중국 漢代로부터 당을 거쳐 송대까지 있었으며 고려시대의 나전경함에서도 볼 수 있다.

록은 기록과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중기부터 말기까지 그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뚜껑 위에는 거북 또는 울각지 뉴를 부착하였고, 뚜껑과 몸통은 두 개의 경첩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낙목에 배목 두 개를 달아 잠금장치를 하였다. 다만 시기에 따라 백골의 짜임과 외부에 부착된 장식 등에서 변화를 보여 시대 구분이 가능하지만 안은 비단으로, 밖은 魚皮로 싸 발라 백골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백골은 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잣나무판이나 피나무판을 사용하였으며 잣나무는 흔히 조선송이라고도 부르는, 우리나라에 많은 수종 중 하나로 목리가 아름답고 재질이 가벼우며 가공이 용이하고 향기가 있어 가구나 棺材에 많이 이용되었다. 피나무는 연하고 결이 치밀하고 곧아 쪼개지기 쉽고 가공이 용이하다. 소반, 바둑판과 같은 판재와 조각재로 사용되었고 승승이 반다지로 알려진 박천반다지는 모두 피나무로 만들었다.

백골의 짜임은 4가지의 유형을 보인다.

天受命之寶」是後 諸帝嗣服 皆自爲一寶，以 「皇帝恭膺天命之寶」爲文 凡上尊號 有司製玉寶 則以所上尊號爲文 寶用玉 箋文 廣四寸 九分 厚一寸二分 填以金盤龍鈕… 納於小盞

57) 宋史 輿服志， 盞以金裝， 內設金牀， 彙錦褥， 飾以雜色玻璃， 壁石， 珊瑚， 金精石， 瑪瑙。 又盞二重， 皆裝以金， 覆以紅羅 繡帕。

- 1 유형은 몸체에 뚜껑받이를 대고 2~3개의 이(齒)를 내어 드문 사개물림하고 대못을 2개씩 박은 것으로 선조대로부터 경종대까지 제작되었다.
- 2 유형은 몸체에 뚜껑받이를 대고 연귀맞댐한 것으로 영조대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 3 유형은 몸체에 반턱내고 연귀맞댐한 것으로 뚜껑은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영조로부터 정조대까지 주로 제작되었으나 철종대까지도 보인다.
- 4 유형은 몸체와 뚜껑 양쪽 모두에 반턱내고 연귀맞댐한 것으로 정조 이후 순종대까지 주로 제작되었다.

바닥판은 맞대고 대못을 박은 경우와 바닥을 몸체 안쪽에 통끼움 하는 두 가지 양식이 있으나, 보록 안팎을 모두 싸서 발라 확인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뚜껑받이를 대고 사개물림한 1유형(185번, 216번)과 몸체 구연부에 반턱내고 연귀맞댐한 3유형(2번)은 바닥을 맞대어 바닥에서 대못을 박았고 몸체에 뚜껑받이 대고 연귀맞댐한 2유형(54번)은 바닥을 통끼움 하였다.

이렇게 짜여진 백골 위에 어피(58)를 표면에 부레풀로 바른다. 이와 같이 록에는 가죽을 입히는 것으로 순종대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나 실제로 일제강점기에는 종이 위에 주칠하여 의뢰의 기록이 형식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피를 씌운 왕과 왕비의 록 표면에는 주칠을, 세자나 세자빈의 록에는 흑칠하여 구분하였다. 흑칠은 매칠 후 전칠을, 주칠은 전칠한 위에 진주홍·왜주홍·당주홍 등을 첨가하여 재칠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어피 대신 종이를 바르고 밑칠 없이 주칠을 하였다. 진주홍은 밝은 주홍색을 나타내는 주칠을 뜻하는 말이며 주칠은 붉은색을 띠는 안료이다. 주칠안료는 중국과 일본, 유구에서 수입해 사용하였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당주홍, 일본·유구에서 수입한 것은 왜주홍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록의 내면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雲寶文이나 花文이 있는 화려한 홍색단을 사용하였고 후기에 이르면 홍색무문 토주를 백지나 홍색 선자지에 배접하여 어교로 붙였다. 어교는 민어의 부레를 끓여 만든 것으로 접착력이 좋은 고급 풀이다.

록의 뚜껑에는 금속제 작은 거북(59)이나 울각지(60)뉴를 부착한다. 뉴를 포함한 경

58) 록의 표면에 씌운 가죽은 돌기가 있는 푸른색이다. 이 가죽을 선조대로부터 효종대까지의 의뢰에는 紫斜皮라 하였고 현종으로부터 순종대까지는 紫黍皮라 하였다. 영조 38년 《정조효의후가례청도감의례》와 순조12년 《효명세자(문조) 책례도감의례》 등 인록을 제작한 의뢰에는 흑서피라고도 하였다. 광무 6년(1902) 《추상존호도감의례》에서는 鯊魚皮로 기록하는 등 3가지로 표현되었다. 국역 《정순왕후가례도감의례》에서는 서피를 담비가죽으로 번역하고, 법제처에서 국역 발간한 《육진조례》에서는 斜皮匠을 각종모피 특히 초피를 다루는 장인이라 하였다. 역주 《경국대전》에서는 斜皮匠이 잘못 옮겨져 黍皮匠이 되었으며 斜皮는 가죽신이나 안장 또는 矢筒 등을 만드는데 쓰인 가죽으로 특히 노랑담비가죽인 貂皮를 다루는 장인이며 斜皮가 잘못 옮겨져 黍皮가 되고 조선 후기까지 鞋工이나 鞞工을 잘못으로 칭서피, 백서피라 알렸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안경집이나 말안장, 화살통, 칼집 중에는 록에 씌운 것 같은 돌기가 있는 가죽을 씌웠으며 이를 공예사에서는 어피라 한다. 가죽의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으나 돌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록 표면의 가죽은 어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교어피, 사어피, 雙骨頭어피, 대량어피, 등의 어피명이 보인다. 어피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동래현, 영일현, 기장현, 간성군, 철산군 등의 土宜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어피, 교어피는 세종때 일본국의 진향품이었다. 또 사어피는 유구국의 토산품으로 우리나라와의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였다.

첩과 낙목, 감잡이, 배목과 배목바탕, 환고리, 자물쇠, 열쇠 등의 장식은 鍊黃銅⁶¹⁾이나 두석⁶²⁾, 정철이 이용되었다. 의궤의 기록에는 재료로 두석이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두석으로 용해되기 이전의 재료인 숙동과 합석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연황동이나 두석에는 황금도금을 하거나 삼보⁶³⁾로 물들였으며 드물게 황동두석에 납염을 하기도 하였다. 금도금한 것은 아직까지도 찬란한 금색을 유지하고 있으나 삼보로 물들인 것은 청녹이 슬고 연한 녹색을 띤 금색을 나타낸다. 정철은 납염하여 못에 많이 사용하였고 정조 시에는 모든 장식을 정철에 납염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담금질을 여러 번 하지 않아 녹이 심하며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백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두석이나 연황동으로 만든 낙목, 감잡이, 경첩에는 조이로 당초문·연화문을 위시한 각종 草花文을 장식하였고 정철로 만든 장식은 불로초를 변형한 형태에 문양 없이 백색의 납을 입혔다. 특히 17세기에 배목의 바탕으로 사용된 8면국화동은 그 양식이 무령왕릉 출토의 금제화형장식과 매우 흡사하여 흥미롭다. 완성된 록에는 초롱 자물쇠를 부착하였다. 동이나 두석으로 만든 자물쇠에는 연화나 당초문, 범자를 조이로 장식하였고 정철 자물쇠에는 당초문이나 거치문 등을 금·은입사하였다. 열쇠는 홍색 사슴가죽이나 홍진사 삼겹승 또는 홍진사를 다회로 만들어 끝에 꿰어 겹으로 만든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비단 주머니에는 홍진사 삼겹승 또는 홍진사 다회에 방울술을 달고 금전지로 장식하였다.

대부분의 보인을 제작할 경우에는 보인록도 함께 제작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의전상의 이유로 제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영조 32년(1756)의 《존숭도감의궤》에는 3과의 보와 1과의 인을 제작하면서 전교에 의해 보록 3부 중 2부는 옛조 32년(고 보록 1부와 인록 1부만 제작하며, 주록 4부 중 2부만을 제작한다고 하였다. 또 영조 33년 인원왕후의 《국장도감의궤》와 같은 해의 영조 원비의 《국장도감의궤》에서도 호조전배로 각각 보록·주록을 싸는 홍광적 단보 1존 3수보하여 2년한다고 하였다. 영조 38년 《사도세자장례도감의궤》에도 인

59) 거북은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볼 수 있는 친숙한 동물로 고려사 卷 72, 志 26 印章에 공민왕 19년(1370)에 명태조가 보내온 금도장에 거북늪가 달렸다고 하였다.

60) 안압지 출토 주사위가 울각지 형태를 하였다.

61) 불에 달구어 두드린 황동

62) 조선왕조실록 영조 16년 12월 9일조에 생동에 합석을 첨입하면 두석이 된다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 雜巧에는 명 선덕년간에 내불전의 화제로 고동들이 뒤엎겨 황제가 吳都督에 명하여 기물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 중 황동제가 아릅다워 시중에 유포되면서 오도독두석이라 하였으니 두석은 황동의 속명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른다. 두석은 황동 6에 왜인 4를 넣어 용해하고 불리면 가장 좋다고 하였다.

63) 삼보는 염료품의 하나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4년 6월 25일 제용감의 모물을 마음대로 화매한 호조의 관리를 국문하지 못하게 한 내용 중 제용감의 치자, 삼보초가 포함되어 있다. 또 《만기요람》 채용편 3 別質 1년 賁價의 正宗 戊戌年(228쪽) 및 정종 을사년(231쪽)各司 無元賁 別質 濟用監에 삼보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책 공전편 상의원(537쪽)에 삼보 10동으로 하고 대가는 쌀 6석 10두로 한다. 황해 평안 양도에 매동의 대가는 쌀 10두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록 1좌를 호조전배로 개칠 장식하여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순조 즉위년(1800)의 《정조국장도감의궤》 삼방의궤 조각질의 왜주홍칠 내함의 장식과 자물쇠, 열쇠는 쓰지 않는 물건에서 가져다 쓴다고 했으며, 흑색진칠 外櫃의 자물쇠와 열쇠집도 쓰지 않는 물건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백골의 제작연대와 장식의 양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맺음말

보인록은 왕실의 귀중한 인장들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실제 사용하는 인장을 담아두는 보록도 있었으나 존호를 올리어 위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보인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작한 보록이 더 많았다고 여겨진다.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의 요구로 존호를 올린 이래 역대 왕들은 수많은 보인과 함께 보록도 제작하여 종묘에 보관하여 왔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망실되어 임란 이전의 보록은 없는 실정이다. 임란 이후에 제작된 보록도 조선 왕조의 몰락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는 등 국가적인 불운기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망실되고 훼손되어 현재 등록된 보인록은 320여 점에 불과하다.

종묘에 보관되었던 보인과 함께 보인록은 1992년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신인 궁중유물전시관에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종묘에 보관되었을 당시 보인에 부여한 번호가 보인을 담았던 보인록에도 적용되었으나 상당수가 교란되어 보인의 제작시기와 보인록의 제작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의궤와 보록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록은 인주통을 담은 주록과 함께 제작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인식하고 조사에 임하였으나 영조대부터는 왕명에 의해 같은 숫자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보인을 제작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였으므로 도감을 설치하여 소관 부서, 소요되는 경비, 물품 등을 행사 전반에 걸쳐 기획하고 기록하여 행사가 끝난 후 남은 물품들은 반납하였다.

또 장식의 경우 쓰지 않는 물건에서 떼어다 쓰거나, 보록 자체를 보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시대에 따른 양식분류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의궤와 비교 분류한 결과 17세기의 보인록은 기능적인 보강을 위해 필요한 장식만을 부착하였으며, 섬세하게 가공하여 아름답고 견고하였다.

숙종 31년에 임란으로 망실된 보인록과 주록을 1, 2차에 걸쳐 총 112부를 5개월의 공정을 거쳐 제작 보완하였다. 짧은 기간임에도 왕실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당시의 보록들은 견고하고 섬세하게 제작되었다. 이후 영 · 정조대까지 일부 장식이 약간 커지거나 작업의 공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변화는 있었으나 그 정도는 미

미하였다.

이후 국력이 쇠퇴해가는 국가에서의 모든 미술 공예품에서 볼 수 있듯이 보록의 장식은 불필요하게 커지면서 섬세한 세공대신 성의 없이 제작하여 거칠고도 조잡하면서 미완성품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고종대에서는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금보와 함께 보록을 대량으로 제작하였으나 왕실공예품의 격을 실추시키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여 년에 걸쳐 단일품목으로 제작되어온 공예품은 이 보인록이 유일하다. 이 보인록들은 그 재료에 있어 목공 칠분야는 물론 금속, 섬유, 피혁(수피, 어피) 종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하여 궁중 공예품의 양식면에서 또 재질면에서 변화, 발전,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다양한 공예분야의 편년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보인록들은 그 재료에 있어 목공 칠분야는 물론 금속, 섬유, 피혁(수피, 어피) 종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하여 궁중 공예품의 양식면에서 또 재질면에서 변화, 발전,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다양한 공예분야의 편년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

1. 어보직물의 현황

御寶는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는 의례용 印章으로,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인장까지를 통칭한다. 어보는 여러 단계의 장엄의식에 의해 봉해지고 보관되는데 이때 각 과정에 맞는 보자기와 영자 등의 부속품이 사용되었다. 보자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구성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보는 모두 316과(顆)이며, 어보와 함께 이를 포장하고 보관하는데 사용했던 보통, 보록, 보자기, 영자, 끈 등이 남아있다. 어보를 포장했던 직물류는 어보보자기[裸] 230점, 보통보자기 285점, 보록보자기 259점, 기타 보자기 126점이며, 직물영자 752점, 동아줄 삭이 172점, 주머니 141점, 자물쇠 217점, 열쇠 194점, 의향 8점, 甌과 인주상자가 48점 있으며 그 외 甌鹿皮大纓子, 雪綿子 등이 조사되었다.

2. 어보보자기의 포장형식

금번 조사된 어보 보자기의 포장형식과 절차는 『嘉禮都監儀軌』, 『寶印所儀軌』 등에 기록된 포장형식과 절차 및 내용면에서 모두 일치한다. 어보를 보자기에 싸고 포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어보가 만들어지면 홍색의 영자를 달아 장식하고 보자기에 싼다. 어보를 싸는 보자기는 겹으로 만들며 대부분 雲文緞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헌의 기록과 일치한다. 영자는 자색의 명주 또는 兪羅로 만들며 어보를 보자기에 싼 후 영자 두 개를 아래에서 십자로 교차하여 위로 묶는다. 이때 보자기의 네 귀퉁이와 영자에는 藍絨絲 金錢紙를 달아 장식한다.

보자기에 싼 어보는 寶筒에 넣게 된다. 보통 안에는 文緞 또는 綾, 紬 등의 견직물을 바른다. 보통의 바닥에는 모섬유를 축융하여 만든 紅氈, 白氈을 깔아 어보가 바닥에 닿을 때 완충작용을 하게 했다. 통 안에는 衣香을 넣고 씨를 皁雪綿子를 넣어 어보가 움직이지 않게 충전시켰다.

보통은 어보와 마찬가지로 다시 보자기에 싸고 자색영자로 묶은 후 寶盞에 넣는다. 보록 안에는 의향과 목화솜을 끼워 넣어 충전하며 바닥에 전은 깔지 않는다. 보록은 다시 보자기로 싸고 영자로 묶어 護匣에 넣어 보관한다. 보록은 세 가닥의 끈을 합쳐 끈 끈으로 묶는데 이러한 끈을 문헌 중에는 ‘紅眞絲 三甲索’ 또는 ‘紅眞絲 三甲所’라고 하여 문헌기록과 일치한다.

3. 어보 보자기 유물의 구성과 특징

유물에 나타난 어보 보자기와 영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자기[襪]

보자기는 모두 900점이 조사되었다. 구성은 겹보자기와 홑보자기가 있으며 크기가 작은 것은 겹보자기가 많고 크기가 큰 것은 홑보자기가 많았다. 文緞으로 만든 보자기는 50~60cm 한 폭으로 구성되고, 평조직의 주로 만든 보자기는 30여cm 폭의 직물을 2폭, 3폭을 이어서 구성하였다. 보자기 중 가장 큰 것은 가로, 세로 169cm×171.2cm이며, 명주 5폭(34cm/34.2cm/34cm/35cm/34cm)을 이어서 만들었다. 홑보는 가장자리를 접어서 안에서 감침질하였으며, 겹보는 안에 목화솜을 얇게 두고 구성하였다. 보자기의 네 귀퉁이에는 남색의 금전지술을 달았다.

어보 보자기 크기는 20cm부터 200cm까지 다양하며 크기별로 나누어보면, 대략 3가지의 크기로 구분된다. 작은 것은 40~70cm, 중간 것은 70~100cm, 큰 것은 100~120cm이다. 특히 40~70cm의 보자기와 100~120cm의 보자기가 각각 전체 수량의 50%, 30%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두 가지 크기에 밀집되어 있

다. (60cm이상 70cm 미만의 크기를 가진 어보는 189개로 가장 많다.)

『보인소의궤』와 『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 크기를 참조하면 어보 보자기는 1尺~1尺 1寸으로 당시 포백척에 따르면 약 42~50cm이며, 보통 보자기는 1尺 5寸~1尺 8寸으로 약 70~83cm, 보록 보자기는 약 102cm이다. 따라서 유물에서 보이는 40~70cm의 보자기는 어보 보자기, 70~100cm의 보자기는 보통 보자기, 100~120cm의 보자기는 보록 보자기로 추정된다.

작은 크기의 보자기에 사용한 직물은 대부분 雲寶文緞으로 문헌에 기록된 어보 보자기의 雲文緞과 일치한다. 40cm보다 작은 크기의 어보에서는 평조직의 紬가 많고 60cm이상부터 折枝牡丹文과 蔓草牡丹文의 綾이 보이기 시작하며, 小花文 형태의 금박도 일부 나타난다. 70cm 이상에서는 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간 크기의 어보직물은 대부분이 紬이며 소화문 형태의 금박이 찍혀있기도 하다. 그 외 無文緞, 二色文緞도 섞여있다.

크기가 큰 어보에서는 紬가 가장 많이 보인다. 간혹 緞종류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작은 크기의 어보에서 보이는 文緞과 문양은 같지만, 색은 다른 이색문단으로 짜여져 있다. 110cm후반부터는 화학섬유로 추정되는 축면직물이 보인다.

2) 纓子

유물에 보이는 영자에는 직물영자와 끈영자 두 가지가 있어 문헌의 기록을 입증한다. 직물영자는 별도로 분리된 것 759점과 함께 보자기에 달린 영자가 조사되었다. 영자의 형태는 양쪽 끝이 직선으로 된 것과 삼각형으로 된 것이 있으며, 양쪽 끝에 수술을 달았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당 부분 술이 분리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영자는 대부분이 평조직으로 제작된 紬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보자기에 달려 있는 영자는 모두 주이며, 분리되어 있는 영자 중 3족 여직과 5족 여직의 항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보와 관련된 영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점의 운보문단으로 만들어진 영자가 있다. 운보문단 영자 1점은 안쪽에 평조직의 주를 넣어 2중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보자기에 달린 영자는 보자기의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직각 방향으로 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영자나 보자기와 유사한 색실을 사용하여 +자형으로 바느질하였다. 하지만 +자형의 바느질이 아닌 영자끼리 서로 맞대어지는 부분의 사방 모서리를 ㄱ자형으로 바느질하여 독특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한 개의 보자기에 2개의 영자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짧은 길이의 영자를 보자기 중앙부분에서 간격을 두어 바느질한 것도 있다.

끈 영자는 162점이 조사 되었다. 紅色絹絲로 만들어졌으며 구성형태는 두 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향으로 끈 끈 3가닥을 합쳐서 좌연으로 끈 끈과 둘째 좌향으로 끈 끈 3가닥을 합쳐 우연으로 끈 끈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문헌에 나타난 ‘紅眞絲 三甲所’로서 후대에 직물영자대신 사용되었다.

3) 기타

주머니는 겹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홍색, 주홍색 등이 주류를 이룬다. 평조직으로 제작된 紬를 사용한 것과 걸감은 雲寶文緞, 안감은 蓮花蔓草文緞을 사용하여 걸감과 안감이 다른 것, 그리고 걸감과 안감이 동일한 문직물을 사용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걸감은 운보문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연화만 초문단을 사용한 것도 있다.

주머니에는 매듭, 방울술, 열쇠와 자물쇠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圓多繪만 있는 것도 있다. 방울술은 대부분 金錢紙를 안에 넣었다.

그 외 鹿皮大纓子와 통의 내부에서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毛氈, 실크 솜 5봉치, 그리고 영자와 유사한 형태로 잘려진 전이 함께 조사되었다.

4. 어보직물의 종류

어보 보자기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는 크게 紬, 綃, 縐紗, 無文緞, 文緞, 文綾, 英綃緞, 金箔 등이며 보록의 보자기 중에는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학섬유 보자기도 수 점 남아 있다.

보자기의 직물은 평조직으로 제작한 주의 종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문단, 무문단을 많이 사용하였다. 문능, 영초단, 초, 추사 등은 일부 사용되었다. 영자에 사용된 직물에는 초, 주, 亢羅, 文紗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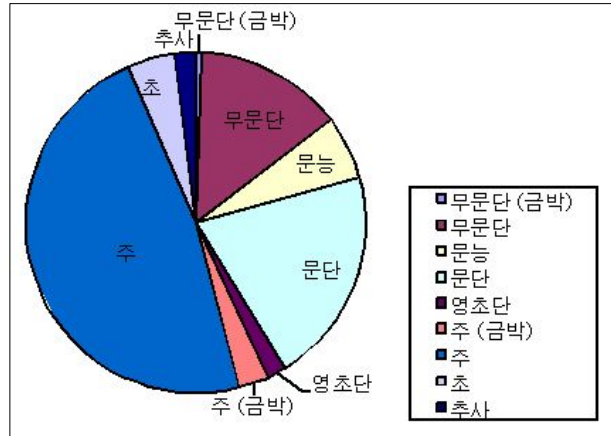


그림 123 어보직물의 종류

1) 平組織

보자기에 사용된 직물 중 가장 많은 직물이 평조직의 견직물이다. 보자기의 평직물 종류는 細紬, 紬, 經畝織, 緯畝織, 綃가 있으며, 경사·위사의 굵기, 밀도, 실의 꼬임 등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일부 대형 보자기에는 경사에 무연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우연과 좌연의 강연사를 번갈아 제작하여 표면에 縐文이 생긴 직물을 사용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추사와는 다른 느낌으로

실이 고르고 유난히 광택이 많이 나서 화학섬유로 추정된다.

영자감에는 위사방향으로 향라와 같이 줄이 생기는 독특한 기법의 평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경사는 한 가지 실을 사용하고 위사에 가늘고 굵은 두 가지 실을 번갈아 제직하여 위사방향으로 줄이 난다. 이와 같은 제직기법은 조선 말의 유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며 간단한 평조직 제직기법을 쓰면서도 향라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2)綾組織

어보 보자기에 쓰인 직물 중 능직물 보자기는 평조직이나 수자조직의 직물에 비해 수량이 적다. 조선시대 역대 『의궤』에도 능직물을 보자기로 사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능직물 보자기 중에 무문능은 없으며 모두 문능이 사용되었다. 문능 보자기에는 모두 4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경사는 좌연의 강연사, 위사는 무연을 사용하여 바탕은 $2/1 \setminus$ 3매경능직, 문양은 $5/1 \setminus$ 6매 위능직으로 제직하였다. 둘째, 문능 중 원용 문능 1점은 경사에 좌연의 강연사, 위사에 무연을 사용하여 지조직은 $2/1 \nearrow$ 3매 경능직, 문양은 $5/1 \nearrow$ 6매 위능직으로 제직되었다.

3) 縵子組織

(1) 無文縵

어보 보자기에 사용된 무문단의 조직은 5매 2비 경수자조직, 5매 3비 경수자조직, 8매 3비 경수자조직, 8매 5비 경수자조직이 있다. 조직은 같아도 실의 굵기, 꼬임정도, 밀도 등에 따라 다양한 제직특성이 나타난다. 무문단 중에는 경사에 무연의 극세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납작한 넓은 실을 사용하여 위사가 흰히 비쳐 보이는 조직도 많이 보인다. 또한 8매 3비 경수자조직의 무문단 중에는 경사에 황색, 위사에는 홍색으로 제직하여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이색무문단도 있다.

(2) 文縵

보자기 유물 중 평직물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문단이다. 문헌 중에 나타나는 雲文縵, 雲文大縵, 雲文漢縵 보자기와 일치한다. 어보 보자기에 사용된 문단은 문양은 다양하나 조직은 비교적 간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5매 수자조직의 문단이며, 둘째는 8매 수자조직의 문단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 8매 수자조직은 1700년대 이후에 보이기 때문에 8매 수자조직의 문단으로 만들어진 보자기는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조선 후기의 8매 수자조직의 문단 보자기 중에는 경사에 홍색, 위사에 짙은 적색을 사용하여 이색으로 제직한 문단이 많으며, 문단의 식서에는 황색, 녹색, 흰색 등 바탕의 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식서를 짜서 구분하였다. 이색문단 중에는 위사에 홍색과 황색을 섞어 합사한 복합사를 일부분에 짜 넣은 예도 있다.

4) 경사꼬임조직[撚組織]

(1) 文紗

경사꼬임조직의 사직물은 보자기에는 보이지 않고 영자에 2점 있다. 문사는 2경꼬임 사조직과 평직 또는 부직을 혼합하여 무늬를 짠 경사꼬임조직이다. 문사는 보통 2경꼬임 무늬 없는 사를 바탕으로 짜고 무늬부분은 평조직으로 짜는데 이와 반대로 제직된 유물도 있다. 본 유물은 사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평조직으로 무늬를 제직했다. 경사는 좌연의 약연사를 쓰고 위사는 무연사를 사용하였다.

(2) 亢羅

어보 보자기 유물 중 향라는 3족향라와 5족향라가 사용되었으며, 보자기감에는 쓰이지 않고 영자감에만 자주색으로 물들여 사용하였다. 일부 5족향라 중에 3족향라를 섞여 짠 것도 있다.

5) 英綃緞

보자기유물 중 영초단으로 만들어진 보자기는 모두 11점이다. 다른 보자기들은 안과 밖을 모두 홍색을 사용한 것에 반해서 영초단 보자기 중 9점은 겉에 홍색, 안에 청색을 대어 겹으로 만들어 강한 색의 대비를 이룬다. 桃榴佛手文 영초단은 경사, 위사 모두 꼬임이 없는 무연사를 사용하였으며, 경사는 가늘고 위사는 경사의 4배정도 굵기로 합사한 실을 사용하였다. 바탕은 평조직, 문양은 8매 5비 경수자조직으로 제직되었으며, 평조직으로 짜여진 부분은 경사가 가늘고 위사가 굵어서 위사방향으로 꼴이 나는 경무직의 효과가 난다. 바탕의 경사는 1올 정도의 간격을 두고 4올이 물려있어서 경사방향으로 일정하게 줄이 난다.

영초, 영초단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많이 사용된 직물이다.

6) 金箔

금박한 보자기는 모두 31점이다. 금박은 대부분 주로 만든 보자기에 금문을 시문했으며, 일부 무문단, 운보문단, 모본단에 금박하기도 했다. 금박한 보자기

크기는 36~120cm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고종 34년(1897) 『가례도감의궤』에는 보자기감 紅方紗紬에 貼金으로 금박한 기록이 있으며, 광무10년(1906) 『가례도감의궤』에 金寶를 싸는 보자기로 紅禾紬灑金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7) 기타

금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보통과 보록의 바닥에 까는 氈이 수 점 남아 있다. 홍색전의 두께는 얇으며 섬유의 상태가 고르고 치밀하다. 문헌에는 寶筒에 홍전, 백전 등을 깔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 외 20여점 정도의 鹿皮大纓子가 남아있으나 일부는 훼손되어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다. 그 외 열쇠 영자로 사용한 자색계열의 좁은 가죽 끈도 일부 남아 있다. 문헌 중에는 열쇠영자와 주머니감[匙纓匙家次]으로 紅鹿皮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大纓子 감으로 黃鹿皮, 黃中鹿皮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5. 어보 보자기 직물문양

어보 보자기 직물에 사용된 문양에는 雲文, 花文, 龍文, 鳳凰文, 寶文, 花鳥文, 昆蟲文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문양은 雲寶文으로 전체문양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는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문헌 중에는 보자기를 만드는 옷감은 모두 운문으로 나타나 있다. 운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문양은 화문으로 折枝花文, 牡丹文, 蔓草蓮花文, 桃榴佛手文이 사용되었으며, 금박으로 간단한 小花文을 시문한 보자기도 다수 있다. 그 외 暗八仙文, 八吉祥文 등의 寶文도 수 점 남아 있으며, 梅花鳥文 1점, 圓龍文 1점, 穿花鳳文 1점, 梅花文 1점, 胡蝶文 1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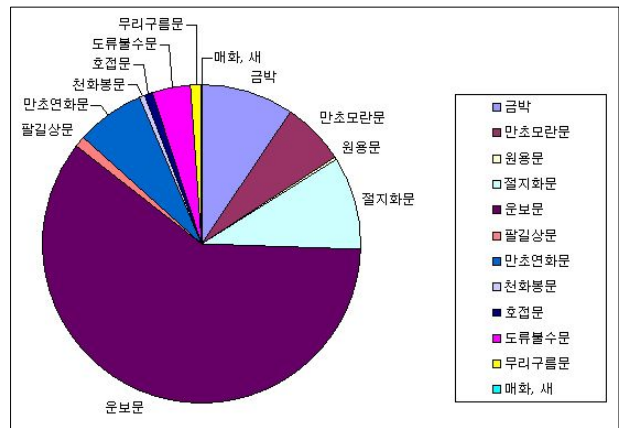


그림 124 어보 직물문양의 종류와 사용빈도

1) 雲文

보자기에 사용된 운문은 보문과 복합된 운보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례도감의궤』의 어보 보자기에는 모두 ‘雲文’으로 표기하고 있어 문헌의 내용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 일부 보통 내에 발라진 직물에 雜寶文이 없이 운문만 시문된 경우도 있다. 운문의 종류는 雲頭와 와臥雲의 형태, 운문 사이에 시문된 잡보문의 종류 및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시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운문의 유형은 모두 25종류로 구분된다.며 조형적 특징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6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문은 운두가 크고 원형에 가깝다. 양옆의 꼬리는 수평으로 뻗고 있으며 운두에 비해 작다. 위아래 운두를 연결해 주는 와운은 거의 수평으로 누워있으며 끝에서만 약간 휘어 운두와 연결되고 있다.

1700년대 말의 운문은 운두가 옆으로 약간 타원형이 되고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와운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운두와 와운의 비례가 맞고 안정적인 구도가 된다.

1800년대 운문은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운두가 작아지면서 와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길어져 운두와 운두 간의 간격이 넓어진다. 양옆 꼬리는 한쪽은 위로 향하고 다른 쪽은 아래로 향하면서 사선으로 뻗어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의 운문의 가장 큰 변화는 운두와 와운이 분리되고 커져 운문의 비례와 조화가 맞지 않고 거칠어진다.

2) 折枝花文

보자기감에 운보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문양은 절지화문이다. 모두 능직물로 짜여졌다. 소형의 화문을 단순화시켜 여백을 많이 두고 탐쌍기 형식으로 배치한 절지화문은 고려시대의 草花搭子 도안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오면서 화문이 좀 더 섬세해지고 사실화되었다. 도안의 주제는 각종 화문과 영지, 석류 등이 쓰였으며 문양이 단아하고 여백의 미가 있어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3) 牧丹文

어보 보자기에 사용된 모란문은 모두 4점으로 능조직으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만개한 모란이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위 모란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고 가는 줄기로 이어져 있다. 두 점은 다른 복합문 없이 모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한 점은 모란 사이에 작은 연화문을 배치하였으며, 또 다른 한 점은 모란문 사이에 보문인 磬과 黼를 작게 삼입하였다.

4) 蔓草蓮花文

보자기에 사용된 연화문은 모두 비슷한 구도와 형태를 나타내며 세부적인 차이점으로 분류하면 모두 7종류로 구분된다. 보자기의 연화문의 구성형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첫째는 두 가지의 측면형의 연꽃이 일완전 도안을 이루며 하나는 가운데 연밥이 보이고 하나는 꽃잎만 보인다. 다른 한 종류는 측면에서 본 연화로 연밥이 보이지 않는 연꽃이 둥글고 탐스러운 보상화풍으로 도안되었으며 같은 형태의 연화가 위아래 방향을 바꾸어 살짝 엇갈리기 배치로 놓여지고 만초는 연꽃을 둥글게 감싸며 아래위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같은 연화문도안은 1700년대 초에 많이 보인다.

5) 梅花文

매화문은 1점이 있다. 고목에 피어있는 매화를 도안화 한 것으로 가지가 이어지면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활짝 핀 매화와 봉오리를 표현했다. 매화꽃잎은 면과 선을 섞어 도안하여 변화를 주었다. 매화는 한설 속에 홀로 피어 군자의 지조와 절개로 비유되어 장식도안에 널리 사용되었다.

6) 花鳥·花蟲文

보자기에 보이는 花鳳文은 절지형의 국화, 연화, 모란 산다화 등 사양화문 사이에 봉황이 날고 있으며 봉황은 꼬리가 톱니모양으로 갈라진 것과 둥글게 말린 것이 함께 표현되었다. 이 같은 도안은 1700년대의 직물에 많이 보인다. 보자기 직물 중에는 매화가지 사이로 날아드는 새를 표현한 직물이 1점 있다. 직물의 짜임이 고르지 못하여 문양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 매화는 꽃잎의 일부가 빠져있고 새의 표현도 서툴다. 새는 머리가 크고 비레가 맞지 않는데, 부리가 뾰족하고 길며 뒤에 꼬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직물에 나타나는 새문양은 제비, 산까치 등 기쁨과 좋은 소식을 알리는 길조를 많이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제비는 1600년대 문양에 많이 표현되었다.

7) 桃榴佛手文

도류불수문은 영초단 보자기에서 보인다. 어보 보자기의 색은 모두 홍색을 사용하였으나 영초단 보자기에는 예외로 청색도 보이며 홍색과 청색을 안과 밖으로 하여 겹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복숭아, 석류, 불수가 절지문으로도안되고 중간에 복숭아꽃과 꽃송이를 더하였다.

8) 八吉祥文, 暗八仙文

보자기에 사용된 팔길상문은 영초단으로 짜여진 것이 1점 있다. 실구름 사

이에 불교의 보문인 8가지 기물 즉 蓮花, 寶蓋, 法螺, 寶傘, 盤長, 金魚, 寶瓶, 法輪 등을 시문하였다.

보자기의 암팔선문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영초단 보자기에 시문된 것으로 獸鬣 형태의 실구름문 사이에 암팔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암팔선문은 1800년대 많이 보인다. 둘째는 역시 와잠 형태의 실구름문 사이에 암팔선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문단으로 짜여져 문양이 정연하고 선명하다. 암팔선문 사이에는 새 한 마리와 박쥐가 함께 도안되었다. 마지막 한 점은 대단히 다양하고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기본 구성은 실구름 사이에 암팔선문을 시문하고 그 사이에 학과 잡보문을 삽입하였다. 두 마리의 학은 각각 영지와 맺잎을 물고 있다. 잡보문의 종류는 경전, 화염보주, 보, 여의, 서각, 산호, 전보, 창 등이다.

9) 圓龍文

보자기직물 중 유일하게 용문이 1점 있으며 직물의 짜임은 능조직으로 제작되었다. 문양의 구성은 연화만초와 쌍용문을 둥글게 도안하였으며 둥근 한 무늬의 크기는 가로 지름이 39.4cm, 세로 지름이 46.5cm로 큰 편이다. 이 같은 쌍용원문은 출토복식 중 18세기에서 19세기 직물무늬에 많이 나타나며 개화기 까지도 英綃緞, 紗, 緞 등 각종 직물에 시문되었다.

본 원용문의 특이한 점은 이제까지의 원용문은 모두 면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 문양을 모두 선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선 표현이 매우 정교하며, 면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섬세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10) 기타

보자기문양 중에는 折花文 사이에 犀角과 寶文이 들어 있는 文緞이 1점 있다. 짜임은 매우 거칠어 문양이 잘 들어나지 않는다. 영초단 보자기 중에는 와운 형태의 실구름 위에 나비문을 첨상한 문양도 1점 있다. 나비는 매우 장식적으로 도안되었으며 2종류의 나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외 금박으로 표현한 문양이 다수 있다. 금박은 명주에 주로 시문했으며 드물게 운보문단과 모본단에 금박하였다. 금박문양은 간략화된 작은 국화형의 문양으로 한단 또는 두 단의 중첩된 꽃잎으로 표현하였다.

6. 어보 직물의 지정가치와 의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관련 섬유류 2266점을 조사하여 어보보자기 [褙] 230점, 보통보자기 285점, 보룩보자기 259점, 기타 보자기 126점, 직물영자 752점, 동아줄 삭 172점, 주머니 141점, 기타 금전지술, 목화솜, 홍전, 대영자가 확인되었다. 어보 직물의 문양, 구성형식 및 제작기술로 볼 때 조선 초기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대부분 17, 18세기의 유물로 살펴지나 상당부분 대한제국 시기의 직물을 사용한 것도 있어 새로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보와 관련된 직물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유물의 가치와 의미를 정리하였다.

1) 어보 장엄에 사용된 섬유유물은 그 갓춤과 형식에 있어 『嘉禮都監儀軌』, 『寶印所儀軌』 등에 기록된 어보포장 절차와 내용 및 형식면에서 일치하여 그동안 문헌으로만 이해되던 어보보자기와 부속품의 제작기술과 장엄형식을 실제유물로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2) 보자기에 사용된 직물은 紬, 無文緞, 文緞, 文綾, 英綃緞, 文紗, 元羅 등 조선 시대 대표적인 직물의 종류가 모두 나타나며 같은 평조직의 직물에서도 실의 굵기와 꼬임 등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외관과 태의 직물을 제작하였다. 특히 보자기직물은 출토복식과는 달리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완전한 색과 물리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문단 등에 보이는 식서 부분의 선명한 색의 대비와 이색단은 전통 문직물 대부분이 先染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직물제작기술사 및 복식사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어보 보자기 직물문양은 雲文, 花文, 龍文, 鳳凰文, 寶文, 花鳥文, 昆蟲文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운문은 25종 이상의 운보문이 사용되어 조선시대 운문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화려하게 장식된 각종 寶文과 선으로 표현된 원용문 등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었던 문양으로 조선시대 문양사 연구에 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4) 현재까지 일반 보자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궁에서 사용한 보자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어보 보자기는 宮褙의 구성특징과 시대별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상에서 종합해 볼 때 어보 직물유물은 어보 보자기의 제작기술과 宮褙의 장

염형식을 확인하고 고증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며, 16세기에서 국말까지의 직물제 직기술과 문양의 조형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복식사, 직물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어보관련 직물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사료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어보에 관한 유물을 일괄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내용 및 특징

1. 역사성

어보란 왕실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의식용 인장으로 종묘 신실 왼쪽 보장에 보관하였다. 어보의 구성은 어보, 보통, 보록, 어보 보자기, 보통 보자기, 보록 보자기, 사물쇠, 열쇠, 결영자, 의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왕실의 어보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부터 순종황제까지 27대에 걸친 왕, 왕비, 세자, 세자빈의 가례 길례 등 각종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인장 316과와 이와 관련된 부속물 등이 남아있다. 문헌기록에 나타난 어보는 366과이지만 현존하는 어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316과와 기타 박물관에 소장된 7과(국립박물관 4점 고려대박물관 2점 LACMA 1점)를 포함하여 모두 323과가 남아있다.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어보를 썼던 보자기와 영자 등의 섬유류 유물은 총 2266점으로 보자기 903점, 영자 759점, 주머니 114점, 끈 168점, 그 외에 금전지술, 목화솜, 홍진, 대영자 등이 남아있다. 이는 조선왕실의 뛰어난 포장문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각각의 보자기에 사용된 다양한 무늬의 비단들은 조선시대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자와 어보 보자기 등의 섬유류 유물들에 관하여 『의궤(懿軌)』에 제작하기 위한 재료와 치수는 물론 포장 방법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었으므로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영자와 보자기의 문헌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자(纓子)는 인장에 연결된 실로 만든 실영자와 보자기를 싼 후에 묶어주는 영자가 있다. 인장 영자의 형태는 붉은색 영자를 각 1건씩 다는데, 보통 붉은색의 견사인 홍진사(紅眞絲), 또는 홍융모사(紅絨冒絲)로 만들며, 안에 홍향사(紅鄉絲)를 심사(心絲)로 넣고, 밖으로 홍진사를 엮어가며 원다회(圓多繪)를 만든다고 기록되었다. 영자의 길이는 1600년대와 1700년대 초까지는 2척(尺)으로 시작하여 점점 길어져서 1882년의 기록에는 6척(尺)5촌(寸)까지 되었다.

보자기를 짜서 묶던 영자(纓子)는 직물로 만든 영자와 실을 꼬아 만든 결영자 두 가지가 있다. 문헌에는 직물영자의 경우 옷감의 색과 종류 영자의 길이, 너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은 모두 자색이며 소재는 자적초(紫的綃)가 가장 많고, 그 외 자적주(紉的紉), 자적정주(紉的鼎紉), 자적경광주(紉的輕光紉) 등의 평조직 주(紉)가 많이 사용되었다. 결영자의 기록은 1759년에 처음 보이는데 보록을 짜는 보자기를 묶는 끈으로 ‘홍진사(紅眞絲) 삼갑삭(三甲索)’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었다. 즉 붉은색 비단실 세겹으로 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기에는 보통을 짠 보자기를 묶을 때에도 ‘홍진사 삼갑삭’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됨)

② 어보 보자기는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인장을 짜던 보자기, 둘째 내함에 해당하는 보통을 짜는 보자기, 셋째 외함에 해당하는 보록 또는 주룩을 짜던 보자기이다. 보자기에 사용된 소재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장을 짜는 보자기는 모두 솜을 둔 겹보자기로 만들었으며 소재는 최상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종류에는 유문홍단(有文紅段), 홍운문단(紅雲文緞), 다홍운문대단(多紅雲文大段), 대홍운문단(大紅雲文緞), 대홍운문대단(大紅雲文大緞), 홍운문한단(紅雲文漢緞)등 모두 홍색 계통의 구름무늬가 시문된 단이 쓰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조 35년(1759)에는 홍광적(紅廣的)이 사용되었고 순조 19년(1819)에는 홍화주(紅禾紉)등이 사용되었다.

보통 보자기도 솜을 둔 겹보자기로 어보 보자기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으며 소재는 유문홍단(有文紅段), 다홍대단(多紅大段), 다홍운문대단(多紅雲文大段), 대홍운문단(大紅雲文緞), 대홍운문대단(大紅雲文大緞) 등 인장을 짠 보자기와 같은 운문단이 사용되기도 하고, 홍방사주(紅方紗紉), 대홍주(大紅紉), 홍화주(紅禾紉)등 평직물도 많이 쓰였다. 1897년과 1906년에는 홍방사주와 함께 첩금(貼金)6첩, 명교(明膠), 아교(阿膠) 등의 기록이 있어 평견직물에 금박한 보자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록 보자기는 대부분 홑 보자기이며 치수가 가장 크다. 주로 평직으로 제작한 홍정주(紅鼎紉), 홍방사주(紅方紗紉), 홍주(紅紉), 대홍주(大紅紉)등을 사용하였으며 간혹 유문노주주, 유문홍단, 다홍대단, 홍운문단 등의 고급 비단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

2. 학술성

① 제작시기 : 이번에 조사한 어보를 짰던 보자기와 영자 등의 유물은 17세기 이후의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어보의 장엄형식과 소재, 크기, 포장 방법 등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의궤에 기록된 형식과 같이 보자기는 홍색을 기본색으로

하여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보를 쓴 작은 크기의 겹보자기, 보통을 쓴 중간 크기의 겹보자기, 보록을 쓴 100cm 이상의 커다란 홑 보자기로 구성되었다. 영자도 문헌에 기록된 형식과 같이 자색을 기본색으로 하였으며 보자기의 네 귀퉁이와 영자 끝에는 남색 용사로 만든 금전지가 달려있다. 그러나 어보의 해당 왕조에 비하여 보자기는 후대에 새롭게 제작된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직물무늬의 조형특성과 제작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보자기의 가장 빠른 것은 17세기의 것이며, 그 이후 18, 19세기의 것이 매우 많고 몇 건은 대한제국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므로 조선 전기의 어보를 썼던 보자기는 전쟁이나 그 외에 오랜 세월이 경과에 따른 손상 등의 이유로 후대에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직물 종류 : 보자기와 영자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는 수자직(5매 수자직, 8매 수자직) 으로 제작된 문단과 무문단이 전체의 1/2정도가 조금 못되고, 평직으로 제작된 주, 초 등이 전체의 1/2정도가 되며 그 외에 능직으로 제작된 문능, 평직과 능직으로 제작된 영초단, 평직과 익조직으로 제작된 향라, 문사 등이 있다. 이러한 직물의 종류는 문헌에 기록된 직물의 종류와 큰 범위에서 일치하지만 문능, 향라, 문사, 영초단과 같은 소수의 직물들은 문헌기록에는 없지만 각 시대별로 유행하였던 옷감을 일부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능은 17세기에 유행하는데 이 유물에서도 17세기의 어보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17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에 유행하였던 향라 역시 숙종 무렵의 어보용 영자에 사용되었으며, 19세기에 유행하였던 영초단 역시 이 무렵의 어보용 영자에 사용되어 직물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③ 직물 무늬 : 보자기에 사용된 직물의 무늬에 관하여 의궤에는 무늬가 없는 직물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색 운문단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있다. 본 유물에서도 무늬가 있는 직물은 운보문(운문포함)이 가장 많아 전체의 2/3가 넘는다. 그 다음으로 절지화문, 만초연화문, 만초모란문, 도류불수문, 국화금박문이 많고 그 외에 팔길상문, 팔실선문, 화봉문, 접문, 매화문, 원용문 등이 약간씩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헌에는 운문 이외에는 다른 무늬의 언급이 없으나 실제로 유물조사에서는 인조대의 보자기부터는 각각의 시대에 유행하였던 무늬가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원래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운문 이외에는 다른 무늬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대단(大緞), 문단(文段) 정도로만 기록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가례도감 의궤에서도 운문단만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별 조형특성에 적합한 직물무늬를 사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조비 인렬왕후와 장렬왕후의 어보 보자기에 보이는 천화봉문은⁶⁴⁾ 17세기에 매

64) 문화재청 고궁박물관편(2011). 조선왕실의 어보 제 3권. 121쪽, 135쪽.

우 유행하였던 무늬이다. 네 종류의 꽃 사이로 봉황이 나르는 무늬로 1633년에 사망한 동래정씨의 유물과 신경유의 유물 비롯하여 단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광해군비의 저고리 등에 보이는 17세기의 대표적인 무늬이다. 철종, 철종비 철인왕후나 고종의 어보 보자기에서 발견된 실구름 무늬 바탕에 팔길상무늬 혹은 팔길선무늬들이 시문된 무늬도⁶⁵⁾ 실제로 철종대에서 고종대에 생존하였던 안동김씨 유물 등에서 많이 보이는 무늬이다. 문조비 신정왕후의 보자기, 고종의 어보 보자기, 순종의 순명황후 보자기에 보이는 도류불수무늬도⁶⁶⁾ 석류, 천도, 불수로 구성된 장수와 다복을 상징하는 조선 말기에 유행하였던 무늬이다. 단 고종 보자기의 무늬에는 도류불수 이외에 박쥐를 추가하여 복을 더욱 강조한 새로운 무늬구성도 보인다. 고종비 명성황후와 순종비 순명황후의 어보 보자기에 보이는 꼬리가 떨어진 사합여의형 구름무늬는⁶⁷⁾ 고궁박물관의 영왕의 홍룡포와 세종대 박물관의 순종의 황룡포 유물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19세기 말기에 시작된 조형특성이므로 시대특성이 잘 맞는다. 선조비 의인왕후의 보자기에 쓰인 매화와 새의 조화를 이룬 무늬나⁶⁸⁾ 인종비 인성왕후의 보자기에 쓰인 매화무늬 역시 매화무늬가 유행하였던 17세기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시대별 조형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조비 의해왕후 보자기, 문종 어보 보자기등은 동일한 무늬 완전히 동일한 운문단을 사용하였는데⁶⁹⁾ 이 구름의 조형특징은 운두와 꼬리의 비율로 보아 조선 후기의 구름 무늬에 해당한다. 같은 구름 무늬라 하더라도 조선시대동안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조형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초기의 이보자기들은 훗날 새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고종비 명성황후의 꼬리가 떨어진 구름무늬의 운문단도⁷⁰⁾ 말기의 조형특징인데 한참 앞 시기의 영조비 정순왕후의 보자기, 장조의 보자기 등에 사용되었으니 이는 영조비와 장조의 것을 후대에 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국화 금박문 역시 직물 사적 관점으로 볼 때 19세기 조형특성이므로 문조비 신정왕후, 현종, 철종, 고종, 순종유물에 나타난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으나 더 이른 시기의 예종과 인조의 보통보자기, 효종비 인선왕후의 보자기, 숙종과 숙종비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보자기에도 나타나 이것 역시 후대에 새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5) 위의 책, 487쪽, 490쪽, 509쪽.

66) 위의 책, 400쪽, 407쪽, 426쪽, 509쪽, 534쪽.

67) 위의 책, 525쪽.

68) 위의 책, 91쪽.

69) 위의 책, 22쪽, 26쪽, 38쪽.

70) 위의 책, 235쪽.

직물 무늬의 조형성에서 밝힌바와 같이 직물사적 관점으로 볼 때 보자기나 영자의 직물들은 인장의 왕조와 시대별 조형성이 맞게 나타난 것도 있고 일부는 동시대에 제작된 것은 아니고 재제작이 필요한 어떤 시점에 새롭게 만든 것들도 비교적 많이 있다. 그러나 재제작한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태조의 4대조인 목조부터 순종황제까지 27대에 걸친 왕, 왕비, 세자, 세자빈의 가례 길례 등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의 포장물인 보자기, 영자, 주머니 등의 이천 여 점의 일괄 유물은 조선왕실의 뛰어난 포장문화를 알 수 있는 통시성을 갖춘 중요한 문화재이다. 비록 후대에 재제작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자와 어보 보자기 등의 섬유류 유물들에 관하여 중요한 문헌자료인 『의궤(懿軌)』에 제작하기 위한 직물 재료와 치수는 물론 포장 방법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기록내용과 남아있는 유물들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므로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보자기나 영자에 사용된 다양한 직물의 제작방법과 무늬의 조형성들이 조선시대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선왕조의 어보- 직물’ 자료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 내용 및 특징

1. 어보 보자기 유물에 대한 개요

조선왕실의 어보는 왕, 왕비, 왕세자가 국가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인장이자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여러 겹의 보자기와 함에 엄중히 보관되어 왔다. 왕실 인장을 보호하던 보자기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어보 자체를 감싸던 어보보자기, 어보보자기에 싸인 어보를 넣은 보통을 싸던 보통보자기, 보통을 넣은 보록을 싸서 보관하던 보록보자기가 있으며, 이 보자기들의 부속물로는 내용물을 묶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던 영자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 중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된 보

자기들과 부속물을 관찰하고, 이 유물들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 관련 보자기들의 수는 어보보자기, 보통보자기, 보록보자기를 중심으로 총 903점에 달하며, 부속물인 직물영자 및 끈영자와 함께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 유물들에는 용도가 뚜렷한 보자기 외에도 간혹 용도 불명의 보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어보 관련 보자기의 종류에 따른 특징

어보보자기는 어보를 감싸던 가장 안쪽의 보자기이며 세 가지 보자기 중에서 가장 정교한 직물로 제작되었다. 크게 홑보자기와 솜보자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을 관찰한 결과 솜보자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물에 따라 다르지만 운보문(雲寶文)과 모란문은 곁감으로, 절지화문(折枝花文)은 안감으로 이용된 예가 많은데, 특히 운문과 보문이 조합된 운보문으로 대표되는 곁감의 직물문양은 조선왕실의례에 의거하여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제작했던 어보보자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보자기의 경우에는 금박으로 찍어서 소화문(小花文)을 표현한 솜보자기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진종비 효순황후, 장조, 예종, 인조, 정조, 순조의 보통보자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소화문 금박은 꽃잎이 겹이거나 또는 홑으로 된 국화문으로서 각 문양이 층층이 엇갈리는 단독문 형태이다. 금박은 간혹 운보문단이나 무문단 등의 다른 직물 위에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홍색 주(紬) 위에 찍은 것이 많았다.

그 밖의 보통보자기의 직물은 어보보자기처럼 운보문단, 모란문능, 잡보문과 조합된 모란문능, 절지화문능 등으로, 조선왕조의 어보 관련 보자기에 쓰인 직물의 전형적인 문양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다만 예종비 안순왕후의 보통보자기 안감인 화층문능, 인종비 인성왕후의 보통보자기 안감인 매화문능과 같은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 관련 보자기의 문양 중에서 비교적 드문 문양에 속한다.

가장 곁을 감싸는 보록보자기는 간혹 나타나는 문단과 문능 보자기 몇 점을 제외하면 무문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았다. 보록보자기의 일부는 두터운 합섬으로 제작된 것들이 있다. 본래의 것이 낙후되어 후대에 다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중량이 무거운 보록을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함을 중시하여 두터운 합섬을 사용하여 보록보자기로서의 효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어보 관련 보자기의 문양과 직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관련 보자기의 직물 문양으로는 운보문(雲寶文)이 가장 많으며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조선왕실의궤에 기록된 어보 관련 보자기의 직물과 일치하는 문양이다. 그러나 실물유물에서는 의궤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국화문 또는 보상화문으로 구성된 절지화문(折枝花文) 및 만초연화문 직물도 간간히 관찰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제작된 보자기가 경우에 따라 의궤의 기록과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직물자료들이자 왕실 생활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또다른 어보 관련 보자기의 직물문양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운보문 외에도 구름부분을 실처럼 표현하고 중국 설화의 팔선(八仙)이 지니고 다니던 상징물을 도안화하여 첨가한 암팔선문(暗八仙文)도 몇 점 존재한다. 그 외에 보문이 없는 운문, 봉황운보문, 화조문, 화봉문, 매화문, 실구름과 어우러진 나비문, 산다화문, 원문 가운데에 용을 배치하여 문양을 선처럼 짜넣은 대형 원룡문(圓龍文) 보자기도 보이지만 조사대상인 유물들 중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보자기들을 구성하는 직물은 정교하게 제작된 단, 능, 주가 대표적이다. 시기적으로는 1600년대 이후부터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직물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인조부터 영조 대에 해당되는 보자기들은 직물의 문양과 상태로 볼 때 해당 시기에 제작된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한제국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직물로 만든 보자기들은 후대에 와서 필요에 따라 다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직물 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은 단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운보문단이며, 간혹 만초연화문단, 도류불수문단, 드물게 근대식 모본단도 관찰되었다. 운보문단 중 철종의 금보와 보통을 썼던 보자기의 직물은 운보문단 중에서도 조선 관리의 단령에도 이용되었던 전형적인 운보문단 형식이다. 능의 경우에는 절지보상화문단과 모란문단, 주는 대부분 평조직에 무문(無文)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물의 조직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들면 경사방향의 결이 문양에 나타나는 영초단 및 위사와 경사의 색을 달리하여 제작한 양색단이 간간히 나타나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전자는 문조비 신정왕후의 도류불수문 영초단 보자기, 후자는 영조의 왕세제 옥인을 썼던 홍색 만초연화문 솜보자기와 영조비 정성왕후의 홍색 만초연화문단 솜보자기, 순조비 순원황후의 보자기 등에서 관찰되었다.

문양이 없는 보자기는 대부분 견의 일종으로서 세주(細紬) 또는 장조의 세자 옥인을 썼던 홍색 주 솜보자기 직물처럼 쟁처리하여 직물의 태를 향상시킨 명주이다. 드물게 존재하는 홑보자기에서는 쟁치기 처리와 함께 가장자리 홈질 기법이 관찰되었다.

본 유물들 중에서 인조비 인열왕후의 보자기처럼 사양화와 봉황 문양이 결합되어 인조 재위기의 직물 문양의 특성이 드러나는 유물, 1800년대의 문양 특성으로서 이전과 달리 운문이 사선방향으로 배열된 유물 및 봉황문이 포함된 잡보 운문 단으로 제작된 유물, 고종 재위기의 직물 특성을 보여주는 유물 등은 시대적인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당시의 직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보자기에서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궁중의 필요에 따라 다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어보 관련 보자기는 홍색계열로 이루어졌고 상당수가 홍화를 중심으로 한 붉은 계열의 천연염료로 염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종 때에 다량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로 걸은 분홍, 안은 청색 도류불수문 영초단을 단 문조비 신정왕후의 보자기, 또는 합성섬유로 제작된 듯한 일부 보록보자기처럼 후대에 제작된 듯한 일부 보자기에는 채도가 선명한 합성염료를 사용한 예도 발견되었다. 고종 재위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금속 내함의 안을 바른 붉은 직물에서도 화학염료가 이용되어 결합된 예가 존재하여, 위의 보자기가 제작될 무렵에는 왕실에서 중요한 용도로 쓰일 직물로도 화학염료를 사용한 직물을 선택하였거나 직물에 화학염료를 이용하는 빈도 자체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대상인 보자기 중에는 명성황후가 며느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보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왕실생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4. 영자를 포함한 보자기의 부속물

보자기의 네 귀퉁이 부분에 부착된 금전지는 간혹 금박이 탈락된 것이 존재하나 대부분 상태가 매우 양호한 채로 남아 있었고, 금전지와 함께 보자기 귀퉁이를 장식하는 술은 남색 푼사 또는 끈사로 만든 술이 대부분이며 이것은 문헌에 기록된 남용사(藍絨紗)에 해당되는 색상이지만, 간혹 짙은 녹색 술인 경우도 있었다. 금전지와 술의 형태는 이러한 장식이 달린 모든 보자기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어보보자기 귀퉁이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보자기의 부속품인 직물영자와 끈영자도 모두 고궁박물관의 기록과 일치하게 보존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자기에 부착되어 있는 영자 외에 보자기와 따로 떨어져 있는 직물영자는 대부분 홍자색 또는 자색으로 염색된 명주 또는 향라로 제작되었고, 드물게 문사(文紗)도 보인다. 보자기에도 다수 나타나는 주 직물과는 달리 향라 직물은 영자에만 쓰였다. 술 장식은 금전지와 함께 부착되었고, 간혹

녹색의 술이 보이는 것 외에는 남색 끈사 또는 끈사 술이 많았다.

끈영자는 탈색된 듯한 황색 몇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선명한 홍색의 실로 만들어졌고 삼갑삭 형식으로 꼬아져 정교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끈영자의 형식 역시 문헌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선왕실의궤에서 어보 관련 보자기의 문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운보문 외에도 실제 보자기 제작에 선택되었던 절지화문, 월룡문, 나비문, 매화문, 화봉문, 화조문, 박쥐문, 도류불수문, 암팔선문 등이 확실하게 보존된 본 유물들은, 왕실에서 귀하게 여기던 길상문의 종류와 직물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물 고증 자료이다. 또한 이 보자기들에는 해당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직물 또는 왕실의 어보를 보관하는 데에 적합한 고급 직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직물사 방면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자기 중에는 내용물의 외곽모서리에 의해 사각형 모양으로 색이 탈색되거나 주름이 형성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생생하게 확인되는 유물도 상당수이며, 이러한 흔적은 전통 왕실생활문화의 단편으로서 본 조사대상 유물들의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부속물에 해당되는 직물영자와 끈영자 역시 일관되고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직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어보, 보통, 보록을 싸는 보자기는 일반적으로 홍색계열이지만 간혹 짙은 짙은 분홍색이며 안감이 푸른색인 보자기가 보이는데, 이는 후대에 대량으로 제작된 보자기 중 한 가지로 판단되며 제작 당시의 의료 요건과 생활상을 드러내 주고 있다.

본 조사대상 유물들에는 문헌에 기록된 형태와 일치하는 유물이 다량으로 포함되었고, 미적인 가치가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동시에 실제로 사용된 흔적들도 다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왕실의 어보보자기, 보록보자기, 보통보자기의 전형적인 여건을 갖춘 유물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보자기와 부속물들은 국가적 보물이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려된다.

<붙임>

조선왕조 어보 및 관련 유물 목록

연번	유물번호	명칭	수량	재질	형태	제작시기
1	어보1-1	목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2	어보103-1	목조비 효공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3	어보2-1	익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용도불명의 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4	어보104-1	익조비 정숙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 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5	어보3-1	도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6	어보105-1	도조비 경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7	어보4-1	환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8	어보106-1	환조비 의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3,용도 불명의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9	어보5-1	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3년
10	어보6-1	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2년
11	어보107-1	태조비 신의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2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2	어보108-1	태조비 신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1,의향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3	어보7-1	정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3,결영자6,의향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1년
14	어보109-1	정종비 정안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2,보통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1년
15	어보8-1	세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50년
16	어보110-1	세종비 소헌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결영자3,풀숨(설면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46년
17	어보9-1	문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2,용도 불명의 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52년
18	어보111-1	문종비 현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50년
19	어보112-1	문종비 현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54년
20	어보114-1	세조비 정희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2,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457년
21	어보115-1	세조비 정희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471년
22	어보11-1	예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2,보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69년

			록보자기1	구리,은 등)		
23	어보10-1	예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의향	금속(아연,구리 등)	귀뉴	1470년
24	어보116-1	예종비 장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72년
25	어보118-1	예종비 안순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471년
26	어보117-1	예종비 안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의향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99년
27	어보12-1	성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결영자2접탈락),보록보자기2,의향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95년
28	어보119-1	성종비 공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74년
29	어보121-1	성종비 정현왕후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2,인록보자기2,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497년
30	어보120-1	성종비 정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30년
31	어보13-1	증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2,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45년
32	어보122-1	증종비 단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39년
33	어보124-1	증종비 장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47년
34	어보125-1	증종비 문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54년
35	어보123-1	증종비 문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65년
36	어보14-1	인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45년
37	어보126-1	인종비 인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열쇠술1,시가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54년
38	어보15-1	명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5년
39	어보127-1	명종비 인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569년
40	어보16-1	선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604년
41	어보17-1	선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08년
42	어보18-1	선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7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2년
43	어보129-1	선조비 의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600년
44	어보128-1	선조비 의인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00년
45	어보130-1	선조비 의인왕후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용도 불	옥석(사문석	귀뉴	1604년

		옥보	명의 보자기1,결영자1	계열)		
46	어보131-1	선조비 의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 불명의 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10년
47	어보132-1	선조비 의인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2년
48	어보134-1	선조비 인목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02년
49	어보133-1	선조비 인목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04년
50	어보135-1	선조비 인목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관 계열)	귀뉴	1610년
51	어보137-1	선조비 인목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관 계열)	귀뉴	1624년
52	어보136-1	선조비 인목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32년
53	어보138-1	선조비 인목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구리,아연 등)	귀뉴	1892년
54	어보19-1	원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2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32년
55	어보139-1	원종비 인현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32년
56	어보20-1	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49년
57	어보21-1	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0년
58	어보141-1	인조비 인열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23년
59	어보140-1	인조비 인열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36년
60	어보142-1	인조비 인열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0년
61	어보144-1	인조비 장렬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38년
62	어보146-1	인조비 장렬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9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61년
63	어보147-1	인조비 장렬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86년
64	어보143-1	인조비 장렬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8년
65	어보145-1	인조비 장렬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0년
66	어보22-1	효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0년
67	어보149-1	효종비의 인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0년
68	어보150-1	현종비 명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오보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4년

69	어보23-1	숙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2,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13년
70	어보24-1	숙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0년
71	어보25-1	숙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3년
72	어보26-1	숙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73	어보152-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76년
74	어보151-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81년
75	어보153-1	숙종비 인경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13년
76	어보154-1	숙종비 인경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8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22년
77	어보155-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3년
78	어보156-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79	어보157-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80	어보159-1	숙종비 인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694년
81	어보160-1	숙종비 인현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13년
82	어보161-1	숙종비 인현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22년
83	어보162-1	숙종비 인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84	어보163-1	숙종비 인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85	어보165-1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02년
86	어보164-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13년
87	어보166-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22년
88	어보168-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26년
89	어보169-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40년

90	어보170-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3,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40년
91	어보171-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47년
92	어보172-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1년
93	어보173-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2년
94	어보176-1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3년
95	어보174-1	숙종비 인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6년
96	어보167-1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7년
97	어보177-1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98	어보175-1	숙종비 인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99	어보28-1	경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4년
100	어보178-1	경종비 단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2년
101	어보180-1	경종비 단의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26년
102	어보179-1	경종비 선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2년
103	어보183-1	경종비 선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6년
104	어보184-1	경종비 선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보통보자기2,결영자2,의향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30년
105	어보30-1	영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40년
106	어보33-1	영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2년
107	어보34-1	영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6년
108	어보35-1	영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3,결영자5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72년
109	어보36-1	영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76년
110	어보31-1	영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111	어보32-1	영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기1	구리,은 등)		
112	어보37-1	영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113	어보187-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26년
114	어보188-1	영조비 정성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40년
115	어보189-1	영조비 정성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52년
116	어보190-1	영조비 정성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3,결영자7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56년
117	어보186-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7년
118	어보191-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2년
119	어보192-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120	어보193-1	영조비 정성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78년
121	어보194-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84년
122	어보195-1	영조비 정성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123	어보198-1	영조비 정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59년
124	어보197-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72년
125	어보199-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76년
126	어보201-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78년
127	어보202-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3년
128	어보203-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4년
129	어보204-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7년
130	어보205-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95년
131	어보206-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02년
132	어보208-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04년
133	어보207-1	영조비 정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05년

134	어보200-1	영조비 정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05년
135	어보209-1	영조비 정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136	어보43-1	진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137	어보44-1	진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138	어보211-1	진종비 효순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6년
139	어보210-1	진종비 효순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140	어보46-1	장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9년
141	어보45-1	장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2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42	어보217-1	장조비 현경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9년
143	어보216-1	장조비 현경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44	어보55-1	정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00년
145	어보56-1	정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9년
146	어보54-1	정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47	어보227-1	정조비 효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78년
148	어보231-1	정조비 효의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02년
149	어보228-1	정조비 효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21년
150	어보229-1	정조비 효의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9년
151	어보226-1	정조비 효의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52	어보59-1	순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27년
153	어보60-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2,보통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35년
154	어보62-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48년
155	어보63-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3년

156	어보61-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7년
157	어보64-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7년
158	어보65-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8년
159	어보66-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1년
160	어보67-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2년
161	어보68-1	순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9년
162	어보58-1	순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2,의향1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63	어보233-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02년
164	어보234-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2,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27년
165	어보235-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37년
166	어보237-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41년
167	어보238-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48년
168	어보239-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1년
169	어보240-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2년
170	어보241-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7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3년
171	어보236-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7년
172	어보243-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7년
173	어보244-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8년
174	어보245-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1년
175	어보242-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2년
176	어보246-1	순조비 순원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9년
177	어보232-1	순조비 순원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2,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78	어보71-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35년
179	어보72-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48년

			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2	구리,은 등)		
180	어보73-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3년
181	어보74-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6년
182	어보75-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7년
183	어보76-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9년
184	어보77-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5년
185	어보79-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7년
186	어보80-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79년
187	어보81-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83년
188	어보78-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87년
189	어보82-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190	어보83-1	문조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2년
191	어보70-1	문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899년
192	어보84-1	문조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3	옥석(백운석계열)	용뉴	1902년
193	어보249-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3년
194	어보250-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9년
195	어보251-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3년
196	어보252-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6년
197	어보253-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6년
198	어보254-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기타석재	귀뉴	1867년
199	어보255-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6	기타석재	귀뉴	1868년
200	어보256-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69년
201	어보257-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73년

202	어보258-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875년
203	어보260-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기타석재	귀뉴	1877년
204	어보259-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878년
205	어보261-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7	기타석재	귀뉴	1879년
206	어보262-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기타석재	귀뉴	1883년
207	어보263-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기타석재	귀뉴	1886년
208	어보264-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887년
209	어보265-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888년
210	어보266-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3	옥석(백운석 계열)	귀뉴	1888년
211	어보267-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백운석 계열)	귀뉴	1890년
212	어보248-1	문조비 신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213	어보268-1	문조비 신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0년
214	어보269-1	문조비 신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2년
215	어보247-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백운석 계열)	용뉴	1899년
216	어보270-1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용도불명의보자기1	옥석(백운석 계열)	용뉴	1902년
217	어보88-1	헌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49년
218	어보89-1	헌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3년
219	어보90-1	헌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6년
220	어보87-1	헌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용뉴	1908년
221	어보273-1	헌종비 효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37년
222	어보274-1	헌종비 효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43년
223	어보275-1	헌종비 효현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 계열)	용뉴	1851년
224	어보276-1	헌종비 효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3년

			영자3			
225	어보277-1	헌종비 효현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6년
226	어보271-1	헌종비 효현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227	어보279-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53년
228	어보281-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8	기타석재	귀뉴	1859년
229	어보282-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3년
230	어보283-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기타석재	귀뉴	1866년
231	어보284-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기타석재	귀뉴	1866년
232	어보285-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6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73년
233	어보286-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88년
234	어보287-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90년
235	어보288-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0년
236	어보289-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2년
237	어보278-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기타석재	귀뉴	1897년
238	어보290-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900년
239	어보291-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902년
240	어보280-1	헌종비 효정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904년
241	어보272-1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242	어보93-1	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3년
243	어보94-1	철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4년
244	어보95-1	철종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5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6년
245	어보92-1	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246	어보294-1	철종비 철인왕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3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1년
247	어보293-1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3년

248	어보295-1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6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66년
249	어보296-1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7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66년
250	어보297-1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73년
251	어보292-1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8년
252	어보98-1	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73년
253	어보97-1	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88년
254	어보99-1	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시가1,보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0년
255	어보100-1	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2년
256	어보96-1	고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919년
257	어보300-1	고종비 명성황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66년
258	어보301-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1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873년
259	어보302-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88년
260	어보303-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0년
261	어보304-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록보자기2,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2년
262	어보299-1	고종비 명성황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용뉴	1897년
263	어보298-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97년
264	어보305-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0년
265	어보306-1	고종비 명성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계열)	용뉴	1902년
266	어보101-1	순종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결영자6	옥석(백운석계열)	귀뉴	1926년
267	어보309-1	순종비 순명효황후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97년
268	어보307-1	순종비 순명효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보통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2,의향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904년
269	어보308-1	순종비 순명효황후 옥보	어보1,보통1,보록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2,보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928년
270	어보310-1	영친왕 금보	어보1,보통1,보록1,보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보통보자기1,보록보자기1,결영자1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용뉴	1907년
271	어보113-1	문종비 현덕왕후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2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직뉴	1441년
272	조각류	예종비 장순왕후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보	주석	직뉴	1460년

	1138-1	백철인	자기3,결영자1			
273	어보148-1	인종비 인성왕후 은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	구리,은 등	직뉴	1524년
274	어보27-1	숙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1,어보보자기1,인 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67년
275	어보158-1	숙종비 인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결 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71년
276	어보29-1	경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열쇠(자물쇠)1,어보보자 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90년
277	어보182-1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 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696년
278	어보181-1	경종비 단의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 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18년
279	어보185-1	경종비 선의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 록보자기1,결영자2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18년
280	어보38-1	영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 록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12년
281	어보196-1	영조비 정성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 록보자기2,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21년
282	어보41-1	진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25년
283	어보40-1	진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29년
284	어보42-1	진종 은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 영자3	은,구리 등	귀뉴	1776년
285	어보213-1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 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27년
286	어보212-1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35년
287	어보214-1	진종비 효순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 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52년
288	어보215-1	진종비 효순왕후 은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 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 기1,결영자7	은제(은,구리 등)	귀뉴	1776년
289	어보48-1	장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1,인통보자기1,인 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36년
290	어보49-1	장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 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62년
291	어보220-1	장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 기1,인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76년
292	어보51-1	장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 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83년
293	어보52-1	장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 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 영자3	옥석(사문석 계열)	귀뉴	1784년

294	어보47-1	장조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4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795년
295	어보53-1	장조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5년
296	어보219-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44년
297	어보218-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62년
298	어보50-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시가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4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78년
299	어보222-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3년
300	어보223-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4년
301	어보224-1	장조비 현경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6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95년
302	어보221-1	장조비 현경왕후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16년
303	어보225-1	장조비 현경왕후 금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2,결영자6	금속(금,수은,구리,은 등)	귀뉴	1855년
304	어보343-1	의소세손 옥인	어보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51년
305	어보344-1	의소세손 옥인	어보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52년
306	어보57-1	정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59년
307	어보39-1	정조 은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2	은,구리 등	귀뉴	1776년
308	어보230-1	정조비 효의왕후 은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은,구리 등	귀뉴	1762년
309	어보341-1	문효세자 옥인	어보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4년
310	어보342-1	문효세자 옥인	어보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786년
311	어보69-1	순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00년
312	어보85-1	문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어보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10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12년
313	어보86-1	문조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용도불명의보자기3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30년
314	어보91-1	헌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인록자물쇠(열쇠)1,시가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결영자5	옥석(사문석계열)	귀뉴	1830년
315	어보102-1	순종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인록보자기1	옥석(백은석계열)	귀뉴	1875년
316	어보311-1	순종비 순명왕후 옥인	어보1,인통1,인록1,어보보자기1,인통보자기1,용도불명의보자기1,결영자1	기타석재	귀뉴	1882년

21.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陝川 海印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가. 검토사항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인사주지로부터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07.06.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08.11.25, '09.07.21~22)를 실시하였음.
-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10.07.26) 실시 결과, 목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됨에 따라 비파괴검사 실시('11.10.25) 후 소위원회를 개최('11.11.28)하였으며 법보전 불상 안의 목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결되어 보류됨.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대상문화재 개요>

- 지정현황 : 비지정 1구, 지방유형문화재 1구
- 명 칭 :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경남 유형문화재 제41호. 1972.2.12.지정)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 수량 : 2구
- 규격
 -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높이 126cm, 무릎 폭 96.5cm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높이 125cm, 무릎 폭 97.2cm
- 재질 : 향나무
- 제작연대
 -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통일신라(883년 추정)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나말여초 추정

<추진 경과>

- 199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 시 복장 일부 확인
- 2005.07.04. 해인사, 통일신라 목조불상 확인 발표
- 07.28. 해인사·통도사박물관, 비로자나불 2구의 복장유물 조사
- 2007.06.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해인사→문화재청)
- 08.30~31. 예비조사(서병패, 손영문)
- 10.16. 실무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박물관 담당자)
- 11.13~15. 1차 합동조사(전적류 조사 완료)
- 2008.01.9~11. 2차 합동조사(후령통, 묵서명, 직물류 조사 완료)
- 11.25. 지정조사(조각분야)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2009.07.21~22. 지정조사(복장유물) : 송일기, 신승운, 서병패, 손영문
- 2010.07.27. 지정추진 검토 전문가회의 : 김리나, 최성은, 김춘실, 정은우, 손영문
 - ※ 결과 : 묵서명을 비롯하여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10.25.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 비파괴검사 실시(유양원자)
- 2011.11.28.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 불교조각 : 김리나, 문명대, 배재호, 손영문, 정은우
 - 고문헌 : 남풍현
 - 불교사 : 김상현, 남동신
 - 서예사 : 송하경, 선주선
 - 목재분석 : 박상진
 - X-ray분석 : 임남수
- ※ 결과 :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 추진

다. 내용 및 특징

<불상>

- 법보전 불상은 높이 126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7.3cm이며, 대적광전 불상은 높이 125cm, 어깨 폭 63.5cm, 무릎 폭 95.5cm로 거의 같으며, 머리의 표현, 착의 형식, 수인, 형태나 비례, 조형미 등에서 두 구의 불상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형태적·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 상호 : 양감이 강조되면서 사유에 잠긴 둥근 얼굴은 통일신라 석굴암 석조여래좌상,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불상을 따르면서도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9세기대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확인됨.
- 귀 : 어깨까지 닿을 듯하면서 귓볼에 물방울 모양의 홈이 파져 있는 입체적인 귀의 형태는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임.
- 수인 : 치켜 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가슴선 부근에 둔 형태의 지권인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8세기 후반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임.
- 배면 처리 : S자형으로 반전하며 드리워진 대의의 끝자락이 왼쪽 측면으로 둥글게 돌아 간 모습은 창원 불국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통일신라 시대적 요소임.

<묵서 해제>

- 좌측행 “誓願大角干主燈身賜弥右座妃主燈身..月中”
 - 誓願은 “서원한”, “서원하기를”, “맹세해 바라기를”, “맹세해 바라오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大角干과 妃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로 함.
 - 賜는 “~이다”, “얻다”, “주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弥는 “~며”라는 이두로 파악할 수 있음.
 - 燈身은 “깨달음”을 뜻하는 당시에 사용한 불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몸에 빛(等身)”이라고 풀어 해제할 수도 있음.
- 우측행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 中和三年은 서기 883년이며, 此像夏節柒金着成은 이 불상은 하절에 금을 칠해 완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中和三年”이라는 연대, “賜弥”라는 신라식 한문, “大角干”이라는 신라식 호칭 등 특징은 통일신라임을 뒷받침할 수 있음.

<묵서 서체>

- 묵서에 쓰인 해서, 행서, 초서는 당시에 쓰였으며 오늘날에도 쓸 수 있는 서체임. 특히 “右座妃”와 같은 글자에서 당의 안진경체가 보인다고 해서 이 묵서를 쓴 시기가 통일신라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움.
- “月中”이라고 해석한 글자는 “得”, 혹은 “獨”의 초서라고 보여짐.

<목재 분석>

- 법보전 불상의 목서가 적힌 목재(1)와 그 옆 부분의 목재(2)를 각각 채취하여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 소장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를 이용한 연대분석을 수행한 결과, (1)과 (2)의 목재 연대는 같았으며, 연대는 AD 745~955년으로 추정되었음.
- 대적광전 불상도 안쪽의 목재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대는 AD950~1,090년으로 추정되었음.
- 목재 분석 결과,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비슷한 시기 혹은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 같음.

<X-ray 분석>

- 법보전 불상과 대적광전 불상은 모두 접목조 기법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나 상의 내부는 차이가 있음.
- 목재의 속파내기 기법
 - 법보전 불상의 내부는 매우 거칠게 속파내기를 한 것에 반해 대적광전 불상의 내부는 매우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음.
 - 대적광전 불상의 속파내기 기법은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1199년),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등 고려 조성 불상에서 보임.
- 목재의 접합방법
 - 법보전 불상은 굵은 꺾쇠를 많이 사용하여 목재를 연결하고 있는데 반해, 대적광전 불상은 꺾쇠는 적고 못을 많이 사용하였음.
 -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 꺾쇠는 이용하지 않고 어깨와 손목 등에 못을 이용하였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봉정사 관음상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 법보전 불상은 안면재가 가슴을 거쳐 상의 저부까지 이르고 있는데 반해, 대적광전 불상은 안면재가 흉부에서 그치고 복부재는 별재를 이용하여 만듦.
 - 법보전 불상은 오른팔의 어깨에 축의 잔해가 확인되는 데 반해, 대적광전 불상은 오른팔 뿐만 아니라 왼팔에도 축의 잔해가 3개나 확인되며, 그 접합

면이나 표면을 건칠과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 것과 같음.

- 대적광전 불상과 같이 복부채를 따로 이용하는 예는 봉정사 관음상에서도 확인되는데 이것은 법보전 불상에서 대적광전 불상을 거쳐 봉정사 불상에 이른 접목조 기법의 전개과정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봄.

○ 제작기법으로 보아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봉정사 관음상(1199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고려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법보전 불상은 대적광전 불상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봄.

※ 이상 내용 및 특징은 2011.11.28. 소위원회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마.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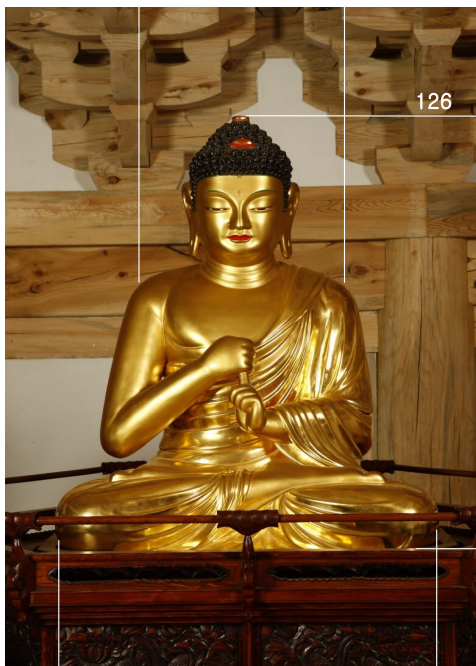
○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를 이용한 목재 연대 측정 결과, 법보전 불상의 목재 연대가 AD 745~955로 추정되고, X-ray 촬영을 통한 제작기법 분석 결과, 법보전 불상이 대적광전 불상보다 먼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보전 불상 안의 묵서명에 대한 육안 확인 후 대적광전 불상과 함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이상 검토의견은 2011.11.28. 소위원회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바. 의결사항

○ 원안 보류 - 소위원회 개최 후 재검토

법보전



대적광전



【보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1-06-037

1. 일본 궁내청 반환 조선왕조도서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1년 12월 6일 일본으로부터 반환 완료된 조선왕조도서(1,205책)의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개요
 - 조선왕조도서 1,205책(의궤167책, 이문박문반출도서938책, 증보문헌비고99책, 대전회통1책)
- 반환 경과
 - 2010.11.7. 양국 정상 문화재 반환 합의
 - 2010.11.14. 양국 외무장관 배석, 반환협정문 서명
 - 2011.4.27. 반환협정문 중의원 통과(일본의회 동의 절차)
 - 2011.5.27. 반환협정문 참의원 통과(일본의회 동의 절차)
 - 2011.6.10. 협정문 발효
 - 2011.10.19. 일본 총리 일부 도서 반환(5책)
 - 2011.12.6. 1,200책 반환
- 환수문화재 보존관리 검토(붙임 참조)

다. 향후계획

- 상대점검('12.2~4월)
- 1,205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적정 여부 조사(상반기)
- 이후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소위원회 개최,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관리단체 지정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

<붙임>

I. 환수 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

1 환수문화재 보존관리 기본 원칙

1] 소유자 관리 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33조는 소유자 관리 원칙 규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문화재보호법 제33조)
- 환수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개인 또는 민간단체 소유 문화재

-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대부분 기증을 통해서 환수한 문화재이며, 사립박물관 등에서 간혹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 문화재도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문화재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관리·보호함이 원칙

□ 국유 문화재

- 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1항)
-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지정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임·위탁관리 가능(동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1] 원형유지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문화재보호법 제3조)
- 환수문화재도 원형유지를 그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이 용이한 동산문화재와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 부동산 문화재의 특수성 감안

1] 국내 문화재와 동일 절차에 의한 보존관리

- 환수문화재의 경우도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과 국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관리
- 다만, 대여로 환수되는 문화재의 경우 대여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함이 원칙

2

환수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개요

1 국유문화재 보존 관리 근거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62조

-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함(제1항)
-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들어 관리청을 정함(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
-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1 국유문화재 보존 관리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환수문화재 국내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관처에서 수량, 내용 등 기초조사 및 응급 보존처리 ○ 고유제, 특별전시 등 개최(도록 등 발간) 	
↓		
1 보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처에서 문화재의 성질·상태에 따라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실시 	
↓		
1 학술조사 및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문화재 보관처에서 정밀 학술조사 및 기록 ※ 문화재청은 문화재연구소·고궁박물관에서 실시 ○ 조사보고서 발간 	
↓		
1 가치 규명 (문화재지정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가치가 있는 경우,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		
1 보관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보관시, 별도 절차 없이 보관·관리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타 국가기관을 보관·관리청으로 지정할 경우 - 보관처 지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임의사항) 	
↓		
1 대국민 홍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활용, 전문가 학술강연회 개최 ○ 인터넷을 통한 공개 서비스 등 실시 	

3

환수 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 절차 검토

1 문화재위원회 검토

- 현재 국유문화재 보관처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문화재청장이 관리청 지정 또는 위임·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음
- 보관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1호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함

◆ 기준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1호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보관처를 지정함

1 기간별 접근

- 단기적으로 국내 반입에서부터 전문가의 학술조사, 보존처리, 문화재의 성격 및 가치 규명, 지정 절차 수행, 기록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서 보존
- 중·장기적으로 보존환경 구비여부, 문화재 활용여건 및 국립박물관 등 국유문화재 보관기관 등과의 조율을 거쳐 보존처 지정

◆ 기준검토

- 단기적으로 환수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은 국가기관에서 보관
- 중장기적으로 보존환경 구비여부, 문화재 활용여건 및 국립박물관 등 국유문화재 보존기관 등과의 조율을 거쳐 보존처 지정

1 관리위임 및 관리단체 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국유문화재의 관리위임 및 위탁시 인건비 등 관리비 지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 강원도 삼척시에 관리위임한 준경묘, 영경묘와 문화재보호재단에 관리위탁한 보호재단 건물의 경우 관리비 국고보조
- 특히 동산문화재를 관리위임할 경우 관리기관에서 보관시설, 인건비 등 관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 그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기준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의해 국유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할 경우 보관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사전 검토 필요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4 환수 형태별 보관처 지정 검토

1 환수 형태별 현황

- 환수형태 :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대여(영구, 장기)로 구분
- 기증·대여·구입에 의한 환수
 - 기증(5,851점)·대여(22점)에 의한 환수는 기증자·대여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보관처 또는 활용 방안 등이 대부분 결정
 - 구입(641점)에 의한 환수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국가 예산을 통해 구입한 문화재로서 구입 기관에서 보관함이 원칙
-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
 - 정부간 협상에 의해 환수(2,026점)되는 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보관처 지정

1 검토내용

- 기증·대여·구입에 의한 경우는 보관처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적고,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문화재만 보관처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문화재 총 2,026점 중 북관대첩비(함경북도 김책시) 1점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박물관 842점, 국립고궁박물관 295점, 국립중앙도서관 852점, 우정박물관 36점 등 모든 문화재를 국가 기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

◆ 기준검토

-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국유문화재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

5

문화재 유형별 보관처 지정 검토

1 부동산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문화재보호법 제3조)으로 하고 있음
- 부동산 문화재는 특히 그 위치와 환경이 중요하므로 원래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 정부간 협상에 의해 환수된 북관대첩비는 원위치인 함경북도 김책시에 보존
- 다만, 원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훼손 및 도난 우려 또는 주변 환경 변화로 원위치 보존이 어려울 경우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보관처를 지정

◆ 기준검토

- 부동산 문화재는 원래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보관처 지정할 수 있음

1 동산 문화재

- 동산 문화재의 경우에도 원형유지 원칙은 적용되나, 장소성보다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상 원래 위치에 보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동산문화재의 원위치 보존 주장은 국립박물관 등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환수 국유문화재는 국가기관 보관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 앞으로 보관처 지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동산 문화재는 적합한 보관시설, 인력 및 예산확보, 대국민 서비스, 국립박물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관처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준검토 : 동산 문화재 보관처 지정시 고려사항

① 적합한 보존환경 구비 여부

- ❖ 당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 구비
- ❖ 연구 및 관리 인력, 예산 확보
- ❖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적합 여부

② 문화재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전시시설 등 대국민 서비스 시설 구비
- ❖ 기록화 사업과 문화재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 연구조사 및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위한 접근성

2. 증도가자(證道歌字)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 적정 여부 검토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기록문화재유산인 ‘직지(直指)’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고려금속활자라는 ‘증도가자’ 공개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 적정 여부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주요경과

- 2007.2.~3월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존재 확인
- 2007.11.~2008. 2.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분석조사
- 2010.9.2. 다보성미술관(김종춘)에서 ‘증도가자’ 언론에 공개
- 9.3.~10.15. 다보성미술관(대표 : 김종춘)에서 특별전시함.
- 12.2. KBS역사스페셜에서 방영
- 2011.6.17. ‘고려시대 금속활자 증도가자 학술 발표회’ 개최
- 9.20. 문화재청 국정감사 시 증도가자 문제 제기
- 10.6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접수
 - 명칭/수량 : 증도가자/101점
 - 소유자(보관처) : 이정애(다보성)
- 10.28. 증도가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
 - 참석자 : 남권희, 류부현, 김성수, 옥영정, 이승철
 - 회의결과 : 증도가자의 진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증도가자의 해외유출·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보관을 권고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야 함.

다. 향후계획

- 지정 가치 적정 여부 검토 소위원회 개최('11.12월말~'12.1월초)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문화재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개최.

3.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관리단체 지정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06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관리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개요
 - 지정현황 : 국보 제151-3호('07.02.26 / 국보 추가 지정)
 - 문화재명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 임시보관처 지정 : '07. 2.26 관보(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	조선시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국유(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시까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서 보존 관리함)

※ 학술연구용역 기간 동안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존·관리('06.10.12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12월 16일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므로 관리단체 지정을 해야 함.

다. 관리단체 지정 검토

- 관련 법규 : 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1항)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국유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하므로
관리단체 지정은 환수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기준 및 연구·전시·보존시설·
접근성 및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정
하는 방안 검토

라. 실록의 분산 보관 검토

- 조선시대 실록을 분산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사고의 효용성은 현대에 와서 상실하였으나 그 의미를 계승하여 실록을 분산 보관하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면 실록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고, 대국민 접촉면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74책(기 규장각 보관 27책+반환 임시 보관 47책) 관리 및 관리 방안 검토

마. 향후 계획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보고('11.12.13)
- 문화재청-규장각 업무 협의('11.12월~'12.1월)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의 관리단체 지정('12.2월)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

<붙임 1>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 환수 경과

□ 반환 전

- 2006. 3.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 제출
- 2003. 3. 15. 일본 도쿄대 관계자 면담(1차)
- 2006. 4. 17. 일본 도쿄대 관계자 면담(2차)
- 2006. 5. 15.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실록 ‘기증’ 의사 전달
 -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과 규장각 창립 230주년을 축하하며, 도쿄대가 소장하는 조선왕조실록 47책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하고자 함.
- 2006. 5. 27. 서울대 총장, ‘반환’ 수용의사 도쿄대에 전달
- 2006. 5. 31. 도쿄대학교 입장 발표 및 서울대학교 기자회견
 - 발표내용 :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함

□ 반환 후

- 2006. 7. 7.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책 서울 도착
- 2006. 7. 14. 서울대, 조선왕조실록 인도인수식 개최
- 2006. 7. 14.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47책 지정조사 실시
- 2006. 7. 19. 국보지정분과 위원회 개최(국보 추가 지정 검토)
- 2006. 07. 26 특별전 개최
- 2006. 07. 28 관보게재(지정예고)
- 2006. 09. 07 제2차 국보지정분과위원회 개최(국보 추가 지정 심의)
 -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에 추가 지정 의결
- 2006.10.12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관리기관 선정 검토 결과 보고
- 2007. 2. 21 관보게재
 - 고시내용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	조선시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국유(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시까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서 보존 관리함)

- 2009. 3. 25 ~ 2011. 12. 16 현재 학술연구용역 추진 중
 -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연구책임자 이상찬)
- 2011. 12. 1 학술심포지엄 개최
 - 주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주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환수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기준

◆ 환수 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 기준 ◆

- ① 국유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며, 국가기관에서 보존한다.
- ②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처를 지정한다.
- ③ 국유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할 경우 보관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보관처 지정은 장·단기적 관점을 고려한다.
 - 단기적으로 기초조사, 학술조사, 보존처리, 문화재의 가치 규명 및 지정 절차 수행, 기록화 등의 필수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서 보존한다.
 - 중·장기적으로 보존환경 구비여부, 문화재 활용여건 및 국립박물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존처를 지정한다.
- ⑤ 부동산 문화재는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원래 위치에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소 불명, 훼손·도난 우려,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원위치 보존이 불가할 경우 타 보관처를 지정할 수 있다.
- ⑥ 동산 문화재의 보관처 지정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적합한 보존환경 구비 여부
 - ❖ 당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 구비
 - ❖ 연구 및 관리 인력, 예산 확보
 - ❖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적합 여부
 - 문화재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전시시설 등 대국민 서비스 시설 구비
 - ❖ 기록화 사업과 문화재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 연구조사 및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위한 접근성